

아리슬

ARYSLE

V

許蓮

본 이야기는 [아리슬 ARYSLE: 작가판]입니다.

본 이야기는 련의 인격체로 봤을 때 빠진 부분, 참고문헌 쪽에서 누락 부분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야기는 거의 변한 게 없으며, 플롯 역시 같습니다. 다만, 각 장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웠습니다. 채운 부분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장(25쪽).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대한 구별.
- 1장(33쪽). 불연성 재료로 이루어진 운송수단을 노린 화재 테러 위험에 대한 가능성. 대비책.
- 2장(50쪽). 돈에 대한 생각 보충
- 2장(53쪽). 자동으로 알아서 연애하는 법.
- 3장(131쪽). 회귀하는 과정.
- 3장(158쪽). 종교와 수평적 신에 대한 정리.
- 4장(178쪽, 196쪽). Physical Process Unit, 이하 PPU에 대한 설계. 해당 칩에 대한 메모인보드 이식과 법제도화. 게임 개발을 내려놓는 부분.
- 4장(193쪽). 련의 꿈.
- 5장(242쪽). 련의 인격체가 하는 일.

이외에 참고문헌 쪽에서 빼먹은 자본이나 집, 치장품, 음식 등에 대해 오마주, 도움을 주신 분들 목록을 더 채워 넣었습니다.

이 글은 본디 저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공유합니다.

목차

여는 잔	4
첫 번째 잔. 물갈이	10
두 번째 잔. 환상, The Vell With Ari	39
세 번째 잔. 승부, 777	72
네 번째 잔. 현실, The Bell With Fox	166
다섯 번째 잔. 갈무리	209
닫는 잔	247

여는 잔

“어둡이여, 잠식하라.”

련은 악몽에서 깨었다. 련의 손가락은 꼬인 채 돌이 되어있었다. 그 돌덩이는 점차 커져 손과 팔목까지 잡아먹고 있어 글을 쓰기 힘들 정도였다.

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날 자신이 놓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았다. 그리고 몇몇 개의 기억을 놓쳤던 것을 생각해내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아예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련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설과 함께 기억 저편으로 여정을 떠났다.

도착한 한설은 잠시 도시를 훑어보았다. 그 도시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건물은 모두 알 수 없는 식물과 넝쿨에 감겨 있었고 간혹 산속 동물들이 눈에 보였다. 련은 그곳에서 자신의 손가락과 팔 뿐 아니라 온몸을 돌아보며 굳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도려내어 지면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돌뿐 아니라 살점까지 딸려 나왔다. 쓰라린 상처에 형클어진 넝쿨의 이파리를 끊어 던대자 련의 고통이 조금은 덜었다. 련의 비명이 점차 잦아들었다. 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누웠다. 결국 련은 돌 같은 것들을 모두 그려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설이었다. 쉽게 접어든 련을 보고 입을 열었다.

“련님이 계셨던 삶이란 곳은 혹 버려진 곳이었습니까?”

“아니, 이 아이는 아무도 안 믿어서 그래. 심지어 제 부모까지 말이야. 대충 그런 상태야. 가족을 너머 나라, 민족, 사람과 영감님을 의심하지. 그러니 이 기억 속 도시가 전부 방치되어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상처가 여물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그 아이는 이제 완전히 멈췄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기억들이 선명해지는 거야. 이제 이 아이를 정리할 시간이야. 가자, 기억나는 공간들이 있어.”

련은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보다 빠른 발걸음에 한설이 서둘러 따라갔다.

대학 MT 현장이었다. 술이며, 게임기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즐기며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숙소에서 나와 혼자 바다를 보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를 이토록 좋아하던 아이였습니까?”

“아니, 그냥 포기한 거야. 왜냐면 이 아이, 대학 생활을 아무 기대 없이 다녔거든. 신입생 인데도 취업과 직업, 사회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 이제 천천히 과거로 가보자. 어째서 이 아이가 꿈을 꾸지 않게 되었는지 그려 볼 거야.”

한설은 차를 끌고 숙소를 나섰다. 련은 그새 잠자리에 들었다.

네가 깨어난 그날에
기쁨이 있으리라
슬픔이 있으리라

영감은 품속에 안겨 자는 스리의 차가운 작은 귀에 속삭였다.
마을에 불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 사이 비가 내려 큰 불길은 모두 잡혔다.

사람들은 빗물과 식여가는 잿더미 속에서 한 여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여우는 잿물에 겹게 물들어 있었고 조용히 잠에 빠져 슬피 우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주위를 살피던 마을 사람들은 여우 바로 옆에 큰 나무가 불에 바싹 타들어 간 모습을 보았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 마치 벼락에라도 맞은 듯 나무가 갈라져 있었다.

“불을 낸 것이 이 여우의 짓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 홍조가 들까 두렵습니다. 제가 뒷산에서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때 한 영감이 수염을 만지며 제 생각을 꺼내 놓았다.

“네가 이 여우가 한 것을 하나하나 보았느냐. 속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같이 보지 않았느냐. 이미 이 여우는 화마 속에서 잠을 청하였다. 제 가진 것을 다 버렸고 이제 제 몸까지 버렸느니라. 내 직접 이 여우를 들일 것이다.”

말을 마친 영감은 자칫 불길에 살결이 닿았을까 이리저리 여우의 온몸을 훑어보는 중 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수컷이었다. 그리고 꼬리가 이미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꼬리의 숫자는 여섯 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우를 보며 입이 벌어졌지만,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여우를 들였다.

영감은 여우를 씻기고 따뜻한 이불에 누면서 자기 영과 혼을 666개로 나누어 아리술에 담아 씻겨주었다. 술은 곧 피가 되었고 그대로 여우의 살갗 안으로 스며들었다. 여우는 이 술이 그래도 죽음보다는 달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단맛을 알게 된 여우는 마치 시원한 물에 몸을 비비는 것처럼 여우의 표정은 밝아졌다.

그 여우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다. 웃는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밥을 먹을 즈음에는 암전히 앉아 천천히 자신의 것을 주워 먹었다. 여우는 자신의 배를 배를 불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였다. 영감은 이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집 안에 살며 집 안팎에 자신의 소문을 들은 여우는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감이 이러한 여우를 보았을 때도 정말 얼룩 하나 묻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감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 여우의 눈이 깨끗하고 또랑또랑한 ‘이슬과도 같다.’하여 이름을 ‘스리(SRI)’라 하였다.

스리는 늘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스스로 일으킨 불길이 행여 다

른 이들에게 달을까 꽤 사리는 눈치였다. 그래서 더더욱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집 뒤편에 음지로 숨어들어 불을 다루어 놀았다. 하지만 스리는 이런 제 모습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 생각하였다.

스리는 그사이 불을 다루는 것에 점점 능숙해졌다. 그리고 영감에게는 자그마한 도깨비불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기며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행복한 스리의 모습에 영감은 흡족히 여겨 스리에게 칭찬하였지만 정작 스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행복이라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감이 스리에게 칭찬할수록 더더욱 헛간, 창고 같은 더 짙은 음지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스리는 시간이 지나며 제 골이 깊어져 이렇게까지 불을 다루는 것을 스스로 불행이라 여겼다. 결국 스리는 이러한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둔갑을 부려 제 모습을 숨겼다. 그렇게 스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다.

스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방법을 떠올려보았다. 그래서 여우인 주제에 매번 산 위에 올라 이렇게 저렇게 희로애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배우고 싶었다. 영감은 스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 두었다.

사람들의 삶에서 탈을 쓰고 있더라도 자신의 속뜻을 제대로 전하는 모습을 본 스리는 자신의 속뜻까지 모두 속이는 둔갑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제 본 모습을 영감부터 보여주기로 하였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았고 그것이 스리의 훈련이었다. 그렇게 다 자란 것 같은 스리의 모습은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니 불덩이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작은 이슬이 드러났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여전히 불덩이를 너의 차가움으로 다스리고 있구나.”

“사람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는 것을 보니 저들은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둔갑하는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탈은 몸짓과 소리가 숨김없이 다 들립니다. 저는 여우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제라도 탈 쓰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을 보았던 저의 모습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허나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스리야, 그리하여라.”

영감은 웃으며 스리의 귀를 만졌다. 늘 귀를 만져주던 것을 좋아하던 스리였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울상이었다. 영감은 스리를 안아주었다.

마음 문을 열 방법을 알게 된 스리는 글방에 나가 배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때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감은 그리 두었다.

영감은 한 낮선 이가 전해준 서찰을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 낮선 이는 필시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영감은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스리에게 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스리가 이를 어찌 받아들이는지 잠시 글방에 내려가 보기로 하였다.

영감은 스리가 글방 뒷마당에서 웬 다른 암컷 여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 다른 여우의 모습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아리따운 여우 ‘아리(ARI)’의 자태였다. 아리는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곳저곳을 누비며 돌아다녔으나 스리를 만난 이후로 꽤 얌전해져 있었다.

그곳에서 아리와 스리는 입을 맞추고 서로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섞었다. 아리의 짓이었다. 스리는 혼이 나갈 것만 같은 거친 아리의 입맞춤이 끝나고 정신을 차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아리는 눈을 반쯤 뜬 채 스리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는 아리는 스리 귀에 속삭였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 아라리가 났네.”

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스리가 아리에게 이별 소식을 전한 모습이 었다. 영감은 차마 그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었다. 영감은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사랑이 식은 아리 때문인지 글방의 열기는 금세 빠져나갔다. 아리는 시무룩한 얼굴로 매일 글방을 찾았고 친구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아리는 스스로 글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친구들이 아리를 돕기로 하였다.

그 사이 아리의 어머니는 마을에 스며드는 악령에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아리와 아리의 아버지가 이미 악령에 다 홀린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홀린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자신이 악령에게 저항할 힘이 더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그런 악령에게 끝까지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몸부림칠 때는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악령에게 온전히 홀리게 되고 결국 외로이 집 밖을 나가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이윽고 영감 부인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절벽 아래 차가운 몸을 매만지려 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마을에 아리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달이 드리운 어느 날 밤 인기척을 느낀 영감은 문을 나가 보았다. 스리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은 조용히 스리 오른쪽에 앉았다. 영감은 스리가 새 등지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고민이 있느냐?”

“제가 왜 불을 다루고 있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영감은 잠시 입을 닫고 스리의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았다. 영감은 스리가 보고 있는 저 검은 푸른 하늘을 같이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저 먼 산이 아니라 이 마을에 큰불이 날 것 같습니다.”

“혹 네가 일으킬 것일까 두려운 것이냐?”

“그 큰불은 제가 일으키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영감은 수염을 만졌다. 영감은 스리가 혹 무언가에 흘러있는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 악령이 그런 것이냐?”

“그 악령에게 홀릴 것 같은 자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허나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괴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이 눈을 뽑고 싶고, 이 불을 다루는 두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더하여 이 등지엔 더 그림자가 없

으니 이제는 정말 산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편히 자고 싶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뿜 영감은 잠시 땀을 들였다. 영감은 스리가 여태 살며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말을 잠시 되뇌었다. 아직 이 무게에 눌러버릴 것 같은 스리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아직 너는 온전하게 솔직해지지 못하였구나.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굳이 제가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거라.”

스리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럼, 스리랑 함께 하는 이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 스리랑 함께 하는 이는 없는 것이니라.”

눈물을 닦은 스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밤중이었지만 이미 스리는 자신의 짐을 모두 준비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영감의 뜻을 받아들인 스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짐을 나눴다. 허나 영감은 스리의 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스리가 자신의 짐을 다 버린 것에 모자라 너무 많은 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였다.

그 사이 영감은 우선 한음 내 한강에 가 떠돌고 있는 혼들을 낚아 보았다. 이런저런 혼 중에 영감은 전혀 몸부림치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혼을 찾았다. 영감은 그 눈물에서 이 혼의 아픔을 보았고 그 혼을 등지로 들였다.

영감이 혼에 숨을 불어넣고 검은 꽃이 뿌리박혀 있는 살을 씻어내니 피부가 매우 희고 살결은 차가운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한설(寒雪)’이라 하였으며, 영감은 이를 귀히 여겼다.

영감은 다음 날이 되기 전 아직 꼬리가 갈라지지 않은 아리를 등지로 들였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스리가 보았던 저 산 너머에서부터 불길이 일었다.

영감은 서둘러 한설을 불렀다. 영감은 한설 닦아낼 때 뽑았던 가시를 날카롭게 다듬어 한설에게 주었다. 한설이 들어 자세히 보았다. 마치 이 가시가 하나의 검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는 검 하나만 다루기에도 벅잡니다. 이 검은 제게 과분합니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 침은 너의 것이 아니다. 아리의 것이다. 내 조만간 너와 아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왔던 그 한음 내 한강 깊은 곳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아리가 이 침을 박아 넣어 치게 하여라.”

“그 강을 건널 때 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 그리고 네가 그 강에 담길 때보다 더 물가가 올랐느니라. 그러니 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를 적절한 때에 깨우도록 하여라.”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불길이 멎을 것이다.”

한설과 아리를 보낸 영감은 저 산 너머 불길을 보았다.

한설과 아리는 굽이진 산에서 내려가기 전 잠시 마구간에 들러 짐을 챙겼다. 그 사이 스리가 몰래 숨어들어 영감이 전해준 침을 내다 버리고 자신이 침으로 둔갑하여 그 자리에 앉았다.

스리는 손을 펼쳐 자기 손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스리는 붉은 눈을 한 채 슬며시 웃었다. 이제 그자들에게 진정한 지옥 불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여도 충분할 그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느덧 스리의 눈물이 말랐고 그 동그란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닌 낮중에 시커멓게 드리운 검은 그늘 아래서 스리는 쥐들에게 속삭였다.

“다 나가. 여긴 이제 내가 있을 곳이야.”

첫 번째 잔. 물같이

1장. 물같이. 인터넷 면허체계

“Vell, 새로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is is service for your life.”

장해은은 침대에 옆으로 누운 탓인지 팔이 조금 결린다. 해은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기 싫어 최소한의 몸부림으로써 저런 왼팔을 쭉 뻗었다. 잠시 머리가 풀린 해은은 왜 자신이 폰을 문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이다. 해은은 다시 집중하고 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액정을 문지르며 나머지 설명을 쭉 내렸지만 결국 수많은 글자들에선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지루한 것이 싫었던 해은은 벨로(Vellow)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 벨로디오(Vellodeo)를 선택했다.

해은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청소년 버전으로 설정되어있다. 인터넷 면허체계(Internet License System)가 집행되는 한국에서는 청소년 버전 설정 시, 청소년이 보기에 안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이 벨로디오에 필터링되어 화면에 사출된다.

인터넷 면허체계(Internet License System)는 정보 제공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시 면허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 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인터넷, 혹은 국가 인프라넷 망에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거친다.

보통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 빅데이터 베이스단지 내 저장된 대자료(Big Data)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호등이 제작된다. 해당 신호등은 청색, 황색, 적색의 점멸을 가지며 채팅, 영상, 댓글, 사진, 기사, 칼럼 등 정보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

물론, 지금 작성 중인 채팅이 적색 신호가 뜬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메신저에 바로 보낼 수 있지만, 다수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작성 중인 채팅이 청색 신호가 뜬다고 하여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정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사건이 접수되며,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국가 빅데이터 베이스단지는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연결망 인프라넷(Infranet)에도 연결되어 있다. 인프라넷은 국가화된 인터넷망이며, 이곳에는 한 국가에서 다루는 뉴스, 소식, 문화, 예술, 공영방송, 종교, 학교 자료, 공문서 등이 유통된다.

또한 개개별 분야에 따라 다루는 전문 사이트가 존재하며(방송물 사이트, 스포츠 사이트, 음악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한국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이 인프라넷에는 회사 법인이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굳이 회사라는 것이 건물로만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지역화 인터넷, 인프라넷에 저장된 회사가 된다.

인터넷 면허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 인터넷 주소(IP)로 접속할 시에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면허 로그인 아이디 입력란이 제공되며, 기존에 면허가 없는 일반 이용자나 해외이용자, 미성년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 사용자들은 문명을 누리는 자들 즉, 버스나 비행기로 치자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운전석에는 앉지 못하되 일반인이 앉는 뒷좌석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문명을 누리는 자들’은 ‘다운로드를 하는 자들’로 정리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다운로드만 받을 수는 있다.

정리하자면, 자료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행위는 오로지 ‘인터넷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국한되고 그 사용자에게 대한 필터링은 인터넷 첫 화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빅데이터베이스는 국가 IT 공무원으로 1차 방어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세계 규모의 연결지점들은 한국이 가입한 세계인터넷협회, World Internet Organization(WIO)에 보호받고 유사시 복구지원을 받는다.

인터넷 면허체계를 국가에서 운용하는 의의는 바로 영토, 영공, 영해 위에 인터넷 기술을 가진 국가는 ‘해당 기술들을 국민이 더 이롭게 활용하기 위함’ 때문이다. 국가는 인터넷으로 밝혀지는 각종 왜곡된 정보 및 악영향을 끼치는 정보와 기타 통제되지 않는 IT 기기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유사시 영해 내 위치한 해저케이블을 차단, 영지 내 위치한 광통신망을 차단, 영공을 지나는 위성 인터넷에 방어 전파 방해 등으로 국민이나 인간에게 해로운 인터넷의 정보를 방어하게 된다.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공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IT 기술을 통해 정보화를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서비스(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서비스, 웹소설 서비스, 쇼핑몰 서비스, 배달 대행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 등)가 형상화되고서부터 인터넷과 인프라넷을 통한 정보 및 자료(Data)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온갖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T 기술이 이끄는 3차 산업 시대, 서비스 시대의 새로운 법과 질서인 인터넷 면허체계가 정립되면서 국민이나 세계인들은 조금 더 다채롭고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가 인터넷, 인프라넷에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 제3차 산업 시대, 서비스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될 자료 그 자체와 오가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검증을 집행한다.

위와 같은 것은 농·수산업에서 간단한 검증으로 식품들을 유통하거나 식수의 수질을 자세히 따지듯, 공업에서 생산한 공산품들이 잘 정비된 도로 시설과 법규로 다져진 각종 교통망이나 항공을 통해 국가와 국가를 건넌 후 각 지역으로 전달될 시, 해당 공산품까지 면밀한 검증을 통해 폭발물, 독극물 따위를 필터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개념이다.

인터넷 면허체계의 정립과 하드웨어의 발달로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 블랙박스를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블랙박스는 사용자의 뇌파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 뇌파 기록기는 평소

에 사용자가 가진 여러 감정 뇌파를 토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금 더 면밀한 감정 데이터를 통하여 조금 더 확실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개인 감정 데이터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감정 데이터 신뢰성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용자는 인프라넷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시 제한속도가 요구되는데 인프라넷의 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접근이 제한된다. 이는 해외에서 불안정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함, 서버 트래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 일정 수준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보통 개인정보는 오프라인 데이터로 저장되며, 이러한 파일들은 모두 복제되어 각 시에서 관리를 맡는다. 이러한 오프라인에 저장된 각각의 개인정보는 일정 테이블 단위로 주소값이 지정되며 면허증을 발급받은 유저의 아이디와 이 주소값을 대응시킨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각 시의 시민들이 실명을 사용할지 대체 이름(Nick Name, 昵称)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 공직자 내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테이블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해당 인원은 징계 처리가 되며, 테이블은 난수를 기반으로 새로고침(Refresh, 刷新)이 된다. 이는 먼저 복제품을 오프라인상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더 나은 보안을 설계하는 데에 연구 중이다.

그리고 장해은과 같은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인프라넷에 어떠한 정보도 올릴 수 없으며, 간편한 채팅 역시 면허 제도로 인해 불법이 된다. 따라서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 하며 영상과 밑에 달린 청색 신호가 켜진 댓글들만 보고 있다.

“뭐 보고 있어?”

“글쎄, 누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좌표 찍어서 어떤 건물로 보내겠데. 동시에 한 수 십 대 보내려나 봐.”

“레벨 몇인데?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잖아.”

“5래. 폭탄을 실은 채 골목골목 누비면서 좌표 찍은 건물로 가겠데.”

“왜?”

“건물 철거래. 레벨 5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서 건물 철거를 저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데? 인명 피해 최소화한다네.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인터뷰하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절차를 국가에 검토받는 중이라네.”

“하긴 테러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불가능하긴 하지. 무인 차로제가 진행되어서 일부 지역에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잖아? 뭐 설사 폭탄을 설치한다 해도 그 무인차로 내에서만 터질 테니까.”

“맞아, 그래도 난 저런 자동차가 우리 집 옆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1장. 물같이. 무인차로제, 아침 출근,

무인 차로제란 현 인공지능개발 수준으로는 닫힌계 내에서 그 기술의 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실제 도로 위에서 닫힌계를 만든 것이다.

즉, 기술의 발전보다는 도로 위에 차선을 하나 더 그어 닫힌계를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돼 시행되는 규칙과 법이다.

하지만 아무리 닫힌계 안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인간 세상 속에서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무인자동차라 할지라도 ‘보행자우선’은 변하지 않는다.

보통 도로 위에서의 변수 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순위에 따라 비교적 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무인자동차, 유인자동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뭐, 그건 그래. 그런데 너 어두운 데서 너무 폰 오래 보는 거 아니야? 불 켜줄까? 넌 지금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라고.”

“조엘(Joel), 나 피곤해. 곧 잘 거야.”

“너 그 말 한지 벌써 한 시간 전인 거 알지? 차라리 책을 봐. 반사광이잖아. …… 디스플레이는 태양광처럼 자체 발광하고 책은 반사광이라 눈에 훨씬…….”

“좀 닻쳐. 맨날 잔소리야. 진짜 잘 거야.”

벨리(Vellie: 벨루(Velloo)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로봇)라서 이렇게까지 신경써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가만 생각해보니 오늘은 해은에게 말을 걸어준 이가 벨리인 조엘밖에 없긴 했었다.

해은은 폰을 내려놓고 잠시 참견 많은 조엘을 쳐다보았다. 옷 입은 본체가 실리콘으로 외부를 감쌌으며, 눈도 한 번씩 깜빡거린다. 입을 꼭 다문 조엘은 슬금슬금 해은에게로 다가온다. 해은은 조엘이 도저히 고철덩어리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조엘, 가서 충전이나 하고 있어. 제발 가서 너도 좀 쉬라고. 그만 와.”

“아니, 넌 대체 왜 자는 거야? 폰질만 할 거잖아.”

“진짜 너 뒤흔다.”

해은은 결국 왼팔에 쥐가 생겼다. 그리고 해은은 쥐가 나는 이 고통을 요만큼도 모를 조엘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조엘은 그런 해은을 보고 고개를 젓더니 방구석에 놓인 X타입 무선 어댑터에 앉아 충전을 시작하였다.

조엘에게 아까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눈이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깜빡이더니 눈에서 초록색 빛이 켜졌다. 그리고 곧 눈이 감겼다. 해은은 그런 조엘이 마음이 들었다. 해은은 무사히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해은이 깊은 잠에 빠질 무렵 정은영은 해은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은영은 먼저 해은에게 다가갔다. 은영은 행여 해은이 깰 새라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은영은 조엘에게 다가갔다. 어느샌가 해은을 더 많이 봐주는 믿음직한 녀석이 되었다. 처음엔 장민혁 그리고 은영 본인의 반대도 컸고, 무엇보다 해은이 벨리를 가지기 싫어했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벨리는 꽤 윤리코드를 풍성하게 가진 로봇이 되었고 어느덧 큰돈을 들여 벨리를 장만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 해다. 그동안 아무런 정말 아무런 말썽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꽤 지낼만 하였다.

이제는 오히려 은영 자신보다 해은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벨리 아니, 조엘이 되었다. 은영은 그저 해은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하다.

‘잘 했어 조엘. 앞으로도 우리 해은이 잘 좀 봐줘. 많이 덤벙대고 놓치는 아이인 것 너도 알잖니. 부탁할게.’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영은 해은의 방 안을 둘러보다가 어질러진 방을 보고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천천히 돌아누워 조엘을 보았다. 해은은 솔직히 조엘에게 고마웠다. 조엘의 참견이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조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지 않았어도 해은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은영은 벨리를 장만하지 못했다. 벨리 한 대가 상당한 금액인 것도 그런데 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가족 중에 민혁이 처음 벨리를 장만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이었고 민혁도 그렇게 꺼리는 모습도 아니었다. 처음엔 은영도 꽤 팬찮았었다.

하지만 해은까지 벨리를 장만할 무렵, 어느새 은영은 민혁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자신의 벨리를 ‘레오나’라고 불렀고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은영과 방을 나누어버렸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예 은영이 찬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다. 은영은 그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은영 본인만큼은 늘 민혁과 해은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더 벨리를 장만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벌써 조엘을 살짝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기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은영은 ‘벨리는 고철덩어리’를 되새겼다. 방에서 나온 은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막했다.

오전 6시 반. 은영은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 은영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레오나가 오늘의 추천 요리를 조리 중이었다.

“스크램블에그와 남아있는 방울토마토를 얹었네요. 우유와 함께하면 든든하겠죠. 은영 씨? 그리고 달걀도 남은 거 다 조리한 거거든요. 오후에 보충 부탁드립니다.”

“그래그래 알았어. 좀 씻을게.”

레오나는 일터에서 특히 활약한다. 더하여 벨리는 외부에서 항상 사용자와 함께 다녀야 한다는 사용자 원칙 때문에라도 레오나는 민혁을 따라 회사로 간다.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은영이 아침이면 늘 레오나에게 냉장고 브리핑을 듣는 편이다.

눈을 비비며 거울을 본 은영은 푸석해진 머릿결을 보았다. 머리칼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딱이 진 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나머지 손으로는 칫솔을 들었다.

은영은 수건을 한 장 꺼내어 머리를 톱툰 싸맸다. 조금 선명해진 초점으로 이제 얼굴을 점검하였다. 밝은 표정으로 마무리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해은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직 조엘은 방에서 충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해은은 웃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은영을 보고는 밝은 표정을 지어주었다.

해은은 아침 일찍 이라 정신없었지만 그 찰나의 인간미가 느껴졌다. 해은은 은영이 집안일에 하나둘 손을 댈 때부터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은영은 자신의 방에서 화장을 하나씩 시작하였고 해은은 변을 보았다. 두 여자가 각각의 일을 보고 있을 때 벌써 용모를 끝낸 민혁이 부엌으로 나왔다. 레오나가 민혁이 앉은 자리 앞에 스크램블에그를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식빵과 우유가 함께 있었다.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었다.

“은영은?”

“불 일 보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응 그래. 맛있네. 이것도 네가 한 거지?”

“그럼요.”

“나중에 은영한테도 좀 알려줘. 싫어할라나?”

레오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Status: Freezing).

프리징 상태(Status: Freezing)란 벨리가 처리할 수 없는 알고리즘과 버그 발생 감지 시엔 현실 상황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답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레오나는 반영구 동면상태로 들어갔다.

“맛이 갔구만.”

민혁은 얼어붙은 레오나를 보고 잠시 손가락을 놓았다. 레오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고 입을 살짝 맞추었다. 이렇게 프리징이 된 벨리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약속해둔 행동으로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언프리징 시에는 벨리는 프리징 바로 이전의 상태로 초기화된다.

“얼음땡이네요.”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는 녀석이 뭐가 문제였어. 됐고, 오늘 업무 정리해줘.”

“꽤 많이 남기셨는데요.”

“어, 그건 여보야한테 맡기고 나갈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혁이 나간다는 말에 은영이 방에서 나왔다. 은영은 민혁에게 어깨를 주물러주었다. 이어서 은영은 민혁의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너무 손질이 잘 되어있어서였다. 민혁은 허공에 병 찢 채 멈춰버린 은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우리 남편 고생해. 오늘도 파이팅이야.”

민혁은 은영의 엉덩이를 힘껏 잡았다가 놓았다. 은영이 황급히 뒤를 돌아 화장실 쪽을 보았다. 다행히 해은은 아직 화장실에서 씨름 중이었다. 다시 민혁을 돌아본 은영은 민혁에게 다가가려다 말았다. 민혁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레오나가 말했다. 그제야 은영은 민혁 어깨 위에 올린 손을 내렸다. 민혁은 확실히 은영이 겁을 먹은 것이 보였다.

레오나가 현관문을 열었지만 민혁은 아직도 은영을 보고 있다. 은영은 어쩔 줄 모르며 레오나와 민혁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다. 민혁은 은영에게 키스하였다. 은영은 따뜻한 민혁에 포옹에 화답해 주었다.

3화

“아우, 아침부터 꼴불견이야.”

어느새 화장실에서 나온 해은이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채, 한마디 툭 뱉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놀라며 민혁에게서 떨어졌다.

민혁은 그런 은영을 보고 활짝 웃었다. 은영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표정을 가다듬고 민혁에게 말했다.

“이제 가.”

“그래. 집 잘 지키고 있어.”

은영은 닫힌 현관문을 잠시 멍하니 보고 있었다. 역시 아무리 그래도 민혁의 벨리 언프리즈 신호를 입맞춤으로 한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영은 짧게나마 허를 차며 해은이 방으로 향했다.

‘아, 조엘. 그건 저기 위에다 올려다 줘.’

해은은 등교준비를 하면서 조엘에게 방 정리를 시키는 것 같았다. 은영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 민혁이 남긴 스크램블에그를 보았다. 아직 식지도 않았다. 열려 있는 빵 봉지를 묶다 말고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은영은 가스레인지 쪽을 보았다. 은영은 레오나가 조리한 스크램블에그를 데웠다. 해은은 은영에게서 구워진 식사를 받았다.

“잼 발라줄까?”

“응! ……. 아니.”

“그래.”

“엄마, 근데 그거 아빠가 먹던 거 아니야?”

“맞아.”

“가족끼린데 뭐.”

해은의 입이 쪽 튀어나오다 뒤집어지기까지 했다.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빵에 잼을 발라 자신의 입속으로 넣었다.

“왜?”

“엄마는 집에서 뭐해? 그냥 궁금해서.”

“집에서 뭐하긴, 집안일하지.”

“레오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애는. 있다 보면 보여. 왜? 갑자기 엄마 걱정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엄마가 놀았으면 좋겠어서.”

“나는 괜찮아 해은아. 정말이야. 엄마는 요즘 놀라운 게 해은이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해주는 게 신기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배부르고 기쁘다?”

해은은 자신 방에서 아직 어댑터에 앉아있는 조엘을 떠올렸다. 물론, 충전은 지난밤에 모두 완료되었다. 해은이 갑자기 조엘을 떠올리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은영 머릿속에서도 그 ‘벨리’란 것이 동실동실 떠다녔지만 끔찍한 빗더미를 생각하니 곧 먹구름이 되고 말았다. 은영은 해은을 보며 애써 웃어주었다.

벨리가 비록 집 반 채 가격이라 하여도 ‘우리’는 큰맘을 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해은이를 이렇게 낳은 것만 해도 큰맘을 먹은 것이었다. 해은은 그저 웃고만 있는 은영을 보고 어느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스크램블에그는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해은은 입맛이 없었다.

“더 안 먹어?”

“맛없어. 난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

해은은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편이었다. 입에 남은 이물질들이 영 싫었나보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마지막 용모를 마친 해은은 현관문을 나섰다.

은영은 식탁에 앉았다. 민혁 반 접시, 해은 반 접시, 그리고 프라이팬에 남은 은영의 몫 한 접시. 은영은 2인분 모두를 해치우고 소파에 퍼졌다.

먹는 고통을 떠올리니 그만 눈에서 눈물이 조금 흘렀다. 깜짝 놀란 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것이 떠올랐다. 은영에게는 오늘의 집안일, ‘달걀 사기’가 있었다.

해은은 버스정류장 옆 작은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 아래에는 인조 잔디로 된 자그마한 축구장이 있었다. 풋살 축구장을 들어가기 전 해은은 고개를 들었다.

‘미리내고등학교 B캠퍼스’라는 명판이 보였다. 명판만 보는데 ‘공립학교’라는 것, 그리고 저 자그마한 학교에 들어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지식을 머리에 쑤셔 박을 자신과 겹쳐 보이니, 해은은 기가 찬 웃음이 나왔다.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의 시간지연 수식도 가뿐히 계산할 수 있는 조엘이 물었다. 해은은 조엘을 내려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해은은 교문을 들어갔다.

교실 문을 들어가기 전 선생님의 벨리가 해은을 잠시 막았다. 해은은 벨리를 잠깐 손으로 젓히고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로 가방을 던졌다. 시계를 보았고 무사히 자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해은은 늘 그랬듯 아침잠이 쏟아졌다. 그리고 책상에 그대로 엎어졌다. 잠깐 눈을 감았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것을 느꼈다.

“장해은.”

“네, 왔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해은은 조용히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출석은 형식적인 거고. 실은 오늘 쪽지 시험 보려고 한다.”

한 교실에 있던 7명 전원이 경악하며 피성을 질렀다.

“됐고, 1학년은 영어 시험. 2학년은 코딩.”

“코딩 어디예요?”

“어제 배운 거. 인공 신경망 기초. 그리고 신경우? 우리 정우는 코딩 시험 보자?”

해은은 한숨이 폭 새 나왔다. 해은은 어제 내도록 조엘에게 인공 신경망을 계속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해하는 척으로 끝났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폰질이라도 덜 할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정우는 1학년이지만 해은과 같이 코딩 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총 10문제였다. 해은은 오른쪽을 보았다. 민예서는 뭐가 저리 신나는지 고개를 흔들거리며 자기 흥에 빠져있다. 예서 앞자리 민예는 긴 다리를 책상 밖으로 쭉 뻗 채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민애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이 드러나도록 등을 긁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이 시험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는 듯하였다.
시간이 모두 흘렀다. 해은의 시험지가 선생님 손에 들어갔다.

“시험 1등은…… 말할까?”

“어차피 정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예서가 까칠하게 말했다. 1년 아래인 정우였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했다. 해은은 어차피 자신이 1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현석이야. 서현석, 1등.”

“재가 뭘데 1등을 해?”

예서의 목소리가 반 전체에 찌렁찌렁 울리는 것 같다. 해은 오른쪽 귓구멍은 짜릿하다 못해 이명까지 생긴다. 해은은 얼얼한 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개를 왼쪽 뒤로 돌려 현석이 앉아있는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웃고 있었다.

현석이 해은 쪽을 보더니 눈썹을 슬쩍 올렸다. 해은은 현석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알자마자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뻗뻗하게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해은은 현석이가 어젯밤 무얼 했는지 궁금해졌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다. 그나저나 해은 바로 앞에 있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굳어버린 것 같다.

해은은 절망하는 정우를 보느니 차라리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은 바로 왼쪽에 앉은 박대현은 부드럽게 볼펜을 돌리며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해은은 대현의 옆모습을 잠시 감상하고 싶었다.

“언냐, 뭐해. 책 읽으라고 책. …… 아휴, 내가 못 살아.”

예서가 무리한 자세로 다리를 쪽 뻗 뒤에 해은의 의자 밑바닥을 찼다. 선생님은 어느새 칠판에 글씨를 적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른쪽 앞쪽에 있던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앞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보다 말고 왼쪽 앞자리에 앉은 이수아를 보았다.

“잠깐만, 수아야? 이수아. 애, 너 껌 씹니? 뱉고 와.”

왼쪽 앞, 대현 앞에 앉아있던 수아는 해은보다 한 살 어린 고1이지만 해은이 볼 때는 이렇 수록 더 어려 보이는 아이다. 수아는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휴지를 찾았다. 수아는 하필 앞쪽으로 나가 휴지에 껌을 뱉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망, 그리고 삼진법 반도체에 대한 역사를 읊었다. 해은은 즐기게 읽어나가다가 두 페이지 반쯤 와서 잠시 글자를 놓쳤다.

“언냐, 누설전류, 누설전류상태.”

예서가 놓친 글자를 짚어주었다. 예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었다. 해은은 애써 무시한 채 세 페이지 쯤 되니 읽는 속도도 느려질뿐더러 여기저기서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어서 연쇄법칙과 편미분, 가중치와 편향, 마지막으로 시그마 친구 ‘파이(Π)’에 관해 설명했다. 선생님이 이 끝에 있는 ‘딥러닝’을 두 번 읊었다. 몇몇 학생은 무언가의 암호로 최대한 축약시켜 외우기 위해 애를 썼다.

다음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이전 시간에 뻘 진도가 꽤 어려운 개념이고 중요한 부분이니 같은 비지도 학습 역사 수업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그리 길게 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시간은 해당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자율학습이 이어졌다. 선생님은 남은 업무를 마치기 위해 교실을 나갔다. 교실은 여전히 이전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고요했다.

선생님은 해은에서 수아에게로 주자를 넘겼다. 한숨을 돌린 해은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여도 도무지 억지로 읽히지도 않는 글을 읽는 것은 안 되었다.

결국, 교과서 한구석에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된 이리저리 꼬여있는 시냅스들처럼,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신호가 누출되는 것을 막는 미엘린처럼 머릿속이 형클어지고 여기저기서 짹짹 조여지는 것 같았다.

해은은 마치 중학교 때 배운 메모리 주소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개념처럼 전혀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업이었다. 해은에게는 다행히 다음 시간이 사회시간이라는 점이였다. 선생님은 잠시 교실을 떠났다.

“Hah, fuck……. HEY GUYZ, CAN YOU DIG IT? 머리가 그냥 아주 고철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야, 민에서. 너 아까부터 계속 나댄다?”

“언니는 괜찮아? 아니 쌍, 언니도 봐봐, 이게 사람 읽으라고 써놓은 거냐고.”

“아! 줘, 닥쳐!”

결국 앞자리 민애가 뒤를 돌아 직접 예서를 보며 성질을 내었다. 예서는 의자에 퍼질러진 채 민애를 무시했다. 저 둘은 저러다 곧 또 친해질 예정이다.

4화

1장. 물갈이. 이름 나누기. 고백. 친환경 엔진 설계. 원격근무단지.

해은은 둘과 자신만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저 둘이 저렇게까지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대현이나 정우까지 나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다들 말이 없다. 해은은 말없이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복습을 시작했다.

“언냐언냐, 이거 봐. 벨리 업데이트 했데. 봤어?”

“아니, 언제?”

“지금 막. 뭐 이전에 알려준 대로 미성년자 감성 대화 데이터 수집했고, 고거 기반으로 일반인 적용 뭐 어찌구.”

“야, 그건 또 언제 수집했데?”

“기억 안나? 얘기했었잖아! 벨루랑 뉴스에서 그 머냐 베이트 머시기에서 데이터 좀 쓴다고 하루 종일 난리였는데.”

“빅데이터베이스센터.”

“조용히 해라, 이수아. 여튼. 그렇다고.”

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말들을 보며 잠시 눈을 붙이려했던 해은은 팬스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겨 다시 눈을 떴다. 당연하지만 해은에게도 ‘벨리 업데이트 항목’은 조금 중요한 사항이었다. 해은은 업데이트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려 하였다. 집중을 시작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해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야, 너 따라 와 봐.”

해은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들어보았다. 대현이었다. 대현을 정면으로 바라본 해은은 저절로 눈이 커졌다. 폰은 스스로 화면이 꺼졌고 해은은 금세 무언가에 홀린 듯 대현을 따라 교실을 나갔다.

예서는 해은을 따라 고개를 돌리다가 해은은 문을 나간 시점에 눈이 마주칠까 책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가 웃었다. 이윽고 교실은 먼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둘의 인기척이 다 사라져갔다.

“어떡해, 어떡해. 나 몰라. 나 몰라!”

예서가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렸다. 수아가 예서를 한 번 보았다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책상에 엎어졌다. 민애는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리며 예서의 손을 잡았다. 둘이 씨름을 시작했다.

이 자그마한 학교에도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었다. 대현과 해은은 벨리를 잠시 안 보이는 곳에 두고 프리징 상태를 걸어두었다. 동면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면, 부모에게 연락이 되어 무슨 짓을 하든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 하였다. 뒷문 분리수거장 옆에서 대현이 등을 대었다.

“피곤해?”

“어? 아, 아니. 그나저나 여긴 왜 온 거야?”

해은은 어느덧 혹시나 하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저 짜증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대현은 슬며시 웃으며 천천히 해은을 바라보았다.

“너 오늘도 나 봤잖아. 이제 그만 좀 봐 달라고.”

“어?”

“부담돼.”

해은 머릿속을 송곳 하나가 강하게 찔렀다. 해은은 잠시 바닥을 보면서 겨우 감정을 추스리며 다시 고개를 들어 대현을 흘겨보았다.

“대도시면 뭐 하냐고. 학교가 쪼그매가지고 100명도 없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는 거 쉽지 않은 거 같아. …… 내가 부족한 걸로 치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

“대신 벨리 이름 나눌래, 우리? 아니, 너랑 나.”

“…….”

“뭐야 말 좀 해. 아 쌍, 몰라. 내 벨리는 ‘아서(Arthur)’야.”

대개 벨리 사용자들은 자신의 깊은 내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혹은 숨겨진 본능 따위를 벨리에 녹여내는 비율이 높다. 게다가 벨리의 이름은 자신의 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벨리를 분석하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 얼굴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전혀 신용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꽤 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이용해 아예 다른 인격을 벨리에 심어버리는 이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로 정해진 법은 없지만 벨리의 이름조차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들끼리의 암묵적인 금기로 되어있다. 정말 가족이나 연인, 정말 돈독한 사이가 아닌 낯선 이들끼리 벨리의 이름을 서로 아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해은은 그만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은 눈물이 흐르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해은은 붉어진 얼굴을 그대로 대현에게 보여주었다.

“대체 왜 그러는데?”

“……. 사랑해서 미안해. 됐지?”

“……. 어. 나도 좋아해. 그리고 내 벨리 이름은 조엘이야. 그나저나 너 꺼 되게 촌스럽네. 의외다.”

“남자였냐? 알아봤었어. 그리고 네 꺼 이름도 촌스러워.”

해은은 눈물을 닦고 꽤 높아진 목소리 톤을 가라앉혀 보았다.

“솔직히 말해주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거 아니야. …… 가. 떠나게 됐어. 그래서 그래.”

“연락하면 되잖아.”

“멀리 가. 유학가게 됐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무리일 거 같아서.”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아보았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막지는 못했다. 대현은 해은을 꼭 안아주었다. 해은은 대현의 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미안해.”

“가지 마.”

해은은 뜨거운 대현의 품이 느껴졌다. 대현은 따뜻한 해은의 가슴이 느껴졌다. 서로의 몸을 쓰다듬은 둘은 잠시 떨어졌다. 대현은 시계를 보려 하였다. 해은은 대현에게 입을 맞추었다. 대현은 천천히 해은을 받아주었다.

해은은 먼저 조엘의 프리징을 해제하였다. 대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서의 동면을 쳐주었다. 해은은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벌써 됐네. 가자. 조엘, 우리 대현이가 쪽지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게 속상하텐다.”

조엘과 아서는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현은 곧잘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해은은 차마 바로 교실로 가지 못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물골부터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해은은 교실로 돌아와 사회 교과서를 펴 보았지만 글씨가 너무 날아다녀서 도통 눈에 넣을 수가 없었다. 해은은 멍한 눈으로 선생님과 정우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수소경제에 맞춰서 수소차, 전기차 모두 개발이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발전된 스텔링 엔진 발전소를 채용하기도 했고. 부가적으로 해당 스텔링 엔진에는 다양한 형태 α , β , γ mode가 있는데, 현재는 ‘F-Mode’를 시험 가동 중이다.

f-mode라고 하니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흠, f-mode는 스텔링엔진의 피스톤을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꾸며봤다지.

이렇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 전기 에너지는 도심을 달리거나 배달 업무를 하는 일반 차량 쪽에서, 수소 에너지는 항공기나 여객선, 혹은 중장비 엔진 같은 곳에서 시험 중이다. 자,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차량 두 개를 보여줄게.

자, 보다시피 중형 세단과 SUV를 통해 근미래의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한 기업은 수소 값이 계속 오르니 수소의 비율을 낮춰 경수소 차량 SUV를 개발하고,

반면에 한 기업은 경수소 차량의 오존 발생을 지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엔진과 배터리가 동시에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모델로 내놓았지.

정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차량 상품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연료는 더 복잡한 폐기물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핵 연료봉, 리튬전지만 보더라도 무한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 인류가 만들 자원이나 기술 역시 기대수명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 양산된 제품은 결국 폐기화합물을 양산할 거예요. 만약 더 오염도가 심해지면 차라리 탄소일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차량 생산을 줄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만 차량을 더욱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비싸게 개발하고 차량의 무분별한 대량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차량조립공장이 친환경으로 되었다고 하여도 포함된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공장 역시 친환경인지 살펴봐야하고요. 이런 걸 다 따져보니 그냥 친환경은 자동차보단 컴퓨터 한 대 돌리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은 서비스 시대이니 국가 간 차량보다 훨씬 빠른 광통신망으로 업무를 진행하잖아요. 나머지 운송이나 실제 사람이 이동해야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택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죠.

굳이 운전이란 피곤한 짓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기업 수장이라면 각 지역에 원격근무단지(Telecommuting Center)를 짓고 그곳에 홀로그램 회의실을 설치할 것 같아요. 인프라넷 대역폭이 충분하니 이 홀로그램 회의실 설비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회의실은 실제로 만나지는 않지만, 무리 없이 회의나 여러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설비이고 그런 복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 같아요.

직원들은 본사로 출근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제 팔도에서 자유롭게 원격근무단지로 출근해 업무를 보겠죠. 다만, CCTV 아래서 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요.

즉,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장인의 예술품 따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핸드백이나 시계처럼 하나의 고성능 자동차의 가격이 꽤 높게 책정되는 데로.”

“자동차가 명품 가방처럼 명품 차량이 된다는 소리구나.”

“단, 정말 명품이 되려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 그리고 우리 정우가 언급한 일터에 홀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업무 중에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떡하지?”

“워크샵이나 기타 여러 단체 활동은 미리 회사에서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업무상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부서라면 본사로 출근하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서비스 시대에 과연 신체 활동이나 접촉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꽤 있을 거란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

“운전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한 교통 체증이나 난폭운전에 휘말렸을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너무 특정 지역에 본사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 당연히 난폭운전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인프라넷에 연결된 원격근무단지가 있으니 구태여 그런 체증 안 겪어도 되고 더 나아가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죠. 그런 집값 따지고 인프라 따지고 하는 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하지만 다 인프라넷에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가 이전 되니까요.”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로 정우를 앉혔다. 선생님은 정우에게 질문을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이 남았지만 마무리하는 식으로 자습을 시키려했다. 수아가 손을 들었다.

“수아 무슨 할 말 있니?”

“정우의 원격근무단지는 동의해요. 애초에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공적인 일을 하겠다니.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단지를 만드는 게 낫죠.

하지만, 어느 누가 홀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그 비싼 걸 말이에요. 네, 새로 짓는 것 보단 버려진 건물들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버려진 대학교 있잖아요.

벽지나 가구 같은 건 다 해졌어도. 컴퓨터나 인터넷 설비는 그대로 일 테니 말이지요. 덤으로 식당이랑 기숙사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인프라넷 대역폭으로 홀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인프라넷, 국가 내에서만 운용한다 해도 말마따나 광통신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며, 트래픽이 줄어든다 한들 얼마나 줄어들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와 같은 기술 도입보다는 제 생각엔 그냥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부여한 다음 그 캐릭터와 자신의 얼굴을 일치시키는 센서를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추얼 방송인 같은 거 말이지요.

이러면 업무, 회의 하다못해 컨설팅까지 모두 가공된 얼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은 못생겼어요. 네, 전 정우의 원격근무단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그 비싼 홀로그램 장비를 구할 수 있다면 있겠지만, 무작정 그러기보단 대체 캐릭터를 가공하는 쪽이 훨씬 거부감도 덜 들고, 업무 전달 간 더 깔끔한 정보교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이란 걸로 회의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원격 근무. 일테면 ‘라식수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라식 수술 의사가 맨손으로 하나요? 레이저든 뭐든 기계를 쓰잖아요? 그럼 의사랑 기계랑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곧 동기화고 원격이죠.

이 얘기는 굳이 수술받으러 특정 도시에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원격근무단지에서 수술해줄 테니까. 어차피 내 몸뚱이 특정 도시나, 먼 도시나 기계에 맡기는 건 똑같으니까. 다만, 초반엔 사고가 좀 있겠죠. 데이터도 신뢰해야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하는 기업 입장에선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시작부터 얼굴을 보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애초에 일이 원격이니까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디어와 유저의 스펙만 보고 파티를 꾸리고 미션이 클리어 되면 파티를 해체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근무 말고도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 것 역시 정우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공간 분리는 힘들겠죠.

그래도 육체 기반 노동자여도 컴퓨터 관련 공부는 해야 할 거예요. 공성 벽돌 50개 드는 노동자보다 공성벽돌 500개 드는 로봇을 배우고 다루는 로봇 활용 노동자가 더 선호 받을 테니까요. 물론…… 그 로봇 가지는 것 역시 돈이겠죠.

그리고 육신을 사용하기에 데이터 기반 업무보다 페이는 더 세겠지만 결국 공간에 제약을 받겠죠. 즉, 출근하는 곳과 퇴근하는 곳이 가까워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기반 업무면 페이는 좀 더 작겠지만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거고요.

끝으로 이런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DATA(자료)’겠죠. 그 자료가 곧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 시대가 ‘자동화 시대’구요.

하지만 확실한 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원격이든 로봇이든, 예나 지금이나 만약 작업환경이 개선되면 그만큼 더 일을 시킬 게 예상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혹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봐요.”

수업시간의 종이 쳤다. 정우가 수아의 눈과 마주쳤다. 수아는 정우를 내려깔 듯이 보았다. 정우는 슬쩍 웃으며 다시 자신의 태블릿을 보았다.

“오늘은 정말 보람찬 수업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각자 돌아가서 다듬을 수 있도록!”

해은은 아파오는 머리와 함께 눈에서 눈물이 찼끔 나왔다. 해은은 화장실로 향했다.

해은이 화장실에서 화장을 조금 고치는 동안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쳐들어왔다. 아직 제대로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던 해은은 옆에 누가 왔는지도 전혀 모를 지경이었다.

“언냐, 왜 그래. 괜찮아?”

“씨발, 조용히 해.”

“와, 해은이가 욕을 다하네. 너 혹시……. 예서야, 일 났다.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해은은 당장에라도 이 둘을 아주 죽여 버리고 싶었다.

5화.

1장. 물갈이. 로봇 심부름. 유전자 가위. 출산. 사막화.

해은은 거울을 통해 둘을 노려보았다. 민애는 그 매서우면서도 어설픈 두 눈을 보고는 해은의 엉덩이를 세게 쳤다. 해은은 고개를 다시 떨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애 이대로 못 보네. 해은, 너 우리 집에 오늘 초대야.”

사실, 민애와 예서는 꽤 있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늘 둘이 다녔던 탓에 해은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재밌는 볼거리 정도였었다. 그러는 와중에 워낙 반 정원이 적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관심을 끄고 싶어도 서로의 가정사까지 다 알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은은 거울을 보며 잠시 고민을 하더니 폰을 꺼냈다.

‘엄마W 저 친구 집에서 놀다 갈게요’

‘그래라W 오늘 오후 3시 경에 미세먼지 폭풍이 있다더라WW 꼭 어디 들어가 있고W 너무 늦게 오지 말고W 올 때 꼭 전화하고’

“자, 봤지? 그래서 뭐 할 건데?”

“뭐하긴. 일단 오기나 해.”

“술 파티. 이참에 멤버 한 명 늘리는 건 어때? 아, 밤새우는 거 아니면 술은 무린가?”

“예서, 너 오늘 진짜 나댄다.”

“왜, 언니? 깔랑깔랑하지 않아?”

술이란 말에 해은은 잠시 닫히지 않은 메시지 창을 보았다. 은영과 더 얘기를 나눌지 고민하다가 그만 두었다. 해은은 정말 오늘 뭐든 하고 싶었다.

해은의 짧은 답변 문자를 읽은 은영은 다이어리를 덮고 안경을 벗었다. 잠시 안경을 내려놓기 전 안경알에 묻은 먼지를 보았다.

반 백에 다가갈수록 해은이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하는 걱정이 먼저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씩 고장 나는 것 같다. 비록 아직 약한 원시이지만 어쨌든 안경을 써야 편하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

정신을 차리니 한 시가 다 되어갔다. 원래라면 점심을 먹었어야 하지만 아침을 너무 무리하게 먹은 탓인지 아무 것도 먹기 싫었다. 잠시 꺼진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았지만 갑자기 더 부룩해지는 뱃속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

아직 한 시 전이기 때문에 세 시 전까지 장을 볼 시간을 충분하였다. 이참에 바람을 한 번 쐬기로 마음을 잡은 은영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서랍 안에 지갑과 장바구니를 꺼냈다.

한낮에 올라탄 무인 버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래폭풍이 예정된 것도 맞겠지만 보통 무인차로 외곽이라 이용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은영은 버스에 있는 이동식 TV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움직이는 풍경들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마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은영 옆에도 사람 하나가 앉았는데 순간 은영 살결과 닮았다. 은영은 창 쪽으로 더 몸을 움직였다.

“아이구, 지랄이야. 지랄은.”

은영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슬쩍 눈만 돌렸다. 할머니 두 분이서 TV를 보고 담소 중이었다. 은영은 조금 궁금해져서 귀를 살짝 열어보았다.

‘70대 부부가 인공자궁 기술로 아이를 가졌는데 해당 산부인과 측에서 알고 보니 유전자 가위로 편집된 일명 조작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DNA 편집 기술을 이용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자궁 착수에 성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검찰은 해당 산부인과와 조작된 아이를 가지게 된 해당 부부에 대해서 수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돈 많으니까 70에 애 가질 생각을 하지. 난 못 해.”

“쫄물딱거릴 때가 있는 법이다. 거시기 참.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여.”

까르르 웃는 할머니들 위에서 조금만 정숙해달라는 인공지능 방송이 나온다. 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밖을 쳐다보며, 자신에게 맞는 정거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결코 대수롭지 않았다.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잊고 있었던 그날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은영은 결국, 살을 찢는 고통과 함께 지쳐갈 즈음 빛나던 작은 핏덩어리를 기억해내고 말았다.

‘너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은영에게 해운을 안고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건넌 민혁의 충고였다. 은영도 역시 밀려오는 기억들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자신도 감정적인 인간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글을 써보기도 하며, 집에서 나와 걷기도 하였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건물만 보기로 하였는데도 그 건물 사이로 비치는 빛 너머로 옛 기억들이 넘어온다.

바람 빠지는 소리와 버스 문이 열렸다. 은영은 건물에서 창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지만, 얼굴을 붉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은영은 자기 얼굴 너머로 마트가 보였다. 지금 당장 내려야 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맺혀있던 눈물이 버스 바닥 어딘가로 떨어졌다.

‘세제, 햄, 라면 한 봉지, 쪽파, 양파, 마늘, 그리고 달걀 15구.’

은영은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폰으로 찍어 왔었다. 모두 마트 지하에 있어야할 제품과 항목들이라서 은영은 카트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다.

세제를 담고 햄, 라면을 담은 뒤 식품매장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은영은 벨리가 끄는 카트와 마주치게 되었다. 은영은 벨리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었다.

벨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이 최적의 루트를 찾는 동안 차라리 인간이 먼저 길을 터주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더 솔직한 심정은 벨리가 최적화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만 예전에 벨리가 괜히 경로를 계산하는 중 알 수 없는 프리징에 걸려 버려 해당 주인 (대부분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다.)이 은영에게 성질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로 인해 은영은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주문만 할까 하였지만 벨루 측에서 지속된 업데이트와 서서히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가는 은영이었기에, 벨리 속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다만, 요즘 들어서는 벨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마트를 넓게 돌아서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다.

은영은 빠르게 물건들을 담았고 계산을 마친 뒤 매장을 나가려고 하였다.

‘마트 내 고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에 당도할 것이라 예상했던 강한 모래폭풍(Rough Dust Storm)이 예상 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건물 내에 계속 머무시거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은영은 그 ‘강한 모래폭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한 모래폭풍이란, 근래에 한국에서 생겨난 기상이변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내리던 시절 후, 계속 날씨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강산에 사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위와 같이 한국에서 강한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벨리의 대량생산과도 연관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벨리를 대량생산 하게 되면서 많은 공장과 유통망이 형성됨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의 대기가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지구에서는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폭풍이 한국에서 일어나며, 열대에서 진행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북극에서 내리는 등 도저히 현 과학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심도 있는 연구에 돌입했으며, 대기의 움직임과 상황을 기상 벨리로 분석해 환경변화를 예측하려고 노력 중이다.

은영은 안내 방송을 듣고 밖을 유심히 보았다. 아직 거리는 평소와 같아 보였다. 은영은 뒤로 슬쩍 고개를 돌려 카페 쪽을 보았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고쳐 들고 폰을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아직 2시 조금 남은 시간이었다. 은영은 그냥 나가기로 하였다.

바로 앞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를 놓치니 은영은 ‘조금 더 서두를걸.’ 싶었다. 결국, 정류소에 앉아 30분 정도 되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팬스레 버스정류소 패널에서 버스 위치를 찾았다. 다음 버스는 아직 종착지점에서 출발조차 안 하였다.

은영은 가슴 저 깊숙한 곳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

했다. 서둘러 모범버스(Deluxe Bus)까지 찾아봤으나 역시나 모두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은영은 길 건너편 마트를 보았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카페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정류소 차폐막이 닫혔다. 모래폭풍이 몰고 오는 먼지들이 하나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은영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백에 마스크를 구비 해두었었다.

긴급탈출버튼(Emergency Ejection Button)을 누르면 정류소를 나갈 수는 있었지만, 은영은 그냥 마스크를 쓴 채 정류소 의자에 앉아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자신의 양팔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한낮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 바보 같아.’

은영은 그대로 영원한 잠들어버리겠다는 심상이었다. 자세를 고쳐 잡고 더 웅크렸다.

유리에 부딪히는 모래들이 조금 규칙적으로 들릴 즈음이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둔탁한 무언가가 인위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은영이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니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밖에서 헤드렌턴을 켜고 은영을 보고 있었다. 은영은 눈이 부셔 손을 들었다. 구급대원은 렌턴의 밝기를 조금 낮추었다. 구급대원은 문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다.

문밖에서는 다른 구급대원이 방호덮개를 들고 있었다. 문밖으로 나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듯이 최대한 은영이 들어가기 좋게 키에 맞추어서 덮개를 걸고 있었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입술을 굳게 문 채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힘차게 긴급탈출버튼을 눌렀다. 구급대원은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은영을 덮개 안으로 넣었다.

6화.

1장. 물같이. 긴급탈출장치. 급발진. 백제로. 쿠페 택시. 모범도로.

긴급탈출버튼은 현재 정류소와 같은 작은 밀집 장소에 우선 시범운행 중이다. 해당 버튼은 여러 운송수단이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빚어지는 갇은 사고에 1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중이다.

해당 버튼은 ‘유사시 승객을 안전하게 할 기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고 대응 적절하게 법안이 세워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위와 같은 유사 시에는 대체로 외부에서는 접촉이 힘들 뿐 아니라 내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인지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종에 운송수단이 더 빨라지고, 거대해지고, 견고해지면서 생기는 기술 역효과인 셈이다.

즉, 운송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만, 유사시에는 그 효율을 위해 대체로 ‘밀실’ 구조를 채택하기에 승객들이 승객실 안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다.

죽음에 가깝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이는 필연적으로 운송수단 내 승객이다.

긴급탈출버튼은 죽음에 직면한 이들에 대해 선택권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것이며, 만약 이 버튼을 누를 시 승객이 탑승해있는 해당 승객실이 통째로 캡슐화(Capsulize)가 진행된 후 운송수단에서 사출되는 매커니즘(Mechanism)이 진행된다.

그리고 사출된 캡슐은 필연적으로 2차 사고를 일으킬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운송수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캡슐화의 연쇄 진행으로 대처한다.

사고 수습 및 복구 전적 보는 행위 혹은 법 집행 등은 모든 연쇄 캡슐화가 끝나고, 구조대원들이 캡슐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생존자들을 구조한 뒤에 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커니즘은 선박 뿐 아니라, 차량, 철도, 여객기에 이르는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구상과 개발 의도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당시 상황은 제 프로젝트를 군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1차 휴가 때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순조로웠죠. 뭐, 저는 당연히 그 프로젝트를 결국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요.

나머지 날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군인 신분이었어도 휴가 때는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일정에 맞춰 휴가 복귀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 기억에 남아요. 제 1차 휴가 복귀 날이니까요.

뭐,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날도 있는 법이죠. 저는 휴가 복귀자였기에 그날 초소 야간근무를 쪼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탄짓을 한 거죠. 하하. 전 그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일반인과 군인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곤 알아냈죠. 전투기 조종사는 위급상황 시, 빨간 버튼 한 방이면 기계가 그냥 전투기에서 뱃다 쫓아내 버리는데, 현재 일반인이 타는 모든 운송수단은 그렇지 않다고요.

최근 정말 핫하죠? 급발진. 급발진 이슈가 발생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기계결함 혹은 운전자 미숙.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급발진 이슈 이전에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 하고요. 물론, 왜 급발진 이슈가 죄다 오토메틱에서만 발생하는지, 트럭, 버스, 지하철, 비행기, 바이크 류에서는 그 발생빈도가 낮은지는 흥미롭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어 안 되는 과속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역시 급발진 시 캡슐화로 사람 살리는 게 먼저겠죠. 이런 건 자동차 뿐 아니라 선박의 침몰사고, 여객기의 추락사고도 마찬가지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현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이유 자체는 사고율을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타인을 위해 푸른색 점멸등을 장착하였습니다.

차에 푸른 등이 들어오면 자율주행 중이란 뜻…….’

하지만 해당 사업가의 바람이 담긴 승객실 사출 매커니즘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로는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

사출되는 과정에서 과연 승객실이 어떻게 승객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며, 이는 곧 승객실 외부에 있는 인원에게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사업가의 생각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승객실 내,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네월호 건조를 담당하는 해당 사업가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해당 캡슐에 최소한의 식량과 현 외부상황에 대한 인터페이스, 소형 엔진기관을 설치해 내부에서 직접 캡슐을 간편히 조종할 수 있게 하여 구조 가능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전했다. 그럼에도 현대 과학기술로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이런 매커니즘 자체도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인터뷰를 반복할 뿐이었다.

모범버스(Deluxe Bus)는 현재 시범운행단계이다. 무인차로제와 서비스업종의 결합으로 인해 사회의 인프라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버스 노선에 분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인차로제 밖에서 운행되는 일반버스 및 안에서 운행되는 무인버스를 포함하여 일정 노선에만 승하차가 집중되고 또한 그 시기가 반복돼 배차간격이 형클어지는 현상이 목격됐다.

이 서비스업체는 사용자가 임의의 정류장, 임의의 시간대, 임의의 도착지를 선정하여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택시와 분명히 다른 점은 ‘버스(Bus)’이기 때문에 운행 중 다른 이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이슈와 추천되는 최단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여 운행해야하기에 무인차로제 운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운행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추천경로를 실시간으로 지원받아 여러 개의 최적 노선을 감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기사에게 있어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버스 기사를 ‘고속 버스 및 일반 버스 운행 5년 무사고’한 자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버스 운행이 과연 사업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 보겠다는 것이 모범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의 말이다.

또한 비슷한 예로 모범택시 SR LE(Deluxe Taxi SR LE: 모범택시서비스혁명판,

Deluxe Taxi Edition Service Revolution Limited Edition)가 있는데, 한때 대한민국에 인프라의 정착으로 지역 분산화 진행돼 시속 250km~300km로 주행을 해야 하는 모범도로(Deluxe Way)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유로는 고속철도나 비행기가 일부 도시에서만 운행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갖은 분기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한 모범주행을 위해선 도로가 최소 3차선으로 편성되어, 150km 이하 구간, 150km ~ 250km, 250km ~ 300km 구간 따위를 도입해야 하는 지경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편도 6차선으로 각각 1, 2, 3차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이러한 도합 왕복 12차선의 도로를 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직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은 국가적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환경단체와 생각해볼 부분이 있고 궁극적인 실효성 측면에 의문을 표하면서 현재 이 건을 보류 중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과 서비스업체는 아직 결정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모범주행에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짚어 쿠페, 스포츠카 택시를 발 빠르게 ‘기사서비스(Driver Service)’를 상품화하려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또한, 비상탈출매커니즘을 상용화시킬 사업가도 이 모범도로 역시 ‘우선, 도로와 운송수단이 안전한지부터 따져야한다. 백제로(Sixty to Zero: 운송수단이 100km/h에서 정지 상태에 돌입하는 시간)의 개발을 앞당겨야 할 부분이다.’는 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송수단에 안전 인식 자체가 개선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열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에 큰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한 남성이 노선이 긴 구간에서 승객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대를 노려 방화를 시도해 큰 인명피해를 낳았었다. 그는 경찰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열차의 모든 소재는 불에 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사람이다. 정확히는 사람이 입은 옷이다.’

이를 끝으로 그에겐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로는 정부에선 바쁜 시간대여도 열차에는 딱 정원만 탈 수 있게끔 하였고 증결을 실시하였다. 또한 출근 시간대에는 증편하여 더욱더 안전한 운송수단이 되게끔 배치하였다.

부가적으로 열차 곳곳에 암행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시민이 무차별 흉기난동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영은 9시 뉴스로 한 번씩 미세먼지 폭풍 속에서 어떤 시민이 이런 방식으로 긴급구조

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그 뉴스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영이 처음 겪는 덮개 안은 우선 바람 소리가 크게 울렸고 모래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류소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덮개 상단부에는 A4용지 정도 되는 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어 앞을 볼 수가 있었다. 은영은 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려버린 정류소 안은 어느새 모래폭풍으로 뒤덮여버렸다.

구급대원은 구급 승합차의 문을 힘 있게 밀면서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 상단부에 설치된 바람막이가(Wind Shield)가 작동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차량 내부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막긴 했지만, 은영이 그 막이를 직접 통과해보니 덮개를 쓰고 있어도 머리를 아플 정도로 바람이 세게 때렸다.

“아휴 어찌다. 방송 못 들으셨어요?”

“아뇨, 들었는데……. 버스를 바로 앞에서 놓쳐가지고…….”

“사모님 고생하셨네. 저희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뭐라도…….”

“저희는 사모님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은영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대원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개미 기어 가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모래폭풍 구조차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였다.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구조차가 운행된다면 이미 모래폭풍이 들이닥친 상황일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되지 못했다.

“도착하시면 덮개 빨리 벗으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씻으세요.”

“네.”

아파트 문 앞까지 오니 벌써 4시가 지나고 있었다. 대원은 지하로 내려가 은영을 내려주었다. 덮개는 은영은 손 하나 쓰지도 못한 채 대원이 직접 걷어 올려주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은영은 덮개 속에서 툭 튀어 나갔다. 은영은 곧잘 대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였다.

집에 도착한 은영은 그대로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레오나가 집기 좋도록 하나씩 꺼내주었다. 우선 급한 계란부터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은영은 식품에 손을 대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은영은 다시 신발장으로 가 먼지떨이개로 야무지게 자신의 몸을 털었다. 이윽고 신발까지 두어 번 바닥에 내려친 후 청소기로 가 자신이 다녔던 곳을 모조리 밀었다. 특히 부엌은 대여섯 번 더 밀었다.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다 놓으니 은영은 자신이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깐 상온에 둔다고 계란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영은 보일러에 물을 데웠고 옷을 하나씩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은영은 머리를 위로 묶었다. 흐르는 물을 등에 직접 닿게 하고 싶었다. 거친 숨을 내쉬는 은영은 눈을 감은 채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였다. 은영의 하얀 속살은 물 온도에 조금씩 붉게 변하고 있었다. 은영은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온도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한동안 따뜻한 물살을 맞으며 서있었다.

샤워를 마친 은영은 식품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는 식탁에 잘 진열해 둔 뒤 침대에 그대로 누웠다. 이불을 덮으니 그대로 잠이 쏟아질 듯이 밀려왔다. 폰을 보니 4시 반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해운이도 놀고 오겠다고 하였으니 당분간 집에 올 사람은 없는 것은 맞았다. 은영은 폰을 끄려던 찰나 상단 표시줄에 알람이 하나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벨리의 업데이트 소식이었다. 아무래도 벨루에서 스마트폰까지 서비스하다 보니 이런 빅뉴스는 전부 공유하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정보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한하여 감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미성년자에게서 얻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인공지능 감성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감정적인 언행과 퍼포먼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영은 그놈의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면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더 폰을 볼 힘이 없었다. 은영은 옆으로 누운 채 자신의 무릎을 안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서늘한 느낌에 은영은 이 한여름에 이불을 어깨까지 덮었다.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난 한 마디가 그 어느 장애물 하나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뭐야…….”

지금쯤이면 모래폭풍이 다 지나갔을 것이지만 은영의 방은 폭풍 때보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지만 은영은 방에서 나갈 용기가 없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에 발걸음이 울렸다. 은영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올수록 더욱 더 무릎을 끌어안았다. 누군가 은영의 방문 앞에 섰다.

‘똑똑.’

“까악!”

은영은 비명을 내지르자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슨 일이야!”

“허, 어……. 여, 여보. 어. 어? 아니야. 그냥… 악몽 봤어. 어, 꿈이 뒤숭숭해가지고 그래.”

“뭘 꿈을 꿔기에 이렇게 식은땀이야.”

민혁은 은영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은영은 아직 민혁에게서 ‘바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직 은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민혁은 불을 키러 문으로 다시 걸어가던 찰나였다. 레오나가 방 앞에까지 왔다. 은영이 무뚝뚝한 레오나의 얼굴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은영 씨? 얘기 가능할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은영은 레오나의 차가운 얼굴에 그대로 흘러버린 듯한 대답을 하였다. 민혁이 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혁은 우선 레오나에게 손짓을 하였고 레오나는 민혁의 손짓을 데이터화하여 분석에 성공해 대기 상태로 돌입하였다. 민혁은 은영의 어깨와 불을 번갈아가며 어루만지며 다독였다. 은영은 민혁의 그대로 품에 안겼지만 민혁의 어깨 너머로 대기하고 있는 레오나

가 보였다.

은영은 레오나와 함께 빨래 바구니로 갔다. 레오나는 은영이 낮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벗었던 속옷과 옷을 하나씩 꺼내어 다른 손으로 옮겼다.

“은영 씨, 해당 빨랫물에서 미세먼지 성분이 다량 검출됩니다. 이러한 빨랫물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이 위생 상 적합합니다. 차후에는 제가 또 다른 바구니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 이러한 빨랫물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은영이 잘못된 것은 또 있었나 보다. 은영은 이제 체념한 채로 레오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세제를 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제를 왜 사셨습니까?”

레오나는 늘 이런 말투였다. 은영은 3년째 적응해보려 했지만 유독 오늘이 너무 버겁긴 하였다.

“아니, 이거 네가 써놨잖아. 폰에 찍어놔서. 봐봐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또.”

민혁은 레오나와 은영이 계속 붙어있는 것이 여간 신경 쓰였는지 부엌으로 왔다. 민혁은 은영에게 웃음을 보여주더니 레오나에게 갔다.

“우리 레오나가 또 뭘 잘못을 했어?”

“글쎄, 내가 세제를 괜히 샀다고 하네?”

레오나는 은영이 전해준 폰을 들고 분석에 들어간 것 같았다. 민혁은 퇴근 전 회사 때처럼 분석에 들어간 레오나를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운은 그런 민혁의 옆모습을 보면서 말을 하였다. 민혁이 레오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이 잘 못 본 거 아니야? 착각했다던가.”

“여보!”

레오나는 분석을 하다가 프리징에 돌입했다. 민혁은 레오나 뒤로 거친 숨소리를 내쉬는 은영을 본 뒤에야 무언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이 시뻘게진 채 세상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은영이 화가 나면 딱 이 모습이었다. 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아니, 그제.”

“냉장고 봐봐. 보라고. ‘세제’ 쓰여 있잖아, 안 그래? 나, 저렇게 컴퓨터처럼 쓰라고 해도 못 써!”

민혁은 레오나처럼 얼어붙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은영은 아예 멈춘 민혁을 향해 고갯짓으로 냉장고를 가리켰다. 은영의 눈은 고갯짓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민혁은 지금 냉장고를 보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첫 번째 항목에 정확히 ‘세제’라고 프린트되어 있었다.

“뽀뽀해봐! 둘이 뽀뽀해보라고!”

은영은 민혁 뒤통수에다가 나지막하면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버린 채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민혁은 어느새 떨어져버린 은영을 뒤따라갔지만 은영은 이미 방 안으로 도망간 후였다.

“은영야!”

“레오나랑, 살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은영의 울음소리가 폭발하였다. 민혁은 방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잠겨버린 문고리를 부여잡았다. 민혁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얼어붙은 레오나를 본 후에는 더 고개가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온통 은영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영은 간만에 다 시원하게 토해낸 기분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도 방문 앞에 쭈그리고 있을 민혁을 위해 방문에 잠긴 문고리를 풀어주었다.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혁은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은영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은영 옆에 앉았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여보는?”

“나야 뭐 똑같지. 그래도 꽤 다닐 만 하다는 거 알잖아. 당신도.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 그나저나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야.”

“보니까 버그 걸렸네.”

“짜증난다, 진짜. 무슨 세제 하나 때문에 저러냐고. 머리 아프다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도 몰라. 개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디버깅 해봐야겠지 또.”

벨리 버그는 정말 드문 일이다. 하지만 정말 어찌다가 한 번씩 벨리는 버그가 걸린다. 그 길로 벨리 서비스센터에 들고 가면 ‘클래스 함수 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다.’느니, ‘릭이 발생해 다른 메모리를 형클였다.’느니 알 수 없는 말만 들은 채 그대로 벨리를 맡기고 떠나와야 했었다. 벨루에서는 벨리의 프리징이 정말 버그로 판별될 경우 버그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과 철저한 로그 분석으로 버그 걸린 기간까지의 심리적 배상까지는 해준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은영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배상은 실질적으로 힘들다.

버그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벨리는 벨리였다. 벨리는 은영을 사용자 외 인물인 돌발변수로 인지하는 만큼 은영도 벨리의 행위와 말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벨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 맞는 답이라 마음을 파내며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 자신이 마음을 파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은영은 처음에는 벨리의 행위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차이가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다.

하지만 민혁이 볼 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심하지는 않았다. 그저 은영이 그 간극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 스스로 극심한 고통에 잠기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는 은영은 다시 한 번 큰 숨을 내쉬는 뒤 민혁의 손을 잡았다. 은영은 펜스레 민혁의 손을 흔들었다. 은영은 처음 민혁의 손을 잡았을 때의 손버릇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은영의 전화기가 울렸다. 은영을 찾는 이가 이 시간에 있을 턱이 없었다. 폰을 보았고 호출은 딸내미 장해은이었다.

“어, 우리 딸. 왜.”

‘어, 나 오늘 빨리 들어가려고. 오늘 미세먼지폭풍 너무 심해가지고, 오염도 너무 심해가지고. 약속 취소됐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해은아, 그럼 그냥 들어오지 그랬어. 왜 전화 해.”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랬잖아.’

은영은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웃었다. 민혁은 옆에서 둘의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 들어와.”

‘뭐야, 데리러 오려는 거 아니었어?’

“빨리 들어와. 발걸음 얼마나 된다고.”

은영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다시 폰이 울리지 않는 걸 보니 해은은 은

영의 뜻을 알아먹었나 보다.

“아이고,정은영 딸내미 하난 잘 키우네.”

“장민혁 씨, 아까 말했잖아. 죽을 거 같다고. 이 몸이 성하지가 않다고요.”

은영은 민혁과 잡은 손을 거칠게 흔들었다.

은영과 민혁은 해운을 데리러 가기로 하였다. 나갈 채비를 하면서 외식 장소를 정했다. 민혁은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참, 벨리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던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시킬 거 아니야.”

“그래. 지금 나가면서 이참에 말길까? 버그도 얘기하고.”

“응, 그래. 버그. 망할 놈의 버그.”

레오나의 다리는 은영이 몸 부분은 민혁이 들었다. 둘은 킁킁대며 레오나를 짊어진 채 현관문을 나섰다.

두 번째 잔. 환상, The Vell With Ari

레오나를 뒷좌석에 눕혀놓은 탓인지 널브러진 팔이 툭툭 은영의 시트를 쳤다. 은영은 못내 거슬렸는지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팔을 올렸다. 하지만 곧 팔이 또 떨어져 은영의 시트를 툭툭 쳤다.

“여보, 이거 앉히면 안 될까?”

“에이, 뭐. 다 왔어. 요 앞이야.”

은영은 정말 하얗게 빛나는 서비스센터 간판이 보였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은영이 시간잡고 걷는다 해도 별로 멀지 않을 거리인 것 같았다.

민혁은 부드럽게 유턴을 하면서 서비스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후진주차를 하고 은영과 민혁은 차에서 내렸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뒷좌석 쪽으로 향했다.

“여보, 벨리 옮기는 거 사람 부르면 안 될까? 무겁잖아.”

“어 맞네. 그러면 되겠네.”

민혁은 서둘러서 매장 문으로 향했다. 은영은 민혁 옆으로 가 팔짱을 껴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내뿜는 화려한 빛들이 민혁과 은영을 감쌌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빛들이 이루는 여러 자연물들과 사람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거의 험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민혁은 더 올려다 볼 수가 없었다. 반면에, 은영은 반사적으로 프로젝터 아래에 있는 가격표를 보았다. 가격표의 숫자는 은영이 떠올린 가격표에서 한참 튀어나가 있었다. 은영은 더 내려다 볼 수가 없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버그가 생긴 것 같아서 프리징걸린 상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여보?”

“그리고 업데이트요.”

“업데이트라면 OS 업데이트 Glass 3.1 버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전에 안내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선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해서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는 안 걸립니다. 다만, 업데이트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업데이트를 마친 벨리 배송은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벨리가 정비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보통 이틀 정도 소요되긴 하죠, 사모님.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몰려서 하루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네요.”

은영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주는 이 직원이 마음에 들었다. 은영에겐 눈치가 꽤 있는 직원이었다.

“전 차에 있으려고요. 구경할 것이 많긴 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정말이에요. 진짜 좀 피곤해서요.”

“제가 주차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준 뒤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센터 2층으로 올라갔다. 은영은 각종 안내서와 사은품을 받으며 매장을 나갔다.

벨루의 빅데이터 수집은 국가법이 적용되며, 사기업이 악용을 할 것을 방지하여 철저하게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감시받는다. 특히나 사용자 신체나 성격, 패턴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벨루에서 기존 영입한 철학자들의 의견과 기업 운영 윤리를 고려하며,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목록을 포함한 법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민혁은 국가와 벨루 간 빅데이터에 대한 협약 내용과 인공지능 윤리를 훑어보고 사인을 하였다.

제일 특별한 경우는 민혁의 레오나처럼 벨리 내부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버그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해당 이슈가 버그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 민혁은 버그로 인한 보상 뿐 아니라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명 ‘버그 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인공지능 버그로 인한 사용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기업은 인정하기에 직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하여 하루나 심하면 사흘 정도의 버그 휴가를 지급한다.

잠시 잠이 난 배달기사가 불려나와 레오나를 센터 2층으로 옮겨다 주었다. 직원은 1차적으로 간단한 전자파 감지장비로 레오나 이외의 전자 장비를 탐지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외부 손상이나 손상을 가한 흔적,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내부조작을 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다. 벨리가 본격적으로 디버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사전작업을 거치지만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손님, 디버그 프로세스 접수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벨리 이름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될까요?”

“네. 그런데 혹시 손님 벨리 정비기간 동안, 예비 벨리가 필요하실까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형이 기본형이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군데 모두 다 얘기가 되었거든요. 요즘은 소식통이 빨라서 원. 그건 그렇고 전 그냥 하루 정도는 없는 셈치고 지내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민혁과 직원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민혁은 어디론가 실려 가는 레오나를 한 번 돌아보고는 2층을 내려왔다. 매장을 나서기 전 뒷좌석이 비었음에도 앞좌석에 앉아있는 은영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민혁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민혁이 앉아 차가 한 번 크게 흔들거린다. 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 왔어? 어땠어? 괜찮데? 다른 데 더 심한 건 없냐고.”

“어어, 괜찮아.”

“다행이네. 다음번에도 여기 와야겠다. 서비스가 좋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여보, 우리 기분 좋은데 딸이나 꼬셔서 밥 먹으러나 갈까?”

은영은 말없이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민혁은 차 안이 조금 싸늘한 것 같아 히터를 약하게 틀었다. 은영은 창틀에 팔을 얹히고 굽혀진 허리를 조금 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개운하였다.

해은은 미리 얘기했던 대로 학교 앞에서 픽업을 하였다. 민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조금 나갔다. 회사 사람들이 최근 오픈한 양고기 집을 그렇게 추천한다고 하여 해은은 별 수 없이 끌려갔다. 해은은 싱싱한 회가 먹고 싶었다. 하지만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으면 안 됐다.

맛집이라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매장 밖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그 긴 줄 끝에 섰다. 해은은 민혁을 따라 섰고 은영은 차 앞에서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혹여 새치기를 당할까 답답한 마음에 은영을 부르려 하였다.

은영은 도리어 민혁과 해은에게 손짓을 하였다. 해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해은은 줄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은영에게 달려갔다.

“왜.”

“예약했지. 아빠가 하래더라.”

해은은 은영을 끌고 가게 쪽으로 향하려 하였다. 은영은 해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젊은 해은의 힘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민혁에게 손짓을 하였다. 민혁 뒤로 이미 5팀은 더 섰다. 민혁은 망설이다 끝끝내 줄을 포기하고 은영에게로 걸어갔다.

가게 안은 고기 냄새로 가득하였다. 하루 종일 힘이 없었던 은영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것을 느꼈다. 해은이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해은은 옆구리로 은영을 밀쳤다. 은영과 해은은 서로 웃으며 바라보았다. 해은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매장 디스플레이를 눌렀다.

“어디 방이야?”

“D11. 4인 방이야.”

“어 근데 메뉴는?”

“해은이랑 아빠랑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같이 보면서 선택하자고.”

“엄마도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엄마!”

은영은 가게 가운데에 크게 자리 잡은 나무 하나를 보았다. 한창 그 나무를 보느라 정신이 팔린 은영을 말리러 온 해은도 같이 나무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남은 민혁이 메뉴를 선택하고 은영과 해은에게로 향했다.

“뭘 그리 보고 있는데?”

“사계수래.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나무.”

“참, 신기하네.”

“그르게, 그런데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으려니 참 힘들기도 하겠지? 보기만 좋으면 되는 걸까나? …… 뭐, 여보는 시켰어?”

“우리 해은이 좋아할 거 같은 걸로 시켰어.”

“잘했어, 여보.”

민혁은 양갈비 4개가 딸려있는 B세트를 시켰었다.

은영이 선택한 방은 이미 시원하게 냉방이 되어있었다. 심지어 바닥까지 시원해 바로 앉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양고기 집은 10테이블 정도가 설치된 비교적 대형 음식점이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꽤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천장에는 홀로그램으로 된 고래와 물고기들 해초들이 살아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바닷소리가 들리게끔 꾸며놓았다. 해은 옆에는 화분 하나 있었다. 은영이 슬쩍 해은의 옆으로 와 이파리를 건드려보았다. 이파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 모습에 해은은 입이 벌어졌다. 민혁은 그런 해은과 은영의 모습을 폰에 담았다. ‘찰칵’ 소리에 해은과 은영은 카메라 쪽을 보며 다시 활짝 웃었다. 민혁은 이번에 제대로 찍어주었다.

양갈비는 하나씩 나누어 먹었고 나머지 하나는 해은이가 가져갔다. 은영은 나머지 양갈비 하나는 물론이거니와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이킬 수 없었다. 점심도 굶었던 탓인지라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배가 불렀다. 간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허리를 쭉 펴고 머리를 아예 뒤로 젖혀 기지개를 펴보았다. 행복한 신음이 나왔다. 옆자리에 있던 해은이 민망한 나머지 은영의 배를 톡톡 쳤다. 은영은 해은이 만진 배를 스스로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해은을 쳐다보았다. 해은도 팬스레 은영의 배를 내려 보았다.

“잘 났네. 아주 자알 났어.”

은영은 해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민혁은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저녁 메뉴 선택을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맛도 꽤 좋은 편이라 다음번에도 올 수 있으면 오기로 하였다.

“이런 집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은영의 최종 평이었다. 해은도 승낙하는 표정이었다. 민혁은 대성공이었다. 비록 외곽 쪽에 위치하였지만 이런 맛집이라면 역시 언제나 환영이었다. 해은은 조엘을 챙겼고 민혁은 해은을 기다렸다. 은영은 먼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원래 손만 씻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변기에 앉은 은영은 집중을 하였다. 생각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은영의 눈이 조금 찌그러졌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샌가 매장 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 같았다. 조금 괴상한 느낌이 들어 은영은 주머니에 있는 폰으로 손을 갔다. 화장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여유로운 교향곡 같은 것이 들려온다. 은영은 자잘한 소리가 찾아들고 재생되는 새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귀를 기울였다. 은영은 폰으로 가던 손을 멈추고 편하게 집중을 하였다.

은영이 매장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해은과 민혁을 만났다. 밖을 보니 국지성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은영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매장 입구는 줄을 기다리는 사람과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얹혀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이 차로 향한 사이 은영과 해은은 가게 처마 밑에서 기다렸다. 인도와 주차장까지 합하면 입구에서부터 차까지 거리가 꽤 되었지만 민혁은 그냥 빗속을 뛰어갔다.

“여보! 아유, 내가 못 살아!”

은영은 손으로 비를 막아보았지만 워낙 퍼붓는 탓에 턱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은영과 해은은 손을 내리고 웅덩이를 최대한 피해가며 천천히 차를 향해 댕걸음으로 뛰었다.

“여보, 괜찮아? 빠진 거 아니지?”

“……. 괜찮아. 난 비가 오면 당신 생각나더라.”

“하, 됐고 집에나 가요. 무슨 말이람 이제.”

은영과 민혁은 투덜대는 해은을 억지로 끌어안고 차에 올라타왔다. 차는 부드럽게 집으로 향했다.

국지성호우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아직 구름은 많이 있었지만 달이 보일 정도로 날이 맑아졌다.

민혁은 짹짹 찬 아파트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 은영과 해은을 먼저 집으로 올려 보냈다. 집에 오자마자 해은은 화장실로 가 옷을 벗었다. 은영은 은영 방으로 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 민혁 방에 달려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은영이 맨몸으로 이제 막 화장실을 나오는 참이었다. 민혁은 간만에 본 은영의 맨몸을 보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입을 막았지만 헛기침이 나왔다. 은영은 수건으로 서둘러 몸을 닦고 속옷부터 간결하게 입었다. 은영은 잠옷을 입고 아직 젖은 머리를 손으로 올려 물방울이 바닥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댔다. 민혁은 은영의 들려진 팔 사이로 저 안숙 깊은 곳에 있는 하얀 맨살까지 훤히 볼 수 있었다.

“뭐 해?”

“아니, 나 이제 쓸게.”

“그래.”

은영은 민혁의 얼굴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다. 은영은 민혁의 저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눈매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참. 기분 좋은가 봐, 오빠.”

“여보, 조용히 해. 애 들을라.”

“히, 아까 사진 찍은 거 단체 방에다 올려줘.”

“알았어.”

민혁은 무력하게 대답을 하였다. 은영에게 허구한 날 이렇게 간파당하지만 매번 기분은 좋았다. 속이 안 좋아 변기에 앉았지만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민혁이었다. 은영이 잠시 사용한 화장실은 유독 달콤한 향기가 짙게 베인 것 같다. 민혁은 해은과 은영이 고기를 뜯고 있는 사진을 단체 방에다 업로드 하였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미성년자는 메신저 및 채팅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게 맞지만 미성년자의 직계가족증명 혹은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를 활용해 가족 채팅을 할 수 있다.

은영은 머리를 뽕뽕하게 말리고 침대에 앉았다. 폰을 손에 들었고 화면을 켜다.

‘으엑’

해은의 채팅이었다. 은영은 활짝 웃으며 민혁이 올려준 사진 모두를 다운로드하였다. 은영은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 하나하나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았다. 확대하고 줄이기도 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붙여보기도 하였다. 그 중에 은영은 하얀 날개가 달린 하트를 선택했다. 갤러리 인공지능이 두 여자의 얼굴 각도를 계산하여 은영이 선택한 스티커와 위치에 적절히 왜곡효과와 굴절을 넣어 자연스럽게 코 위에 스티커가 없어지게 만들어주었다. 은영은 해당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배부른 하루가 된 것 같았다.

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열었다. 마우스로 위쪽 끝을 드래그하여 화면 위쪽으로 Glass 패널(Panel)을 옮겼다. 인터넷 패널은 미리 사용자와 약속된 명령으로 인해 패널이 전체 확장되어 넓은 화면에 인터넷이 꽉 차였다. 은영은 이어서 서랍에 있는 낡은 성경과 안경을 꺼냈다. 인터넷에 다니는 교회의 페이지를 접속하여 ‘오늘의 수요일예배’를 클릭하였다. 벌써 밤 10시가 되어 이미 정규 예배는 끝이 났지만 교회 측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놓친 신자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페이지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프라넷은 이러한 종교 활동, 대학 교육, 방송 및 언론, 문화 활동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영으로 운영되는 서버와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값싸게 자료를 인프라넷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를 확장하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유명한 곡, 세계스타들의 인터뷰들 따위는 세계인터넷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된다. 특히, 문화 활동 같은 경우 보통 인공지능 혹은 아마추어들과 함께 번역이나 자막을 작성하며, 대중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대개 전문 번역가와 함께 문화 활동을 하는 식이다.

은영은 인프라넷을 통해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예배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입술에 힘을 주었다. 해은이 갑자기 불쑥 방에 들어왔다.

“어? 해은아, 왜?”

“어? 아니야. 미안.”

간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은영의 모습을 본 해은은 갑자기 어색해진 탓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했는지 완전히 잊었다. 괜히 눈을 둘 곳이 없던 해은은 잠시 빠르게 은영의 방을 스캔한 뒤 슬쩍 웃으며 은영에게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였다. 은영은 웃으며 해은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잠시 방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해은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은영이 제 때에 예배 영상을 멈추었다.

“아, 아이스크림 먹을 건가 싶어서. 덤잖아.”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아직 괜찮아.”

은영은 간식이라도 먹는 것에는 일절 아끼는 체질이었다. 잠시 머릿속에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떠올랐지만 그냥 해은에게 웃으며 화답해주었다. 해은은 수줍게 웃으며 방문을 닫았다. 은영은 다시 예배에 집중하였다. 현관 쪽에서 해은이 요란스럽게 신발을 갈아신더니 문을 부주의하게 강하게 닫고 나갔다.

은영은 방에서 조용하게 찬송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렸다. 찬송가가 마무리될 무렵 해은이 아이스크림을 은영에게 건넸다. 은영이 생각했던 소프트아이스크림이었다. 은영은 아이스크림의 뚜껑을 열고 한 입 베어 먹으며 놓쳤던 영상을 뒤로 돌렸다.

해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물었다. 해은은 가만히 스마트하우스에 모두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다.

서비스 시대에 맞춰 집의 형태도 크게 변화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하우스(Smart House)’라는 건물이 등장했으며, 집이 하나의 플랫폼(Platform)이 되는 격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종이다.

너는 나의 왕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단, 여기서 노예와 왕은 각각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이’, ‘타인의 노동을 지급받는 이’로 구분한다.

원리는 요리가 정말 싫은 가정에게 냉장고관리, 집안청소, 잔반처리, 그릇정리를 제거하기 위해 아예 부엌이란 것이 빠지고 다른 노래방(Singer Room), 영화방(Movie Room)이 들어온다. 이렇게 집의 방과 고정적으로 있는 필수 시설에 대한 수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스마트하우스이다.

부엌을 제거한 집은 연결된 상·하수도 시설은 닫는 정도로 해결하며, 완성된 요리는 시켜서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요리들은 대부분 친환경 포장재로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부엌형태만 남게 되고 간단한 간식정도와 소량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부 가정은 이런 최소한의 부엌형태도 모두 없애 버린 곳도 있다.

더불어 배란다를 제거하고 다른 방으로 대체한 집도 있는데 옷의 관리를 전적으로 외부업체에게 맡김으로서, 세탁이나 옷의 전반적인 관리 등을 전부 옷 서비스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최소한의 옷장을 가지게 되고 포장재는 역시 친환경 소재로 되어있다. 옷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주에 한 번 미리 지불한 금액과 성향에 맞춰 트렌드에 맞는 옷이 배달된다. 일부 가정은 아예 최소한의 옷장도 없애고 일일에 한 번 옷을 받는 곳도 생겼다. 이렇듯 서비스 시대에는 집 형태에 대한 재연구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집에선 서비스가 도착하는 방인 ‘사랑방’이 배치되고 있다.

집안청소와 같은 경우는 ‘간단청소(Simple Cleaning)’ 시 서비스업자는 집안 먼지나 청소기를 한두 번 정도 돌리는 청소가 이루어진다. 또한 범죄발생대비를 위해 집안 곳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며, 이 데이터는 인프라넷을 통한 빅데이터단지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후에 청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이 되는데 너무 방이 지저분할 시 간단청소 불가 혹은 더 높은 값을 지불하는 청소를 선택해야 청소서비스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사업체의 서비스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된다.

스마트하우스는 방들의 원활한 수정·관리를 위해 보통 아파트 형태가 아닌 일반 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유가 되는 가정은 아예 자식들 방을 따로 떼어내 대청으로 잇는 방식을 선호한다.

집이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인프라넷이다. 인프라넷 위에 집이 지어지다보니 굳이 인프라가 공간에 얹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인프라 자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무인차로제 시행으로 매장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동으로 무인차로 위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외곽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최소거리가 자동으로 책정되고 가장 가까운 서비스가 전문배달원을 통해 서비스를 집으로 배달받게 된다.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은 미리내고등학교처럼 시대에 맞게끔 외곽으로 빠져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아졌다.

이러한 건물의 등장을 학자들은 ‘노예제도의 완전한 종말’이라 설명한다. 가족이 이렇게 개 개인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족, 왕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였다. 즉, 가족이 개인화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귀족은 기본적으로 남이 지어준 밥, 남이 청소해주는 집, 남이 만져준 옷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부릴 줄 안다. 이것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인성교육까지 겸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서비스업에선 각각 사용자의 학력, 신용등급으로 치환된다.

과학과 기술, 지식 등의 공유는 그 특성 상 이미 여러 진보를 거두어 노예제도의 탈피를 하였지만, 사회와 법, 생활방식 등의 공유는 그 특성 상 노예제도가 뿌리 깊숙이 남아있어 잔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를 학자들은 21세기 초 아파트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파트 문화는 대표적인 노예제도의 잔재로 단지 위치와 평수가 넓다는 몇 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가격격차가 심하게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내 수십 억 하였던 소위 프리미엄아파트, 럭셔리 고급 주택 대비 지방에 자리 잡은 작은 월세 방과를 비교하자면 가구 배치와 전반적인 방의 형태와 쓰임새가 똑같다는 것이다. ‘누구의 집이 더 비싼가?’와 같은 비교는 사실 상 ‘누구의 쇠고랑이 더 빛나는가?’와 같은 그저 노예들끼리의 자랑일 뿐이며, 그 눈을 막고 있는 환상을 벗겨낸 최초의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하우스라는 설명이다.

스마트하우스는 동·서양 몇 안 되는 귀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IT기술과 강력한 보안을 접목해 서비스(Service)로 가공이 되면서 방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로만 꾸며지는 자신만의 방을 건설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Jake의 So damn Beautiful Room 서비스가 대세다. 각각 전자는 청년들의 여가 공간이 전자기기로 제공되고, 후자는 세계 여러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노예제도 잔재에 저항한 최초의 세대는 이른바 MZ세대, 밀레니얼세대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원시인터넷 연결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노예와 왕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작은 나만의 방, 공간 개념인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SNS 등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운영한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현대 학자들은 과거 밀레니얼세대를 2차 산업시대와 3차 산업시대 중간 어딘가 걸쳐있는 과도기 한복판에 위치한 세대라고 평가한다. 즉, 서비스 시대의 첫 번째 자손인 셈이다.

예배를 끝낸 은영은 에어컨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온몸이 시렸다. 은영은 에어컨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른손으로 아랫배를 어루만져보니 어느새 많이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은 이불을 뭉쳐 배를 덮었다. 은영은 갑자기 또 너무 더워져 에어컨을 틀까 했지만 그냥 창문을 살짝 열어두기로 하였다. 밤 비 내린 도시의 공기는 초여름이었어도 꽤 식어있었다. 은영은 따뜻해지는 배와 시원해지는 팔다리를 느끼며 오늘밤 배부르게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기엔 딱 알맞은 온도가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그렇게 잠에 들었다.

은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전 5시였다. 은영은 억지로 다시 잠에 들어보려 했지만 눈은 다시 감기지 않았다. 아랫배가 조금 아파지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일을 보고 거울 앞에 서니 은영은 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졌다. 바로 세안을 시작했다. 단, 너무 이른 시간인지라 물소리는 최대한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을 다루었다. 머리를 감았고 행여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조차 세어나갈까 은영은 부드럽게 수건으로 머리를 다잡았다. 해은은 은영 방에서 들려오는 헤어드라이기 소리에 잠시 눈을 뜨긴 했지만 방문 두 개를 건넌 워낙 작은 소리라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아직 5시 반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은영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안경을 썼다. 서랍 속에 있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막간에 처음부터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다. 잊었던,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과 자취들을 담은 자신의 손글자들을 쓰다듬어보면서 과거를 음미해보았다. 그렇게 침대에 슬피 누워 하루를 보냈다.

어느새 6시가 되었다. 은영의 기억으로는 이 시간 때에 레오나가 움직여서 집안일을 시작하였고 아침식사까지 준비했던 것 같았다.

단순히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옮기는 것을 했을 뿐인데도 간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려하니 조금 당기는 것 같았다. 레오나는 이 시간에 빨래에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 등 아침에 큰 소음 없이 할 일들은 거의 다 봐준다. 은영은 그저 어질러진 것만 제자리에 올렸는데도 온몸에 땀이 배고 시간이 20분이 지나가는 중이다. 은영은 정리를 중지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은영은 냉장고에 놓여있는 계란을 꺼내 후라이팬에 풀었다. 은영은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면서 해은과 민혁의 아침 식사는 작은 토스트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해은이 그 사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잘 퍼진 계란 위에 빵을 얹었다. 하나씩 구워지는 빵들을 접시에 옮겨 담고 빵에 딸기잼을 발라 계란을 한 장씩 더 겹쳤다. 민혁은 딸기잼뿐만 아니라 해은은 느끼하다고 싫어하는 그 부드러운 버터도 조금 곁들여주었다.

“우리 엄마 요리했다. 대박.”

“여보야, 진짜 맛있네.”

“아침은 든든해야지. 맛은 괜찮아 여보?”

민혁은 대답을 생략하고 토스트를 한 입에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계란 한 장을 손으로 집고 적당히 잼을 바른 빵 한 장을 구겨서 또 먹고 있었다. 은영은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민혁에게 지었다. 해은은 우유를 들이킨 후 입 주변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조엘을 부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영은 휴지를 들고 해은을 쫓아갔다.

“해은아 양치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맞네.”

해은은 감미로운 토스트에 항상 챙기던 양치 시간도 잊었다.

해은과 민혁이 떠난 부엌 식탁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은영은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흠뻑리고 간 빵 부스러기들을 한데 모았다. 다시 식탁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그렇게 깨끗이 닦고 보니 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은영 본인의 아침 식사였다. 접시는 아예 비워져 있었고 우유도 거의 남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이 고작 3개밖에 남지 않았다. 은영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오늘 또 장을 보기로 생각했다. 계란 하나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금 비쌌지만 시내까지의 버스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편의점 쪽이 더 싸다.

남은 계란을 넓게 펴 빵을 적절히 눌러주었다. 계란이 조금 입혀진 빵 두 개를 뒤집어 또 고르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빵과 계란을 같이 구웠고 적절히 익혀지자 접시에 옮겨 담고 잼과 버터를 발랐다. 은영은 자리를 옮겨 식탁에 앉아 천천히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갔다. 거친 빵과 부드러운 버터 그리고 그 새로 나오는 버터의 기름기가 은영의 입을 가득 메운다. 민혁이 먹은 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다. 은영은 먹는 것을 뒤로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저 시내로 돈을 벌러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밀려오는 미안한 마음에 은영은 더 창밖으로 눈을 둘 수가 없었다. 다시 몸을 돌려 남은 토스트를 먹기로 하였다. 그리고 은영은 계란을 다시 채워 넣기로 하였다.

집을 나서기 전 혹시 몰라 베란다와 민혁의 방을 가보니 은영이 굳이 손 댈 것이 없었다. 이것저것을 확인한 은영은 곧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장바구니와 스마트폰을 챙겼다. 그래도 무언가 걱정이 되는지 현관에서 다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은 바로 집 앞이다.

아파트에서 나섰을 때 마른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조금 트인 곳으로 가니 그 바람을 맞았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을 떨기 시작한다.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7시 13분 경 모래폭풍 발생!’

긴급문자였다. 모래폭풍이 곧바로 은영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영은 그냥 계란을 사기로 하였다. 폭풍이 한 번 발생하면 언제 걷힐지도 모를 노릇이거니와 은영의 계산으로는 그래도 계란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은영의 확신 없는 계산은 점점 강해지는 마른 바람에 걸음은 어느새 뛰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빠르고 절도 있게 무인 결제기에 계란을 올려놓고 결제 패널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다. 벌써 창밖은 육안으로도 조금씩 그 먼지폭풍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쨌든 오늘따라 유독 결제가 더디게 되는 것 같았다. 결제가 되었다는 인공지능 음성이 결제기에서 흘러나오자마자 은영은 계란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곧바로 집으로 내달렸다.

모래폭풍이 들이닥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황색과 검은색이 섞인

젯빛 하늘로 뒤덮였고 시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지 않은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대며 아파트 현관문이 잡히길 기도하였다.

어느새 아파트 문은 폭풍으로 인해 잠금장치가 활성화 된 상황이었다. 은영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이 아파트 주민인 것을 문에게 알려주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와중에도 그 사이로 모래는 아파트 내부로 밀려들어왔다. 겨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은영은 모래폭풍 내에서 사망한 이들이 어떠한 것을 겪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힘없이 현관문을 닫은 은영은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영은 다시 일어나 머리부터 탈탈 털기 시작하였고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모래가 묻은 계란 포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선 화장실로 향해 샤워를 시작하였다.

은영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청소기를 돌렸고 계란을 하나씩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내었다. 한숨 돌린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발생한 이번 폭풍은 시내는커녕 바로 앞에 보였던 가로수까지 집어삼키는 폭풍이었다. 은영은 배란대에 선 채로 손톱을 물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단면을 보고 있다가 해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통화 연결음만큼 은영의 걱정은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어디니? 괜찮니?”

“여기 학판데. 괜찮지 당연히.”

“벌써 학교라고?”

“어, 수업 준비 중.”

“아, 그래. 준비 잘하고. 해은아, 거기도 혹시 미세먼지폭풍 가지 않았니?”

“응? ……. 아~ 괜찮아. 학교잖아. 엄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응~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해은은 전화를 끊으면서 슬쩍 책상 위에 펼쳐져있는 이중슬롯에 관한 글을 보았다. 역시 아무리 봐도 실험 자체가 그냥 문 열고 닫는 것처럼 생기긴 했다. 막간 쉼터 파트에 ‘불확정성원리’가 나왔기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한 번 복습해볼까 하여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들여다보는 걸로 끝났다.

“오늘 이중슬롯은 꽤 어려운 텐데 질문 있는 사람 없니?”

해은은 질문하기에 앞서 질문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입이 당최 열리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터라 무엇이 본인이 궁금한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사이 왼쪽 구석에 있던 수아가 손을 들었다.

“도끼가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도끼를 삼키는 거 같아요.”

예서의 기가 찬 웃음이 교실을 울렸다. 수아는 예서 쪽을 한 번 돌아보려다 말았다. 선생님은 웃으며 수아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물질이 두 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중슬롯을 열게 되면서 공간이 두 개로 나뉘게 된 것 같아요. 공간이 두 개로 나뉘고 하나의 물질이 두 공간에 걸쳐있는 상황이요. 때문에 한 공간이 두 공간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 마치 물결처럼 하나의 물질이 나뉘어서 관측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관측되겠죠. 나뉘어졌으니까. 더하여 공간이 나뉘는 지점이 딱 가운데가 아니라면 물리량과 공간 위치에 따라 물리량도 달라질 수도 있구요. 정리하자면 물질의 이중성.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은 입자성만 가지고 있는데 위치해있는 공간이나 그 물질이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역시 파동일 때, 관측이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위치해있는 공간장보다 약한 공

간장을 가지게 될 경우 공간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요. 어쨌든 그 ‘전자’라는 것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의 입자는 공간을 형성할 테고 입자가 충돌하거나 공간장이 강한 물질끼리 만날 때, 척력이든 인력이든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물질일수록 차지하는 공간장이 작을 테고 때문에 공간전이 현상이 아주 작은 물질에서만 일어나고, 큰 물질일수록 공간장이 클 테니 공간전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장은 너무 작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장이 정렬되는 거예요. 즉 관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관찰자가 존재하는 것과 보는 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게다가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면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5차방정식 이상부터는 없고. 4차원 공간까지만 이해하면 우주의 질서, 자연 현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차원 이상의 물질은 결정될 수 없으니까요. 공간전이. 4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자연현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닐까요?”

“흠, 우리 수아는 이중슬릿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네!”

“선생님도 이런 수업 외적인 질문은 꽤 낯서네? 이러한 생각을 이유라도 따로 있니?”

“불확실성은…… 인간 삶에만 적용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삶은 공학이 아니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관련 자료 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줘도 괜찮을까?”

“네, 좋아요.”

해은은 둘이 알아서 잘 떠드는 와중에 대현의 빈자리 너머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저 먼 도시에는 폭풍이 지나가는 중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뿌연 공기에 아주 위쪽에 하늘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우와 수아는 동시에 교실 문을 나갔다. 해은은 멍하니 대현의 빈자리를 보고 있었다. 민애가 해은의 등짝을 쳤다. 해은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몸을 비비꼬았다.

“헤이, MISS HAE EUN? 우리랑 밥 드셀?”

예서가 맑아진 하늘과 해은의 움직임이도 않는 뒤통수를 보며 떠올린 생각이었다. 예서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야, 닥쳐.”

앞에 앉아있던 민애가 예서에게 쏘아붙였다. 곧바로 일어서더니 해은 오른팔을 잡고 끌어당겨 일으켰다. 민애는 곧바로 뒷문으로 해은을 끌고 나가버렸다.

“야, 민애. 같이 가.”

“뭐? 민애?”

“민애 언……. 아! 아파. 빨리 가자. 아아!”

예서는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듯 손가락 세 개를 펴보았지만 민애는 그 세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민애는 나머지 손으로 예서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꺾게 하였다.

“진짜 조만간 너 내가 조진다.”

“미안미안. 잘못했어. 우리 그나저나 뭐 먹을래?”

“햄버거 먹자. 해은이는?”

“난 괜찮지. 그런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건데. 왜 맨날 나가서 먹는 거야?”

“응? 그냥. 솔직히…….”

“야야, 민애서 나가서 얘기해. 아직 학교 안이야.”

민애는 곧 한대 칠 기세로 손을 거칠게 들었다. 예서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민애 손으로 걸

눈질을 하면서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민애의 공격을 피했다.

“해은이는 내가 오늘 특별히 사줄게. 너, 끌려나오는 거잖아. 그치?”

“참나. 너희 막, 되게 비싼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설마, 내 생각해주는 거야?”

민애는 해은을 슬쩍 보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민애는 잠시 예서를 부여잡고 접힌 신발을 고쳐 신었다. 셋은 학교를 나왔다.

“해은 언냐. ‘시성비’라고 알아,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 언냐가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먹으려면 적어도 여기서 못 먹잖아? 그럼 시간을 써야겠네? 그러긴 싫거든?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먹는 거야.”

“그래? 시성비라고? 좋은 말이네.”

“그리구 나와서 먹는 이유는 분위기는 있어야 소화가 잘 되더라고. 민애 언냐도 그래.”

“너는…….”

민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 신호가 풀려 그냥 민애는 하려던 말을 물어버렸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셋은 메뉴를 고르려고 하였다. 하지만 좀처럼 정하지 못하는 해은과 예서를 보고 민애는 그냥 불고기 버거 세트 3개를 주문하였다.

“아, 아니요. 하나 취소해 주시고 저, 치킨 버거 세트로요.”

“해은이는?”

“난, 난 그냥 먹을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해은이 알고 보니 모두 민애가 사는 것이었다. 민애는 핸드폰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해은은 난생 처음 보는 검은색 카드였다.

“민애야, 설마 이게 그 ‘블랙 카드’라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건 검은색 디자인인 거야. 뭐, 그런 급은 아니야. 애초에 나이도 안 되잖아.”

“그래도 카드를 쓰네. 나는 그냥 은행에 연결된 폰 쓰는데. 강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더라도 하면 이미 난리난 거라고 생각하려고.”

“이 언니는 돈에 별 생각이 없구만.”

“돈이 복잡하잖아. ‘우리’가 문제 있는데 ‘나’라고 별수 있겠어? 그냥 대충 맡기려고. 나중에 목돈이나 되면 좋겠지 뭐. 게다가 십사일반이라고. 내겐 십일조 같은 것도 감사헌금이야. 왜냐면 돈을 벌고 어디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내겐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도약 계좌?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 도약해서 그런 계좌 의미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그럼 좋긴 하긴 한데……. 그……. 난,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아직도 체크카드거든. 쓰는 맛이 있어서. 이것도 일중에 돈을 쓴다는 걸 몸이 익히는 거지. 솔직히 엄마는 현금 쓰라는데 나는 거기까진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타협 본 게 카드야. 체크카드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더라고.”

매장 창문 쪽에 자리를 앉은 셋이었다. 해은은 앉아마자 학교 쪽을 보았다. 민애와 예서도 말없이 해은을 따라보았다. 조금 여유가 되자 해은은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났다.

“대현이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야 해, 해은아.”

“……. 그냥. 마음이 그러네. 일단, 보내긴 했어.”

“오, 잘했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래.”

예서는 오른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해은은 꽤나 뜬눈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현석이 때문에. 서현석. 뭔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왼쪽 뒤쪽에 있잖아. 항상 늘 왼쪽이 꽤나 찝찝하단 말이야.”

“오~ 뭘 일이라? 관심 있는 거야?”

“야, 민에서 닥쳐봐. 나도 개 존나 거슬리거든 사실. 개 지금 교실에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뭘 할 거 같아?”

민애는 정확했다. 해은의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고1짜리 서현석은 제일 뒷자리에 있는 주제에 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 어제는 뜬금포로 쪽지 시험 1등을 거머쥐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생각 자체를 하고 싶다는 가진 적이 없던 터라 반에서 유일하게 가장 적은 정보를 가졌다. 심지어 벨리도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 하였다. 벨리 없이 1등을 한다는 것은 벨리를 가진 자 입장에서는 일종에 약간 선을 넘는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어제 일로 인해 현석이 다른 의미로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 사이 햄버거가 나와서 바깥쪽에 앉아있던 해은이 햄버거를 가지러 갔었다. 예서는 저 먼 하늘을 훑어보더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민애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서가 감자튀김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말을 꺼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름끼친다.”

“뭘가.”

“서현석. 개 교실에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이제야 소름이 끼치네.”

“아무리 그래도 ‘소름이 끼친다.’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장해은. 너 서현석 조사는 해봤어? 우리 다 해봤거든. 우리 반 교실 애들. 선생님까지. 개 기생이야 기생.”

기초생활수급자(基礎生活受給者).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기수자’라는 표현을 쓴다. 예서가 표현한 ‘기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큰 범죄나 사회악을 일으켰을 때 쓰는 단어이다. 그리고 그런 단어도 꽤 사려서 하는 편이지만 예서는 그런 필터링 없이 다짜고짜 현석을 쏘아붙이는 것이다. 해은 생각에는 적어도 현석이 학교 내에서 기생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지금 민애에게 기생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개 뭘 학교 밖에서 병신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좀 말을 많이 안 해보긴 했지만.”

“다사랑복지센터(All in Love Welfare Center). 우리 해은이가 이걸 모르진 않겠지? 회원이야, 서현석.”

‘다사랑복지센터(ALWC)’는 기수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반정부 단체로 노선을 바꾼 단체 중 하나였다. 최근 동향은 집회 내용이 너무 사회에 공격적이라 회원이었던 기수자들도 탈퇴하고 다른 단체를 알아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다.

“이 언니 표정 봐봐. 전혀 모르는 거 같지? 아무 것도.”

“증거는 있는 거야? 사람 그렇게 함부로 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름지기 사람에겐 최소한의 예의 아니,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걸 그린벨트마냥 믿음의 벨트라고 부르거든. 무턱대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왜 요즘 현대인들의 흔한 범죄행위를 보면 진정 악의적 행위보다 무지(無知)한 행위도 있잖아? 예를 들면 돈을 벌려고 거리낌 없이 도둑질한다던가. 그러니 도둑질이 초보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털미가 잡히는 거지. 정말 그런 건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 좋은 자세야.”

“거기서 더 조사하면 우리가 위험하거든. 우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본 거야. 이걸 그리고 인정해야 돼. 정황상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 교실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혼자서. 혼. 자. 서.”

“근데 사실 그것도 알아야 돼. 대현이랑 수아도 기수자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민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햄버거를 먹으며 예서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쩌면 대현의 전학은 이미 이 둘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정된 일이었다. 정부에서 돈을 지급받긴 하지만 마땅한 주거구역이 없는 곳을 복지센터가 마련해 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현이 가입한 복지센터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센터 측에서 사업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해은은 민애가 이렇게 자신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해은은 일단 이 햄버거가 맛이 없어졌다. 민애는 식어가는 해은의 햄버거를 보았다. 민애가 입을 열었다.

“우린 궁금했을 뿐이야. 조사해보려고. 이제 네 차례야.”

“.....”

“언니, 괜찮아? 무슨 문제 있어?”

“야, 너네들. 대현이부터 제대로 얘기해줘 봐. 같은 반 친구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였구나. 미안해. 맞아, 대현이부터 얘기해줄게.”

“DEAL!”

“대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것도 한참 전에. 그리고 엄마는 집을 도망나간 상태고.”

“그 말은.....”

“고아야. 대현오빠. 전적으로 복지센터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 상태야. 아, 다사랑은 아니야. 여튼 그런데 복지센터가 갑자기 돌연 터전을 옮기겠다고 통보하니까 대현오빠가 별 수 있겠어?”

“왜 옮기는데?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말이야.”

“아마,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 거겠지. 돈으로 말이야. 어, 지역 자금줄이 끊겨서 가게 된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대현오빠를, 보내는 거지. GOOD BYE, SAYONARA, CHAI CHIEN. 그런데 대현오빠는 언니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언니만큼은 따로 불러내서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겠지?”

해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애는 차마 그 눈을 더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가 펜스레 매장 안을 보았다. 예서는 해은의 그 눈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해은은 걸려있던 눈물을 직접 손으로 훔어내고 다시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어.”

“다행이네. 그런데 ‘복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 말도 언니 괜찮은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아니다 싶으면 대답 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이미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본 것 같아. 미안해. 힘들게 해서.”

“됐어, 사랑? 차라리 이젠..... 아니야.”

“.....,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세계에서 복수는 내 것이 되리니.’ 다시 한 번 말할 게. ‘복수’ 하고 싶지 않아?”

“....., 흠, 아니. 난 그 대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세계에서 정답은 내 것이 되리니. 난 ‘복수’가 아니라 ‘정답’을 찾고 싶어. 그래, 사랑? 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생학 마냥 더 나은 자식 낳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원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신뢰의 끝은 결국 사랑이니까. 그냥 애플리케이션 써서 만나려고. 연애에 너무 크게 힘들이고 싶지 않아. 애초에 학교나 기업도 다 선생님이나 인공지능이 알아서 잡아주는데 연애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맞거나 쓸데없이 만져지는 건 나 너무 싫거든. 신뢰만 있었으면 좋겠어.”

해은의 말을 들은 순간 예서는 테이블에서 몸을 띄우고 아예 의자에 몸을 뉘어버렸다. 예서의 경직된 어깨가 풀려나갔다. 해은도 그 모습을 보고 테이블에서 몸을 떼었다.

“언니 쫘…… 하네? 그럼 기다린 게 복수를 위한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언니가 정답이란 거야? 언니가 답이란 거네?”

“결과가 답이란 것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답이라는 거지. 그만큼 자신 있다. 그리고 실은 난 다른 사람이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답을 조금 내보는 거고, 그것도 근데 장담 못해. 난 해당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답 굳이 내가 내기 싫은 거고. 왜냐면……. 아니야.”

“언니란 사람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아직 점심시간 많지?”

“어, 많아.”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가자.”

“그건 안 되지! 햄버거 먹어야 하는데.”

“맞아, 햄버거 같이 먹어야지. 우린 친구잖아. …… 안 그래, 예나(Ye-na)?”

“잠깐잠깐. 야! 흥민애! 거기까진…….”

예서가 깜짝 놀라며 눈이 커졌다. 해은은 처음에 민애가 예서를 보고 잘못 말한 줄 알았다. 눈치를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았다.

“딱 반에서 중간에 앉은 녀석. 사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도 아닌 진짜 딱, 진짜 어중간한 녀석. 예나, 너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기 보단, 흥미롭다고 해야할까나. 암튼 그래 난.”

민애 옆에 잠자코 따라다녔던 벨리가 대답을 하였다. 이제야 해은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었다.

“흥민애, 너 지금…….”

“이 언니, 와, 일 키우는 거 봐봐. 좋아, 나도 한 술 거들어야지. 하나(Ha-na)? 계속 헤집어보자 이 언니.”

“말만 해. 출격 준비 완료야.”

“뭐 해? 설마 내가 사는 건데 안 먹는 거야, 해은아?”

“어… 아!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아껴먹는 거야. 이런 거 급하게 먹다간 체할 거 같아서. 뭐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뎡지 않아……, 조엘?”

“…….”

“조엘? ‘조엘’이라고?”

민애와 예서는 매장이 떠나가도록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이런 비웃음이 예상되긴 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남은 햄버거를 베어 물고 감자를 집어 먹었다. 그나저나 이렇게까지 격하게 웃어버릴 줄은 몰랐다.

진정이 되기 시작한 민애와 예서는 눈가를 슬며시 닦고 숨을 골랐다. 예서는 아직도 남은 웃음을 민애 어깨를 툭 치며 해소했다. 민애도 인정한다는 표정이었다.

“야, 근데. 조엘이라는 놈 되게 조용한 편이네. 넌 뭐 할 말 없어?”

“어…… 흠. 시끄러워.”

이번에는 조엘의 말에 가만히 햄버거를 베어 먹고 있던 해은도 웃음이 나왔다. 민애와 예서는 또 다시 매장이 떠나가도록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잠시 콜라를 삼키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아까 정답이라고 했잖아. 그거 얘기 계속해도 될까?”

“난 열려있어. 게다가 아까 ‘왜냐면’에서 끊겼잖아.”

“말해 봐.”

해은은 사실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찝찝했었다. 해은은 조금 더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다. “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늘 도전을 해. 답을 찾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답이 아니고 나만의 예측인 거지. 난 보통 과거의 이야기를 쓰는데 정말 가끔씩 현재의 이야기까지도 쓰니까. 그렇게 보이는 세상사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니 혹 정답이 아닐까? 답을 그렇게나마 예측해보는 거지. 그래서 나 자체도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글을 쓰는 거고. 그렇게 나만의 답을 얻고 나면 그 답을 아직 못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나무만 보고 있으면 시야가 많이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간단히 병신이 된다고. 자신의 삶에 치이고 고되면 병신이 돼. 그럼 정말 간단한 답도 못 찾고 이리저리 헤매게 돼. 물론, 이 말을 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쓴 글들이, 소설들이 혹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공유를 해보겠다는 거고. 왜? 나는 이미 도움이 됐으니까. 하지만 그 답이 퐁인지 된장인지, 혹 다 된밥에 재 가루를 뿌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 공유하겠다는 거고. 솔직히 내 답들, 개나 주라 그래. 어차피 틀린 답이니까. 사회는 다른 답은 용납 안 하잖아? 그냥 다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제시하는 답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고 보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답보다 더 좋은 답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 어떤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수 년 쯤 진전이 없고 오히려 사람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거기에 최대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어쩌면 내가 글을 쓰면서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잠시 쉬게 해주고 싶거든. 병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쨌든 전문가들이 직접 푸는 게 나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잠깐만, 조금만 풀어보려는 거지. 언제나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답을 찾으려는 거고.”

“그 말은 남들 스트레스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네.”

“맞아, 그거야. 내 팔자는 어쩌면 남들 잘 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꼭 봐야만 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네가 게임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예전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 게임이 질병, 마약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마치 술 같은 글을 쓰고 싶어. 잠시 편히 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머리에 침을 한 방씩 놔서 좀 풀어주려는 역할을 해보려는 거야. 일침인 셈이지. 하, 근데 솔직히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술 좀 마셔보고 싶어. 실은 요즘 글이 너무 많은 이들, 너무 깊은 이들, 너무 덩치 큰 이들에게 향하고 있거든. 술 진짜 마시고 싶어. 그런데 엄마를 닮았는지 술을 잘 못 마실 것 같아. 난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틀린 사람 같아. 이걸 종교적으로 보면 신이 말하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보면 내 생존본능인 셈이지. 맞아. 지금 과학소재 뿐만 아니라 약간 공포물이니까 종교소재도 들어가. 기독교,

그리스에 나중에 불교까지 나온다니까? 여간 두 큰 덩치 다 공부하고 박아 넣느라 진짜 머리털 다 빠질 것 같긴 해. 난 그런데 그 두 영역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봤어. 바로 ‘영감(Inspiration)’이야. 그 흔히 명언 중에 ‘영감1%, 노력99%’란 말 있잖아. 사실 그 영감이란 단어는 종교 쪽에서 온 거거든? 어쩌면 이걸로 둘이 엮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거고. 원래 난 노력 99%, 영감 1%짜리 글을 썼는데 실패했거든 그런데 지금 하는 도전은 그 실패한 글에다가 영감 99%, 내 노력 1%로 덮어써보려 해. 그래야 영감이랑 노력이 5대 5 균형을 이룰 것 같거든. 늘 이렇게 쓴다는 건 아니야. 지금 주제를 표현하다보니 이런 딱 반반 비율로 써야하는 상황에 처한 거야. 생각해보니 오마주를 해야만 하는 게 ‘선물’ 받은 것 같거든. 선생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선물은 아무 대가없이 받는 거야. 물론, 내가 여러 책들이나 음악을 접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영감들은 선물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영감을 써넣어 최대한 그 선물에 보답을 해보는 거고. 그 방법은 가장 최근에 실패한 이야기 들고 와서 흐름이나 등장인물들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내 영감을 조각내서 여러 캐릭터에 심는 거야. 왜냐면 수정할 이야기에 일단 내 노력만 있어야 하고, 그게 하필 늘 내 이야기가 아닌, 심지어 이 세상 이야기도 아닌 말 그대로의 판타지물이니까. 이야기 자체는 내 영감, 내 개인적인 생각, 사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99%짜리 영감 들이부어 봤자 반반 간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감’에 분석은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 천재들에게 나타나길 희망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신이 톡톡 던지는 거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나타나길 희망하면 한 사람에게 들이 부어버리는 거지. 신이 정말 인간을 만들었다면 작동하는 방법도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자동청소기 던져놓고 그냥 신경 안 쓰잖아?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놓는 거지. 애가 이상한 거 같으면 중간 만져주는 거고. 필요하다 싶으면 로봇에 영감 들이부어서 과학발전이랑 법, 제도 꼭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이유는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영감을 들이붓는 이유는 버틸 것 같으니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자면, 뭐라 설명 안 될 정도로 발전되는 곳이나, 발달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안 되면 종교적으로라도 해석해보자. 찢아뒤에 가면 과학적으로 해석 다 될 테니 그 전까지는 종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종교를 소설에 끌어온 것도 있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

“문명의 발전을 ‘신이 과학과 종교로 다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만. 왜 굳이 그런 시도를 하려는 거야? 재수 좀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몇이나 받아들일까?”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지. 면죄부(Indulgence) 알지? 옛날에 종교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 종교 역사를 보면 죄를 사하려고 막 면죄부를 돈 주고 팔고 했잖아? 요즘 과학이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엮어보는 거야. 메시지는 ‘과학의 과거와 현재를 내가 보기엔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난 과거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 뿐이야.”

“아, 대충 알겠네. 해온이가 뭔 짓을 하고 싶은 건지. 그니까 더 나은 기술, 더 편리한 것을 ‘죄 사함(Forgiveness of Sin)’이라 보는 거고 소비자는 거기에 면죄부 마냥 돈을 지급한다.”

“맞아. 그 ‘무차별 편리함(Indiscriminate Convenience)’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사회가 감당치 못한 범죄나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약적 편리함(Intensive Convenience)’으로 인해 해당 기술이 진짜 필요한 이에게 가지 못하는 점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두 개의 부작용이 만나면 과연 그걸 그 어떤 사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지. 그 택배도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한바

탕 난리가 나잖아.”

“잠깐잠깐. 그러니까 언니 말은 무차별 편리함으로 모든 일반인들이 편해지는데 그 중에 범죄자들도 범죄 저지르기 편해진다는 거지? 집약적 편리함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가니까 범죄 저지르려고 딴 생각하는 거고.”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사실 두 가지의 편리함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어.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 편리함이 무서워지는 거지. 그 왜 법전 있잖아. 법전도 기술이잖아. 처음에는 법전 있어서 편했는데 결국, 법전을 활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법전을 기동으로 하는 현 체제에서도 이렇게 사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대는데, 인공지능 판사면 어떨까? 처음에는 잘 집행이 되겠지만 결국, 그 판사를 활용한 상상을 초월한 인공지능 범죄가 발생하겠지.”

“인공지능 범죄는 사람이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려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거잖아?”

“맞아. 원천적으로 신에게 공격을 해보겠다는 시도. 그 시도가 법으로 치환되고, 종교로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향하면 범죄를 저지르는데 최적화된, 아주 효율적인 로봇이 탄생하는 거지. 그 시발점은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에게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해은이 해결책은 뭐야? 떠드는 뽀새 보니까 대충 각이 보인다는 거 같은데.”

“맞아. 제일 문제가 기술의 도착 주소가 있는데 중간에 ‘돈’이라는 것이 주소를 계속 바꿔대는 거야. 난 종교든 과학이든 어느 정도의 선(線)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선 잘 지키면 우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판타지, 환상 같은 거 보여주려는 거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마냥 기술이 발전하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긴 하겠네. 실제로 많은 환경오염도 있잖아. 그 컴퓨터 가동하는 것만 해도 전기에 발열에 장난 아니잖아?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 더 발전했다간 그 기술 쓸 사람이 없어지겠네.”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죄와 벌’은 존재한다. 근데 각을 보니까 그 ‘벌’을 못 줄 것 같다. 너무 무기들이 날카로우니까. 집행을 할 사람들까지, 심지어 투표를 해줄 사람들까지 다 도륙을 내버리고 그치? 이 언니, 나를 뭔가 분석하긴 했구만. 맨날 시간 축내면서 아무 재미없는 글이나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나의 단점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야. 아니, 보니까 나도 누가 보면 얼탱이 없을 정도로 멍청이 같이 살고 있는 거 있지. 하여튼 대충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여정을 가려고 하니 술…… 진짜 마시고 싶어.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최근 답을 찾은 것만 같아. 체크메이트!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대 왕을 잡는 과정에서 목을 치지 않는 거지. 즉, 예의를 표한다는 거야. 굳이 왕의 피까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피를 봐야겠어?’ 뭐 이런 거.”

“서로서로 후폭풍을 생각하는 거네. 과연 서양 게임답지. 바둑 같은 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져가버리잖아.”

“아니, 민에 언니. 하지만 대충 아니다 싶으면 돌 던지는 게 있어 바둑은. 그런데 만약 사회에서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언니한테 큰 일 날 텐데?”

“어, 맞아.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글을 쓰는 건 광기도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도 아니야. 순전히 내 용기라고. 내 책임이야. 하, 예서야. 나 다시 술 마시고 싶어졌어.”

“역시, 그래서 언니가 술에 환장을 하는 거구나. 그럼, 그냥 질러. 언니는 예뻐서 괜찮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글을 남기는 거야. 실은 구멍을 지구보다 크게 파도 웬지 도망 못 갈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래서 난 작가가 되기 싫어. 글을 남겨야 되니까 진짜 부담스럽거든. 맞아, 정보화도 환경오염이라고. 하드디스크에 글을 쓰는 동굴에다가 글을 쓰는 어쨌든 원본을 훼손하는 거잖아. 그거 다 시간낭비라고 보는 거지. 다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내 스트레스 음의 기댓값보다 더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양의 기댓값이 높으니 작가에 도전을 해보는 거야. 만약 진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출판되겠지. 그리고 그 판단은 출판사가 내리는 거고. 이야기가 내 손을 떠난 시점에는 그 이상의 판단은 내 몫이 아니니까. 관련 영상자료를 찾아보니, 문예지에 당선된 기성작가 말로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인지 묻는다고 하더라고? 어떤 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대. 하,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일단 내뱉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야기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써넣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말 그대로 ‘조금’ 써넣을 거야. 내 평생의 일대기를 적는 게 아니고 근래에 겪었던 일들이나 생각 따위 중에서 ‘이거 정도면 이야기 더 재밌어지겠다!’ 싶은 걸 추려서 써보는 거야. 말 그대로 나를 조금 녹여 내보는 거지. 흠, 이걸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 간단히 뭐, 내 이야기가 조금 들어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써보는 이유는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작가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보는 거지.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이야기를 허구로 쓸 자신이 있다는 거야. 비록 좋은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었지만 나는 늘 소설, 내가 쓰고 싶은 판타지를 적었었어. 그래야 나도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 이야기를 넣는 거야.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탄탄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 이 시도 자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이고. 즉, 내가 어떤 역량과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역량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적거나 혹은 그 역량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이는지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힘들어 애들아.”

민애가 얼음이 든 콜라를 짹짹 빨다가 입을 열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운동도 쉬엄쉬엄 해가면서 해야지. 너 글 쓰느라 맨날 나가잖아. 개고생하고 돌아댁기는데 그거 다 운동이야. 멍청아, 쉬엄쉬엄 해.”

“난! 언니가 한 건 할 것 같은데? 좋은 식이든 나쁜 식이든.”

“무슨 말이야? 무슨 글로 뭘 한다고.”

“언니가 스스로를 지금 다 부셔버리고 있잖아. 이걸 보통 흑역사 생성이라고 하지. 언니 스스로 박제시키는 것.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대충 어떻게 되는데? 아니야니, 주인공 공부터. 주인공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시대는 약간 과거고. 이런 건 늘 그랬지.”

“남자라고? 왜? 언니 여자잖아. 자전적소설이라며. 뭐야, 남자 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이미 여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자 이야기 쓰는 게 싫더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주된 이야기는 안 건드려, 단지 내 생각 넣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보통 제자리를 지키지. 정말 안 되겠으면 한두 명 바꾸고. 근데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난 지금 그냥 대체하는 거야. 왜냐면 주된 이야기가 지금 세 개거든. 맞아, 이야기 세 개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중이야.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집은 거고. 그래서 그냥 남자가 주인공이야.”

“이야기 세 개를 합쳤다고? 뭘데 그건 또. 혹시 제목만이라도 알 수 있어? 제목만 봐도 보

통 이야기 어떤지 알 수 있잖아.”

“엔딩, Bell, With Sri.”

“WITH SRI? 그건 또 뭐야?”

“스리랑이야. 아리랑은 With Ari고.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연구해봤어. 왜냐면 아리랑이 진짜 K-POP 아니겠어? 내용으로는 아리와 스리는 마을에서 팔방미인을 상징하는데, 각각 아리는 여자, 스리는 남자야. 대충 배경은 옛날 우리나라가 언젠가 종을 못 쳤데. 그 새해에 종치는 거 말이야. 그래서 그 스리라는 녀석이 종을 치러 가는 거지. ‘The Bell With Sri.’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재밌는 요소를 더 넣은 거야. 아리는 여자인데 양기를 가지고 있고, 스리는 남자인데 음기를 가지는 식으로. 여자가 더 빨빨거리면서 쏘다니는 거고, 남자가 더 과묵하고 무게감 있고 하는 걸 표현해본 거야. 더 나아가서 이걸 도형화시키는데 우선 아리는 양의 사랑을 상징하고 숫자로 9, 스리는 음의 사랑을 상징하며 숫자로 6. 둘이 합쳐서 69가 되는 거야. 각각 스라리가 났다, 아라리가 났다라고 하고 숫자로 꼭 찬 것을 뜻할 수 있도록 세 번 반복해서 666, 999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형화를 시키자면 스리 숫자 6을 거울로 오른쪽 대칭시키면 스페이드(♠) 모양이 되더라고. 반대로 아리 숫자 9를 왼쪽 대칭시키면 하트(♥)가 되고. 69. 이거 우리나라 태극마크잖아. 그래서 알게 됐어. 우리나라 태극이 대자연의 섭리라는데……. 아, 69라고? 설마, 그 대자연이 그 대자연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

“뭘 소리야 이건 또. 왜 갑자기 태극기까지 나오는 건데?”

해은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봐봐, 6이랑 9가 보이지 않니? 원래 이 태극 유래가 음양오희이라고 ☯게 생기긴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저걸 뒤집어서 저렇게 형상화를 했을까했지.”

“에이, 너무 억지 아니야? 뭐 그래도 해석은 자기 자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말이야. 아리랑이라니까 뭐 더 따질 말은 없긴 하네. 근데 혼자 참 재밌게 논다. 근데 이 언니, 말 한 번 길어지니까 쪽쪽 나가는 거 여전하네. 언니 확실히 알게 됐어. 말 줄라 많아.”

“우리 해은이가 그렇지 뭐. 워낙 밝은 성격이잖아. 이게 좀 죽은 거야. 아무튼 뭐? 종말, 종, 그리고 스리랑 엮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 뭐, 뭐든 잘 되면 좋은 거지.”

“어 맞아. 정리하자면, 두 개의 실패한 이야기를 아리랑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중이지. 아! 스리랑. 뭐, 스리랑이나 아리랑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데 잠깐만 예서야. 그런데 아까 내가 할 건 할 것 같다고 했지 않아?”

“아아, 아니. 한 건 못 할 것 같다고.”

“그래, 예서가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잠깐 그런데…… 너희는 서로 주먹을 맞부딪히던데, 아닌가?”

해은은 뽀얀 손을 내밀더니 민애와 예서에게 주먹을 쥐었다.

“그것도 게임 대사인거 알지?”

“난 몰라. 그런 거. 워낙 게임이든 영화든 만들어내는 대사가 많잖아. 여튼 할 거야 말거야.”

“이거 뜻이 좀 깊은 건데. 뭐 언니가 원하는 거니까. 민애 언니가 말해줘.”

민애와 예서는 주먹을 쥐고 해은의 주먹으로 팔을 뺐었다. 민애는 해은의 주먹을 치기 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가서 쓸어버려.”

“어?”

“언니, 가서 쓸어버리라고.”

“어…… 뭐, 아, 알겠어.”

“약속한 거다?”

“흠, 잠깐잠깐. 예서야. 아니 민애까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너희 대현이가 그때 나 불러냈을 때 있잖아. 혹시 따라오거나…….”

예서는 갑자기 눈동자가 빨라지더니 햄버거와 콜라를 빠르게 번갈아보더니 창밖도 보다가 위에 형광등을 보았다. 그러면서 애써 해은의 눈을 피했다. 민애는 갑자기 막힌 목에 콜라를 쪽쪽 빨아드렸다.

“너희…… 봤구나? 그래놓고선 뭘 쓸어버리긴 뭘 쓸어버려야. 이 망할 변태 년들.”

예서는 애써 웃으며 햄버거를 먹었다.

“근데 해은아. 이거 글, 아무리 그래도 그거 우리한테 다 말하는 거 같은데,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 막 스포해도 되는 거야? 아니, 너 이야긴데 네가 직접 스포한다고?”

“언냐 그러다 뱅(Ban) 당한다.”

“아, 아니, 야……. 그래, 솔직히 자신 있으니까. 판타지 면에선 이렇게 다 스포 때려도 그 만큼의 환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하…….”

“언니, 화난 거 같은데? 딱 그 얼굴이네?”

“우리 해은이 솔직히 말해보자. 이쯤 되니까 수습 안 되서 그냥 급마무리 하려는 거지?”

“야, 다들 조용히 해.”

조엘이 한껏 흥분한 해은의 옆구리를 찌른다. 마음을 가다듬은 해은이 조엘을 보았다. 조엘은 창밖을 가리켰다. 해은의 입이 점점 느려졌다. 해은이 점점 얼어붙는 모습에 예서와 민애는 웃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해은을 따라 창밖을 천천히 보았다.

“씨발, 좇됐다.”

예서는 짧게 말을 내뱉은 뒤 얼마 남지 않은 햄버거를 입 안으로 쑥 넣었다. 창밖은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예서와 민애 그리고 해은은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해은은 아침처럼 또 달릴 생각을 하니 아직 입 안에 남은 햄버거 때문에 달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해은은 출발하기 직전 다시 돌아와 콜라를 들이켰다. 아직 남아있는 강한 탄산이 머리를 찢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달렸다. 조엘이 너무 느린 것 같아 아예 그냥 안고 내달렸다.

“날씨 왜 이러냐. 이것도 미친 짓이야!”

“아니! 미친 날씨라고 완전!”

“야, 민애서. 넌 닥치라고!”

창밖에 있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바람 속에 자그마한 검은 가루들이 보였다. 곧 황색과 검은색의 짙은 먼지가 창밖을 가득 메웠지만 셋은 벌써 학교에 도착한 것 같았다.

해은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유심히 보고 있다. 바람을 꽤 맞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묻

었다면 묻었겠지만 다행히 욕안으로 보이는 모래덩어리들은 없었다. 해은은 머리를 더 자세
히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찢찢한 것이 있었다. 해은은 머리에 실오라기보다
더 작은 무언가 발견하고는 손을 대 보았다. 해은은 딱 진 머리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
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손가락을 머리에서 떼긴 했지만 머리가 완전히
형클어지고 말았다. 해은은 한숨을 쉬고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해은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화장실을 나가다 민애와 예서와 마주쳤다. 민애 손에는 립스틱
과 파운데이션이 있었다. 민애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만 해은과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해은에게 더 보여주었다. 해은은 화장품과 입고리가 슬슬 올라가는 민애 얼굴을 보
고 그냥 지나쳤다. 예서가 코웃음을 슬쩍 내고 둘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반대편에서 수아를 볼 수 있었다. 앞자리에 있는 수아는 꼭 앞문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
렇게 눈을 둘 때가 마땅히 없던 수아와 해은은 각각 교실 앞문과 뒷문 다다랐다. 수아는 본
채도 안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은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현석이와 마주쳤다. 깜
짝 놀란 해은은 서둘러 오른쪽으로 비켜주었지만 현석도 같은 쪽으로 길을 비키는 바람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해은은 다시 왼쪽으로 비켜주려던 찰나였다.

“해은 누나,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석이 나지막하게 해은에게 말을 걸었다. 해은은 평소 같으면 현석이의 말을 들어주었겠
지만 아무래도 민애와 예서의 점심 때 대화가 아직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나머지
현석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겁이 났다.

“어? 내가... 너랑 할 얘기가 있을까?”

“잠깐이면 괜찮아.”

해은은 남은 시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팬스레 주머니에 폰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아직
10분 정도가 남긴 했지만 해은이 더 원했던 것은 제발 그 10분이 더 빠르게 지나가길 바랐
던 것이다.

수아는 뒷문 앞에서 현석이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해은이를 돌아보고 있
다가 결국 어디론가 따라가는 모습에 몸을 일으켰다. 수아는 해은이를 몰래 따라가 보려 앞
문으로 나갔다.

정우는 교실에 혼자 남아 CPU 스케줄링을 복습하기 위해 평균대기시간 예제를 푸는 중이
었다. 그리고 교실에 기류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흥미가 없다지만 수업시간이 10
분도 채 안 남았는데 교실에 한 명도 앉아있는 모습은 정우 기억으론 한 번도 없었기 때문
이다.

다행히 현석은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중간에서 멈춘 현석은 따라
오는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보았다. 사람은커녕 발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해은은 인상이
찌그러지다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인상이 다시 퍼졌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누나 저 그제.....”

“현석아 괜찮으면 좀 이따 청소시간 끝나고 누나랑 산책 한번 할래? 지금은 쉬는 시간도
얼마 없고 날씨도 안 좋아. 현석이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때?”

“네, 좋아요!”

“해은 언니, 시간 돼요? 물어볼 거 있어서요.”

계단 아래서 수아가 말을 걸었다. 해은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수아를 보았다.

“좀 급해요. 안 되나요?”

“현석아, 가 봐도 되니?”

“네, 누나.”

수아는 해은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교실로 향했다. 해은은 발을 맞춰 걷기는커녕 수아를 붙잡지도 못했다. 결국 해은은 어떻게든 멈춰 세워 보기로 하였다.

“수아야,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 몸을 돌리지도 않고 고개를 슬쩍 뒤쪽으로 돌렸다. 수아의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수아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교실로 향했다. 해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 콧방귀를 쏘았다. 도대체 오늘 애들이 왜 이러는지 도통 알 도리가 없었다.

해은은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뒷자리에 있는 현석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 꽤나 마음에 걸렸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해은은 수아까지 생각하려니 도통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석이가 들어왔다. 현석이가 자리로 가는 동안 해은은 등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현석이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고 앉는 소리가 났음에도 해은은 이제 현석 쪽을 볼 수가 없었다. 해은은 대현에 자리였던 곳을 지나 창문으로 갔다.

“해은, 무슨 일이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창문 좀 열까하고요. 보니까 폭풍도 이제 없고 산발적인 거라 먼지농도도 높지 않네요.”

“어, 그러자. 애들아 환기 좀 하자. 에어컨 끄고. 해은이 말대로 공기가 좀 탁하긴 하네.”

해은은 창문을 열 때 바로 옆에 현석에게서 익숙한 비누향이 풍기는 걸 보아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꽤 비릿한 냄새가 났었다. 해은은 각오하고 현석이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을 보고 있었다. 과연 정말 책을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은이가 보기에는 현석의 머리는 현재 해은의 푸석한 머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떡이 진 상태였다. 정말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다. 제자리로 돌아온 해은은 팬스레 교복치마를 최대한 아래로 당겨 고쳐 앉았다. 해은은 그제서 점심에 예서가 했던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청소시간이 끝나고 해은은 현석에게 손짓을 했다. 현석은 밝은 표정으로 해은과 같이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운동장이 다 보이는 그늘에 앉았다. 현석이 해은을 위해 음료수 하나를 사왔다. 청소시간은 청소만 빨리 끝낸다면 어느 정도 산책할 시간 여유가 된다.

“왜 현석이 꺼는 없어? 누나가 사줄게.”

“아, 아니. 감사합니다.”

현석은 반자마자 별걱별걱 음료를 들이켰다. 해은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앉았던 그늘진 자리로 향했다.

“현석이는 누나 왜 불렀어?”

“아..... 누나, 너무 예, 예쁜 것 같아서요.”

“우리 현석이 문제점 알 것 같다. 고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누나 먼저 질문해도 될까?”

“네 괜찮아요.”

“현석이 코딩 공부 잘 되가? 요번에 1등 했잖아. 누나 솔직히 놀랐어. 누나도 코딩 공부 좀 해봤거든. 어렵던데, 어떻게 잘하게 된 비결이라도 있어?”

“글쎄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해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어……. 그러니까. 아! 누나 노트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은은 늘 들고 다니던 태블릿의 빈 공간을 선뜻 현석에게 내어주었다. 현석은 해은에게 한 번 웃음을 보여준 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C:WUsersWBlackStoneWBlackDriveWPicturesW민애누나사진’

“이게 뭐야? 컴퓨터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BlackStone'은 뭐고?”

“BlackStone은 제 이름이에요. 현석. 검은 돌. 아무튼 이 문장은 인공지능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문장은 인공지능망이라고 생각해요. ‘W’을 시냅스라고 보고 중간에 있는 폴더들을 뉴런이라고 보는 거죠.”

“으, 시냅스랑 뉴런이라고? 저번 시간에 본 건데 누나는 복잡해서 싫더라.”

“그래도 알아야죠. 시험문제인데. 원래 배우는 게 머리 아픈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간 이랑 기계랑 다른 거죠. 저는 어차피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식이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감공학(Sympathy Engineering)’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는 대화 주제나 현 세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미리 학습하여 나만의 다음 양의 값(해결책)을 취하는 것. 양의 값을 취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이들을 만날 시점이라면 공공장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공공장소는 양의 값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끝으로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그 다음 수까지 예측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의 '확인(Check)'이 끝났다. 이 경우라면 어차피 사람 한 명은 다른 대화주제엔 관심이 없을 것이니까 다른 영역의 양의 값이 어떻든 거론만 안하면 사람 하나를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이 방법대로라면 어떤 활용 분야, 예를 들면 게임 하나 잘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 녀석을 손톱만한 칩으로 만든 뒤 1024개, 4096개를 병렬로 이어 붙이면 공감 공학의 완성이라고 봐요. 즉, 병렬로 이어붙이는 행위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한 발 나가는 거는 공감을 시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감을 하는 로봇을 소울메이트(Soulmate)가 아닌 체크메이트(Checkmate)라고 부르거든요. 병렬로 된 공감대를 목적과 방향성을 확인(Check)한 후 미래 방향 쪽으로 그 모든 폰(졸따구)들을 한 칸 전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인풋이 들어오면 비슷한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혹시 우리 댓글 창에 Checkmate 기능도 같은 기능인가?”

“아니요. 그건 다르죠. 그건 게시물 게시자가 해당 댓글을 읽었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확인 용도의 버튼인 거고요. 일일이 확인 댓글 달기 귀찮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한 분야를 끝냈다.”

“사실, 갑자기 체크메이트라 하니까 누나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야. 나도 체크메이트에 대해 고민이 많거든. 체크메이트란 것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 지금 난 그런 고민이 커.”

“정말요? 누나는 어떤 체크메이트가 있는데요?”

“나는 글이나 그려놓은 걸 보면 공격성이 거의 없거든. 사실 그 졸따구 폰(Pawn)보다도 못해. 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누굴 헤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냥 졸따구 수준의 지식 탐구거든. 인터넷이라고 치면 '얕은 지식'인 거지. 나는 그런 거면 더 자신 없어.”

“아, 누나 스스로 체크메이트에 당하는 거군요.”

해은은 현석의 말을 스스로 갇힌다는 얘기로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해은은 금세 시무룩해져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펜스레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보았다.

“누나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얇은 지식들을 한번 누나가 읽었던 책 있잖아요?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 교양의 힘을 바탕으로 모든 폰들을 동시에 전진시켜보세요. 누나는 또 과거를 보는 작가 지망생이니까 과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사방으로. 그럼 과거를 주제로 한 공감 킹에 대해 체크메이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벨리가 한 번 되어 보는 거네? 그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들을 하나의 주제로 대 합창을 시킨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걸까? 아니, 공감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모든 걸 맞게 해도…… 정말 모든 걸. 제대로 풀린 적이 없지 않아? 방법대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아왔어도 말이야.”

“뭐가 문제일까요?”

“난 벨리가 솔직히 멍청하고, 멍청한 기계 덩어리라고 생각해. 좀더, 생각해 봐. 기계가 무슨 싸우는 걸 좋아하겠니? 감정이 없는데.”

“누나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흔히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누나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펌프질하기 전에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그럼 펌프에서 물이 팔팔 나와요. 전 공감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이 일어나긴 정말 쉽지 않지만 한 번 공감이 되기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마치 탱크에 시동이 걸리지 않다가 한순간 걸리면 끝도 없이 연료가 다 닳을 때까지 작동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벨리랑 다르긴 하죠. 벨리는 맨날 찾아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해도, 결국 공학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공학적인 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말이에요.”

해은은 깊은 한숨을 내뿔었다. 그리고 옆에 서있는 조엘을 바라보았다. 어찌면 이 조엘보다도 못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로봇이든 뭐든 난 그놈의 자의식이 이해가 안 돼. 재난 상황과 같은 것을 겪어도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공감시키려하는 게 힘들어. 난 굳이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템플릿(Template)이네요. 굳이 모든 코드를 쓰지 않아도 하나의 로직만 깔끔하게 잡아놓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코드가 쓰여 지는 문법이에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 뭐, 난 그런 글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도 헤치기 싫다고. 요즘 성장, 판타지, 풍자를 섞은 글을 썼는데 공모전에서 떨어졌어. 내가 늘 선호하고 쓰던 장르니까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다가 내 이야기를 좀 넣어서 실험 좀 해봐야겠더라고. 그래서 장르를 더 추가했는데 그 과정 중에 과거사를 넣다보니 장르가 SF, 호러, 서스펜스가 섞이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난 한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글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글을 조금 틀어봤다. 장르로 정리하자면 SF, 호러, 서스펜스, 성장, 판타지, 풍자인데 이걸…… 뭐 장르로 정리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 이런 부분들부터 공감이랑 멀어지는 것만 같아. 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잘 쓰거나 해보려고.”

“자료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장르만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맞아. 실제로 SF쪽 고전 영화를 찾아보니까 아이언맨(Iron Man)이라고 있더라고. 거기서 나한테 인상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만든 걸 골동품 취급하는 모습이야. 실제로 나는 그렇게 내가 쓴 모든 글들을 골동품 취급하거든. 다 버려.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 손을 떠난 시점부터 그냥 못 쓴 글이 되니까. 굳이 보기가 싫은 뭐……, 이런 셈이지.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하는 게? 공감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예기한 게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은 누나는 진짜 과학자라는 거죠? 듣기만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어. 하지만 확실히 난 과학자가 아니야. 공학자마저 아니고. 그냥 나는 예측하는 거야. 나만의 공학으로? 그냥 틀리든 맞든 써보는 거지. 심심하니까. 그런데 이번엔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전 이야기를 기반으로 내 생각을 넣어보는 거야. 툭툭. 무슨 비료 뿌리듯이. 골동품을 다시 취급해보겠다는 거지. 여기에 나한테 영향을 끼친 예술 작품들까지 오마주로 짝짝 넣는 거고.”

“맞아요. 그게 소설이죠. 그런데 버린 걸 다시 쓴다고요? 아니 그 전에 우선 저는 제 코드조차 버리기 쉽지 않던데. 비법이 있나요? 아, 잠시 만요. 그냥 누나는 자신이 쓰자마자 바로 못 썼다라고 생각했었죠. 그게 비법이군요.”

“어…… 맞아. 그게 비법이라고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체질,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대는 게 기본 옵션이라고. 피곤한 삶이지.”

“계속 더 새로운 글, 더 좋은 글을 써내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젠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내 생각을 조금 엮어보는 단계인 거고요. 하지만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겠어요. 그런데 막 오마주해도 괜찮아요?”

“하, 글썄. 사실 이런저런 거 다 넣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걱정이 많이 들긴 하지. 다른 스트리머나 웹방송 보면 게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라 한번 나도 그런 콘텐츠들을 추려서 글로 써보는 건데, 아니꼽게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하지만 오마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존경하는 차원에서 넣겠다는 거야. 애초에 존경하지 않으면 그 대사들이랑 장면 따위를 넣을 생각 자체를 안 했겠지. 그리고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제발 내 뜻 좀 알아달라는 차원인 거고. 난 지면이 부족한데 그거 다 쓰다간 내 이야기가 망가지니까 못 넣는 거야. 안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들어가 있다고 빼치거나 앓았으면 좋겠고. 아 진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전부 존경하는 차원이야. 난 이렇게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 예를 들면, 오마주를 했잖아? 그런데 난 과거의 글을 쓰는 사람이고 새로운 글을 쓰잖아. 그러면 그 오마주한 걸 과거 쪽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은 적어놓는 편이야. 말 그대로 ‘넌 때문에 이런 영감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적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라는 뜻이지. 그래도 나도 이런저런 거 다 넣으려니까 찝찝해서 최대한 선 안 넘으려고 신경 쓰는 거고. 하여튼 골치야. 이게 말처럼 가능이나 할 지 말이야.”

잠시 거센 바람이 불었다. 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래도 해은은 일어서서 뒤편 산부터 시작해 쪽 산 능선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없었다. 그냥 돌풍이 불었던 모양이었다. 해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흠, 뭔가 비슷하네요.”

“뭐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말하는 ‘오마주(Hommage)’라는 것은 코딩에서 라이브러리 삽입(Insert Library Code)과 같은 말 같아요. 애초에 잘 만들지 앓았으면 삽입할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삽입 목적도 단순히 내가 짜는 코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고요. 즉, 라이브러리 자체를 강화시키거나 수정하려는 게 아니고 그 코딩들을 활용해 내 코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죠. 여기에 보안이나 기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포함된 라이브러리 같은 건 실제로 돈을 주면서까지 삽입하기도 하고요. 이걸 누나가 만약 소설을 쓸 때 너무 풀리지 않는 과학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서 어느

전문가의 도움이나 자문을 받는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오마주하는 건 라이브러리를 따라하거나 그냥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정도로 보여요. 어차피 공개가 됐으니까. 문제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시는 거죠?”

“맞아. 마음 같아선 나도 그냥 소설 쓰는 인공지능 사서 돈 벌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말마따나 ‘사랑’이란 주제로 3000자 만큼의 소설을 쓰라고 할 때 그냥 버튼 한 방이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말 이러면 소설을 쓰고 싶은데 연필조차 들지 못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계를 뺏는 게 되겠지.”

“누나, 그래도 소설을 그 정도 수준으로 쓰려면 자의식을 구현해야 할 것 같아요.”

“하, 이번엔 뭐야. ‘자의식공학(Sense of Identity Engineering)’인 거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감 부분을 시간 순으로 또 병렬해서 누적시키면 자의식이 탄생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의식이 구현된다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소생’의 영역일 뿐이죠. 그리고 정말 뭐 이런저런 윤리 어겨가면서 엄청난 공학으로 그 뇌신경회로와 기억 들이 전부 구현된 똑같은 사람을 태어나게 한다 해도 전 별로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냥 ‘쌍둥이(Twins)’일 테니까요.”

“쌍둥이? 현석아 잠깐만. 이해 좀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 말하는 거겠네? 생물학적인 인간복제 말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C:WUsersWBlackStoneW’으로 시작하는 걸 제가 왜 신경회로 같다고 했겠어요. 저 파일 쪽 따라가서 있는 것이 결국 기억. 같은 곳에 있는 기억 역할을 하는 누나사진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른 판단을 내리잖아요. 예를 들면 예쁘다, 못 생겼다, 머리가 좀 길다, ……오해하지 마세요. 범하고 싶다 등등.”

“……. 괜찮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확실히 컴퓨터를 하나의 뇌로 보고 거기에 저장된 사진 데이터 값을 하나의 기억으로 쳤을 때, 그 기억을 보고 내리는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지. 즉, 똑같은 성능과 부품, 소프트웨어를 가진 컴퓨터로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게 인간 물질적으로 복사가 된다고 해서 똑같은 판단을 내릴 확률은 희박할 수 있지. 자신의 똑같은 신경회로와 기억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게임이 깔려있는 건 하드웨어 영역인 거고 그걸 지우거나 할 수 없으니 일단은 놔두는. 하지만 해당 게임을 실행했다면 그 자체로 패턴인 거고 혹시 게임 상에서 어떤 말이나 세세한 손짓 발짓은 전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혹은 아예 그 게임 자체를 안 한다면 기억이 남아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영역. 하드웨어는 구현됐지만 안 쓰는. 이 조그만 차이가 다른 삶을 나타내고.”

“이런 현상은 벨리에서도 나타나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까지 모두 똑같은 벨리를 준비시켜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시간에 따라 벨리의 행동이 변화하죠. 시간에 따라 지워지고 새로 작성되는 기억이 다르다. 이래서 자의식공학은 시간 순으로 모든 벨리데이터를 누적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복제인간이나 자의식공학이나 생각하면서 슬쩍 느낀 건데,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뭐랄까 복제인간이 아니라 시체공학(Corpse Engineering) 같아서요. 다른 사람 장기 같은데 도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자의식공학은 그냥 겁나 큰 데이터더미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뿐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뇌신경회로망보다 훨씬 빠른 알고리즘이 개발 될 수도 있죠. 인간 뇌의 처리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어차피 어떤 알고리즘이 더 빠르냐 하면서 챗바퀴 굴리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분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윤리를 어겨 제

작한 자의식공학으로 터지는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요.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공학이니까요. 공학은 결국 엄연히 자의식이 아니라 ‘타의식’인 거죠. 타의식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무리 윤리코드, 방어코드를 박아 넣어도 그거 인간입맛에 맞게 다 떨어버리고 새로 갈아버릴 수 있는 게 타의식이에요. 컴퓨터 보세요. 비번 걸려있고 뭐 이런저런 보안 있다 해도 그냥 바이오스 초기화 해버리고, 설치된 디스크 포맷 때려버리고, 운영체제 새로 갈아버리면 그 ‘이 컴퓨터는 이제 제 겁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인간 전기 신호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잖아요? 누나 모르죠? 뇌에서 오는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서 팔을 막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부여된 것도 어찌면, 타의식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인간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된다고 봐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엄연히 뇌를 해킹하는 거죠. ‘저 지금 성교하고 있어요.’ 라고.”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윤리를 어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뇌파도 가로채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지금 당장도 사람 해킹이 가능하다. 그걸 막는 것은 윤리죠, 뭐.”

“나도 동의해. 왜냐면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만약 내 자유의지가 남에게 해킹당해도 된다는 식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살인 대리나 여러 범죄를 대리 맡길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 책임은 누구 몫일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면 더 나아가 누나는 자의식까지 개발돼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로봇이잖아. 뭐, 동물처럼 이해 못하는 행위를 하겠지만. 즉 동물은 지능이 낮아서, 인공지능은 지능이 높아서. 결국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면 어떤 우리 같은데 가두고 조련 같은 거 할 수 있겠지. 다만, 피해는 최소화하는 식으로 우리를 처야겠지.”

“글쎄요. 그 우리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지능이 높은 낮은 동물도 한 번씩 그 우리에서 탈출하잖아요. 만약 그 우리에서 탈출한 착한 로봇이 있다 쳤을 때, 다른 사람이 그냥 그 로봇 남치해서 조금 전 말한 방법으로 기관이랑 다 떼고 로직 다 떨어버리고 살해를 하는 최적화된 로직을 새로 깔면 끝이죠. 타의식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제작을 한 것부터 윤리를 어겼으니,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윤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껍이나 잘 지켜주겠네요. 그리고 누나가 자의식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 자의식까지 인류문명이 발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 전에 현대 문명이란 것은 절멸(絶滅)할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이 스스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아니요. 폭동이라면 자의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류멸망시나리오 중 하나는 그렇게 자의식까지 발전하지 않아도 되요. 굳이 윤리를 어기네 마네, 소프트웨어를 떨어버리네 마네 할 필요 없이 말이에요. 지금 딱 빨리 수준. 즉, 공감을 할 수 있는 로봇이여도 충분히 절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Creative한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니?”

“네 맞아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들이 막 사회에서 미친 듯이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회에서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창

의적인 사람이 광기에 물들었다고 보는 거죠.”

“아, 현석이는 공권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죽이고 잘 빠져 나가니까 못 잡는다고 보는구나. 창의적이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 너무 생각 자체가 획기적이어서.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이 그 자신 자체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육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네? 그러니까 마냥 창의적인 인재만 길러낸다는 것은 사회에 기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구나?”

“맞아요. 사이코패스. 사실 아까 공감공학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대 형성이 잘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모두 죽음, 살인 쪽으로 되어있으면 누가 공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공감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잘 봐야하는 게, 정말 공감결핍환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공감대 형성은 이미 되어있는데 그 공감을 사회가 못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런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조용한 수호자(Silent Guardian)가 있으면, 조용한 학살자(Silent Slaughterer)도 있는 법이죠.”

“흠, 요즘은 인터넷면허체계 맞추려고 사기업에서 블랙박스로 사람들의 감정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으니까 사이코패스의 치료? 적어도 도움을 주는 로봇개발이 완전히 먼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긴 하다. 누나가 사실 공감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고맙네, 현석아. 나중에 잘 되면 더 맛있는 거 사 줄게. 그리고 혹시 현석이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보니까 코딩도 싫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유망 직업인데 여태 한 게 아깝잖아. 오늘 성적도 좋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진 마.”

“앞으로 코딩은 사회에 공헌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서요. 이게 제가 흥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전 뭐, 아시다시피 가난하니까. 공헌 같은 거 하면 돈 못 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 드론 배우고 있어요. 전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배달 일을 하고 싶어요.”

“오, 힘장사인 현석이를 만날 수 있겠네!”

최근에는 대형드론을 활용하여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옮기는 전문업체가 생겨났다. 이런 대형드론자격증을 하나 구비해두면 이사뿐 아니라 각종 배달 업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누나랑 얘기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코딩과 소설은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구현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소설이고 이것저것 맞춰가면서 구현하는 게 코딩이라고. 왜 예를 들면, ‘저 여자가 편의점에 걸어간다.’를 구현하면 소설은 한 문장으로 하면 끝나잖아. 근데 코딩을 봐봐. 여자를 하나 복사하고 편의점을 가져왔어? 그리고 준비된 애니메이션으로 걸어가게 해? 벌써 여기서부터 내가 그리고 싶은 것과 속도 차이가 나지? 그리고 중요한 거 뭐해야 하지? 코딩이나 구현 다 하면 늘 하는 거.”

“디버깅(Debugging)이요? 아, 시간이 배로 들겠네요. 소설은 그냥 문장만 바꾸면 되지만 디버깅은 일단 문제가 되는 코드 보려고 밤낮을 지새우죠. 그 후에야 해당 코드를 바꾸고.”

“그런 차이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공들인 시간에 비례하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점. 요 두 가지가 차이점 같아. 그래서 난 이번에 소설의 장점인 구현속도가 빠른 점을 이용해 최대한의 구현속도를 보여주려고. 그냥 모든 비유를 삭제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장해은은 장해은처럼 생겼다.’ 식으로. 알아서 머릿속에 그리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다른 걸 구현하느라 바쁘니까 말이야.”

“아쉽네요. 해은 누나 진짜 예쁜데 그냥 장해은처럼 생겼다니.”

“하하, 그나저나 우리 현석이 진짜 엄청 코딩실력이 발전했네. 공감공학이란 말을 다하고.”

“글쎄요, 저는 벨리가 그렇게 구현되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추측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Glass 3.1 버전 말이에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확인해 보았죠.”

“우리 현석이 벨리가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누나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코딩 잘하거든요.”

“그래? 다른 누나라고? 한번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야겠네. 우리 현석이 집 한번 가 봐야겠네. 잠깐만, 현석아. 내가 현석이한테 뭘 말하려고 했거든? 아, 우리 현석이 평소에 뭐하니?”

“로스트아크, 검은사막이라는 고전게임을 하고 있어요. 가상(Virtual)에서 노는 거죠.”

“가상이라니. 엄연히 서버실이 존재하고 전자신호가 현실에서 오고가고 해저케이블, 수십 수천 개의 위성에 안테나까지 아주 현실에 엄청난 장비들이 즐비하고 있잖니. 그게 다 돈이 얼마데 가상이라고 하니.”

“그럼 누나는 게임을 뭐라고 생각해요?”

“전자인형놀이. 따지고 보면 정말 인형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냥 이런저런 특성을 가진 인형을 가지고 보스를 때려잡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실제 바느질하고 머리 다듬고 하는 인형과 차이점이라면 전자로 되어있으니까 클릭 한 번에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인형이지. 게임은 모험을 즐기는 거고 하나의 큰 테마파크인 셈이라고 생각해. 벨리의 시초적인 가상 인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빅데이터랑, 연산과정, 사람의 많은 몸짓을 어디에다가는 반드시 담고 있을 텐데 그게 가상이라고 하면 어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가상(Virtual)이란 개념이 재평가 받으면서 원어순화(原語純化)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인터넷이 가상의 공간이 아닌 사회 공공장소이라고 보는 거야. 게다가 가상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메모리 시간에 배운 구조 알지? 하드웨어 시간에 배웠잖아? 메모리가 현실에 실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 존재하는 순간부터 가상이란 개념은 이미 끝난 거지.”

“메모리는 크게 전자 저장방식이나 내부 구조의 변경이라고 배웠어요. 후덜덜(Hard Disk Drive)에서 플래터(Platter) 내 자성체를 변경시키는 과정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에서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 내 전자를 축전, 방전하는 과정을 통해, 플립 플롭(Flip Flop)은 1비트의 정보를 보관, 유지하는데 논리회로가 쓰이면서 자료가 저장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플립플롭은 논리회로 너무 많아서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나 말 듣고 보니까 거기에 저장되는 게 다 코드고 자료들인데 그게 가상이라 하면 그런 작용들이 다 가상이라는 말이 되네요. 여태 벨리도 위험하다는 걸 토대로 말하면 그때 가상인간도 대기업에선 좋게 만들었는데 벌써 다른 곳에서는 그 형상을 기반으로 포르노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면허체제도 없으니 그게 바로 인터넷에 업로드 될 거고요. 이건 기업이나 개발자의 방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격이잖아요. 이런 가상에 대한 비유는 소설에서도 보여요. 누나가 쓰는 소설이 있다면 누나가 쓴 책을 포함한 소설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가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 보여요. 왜냐면 책도 엄연히 종이라는 곳에 잉크를 활용해 종이의 색상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잉크로 형성된 그 글자들을 인간이 만든 기존 규칙대로 재조합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단어를 하나씩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다 읽어 머리에 어떤 형상을 떠올리죠. 철학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야한 생각이라든가 전부 시간만 다들 뿐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똑같은 행위인 거죠. 하지만 책은 많은 부분 직접 머릿속에서 만들어야하고 컴퓨터는 만들어주니까 뇌가 쉬는 거고. 이래서 컴퓨터를 많이 하면 현명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산책 같은 걸 하면 더 코드가 잘 써질 때가 많거든

요. 책이 이런 비유가 있으니 모니터도 똑같겠죠? 화면에 픽셀(Pixel) 하나하나를 모아 캐릭터를 표현하듯 말이죠. 사실 모니터도 더 옛날 타자기의 종이를 실시간으로 계속 최신화하는 것에 불과하죠. 네, 컴퓨터도 타자기의 전자화라고 배웠어요. 사물의 전자화. 서비스 시대 물품의 시초.”

“면허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부분들 바로잡고 있거든. 이러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컴퓨터공학이 자칫 유사과학(類似科學, Pseudoscience)으로 변질되는 될 수 있다고 말이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신체입출력공학(Body Interface Engineering), 가상함수테이블(Virtual Function Table)은 상속함수테이블(Inheritance Function Table), 가상화폐(Virtual Money)는 전자화폐(Electric Money), 가상디바이스(Virtual Device)는 이너디바이스(Inner Device) 식으로 말이 변경되는 거지. 봐봐, 가상현실만 해도 그거 그냥 모니터를 눈앞으로 가져다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른 형태로 치환시킨 것에 불과하잖아? 그리고 뇌파로 조작하는 BCI(Brain-Computer Interface) 역시 뇌파가 Body에 속하는 개념이다 보니 머리입력기기, HIC(Head Interface Controller)로 헛갈리지 않게 변경되더라고. 게다가 가상디바이스를 보면 구현되는 방식이 원래 디바이스에서 여분에 자원과 메모리를 끌어와서 다른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것뿐이잖아. CPU연산 돌리는데 과열되니까 팬으로 식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바다로 식히고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그 인터넷 구현해보겠다고 해저케이블에 위성까지 쏘아대는데 이게 어떻게 가상이니. 가상(假像)은 소설이나 꿈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영감을 통해 얻는 공상이나 허상정도만 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걸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고. 맞아, 나는 기억도 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가상은 아예 다른 차원 같은 데에서 오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아가 말했잖아. 공간전이? 그런 미래 기술로 만약 연결이란 것이 좀 더 손쉽게 구현되는 시대가 오면 미래 사람들은 해저케이블, 하늘에 떠있는 위성을 아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거야.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피라미드를 대체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식으로 생각하잖아?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뭐 그래, 내 생각엔.”

“누나, 그런 설명은 세계미스터리 아니에요?”

해은은 현석을 보며 슬쩍 웃었다.

“아, 맞네. 하예튼! 요즘 IT기술자들을 부르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컴공에서는 기계에 가까울수록 ‘저급언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다루는 사람들은 ‘저급인력’인데 어째서 생기잖아? 그래서 요즘은 첨단인력(Tip People, 尖端人力), 첨단기술(Tip Tech, 尖端技術)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대중사회에서 멀어지고 기술이나 학문의 최전선으로 갈수록 첨단이 되는 거지. 창을 수평으로 눕힌다고 생각해보면 쉬워. 결국 창은 눕혀야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아둔의 창(Spear of Adun)이네요.”

“어, 그래. 솔직히 그 창 머시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쪽은 대중인력(Mass People, 大衆人力), 대중기술(Mass Tech, 大衆技術). 아까 얘기 계속하자면 IT기술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전자신호로 변환이 되었어. 다만, 그게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단위도 만들어 쓰잖아. KB, MB, GB이런 걸로 말이야. 이거 현실에 존재하니까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영감을 한 번 경험하다보면 당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부터 해서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도 헤아릴 수도 없더라고. 즉, 감이 안 잡히지. 그냥 그 중에서 하나 집어서 가져오는 거고. 그런데 잠깐만 너무 또 옆길로 센다. 다시. 우리 현석이 그런 게임 하면 안 되지 않아? 그거 온라인게임이고 미성년자잖아. 불법인데?”

“그 영감을 세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 공학이죠. 아! 그리고 팬찮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는 보물까지 얻었다니까요! 마지막 조각은 나크의 붉은 눈물(Narc's Crimson Tear)이었죠.”

인터넷 면허체계에서는 온라인게임은 사용자의 생각이 담긴 행동과 행위가 모두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즐기지 못하는 게임이다. 단, 로컬 환경을 구축한 온라인게임장이나 게임전시장에서는 그 안에서만 가동되는 서버를 통해 미성년자도 안전한 온라인게임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나 일반사용자는 게임 다운로드를 가능하기에 보통 패키지게임들을 즐긴다. 패키지 게임들은 인프라넷,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 아닌 단거리 통신 및 가족이나 보호자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아예 혼자서 즐기는 게임들이 출시된다.

게임뿐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기타 오류 및 잦은 버그율로 인간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줄이기 위해, 총 세 번에 걸친 임상실험을 진행한 다. 이러한 과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속도를 심각하게 저해시키지만, 바꿔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치명적인 오류와 버그로 인해 사회 및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끼칠 수 있기에 그런 심도 있는 고려과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과정과 절차가 고도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프로그래머의 몸값은 꽤 높아지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책임 역시 무거워졌다. 특히 유·무형의 가치인 서비스를 모두 전자정보로 저장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로그래머의 사회 기여도와 중요도가 올라갔다. 따라서 이전 시대와 달리 소프트웨어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제작되어야하는 것이다.

해은은 다시 고개를 돌려 폰으로 시간을 보았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다.

“이 누나는 우리 현석이 어떻게 게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냈으면 어떨까 싶어. 우리 현석이가 왜 공감 공학을 떠올렸을까? 어쩌면 공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은 거고. 그럼…… 솔직히 현석이 누나 좋아하지? 근데 예쁜 거 빼고 좋아하는 게 뭐야?”

“네? 아, ……. 생각 안 해봤어요.”

“누나는 현석이가 조금 더 많은 걸 봤으면 해. 물론, 누나가 현석이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누나는 보이거든 누나보다 훨씬 현석이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나도 염치가 있지 그걸 보고 어떻게 무시하겠니. 현석아,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나 보다 더요?”

“누나 눈엔 아주 잘 보이는데? 이게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 아까 주구장창 말한 공감능력이지. 찾아봐 한번.”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해은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착석했다. 현석은 잠시 교문 앞에서 멈췄다가 잠시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가 대뜸 일어나 교실을 나갔다. 수아가 화장실로 가는 현석의 어깨를 쳤다.

“야, 왜 이리 늦었어. 그, 그, 아, 아까 선생님께서 물었어. 너 청소 그…… 잘 안됐다고. 팬찮아, 내가 대신했어.”

“고마워. 해은 누나랑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그냥 뭐 잘 지내냐. 게임 뭐하냐. 코딩 잘 쓰는 거 부럽다. 나도 소셜 잘 쓰고 싶다.”

“……. 그게 다야?”

“어, 다야.”

“왜? 너 거짓말 안 하잖아.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어.”

“근데 왜 그게 다야?”

“아…… 몰라. 그런데 수아야, 나 오줌 싸고 싶은데.”

“어? 어.”

불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현석을 보고는 수아는 잠시 남자화장실 앞에서 프리징 되어버렸다.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수아는 금방 정신을 차린 채 다시 교실로 향했다.

“오늘 청소가 잘 돼서 오후 수업은 이제 하교하도록 하자. 집에 들어가서 꼭 씻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니?”

예서가 손을 들었다. 민애가 눈을 부라린 채 예서 쪽을 보려하였다.

“일찍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가 무너졌나요? 안 무너진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 됐잖니. 비가 한 번 오긴 했지만 대기 질이 영 안 좋은 것 같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꼭 씻도록 해라.”

교실은 ‘네.’ 소리로 함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예서는 이 낯선 하교 시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세 번째 잔. 승부, 777

민혁은 자리에 앉아 폰 화면을 보았다. 다정히 양갈비를 뜯고 있는 해은과 은영이 보였다. 민혁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은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다. 민혁은 늘 이런 비슷한 자리가 시작되기 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편이다. 그리고 드디어 김인아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민혁은 손수 일어서서 인아를 맞았다.

“인아 씨, 잘 지냈어요?”

“팀장님 휴가신데 죄송해요. 귀한 시간 감사드려요.”

“괜찮아요. 어떤 것 드시고 싶으세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고것만요.”

“알겠어요.”

민혁은 잠시 폰을 들여다보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순식간에 주문하였다. 인아는 그 사이 성경을 꺼냈다. 민혁은 인아의 묵직한 성경을 보고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선배님께서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드려요. 그런데 성경공부를 주선하시는데 성경에 관한 제 생각을 조금 꺼내 봐도 괜찮을까요? 인아 씨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이죠. 말씀만 하세요.”

잠시 후, 점원이 아메리카노 두 잔을 가져왔다. 민혁은 잠시 허리를 펴고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들이켰다. 인아는 민혁의 움직이는 목젢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사실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물음이 커요. 신뢰를 해야 하는 문서인지부터 해서 말이죠.”

“주님의 은사 아래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드려요. 특히, ‘창세기(Genesis)’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창세기 앞쪽에 보면 7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순서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셋째 날과 넷째 날 말이에요. 세 번째 날에 땅, 바다, 식물과 열매를,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어있어요. 상식적으로 식물이 해와 달보다 먼저 생성된 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것에는 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전 과학적 사실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민혁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인아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잠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잠시 인아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매장이 조금 추운 것만 같았다.

“우리 인류는 농경생활을 청동기시대부터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죠?”

“네, 알죠. 학교시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제가 품은 성경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의 순서가 틀린 것을 쓰는 이도 알고 있었겠다.’라는 점이죠.”

인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알 수 없는 민혁의 침묵에 잠시 민혁의 눈을 보았다. 민혁이 인아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인아는 눈이 동그해진 채 민혁의 다음 말을 막지 못했다.

“문명의 발전과 이 성경 구절을 맞대보면 이 글이 쓰여 지고 또 이렇게까지 문장 구성력을 갖추는 데, 식물과 해 그리고 달의 상관관계를 모를 문명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즉, ‘그 시대 사람들도 해와 달, 별부터 떠있는 뒤에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며, 열매를 맺는 식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음서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초장부터 잘못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전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

인아는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다 쇳덩이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인아는 그 채로 얼어붙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가 ‘마그마 바다(Magma Ocean)’와 같은 아주 온도가 높은 행성 초창기의 바다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물질과 물질의 조화 즉, 거진 모든 자연물에서 발견되는 뿌리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설계는 아닐까 싶거든요. 그 형태를 디자인 한 것이다. 혹은, 태양계를 지칭한 것이다. 태양과 주위를 따르는 행성도 식물형태니까요. 이후 비로소 네 번째 날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정의할 수 있는 지구가 형성된 것이다.”

“민혁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자칫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이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부분은 괜찮을까요? ‘소돔과 고모라(Sodom and Gommorrah)’요.”

“그건 괜찮을 것 같네요.”

인아는 잠시 아메리카노를 입에 한 가득 머금고 꿀꺽 삼켰다. 머리가 저릴 정도로 시렸지만 눈을 질끈 감고 일단 참았다.

“전 그런 불의 심판 역시 과학적으로는 안 일어났던 일 같아요. 즉, 역사에서만 그렇게 표현되고 과학적으로 안 일들.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

“흠, 흥미롭네요.”

“우리 한국말 중에 ‘화(火)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떨어진 불덩이. 그 불덩이에 휩싸여 서로를 죽이는 형상을 하필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 모두 보게 되었고 그 잔인함에 그대로 얼어버렸다. 이를 순화해서 표현해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애기는 되죠. 결론으로 소돔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역사에 남지도 않을 정도로 자멸한 것이고요.”

“재밌는 해석이네요.”

인아는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민혁이 보기엔 인아가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노아의 방주(Noah's Ark)나 오병이어(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도 비슷하게 보자면, 전자는 동물을 싣 다 사람으로 치환하면, 노아의 방주라는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몰려갔으며, 눈물로 회개하였다.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처럼 생긴 이가 교회에서 나가 짝을 찾는다. 뭐, 이런 해석. 후자 오병이어는 모든 말씀을 끝내고 후일담으로 듣기만 해도 배부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해당 시대의 문제나 현안에 대한 답을 짝 펼쳤겠죠. 예수님께서서는 어부셨으니 그 비율은 애피타이저 5, 메인 디쉬 2. 합쳐서 7.”

“…….”

“이런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 꽤나 비유가 많다는 점. 둘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대의 글쓴이조차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오류를 알았다는 점. 끝으로 그 시대에 다루었던 문제들이 현재에도 강력한 공감을 불

러일으킨다는 점이죠. 특히, 마지막 이유 때문이라도 성경이란 서적은 그냥 인문서적으로도 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두 가지 테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은 죄와 벌. 신약은 선과 위로.”

“.....”

“첫째 날에 일어난 것이 ‘빛(Light)’이잖아요. 자연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보통 무언가가 발화(Ignition)하면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천지(天地)’라는 것이 공간의 개념이면 어떨까요? 왜냐면 뒤쪽에 땅과 하늘은 따로 만드시니까. 여기서 천지가 마냥 땅, 하늘은 아닐 것 같다. 중복해서 만드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만약 천지가 공간을 뜻하는 게 맞다하면, 그 공간에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공간이 모두 빛으로 물들어야하기에 결과는 자연물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 ‘빅뱅(Big Bang)’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짚어보면 한 두 개가 아니죠. 왜 천지전능하신데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꼬박꼬박 쓰여 있는지. 형상, 인간을 만들고 싶으셨으면 애초에 빛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인간, 만드셨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럼 혹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하는 것인가. 혹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 지구에 남겨진 수많은 유인원들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고통은 느끼셨을까. 고통. 보통 신이라면 없을 수 있겠지만 후술에 등장하는 여러 공감들이 어찌면, 하나님은 고통을 다룰 수 있으시다는 것까지 보는 거고요. ‘고통을 다룬다.’ 인간으로서는 저 너머의 영역이긴 하죠. 이러한 것의 기초는 신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를 같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단, 사람은 신과 같이 수십억 년을 일할 수 없으니 형편 상 6일을 일하고 1일 쉬는 거죠. 왜, 인간이 동면 상태면 수십억 년을 그냥 자는 거잖아요.

더해서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중 지적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인간과 닮을 확률이 얼마일까. 염기서열(Nucleic Sequence, 鹽基序列)에 대해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염기서열을 통해 단백질을 결정하거든요. 즉, 해당 질문을 다시 바꿔 말하면 단백질 설계도로 인해 다른 지적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겠죠? 지구와 닮은 행성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토 지구에서 쌓아올린 단백질 데이터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만 지적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들의 단백질 데이터 말이에요. 현재 지적생명체 인간 염기서열은 바이러스 따위를 포함한 누적 생명체 종들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구형 행성에서 염기서열이 다르게 작용할까요? 즉, 그곳에서도 환경이 비슷하니까 단백질로 생명체를 이룰 것이라는 거죠. 혹 아예 지구형 행성이 아닌 곳에서 지적생명체가 있다면 네, 이제 가정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지구형 행성에서 지적생명체가 인간이 아닐 확률에 대한 것은 예외성(Exceptionality)으로 봐요. 예외성은 때론 새로운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만약 그 대상이 지구와 닮은 곳이라면, 그곳에서 발생한 예외성이 지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인간의 염기서열이 만들어낸 확률에 예외성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외성도 존재한다고 봐요. ‘지구와 닮은 어떤 행성에서는 산소가 수소보다 가벼울 수 있지 않을까?’ 따위 말이에요. 과학은 사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다음 수를 예상할 수 있는 예측성(Predictability)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 염기서열과 단백질 구조를 다루는 생명과학에서 보여 지는 수많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지구형 행성의 생물환경을 예측해본 것이고요. 사실 이런 해석을 최초로 시작한 이유는 이 이슈에 대해 저는 그냥 확장(Expansion)이란 개념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대륙 저 대륙 나아갈 때, 결국 그곳에서도 인간이 있었잖아

요? 그 그림을 그냥 우주단위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이 논리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시키면 이런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우주를 개척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개척을 하려는 행성에 이미 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지?’ 궁극적으로 어떤 분들과 소통이 된다면, 지구의 인류는 문명을 그 분들과 교류할 의향은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신이 죽어있다. 저는 이 문제도 역시 허구한 날 기도해대는 그 ‘사도신경(Apostles' Creed)’에 답이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구절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마, 인아 씨도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문장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리고(and) 연산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에 주목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루시는 구나.’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는 ‘산 자 입장에서 죽은 자에 있는 것 같을 것이고, 죽은 자 입장에서 산 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다.’ 싶은 거죠. 그럼 그 ‘심판(Judge)’이란 것도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는 아닐까 싶은 거고. 우리 보통 아이 둘 낳으면 아이들끼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동생만 좋아한다. 아빠는 형만 맛있는 거 사준다. 그리고 부모가 대충 둘 다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둘 다 만족하게 하고. 제가 시도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말마따나 같은 달을 보고 과학과 종교라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관점으로 더 나아가, 어쩌면 그 에텐동산이란 것도 최첨단 과학기술단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 지탱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뱀이라는 녀석도 결국 사람이고 술수를 부리다 사지가 절단됐다. 말 맞추면 되긴 하죠. 아무튼 이걸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 이상(理想)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해요. 종교든 과학이든 세상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심지어 종교 내부, 과학 내부에서 서로의 논문이나 법, 이념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아예 전쟁까지 치르고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죠. 전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거고요. ‘지구 상에 있는 우리끼리라도 이해해야 그 후에 외계지적생명체든 뭐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그만큼의 법과 제도, 궁극적으로 기술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에게 ‘사이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해석으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를 하거나 다른 이들이 신으로 막 떠받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 맞아요. 그 점이 걱정된다는 거죠.”

“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네요. 우선, 그런 관점은 신을 믿고 계시는 인아 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해요. 또, 저에게도 예의가 없는 발언 같아요. 물론, 인아 씨께서 제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해석을 해내기 위해 부족하지만 여러 과학 지식과 교양을 쌓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절 ‘신으로 받들어라.’라고 하면 지식과 교양을 쌓는 고통, 시간들이 모두 무시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두가 길었지만 이런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아요. 이제 인아 씨 순서인데 괜찮으신가요? 공유하고픈 성경은 어떤 부분인가요?”

민혁은 웃으며 인아를 바라보고 있다.

“전 괜찮아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민혁 씨. 아, 아니. 팀장님 생각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제게 찾아온 것 같아요.”

“좋아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는 데에도 환기가 필요한 법이죠.”

인아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들이켰고 민혁은 잔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럼 잠시 업무 얘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인아 씨가 이런 성경공부 시간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혹은 심지어 같은 성도여도 사내에서만큼은 업무에 총집중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배려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기억났네요. 팔 괜찮으신가요? 곧 점점기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민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인아의 팔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인아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인아는 기계근로자이다. 5살 시절 4층 베란다난간에서 놀다 떨어져 오른쪽 팔을 잃었다. 따라서 그녀의 장애 요인은 ‘사고(事故)’로 분류가 되며, 그녀는 비교적 적은 비용의 초기 자금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로봇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그녀만의 팔을 갖게 된다. 그리고 로봇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이 지불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1인에 로봇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기업이 안는 이유는 첫째로 기계근로제(機械勤勞制)의 시행 때문이며, 둘째로는 인사 과정을 이상적으로 진행한다면 기계와 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근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업에서 장애인과 기계가 결합된 기계근로자를 더 반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이나 훼손하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물론 이를 반기지 않는 기업도 있다. 단, 이 기계근로제의 주목적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팔을 잃은 장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지가 멀쩡한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물리적인 힘이 부족하지만 소방인력이 되고 싶은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 있을 때, 자신에게 맞는 기계를 충분히 학습하여 각종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혹은 성인 남자여도 소방 업무를 할 시 사람 이상의 힘이 필요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로봇 면허를 취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계를 학습하는 비용과 시험절차는 순전히 지망생 본인이 지급해야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지급받는 방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에 비해 로봇의 가격이 상당하기에 위와 같은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기계근로제 자체가 워낙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제도이기에 이는 집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는 식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계근로제의 주된 관계인 개발자, 기업, 근로자 삼각관계가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고 근로자는 더 업무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악용해 로봇 업체와 환자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아는 다시 한 번 오른팔을 주물렀다. 아무래도 살과의 접합지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다.

“그, 최신이라고 BCI(Brain-Computer Interface)이긴 한데, 요즘 많이 뻑뻑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테스트로 새하얀 도화지에 선을 그려보곤 하는데 확실히 점점을 받을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정말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복잡하시군요. 집중이 안 되시겠네요.”

“이런 말 꺼내면 괜히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속상했거든요.”

“힘드시면 재량껏 휴가 드릴 수도 있어요. 전 언제나 인아 씨를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인아 씨가 회복돼서 이전 밝은 모습으로 그림 계속 이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게요.”

인아와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혁의 잔은 다 비워져있었다. 하지만 인아의 잔이 남아있었다. 인아는 몸이 불편해서 커피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남은 커피를 모두 버렸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발걸음으로 향할 찰나였다.

“저, 민혁 팀장님!”

“네, 무슨 일이시죠?”

“저…….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슬빛교회(Light in Dew Church)’예요. 여명이 지나 이슬에 빛이 맺혔다나 뭐라나. 인아 씨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쪽은 커뮤니티와 기타 모임 같은 거 교회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니까 인터넷 면허 있으시면 이쪽 교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인프라넷 다 연결 돼 있고 영상자료도 그쪽으로 다 올라가고 여러모로 편한 부분이 많죠. 참, 제 집사람도 어제 거기서 예배 영상 보고 그랬어요. 요즘 교회에서 제자반인가 뭔가 할 거예요. ‘N번째 천사되기’인가? 자세한 건 직접 찾아보시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민혁은 손짓을 한 번 한 뒤 무인버스를 타는 인아를 보았다. 민혁은 가게를 돌아 차를 타고 은영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다이어리를 덮은 은영은 안경을 벗고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밖을 보았다. 이놈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방이 서늘한 것 같아 에어컨을 켰다. 은영은 어지러워진 머리를 식히려 침대에 누웠다. 아랫배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따뜻해지는 배를 느끼며 있다가 점점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을 천천히 떴다. 얇은 이불을 들어 몸을 그 속으로 넣었다. 잠시만 은영은 모래폭풍을 뒤로하고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은영 방의 시계가 벌써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이 잤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은영은 헐레벌떡 일어났다. 날카롭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은영은 한손으로 머리를 댔다. 은영은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한 것이 느껴졌다. 은영은 씻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기 전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혹 그림자라도 세어나갈까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천천히 고개를 내어 보았다. 민혁이 맨 식빵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 먹으면서 냉장고 안에 우유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에이, 뭐야 당신이었어? 오늘 목요일이잖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벨리 버그가 맞데. 공식 서류 받았고, 회사에서 오늘 반차 받았어. 폭풍 지나갈 때까지 밖에서 밥을 먹긴 했는데 또 출출해지긴 해서.”

은영은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어설픈 토스트를 먹는 민혁이 멋있어 보였다. 은영은 몸에

찌릿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 해은이 오려면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은영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간만에 얻은 반차를 받고도 모래폭풍을 기다리면서까지 민혁은 집을 선택하였다.

“자기, 방금 혼자 너무 나간 거 알지?”

“그러게 누가 내 엉덩이 만지래?”

민혁은 토스트를 입에 우겨 넣고 우유를 들이켰다. 은영은 그냥 가만히 서있었다. 민혁은 입 안에 남은 것을 다 넘기고 은영을 바라보며 슬며시 웃었다.

“잠깐잠깐, 오빠 안 씻어?”

민혁은 은영을 안고 은영의 방으로 향했다. 은영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가벼운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였다. 민혁이 힘을 줄 때마다 은영은 계속해서 짜릿한 고향을 질렀다. 은영과 민혁이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집 안은 은영 방에서 세어 나오는 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 안이 온통 은영의 노래로 물들어 갔다.

한편, 그 시각 하교를 하는 해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지를 털었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도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털는 것은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해은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도어락에 핸드폰을 갔다대며 잠금을 해제하였다. 도어락은 지문으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잘 다녀왔…….”

집안은 은영의 목소리로 찌렁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해은은 신발장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해은은 눈을 내려 민혁의 신발을 발견하였다. 신발만 보았을 뿐인데 당최 눈을 어디다 두어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야, 누구 온 거 아니야?’

‘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짧은 순간, 해은은 그냥 다시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내린 층에 멈추어있었다. 은영이 방에서 나오는 동안 현관문은 다시 닫혔고 해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내려갔다.

속옷은 입지도 않은 채 파자마만 걸치고 거실로 나온 은영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현관문까지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는데?”

“그랬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오빠도 민감해진 거 아니야? 우리 좀 설까? 쉬자. 잠깐만.”

은영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은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

‘우리 딸 수업 중이니?’

‘○○’

‘그래 열심히 하렴 파이팅’

‘;ㅁ;’

“해은이는 아닌 거 같은데?”

해은은 수업 중이면 늘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곤 하였다. 은영이 부엌으로 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거실 소파로 가던 중이었다. 민혁이 다시 은영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끌어안았다. 은영은 다시 민혁에게 몸을 맡겼다.

해은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와 터벅터벅 걸었다.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아파 눈을 있는 힘껏 감았다. 눈 안 어딘가 세포 하나가 터진 것 같다. 해은은 눈만 감았을 뿐인데 이러한 느낌은 불길했다. 안 그래도 연일 계속 미세먼지를 들이켰던 터라 그냥 병원을 찾기로 하였다. 해은은 안과 쪽으로 방향을 옮겼다. 처음에는 시내 쪽으로 나갈까 하였지만 저려오는 무릎에 또다시 버스를 타기가 버거워 그냥 동네 앞 병원을 가기로 하였다.

접수를 마친 해은은 뒤돌아보니 아이들과 엄마뻘 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였다. 구석에는 고령의 환자도 꽤 있었다. 해은은 그 사이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예상 대기시간을 보니 무려 1시간이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좋아졌다지만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였다. 마스크를 끼고, 지하로만 이동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려 루트를 짜고, 차량에서 차량으로만 옮겨 다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어도 도시 전반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해 이런저런 환자가 더 늘어버렸다. 그래서 해은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눈을 붙이기로 하였다.

간호사가 해은을 깨웠다. 보통 병원에서도 벨리가 접수나 기타 사무업무를 보고 간호사는 인간이 직접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는 최고 품질의 인공지능로봇이 간호를 보긴 하지만 이처럼 해은이 찾은 대도시 변두리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간호는 인간이 맡는다. 해은은 일어서기 위해 배에 힘을 주다가 헛기침이 나왔다.

해은은 진료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해은으로 몸을 돌렸다.

“학생이네? 교복 보니까 미리내고인가 봐?”

“네, 맞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보자.”

해은은 좌초지중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며, 입맛이 없으며, 헛기침까지 나오는 등 최대한 아픈 것 같은 애매한 이야기까지 죽죽 늘어놓았다. 의사는 해은이 한참동안 횡설수설하는 말에서 핵심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그냥 해은의 말을 적당히 끊고 해은의 눈을 확인해보았다. 해은의 눈이 시뻘건 채로 있었기에 최대한 꼼꼼히 보았다.

“약간 감기기운이 있네. 최근에 무리한 적이 있나봐. 요전에 비가 내렸는데 사실, 그 비에 미세먼지 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 온 가족이 시원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최대한 구석구석 씻어내라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사람 신경에도 영향을 줘요. 학생도 최대한 조심하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에어컨은 피해요.”

진료를 마친 해은은 다시 의자에 퍼질러졌다. 곧 해은의 처방전이 나왔고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병원 내 벨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해은은 처방전을 조엘에게 넘겨주었다. 정확히는 벨리끼리 어떤 손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두 개가 연결된 다음 잠시 후, 조엘이 잘 넘겨받았다고 한다.

해은은 그 길로 약국으로 갔다. 약국에서 약을 받은 해은은 해가 벌써 저물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6시가 되어있었다.

‘이럴 거면 그냥 수업 듣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해은은 내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집안 생각이 들었다. 그 더러운 몸으로 신나게 서로를 쪽쪽 빨고 있을 둘을 생각하니 해은은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어락을 해제한 해은은 꽤 문을 여는데 머뭇거리다가 문고리를 돌렸다. 현관에 신발은 낮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은이 빨리 왔네. 고생했어.”

은영은 파자마에 머리까지 묶고 샤워까지 했는지 가까이 오기만 해도 향긋한 향기가 퍼졌다. 해은은 은영을 잠시 쳐다보더니 입 꼬리를 슬쩍 올렸다. 은영은 도저히 해은의 얼굴 뜻을 알 수 없었다. 은영은 눈썹에 힘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 몰라. 배고파. 빨리 밥이나 해줘.”

모든 식사는 민혁의 레오나가 준비하는 것이 벨리를 가정에 들일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였지만 실상은 저녁은 거의 은영이 손수 만드는 일이 많았다. 민혁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할 경우가 많아 레오나 자체가 집안일에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은은 민혁과 은영이 함께 부엌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우와, 아빠도 와있었네.”

“해은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오늘.”

“모르겠어. 힘든가 봐. 아이고, 힘드네. 방에서 좀만 쉴게요.”

방에 들어간 해은은 문도 닫지 않고 다 죽어가는 신음을 크게 내뿔었다.

“여보가 한 번 가봐.”

민혁은 엉덩이로 은영을 툭 치며 말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해은에게로 향했다. 해은은 침대에 드러누워 대자로 뻗어있었다.

“우리 딸,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몰라몰라, 밥이나 해줘.”

“해은이 엄마 비밀 있구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Kids Security Database에 연결합니다. 보호자 명령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엘! 네가 왜 나서는 거야?”

미성년자의 벨리는 사용자가 위험상황 혹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자나 관공서, 법원, 기타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 등 국가에서 증명하거나 인증된 기관이나 개인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상황을 기록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 훼손 및 삭제를 할 수가 없게끔 시스템 되어 있다.

“엄마, 엄마 진짜 후회한다. 진짜야.”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 조엘 뭔데? 궁금하네.”

“아까, 엄마 아빠 한 거 사실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성공한 조엘은 준비된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화면출력과 소리출력으로 변환하였다. 그렇게 조엘의 입에서 은영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안은 순식간에 적막해졌고 부엌에서 민혁이 생선을 튀기는 소리만 들렸다.

“어때 민망하지?”

“에이,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엄마는 우리 해은이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해은아, 신경 쓰지 마. 옷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해.”

은영은 해은이 방에 문을 닫으면서 나왔다. 민혁은 다시 은영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였다. 민혁은 이번에는 제대로 해은이 안 보는 곳에서 은영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완성된 저녁을 집중해서 먹느라 셋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해은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어?”

숨 막히는 분위기에 운을 띄운 건 은영이었다.

“없었는데……. 아, 몰라.”

“왜 다 몰라. 그래도 이빠 우리 딸.”

“뭐야, 그게? …… 끝이야?”

은영은 정말 그게 끝이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해은은 양치를 하러 갔고 민혁은 설거지를 하였다. 민혁은 은영이 정말 괜찮은지 엉덩이로 툭툭 쳐가며 물었다. 은영은 이래서 민혁이 여태 이렇게 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싶었다. 은영은 해은이 조엘을 충전기에 얹혀놓고 확실히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민혁에게 볼썽뽀를 하였다.

설거지를 마친 후 은영은 은영 방으로 갔다. 그리고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민혁과 은영은 뜨거운 키스를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아 잠시 멈췄다. 민혁이 입을 열었다.

“은영아, 내일 레오나 온데. 내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 나는 자기 믿어. 잘 자.”

민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은영은 웃으며 방의 불을 켰다. 은영은 배를 만지며 편하게 누웠다. 레오나가 온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은영은 천천히 잠에 들고 싶었다.

은영은 눈을 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아침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전 은영은 아랫배 위에 두 손을 얹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꿈만 같던 어제였다. 은영은 다이어리에 쓸 글이 잔뜩 생겼다는 것에 웃음을 지었다.

은영이 정말 기분 탓에 잠이 깬 건 아니었다. 이 이른 아침에 현관에서 민혁이 도착한 레오나를 정성스레 포장을 걸어내고 있었다. 은영은 혹 민혁이 출근에 늦을까 같이 달라붙었지만 한껏 굳어있는 레오나의 표정을 보니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괜찮아, 자기는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뒤처리까지 다 할게.”

민혁은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준 은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 잠자고 있는 해은을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포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조용히 뜯는다고 했는데 은영은 그 좋아하는 잠을 내팽개치고 민혁을 찾아왔다. 민혁은 은영이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던져낸 포장지를 일반쓰레기통에 다 버렸다.

벨리는 벨라스틱(Vellastic)으로 포장된다.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커지면서 이러한 ‘썩는 포장재’가 각광을 받는다. 이러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포장재가 개발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김치나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왜 포장재는 500년이나 남아있는가? 자원 활용에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다.’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각광을 받는 것 역시 그저 군소리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장재 개편안으로 인해 공산품 가격이 다시 책정이 되었다.

방식은 대략적인 식으로 가격을 재 측정하는 것이다. 대략적인 식으로는 ‘공산품가격 + 포장재 재질 가격 × 포장재 수명’이다. 위와 같이 문제가 대두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불법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것은 플라스틱 포장재가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대다수의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친환경 포장재는 무상 A/S기간에 맞춰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되고 있다. 즉, A/S기간이 2년이라면 2년까지는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순식간에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설계를 하는 중이다. 또한 냉동 보관되는 식품 포장재 역시 식품 유통기한에 맞춰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민혁이 포장재를 버리는 소리 때문에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 은영은 별 수 없이 옆으로 몸을 돌려 폰을 꺼내 관심도 없는 뉴스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영은 하나하나 똑같아 보이는 뉴스거리에 취해 다시 잠에 들었다.

벌써 여섯 시하고 반이 넘었다. 은영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부엌으로 갔다. 레오나는 마지막으로 나온 은영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고 해은은 벌써 스크램블에그를 다 먹어가는 중이었다.

“해은아, 아빠 어디 갔니?”

“방. 나 오늘 바쁘거든? 빨리 가봐야 돼. 아, 그리고 오늘은 진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올 수도 있다. 자고 올 생각도 있고.”

“그러니? 자고 올 생각이면 꼭 연락하고. 전화만 해줘.”

“알았어. 나 진짜 가볼게.”

“그래, 우리 딸 힘내.”

은영은 싹싹 굶어먹은 해은의 접시를 만족하며 바라보았다. 레오나가 곧 빈 접시를 가져갔고 은영 자리로 예상되는 위치에 은영의 아침식사를 내려놓았다. 해은은 양치질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레오나와 은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스크램블에그를 한 손가락 들고 있는 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렵게 입을 연 은영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 씨 기억에는 사라졌겠지만, 제 빅데이터 속에는 남아있거든요.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해은이의 방과 민혁의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터져 나왔다. 꽤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만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에는 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에는 적당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은영 씨는 이런 해소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처에 알맞은 정신병원을 안내 해드릴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은영은 프리징 상태로 돌입했다.

방에서 나온 해은과 민혁은 서로의 벨리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차갑게 식어버린 스크램블에그를 앞에 두고 은영은 천천히 접시로 눈을 돌렸다. 레오나가 정성스럽게 요리해준 스크램블에그를 보니 아랫배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아직 입에 넣지 못한 손가락을 힘없이 떨어뜨린 채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은영은 지난 3년 간 안에 쌓였던 것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잊으려한 것뿐이었지 소화가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구역질은 이미 관련된 부정적인 데이터가 넘쳐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겪을 대로 겪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에 배팅을 하였던 은영에 대한 대가였다. 3년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탑은 모래폭풍 앞에선 그저 자그마한 모래성이었다. 집안 곳곳에 은영의 구역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금 진정이 된 은영은 제 몸 가늠 새도 없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서둘러 외

출복으로 갈아입은 것도 모자라 이 더운 날 얇은 가디건까지 입었다. 성경과 핸드폰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교회로 도망갈 생각이었나 보다.

어떻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걸 보니 꽤 서두르고 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은영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은영의 뽀박질 소리는 정말 다급한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마치, 꽤 늦어 보이는 모양새였다. 은영의 접시에 있는 스크램블에그는 아직 반 이상 남아있었다.

누런 하늘에 해은은 마스크를 끼고 버스에 올랐다. 아침 등교시간이었지만 빈자리는 많았다. 해은은 적당히 중간 즈음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늘 보는 풍경이라 금세 지겨워진 나머지 폰을 꺼냈다. 언제나 그렇듯 만화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눈꺼풀이 금세 무거워졌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나서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컨디션이 영 좋지 못하다. 해은은 오늘 예정된 술 파티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버스의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버스의 인공지능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미세먼지농도에 불가피하게 서행모드로 전환되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학교까지 아직 세 정거장은 더 남았다. 더군다나 버스는 신호대기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무인 버스는 폭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아예 버스가 정차하게끔 설계되어있다.

신호에 대기를 하던 버스 내 일부 사람들이 결국 ‘긴급탈출버튼’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렸다. 신호가 바뀌려면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그걸 못 참고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해은도 앞머리를 부여잡고 그들을 따라 내렸다. 해은은 이제 막 풀린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넜다.

마스크를 끼고 약 10분 정도 내달렸더니 해은은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침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꽤 있기는 한가보다. 땀범벅이 된 해은은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는 수아만 있었다.

“안녕, 수아야. 다른 사람들은?”

“버스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등교시간도 조금 늦춰진데요. 언니는 뛰어오신 건가요?”

“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막상 뛰해보니 아니더라고. 너는 어떻게 금방 왔네.”

“저…… 원래 걸어 다녀요.”

해은은 수아가 기수자였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아무리 기수자여도 갈수록 기본소득이 줄어들고 생활고가 팍팍해진다는 소문처럼 정말 아예 버스를 못 탈 정도인가 싶었다. 해은은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끼며 괜히 쿵쿵거리며 걸어 다닐 것 같은 수아를 떠올렸다. 그리고 최대한 화제를 바꾸는 것이 나을지 여기서 대화를 그만둘지 고민이 들었다.

수아가 잠시 교복 단추를 풀고 심호흡을 하는 해은에게 다가왔다. 수아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인형을 하나 꺼내 해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뭐야, 수아야?”

“제가 만든 건데, 가지세요.”

해은은 수아가 준 플라스틱 인형을 집어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예쁜 여자아이 인형이었다.

“고마워. 잘 가질게.”

“안색이 안 좋아보이세요.”

“수아가 웬 일이라 나한테 관심을 다 가지고.”

“그건, 언니가 먼저…….”

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정우가 교실로 들어왔다. 수아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재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해은은 그런 수아의 모습을 이해했다. 해은이 인형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알 수 없는 괴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제 일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다. 확

실히 어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아 일은 그냥 넘어갔지만 확실히 어제 일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해은은 수아에게 가 잠시 밖으로 불러내었다.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언니가 축이 좀 좋거든?”

“아, 축이요……. 실은 현석이랑 맨날 하고 같이 하거든요. 비슷한 방향이라. 그런데 현석이 언니 좋아하는 거 같아서요. 많이.”

“알고 있는데 괜찮아. 수아도 조금 기다려 보렴.”

“네? 그게 무슨……. 아, 현석이 좀…… 그래요. 좋은 친구이긴 한데,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든요. 언니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아니에요.”

“뭘, 다사랑복지센터 말하는 거야?”

해은은 그냥 묻기로 하였다. 어차피 수아는 이미 아는 것 같았고 해은이 직접 아는 것을 공유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대화진전이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미 알고 계셨네요.”

“어, 나도 들었어.”

“혹시 예서한테 들으셨나요?”

해은은 수아의 예리한 직감에 말문이 막혔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대답이 되어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예서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현석이 기수자면 어디 소속이냐고. 아, 그걸 알고 있는 건 예서나 예서랑 친한 민애 언니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알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구, 그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어… 그래, 고맙다. 우리 수아가 재주가 좋긴 하네. 그리고 현석이는 자신이 무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천천히 알려주려고 해.”

“네?”

수아는 얘기가 끝난 후 빠르게 자리로 향했다. 해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수아가 준 인형을 보고 있다가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먼저 도착한 수아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성거리다 겨우 자리에 앉았다.

해은은 앞문으로 교실을 들어갔다. 들어갔을 때엔 정우와 수아만 자리에 앉아있었다. 해은은 드디어 공부하는 정우와 수아의 앞모습을 보았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둘은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수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보고 있었고 정우는 자신의 태블릿 속에 교과서를 다운받아 그 위에 전자펜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해은은 여태 이렇게 반년을 옆에 있었을 수아를 보며 입이 벌어졌다. 잠시 가만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해은은 다시 입을 다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현석이 뒷문으로 들어왔고 예서와 민애가 떠들면서 앞으로 들어왔다. 예서는 특히 껌을 씹으며 발음이 하나씩 세어나가고 있었다. 해은은 이들이 앉을 즈음 퀴퀴한 미세먼지 냄새가 같이 밀려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창문을 보았지만 하늘이 누런 것이 꼭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을 틀었다. 해은은 약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꿈만 같은 국어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다. 해은은 그대로 엎어져 뒹굴어졌고 예서는 다리를 앞을 쪽 빼고 의자에 등을 걸친 채 머리를 뒤로 젖혔다. 민애는 태블릿을 보고는 있다만 별 흥이 생기지 않는 듯 턱을 괴고 한 손으로는 펜을 돌리고 있다. 정우는 다시 한

번 오늘 읽었던 소설을 완독을 하였고 요소 하나하나에 분석을 하였다. 수아도 별 흥이 없는지 교과서 종이 한 장을 집고 페이지를 넘기다 말다를 반복했다. 쉬는 시간은 조용히 무르익었다.

‘찍어요~ 찰칵!’

민애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우는 눈을 한번 흘겼고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머리를 젖히고 있던 예서가 코웃음을 쳤다. 예서는 소리가 들려왔던 왼쪽 뒷자리를 노려봤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다. 퍼져있던 해은의 책상을 지나 현석에게로 다가갔다.

“너.”

예서는 딱 한 마디를 현석 머리에게 강하게 내리꽂았다. 현석은 꿈쩍을 않고 있다.

“현석아, 폰 좀 보자.”

예서의 눈은 반쯤 풀려있었다. 예서는 힘을 주지 않고 현석이 들고 있던 폰을 가져갔다. 아직 폰이 잠금화면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다.

“도촬, 했네? 언니, 이거 봐봐 도촬했어. 언니 친구 해은 언니를 말이야.”

“어? 어.”

민애는 예서를 꺾꺾 누르는 선수였다만 이렇게까지 나사가 다 빠져버린 상태면 난감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예서는 눈이 완전히 풀린 채 현석의 폰을 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은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야, 기수자. 적당히 해. 해은 언니가 그렇게 만만해? 해은 언니는 너 생각 없어. 기수자면 기수자답게 살아. 찌그러져 있으라고. 왜 이 지랄인데 시발 새끼야.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어. 부자랑 기수자. 그러니 주제에 맞게 살아.”

수아가 벌떡 일어섰다. 수아의 의자가 거칠게 뒷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다. 해은이 그 바람에 깨고 말았다. 예서는 돌아본 채도 하지 않는다. 해은은 어리둥절하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민애가 심각하게 현석이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은은 인상을 찌푸리며 예서가 현석이 머리통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운 없이 태어난 니들이 잘못된 거지. 누가 그렇게 병신처럼 태어나래?”

수아는 교실을 나갔다.

“해은 언니는 특별해. ‘일반인’이라고. 너희랑은 차원이 달라. 어디서 눈을 마주칠라 그래? 애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고. 거슬리게 찻찻대지 말란 말이야. 알아듣기는 하니? 병신 새끼?”

“예서야, 왜 그래?”

해은은 예서가 고갯짓으로 빈 책상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예서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져있어서 해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석의 폰을 보았다. 해은은 정말 자신을 아무 허락없이 찍었다는 사실에 기겁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이를 보다 못한 민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서에게로 갔다. 민애는 예서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야, 민애서. 선 넘지 마.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적당히? 끝? 선은 애초에 애가 먼저 넘었어, 언니.”

민애는 완전 고삐가 풀려버린 예서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일정하면서 나지막하게 내려앉은 예서의 목소리는 민애도 처음 듣는 톤이었다. 예서가 현석 머리통을 보다가 민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애는 다시 눈꺼풀이 반쯤 내려온 예서의 눈을 보고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졌지? 꺼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예서를 막아선 민애는 일침을 강하게 맞았다. 민애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야, 민애서.”

정우가 일어났다. 해은은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지켜보았다. 해은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순전히 자신의 일인데 다른 이들이 더 흥분해있었다.

“꼴통 새끼가 주머니 두둑하면 세상 단 줄 안 가봐? 조저줄까? 그만 나대자.”

“조저? 누가? 나를? 네가?”

정우는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들끼리 정해둔 ‘부자’들끼리 기싸움을 하는 동안 기수자 현석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가 된 해은은 서둘러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해은은 나름 빠르게 행동한다고 하였지만 앞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었다. 해은은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해은은 어쩔 수없이 서둘러 예서와 정우를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정우는 빠르게 몸을 돌려 자리에 갔다. 아직 화가 덜 풀린 예서는 가만히 서 있다가 민애가 힘으로 예서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밀자 그제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현석 앞자리 두 개가 모두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어디 갔니?”

“잠시, 화장실 갔나 봐요. 제가 데려올게요.”

“그래, 데려와라.”

해은은 수아를 찾기 위해 서둘러 교실을 나갔다. 선생님은 책을 내려놓은 뒤 책장을 폈다. 수아가 앞문으로 들어왔다.

“어? 수아 왔구나. 해은이 못 봤니?”

“네? 해은 언니……. 화장실 갔나 봐요. 제가 데려올까요?”

“……. 아니, 앉아라.”

선생님은 책을 덮었다. 민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선생님은 교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유선 이어폰을 선이 엉키지 않게 천천히 꺼냈다.

“민애서, 벨리 가져와 봐.”

선생님 기준에서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예서였다. 예서는 오늘 따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다. 하나가 예서의 옆구리를 찌른다.

‘예서야, 큰일 났어.’

‘나도 알아. 그쯤은…….’

“예서야?”

날카로운 선생님 호명에 예서는 결국 일어나 하나를 선생님께 데려갔다. 벨리는 고품질 음역대의 음악 감상을 즐기는 유선 사용자들을 위한 유선 단자가 제공된다. 선생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하나 가슴팍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리저리 눌러 Kids Security Data Base에 접속을 하여 조금 전 상황을 보았다.

교실은 어느 때보다 적막해졌다. 선생님은 모든 사건을 전부 인지하였고 이어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앞문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뭐 빨리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긴 하구나. 그리고 민에서, 서현석은 교무실로 따라오고 하교할 사람은 하교해라. 그리고 수아야, 해은이 오면 교무실로 내려 보내렴. 너무 안 온다 싶으면 너도 하교하고. 선생님이 연락해볼게.”

“네.”

수아만 대답을 하였다. 선생님은 곧바로 교실을 나갔다. 정우는 그 즉시 가방을 메고 교실을 떠났다. 현석도 뒷문을 통해 교무실로 향했다. 예서는 일어나 아직 앉아있는 수아에게로 갔다.

“야, 이수아. 아까 일은 사과할게.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럼 교실 안에서 목소리 좀 낮춰줄래? 이 미친년아.”

수아는 벌떡 일어서더니 예서의 어깨를 치고 곧잘 교실을 나가버렸다. 민애도 가방을 들고 교실을 떠났다. 어느덧 교실에 혼자 남아버린 예서다.

“쫓갈네, 시발.”

예서는 교실을 나가기 전 민애의 책상 다리를 건어찼다.

수아의 말에 허겁지겁 교무실로 달려온 해은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예서와 현석을 보았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는 현석에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다. 현석 역시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의 사과를 받는 척 하였다.

“그리고 현석이는 해은이한테 사과를 해야지.”

“미안해요. 해은이 누나.”

“해은이는 사과 받기 전에. 현석아, 이거 사진은 삭제하자?”

현석은 예서와 해은 그리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삭제했다.

도촬 사진은 초상권 침해 이외의 범죄를 낳았다. 바로 사용자가 생체인식 설정한 경우였는데, 최근 스마트폰 도난 사건이 증가한 이유와 같다고 본다.

범죄수법은 스마트폰에 묻어있는 사용자의 지문이나 기본화면에 띄워진 본인 혹은 부부, 애인, 친인척 등의 사진에서 추출한 안구데이터를 활용해 홍채데이터를 재생성하여 다양한 결제를 시도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손가락 모형제작, 카메라가 필요 이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인한 범죄였으며, 로그인에 편해진 만큼 범죄도 편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범죄자, 범죄예비자들에게 ‘생체인식,’ ‘유일성’이라는 힌트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쉬 값으로 치환가능하며, ‘관련된 정보를 모르는,’ ‘혼한 단어 조합’을 갖춘 쉬운 암호가 오히려 더 보안능률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맥 생체보안 역시 이와 같은 수법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수법으로는 지인이 선물 해주는 손목밴드, 시계 혹은 사무실 내 마우스 패드, 손목에 닿는 옷깃 등 손목에 접촉되는 제품이 주 범죄 표적이었다. 이런 손목 접촉제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정맥운동을 복제하는데 성공하여 범죄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체로그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한해서 기기를 상시 손수건이나 형광으로 화면을 닦아 자금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평시에 마스크나 선글라스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면허체계 사용자의 손목접촉제품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화 하는 것은 인터넷면허체계 내에선 중범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보안은 의수, 의족기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로봇은 오직 하나의 사용자에게만 프로그래밍 되어있을뿐더러 제품모형마저 해당 사용

자를 위해 디자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사용자에게만 주어지는 마
치 또 하나의 뼈 살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안하기 위해선 생
체보안기술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보는 견해가 있다.

현석은 해은을 슬쩍 보았다. 해은은 어쭙잖게 웃었다.

“전 괜찮아요. 사과 받아드릴게요.”

“좋다. 요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해은이만 남고 둘은 가도 돼.”

해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현석과 예서는 곧바로 교무실을 나갔
다. 그리고 현석은 교무실 밖에서 클라우드로 전송되어있던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다시 내
려 받아 파일을 원상복구 하였다.

선생님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다. 아침보다 꽤 내려온 상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하늘이 보였다. 선생님은 해은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자그마한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단상 옆 계단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잠시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옆에 조엘이 있
어 차마 해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요번 주에 공부한 게 조금 짝세긴 했지? 그런데 해은아, 어제 쪽지시험 점수는 영 썩 좋
지는 않더라.”

해은은 입맛을 다셨다. 선생님과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어려웠니?”

“네, 공부 해야죠.”

“선생님이 왜 해은이만 따로 빼서 불러낸 거 같니?”

해은의 머릿속에는 ‘예뻐서, 점수가 낮아서, 사이 좋게 지내라고.’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
다.

“아, 모르겠어요.”

“해은이 어머니께선 벨리가 없다고 했지?”

“네, 맞아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모임에 참여하시지는 않니?”

해은은 가만히 고민하다가 곧 은영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글쎄요, 교회 다니시는 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참, 현명하신 분이시구나. 해은아, 너도 이제 곧 어른이잖니. 해은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벨루 취업해야지.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랏일 말고
회사일 생각해보는 걸 추천한다. 힘들다는 건 아는데, 이제 이걸 이해할 때도 됐어. 이런
건 해은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야.”

해은은 가만히 듣다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벨리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그리고 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럼 수아랑 현석이
는요?”

선생님은 곧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조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말실수를 해버린 이상 그저 예리한 해은을 대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툭
망뚱망뚱한 계집애였다.

“해은아, 일단 제 몸부터 가누고 보자.”

선생님은 냉정하게 한 마디 내뱉고 해은이의 등을 다독이며 일어섰다. 해은은 방금 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하지만 해은이 질문을 하려 했
을 때에는 이미 선생님은 벌써 멀리 걸어가 버린 후였다. 해은은 비어버린 운동장을 보다가

잠시 생각에 빠졌다. 바람이 심해지는 것 같다. 해은은 몸을 일으켜 교실로 향했다.

텅 빈 교실인 줄만 알았지만 교실에는 수아 딱 한 명이 남아있었다. 해은은 수아의 책상 위에 자그마한 인형 두 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받았던 인형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우선, 성별이 달랐고 머리스타일과 생김새 부분이 조금씩 달랐다. 해은은 수아의 옆자리 정우의 의자를 빼서 수아 옆에 앉았다. 수아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인형을 보고 있었다.

“수아야, 괜찮아? 하교 안 하니?”

“전 괜찮아요. 하교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

해은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해은은 한눈에 보기에 지금 수아가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이 느껴졌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수아 앞에 앉아 책상 위에 자신의 노트를 펼쳐 수아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언니…….”

“언니, 시간 많아. 얘기 들어줄게. 괜찮아.”

수아는 자신의 인형에게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은을 보았다. 해은은 드디어 자신을 봐준 수아를 부드럽게 쳐다보았다. 눈을 한참동안 마주친 수아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저희 어머니는 낮에 쉬시고 밤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서 집을 비워드리려고요. …… 언니, 믿어도 되는 거죠? 언니한테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교실부터 나갈까? 잠시 산책 좀 하자. 여긴 너무 어둡잖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확인한 후 열려있던 앞문을 닫았고 혹시나 하여 뒷문도 확인을 하였다. 해은은 다시 수아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이젠 년 수를 안 따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벌써 창녀 일은 5년은 더 되어 가는데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셨다. 이유는 포르노를 찍는데 그 상대가 바로 ‘벨리’라는 것이었다. 해은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한 인간’이라는 컨셉으로 성인용 벨리와 관계를 통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포르노 제작이 해당 업계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수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임이나 여타 신체적 접촉 및 욕두문자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안전해 그나마 할 만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정신이 파멸되는 것, 자멸할 것만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보고 즐길 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일을 더 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가 없기에 딱히 떠올릴 수 있는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수아는 말하였다.

“언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 그런데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벨리가 다 들었잖아요.”

“……. 수아야. 언니랑 약속 하나 할래? 언니 성공하면 꼭 도와줄게.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수아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실은 수아가 먼저 성공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흠, 좋아, 내 벨리 이름은 ‘조엘’이야. 조금 촌스럽지?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울 거야. 조엘. 언제든 검색해서 연락해. 내가 수아라면 무조건 연락받아 줄 거야.”

“……. 제 벨리 이름은 ‘헤카테’예요.”

해은의 폰이 울렸다. 해은은 수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메시지를 읽었다.

‘해은 언니W 오늘 알지?W 날이야W 나와W 기다리고 있어’

예서였다. 아무래도 학교 밖에서 민애와 함께 해은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수아는 난감해하는 해은의 얼굴을 잠시 보았다.

‘수아랑 같이 있는데, 시간 좀W 어디 가서 뭐라도 먹고 있어’

‘개?W 수아라고 하니까W 쌍!W 알았어W 언니가 그런다면 그런 거지W 대신 정각에는 와’

‘어, 근데 더 늦게 갈 수는 있어W 아무거나 먹고 돼지나 되고 있으라고’

‘그래, 참 고맙네W 정말 고마워’

수아는 멀리서도 예서와 해은이 나눈 메시지를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인형으로 눈을 돌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서는 말이 참 거친 친구예요. 저번에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친구더라고요. 처음엔 연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날 후 계속 만났고 더 친해졌는데, 저는 예서와 벨리 이름까지 나눴어요. 민애 언니도 같이요.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잘 알거든요. 예서가 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따뜻한 친구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말이에요. …… 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언니, 가셔도 좋아요.”

“아니, 난 수아랑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 좀 봐줬으면 하고.”

해은은 자신의 태블릿을 수아에게 쏙 내밀었다. 수아는 태블릿과 해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해은의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지나간 추억에 따스함 위로,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졌다.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내겐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이거 뭐예요? 언니가 쓴 거예요? 완전 감성 폭발이네요.”

“이거 옛날 노래야. 그, 별빛이 내린데. 그 가사를 내 식으로 정리를 해본거지. 그런데 요즘은 미래, SF 노래를 찾아듣고 있어. 어느 한 게임에서 쓰인 ‘V’라는 노래야. 게임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버그가 너무 많아서 안 좋은 평을 받았어. 그런데 그 부서진 조각들 중에서 이 노래를 찾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려는 것과 딱 맞더라고. 노랫말은 없지만 장르를 바로 알 수 있었어. 바로 ‘SF, 호러, 서스펜스’야.”

“언니, 과거, 옛이야기 쓰는 거 아니었어요? 왜 미래예요? 갑자기.”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렇게 되네. 아마 이 글을 다 써도 난 제자리, 선(善)과 과거를 그리는 작가로 돌아갈 테지만 여기서 배운 악(惡)과 미래를 그리는 걸 조금 가져갈 것 같아.”

“그렇군요.”

“언니는 꿈이 있어. 바로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글을 써보는 거야.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에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글을 쓰는 거지. 뭐, 정말 이대로라면 힘들겠지만 찾아보니까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에 형상관리가 있더라고. 그런 거.”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현오빠 아니었어요? 아, 이젠……. 죄송해요.”

“괜찮아. 내 이상형이 목소리거든. 그런데 최근에 작은 칼럼을 보게 되었어. 제목이 ‘순례자’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글썄,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지. 뭐 대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 있지. 서두르지 않고 찾아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겠다 싶은 상황이야.”

“비슷한 생각이라고요? 설마 언니는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맞아. 아직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해. 하지만 언니는 가능할 것 같아. 사람이 실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행위 말이야.”

“여튼 이걸 이거고, 배우자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난 그래도 무리하긴 싫어. 억지로 배우자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잠깐만요. 언니가 말하는 무리가 뭐예요?”

“그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이성교제도 웬만하면 신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도 맞는 사람이라면 교제를 해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무신론자랑 교제를 하면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이거 잘 못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만큼이나 잘 안 될 것 같고 말이야.”

“언니는 어느 시대 사람이세요? 돈 모아서 스마트하우스에서 사세요. 그래서 ‘안방 나누기 서비스(Main Room Divide Service)’ 하면 되잖아요. 결혼해도 따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웅다웅 같이 사는 거 어느 시대 발상인데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살라 그래요. 언니 말마따나 코드 맞는 사람 찾다간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났는데, 그거 광차 대현 오빠 이야기죠? 대현 오빠 한 얘기 아니예요? 강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직 언니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해은은 잠시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보았다. 어쩌면 그런 사랑을 바라는 마음도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 수아는 가만히 책상을 내려 보았다. 책상 위에 있는 인형 두 개를 펜스레 부딪치며 소리를 내었다.

“그래, 수아야. 이거 잘 간직하고 있을게.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는 사람 찾을 거야.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나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난 좀 센 걸 좋아하거든. 누가 됐든 간에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언니는 각오가 됐나요?”

“……. 어? 무슨 소리야?”

“만약 언니 이상형이 목소리라고 했는데 정작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요?”

수아는 잠시 해은과 눈을 마주쳤다. 해은은 웃으며 눈을 돌려버렸다. 수아는 점점 풀려가는 해은의 눈을 보고 있다. 수아는 자신이 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해은에게 던져버린 것에 대해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수아 생각보다 해은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괜찮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되지. 말을 하든 못하든 어차피 여태 살아있으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일 텐데, 그냥 수화만 하는 정도면 되지.”

“언니, 목소리 이상형 아니죠? 제대로 말 해봐요. 딱 걸렸어요. 진짜 딱 언니 민감한 거 뭐예요?”

해은은 멧쩍은 웃음소리를 내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수아는 슬쩍 해은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해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후, 그만 해. 얘기할게.”

“거짓말 안 해야 이 손 치울 건데요.”

“그래, 미안해. …… 쾌락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너무 쾌락만 얻은 나머지 날 무력하게 기절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즐기는 만화나 애니, 그런 영상물에서는 괴물로 표현되더라고. 그럼 내 이상형은 아마, 사람 신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괴물 정도 되겠지.”

“…….”

“신체 구석구석을 만져대는 촉수, 사람을 채로 먹어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나 약품. 그런 거 좋아해. 고통보단 쾌락 속에서 소화가 된다고 해야 할까? 그저 쾌락만이 가득

한 자극. 단, 자극이 심해져서 신체가 훼손 또는 해체되거나 쾌락이 고통으로 치환되는 건 일절 금지야. 왜냐면, 신체가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거나 하면 이미 그쪽 세포는 죽어버려서 아마 자극을 더 못 받을 테니까. 해체됐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 해체되지 않은 선에서 최대의 자극을 누린다. 그 쾌락 한계치를 잘 알아야겠네요. 언니, 언니랑 얘기 좀 해도 돼요? 언니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어? 어…….”

벌써부터 기진맥진해버린 해은은 수아를 천천히 보았다. 수아는 해은의 피곤한 목소리와 어투를 감지하지 못한 채 먼 하늘을 보며 자신의 얘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언니, 레즈 아세요? 최근에는 난자와 난자끼리, 정자와 정자끼리 배아를 만들 수 있는지도 보고 있다고 하죠. 언니는 교회 다닌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동성애가 과학적으로 된다면 애초에 교리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성경에는 ‘죄니까 하지 마.’라고 돼있지 ‘할 수 없어.’라고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된다고 해도 여호와와의 말씀, 진리에는 타격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동성애는 예수님도 하셨어. 왜 있잖아 열 두 제자들. 다 남자고 예수님도 남잔데?”

수아는 해은을 결눈질로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건 ‘아가페(Agape)’적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이란 게 너무 범위가 큰 것도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성경이 대충 보니까 너무 대충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탁탁 이건 뭐다 저건 뭐다 해야 성질이 풀리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 해석 다르고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이게 뭐예요? 짜증나게 시리.”

“이건 언니가 실수했네. 수아 말이 맞아. 확실히 생각해보니 남색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동성 간 교류를 하지 말란 말은 못 들어봤어. 그리고 기독교가 그런 면이 있긴 해.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딱히 과학적인 이유는 없어. 애초에 성경이 과학서적은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그 ‘간음’에서부터 수많은 죄가 파생된다고 보고 있거든. 그런 죄들은 악마들이 꾸미는 것이기에 형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 설명 불가. 그래서 아예 그 모든 죄들의 시작점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왜? 이 언니가 다른 사람 사귀는 것도 고려해주는 거야?”

“언니 보단 언니 아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그 아이가 살 사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난자와 난자, 정자와 정자를 결합시키겠다는 것은 유전자조작이죠. 다른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고는 하나 무슨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결국 기술의 발달로 얻는 자유가 되는 거잖아?”

“인간 계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인간계보 외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유전자기술로 인한 유전자후폭풍이 염려된다는 거죠. 인간 몸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유전자에 인공적인 조작을 하게 된다면 질병, 바이러스가 그 조작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류 측에서는 이전 날과 차원이 다른 질병이 탄생하겠죠. 소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다수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소수자 말 더 들어주다가는 지금 맨날 불어오는 미세먼지 폭풍처럼 님은꼴로 일이 터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잘은 모르지만 연관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본 거예요.”

“우리 수아가 잠깐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게 수아 자체가 다수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어, 다수의 입장을 규합해서 정리해서 이것 저것 고려를 해봐야한다는 거잖아? 즉, 중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수아 역시 다수든 소수든

입장을 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중재자는 우리가 따로 이전에 선출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고? 또 수아는 조작된 인간계보에서 비롯된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고 있지? 이걸 그런데 동성세포 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조작도 해당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한 유전자 조작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도, ‘너의 아버지는 사실 그냥 전자결혼으로 인한 서류상에 아버지야.’라고 하면 부모는 쉽게 받아드려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칙연산 배우는 시기에 인수분해 가르치는 꼴이 될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줘도 잘 클까 말까한 아이한테 이러한 걸 이해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진짜 FM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타인에게 정자와 난자를 양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어야겠죠. 진정 아이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한다면 정자와 난자의 주인이 직접 아이를 보살피는 게 맞는 그림이니까. 유전학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배 밖으로 나온 아이가 DNA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누굴 닮겠어요? 어떤 걸 더 선호하겠어요. 이런 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흠, 나 같은 경우는 남의 집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게 맞지만 내 아이와 함께 학교에 다닌다 치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FM, 수아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게 뭔데?”

“뭐긴 뭐예요. 성교육시간에 배우잖아요. XX, XY. 이 둘 빼고 정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말했잖아요. WY, XYZ 이런 유전자 개발하면 거기에 자연이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인간이긴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남녀가 눈 맞고 섹스해서 애 낳는 게 정상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동성애든 입양이든 뭐든 간에 인공자궁이나 시험관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아형성시기인 뿌리를 찾는 단계에서 부모를 잃은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따위를 필연적으로 겪을 게 예측된다는 것.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낭비라는 거죠.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돈으로 주고 받는 성숙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낳아진 아이들, 그냥 싸질러서 내놓은 아이들, 성인들만의 이해관계에 실패해서 이별 아래 남겨지는 아이들. 차라리 안 낳았으면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걸 애를 낳았으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생명존중까지 무시하는 행위에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유전자를 조작까지 하니 진짜 후대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건 아이에게, 후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에 진심 어린 도박을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것 역시 성인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요. 아! 물론, 기술 발전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흠, 블랙홀을 예로 들게요. 그냥 자기장 겁나 강력하게 걸고 거기에 입자 다 들이부르면 언젠가는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마냥 과시하면 되는 일일까요? 강력한 기술일수록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후대에 물려줄 지구, 태양계조차 없을 것 같은데요? 총 정리하자면, 그 어떤 커플이든 연애하는 거, 성적 취향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만의 변태적인 거 잘 간직해라, 사회에 들고 나오지 말고. 그 성인용품점 보니까 별의 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애하는 게 대수냐는 거고. 저는 왜 사서 고생이냐는 거죠. 심지어 웬만한 기업 보면 사내연애도 금지라고요. 그리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애초에 안 궁금해요. 자신이 유명인사도 아닌데 뭘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냐는 거고. 유명인사면 워낙 보는 눈이 많아서 들킬 수도 있긴 하니까 봐주는 거고. 하지만 이런저런 스캔들 그것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애 가질 생각 있으면 조용히 결혼해라. 무슨 결혼이 호들갑 떨 일이나. 여기서 결혼은 가정을 꾸리는 최소단위의 완성. 이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식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결혼이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긴 하다. 만약 결혼 개념 안에 자식 잘 키우는 게 없으면 네, 결혼하는 목적에 자식농사가 없으면 저는 결혼 말고 다른 공식적인 거 만들어서 그거 할래요. 자식농

사 FM으로다가. 물론, 불임 판정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개별적인 성정체성으로 경쟁에 참여할 거면 과학적으로 따져라. 과학적으로 물려받은 성 확실히 따져서 경쟁을 해라. 아니, 선수들이 이해관계에서 전부 다른 방향을 가지는 데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정말 자신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싶다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치타랑 경쟁하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동물’범주 안에 들어가고 생명존중 받아야하는 건 똑같잖아요? 치타랑 달리기하고 코끼리랑 씨름하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런 생각 하는 건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전문가들 생각은 또 다른 거고요. 제가 말이 길었죠? 그런데 언니……. 어느 정도 자료 조사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 수아가 쪽 말하는 걸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나올 것 같긴 하다. 정리하자면 ‘생물윤리에 위배되거나 가정 형성의 실패로 별거 중인 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자들’에 한해서 ‘중간결혼(Middle Marriage)’ 같은 제도를 하나 새로 만들면 어떨까? 이러면 기존에 생명윤리를 지키면서 가정 형성을 하고 싶은 이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 중간상황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쨌든 수아가 말한 정상적인 생명윤리가 무시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웬만하면 기존 교리를 중시하는 종교와의 마찰도 줄이고 싶은 거고. 즉, 그 상황에서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중간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도 싶네. 예를 들면 ‘N번째 버려지는 아이’가 생기는 거야. 입양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건 입양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는지 횟수를 제한하면 될 것 같긴 해. 강간과 같은 사건은 사실 예전부터 있어서 이런 입양은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나마 입양을 줄이는 방법이 성교육 시간에 ‘생명탄생과 성욕구와는 격차가 크다. 피임 실수도 책임이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려줘야겠지. 그리고 내 생각으로 피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 하는 거야. 또 수아가 언급한 전자결혼을 보자면 전자결혼식(Electric Wedding)으로 탈바꿈 하고 땡. 왜 신랑과 신부가 사정이 있거나, 혹은 식당에 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야. 혹은 아예 그냥 넷 상에서 진행하고 싶던가. 그러면 그냥 인프라넷에서 식을 진행하는 거지. 그리고 유전자 조작도 역시 사업체 내에서만 즉, 인간사회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생명윤리가 더 견고해진다고 봐.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하는데 쓰이는 인공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샘플세포조직을 제작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동물의 생명이 아니잖아? 단, 기술은 발전해도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는 동의해. 실은 이 언니가 소수자 아니, 극소수자의 삶을 그리려고 하거든. 아까 말했듯이 언니는 좀 센 거 좋아한 댔잖아? 난 수간, 강간, 진정한 제 3의 성(性)인 벨리공학, 시체강간, 유전자 실패작, 괴생명체, 초전력컴퓨터 등 인간 욕구에 대해 브레이크를 완전히 없애버린 사회, 질서가 하나도 없는 사회를 그려보려고 해. 가끔 그런 신체가, 사회가, 국가가 해체되고 하는 걸 보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야.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런 형상을 그냥 예술까지의 영역 내에서 승화시켜낸 것뿐이잖아?”

“이건 그저 저만의 생각인데 어쩌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 모든 형상에 책임을 져야할 거야. 흠, 이건 또 나만의 생각인데 어쩌면 인간의 욕구와 자유의지가 구분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 원제작자는 정말 마음에 안 들겠지만 어차피 못 막아.”

“기술 발전으로 형상을 제작하는데 간편해졌다. 즉, 따라 그리기도 쉬워졌다는 거죠. 어차피 합법이든 불법이든 똑같은 툴을 쓰겠고요. 하지만 언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에요. 지금 벨넷은 오염됐어요. 그러니 저 밑은 아주……. 굳이 보질 않아도 알 수 있죠. 다 깨끗하게 해야 하죠.”

“물이 너무 맑으면 탈이 난다고 알고 있어. 난 자료들이 전부 미네랄 같은 영양소로 보여.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필터링이 필요하겠지.”

“항목을 더 세분화시켜 정렬과정을 거치자는 거군요.”

“하지만 그런 대량의 자료들이 더 많은 경우의 수로 얽여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콘텐츠, 저 콘텐츠를 엮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는 시스템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의 세계관,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얹게끔 말이지. 왜냐면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런 정리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나 자체가 내가 뭘 쓰고 있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다듬는 작업에서는 어디에서 영감이나 도움을 얻었는지, 혹은 내가 영감을 얻기 전에 발상을 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

“하지만 왜 요즘은 ‘내가 만든 것이 없다.’고 하죠. 분명 내가 떠올린 발상도 어디선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건 내가 되는 거잖아? 게다가 힘 좀 주면서 논리적인 설명까지 덧붙여서까지. 그것에 의의를 두겠다는 거고. 수아야, 네 말도 맞아. 발상, 결과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 과정도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 이것도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고. 즉, 이 언니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럴 바에 어떻게 이것을 제작했는지 그 연구과정이 묻어있는 체크리스트 따위가 공개되면 팬창을 것 같다는 말이야. 결과는 뭐 앞에 놓여있으니까.”

“흠, 마치 집단지성과 마찬가지로 개념이네요. 맞아요. 처음엔 낯설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구분 짓고 시스템을 구축할수록 더 안전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선 그 리스트마저도 왜곡이 있을 거예요. 오염시킨다는 말이죠. 딱 봐도 누가 뭘 잘못했는지 다 보이는데. 으휴, 이건 뭐 어찌겠어요. 지금처럼 그러려니 해야죠. 그리고 언니가 하려는 그 시스템 구축이 글썽요……. 저라면 아마 예전 방식이나 주위에 있는 시스템을 찾아볼 것 같아요. 하여간 이놈의 무분별한 기술발전 때문에 엄청난 작업량인 시스템 구축씩이나 해야 하다니. 저는 그놈의 기술 때문에 지구만 말아먹지 않길 바랄뿐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이, 정치가 사회에서 터지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느려요. 일 터지고, 늘 데이터 분석이 되어야 논문을 쓰고 연구를 진행하니까. 아! 물론 언니가 쓰는 문학 보다는 빠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과학이 인류가 다루는 도구 중 그나마 빠른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느릴 뿐이고요. 해유. 기술자들 참 답답하긴 할 거예요. 원래 황새가 뱀새 따라가려면 답답한 법이거든요. 그래도 뭐, 이전 조상님들 이 물려주는 유전자부터 해서 기술, 정치 체계들이 무조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받는 입장에선 일단 그냥 쳐 먹어야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진짜 굶어죽는데요? 그 속에서 다른, 더 새롭고 완벽하게 보완된 잠재성을 찾는 건 후손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잠재성이라. 흠, 무한세포의 잠재성은……. 아! 아마 별주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인간이 몇 백 년 씩 살면 왜 그 있잖아. 외국에 성범죄 일으켜서 몇 백 년 수감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젊음을 부여하고 인간 발전기라도 되라 이거지. 수감생활시설 전기라도 지네들이 직접 쓸 수 있게 말이야.”

“언니 말대로라면……. 아니면 아예 지구 밖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한 건 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거니까. 내보내면 되죠.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예 사막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래요. 어차피 몇 백 년 동안 젊은 채로 살아갈 텐데. 뭐, 이건 제 생각이구요. 그런데 언니 얘기하는 건 완전 SF 아닌가요? 언니, 로맨스 작가잖아요? 드디어 미쳤어요?”

“아니, 다음 주제가 ‘욕구(Greed)’거든. 미리 예습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런 민감한 주제는 다루기 싫어. 그건 확실해. 그럼에도 다루는 이유는 이런 걸 다루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빠삭하게 해야만 다음 이야기, 내가 진짜 원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난 지금 이러한 여정을 떠나는 중이고, 현재까지는 욕구가 마지막 종착지인 셈이야. 그리고 현재 언니는 이성인 우리, 인성은 남, 욕구는 나를 받아드리는 걸로 보고 있거든. 지금 쓰는 이야기는 인성, 공감에 관한 이야기야. 서비스, 서비스는 남을 이해하는 거지. 여기서 ‘남’이란 길거리나 채팅창, 댓글창과 같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우리는 감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는 거니 남과 비교해볼 때 더 넓은 영역인 거고. 끝으로 욕구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어, 내가 아무리 진정 원하는 사항이더라도 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게 가공이 되어야한다는 거지. 왜 복어요리 있잖아? 독기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상에 올릴 수가 없듯이 말이야. 그런 독에 관련된 공부가 싫으면 그냥 다른 이들이 쓰는 요리재료들을 쓰는 거지. 이러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남이 원하는 욕구도 그만큼 있을 거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아니까.”

“아, 언니는 언니의 계획이 있는 거군요. 무언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말고. 이걸 심지어 이런 생각을 인간 공학, 인간 문명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이니까 생존, 기본. 2차 산업은 공업이니까 기술, 이성.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니까 공감, 인성. 이런 식이면 내 생각엔 6차 산업까지는 예측되는데? 4차는 문화, 욕구. 5차는 의식, 시간. 6차는 공간, 우주. 물론 각각에 맞는 공학 수준이 있을 거고. 뭐,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5차부터는 아득해지는데요? 아니면? 오히려 빠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언니 생각이니까요. 틀릴 수도 있죠.”

“뭐 또 틀리겠지. 상관없어.”

“그럼 다 좋은데 7차는요? 계속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글쎄, 내 생각에는 7차는 따로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쯤 되면…… 그때의 공학과 문명, 사회지적수준이면 그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노는 사람들일걸? 온 우주를 누비면서 말이지. 그리고 우리 책 같은 거 읽잖아? 그런 예술품들이 전부 작은 우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리고 수아 말처럼 4차 5차 6차가 한 번에 뚝릴 수도 있기도 하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흥미롭네요. 언니 말대로라면 다중우주를 사람이 직접 만드는 셈이네요. 잠깐, 그럼 로봇은요? 자동화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 로봇은 내가 보기엔 딱 표준화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적재적소에만 쓰일 것 같아. 예전처럼 말이야. 그리고 평균적인 형태로. 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현재 바퀴 네 개 달리고 세단, 쿠페, 승합차 따위로 정형화 됐잖아? ‘그런데 왜 자동차가 다른 형태면 안 되는 거야? 바퀴가 하나 달려있어도 되잖아. 아니면 999개. 레이싱게임 같은 거 보면 막 바퀴가 한글로 되어있고 그렇거든. 심지어 눈사람이 시속 300km로 달리기도 해. 그럼 왜 하필 현실에선 많은 차들이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을까?’ 응, 이런 게 바로 욕구지. 즉,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을 테니 그것을 받쳐줄 표준화된 로봇이 탄생할 것 같아.”

“인간이 가진 환상에서 현실로 넘어가려면 수많은 승부를 보아야한다. 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욕구를 디테일하게 전부 자동화시키려다가는 우주의 자원을 다 써도 모자라겠다는 말로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뒷감당도 심각할 거고. 그나저나 7차 산

업 생각해보니 어쨌든, 성경에 7번째 날이겠네요. 인간, 생명, 별, 식물, 하늘, 천지. 각각의 시대에 맞게 사람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순으로 관심을 가지겠네요. 인간은 역순으로 가다가 결국 끝에서는 7차에서 모두 ‘쉼’에서 만나는 것으로.”

“오호. 그런데 언니는 조금 궁금하네? 수아가 찾은 산업 발달과 천지창조의 순서가 가진 연관 지점을 잘 모르겠어.”

“인간은 생존을 뜻하죠. 왜? 그 기독교에서 아담과 이브를 첫 번째 인류라고 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사막에서 방황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둘의 모습은 전혀 탐스럽지 않다는 거죠. 파가운 햇살에 너무 오래 노출돼 온갖 암 덩어리를 가진 건 둘째 치고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회색빛으로 물든 살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짓거리가 섹스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식을 낳아도 될까?’ 이 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섹스를 한 거라고요. 맞아요. 이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저 둘보다 일찍 태어났어야 해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 생명. 생명과 무생물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겠죠. 셋째는 별. 해와 달,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여러 별들의 상관관계. 공감이죠. 식물. 루트를 찾는 과정. 나의 진짜 뿌리, 자의식을 찾는 과정이겠죠? 하늘. 이거 두 개로 나누었다는데 글썽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진 않았을까요?”

“잠깐! 죽은 자를 위한 곳이 따로 있다는 거니? 그곳이 지옥이고?”

“지옥의 형태가 저는 오히려 엄청 차가운 곳일 수도 있다고 봐요. 대신 그 속에 잠겨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뜨거워 미쳐버릴 것 같은 곳. 강을 건넌 거죠? 무한한 시간이 존재하는 곳. 상대적 의식을 다루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 공간 창조.”

“수아야, 마지막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빛과 어둠인 걸로 아는데? 그리고 현재 IT기술의 중심에는 빛과 어둠, 0과 1일 텐데? 공간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 같아서. 내가 얘기를 꺼낸 거긴 한데 이런 건 틀린 부분 같네. 뭐 아니면 전체 다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럼 이왕 여기까지 말 나온 김에 아예 새볼까?”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언니가 시작하고 언니가 틀렸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고마워. 이 빛과 어둠을 굳이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0과 1,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이라는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결과? 도달하게 된 결과? 왜 여태 인류가 급속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쓰러진다는 건 단순히 사건 사고, 작정하고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지? 그런 강력한 기술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쓰는 거야. 뭐 좋아. 사실 이런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건 순전히 언니 생각이야. 우리 수아만 알아줘. 그냥 넘어가도 돼.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짜 언니 생각이긴 해요. 만약 이 시대, 서비스시대에 언니가 언급한 기술 말고 다른 자연현상이나 기술이 개발되면 어떻게 설명하게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 성경은 계속 맞았다고 할 건데? 내가 틀렸다고 해야지. 내가 아무래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말 맞출 거야. 난 그러면서 사는 게 재밌더라고. 그나저나 다시 돌아가자. 흠……. 잠깐, 혹시 이 언니가 수아의 성적 지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 여기 우리 둘뿐이잖아. 언니는 봤듯이 괴물 좋아해.”

“저는 3인 플레이. 일처다부제죠.”

“……. 언니가 또 일처다부, 일부다처에 대한 공부를 해봤거든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언니가 핵심을 말했잖아요. 여기 우리 둘 뿐이라고.”

“그래. 우선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왕 같은 경우도 보면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 왕위 세습이라고. 분명 일부다처를 원했던 왕이 있었겠지만 아마, 싫어했을 왕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 10명만 넘어가도 정력이 꽤 딸릴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는 생명존중이 과거에 더 좋았다고 보고 있어. 성관계하는 목적이 너무 뚜렷했으니까. 그리고 낳았으면 어찌됐건 길러냈으니까. 자식을 다수 낳아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지. 현대는 그런 인식이 퇴색해 가고 있고. 하지만 현대에도 성욕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그럼, 아예 IT 기술로 ‘색변기(Spectrum Toilet, 色便器)’를 만들면 어떨까? 왜 가상…… 아니, 전자인간으로 전문배우 섭외해서 안전하게 포르노 그래픽을 찍어낸 다음 물리적인 장비들을 총 동원해서 성 욕구를 해소하는 거지.”

“전자인간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인지부조화. ‘이건 전자인간이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해야 할 거예요. 아니면 타인 그리고 본인에게 똑같은 범죄 따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무슨 도구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거기엔 응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것이 곧 상식이 되어야하고. 하지만 전자인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매력적이어서 그래. 얼굴이 현실보다 훨씬 예쁘고 어……. 그곳도 예쁘고.”

“……. 설마 생식기 말하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얼굴만 다르겠니? 언니는 생식기도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서 예쁜 게 있고 못생긴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에 설명을 좀 하자면, 식욕은 저장고나 단단한 용기가 개발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고 또 상·하수도가 깔리니 비로소 배변욕이 처리될 변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해결됐다는 건 다수가 해당 욕구를 사적인 공간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시대 IT 기술, 인프라넷이라는 게 깔리니 비로소 성욕이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색변기 역시 사람의 배변기관과 거의 같거나 동일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화장실을 계승하면 어떨까? 일단 기구 같은 건 부스 안 옆에 두는 거야. 그리고 성욕을 처리하고 싶으면 남자는 우선 변기에 앉고 기구를 성기에 꽂은 다음에 이어진 호스를 엉덩이 쪽으로 보내 장착한 다음 일 시작. 여자는 변기 위에 기구를 장착한 다음 그 위에 앉아 적절히 삽입한 후 일 시작. 이런 도구의 목적 자체가 변기 위에서 다 내려 보내라는 거지. 칸막이도 다 쳐줄 테니까. 그리고 시설 좋은 화장실이면 옆에 적절한 영상기기들까지도 준비해주고. 그 영상기기 활용은 개인 스스로 좀 전에 말한 안전하게 생산된 성인컨텐츠들을 인프라넷에서 알아서 찾아내 보면 되는 거고. 뒤처리는 살에 튼 분비물들 따위는 휴지로 닦고 메인 분비물은 이미 변기에 담겨있으니 그냥 그대로 물을 내려버리면 끝. 즉, 자그마한 부스에서 이제 성욕도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성욕해소 도구들은 성기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니 사용 후 알아서 세척 및 소독이 돼야 하는 것도 있겠고.”

“언니가 말한 시체강간이니 뭐 괴물에 먹히니 마네 하는 꽤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컨텐츠 개발자가 힘을 써야하는 부분이겠네요. 어찌면 더 음지에 숨지 말고 제대로 몇몇하게 이름과 아이디 까고 컨텐츠 제작활동 하라는 거죠. 단, 너무 자극적이니 간판 제대로 달고. 여기서 간판이라는 건, 장르와 자극수치를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야 말 그대로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표준화된 기계가 탄생하는 거지. 즉, 이제야 성 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주 안전하게. 단, 여기서 전제조건이 색변기 사용자가 성욕과 생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 난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지능(Intelligence)라고 보고 있거든. 즉, 우선 대분류로 성욕과 현실을 구분한

다음에 성욕에 해당되는 부분에 쪽쪽 더 분류를 진행한다는 거지. 이 분류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계도 존재해야 한다는 거고.”

“흠, 지능과 욕구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직 두 차이를 모르겠어요.”

“각도기를 생각해봐. 1도, 달라져도 나중에 격차가 엄청 커진다는 거야. 여기서 99도의 공통점을 알아내고 마지막으로 그 1도의 차이점을 잡아내는 능력을 바로 ‘현상이나 물질을 이해했다(Understand), 안다(Know)’라는 거지. 즉, 지능은 아는 능력(Understand Ability, 知能)이 되는 거고, 이성(Reason, 理性)을 만들고 끝으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자체만으로 혁신(Innovation, 革新)이란 게 탄생하는 거야. 차이점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는 거지. 맞아. 그 1도의 차이점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이롭게 해보겠다하면 과학자나 기업인이 되는 거야. 이 활용하는 능력을 바로 공감 능력(Sympathy Ability, 共感)에 해당돼. 이 공감 능력은 인성(Personality, 人性)을 만들고 끝으로 품격(Dignity, 品格)을 만들지. 공감이란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사회에서 언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꼭 집어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봐봐. 여기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 이미 있던 기술이었어.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활용하기 쉽게 디자인 되었다는 거야. 즉, 스마트폰은 혁신을 가진 제품뿐 아니라 품격적인 제품이 되는 거지. 여기서 더 초점을 맞추는 쪽은 품격인 거고. 혁신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끝으로 그 다른 각도와, 활용방안을 토대로 나아가는 힘. 더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시 제자리,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관성을 제어하는 능력. 욕구 능력(Greed Ability)이야. 욕구는 인간의 창의(Creative, 創意)를 지칭해. 스마트폰을 쭉 예로 들면, 어 비어있는 바탕화면에 이런저런 앱을 까는 건 순전히 사용자의 욕구로 자리가 채워지는 거야. 제작자의 품격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앱을 채워 넣기 시작하니 비로소 폰이 진정으로 활용가치가 극대화가 되는 스마트폰으로 재탄생 되는 거지.”

“정리하자면, 1도를 구분 짓는 능력은 이성, 그 차이점을 활용하는 능력은 인성, 그걸 꾸준히 나아가는 데에는 욕구가 필요하다. 근데 언니가 말했듯이 1 있잖아요. 그거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언니가 들고 있는 태블릿도 인간 구성 물질과 동일하다면요? 그럼 태블릿도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잠재성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다를까? 단백질 덩어리에 심지어 자란다는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상대적인 게 있지 않아?”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죠.”

“바로 그거야. 태블릿이 뭐 8천년, 몇 만 년의 세월이 지나 이러저런 풍파를 겪고 인간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 뭐야? 그걸 누가 기다려 주냐는 거지.”

“그 정도 세월이면 냉동인간이라도 돼야할 거예요.”

“아니. 부족해. 냉동인간이면 그 냉동고를 그 세월 동안 유지를 해야 할 텐데, 그거 다 돈으로 돌리는 거다? 즉, 이거야. 그 때까지 냉동고가 돌아간다면 이미 인류문명은 그 몇 만 년 동안 발전이 없는 상황인 거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명의 변화로 인해 냉동고가 구식기술이 된 경우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냉동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겠다는 거잖아? 그건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 식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거나 시간 상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여러 문자나 정치, 과학으로 계승시켜 살아남는 것이 인간이네요. 무생물과 생물의 구성 물질은 같지만 무생물이 생물이 될 때까지 못 기다려주니까 그냥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를 인간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인간

은 순간적인 거고 인격을 부여하는 것도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도 확실히 측정해야지. 호랑이나 사자가 책을 읽는다 해도 사람이랑 책 읽는 게 같겠니? 아마 많은 호랑이나 사자에게 책을 가져다주면 찢어버리고 먹기도 할 거야. 그리고 끝으로 1도 아니 0.01%가 달라져도 차이나는 게 사람이거든? 음주운전을 봐. 혈중 알코올농도 0.01%만 되도 사람이 변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0.03%는 어, 이거 소주 한 잔 마신 거거든? 그 조금의 차이가 음주운전이란 걸 만들어낸다고. 1%. 그걸 반드시 분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근본적인 원리인 내가 어디에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공포를 느끼는지, 매력을 느끼는지 나의 누적된 데이터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 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관성을 형성해서 변화하려고 용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굳게 마음먹어도 결국 다시 되돌아온다고 봐.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이 모든 것에 원인, 나의 트라우마, 빅데이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또한 꽤 근시일 내에 겪은, 아직 데이터화가 되지 못한 정보를 토대로 실시간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나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야. 즉, 과정과 결과 둘 다 나를 형성하는 것이다. 언제나 균형은 필요한 부분이지. 마치 CPU와 메모리의 관계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무리 연산만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작은 변수들이 존재하거든. 심지어 코드 그 자체도 이미 메모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야. 이걸 코드 영역이라고 하지. 즉, 그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작은 원인들이 있다. 그런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아예 스스로 그 관성에서 벗어나든가. 누군가 말했잖아? 삶은 공학이 아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옳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말은 무슨 문제가 느껴지면 뭐라도 하라는 말이야.”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예휴, 그래요. 언니 말을 총정리하자면, 너무 오랜 기간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절대적인 걸로 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다. 알코올도 구성 원리를 보면 인간과 별 차이점은 없다. 알코올 자체에서 인간으로 되려면 영겁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과정 하나만으로 실시간으로 꽤 많이 변화한다. 즉, 음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에 대한, 음주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것에 심판이나 정의, 욕구해소를 부여한다면 우선적인 음주를 한 것과 안 한 것에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필요하고요. 이런 식이죠? 이걸 다시 성욕과 이어보면, 인간적인, 사회적인 성욕과 과학적인, 자연적인 성욕을 구분하는 대분류가 필요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성욕에 대해 따로 지칭하는 단어를 생성하든가, 교리에 따른 심판, 혹은 욕구해소를 위한 장르별 도구와 장소를 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음주운전과 같은 이유, 인간적인 욕구, 인간의 환상, 자유를 해소하기엔 자연계, 현실 쪽에서의 후폭풍이 꽤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럼 색변기가 중요하겠네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파악했어요. 흠, 아까 언니가 성인컨텐츠라고 했는데 이상하거든요. 성욕이라면 성기 발달이 된 후부터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엔 성컨텐츠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말한 성지능자로 양육이 완성되면 아이도 유아 컨텐츠 볼 수 있게 꾸미고. 대신 그 유아 컨텐츠 생산은 자본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 유아로 적절히 가공되는 식이겠죠. 아이들은,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해야 하니까요. 이걸 사실 조금 후에 더 얘기하고 싶긴 하네요. 아이들은 어릴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자유까지 희생해 가면서 ‘생존’이란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입장 이거든요. 생존이요. 필수 교과과정. 사람이 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만약 사칙연산까지 모르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칙연산을 모를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필수 지식은 아예 자유가 아닌 생존으로 취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튼! 아이들은 또 성

컨텐츠에 너무 빠질 수 있으니 부모나 보호자가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이 색변기에 대한 이해와 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겠죠. 너의 성기는 소중한 다. 그리고 남의 성기도 중요하다. 한 번씩 화가 나는데 그때마다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정신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아이 몸 생각부터 해야 하니 산부인과부터 데려가야겠네? 그런 후에 정신과에 가서 부모랑 아이랑 어떻게 몸을, 성기를 그리고 마음가짐을 챙겨야하는지 정신적인 처방을 받아야하는 거고. 대충 성컨텐츠를 즐기는 요일이나 주 별, 달 별 횟수를 정하는 것도 낫겠다.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정작이 돼서 적당한 횟수에 대해 소문이 나든가 국민규칙, 국룰 같은 게 되면 좋겠네.”

“그리고 공공화장실이 이젠 방음처리까지 잘 되어야겠네요. 그런 일 처리할 때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그나저나 이젠 몸을 파는 사람도 정식으로 양지에서 떳떳하게 내놓고 돈을 벌 수 있겠네요. 왜? 그 가상인간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아마, 대충 색변기 서비스로 불리겠죠. 어, 그리고 색변기를 출현시킨, 생각한 언니를 요약하자면 단독으로 있는 정자나 난자를 변(便)으로까지 보는 군요. 인간 성세포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쓸데가 없긴 하겠죠. 그리고 변기에 버려지면 확실하게 성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죽여 버리고요. 정리하자면 인간의 공격적인 욕구를 받아주는 이러저러한 용기들. 예를 들면 청자, 백자에 변기에 이젠 색변기에 가상인간까지 예술품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 그리고 실은 그 대기업에서 만든 아주 매력적인 가상…… 인간이란 것을 더 깊숙이 찾아보니까 이미 저 음지에서 그러니까…… 성인 사이트에서 대활약 중이더라고. 이런 거 방치하면 계속 비슷한 이슈가 발생된다는 거지. 아예 이렇게 되면 어, 그냥 새로운 성욕 해소 기구를 탄생시키자는 거고. 괜한 시답지 않은 성인들이다 뭐다 하지 말고 아예 제대로 된, 표준화된 도구인 색변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글을 쓰다 보니 이런 걸 찾게 돼.”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럼 언니가 여태 말한 중간결혼 따위도 필요 없겠네요. 사실 동성애나 이런 것도 정식 루트가 아닌 그저 자신들만의 성적 판타지니까요. 그거 하나 열리면 일부다처든 일처다부든 다부다처든 싹 다 열어야 해요. 왜 이런 성적 판타지는 안 되냐는 식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는 대체 무슨 수로 아이를 가질 것이며, N부N처는 성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버려지는 아이가 꽤 생길 거예요. 아니면 셋이 하나를 겨우 기르는 사회가 되든가요. 이런 성적판타지가 사회적으로 하나씩 인정된다는 건 사실, 생명존중수준이 개인의 욕구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동성애는 거의 열이면 열 유전자 조작이나 입양을 생각할 거고, N부N처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아를 낳겠죠. 혹은 이를 역이용하고 다인사기결혼을 생각하든가. 이런 비슷한 것들이 팽배해지고 생명존중이 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는 뒷전이고 결국 진짜 셋이 돼야 하나 겨우 기르는 사회가 되겠죠? 왜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가치를 없앨 거 아니예요. 그러면 결국 기술보다 못한 삶이 완성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따르고 있을 텐데 문제가 커지죠. 왜? 과학과 기술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살짝만 틀어져도 너무 위험한 상황. 이게 사람 느낌으로도 대충 느껴진다는 거죠. 더해서 ‘과학이 우리 망한데.’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 자체는 아무 말도 안하는데 말이죠. 같은 논리로 ‘사람을 위한 기술이 아닌 기술을 위한 삶’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과학이든 기술이든 조금만 다르게 써도 안 망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과학은 한 번 좋게 쓰기 시작하면 계속 좋게 좋게 쓰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생명존중이 보니까 종교

쪽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불교요. 거기 아예 생명소비, 그러니까 고기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생명생산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들어가면서 꽤 심각할 것 같아요. 만약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수준을 내리고 싶다면 다른 종교 말고 불교 쪽을 공략해야겠죠? 왜 이걸 언니랑 제가 얘기하고 앉아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언니, 기독교라 맙쇼.”

“흠……. 아마, 그 불교가 윤회를 믿고 있지? 아마도? 그 윤회가…… 착한 짓을 하면 착하게 나쁜 짓을 하면 나쁘게 태어나는 걸 믿는 것 맞나?”

“이런 것부터가 문제라고 봐요. 생명윤리. 그거 그냥 스님이 과학자 돼서 활약하면 될 텐데요. 사회참여는 하고 있겠죠? 명색에 우리나라 대표종교인데? 혼자 분위기만 잡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아, 이미 조용히 활약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요새 인공육개발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연구실 같은데 말고 절(Buddhist Temple, 寺刹)에서 만드는 게 진짜 확실할 것 같거든요. 스님은 고기를 못.먹.으.니.까. 그리고 정말 활약 중이라면 못 봐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면 진짜 욕심이 없는 거고. 그 해탈의 경지도 무시 못 하죠. 그런데 기독교 보세요. 저렇게 깨져가면서 사회에 공헌하려고 난리잖아요. 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글쎄? 언니는 생각이 조금 달라. 과연 스님이 인공육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고기 맛을 잊어버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어봤으니 오히려 개발해도 맛이 없을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불교 분들 사회에 이미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어. 단지 여기 있는 우리 둘에게 불교에 있는 친구가 없을 뿐이지. 거기다 내가 알기론 스님 분들께선 벌써 몇몇 가공 식품은 육류를 제거한 제품을 드신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생명존중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가.”

“……. 아, 됐어요. 남의 집 상 차리는 거까지 신경 쓰기 싫어요. 그나저나 색변기에 눈 먼 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욕을 해소할 때 보는 가상인간이 훨씬 이쁘고 매력적일 텐데요? 색변기와 같이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글쎄? 이렇게 되면 색변기와 같은 도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어느 정도 말했듯이 이제 정신병자로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이런 도구까지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더더욱 병자들이겠지. 또 오해를 할까 봐 그러는데 여기서 정신병자란 성적판타지를 생각하고 지향하는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구에서 못 헤어 나오는 이들이 정신병자라는 거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성기는 그렇다 치고 특히 여자 가슴, 그거 다 판타지잖아? 아이도 없는 여자 가슴에 뭐가 있겠니? 그냥 살덩이지. 거기에 ‘꼭 만져봐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슴이란 환상에 빠진 거라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이성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판타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 뿐 아니라 우리 수아도 그런 것 같고. 아니, 어쨌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판타지를 가지고 있겠지. 다만 너무 변태적이고 서로 맞는 판타지를 지향하는 사람 수도 소수다 보니 말을 못할 뿐이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즉, 정리해서 말하면 정 못 참겠어서 누군가의 이상형을 보고 오르가즘 느끼고 싶으면 이제 화장실에서 처리하라는 거야. 왜? 쓸데없이 애가 태어나니까. 쓸데없이 비효율적인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필 언니 가슴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글쎄요. 언니한테는 살덩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는 아닐 수 있다고요. 이게 이성뿐 아니라 동성한테도 적용된다고요. ‘위메, 저 언니는 왜 저렇게 커? 밥 먹고 저기애다가 저장해놓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좀 전에 말한 정신병자도 개념을 조금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선부르게 정신병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여자 가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색변기

가슴용을 잘 만드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니 아까 스님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 스님도 금욕을 너무한 나머지 거기에 무더진 것처럼 아무리 매력적인 가슴도 계속 보면 그냥 살덩이라는 거야.”

“언니 말대로라면 사회 범죄자들, 미수자들 역시 생각의 방향, 환상을 조금만 바꾸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수아, 동성을 매료시키는 힘을 얘기했었잖아? 실은 언니가 말한 성판타지는 다 농담이고 지금 이 판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

“뭐예요? 둘 밖에 없다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너무한데. 뭐, 지금이라도 좋아요. 이제라도 말해보세요. 극소수라고 했잖아요.”

“극소수. 나는 남자인데도 여자와 남자 모두 매료시키는, 여자인데도 남자와 여자 모두 매료시키는 말 그대로의 팔방미인을 그려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든 나라든 그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매료시킬 수 있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괜히 들었네요. 언니 입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정말 재수 없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언니의 그런 새하얀 살결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잿빛. 말 그대로 불에 탄 장작 마냥 회색빛이 돌게끔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짓거리요. 그러니까, 언니 화장실에서 색변기 쓰는 걸 누가 찍는다고요. 그리고 벨리로 풀어버리고.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치안이 필요하죠. 거기에 색변기를 집으로 훔쳐가지 않는 시민의식까지요. 없으면 진짜 아예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결국 격리시키는 수밖에.”

“나는 색변기가 있다면 아마 집에서 쓰겠지? 스마트하우스에서. 그것도 안 쓸 것 같기도 하지만? 쓸 수도 있고? 뭐, 좋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수아의 생각을 조금 알 것 같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입양의 시초 격인 고아가 줄어야 한다고 봐. 그러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낙태나 고아를 생각하거나 유발하게 하는 성범죄가 줄어야 하지. 이런 범죄 이외의 영역에선 정말 확실한 피임도구를 개발하든가, 정말 낳고 싶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두성인 간에 이해관계가 굳건한 상황일 때에만 아이를 고려해보는 거지. 왜냐?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는 거는 순전히 현실에 관한 문제라고 봐. ‘이런 아이로 키울 거야.’는 순전히 부모의 환상일 거라고.”

“그리고 후대의 자연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고요. 하! 그리고 뭐요? 피임도구요? 뭐, 콘돔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실패확률 있는 거 아시죠? 1%, 2%?”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 정도 확률이면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면 조금 달라지죠. 벗겨진 것도 모르고 계속 하는 사람도…….”

수아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해은은 웃으며 수아를 보았다. 수아는 잠시 해은의 밝은 얼굴을 보기만 하고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여태 키워주시는 거면 괜찮잖아? 아니, 오히려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이게 왜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고아와 입양은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성적 판타지는 일부일처로 막을 수 있다고는 해도 성범죄 따위는 시대를 뛰어넘고 계속 계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색변기 진짜 설치하고 성교육 지대로 시킬 거면 임상실험하고 그 쾌락으로 얻는 이점을 정확히 측정해내거나 성범죄 비율이 줄어드는 통계를 짜보든가 하는 관련 논문을 작성해야겠죠? 예를 들면, 뇌파라든지, 일부 지역을 기준으로 성범죄 비율을 측정해

보든지, 성범죄가 안 일어나는 지역이면 사람들의 성만족도지수를 설문조사로 알아내든가. 그나저나 색변기. 아주 시원하겠네요.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하, 맞아요. 인간이 원래 뭐 그렇죠. 애초에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똥이란 것도 인간 기준으로 더러운 거지 자연 기준으로는 더러운 게 없거든요. 하, 어찌다 인류는 번영했을까요? 인류 빅뱅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은 대체 뭘 보며 섹스를 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 그 어떤 생명체가 대체 섹스를 유전자에 박아 번영할 생각을 한 걸까요? 희한하잖아요. 분명 초창기 인류는 부풀어오르는 임신부를 보며 돌연변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일단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 아마, 근친상간을 해서 번영을 했겠지? 그때 어떻게 성교 육이며 유전자며 기형아며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냐. 그리고 섹스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질문을 글썽?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이 책을 펼치기 전에 이 작가는 대체 뭘 생각을 하며 있었을까.”

“아,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니 제 부모님도 섹스 전에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쩌면 평생 알 길이 없겠네요.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휴, 수아랑 이런 저런 말을 했는데, 자식농사가 그리 쉬운 건 아닐 것 같아. 수아가 얘기하는 교육학 있는 대로 다 따라도 말이야. 진짜 생고생해가며 애를 키웠는데 정작 그 애가 ‘날 왜 이렇게 키웠어요?’라는 말을 한다고 해봐. 게다가 기술을 누리는 문명세대가 달라져서 20대에 할 일을 30대에 하는 상황. 불혹 40이라했었어. 더 옛날엔 15세 때 결혼을 했지. 하지만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고 임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결혼도 좀 더 신중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려고 해. 왜냐면 우린 120세를 살아야 하는 거야. 120세까지 전부 벨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완전 자동화가 아닌 반자동화. 업무를 돕더라도 딱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수준까지만 로봇을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겠지. 그 격차를 과격적으로 감당했어야 할 세대들이 바로 문명 변경 세대라고 봐. 그게 우리 세대고 말이야. 약인공지능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고 강인공지능은 몸이 불편한 이들, 노인 분들을 위해 재분배만 잘 됐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 그게 곧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개념과 상통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의 안정적인 날씨를 끌어다 쓴 경우잖아.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우리 분명 ‘연애’ 얘기 하지 않았니? 어찌다 여기까지……. 우리 수아 혹시…… 모태솔로니?”

수아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쥔 채 해은의 무릎을 탁 쳤다. 해은의 발이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좋아요, 우리 이런 민감한 아냐, 생명 얘기 하지 말고 다음 얘기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꺼낸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어쩌면 인간이라면 존중되어야 할 가치 중에 자유보다 더 중요한 생존에 관한 문제죠. 다음 얘기에 비해서 방금 나눈 대화는 심각한 축에도 못 끼요. 맞아요. 다음 할 얘기의 결과물이 지금 나눈 얘기라는 거죠.”

“어? 그래? 그렇구나. 이 언니는 우리 수아랑 또 시작해야겠네. 사실 나도 이런 민감한 얘기…….”

“옛날 사람들은 온갖 동영상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다 올려놓은 다음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대로 보았대요, 기계적으로.”

“수, 수아야. 잠깐만…….”

수아는 해은의 부탁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처럼 말할 상대가 생겨 신이 났는지 몸을 조금 흔들었다. 해은은 수아의 문제점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언니도 그냥 방관하시네요. 우리나라에 한국 여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복원에 성공했잖

아요.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거의 80%가 모피 제작으로 인해 희생당했대요. 그 시절 호랑이도 멸종당했다 그러죠. 그런데 한국 여우 중 나머지 20%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시절이더라고요. 그 좋았던 시절 와중에 쥐잡기운동을 벌였대요.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쥐덫과 쥐약을 설치하고 결국 상위포식자들인 멧돼지나 여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맞아요. 한국 여우를 진짜 멸종위기로 몰고 간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시절 사람들은 상위포식자나 환경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벼농사에만 관심 있었나 봐요. 그게 정의였겠죠. 정의는 순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시기, 해당 집단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사실 정의는 ‘승패(Win or Lose)’의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합리(Rationality)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보세요. 짧은 시각,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정의로 인해 후폭풍이 일었고 결국 후손들이 복원사업을 벌여야 하잖아요. 합리적이었지만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말 그대로 정의가 비실비실했던 상황인 거죠. 뭐 전 여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또 그게 정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만 집중할 뿐이죠.”

“우리 수아 얘기 시작했구나. 한국 여우라고? 흥미로운데?”

“언니, 잘못되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보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구현된 인공지능이 무슨 진짜 감정을 가지겠어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기정 모든 것이 구현이기 때문에 이미 진짜 노는 것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인간도 놀지 않는 선이라면 기계랑 구분 시 살짝 힘들 거예요. 여튼 그런 차이 속에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은 인공지능이 감정이 구현된 채 계속해서 추천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게 곧 최신정보고 그게 곧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검색창에 관련검색어만 쳐 넣어도 실제 정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정말 이렇게 되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사용자 자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서버가 올라간 뒤 사이트가 정리되고 자극적인 영상은 자극적인 영상 사이트에, 드라마는 드라마 사이트에 올라가지만 다 섞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시스템에 수익창출을 해주는 광고까지 붙다보니 제작자들은 어떻게든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으려고 다큐든 시사든 드라마든 서로 자극적인 영상이 되려고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만 올릴 거 아니에요. 원래 자극적인 동영상 사이트에는 자극적인 영상, 재미있는 영상만 올라가야하는데. 정보영상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자극적으로 제작되고 하다 보니 제목과 일치되는 정보는 30초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9분 30초는 그냥 조회수를 늘리려 감정적인, 감성적인, 자극적인 영상이 제작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왜곡시키고 사용자는 일상에 지쳐 그냥 왜곡된 진실만, 자극적인 영상만 찾아보는 거고. 결국 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면허사이트 보세요. 아예 사이트가 나뉘어서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영상올리고 드라마는 드라마 사이트, 뉴스는 뉴스 사이트가 종교 영상은 종교 사이트에, 공영방송 영상이면 공영방송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정리가 돼서 사이트가 다 분리됐잖아요. 카테고리 분류부터 이미 비효율적이니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면허체계 이전 시절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정말 어지러운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정말 싫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방관하고 손도 못 쓸테니 말이죠. 언니. 그때는 실시간 검색어 같은 서비스도 다 달았대요. 거기다 SNS는 성 착취동영상 유포자의 소굴이었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SNS이라는 기술만 없었어도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

예요. 검색이라는 시스템만 없었어도 실시간검색어의 부작용은 없었겠죠. 계속 이런 식이면 결과적으로 인터넷까지 닫아야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면허체계가 있죠. 물론, 이것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긴 하지만 예전보단 나은 것 같긴 해요. 원칙적으로 메이저한 곳에서는 욕설, 비하, 착취 따위의 영상자체를 못 올리니까 말이에요.”

“가만가만, 언니는 수아를 잘 모르겠어. 혁신을 하고 싶은 건지 사회점검을 하고 싶은 건지.”

“편을 보시려는 군요? 좋아요. 언니는 공산주의(Communism, 共產主義)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어? 갑자기? 글썄 민주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반대말은 한국말로 엄연히 없어요. 사유재산주의(Privateigentum, 私有財産主義)는 아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

“그렇지. 가만 그러면…….”

“공산주의는 공유재산주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사유재산주의를 줄인 사산주의(私産主義)라는 말을 써야하죠. 이런 말 없죠? 지금 제대로 된 말조차 없는데 누구의 편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하긴 요즘은 지식인 투표(Epistemic People Voting, 知識人 投票) 시행으로 임기도 길어서 편을 가르는 게 의미가 조금 없기도 하죠. 모두 잘 사는 게 포인트니까. 언니가 그런 말 모를 만 해요.”

요즘은 120세 시대에 인터넷면허까지 정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보급돼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성세대 폭을 더 넓히고 그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자들, 사회에 관심이 있는 자들만을 추려 투표권을 주는 ‘지식인 투표(Epistemic People Voting, 知識人 投票)’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름과 공약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조차 모른 채 투표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식인을 추리는 방법은 간단한 시험을 치르지만 난이도는 너무 쉬운 수준이다. 난이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역사의 흐름을 묻는 간단한 수준의 정치나 이슈를 묻는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 간단한 시험을 예를 들면, ‘1번 후보의 공약을 선택해보세요. 3번 후보의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레벨 수준을 매길 수도 없는 너무나도 쉬운 수준이다 보니 강력한 인공지능도 필요 없이 그저 일반 컴퓨터 수준의 계산으로 랜덤 값을 도출해 제출을 하는 것이다.

더하여 지식인 투표에서는 지식인이 아예 투표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인 ‘공표(Vote for Void, 空票)’ 역시 중요한 의사의 표현이 된다. 해당 의사표현은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현 체제 유지’라는 의사표현이 된다. 간단히 현재 A라는 이가 어떤 집단에 집권 중이고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사람을 생각할 시기에 B와 C가 새로 후보에 오를 경우를 생각한다.

하지만 지식인들 눈에 B와 C의 공약이 현 A의 실행력과 현실화에 못 미칠 경우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표가 과반수 혹은 일정 수 이상이 될 경우,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현 체제의 연임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사망이나 위해, 파면이 되었을 시, 공표가 과반수를 넘어버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대통령이 공석이 될 수도 있기에 위와 같은 사안에는 공표가 무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인프라넷을 통한 투표가 별도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공표 활용

목적은 전체적인 국민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또 돈돈돈이네. 그래, 수아가 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21세기 초에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말이죠.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유재산제도를 택한 우리나라마저도 공유재산 즉, 지방예산,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니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 공산주의에도 조금이나마 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고 사산주의에도 조금이나마 공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네?”

“네. 진정한 사유재산체제로 바라면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로 가야해요. 더해서 공산주의와 사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 아니, 그걸 넘어 공존해야한다는 식인 거고요.”

“잠깐만 수아야, 그런데 언니는 수아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조금 보이는 것 같아. 흠, 하지만 일단 이걸 조금 후에 얘기하고 그 정치이야기 계속 하자.”

“……. 네.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사유재산을 선택했으면서 정부 예산이 있고 세금을 걷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기업에 인센티브만 봐도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죠.”

“인센티브? 성과급(Piece Wage, 成果給) 말하는 거니?”

“네. 한 상품이 대박나면 직원들한테 보너스 뿌리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사유재산, 개인 지급이면 대박지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역추적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니 아까 언급한 게임 예로 들면, 순전히 어떤 캐릭터가 예뻐서 대박이 난 건데 그 대박이 다른 이들에게, 저기 완전히 관련없는 인턴한테도 전달되면 안 되죠. 딱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대박 난 만큼 전달되어야지 저 아래 말단한테도 인센티브 뿌리면 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죠? 애초에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集團知性)으로 작업했을 테고 그렇다면 그 가중치까지 계산해내야죠. 그런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캐릭터가 예뻐 보이려면 결국 상대적으로 못생긴 캐릭터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물고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면 역추적도 아무런 의미 없고 결국 계산 못하죠. 이런 식으로 결국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부서별 공유재산으로 돈이 지급되어야죠.”

“그렇구나. 확실히 찼찼한 부분이네. 이 콘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만든 게 대박난 건데 다른 직원들이 그걸 다 가져 가는 그림이 자연스러웠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니네? 이미 내 보너스를 다함께 공유하는 중이구나. 계속 말해봐. 언니가 들어줄게.”

“……. 언니 좀……. 뭐, 좋아요. 전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이럴 거면, 합치자. 공산, 사산 제도를 합쳐서 때에 맞게 공유면 공유, 사유면 사유. 제대로 정확하게 돈 주자. 솔직히 지금 형태는 너무 불만족스럽거든요.”

“어떻게 주면 될까? 어떤 체제를 생각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수아가 여기서 멈추네. 거의 급브레이크 수준인데? 이제 좀 수아의 부족한 점 알 수 있겠니? 흠, 됐고 이걸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수아가 펼친 거 마무리를 해보자. 흠, 그러니까 수아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우리 수아는 상하좌우앞뒤가 아닌 안과 밖의 개념을 끌어왔잖아? 이 언니가 고걸 토대로 한번 말해볼게.”

해은은 이온음료 두 개를 구매해 수아에게 우선 건네주었다. 해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현석과 앉았었던 자리를 찾았다. 둘은 천천히 음료를 들이키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일을 하면 기본적인 돈을 주는 거야. 최저시급이라고 하지. 그걸 무슨 일을 하던 주고 보는 거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아주 최첨단 일이라도 그냥 최저시급만 주는 거지.”

“그냥 그러면 난리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시작이야. 이 언니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봉급은 그게 다인데 바로 회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전자화폐, 그 화폐에 블록체인 걸어서 최대한 모든 직원이 그 이력을 볼 수 있게 하는 회사 화폐를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거지.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부서, 조직 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거야. 어쨌든 부서와 조직을 나누었다는 것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능력을 구분한다는 거잖아? 그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차등지급이란 것도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야. 예를 들면 A회사와 B회사가 있는데 같은 사장 등급이면 똑같이 1000코인, 화폐 비슷한 것을 받는 거지. 그리고 모든 회사의 식당과 복지는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 복지를 누리려면 회사의 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고.”

“언니, 죄송하지만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수아야. 여기까지가 바로 공유재산을 재설계해본거지. 이제부터 사유재산이야. 그래도 남은 회사화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걸 국가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회사가 국가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인 증시나 기타 더 명확한 별도의 수치를 생성해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돈 혹은 다른 국가의 돈으로 환전을 하면 되겠지?”

“아, 공평하게 사용되던 회사 화폐가 회사 안에서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군요. 상황에 맞게 환전이 되는 거고요.”

“역시 바로 이해를 하는구나. 언니는 이런 생각을 해.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흔히 사회주의를 떠올리잖아. 그건 악(惡)의 방향으로 갔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는 선(善)의 방향이지만 사회주의는 방향이 틀어진 거라고 봐. 아까 수아 말대로 사산주의 역시 방향이 틀어진 거지. 이런 것이 빈부격차, 우리나라의 자살률, 무책임한 기술진보와 관계가 깊다고 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사산주의가 어떻게 자살률로 가는 거죠?”

“우선 공산주의부터 할게.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어. 이걸 달걀로 비유 하자면 마당을 나온 병아리인 셈이지. 그런데 공산주의는 닭이 이미 먹이통의 9할을 혼자서 다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나머지 1할로 나머지 병아리가 다 나눠먹으려다 보니 얼마나 못 크겠어, 그치? 반면에 사산주의는 병아리들이 닭의 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저 멀리 온실기로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의 달리기 속도에 맞게. 그런데…….”

“온실기 숫자가 부족하죠. 게다가 다른 온실기는 영 시답지 않고. 게다가 어떤 병아리는 종이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낙하산타고 닭의 품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그것도 다 돈인데.”

“결국 이도저도 안 된 병아리들은 제대로 된 온실기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진거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 온실기에 들어간 병아리와 못 들어간 병아리의 격차가 벌어져. 특히 닭의 품에 들어간 병아리는 더 잘 자라나겠지. 이게 언니가 생각하는 빈부격차야.”

“그럼, 들어가지 못한 메마른 병아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네요?”

“맞아. 그리고 온실기 안에 병아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왜요?”

“정신없이 좋은 온실기만 찾다보니까 정작 자신이 왜 이 온실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거든. 그냥 덩치만 커가는 채로 자신이 어떤 닭이 되고 싶었는지 잊어버린 거야.”

“자멸이네요. 그게 화로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혹은 아예 후대에 어떤 후폭풍을 생성할지 모르는 고민과 실험이 덜 된 기술을 내보이는 거고요.”

해은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의 손은 차가웠다. 따뜻한 해은의 손을 다잡은 수아는 해은의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어여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부러웠는데 해맑게 웃어 버리니 수아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면 복지(Welfare, 福祉)고 사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면 자아실현(Self-Realization, 自我實現)이라고 봐. 하지만 서로의 진영에서 서로 다른 주의를 등한시 하다 보니 사산주의 내에서는 세금과 기부금, 투자금을 좀먹는 공무원과 복지센터가 생겨나는 거고, 공산주의 내에서는 그냥 국민의 자유는 무시하고 생존만, 살아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역시, 둘의 이상적인 면을 합치면 팬츠를 것 같아요.”

“그럼 자본의 흐름을 안과 밖을 기준으로 나누는 체제에 걸 맞는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말마따나 둘을 합친 새로운 사상 말이야.”

“흠, Commuprism 어때요?”

“흠, 글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해은은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해은은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채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V’가 빠졌네. 요즘은 V가 대세잖니. 그럼, Commuprivism 정도가 팬츠를 것 같아. 공산주의(共私産主義). 늘여서 공사유재산주의(共私産財産主義). 이러면 복지센터나 종교가 국가자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완전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부터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직업이 있는 이들도 자신의 능력만큼 소비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흠…… 영어로 12글자네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줄인말 늘인말 둘 다 합하니깐 12네요. 기분 좋네요.”

“수아야, 그 글자 가지고 그러는 거 다 의미 없다니까? 그럼 이 참에 수아도 12글자로 개명할래?”

“제가 개명해요? 뭐로 개명해요?”

“이수아이수아이수아이수아.”

“언니, 그거 다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은은 잠시 태블릿 펜으로 글자를 하나씩 써나갔다.

“이수아겍나이쁘고몸매종음(Lee Su-A So Pretty So Sexy, 李水莪怯蘿里復孤眸昧祚蔭)”

“……. 한자 그거 제 이름 아닌데요. …… 저 같이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하는 사람들은 국가 지원을 받겠죠. 성인이면 어디 공사장 같은데 끌려가서 억지로라도 일을 하겠지만. 그리고 소위 몸값 따지는 사람들은 원하는 회사를 더 신중히 정하고 그 수처에 맞는 월급을 가져갈 수 있겠죠. 언제나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죠.”

“여기까지가 언니의 스케치야. 원래 언니는 이런 스케치밖에 못해. 그런데 스케치지만 조금 선명한 것뿐이고. 희한하게 내가 채색을 하면 망하더라고. 그러니 채색은 알아서 하라는 거고. 정 스케치도 맘에 안 들면 다 알아엿어, 수아야.”

수아는 빈 깡통을 입에 문 채 딸깍 소리를 내고 있다.

“언니, 우리나라가 그거, 그 체제 당장 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소리니?”

“북한 풀네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에요. 비록 삶이 저런 모습이지만 엄연히 공산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간판을 저렇게라도 걸어놓은 거고요. 거기다 Republic, 공화국이에요. 간판대로라면 국민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공화제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런 체제를 사회주의라고는 하는데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죠(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 적어도 자유의 반대가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사회의 반대는 개인(Individual, 個人)이지? 그럼 사회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 자유의 반대는 글썽? 흠……. 인간의 독립 이전에 가족, 학교, 국가라는 곳에서 집단을 이루지? 이런 집단을 형성하는 것, 사회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주의라고 보긴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 사회의 본성, 요소는 개인 본성, 요소인 ‘자유’라는 것의 반대가 되겠지? 우리 인간이 아니, 어찌면 생명체들이 왜 무리를 이루고, 떼를 이루고 군집을 이룰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은 대체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 보수적인 생각도 함께 할까?”

“SURVIVAL. 사회의 근본 요소는 ‘생존(Survival, 生存)’이라 봐야겠네요. 생존과 자유는 상극의 요소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 이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연합하는 거예요. 생존자유민주주의(Liberal Survival Democracy, 生存自由民主主義)를 실현해 보는 거죠. 자유도 생존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인간에겐 생존의 권리와 자유의 권리, 둘 다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실, 여전히 자유는 존재했었어요. 바로 권력이 있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침해하는 걸 넘어 생존을 위협한 거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간 결핍이었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항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언니는 자유라는 색깔이 붉은색 같아. 정신없이 나의 자유를 이루다보면 어느새 뒤에는 내가 짓밟고 온 다른 이들 피와 젖더미밖에 안 남은 허탈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는 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나아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를 불과 같다고 봐. 반대로 생존은 색깔이 푸른색 같아. 모든 생존의 근원 물, 말이야. 물은 보통 파란색으로 표현하잖아. 그런데 공산 진영에서는 왜 빨간색을 썼을까? 피의 색이라서?”

“아마 피를 많이 봐서 그렇겠죠. 하지만 순수 사상에서만 말하는 걸 따지면 파란색이 맞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공유를 한다는 측면은 실은 피를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은 고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절에 계신 분들 보세요. 흠, 이렇게 따지면 공산주의는 파란색, 사산주의는 붉은색이 확실히 더 어울리네요. 뭔가 색깔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글썽, 옛사람들은 디자인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

“그럼 새로운 실현 아래 새로운 나라이름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그니까, 이참에 북한이랑 연합을 하자는 거잖아? 오히려 그 공산주의가 더 도움이 된다.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해라. 우리 어디 진영에 소화되거나 진압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로 뭉치는 게 더 낫겠다. 한민족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 아래에 두 체제가 있으니 연합을 해보자. 어차피 같은 민족이니까.”

“맞아요. 그냥 ‘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됐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일단 한번 만들어나 보자. 대한민국연합(大韓民國聯合) 정도면 어때? 원래 대한민연합국으로 ‘국’ 자를 제일 뒤로 보내려 했는데 어차피 한자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게다가 지금 연합인데 다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지? 폴네임으론

대한민주주의연합공화국(大韓民主主義聯合共和國).”

“네, 그렇다면. 영어로 United Korea네요. 풀네임으론 Unit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잠시 바람이 일었다. 해은과 수아는 하늘거리는 치맛바람을 그냥 놔두고 잠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운동장을 보고 있는 끝에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지도층만 준비된다면 연합은 지금 당장도 가능한 얘기네요. 통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만의 소원이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소원 통일 아니었어? 아무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준비자금도 필요하고 연합이 된다 하더라도 완전 상극인 두 체제가 맞물려서 작은 공문서조차 제대로 작성이 안 될 수도 있어.”

“글쎄요? 우리 기존에 통일자금 걷고 있었으니까 그거 그냥 연합 초기자금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고, 그냥 통일부 자체를 다 ‘연합’으로 바꾸면 되죠. 어차피 이후에 세금은 별도로 안 걷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공유재산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연합하는 거고. 게다가 공문서는 언니가 이미 묘안을 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난 아무 말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형상관리. 공문서를 형상관리체계(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形狀管理體系)로 운영하는 거죠. 누가 어떤 항목을 수정했는지 날짜와 사유, 그리고 인터넷 면허 아이디 싹 다 기록에 남죠. 경찰은 지친 현실에 법원의 이상을 포기했고, 검찰은 중간에서 봐주느라 등터지고, 법원은 최전선에 있는 경찰의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닐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겠죠? 아예 그래서 형상관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한국말을 해도 뭉치지 못하는 곳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상극인 체제라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 싸우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연합. 서로 존중하자. ‘생각해보니까 니꺼 쓸모 있을 거 같은데?’ 이러니까 연합 예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 같은 한국말을 해도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 인공지능 번역기는 어찌면 한국인에겐 한국말번역기능이 먼저 필요할지도 몰라. 어…… 그래도 이렇게 상호교류를 하면 혼란이 올 거야. 코드를 작성하다보면 ‘상호참조(Coreference)’란 게 있거든. 쉽게 말해서 구현하는 곳에서 이름이 비슷한 변수나 함수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헷갈린다는 거야. 상호교류. 이거 하다보면 정체성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지.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어. 앞에다가 어디 소속인지 명시를 하는 거야.”

“명시를 한다고요? 흠, 주민등록증 앞에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명확히 표시하면 되겠네요. 남한은 자유니까 빨갱이, 북한은 공유니까 파랭이 정도가 낫겠네요.”

“그 멀쩡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면 쓰겠니. 우리 우아하게 디자인으로 하자.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도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붉은 국기를 썼잖아? 아무리 디자인이 잘못되어있다 해도 이걸 딱 우리 둘뿐인 기준이잖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한순간에 바꾸는 건 무리야.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론 남한 사람들에겐 푸른 태극마크를, 북한 사람들에겐 붉은 태극마크를 박아주는 거지.”

“실제로는 거꾸로 인데 재밌네요, 언니. 그런데 왜 하필 태극기에요?”

“아……. 내가 하필 요즘 태극기를 공부해가지고 그래. 태극기에 이미 음양, 자유, 평화, 생존 싹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 뭐, 태극기보다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킬 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게 더 괜찮겠지. 하지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연합에, 교류에,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이들이 만나는 기쁨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먹고사는 문제야.”

“못사는 이들이 국고를 축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잘사는 이들이 부려먹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시각 자체가 연합의 발목을 잡아요.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을 수평 상에 놓아야 한다고요. 왜? 남한이든 북한이든 기초수급자들은 전부 공유재산을 실제로 받고 세금으로 지출할 테니까. 그리고 무직인 사람들에게도 빛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집과 밥 그리고 소일거리를 국가 복지로 들어가죠. 정식적인 무직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무직이라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 안돼요.”

“왜?”

“회사와 나라에서 주는 남들과 동등한 수준의 밥은 정말 ‘이거라도 드세요.’ 수준의 밥이니까요. 맞아요. 그 복지비용도 사실 ‘소일거리 줄 테니 이거 하면서 생각 좀 해라, 길거리나 역 같은 데 나앉아있지 말고. 풀배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거 좀 줄 테니까 어디 들어가서 너 개발 좀 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아, 식당 밥 맛 없지. 나가서 먹어야겠다. 아, 시켜먹을까?’가 되는 거죠. 이걸 예술 하는 사람한테도 적용돼요. 길거리공연 같은 거 할 거면 제대로 나라에 허가받고 해라. 제발, 더럽게 예술로 야바위 같은 짓이나 하지 말고.”

“그게 북한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한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평등하게 봐야한다. 뭐, 이런 거구나. 마치…….”

“저처럼 말이죠. 왜요? 이런 건 제 얘기에요. 기초수급 자체가 곧 공유재산이니까.”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좋아할까? 우리 수아 얘기대로라면 그 준비자금 건적에 북한한테 인프라넷망을 까는 게 포함되잖아?”

“으, 정말 있는 것들이 문제라니까요.”

“수아야, 있잖아?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 없는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야. 아까 수아가 직접 말했듯이 서로 존중해야 할 일이지. 그래도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는 확실해.”

해은은 다시 한 번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꼼지락거리며, 차가운 손을 주물러주었다. 수아는 해은의 말을 곱씹어보며 손아귀를 느껴보았다. 그래서 그냥 해은의 손을 그대로두기로 하였다.

해은은 수아에게서 손을 떼며 태블릿을 켜다. 수아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주었다. 수아는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해은은 태블릿 화면을 닫고 거드랑이에 켜다.

“옛날에 ‘코로나(Corona)’라는 질병이 유행했었는데요. 그런 팬데믹(Pandemic) 같은 것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려고요. 물론 지금에야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앙보건기구가 돼서 평시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짜고 갖추어놓은 대로 세계 각지 협업을 하여 WHO 마크를 찍은 마스크라든지 방역복 따위의 의료물자를 만들고 취약 지역부터 보급을 하죠. 그게 협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종식되는 방법이라 보는 거죠. 하긴 취약 지역부터 손을 보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은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과학기술이 좋았으니까 질병이 코로나처럼 생긴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내 일자리나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면 결국, 이미 패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경과 지역을 봉쇄했다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유만의 한계를, 패배를 보여준 것 아닌가요? 그것도 데이터로 확실하게. 그 지경까지 된 거죠.”

“하지만 너무 급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사는 이들이 제 때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지금도 사실, 국가 간 가이드라인 있다 해도 실상은 서로의 이해관계라는 것 때문에 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질병은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요. 생각해보면, ‘공유’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는데 말이죠. 질병 방역지침에서 자유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 아까 사회주의국가 얘기 나와서 마저 하자면, 여태 말한 생존 정책을 펴서 코로나 감염 수를 빠르게 잡았어요. 정책을 펼친 부분이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잡으면 잡은 거죠. 그런 쪽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하지만 언니 생각은 조금 다른데? 그 이런저런 변수를 보면,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데이터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 이해관계가 얹혀, 과학적으로 단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 수아가 말했던 왜곡에 관한 부분이잖아? 그리고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변수가 계속 하나씩 붙어버리면 과학적인 단순 명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언니도 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에서 여러 자료를 보았었어. 그리고 찾았지. 초기방역은 일품이었다고. 그 어떤 지역 간 봉쇄도 없었고, 꼬박꼬박 마스크 써가며 감염자가 몇 명 때, 몇 십 명 때를 유지하며 차분히 백신을 기다렸었다고 말이지. 이런 건 정말 단순 명확하잖아? ‘방역지침을 내렸다. 방역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단순 명확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자유를 조금 할애해서라도 방역지침을 지킨 거야. 생각해봐. 솔직히 마스크 안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하지만 자유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터진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결국 수십 명의 수치는 모두 물거품이 됐어. 그래도 언니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었다고 생각해. 사실, 초기방역 이후는 지구력 싸움이었어. 그 부분에서 사회의 음지부분이 문제가 된 거지.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초기방역. 관심 있니?”

“글쎄요.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러니 질병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수아가 그랬지 기술보단 다른 점이 중요하다고. 언니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 방역지침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야. 사실, 더 찾아보니 코로나 말고도 더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흔적들 말이야. 굳이 억지로 끌고 와서 노동을 시키는 사회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라도 말이야. 그리고 그 코로나라는 것에서 선조들은 그 공감, 공유 수치에 대해 이전 일련의 단합되는 사건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한국이란 나라가 자유보단 생존의 역사 쪽이 더 깊어서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자유를 외칠지 생존을 취할지 스위치를 콕콕 켜다 끌 수 있는 능력을 후손들이 유전자처럼 그냥 물려받아 버린 거지.”

“그럼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수치를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아니, 그래도 부족하다고 봐. 그 공감능력, 생존수치를 이제라도 정리하고 다룰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언니도 옛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소설을 써보고 있어서 그래. 한순간에 음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게 질병이 아니고 기술의 역효과인 것으로. ‘기술은 발전해도 죄는 존재한다.’ 즉, 처음엔 자동화도 잘되고 모든 인간이 편리한 삶을 추구할 것만 같다가 한순간에 피바람이 부는. 죄는 존재하는데 벌 줄 사람이 없는. 하지만 이진 소설이고 현실의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의료기술 즉, 백신과 치료제가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하면 좋겠어. 난 내 아무 이상증세 없는 몸뚱이로 미래에 뭐라도 자그마한 데이터를 남길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백신을 맞겠어. 물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 더 좋겠고.”

“으, 그래도 섬뜩하긴 하네요. 그래도 전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아, 언니는 그럼 제가 만약 이런 걸로 사회에 진출하면 도와줄 건가요?”

“이 언니도 수아랑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썄, 수아 편을 들지는…… 비밀이야! 잠깐. 이 언니는 우리 수아한테 궁금한 게 생겼다? 수아의 성향을 좀 명확히 보고 싶어.”

“네,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있잖아. 미세먼지폭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전, 우리나라 수도를 달이나 화성으로 옮길 것 같아요. 공기가 없는 곳이면, 미세먼지도 없겠죠.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든가.”

“우리 수아 성향이 바로 나오네. 진보 중에서도 초진보 성향,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초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언니는 이런 생각이야. 우리 수아의 현재를 바라보는 안목을 그런 먼 미래와, 먼 과거 사이의 어느 지점을 짚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하, 참 도움이 되네요. 전 그냥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 말이에요.”

“난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 언니! 하늘을 보세요. 천기, 아니 하늘을 보라고요.”

해은은 깜짝 놀라 수아가 가리키는 하늘을 보았다.

“이상해졌어요! 우리 동네 날씨가 달라졌다고요! 먼지폭풍이 불지 않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지 않나. 아열대는 극열대가 되고, 열대는 아열대가 되고, 온대는 열대가 되고. 전부 영상기온으로 되면 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언니, 됐고 우리 동네 날씨를 기억해보세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가을이랑 봄이 있었대요.”

수아와 해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소리가 해은 귓가에 맴돌았다. 수아는 발을 굴리며 질문을 툭툭 던지기 시작했다. 해은도 수아의 질문을 툭툭 받아쳤다.

“연합이니까 최종 우두머리는 없더라도 지도층에 장(長)의 자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세력싸움을 할 거고요.”

“두 진영에서 번갈아 선출하면 되지 않을까? 횃수도 제한하는 식으로 하고.”

“공산품이나 여러 상품들의 가격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로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가격을 지정해주는 거지.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만 팔아라. 그리고 명품(Luxury Goods, 名品) 같은 것들은 자유경제, ‘그냥 이 가격에서 시작하시고 가져가실 분 더 높게 부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대량은 수평적인 가격으로, 소량은 수직적인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거지.”

“대량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서 한 사람이 대량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당 구매횃수를 정하면 안 될까? 또 횃수를 정하면 구매 후 눌러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서버 트래픽 초과(Exceed the server traffic)가 발생할 거야. 그러면 구매 후 일정시간동안 해당 상품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하게도 꾸며야겠지. 대신 사업장 여는 분들은 구매제한횃수가 대폭 완화되고.”

“재고가 많이 남을 거예요.”

“공장을 조금 효율적으로 돌려야지. 통계학 같은 걸로 어떻게든 분석 잘해서 돌려야지. 그리고 남는 부분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팔고. 더 싸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안 팔리는 거고.”

“United Korea를 줄이면 UK가 돼요. 다른 나라의 이니셜과 부딪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동방국가니까, UKe로 하면 되지 않을까? 소문자만 붙여도 구분이 되잖아.”

“지역 이름의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요? A, B 지역이 있을 때 서로 앞에 쓰려고 할 것 아니에요.”

“우선 투표를 진행해야지 AB, BA로 2개의 안을 내고 결과를 지켜보는데, 만약 공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냥 ‘가나다’순으로 정렬해야지.”

“범죄가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범죄가 연합되면, 당연히 공권력도 연합이 되어야겠지. 아까 말했잖아. 작은 진술서조차도 이제 형상관리로 되는 거야.”

“벌도 생각해봐야 해요.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법 쪽 부분에 사회주의 색이 조금 들겠지. 사회 입장에서는 법이란 것은 국민들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니깐.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사대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형량이 올라갈 것 같아.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아마 보호자나 부모님이 강력한 형량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지. 어쨌든 소년원도 그냥 작은 교도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정 노동을 하든가.”

“그건 그냥 사회주의국가 아니에요?”

“아니지. 공존한다니까. 저렇게 법으로 처리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해관계 중에서 ‘이건 선을 좀 세계 넘었다.’ 싶은 것들이야. 맞아, 실상은 대부분 합의를 보겠지.”

“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합의를 면죄부라고 생각해요. 보석 석방 같은 거요.”

“그래 맞아. 그거야. 형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으니 합의금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못 볼 것 같으면 법으로 가라 이거지. 즉, 사적으로 정말 안 되면 법원가라는 거지. 자유를 누렸는데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

“흠, 학교 같은 데는 선생이나 부모나 이제 애들 엄청 잡겠네요. 미성년자는 자유보다 생존부터 배울 테니까요.”

“맞아, 직간접적으로라도 그 생존에 관한 부분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지. 하지만 그것도 고학년이 되면 풀어질 거야. 어쨌든 자유라는 것도 배워야 하니까. 대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생활방식이 지금 서비스 시대니까 아주 먼 미래 얘기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언니가 보기엔 개인화가 더 가속화 될 거야. 그리고 넷 상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찾아서 만나겠지. 그 관계가 오프라인으로 발전되는 거고. 왜? 만나서 쓸데없는 마찰 일어나면 나만 겁나 손해 볼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최적화된 만남을 추구할 것 같아.”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사회주의로 할지 개인주의로 할지 선택하는 개인사회자본주의(Individual Social Capitalism, 個人社會資本主義)겠네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법원 가!’ 식이 아닌 ‘종게종게 끝내자.’가 되겠네요. 암묵적으로라도.”

“개인사회자본주의. 참 말이 회한하다.”

“언론에 대한 탄압과 자유는 어떻게 하나요? 공존해버리면. 여기에는 ‘선’이란 것이 잘 명시가 안 되잖아요.”

“법이 선이잖아. 아마 그 ‘생존’에 해당되는 법안이 더 마련되어야겠지. 그 폭력성, 허위성만 없으면 어쨌든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봐.”

“사회주의로 인해 형량이 올라가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형량이 올라간다니까? 사기, 횡령, 무고 전부 형량이 올라가.”

“언니……. 이거 지금 이 말 하는 우리한테도 작용되는 거 아니죠? 삶이 팍팍해지겠네요.”

“맞아. 그리고 삶이 확실해지겠지.”

“상속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의 축적이잖아요?”

“언니는 빚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난 모두 시장경제에선 어느 정도 다 의미가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해. 언니가 생각하기엔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는 거야. 언니는 이를 ‘저축만능주의(Savism, 貯蓄主義)’라고 불러.”

“저축과 빚, 세금과 부채 시스템은 자본주의에선 꽤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도 그건 인정해. 하지만 문제는 과한 저축, 과한 빚이야. 과한 저축은 사람을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지게 해서 환상에 묶이게 하지. 간단히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 법률 따위를 생각한다는 거야. 역으로 과한 빚은 사람을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지게 해 현실에 묶이게 하지. 간단히 목표, 계획 감각이 떨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방관한다고 봐. 그렇게 가라앉았던 사회의 외곽 쪽으로 떨어져나가게 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진다고 봐.”

“언니 대책은요?”

“왜 과도한 빚을 낼까? 왜 과도한 저축을 할까?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굴릴까? 언니는 이 생각을 해봐. 노인시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거지. 현재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으니까. 생각을 해봐? 마트에 거의 도착한 걸 알고 얼른 일어나 버스 부저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거 젊음의 상징이다? 늙으면 야바위도 못할걸? 동전 앞뒤면 따지기도 전에 동전을 던졌는지도 못 볼 거라고.”

“아, 노인은 경제 생산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비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럼 자본주의를 아예 계급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지금 너도나도 다 같은 생산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즉, 제 생각으론 노인들만의 계급, 적합한 여명가격(Silver Price)이 따로 책정되어야한다는 거고요. 이 가격은 마진 다 빼고 거의 물품만의 가격. 생필품 구하는 데에도 헛떡이는 나이인데 어떻게 소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라면 하나 가격도 노인에 맞게 재추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전용화폐를…….”

“수아야, 잠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사 화폐는 회사 안이라는 명확한 Boundary, 경계선이 있었어. 회사는 사칙대로 재창조된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사회라서 별도의 화폐체계가 가능한 것 같아. 즉, 기존에 회사 내 운영되는 마일리지나 직원 점수 따위를 발전시키는 개념일 테니까. 거기다 제품의 가격을 별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윤과 소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봐. 제품 하나엔 가격은 하나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

“우리도 늙어. 이런 생각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해결책? 해결은 이미 되어있다고 보는데? 답은 의외로 가까운데 있지 않을까?”

“답이 가깝다고요?”

수아는 해운을 보았다. 수아는 해운의 눈을 보았다.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해운은 마지못해 눈을 천천히 돌렸다. 수아는 해운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곳엔 헤카테가 있었다.

“……. 아! 주니어 벨리?”

“내 생각엔 이미 IT기업은 노인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기기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 이런 맞춤형 소비재가 갖은 항목으로 퍼져야하지 않을까? 자극적이지 않은 과자, 라면, 음식들, 옷들, 주거환경. 노인들이 제때에 먹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길거리 불량식품을 먹는다는 건 기업입장에선 고객을 놓치는 거로 보여. 이걸 자본주의가 더 성숙해지길 기다려야하는 부분처럼 보이고. 공산주의. 기존의 것을 완전히 파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어디까지나 계승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만 최대한 보완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좋아요. 흠,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특징이죠. 보장되는 생존 때문에 국가 생산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체제는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선택할 수 있는 체제잖아? 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 그런 단어가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최대한의 생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인간보다 더 생산력 강한 로봇? 그 모든 생산과 일자리를 로봇으로 채우려면 지구라는 자원을 더 많이 써야하는데? 이걸 좀 먼 미래 얘기 같아. 얘기 이어서 하자면 개인의 생존을 가능케 했는데, 그 개인이 사회로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하면 확실히 그만큼의 국가 생산력이 사라지니 꽤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냥 그러면 법적으로 끌어내면 되죠. 언니가 말했잖아요. 법이 이젠 강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나랏돈 빌려 써놓고 도망가면 나라에게 혼나야죠.”

“그렇다 해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아. 사람의 갈등과 돈이 엮여버린 일이니까. 그리고 그 현 체제로는 개인마다에 적합한 ‘생존점수(Survival Point)를 매길 수 없다는’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일하고 싶어하는지 현 교육체계에서 채점하는 점수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건 나중에 해요. 안 할 수도 있구요. 차피 지금은 대충 스케치만 하는 거니까요. 흠,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구현방식이 결국 이런 집단지성 형태라면 안 된다고 봐. 책임을 부여할 수 없거든. 아까 수아가 말한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개념이라고 생각해. 개발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도 안 되고, 데이터 가중치에 따른 책임 전이도 그거 언제 역추적하고 앉아있어. 비슷하게 인공지능 수술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걸 책임질 건데? 책임의 부여가 안 되면 돈도 제대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집행하면 개발자한테도, 집행하는 이에게도, 데이터 제공자에게도, 다 돈을 부여하든가 해야 해. 그 최종집행 이력 분석 중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던 이력과 가중치는 또 어떻게 책정하지? 그러니 그냥 보좌하는 식. 인공지능으로 법을 미리 적용시켰을 때의 시뮬레이션, 수술하기 전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파악하고 집행, 집도를 시작하는 거지. 결국 사람 일은 사람이 해야 해. 그래야 뒤탈도 없고 자본의 이해관계에서도 깔끔해진다고 봐. 물론, 만약 데이터 활용이 형상관리 급으로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빅데이터를 제공, 제작한 모든 인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이 직접 집행, 집도해도 문제는 없겠지. 난 여기서 데이터는 엄연히 데이터베이스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가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봐.”

“언니 말로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Data Royalty(데이터 사용료)가 적용된다는 말이군요.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어떤 걸 집행하기에는 무리다. 왜 우리 당장 데이터 손실되면 데이터 보험에 범원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Royalty없이 형성된 빅데이터단지는 검찰조사 받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폐쇄되고 하고. 데이터 분석 로열티는 콘텐츠 비용과 다르게 분석비용까지 따로 받아야 하니까요. 행동 자체, 노동 데이터를 넘겨주는 꼴이니까. 또

그 분석 데이터를 악용해서 독과점이라든가, 노이즈마케팅 따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국가에서 선정한 기관을 거쳐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을 하지 않고 사기업에서 그 검증을 시행하면, 기업윤리와 이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사기업이 외국회사면 말할 것도 없죠. 문화와 전통이 다를 테니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모든 스타트업 콘텐츠는 동일 선 상에서 시작해야하는데, 엄연히 분석 Royalty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죠. 왜 우리 동영상이나 음악, 그림 따위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정렬 한다 했을 때 그 분석 값을 받잖아요. 그 분석을 독점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분석한다는 거니까요. 분석 Royalty는 따로 받아야죠.”

“그래서 요즘 영상이랑 드라마 사이트는 그런 인공지능 정렬 안하고 카테고리 정렬하잖아. 만약 콘텐츠 게시자가 카테고리나 제목을 잘못 선정했으면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간판을 잘못 단 거니까. 택시기사 분들 운전데이터 수집한다 하면 엄연히 사용료가 지불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노동활동을 시키면 택시 기사 분들에게도 월급 비슷한 게 지급되고. 마치 소설가가 인세 받듯이 말이야. 기업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인공지능도 오픈 데이터 위주로 수집하고 여기 벨리도 사실 벨루가 다 우리한테 사용료 지급하잖아. 그게 다 책임이랑 연관되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으로 돈을 벌면 해당 기반 데이터나 연산 코드를 개발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지. 무료로 하면 지급 안 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자동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상목록을 나열하는 방식도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리모콘으로 채널 고민을 할 피곤함을 덜어주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자동화가 되고 거기에 공사산체제라면 로열티도 대가 끊기겠네요. 로열티를 받을 택시기사가 점점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 서서히 서비스 업종에 자동화가 서서히 일어나겠네요. 역시 서비스시대예요. 왜 우리 학교 시간에 1차 산업, 농업시대엔 농업이 자동화가 되고, 2차 산업, 공업시대엔 공업이 자동화가 되잖아요. 정말 그 기계들을 관리하는 소수의 인원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맞아, 3차 산업, 서비스시대엔 서비스노동 즉, 감정노동의 자동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였지. 그런데 사용료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왜냐면 그 성경도 번역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인세가 계속 지급되거든. 이익이 발생하면 누구에게라도 지급 돼. 일단 후손 혹은 하다못해 관련 단체에게 사용료가 지급된다고. 같은 방식으로 만약 택시인공지능이 계속 택시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 아마 예술품처럼 대를 이어서 데이터제공자들이 돈을 받겠지. 가상인…… 전자인간이면 거기에 들어간 모델들의 몸짓과 목소리들이 쓰일 테니 모델들에게 사용료가 지급되겠지. 그리고 그건 끊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끊기지 않아야 된다고 봐. 엄연히 사용료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역시 IT, 컴퓨터공학이 있죠. 데이터 사용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는 데이터 사용료를 고객이 냈었는데요. 신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 아닌가요? 그냥 하드웨어 사용비인가? 그럼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데이터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아니라 통신망 제공(Offering Network), 통신망 요금(Network Fee)일 텐데.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동영상 통신망 사용량(Video Network Usage).”

“그 원래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름 제대로 모르고 틀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아, 이걸 좀 다른 애한테 의사 얘기 나와서요. 수술실 벨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술하는 의사의 손짓과 간호사의 포지션을 전부 기록하는 정책이요.”

“그건 환자와 의사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해. 소수의 의사로 인해 다수의 의사가 돌팔이 의사로 불려야 한다면, 환자도 마찬가지야. 환자도 소수의 환자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불량환자로 취급되어야지. 의사 입장에서는 약 제때 드세요, 기름진 음식 드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안 지키는 환자는 불량환자니까. 환자도 똑같이 벨리 붙여야지. 그리고 실제로 손짓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편의점에서 물품 정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의사들이 그 수술을 하겠어. 실력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수술이 모두 기록되길 희망하는 환자는 그냥 처음부터 벨리 배치를 해도 괜찮은 의사를 찾는 거야.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환자라면 배치하지 않는 의사를 붙이는 거고. 대신 그만큼의 신뢰를 쌓아야지. 실력과 신뢰를 보여야하는 거야. 대신 환자도 마찬가지.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그냥 벨리 배치해야지. 병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기록해야하는 거야. 이런 건 중요하다고 봐.”

“벨리가 의사만 감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병세를 감시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어쩌면 병세가 중할수록 수술실이고 병실이고 환자의 상태를 썩 다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기록으로 인해 후대에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서비스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 서비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 하잖아?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지. 하지만 이런 의사 직업 같은 건 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 하잖아. 이건 헌신(Devotion, 獻身)의 개념이라고 봐. 국가가 왜 국민을 위할까? 무얼 위해서? 국가는 국민의 삶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나 삶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는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붙는 개념이지.”

“그럼 나라에 헌신할 의지가 있으니 공무원이 되고 생명에 헌신할 의지가 있으니 의사가 되는 거겠네요.”

“아니지, 함부로 뽑겠니? 헌신과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지. 능력도 되어야 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였는데 능력이 안 된다? 난 제복처럼 본인의 자유를 관리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제식과 같은 질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제복과 제식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게 바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 생존까지도.”

“맞아요. 꼭 순교, 순직, 순국이 아니더라도 자유를 할애해 다른 자유를 유지시키는 행위는 것도 희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보기엔 아직 처리되지 못한 희생이 있다고 봐. 즉, 죽음을 처리하는 행정용어 하나가 없다는 거야.”

“그게 뭔데요?”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

“일반인이요? 그런데 전 그 ‘일반인(General)’의 기준이 애매해요. 어디에 속하지 않은 상태라니.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난 그 뜻을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라 보고 있어. 왜? 능력주의 사회니까. 즉, 여기 우리 같은 미성년자에 학생들도 일반인에 포함된다는 거지. 더 나아가 취업준비생, 미취업자들, 노인, 가정주부 같은 이들. 직업은 반드시 삶을 전제로 하는 노동을 말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 일반인들이 돈을 받는다면 아마 장학금이나 지원금 정도의 차원이겠지. 급여가 아니란 소리야. 나머진 불로소득에 해당된다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반인들이 현대사회의 문명에 살아가면서 평소처럼 개인에게 맞는 일반적인 삶을 살다 사

고로 죽어버린 경우. 예를 들어 볼게……. 우리 같으면 학생이 일반적으로 뭘 할까?”

“공부를 하겠죠?”

“그럼 수업 중에 사망한 경우는? 학생이 만약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를 처리하는 행정용어가 없지 않아? 어디 자발적인 여행에서 당한 사고가 아니라 학생이 수업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에 사고가 난 거잖아? 취준생이 공부하다 사망을 했는데 고독사라고? 만약 이걸 단순 사망처리를 한다고 치면 군인이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사망 시에도 단순관통사로 처리해야지. 무슨 순국 같은 게 어디 있어? 적어도 일반인의 일상 속 죽음. 순반(General Death, 殉般)과 같은 행정용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엄연히 현대문명이 만들어준 그 ‘일상’이란 현실과 싸우다가 사망했잖아? 그래도 순직, 순국, 순교자들과 비슷한 보상안과는 어울리지는 않다고 봐. 하지만 적어도 시체 처리는 해야 한다보는 거지. 인권적인 걸 떠나더라도 자연적인 처리가 안 되는 환경이라면, 대부분 유리나 30cm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인공구조물일 거야. 시체의 특징은 질병에 아무 저항을 못한다고 생각해. 자연에 뿌려지면 이게 그냥 알아서 해결되는데 인공구조물 내라면 계속 방치되다가 말도 안 되는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일반 시체를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이런 건 보건 의료체계의 큰 구멍이 될 수 있으니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일 수도 있지. 더해서 일반인이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집단. 사회적으로 직업물 가진 순간부터는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일반인 행세를 한다는 건 실상 ‘일반인코스프레’라고 봐야지. 이러한 일반인들까지에 대한 혹은 더 넓은 영역에 대한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있어야 진정으로 모든 인간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 즉, 심판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 물론,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일반인이라는 정의는 또 다르게 쓰일 거야. 아마, 과학 쪽에선 돌연변이나 기형이 아닌 경우로 분류되겠지.”

“사회적 일반인이라 시민으로서 투표권은 있지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없는 상태. 어쨌면 너무 소외된 계층이라 적절한 행정용어마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리고 아까 공산품과 명품은 정리가 됐는데 예술품들은요? 그런 건 대량생산도 소량생산도 아니잖아요.”

“작품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매기면 되지 않을까? 그 게임에서 등급 매기듯이. 일반(General), 희귀(Rare), 영웅(Hero), 전설(Legend), 유물(신화)(Legacy), 고유명사(Proper Noun) 같은 걸로 나뉘어서 그 기준에 맞춰 인세를 부과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작가가 만약 사인을 했다? 그림을 그려줬다? 그럼 바로 자유경제 태워버려야지. ‘펜인데 싸인 책 너무 비싸져서 못 사겠어요.’하면은……. 꼬우면 돈 버시든가, 이래야지.”

“전설 급 소설(Legend Novel)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고유명사는 뭐예요?”

“너무 독창적이어서 그냥 장르를 매기거나 할 수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성경’이나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

“…….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어요……. 그리스 로마도 비록 신화지만 꺼줘요.”

“하하, 맞아 수아야. 그게 그리고 왜 되는지 알아? 분명 신화인데?”

“왜 되는데요?”

“신화 주제에 나라이름을 썼잖니. 나라이름은 고유명사잖아. 신화치곤 일종의 반칙인 셈이지. 그리고 불경도 있어. 어, 굳이……. 수아야, 굳이 그 급이 아니더라도 수아 급 소설, 해운 급 소설 이런 것도 돼. 왜냐면 그 원래 자전적 소설 있잖아? 그것도 사실 반칙하는 거야. 왜냐면 내 삶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걸 소설에 녹아내리면 그냥 고유한 거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잘 커트 해야지.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인세 받으려고 자전적 소설 쓸 테니

까. 근데 ‘독창적’인 게 결국 주관적인 거니까 애매하긴 해.”

“언니 말은 ‘쉽게 이겨내지 못할 삶을 이겨낸 이들의 발자취들 혹은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 곳에 도전해 빚어낸 내공으로 자신만의 삶을 담아낸 발자취.’ 고 유명사등급은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하, 네. 언니 자전적 소설 많이 쓰세요. 돈 많이 버시겠네요.”

“하하, 수아야. 자전적 소설은 돈 많이 못 벌 거야. 순문학이잖아.”

“그건 뭐예요?”

“순수 문학. 정의가 다양하긴 한데 대충 내 생각으로는 어떤 생명체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는 거야. 나비든, 나무든, 인간이든 그 삶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긴 해.”

“아, 약간 다큐 같은 거네요. 확실히 다큐영화보단 그냥 상업영화가 돈을 더 잘 벌긴 하죠. 마치, 저런 삶이 왜 일어날까하는 분석력, 전두엽을 요구하는 다큐와 워낙 환상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람의 여러 기관을 자극하는 인식력, 후두엽을 요구하는 상업영화처럼 말이죠. 이 차이가 맞을까요?”

“어……. 뭔가 되게 엄청난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내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맞는 것 같아. 원래 ‘장르문학(Genre Literature)’이라는 말을 쓰는데 언니는 언니 기준으로 볼 때 그 말 보단 ‘상업문학(Commercial Literature)’이 더 맞는 표현 갖기도 하고. 왜냐면 순문학과 상업문학은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다큐는 삶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업영화는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이런 정리를 하는 의의가 뭘까요?”

“바로 소설 혹은 영화, 음악 같은 창작활동을 할 때 연구했던 캐릭터, 연출, 음열 같은 것을 특허(License)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지.”

“창작자 고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군요.”

“맞아.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제도가 없잖아? 원래는 있어야 창작물에 대한 가격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참에 무료라라도 취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특허의 목적이 아닌 논문(Thesis)의 목적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예전 시대에는 왜 안 됐을까요?”

“기술문명의 발전 덕분이지. 이게 바로 빅데이터베이스단지의 유용함이고. 이제야 비로소 공식적인 예술품의 작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봐. 하지만 현재는 예술논문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본부터 다지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야한다는 거지.”

“의의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술분야에 특허와 논문체계를 확립하면 후대, 인류에게 얻는 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업적인 측면에서 더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 어떤 캐릭터를 계승하는지, 그리고 몇 세대 캐릭터인지. 생김새도 다르고 캐릭터 성격도 아예 다른데 같은 이름을 쓸 순 없지. 각각 특허를 내야하는 부분이라고 봐. 그리고 굳이 같은 이름을 써야한다면 ‘누구누구 2세’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러한 특허를 가진 수많은 캐릭터와 사건, 선율 등을 조합해 재설계하여 소설, 영화, 음악 같은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지.”

“이수아는 이수아처럼 생겼죠. 이수아는 장해은처럼 행동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안 생겼죠. 만약 동명이인이 있다면 이수아A, 이수아B로 구분을 해야겠죠. 특허에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설가, 예술가들에게 월급(Salary)이란 걸 줄 수 있겠지. 방금 나눈 등급을 봐봐. 일반은 그냥 인턴, 희귀는 한 대리나 과장쯤 되겠

지. 이런 논리로 부장, 이사, 사장까지. 끝에 고유명사는 하나의 기업명이 될 수 있을 거야. 어, 이런 식이면 아예 소설을 창작하는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작가들이 팀을 꾸려 대하소설을 적든지 할 거야. 심지어 이 공식은 만화책 하다못해 문제집까지도 적용되겠지. 문제집 역시 문제유형 하나를 설정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잖아. 기존에 공식을 교육받은 대로, 기업이 추구하는 작품성, 실용성을 포함하며,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현실은 웬지 다를 것 같아요.”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실력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니까. 그건 짝수가 노란 신입을 얼마나 기업이 잘 뽑느냐에 달라지겠고. 게다가 굳이 개인이 안 해도 돼. 게임만 해도 봐봐. 1인 창업해서 돈 번다고. 굳이 회사가, 기업이 사람 많을 필요도 없는데 뭐. 단, 소설도 하나의 개인사업자가 되어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왜? 돈 벌잖아. 이 언니는 제발 수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기업가들, 기술가들 모두 소설이든, 만화든, 문제집이든, 폰이든, 속옷이든, 백이든, 로봇이든, 자동차든, 인터넷 방송이든 다 좋으니까 시청자 수 수천 명, 상품 수 수 천 만, 수 억 개씩 막 팔아냈으면 사회에 좀 영향이 있게 됐다 자각했으면 좋겠어. 어, 평소 행실 좀만 잘 하라는 말이라고 봐도 되고. 뭐, 이게 내가 할 말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말하는지는 알 거야. 그러니까 뭐 솔직히 사람 털면 먼지가 안 나겠냐. 경범죄는 저지를 수 있는데 무슨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고. 그건 솔직히 각오를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 가끔 보면 인지부조화가 온 건 서비스를 펼치는 사람이 온 것 같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도 이제 작가지망생, 서비스를 하는 쪽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걱정이긴 하고. 그래도 난 적어도 각오를 할 거야. 이 언니는 언제나 감옥에 들어갈 각오가 돼있어.”

“그것도 현실이긴 한데……. 아니! 전 기업 내에서의 현실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기 부장급 정도 돼야 소설의, 영화의, 음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 꼬우면 실력을 쌓든가 다른 커리어를 쌓아야하는 거고. 아니면 인턴 정도에서 틀린 단어 같은 거 잡겠지. 어, 버그 잡는 거야. 그 후에 문단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후에는 설계된 디자인대로 집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그 모든 편집과정은 형상관리체계로 육하원칙모두를 전자이력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체계, 로직 자체가 없으니 예술가들끼리는 그저 존경을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거라고 봐. 난 이게 전부 세어나가는 값이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굳이 소설을 쓰는데 기업이 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기업인을 봐봐. 몇몇은 그냥 앉아서 혼자 기술을 진보시킬 때가 있는걸? 그런 케이스는 제외해야 한다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내 글도 막 등장인물, 여러 사건들 다 특허 내야한다고 보는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 체제자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거고, 물론 난 그 전에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도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고.”

“이것도 소설이 장르소설이 될 수 있다는 시각 아래서 파생되는 효과가 되겠군요.”

“장르문학이란 말 자체는 이 두 문학의 상위 개념이야. 즉, 상위 클래스라고. 순문학도 한 장르로 봐야지. 하지만 추구하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 이런 개념이면 만약 순문학을 기업으로 만들면 그곳에서는 다큐 같은 소설이 뽑히지 않을까 싶네? 하여튼, 난 그래도 자전적 소설을 이제 쓰는데 너무 재미없을 게 뻔하니까 고민을 쪽 해봤거든? 내가 하는 짓거리를 고민해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장르적인 부분을 얼추 간 맞게 섞어 버릴 거야. 아예 대놓고 소설 첫 장부터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내 의사표현을 강하게 밀어붙여버리는 거지.”

“마치 게임 하는 거 같아요. 게임에서는 죽어도 폭탄, 필살기는 다 쓰고 죽으라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박아 넣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더 강한 시
사점과 내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형식을 갖춘 채 그려내는 거야. 마치 도수가
엄청 강한 술을 목으로 넘기는 식으로. 그러면 순문학의 하드함과 상업문학의 소프트함이
공존하는 소설이 되겠지. 장르는 과학에, 종교에, 예술 뭐 있는 거 다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있는 거고.”

“강한 맛을 내는 요리도 잘 만들면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맛을 내는 요리도 삼
삼하게 배치하면 역시 맛이 있겠죠.”

“맞아, 언니는 그걸 노리는 거야. 왜냐면 사실 글을 쓰다보면 늘 순문학, 상업문학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거든. 어느 정도 나 스스로 깨달은 거지.”

“어떤 걸 깨달았는데요?”

“더는 이 양자택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아까 말했지? 문학에 대한 정리를 할 경우 순
문학 역시 장르문학의 일종이라고. 현재 불리는 장르문학은 사실 상 상업문학에 가깝다고.
즉, 모든 장르를 한 번 씩 다 써보는 거야. 왜? 자전적 소설. 내가 접했던, 내게 영향을 주
고 있는 거의 모든 장르와 매체를 써야하니까. 우리 수아가 좋아하는 게임마저도.”

“……. 게임은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이잖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게
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까요? 웬지 그 쪽에서도 순수게임, 상업게임이 나뉠 것 같
아요. 돈을 벌리게 하고 싶으면 사회 통화를 게임 내에서 거래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여
자며 남자며 다 헐벗으면 되죠. 자극적으로. 언니는 어때요? 또 게임코딩을 공부했었잖아
요.”

“그래 뭐, 게임이라고 별 거 있겠니? 아, 요즘은 또 달라졌어. 문학이랑 똑같진 않더라고.
개발은 비슷하게 배 굵어가면서, 겨우겨우 정부나 어디 투자자들에게 지원받아서 개발하긴
하는데. 대박이 터지면 개발자들에게 인세가 붙고,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 N
분의 1로 나누는 거고. 그건 개발자들이 알아서 합의할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무슨 급
무슨 급을 유저들이 알아서 평가해 줘. 막 이 게임은 이런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어떻다 하
면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유저들이 평가해주지.”

“아,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개발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을 게 아니라 개
발하고 나서 여유롭게 낙을 즐기는 거군요. 자신의 노동이 데이터로 남아있으니까. 뭐, 그게
예술가들의 삶이긴 하죠. 어차피 게임이 국가 아니면 세계 데이터베이스단지로 들어가니까
따로 서버운영비용도 필요 없고 말이지요. 문제는 질과 비즈니스모델의 균형이겠네요.”

“……. 맞아. 아무리 자신의 가상을 표현한 작품이라도 일단 현실에 나온 시점이니 가상이
아니잖아? 그럼 자본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선 게임에 대한 정량적인
가격이 매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 게임을 제작사에서 찍어낸 공산품 정도로 인식하는 거
지. 왜냐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관련 장비, 개발인원, 배포과정이 보면 실제 공장
처럼 움직이니까. 그럼 정량적인 금액은 장비 가용, 인건비, 배포 마진을 기반을 두고 라이
센스 가격이나 광고비용, 브랜드네임 같은 게 묻겠지. 그래도 아마, 게임이 거기서 거기인
가격이 책정될 거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리
고 개발이 완료되면 예술품답게 취급해야하는 거고. 그래야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근
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런 소프트웨어의 정량적인 가격책정은 단순 게임에서만
적용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로 확장시켜야 할 같아. 불공정거래. 사람들이 전통
적인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만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거래가 성사된다고 생각해.

뭐 직접적인 예시가 맞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으로 게임을 실시하는 거야.”

“그게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다고요?”

“바둑을 둘 때에는 보통 인공지능이 값을 계산해 산출해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최적의 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사출한 후, 인간이 그 수를 보고 착수를 실시하는 거지. 최종 결정이 인간에게 부여된다는 거야. 그럼 정말 지나가는 초등학교 정도 되어도 바둑기사를 잡을 수 있지.”

“그게 그 인공지능의 성능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문제는 이거야. 전자 게임에서는 사람의 판단 없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이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 인공지능 개발의 전복이 지적된다는 거지. 게임을 이기기 위해 인간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거야. 순전히 게임을 이기기 위한 개발이 된다고 봐.”

“하지만 인간의 개입이 없어져서 더 효율적으로 된 것 아닐까요?”

“맞아. 하지만 그냥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만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실 상 ‘불법 핵 프로그램’이지. 인공지능보다 규모는 작아도 엄연히 의도는 같으니까. 이 의도를 조금 확장시켜 인공지능이 사회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수많은 불공정게임, 거래까지 닿을 수 있다고 봐. 소프트웨어가 정량적인 가격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란 것. 즉, 너도나도 소프트웨어 이해는 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는 그림. 그럼 자본논리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겠지. 아무리 서버며 갖은 보안을 걸어도 유령서버가 등장할 거고 온갖 복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지.”

“인간을 이기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최적화된 신종 범죄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는 인공지능이 인간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종결정은 인간이 내릴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시의적절한 인간이해관계가 성립되니까. 그리고 정 최적화된 인공지능개발을 하고 싶으면 아예, 사회에 발 들이지 말라는 거고. 그런 최적화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거나 판단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 극단적인 시간, 그나마 사회 내라면 위급상황에 인공지능 판단이 적합하다는 거고. 어, 이 언니는 다른 게 아니고 벨리 말하는 거야.

“기래요. 흠, 그래도 언니 말을 굳이 예를 들자면 벨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심해탐사 혹은 행성탐사이 있겠네요. 그런 극한상황에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라면 항상 경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수예요?”

“완전난수(Perfectly Random Number, 完全亂數). 그냥, 아무도 이해 못하는 수. 쉽게 바둑으로 치면 막 두는 거지. 이걸 해킹과도 관련된 말이니까.”

“그렇군요. 애초에 게임에 대한 승부는 관심 없고 기계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두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만약 그 기계가 맛이 가는 순간 승패가 어떻든 선수가 이기는 거지. 인공지능을 이길 사람은 바둑기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코더들이라고 보는 거고. 없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 없는 식을 다루는 것에 대한 오류를 코딩 작업 전에 훈련을 하는 거지. 즉, 인공지능이 데이터 기반 방식이든 연산 기반 방식이든 다른 제 3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고. 데이터에 악수(Bad Move, 惡手)를 한번 학습시켜봐. 그리고 의미 없는 연산 식을 던져줘 봐. 인공지능이야. 기계라고. 기계가 누굴 닮겠어? 그냥 쓰

레기 데이터는 쓰레기 값 그대로, 의미 없는 식은 의미 없는 수식 그대로 연산이 시작될 거야.”

“그런 점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네요. 언니가 하는 말은 ‘바둑을 통한 컴퓨터 해킹시도’가 될 것 같아요. 연산 해킹은 이전부터 있었던 방식이고 인류가 빅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한 이래로 새로 등장한 해킹법이 메모리 해킹 방식이죠. 개발의도를 벗어난 데이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이 완전 이상한 값을 출력하려하는 것 자체가 해킹시도라는 거죠. 거기에 대응을 하면 또 해킹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또 보안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이런 쳇바퀴를 보통 ‘업데이트’라고 하죠.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흔히 자료는 지식이고 연산처리는 지혜라고 하지. 현실은 지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으니 연산,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식이 모두 제거당해도(Eliminated) 지혜만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나는 자율주행만으로는 사고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봐. 왜냐면 지식이든 지혜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지않아.”

“하긴, 운전자는 생과 사를 오고가는 사고 상황에 직면했어도 세 가지, 액셀과 브레이크, 핸들을 조작하게 되죠. 이걸 센서를 곤충 눈처럼 여러 선(Ray)을 보게 한다든지 해도 소용 없어요. 어차피 인공지능도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지니까요. 그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겠어요, 에어컨을 켜겠어요? 심지어 요즘 기업들은 안전장치를 하나씩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막 A필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디자인도 보이고요. 홀로그램 도입도 아니고 글썽, 아예 A필러 삭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난 여러 기사 중에서 운송수단 캡슐화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봤어. 역시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더라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유린돼 캡슐화는 무슨……. 그래도 취지는 좋으니 대형운송수기들부터 먼저 적용되길 바랄 뿐이야. 그런 거는 우선 전면이 다 유리이지는 않잖아?”

“그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매커니즘 하나 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리고 차에 포함되는 건 이론차도 있다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설득시켜야한다고요.”

“맞아. 사람의 욕망. 거기에 따른 승부, 그리고 이어지는 현실. 자유란 무엇일까?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보금자리를 짓밟아도 자유라고 할 거야? 그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아무런 이유, 논리적 이유까지 없다? 이건 그냥 어리광부리는 거라고 생각해. 어른이 어리광부리는 거라고. 아니면 진짜 어딘가 문제 있는 사람이거나.”

“자동차 꼬리 물기, 신호위반에 인터넷에선 허위정보, 음란물유출. 정말 면허체계를 잡아도 사고는 끝이 없이 터지긴 하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이게 참, 현실이죠.”

“그래도 그건 의도가 있어. 도로는 아마 더 빨리 목적지로 가 쉬거나 활동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는 그런 데이터로 돈을 벌어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언니가 말하는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난 지금 완전 거지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걸 불태우고 싶어. 그럼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자차로 휘발유를 ‘가득이요!’하면서 채우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는 휘발유를 다른 곳에 옮겨놓는 거지. 드림통 하나가 200L는 되고 덤프트럭이라면 한 줄줄이 5~6개는 들어가지 않을까? 꽤 양이 모였다 싶으면 디테이를 잡는 거야. 그리고 디테이 날 뚜껑 열어서 유증기를 모은 다음에 타깃 지점으로 가 밀어버리는 거야. 법원이든 경찰청이든 뭐든. 아니, 굳이 밀 필요도 없겠네. 암전히 앞에 다 주차한 다음에 유증기 확 열고 라이터 켜면 끝나는 거 아니야.”

“…….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아파트처럼 뭉쳐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이 되겠네요. 뭐 그

래도 짜피 이젠 스마트하우스가 인프라넷으로 다 연결되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언니 발상은 예전 방식이네요. 요즘은 거의 전기차라 안 될 거예요.”

“하긴 뭐 내가 옛날에 관심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글썄……. 전기차를 활용한 테러도 과정 자체는 똑같지 않을까? 충전소에서 가득 채운다음 집에 와서 충전지에 넣어두었다 학살 로봇에 연료로 쓰는 거지. 그럼 ‘전기세(Electric Bill)’이라는 감시망에선 벗어나겠고. 하하, 애는 내가 진짜 하겠다는 말이니? 물론, 나 같은 사람이 더 옛날에 살았다면 아마 일등석 열차 칸에다가 불붙인 석탄을 한 삽 퍼서 던져버리던가 했을 거야. 뭐, 옛 영화 보니 앞쪽에 그 고귀하신 분들 많이 탄다더라고?”

“하긴 언니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인프라넷이 마비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되겠죠. 그리고 뭉쳐 지내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선 옛날 전화기? 복사기시절이 있었다는데 그때처럼 우편 배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프라넷이 마비되는 시점 혹은 대규모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아마 전화선이나 도로교통망도 마비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굳이 전쟁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연락망 트래픽 과부하에 도로는 응급차량으로 가득할 거야. 하지만 그 아비규환 중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사진을 본 것 같았어.”

“사고나 범죄에는 수습이 필요한 법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질서를 지켜야 최대한 빠르게 수습이 진행될 거예요. 너도나도 도로에서 엑셀 밟으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이 나라에는, 이 도시에는, 이 현실에는, 이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 봐요. 그래야 내가 더 빠르게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요. 뭐, 나는 VIP라 엑셀 뺨찮다? 이젠 그런 판단하면 다들 엑셀 밟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자신이 VIP라 생각할 테니까요. 아, 전쟁은 뒷수습도 못하는 지경일 거지만.”

“그래. 그리고 전쟁을 제외한 시나리오는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봐.”

“그렇죠. 끝난 게 아니죠. 예방책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바로 휘발유가 무겁다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니 시행이 잘 안된 거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요즘은 더 기술이 발전했으니 더 다른 방식이 있을 거야. 데이터는 휘발유에 비해 가벼우니까 아마 앉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 내 생각에는 아마도…… 예전에는 ‘다 터졌으면.’이라면 요즘은 아마 ‘다 벌거벗었으면.’일 거야. 이걸 예방하는 거는 전자의 문제가 되는 연료를 허가된, 훼손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단 차에게만 주유하고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인원에게만 판매하면 어떨까? 단속은 한 번 씩 차량과 면허증 조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신분이 증명되잖아? 후자는 예민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판단해 물어보는 거지. ‘정말 이 정보를 공유하시겠습니까? 공유한 지점과 유포자의 신분이 국가에 노출됩니다.’는 식의 문구를 띄우면서 말아야.”

“그렇죠. 나체 사진이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테니까요. 의료 쪽 특히 피부 쪽, 외과 쪽은 환자의 맨살을 봐야하는 경우가 필요하죠. 근데 언니 말대로라면 대포차나 대포폰도 막을 수 있겠는데요? 등록이 안 된 차는 연료를 못 넣을 테죠.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연료를 막는다는 개념, 충전을 막는다. 충전기가 본인의 핸드폰만 충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벨리도 마찬가지로요. 어쨌면 그 단계서부터 보안이란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완전난수. 인간의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자유가 욕망으로 변질돼서 진정 해방되면 종류나 규모면에서 그건 광기,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 이런 난수들이 기술진보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언제까지나 안전할 때겠지. 그리고 사회가 버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 사회를 공격한다는 차원으로 완전난수가 들어왔다? 이미 끝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전난수의 착수 자체를 막는 것.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

“같은 로켓엔진을 쓰더라도 ‘발진(Launching)’을 실행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착륙(Landing)’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안전한 기술진보인 우주선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왜 캡슐로 귀환하고 그리잖아요. 인공위성이라면…… 궤도에 안착시킨 게 착륙한 거겠죠. 그런 게 다 착륙 아니고 뭐겠어요. 하지만 만약 착륙이 없으면 그대로 무기가 되는 거죠. 미사일의 방어로써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발사를 막는 것. 그런데 그러면,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어찌죠? 그건 범죄가 아닌데요?”

“그건 ‘안전(Safety)’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 즉, 안전불감증(Safety Frigidity)라고. 그리고 지금 편의점 물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여태 언급한 것은 휘발유를 사는 행위야. 말 그대로 휘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 될 수 있다고. 이건 성질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확장해서 데이터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런데 그건 다 우리만의 상상이야. 왜냐면 그런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언급하기 싫어진다, 이거지. 난 이런 걸 진정한 의미로 ‘범죄불감증(Crime Frigidity)’이라고 하고. 물론 너무 사람 못 믿고 그러면 범죄염려증(Crime Neurosis)도 겪겠지? 즉, 사람 사회에는 활동 가능한 염려수치와 불감수치 안쪽 영역의 적당한 신뢰수준이 필요하고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 정리해줘서 고마워. 이 언니는 수아에게 고마운 게 있어.”

“그래요.”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의 완성은 가용했던 자원을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야 정부가 개인이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서를 편성하거나 뒤처리를 할 거 아니야? 완벽한 뒤처리는 바라지도 않아. 이건 마치 코딩에서 메모리릭 처리와 클래스 소멸자 처리와 흡사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자연이 알아서 소각처리 해줄 수 있을 최소한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처럼 말이야. 이건 내 옛날 얘기가. 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는 주의를 받았거든. 어찌면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기술, 정치, 과학, 종교를 모두 합친 걸 ‘문명(CIVILIZATION)’이라고 생각해요.”

해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해은은 특히 방금 나눈 주제에 대해 위화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는 갑자기 입이 닫힌 해은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는지 몰래 쳐다보았다.

“그 아저씨 생각, 될 것 같긴 하네? 내가 어찌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네? …… 뭐가 되는 대요?”

“개인 자동차 캡슐화 말이야. 내가 예전에 우리나라 지하철 사고 자료를 찾은 적이 있거든. 한 사람이 방화사건을 저질러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게 왜요? 그건 더군다나 다수잖아요. 우린 개인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지하철 좌석이 모두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바뀌었다는 거야. 승객이 의자가 딱딱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 재질을 고수했어.”

“흠, 아무래도 ‘지하철은 사용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 제공목적이 아닌 안전한 운송목적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엿보이는군요. 언니는 이미 불타버린, 아무 것도 남지 못한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르는 철학, 떡잎을 보려고 애썼네요.”

“바로 그거야! 철학! 그 철학을 가이드라인으로 계승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흠, 한번 미

래자동차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보자면 말이야. 전면 유리를 아예 제거하는 거지. 아예 자동차에 그 캡슐화가 이미 되어있는 거야. 어, 딱딱한 채로 달리는 거지.”

“네? 그럼 차 안에서는 무슨 수로 운전해요? 언니, 전방 유리가 없으면 운전자는 바깥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차가 다 인공지능화가 된다는 환상은 깨셔야 해요. 어차피 제조사별로 수준과 프로그래밍도 달라서 된다 해도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다른 차원의 안전이 필요하죠.”

“내 생각은 그 제거한 유리 패널을 캡슐 내부에 다시 설치하는 거지. 즉, 전면 유리를 전면 디스플레이로 변경하는 거야. 이러면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도 제거가 되고 트럭,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 경우 역시 사각지대가 훨씬 줄어들겠지.”

“그럼……. 이론차 역시 아예 의자와 일치되게끔 자세를 고정하고 단단한 커버를 씌워버리면 되겠네요. 바퀴와 엔진, 여러 엔진기관들은 여전히 노출되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보호대상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뒤를 보는 사이드거울 따위는 필요 없겠지. 이러면 오히려 디자이너들도 반길 수 있을 거야. 이 디자인의 철학 역시 ‘안전(Safety).’ ‘자신의 다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는 것.’ 이 자체가 일종의 인간만의 환상이잖아? 이러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현실 자동차의 주목적은 산책이 아니라, 안전한운송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봐. 물론 모든 면이 다 디스플레이다 보니 맨눈으로 경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난 되묻고 싶어. 맨눈으로 경치를 보고 싶으면, 차를 멈추고 내려서 직접 봐야하지 않을까? 자동차라는 도구를 경치 보는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난 자동차의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

“그럼 자동차학원도 달라지겠네요. 도로주행 장은 없어지고 그냥 학원 안에서 캡슐장비에 들어가 미리 도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치 게임하는 기분 들겠어요.”

“하지만 실전 공부는 해야 할 거야. 즉, 결국 도로에 나가서 시험을 본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도로주행 장이 없어지진 않겠지. 거기다 도로주행시험 역시 그대로 존재할 거야. 아마 연수도 그대로 존재할걸?”

“그렇겠네요. 하지만 더 핵심인 건 역시 돈벌이죠. 이런 차량이 대중화가 될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기업. 이런 예측이 필요한 것도 정말 이러한 디자인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비전이 유망한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투자 못 받거든요. 여튼, 이 시스템의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당연히 디스플레이겠죠. 그리고 그 자동차의 눈이 될 수 있는 카메라도 있겠고요. 하지만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작고 성능이 좋아야 할 거예요. 아예 외관 색상을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것도 좋겠어요. 이러면 자동차 외관색상을 플랫폼으로 하는 사업도 나올 수 있겠고요. 주 인력은 디스플레이에 인터페이스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코더들. 히히, 레이싱게임엔진 개발한 분들이면 괜찮겠네요. 이런저런 말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어쨌든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겠지. 하지만 이 언니는 그 기업들, 다 믿지 않아. 오히려 아예 안 믿지. 사람이 많잖아.”

“게임에서도 사람 3~4명만 모아도 가끔씩 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대기업의 구조가 아무리 잘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부분에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언니는 같은 맥락에서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결국 나라도 사람이 많잖아. 그 요즘 벨리가 아이스크림 결제에 심지어 기업 면접까지 해준데. 말 그대로 자동화야. 여기서 어떤 진정한 범죄가 일어날지, 야기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봐. 하지만 현실은 범죄까

지 일어나진 않겠지. 대다수는 범죄까지 일으키진 않는다고 봐. 그런데 자동화는 판매자, 면접자 입장에서 편하지? 면접자에겐 자유가 좀 더 늘어나잖아? 손님은? 물건 하나 빼먹었다고, 포장지 하나 결제 잘못했다고 욕을 먹어야 하지. 즉, 이런 성숙하지 못한 자동화 시스템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대기업 면접을 벨리로 진행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기계이기 때문에 그 전형에 맞는 또 다른 학원이 생길 거야. 점수로 선 그어서 뽑는 거에 변별력이 떨어져서 전형을 하나씩 추가해 결국 면접이란 전형을 만들었으면서 말이야. 과연 어떤 프로세스 잘못된 걸까? 지원자들이 바보여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걸까? 여기서 자동화란 것 때문에 인간 신뢰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앞서 말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럼, 아예 튼튼한 가이드라인 따라서 벨리로 회사,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요? 나라를 만들면 어때요?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대략 한 10만 개정도 만들면 그 중에서 대기업, 강대국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농담이에요. 심각한 농담이죠? 제가 이래서 재미가 좀 없어요. 하하.”

“상품이 뭐든 간에 불로소득이 과잉으로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 하지만 현실은 그 작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수치화 되지 못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함께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라지니 남는 것은 불편한 진실뿐인 것 같아. ‘제발 결제 좀 똑바로 해주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답답해서 ‘제발 사람 좀 써주세요!’라는 말을 해야겠지. 왜? 이런 문제는 실은 알바생 하나만 고용해서 뒤도 해결되거든. 심지어 이 사실을 판매자, 손님 모두가 알고 있고. 여기서 자칫 사회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한 세월이야. 왜 화장실에 오죽하면 ‘제발 변기 안 막히게 해주세요.’라는 문구 있잖아. 변기, 사실 이것도 기계잖아. 모두 원활히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기계만 쓰는 걸 추천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이야.”

수아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해은은 잠시 후 그 한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해은은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린 도시를 보았다.

“공사산체제. 아니, 기계나 이런저런 것들 다 잘 되라고 만든 건데 잘못되면 어떡하죠? 여기..... 운동장도 작은걸요.”

“그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 거야.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다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둘 다 다룬다. 수아야, 근데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본 것뿐이잖아? 굳이 억지로 국가씩이나 되는 걸 가지고 연합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싫다고 하면 그냥 우리끼리 어찌면 그냥 우리 동아리에서만이라도 시행하고 끝내는 것도 한 방법 같은데? 둘 다 취한다는 것은 글썄..... 정말 이 짓을 하겠다면 정말 무모한 도전 같긴 해.”

“언니가 말했죠.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 모두 스스로 참이라고 생각해서 막 내지르는 거라고 봐. 물론 그 중에서도 속이고 사기 치는 이들이 있겠지만 정말 소수라고 보고 실상은 다 자신 기준에서 모두 참을 말하고 있는 거지. 다만..... 내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거야. 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전문가니까. 모두 자신이 처한 현

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보이는 대한민국의 형상과 현실이 달라지는 거지.”

“에휴, 여긴 그럼 또 너도 나도 왕과 여왕이라고 외치겠네요. 어질어질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곳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원하는 행위는 옛 행위를 계승하는 거죠. 전부 왕이 되거나, 전부 노예가 되거나. 왜, 민주주의 반대는 ‘전제군주제(Despotic Monarchy, 專制君主制)’잖아요. 한 사람이 까라면 까야하고 죽으라면 죽어야하는 제도. 입헌군주제랑은 다른 거죠. 완전 왕권이 군림하는 시기. 뭐, 이해해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무언가를 알고 깨닫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수아 말대로라면 문맹률이 낮을수록 민주주의 정도가 높아지겠구나.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힘을 가지니 말이야. 그리고 IT기술이 접목되니 그 아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맞아요. 민주주의란 그런 거죠. 저는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국민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한 대표를 선출할 것이고.”

“그 대표는 다시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하겠죠. 아니면 다른 걸 하던가.”

“사회주의의 수뇌부들도 결국 국민이지. 자본주의의 대중들도 다 국민이고.”

“어디까지가 국민의 영역인지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치를 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여태 말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모두 가지고 있죠. 책임 분산 형태를 취한다는 거고. 왕이 혼자서 다 지면 결국 나라에 피를 볼 일이 생기니까요. 민주주의에서는 혼자서 도장 팡 찍는 일은 없어야죠. 단, 너무 전문적인 일들은 따로 사람 채용해서 소수 정예로 하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 사유가 모두 공감할 사항이어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원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고요.”

“음 뭔가 복잡하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민주주의가 가장 상위클래스고 그 아래 공산주의라는 중뿌리, 공산과 사산을 각각 하위클래스를 두는 거고 사회주의로 갈지 자본주의로 갈지 농도를 정하는 것이 중뿌리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거겠네. 예를 들면 100석의 공산진영, 사산진영 대표를 정확히 50:50로 나누어 선출하면 과반수가 발생되지 않지. 그럼 원천적으로 세력 싸움이 불가능하게 돼,”

“그러면 국회에서 무슨 법을 제정할 수 있나요? 과반수가 발생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될 텐데요.”

“흠, 잠깐만. 과반수 시스템이 아니라 초과반수(The Deluxe Part, 超過半數)면 어떨까.”

“초과반수요?”

“예를 들어 A, B 진영이 있을 때 A진영의 반수의 인원으로도 B진영의 인원수를 넘어선다는 거야. 이렇게 초과반수가 발생해야 법제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일까요? 인원의 반으로도 상대진영을 이길 수 있다.”

“2/3지점이겠지. %로 따지면 한 66~67% 정도 될 거 같네. 100인 이상이면 소수점 아래를 버리든지, 이하면 소수점 아래를 인정하든지. 따로 정해야겠지. 아마 이 수치는 기존에도 다루고 있을 거야. 이어서 말하자면, 대표들은 국민을 위한 법제정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진영이 동등한 권력을 갖게 하되 설득이나 정치로 다른 진영사람의 이념을 변형하든지, 아니면 진짜 답이 확실한 사안만 다룬다든지 해야 한다는 거야. 다만 하지만 실상을 까놓는다면.....”

“공산, 사산. 철학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공유재산철학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공공재인 발전소, 도로며 법원까지 이런저런 사회적 인프라가 모두 한 개인이 운영해야죠. 물론 민영화가 되니 가능은 할 거예요. 하지만 필연적으로 나라단위, 지역단위의 차원에서 가치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공유재산철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이 공산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

“문제는 사람이죠. 공산원들. 플랫폼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려는 사람들. 거대 플랫폼은 무조건 여러 가치를 낳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을 직접 가지는 것 보다 플랫폼을 활용한 가치창출이 더 클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은은 잠시 왼쪽 겨드랑이를 주물렀다. 땀이 조금 차는 것 같았다.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땀을 닦아내었다.

“이해를 못했군요? 제 말은 이거예요. 도로 운용을 직접 하는 것보다 도로를 통째로 기증해버리고 도로 옆에 광고판을 하나 띄우는 게 사기업 입장에서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잘 닦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 지는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옆에 눈에 띄는 광고판에만 집나 관심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치면 인터넷망을 국영화로 전환하면 이런 저런 게임 대회나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 사이트가 활성화 될 거 아니예요? 그 피크 광고시간을 가지는 거죠. 왜? ‘기증했으니까 광고자리는 좀 해줘.’라는 식으로 할 수 있죠.”

“혹은 그 광고판 자리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겠네?”

“바로 그거죠. 딱 그거예요. 공용화로 해버리면 광고 삭제도 이제 불법이 될 거예요. 사기업들은 공식적으로 광고 수익을 걸겠죠. 그나저나 제가 하는 말, 언니는 바로 알아듣네요?”

“당연하지. 사실 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썼거든. 그런데 한 사이트가 쓰지 말라고 경고하길래 그때부터 쓰지 않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플랫폼도 더 안 보게 되었어.”

“왜요? 돈이 아까운 건가요?”

해은은 실소를 지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였다.

“재미없어졌어. 내가 굳이 돈 내가면서 볼 콘텐츠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좋아. 딱 끊고 싶은 시기를 못 잡고 있었거든.”

“아, 그럼, 요즘 뭐 보세요? 그래도 세상 소식 같은 건 보시죠?”

“TV.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아. 강, 광고를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뉴스를 하든 틀어놓는 거야. 심심하니까. 라디오 마냥. 거기서 참, 플랫폼에 관한 역사를 본 적이 있었어.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각종 자극적인 영상, 개인 방송 같은 플랫폼 사이트는 있는데 왜 게임 플랫폼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어.”

“흥미롭네요. 거기서 뭐래요?”

“흠, 딱 결정은 안 나서 그냥 언니 생각을 말하는 건데, 아마 게임 개발사들은 자신의 게임들을 제출할 플랫폼 제작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야. 어, 음악 개발자들은 코딩 능력이 없어서 플랫폼을 못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 음원사이트가 생기고 거기에 저작권 받아서 파는 식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쪽 세계는 저작권 인식이 세죠. 하지만 게임은요?”

“게임은 우선 그 시기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고 보고 있어. 거기다 플랫폼도 다 개인 개발사들이 제작할 능력이 되다보니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플랫폼을 제작했던 거고. 결국 게임 제작에 들어간 음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등 저작권을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 요즘은 아예 빅데이터단지에 게임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만 게임 소

프트웨어가 등록이 되잖아? 그리고 사용자들이 월정액으로 게임플랫폼 이용료를 끊으면 다운 수에 따라서 개발자들에게 돌아가고. 비로소 이제야 개발이 끝난 후에도 저작료를 받아서 사는 거지. 여튼 이걸 너무 많이 나갔다. 다시 돌아가자. 수아 말대로라면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맞아요. 공산진영 사람이 사산진영의 탈을 쓴 경우, 거꾸로 사산진영 사람이 공산진영 탈을 쓴 경우가 있겠죠. 그 농도는 아무래도 그 나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고요. 쉬워요. 공산, 세금 많이 떼는 곳이 공산 농도가 높은 거죠.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는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개인적인 답까지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공유해줘요.”

“공감이야. 서로 배려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되게 추상적이네요. 아쉬워요.”

“어, 이 언니도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긴 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Mass한 문제는 Mass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지. 즉 Mass한 문제에 개개인, Tip한 문제를 가져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관련된 걸 더 찾아봤는데 그 ‘한국인의 정’ 있잖아? 그런 거야. 언니는 여기서 ‘정(情)’에 대해 공부를 해봤거든? 아무래도 ‘사랑(Love)’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즉 ‘한국인의 사랑’인 거지. 하지만 너무 손발 오그라들고 살 떨리니까 대충 ‘정(情)’으로 통 치는 거라고 봐. 그런데 이런 ‘정’을 이제 주위에 보면 정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말이야? 그럼 바로 정 없는 사회가 되는 걸까? Mass하게 그 사람은 제외시키고 보편적인 값만 추려서 보니 정 있는 사회라는 거잖아? 이런 현실과 정의 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긴 하지. 하지만 결국 다른 나라도 똑같다고 봐.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마냥 나쁜 걸까? 그 현상을 잘만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꽤 좋은 경쟁체제를 갖출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주를 봐봐. 대다수의 공간이 진공에 무중력이야. 한편, 하나의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입자와 중력을 쟁취하고 있지. 어, 이미 자연에선 입자와 중력 관점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하지.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은 뒤에 균형을 가진 채 돌아가고 있어. 그 점을 본받으면 팬츠를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딜 가나 돈이 가장 큰 문제잖아? 너무 배려만 해도 안 되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아니다 싶으면 얘기는 해야 한다는 거야. 그걸 공론화라고 하지. 다만 공론화라는 과정이 너무 쉬우면 안 되는 것 같고. 하, 우리 연합 얘기했지? 연합이라고? 정 안 되면 그냥 마음 맞는 공동체끼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기회를 쥐도 잡지 않는다면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언어장벽은 표준어가 있잖아? 야, 우리 어차피 다른 지역사회 사투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 같은 한글인데 다른 말은 전부 비속어나 사투리로 하면 되지.”

“사투리와 표준어를 교육하고 습득하는 기간이 상당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고통도 무시 못 할 거고요. 심지어 이런 말 하는 저도 표준어를 잘 못해요.”

“하하, 연합이든 통일이든 아무래도 좋아. 이 나라에 그놈의 정나미가 떨어지면 그냥 이 나라를 떠날 것 같아. 아마, 대한민국보다 못사는 곳 무인도라는 데에 가서 살 것 같아.”

“오, 그렇군요. 근데 언니의 정나미가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예휴 뭐, 맞아요. 무인도에 간다는 것이 언니가 말하는 무중력, 진공상태로 떠나겠다는 거죠? 언니가 말하는 각각의 행성은 국가잖아요. 거기서 항성은 여러 국가에게 빛을 내주는 여러 법률과 이념, 기술들. 이걸 보통 문명이라고 하죠. 연합의 형상도 이런 거겠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자칫 문명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무리 강해도 돈 문제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구요.

그러니 무인도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다 비슷하게 따라하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빌미가 과학기술보단 종교나 철학, 정치, 이념문제가 더 컸죠. 다 돈, 권력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도 하나의 종교,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

“언니, 적어도 과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정해. 하지만 개인이 공상한 과학은? 물론 개인이 공상한 과학에서 새로운 진리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개인이 만약 전문가가 아니라면? 언니가 염려하는 부분은 한 사람이 만든 부족한 과학이념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전쟁은 국가가 원치 않아도 실행이 되는 거야. 개인 단위로 펼쳐지는 거니까 더욱 더 막기가, 알아차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 해결책으로 과학은 사실만 말해주면 될 것 같아. ‘우주에서 인간은 매우 작다. 그만큼 우주가 넓다.’ 이 사실을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보잘 것 없는 존재다.’라고 색안경 씌우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 누군가는 저 덩치 큰, 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보고 장난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런 잠재력을 가지는 게 개개인인데 왜 그 사실을 전달자가 판단 하나냐는 거지.”

“전 부디 뭐, 어떤 기술이든 잘 쓰길 바랄 뿐이죠. 전 그냥 그들이 혹은 우리들이 그 돈 가지고 위반은 해도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위반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정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에서는 사고 좀 치지 말자는 거죠.”

“……. 이해했어. 투자하는 개념에서 말하는 것 같네. 그럼 돈 버는 순위는 All-rounder, Arbiter, Athlete 순이겠네. Boundary가 넓은 것 역시 같은 순일 거야. 잠깐!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선수든 중재자든 이런 놀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긴 해. 왜냐면 언니는 판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 같거든. 주위를 봐봐. 먼지폭풍에 게임장이 전부 먼지로 뒤덮였어.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판을 벌리겠다고?”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돈 장난은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긴 하겠네요. 만질 돈도 없어지게 생긴 판인데.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로부터 이렇게 큰 위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뒷돈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아무리 거대한 감시기관, 강력한 언론을 둔다고 그리고 이런 말 한다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답이든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위반을 해도 좀 사고를 치지는 말라는 말이죠. 언니가 Mass한 건 Mass하게라고 했죠? 그런데 Mass를 다루는 중에 유독 꼭 Tip한 걸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말이에요. 과학과 종교는 Tip한 게 맞겠지만 적어도 기술과 정치는 Mass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Mass한 인류관점으로 보면 종교와 과학발전보다는 기술과 정치의 발전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깐요. 네, 저는 과학을 집밖에서 이런저런 뭐라도 가져오는 아빠 격이라 보고, 종교를 집안에서 이런저런 잔소리해대는 엄마 격이라 보고 있어요.”

“대다수가 만든 종교, 철학, 기술, 과학 모두 인간계 밖에서 보면 별 거 없어. 자연에서 보기엔 빠르게, 멀리, 강력한 도구를 제작하지 않아도 어차피 생명체는 살다 죽거든. 사후세계니 생명연장이니 전부 자연에서 보면 아주 조금 더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 하지만 언니가 말했지? 그 ‘조금’의 차이가 생각보다 조금 큰 것 같긴 해.”

“그 선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역사나 종교 쪽에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역사란 게 믿을 게 될까요? 어쨌거나 사람이 쓴 기록이고 결국 ‘승자(Winner)’들이 남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태 계승되고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신뢰도가 떨어지고.”

“글쎄? 과연 역사를 승자만 기록했을까?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 아닐까?”

“……. 그러니까 패자(Loser)도 살아남으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언니, 근데 역사점수 몇이예요?”

“……. 12.6. 언니가 좀 암기가 약해.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 하는 거야.”

“암기요? 글쎄요. 평계대지 마세요. 암기를 못하면 언니 코딩 못해야 정상인데요? 분명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글쎄, 혹시 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는 아닐까? 난 글도 쓰니까, 사실 역사를 공부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싫어서 책을 잘 안 보게 돼.”

“언니, 공부하면서 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언니, 국어랑 코딩을 하죠? 그럼 좋아하는 과목이 설마 언어, 알고리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쪽인가요? 맞죠?”

“정확해! 어떻게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어낸 거야?”

“하하! 저니까요. 전 언니 왜 역사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아……. 조금……. 알려주면 안 될까?”

해은은 절실한 목소리로 수아의 팔을 주물렀다. 수아는 해은을 노려보고는 다시 앞을 보았다.

“좋아요. 음료수 값이라 생각할게요. 그 과목들은 사전과 논문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충분히 아니, 아주 반복적으로 정보를 증명하였고 다듬고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즉, 여타 다른 과목 중에서도 아주아주 Official한 과목들이죠. 기술과 도덕도 시대에 따라 변해요. 하지만 위 과목들의 규칙과 법칙은 아주 큰 파장이 없는 이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언니 머리는 자동으로 허위정보나 약간이라도 믿을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있는 것이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아야? 역사학자분들 우시겠는데?”

“예를 들게요. 어떤 곳에서는 혁명이라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폭동이라 부르죠. 하지만 언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일걸요. 다른 비유로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언니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정보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연류 되었다,’ ‘이런 부분은 이래서 미진했다,’ ‘이런 규모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발생하여 이러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원한다.’ 정도 되고요. 언니는 그냥 이 정보만 받아들일 거라는 거고요.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끝. 왜냐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 피셜한 정보, 완벽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 맞아. 난 심지어 코드나 글을 쓸 때도 항상 공식사이트, 그리고 사전과 특히 고증을 철저히 따지려고 노력해. 그리고 만약 틀리면 속상하더라고.”

“언니, 그런 눈으로는 역사를 못 읽어내는 게 맞아요. 대신 언니의 그 눈으로는 역사를 적어볼 수 있죠.”

“아, 내가 역사를 쓰는 거야? 아이 됐어. 난 그런 거 안 할래. 그래도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하네. 나만의 역사를 적는 것도 괜찮잖아? 사실 수아한테 말하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이거거든. 나의 역사를 적기. 하,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왜 역사에 관심은 많은데 머릿속에 남지 못하는지 말이야. 난 늘 속상했어. 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저 나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도 이 나라의 역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아우, 난 그 자체가 싫거든. 그냥 A면 A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긴 하네, 난 역사 집필하는 쪽이 맞겠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살고 볼 일이죠. 그나저나 점수가 12.6이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무, 무슨 생각?”

“제가 죽고 싶은 날짜였어요. D-Day인 셈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비웃는 수아는 발을 흔들었다. 수아가 갑자기 꺼낸 죽음에 관한 얘기에 펜스 레 어색해진 분위기에 해은은 잠시 눈알을 굴리며 말을 조금 돌렸다.

“근데 나 아까 수아가 얘기한 게임 때문에 생각 좀 해보고 있었어. 혹시 게임 현석이 때문에 접하게 된 거니?”

“네, 맞아요. 현석이가 얘기해 주던가요?”

“아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난 그저, 이 삶이 게임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게임처럼……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야. 한 번 실패하면 다 내줘야하는 도박 말고.”

해은은 푹 꺼낸 얘기가 곧 자신에게 꽤나 치명적인 얘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해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수아는 허리를 숙여 해은의 눈을 보았다.

“미안, 그 ‘도박’이란 게 언니한테 세게 느껴지네.”

“……. 삶은 미분이고 죽음은 적분이죠. 어쩌면 되도 않는 순간적인 삶으로 행복을 누리려는 게 도박일 거예요.”

“아니, 그건 도박이 아니야. 그냥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 그만두고 싶어.”

“전 뛰어내릴 생각으로 창문을 열었었는데 집이 낮아서 절망했었어요. 맞아요. 자살 시도를 하는 데에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갈 때까지도 더 욕심 부리다 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후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딱 죽는 순간에 정말 무슨 기분이 들까? 죽음이란 게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일까? 죽음이란 마냥 슬프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상황일까? 복상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자살에 좋고 나쁜 것, 귀천은 없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는 건 한순간이고 만약 실패하거나 하면 그로부터 오는 좌절감 따위는 전부 동일할 거라는 거죠.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 나온 말 같아요.”

“……. 이걸 수아가 한 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조금만 얘기해볼게. 우리 수아는 피아노로 치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맨날 ‘도(Do)’를 치는 것 같아. 늘 냉철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마치 자신의 감정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이것도 수아만의 개성일 수도 있지만 이런 측면이 수아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꾸려가는 데 큰 걸림돌인 것 같아. 이걸 나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맨날 높은 도를 치니까. 나도 이런 음에서 조금씩 다른 음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글에 녹아들어가는 중이고. 가끔은 이렇게 ‘미(Mi)’를 쳐야할 때가 있다. 거기에 난 기쁜, 슬픈 화음을 한 번에 콧치버리면 사람이 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대신 나는 불협화음으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는 거고.”

“……. 사람은 모두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모두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굳이 빛이 나지 않는다 해도 말이에요. 마치 달처럼 말이죠. 자체적으로 빛이 나지 않아도 다른 빛에 의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런 별들이 자신의 궤도 즉, 자신의 잠자리, 일자리, 못자리를 찾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부딪히겠죠. 언니 말대로 화음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이 필요하죠.”

“잠깐만 수아야, 못자리는 뭐야?”

“조상님 모실 자리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별들, 사회구성원이 많아지면 그

런 걸 바로 ‘사회가 어지럽다.’라는 말을 써야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살자!’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자살’이 되요. 즉, ‘살자!’ 하면서 너무 액셀을 밟고 나가면 자칫 ‘자살’로 전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정신을 차린 해은은 수아에게 웃음을 보였다. 해은의 웃음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웃어준 수아는 눈을 다시 반쯤 감아버린 채 눈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고는 수아는 다시 눈을 흘깃 해은에게로 돌렸다. 블라우스에 달린 단추 사이로 해은의 살결이 보였다. 해은은 잠시 수아의 눈을 따라 보았다. 수아는 천천히 운동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언니, 옷 좀 여미세요.”

해은은 깜짝 놀랐다. 수아는 여전히 반쯤 눈을 감은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고마워요. 공감은 어찌면 ‘잘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다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게 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위험하고.”

“그런 속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그래서 공감하기 피곤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너무 방관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수아랑 여태 얘기 나눈 거 소셜에 적을까 하는데 괜찮아?”

“……. 네? 언니가 괜찮겠어요? 이런 정치 같은 거 담으면 언니가 난리날 거예요.”

“그럼 허락한 거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돌리면 되거든.”

“돌리다뇨? 뭘 돌려요? 말을 돌린다는 건가요?”

“내가 개발한 돌려 말하기를 우리 수아에게 말해줄게 들어 봐. 괜찮지?”

“빨리 해보세요.”

“우리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 어떤 인종을 갖추었든 화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바로 새로운 불을 손에 거머쥐었을 때, 인류는 미친 듯이 그 불을 써대기 시작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두 번 크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 마을에 완전히 성난 상태로 도착을 해서 윗동네며 아랫동네 할 거 없이 싸그리 불태워버렸지. 그때 우리 선조들도 그 화마를 식힐 방법을 몰랐었고. 그리고 난 이 화가, 새로운 불이 생겨나는 언니만의 시발점을 찾아냈어. 바로 ‘지면(Paper)’이야. 인간의 지식이나 의사를 단 한 장의 종이에 옮기는 서찰, 편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전쟁들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지면을 대량 인쇄할 능력이 된 두 번째 화의 시발점 ‘책(Book)’이 개발되었고 결국 화가 터져버려 전 세계가 불덩이에 담가졌지. 심지어 불이 너무 심해서 소방 마을(Fire Fighting Town)에서 택한 방법이 불로 불을 끄는 방법. 일대의 불이 번질 자원을 미리 모두 불살라버리는 거야. 내 소신발언을 좀 하자면 영 방법은 아니긴 해. 그래도 불은 잡긴 했으니, 소방 마을이라는 칭호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쯤 그런 방법 말고 끝 수는 있었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 단념과 선택 대단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결단력이 무섭고.”

“아, 이게 12.6점짜리 언니의 역사관이군요. 과연 디테일한 건 다 잊어버리고 큰 틀만 본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이어서 ‘자기 끈(Magnetic Tape), 원반(Disk), 반도체(Semiconductor).’ 전자에 지식을 담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다행히 이걸 인터넷면허체계라는 소방기관이 세워져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 그 저장매체를 극으로 집적시킨 ‘벨리칩(Vellie Chip).’ 이 칩을 기반으로 하는 스파크들이 또 사회에서 튀고 있어. 우린 세대가 바뀌어 그 소화방법을 계승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방치만하는 상황이고. 난 현재 선

조들이 책을 소화한 방법을 공유하지 못했던 그 때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불덩이가 태워버릴 들의 견적을 미리 그려보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빛은 활보다 강하니까.”

“이름과 지명 거론이 아예 안 되니까 화자나 청자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아야,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뭔지 알아?”

“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건 지면(Paper) 같아.”

“그래서요?”

“정보의 집적도, 읽고 쓰는 속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보관’ 측면에서만 보면 여전히 종이가 최고라는 거지. 최근 집적 공정에 10의 마이너스 12지수인 피코(Pico)가 추가되었거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 어떨까?”

“아……. 완전 보관 용도로 정보를 문자화해서 저장시켜버릴 수 있겠네요. 기계언어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디지털 정보들이 문서로 저장되는 거네요.”

“거기에 더해서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역사적 기록에 해당되는 자료 등이라면 공식문서로도 인정이 되는 거고. 음악이든, 영화이든, 녹화방송이든 뭐든 디지털 전환에 넷상에 배포된 자료라면 이미 문서인 거지 뭐. 그런데 피코 단위로 문자 집적도를 증가시킬 생각은 이미 빅데이터베이스단지에서 하고 있을 거야.”

“인터넷, 벨넷 같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저장된 종이 정보이기에 보안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하지만 사람이 문제겠지.”

“그건 뭐, 남이사쥬.”

“이제 우리 마을 얘기를 좀 해야겠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남은 전통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나봐. 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언니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담은 이야기를 써보려 하는 거고. 언니는 지금 이런 글을 써보고 있어. 아주 크게 돌리고 도망을 가려는 거지. 그리고 글이 완성되면 ‘아, 이게 이래서 도망갈 구멍이라는 거구나.’ 식으로. 난 내 글에 대한 베스트드라이버가 되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떨리긴 하지만 이래야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나 이런 거 저런 거 직접 언급하는 거 싫어.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돌리는 글이, 비유법이 더 잘 알아먹을 것 같거든. 그리고 구태여 내가 그 자리에 남지 않으려는 이유는 나도 내 갈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찾아와서 잡지 말라는 거지. 내가 자리를 뜨는 것도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근사하네요. 언니가 뭘 돌리든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해은은 말을 멈추었다. 해은은 슬며시 웃으며 수아를 보았다.

“재밌는 생각이 났어. 쥐불놀이가 생각나네? 우주 공간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최소한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마치 입자가속기가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오!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네, 사람보다 일단 입자부터 빛의 속도를 보낼 줄 알아야 쥬.”

해은은 잠시 시계를 보았다. 여유 있게 웃으며 수아를 일으켰다. 해은과 수아는 각자 자신의 엉덩이를 한 번씩 털었다. 빈 깡통을 재활용 수거함에 넣고 다시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에 도착한 둘은 각자 자신의 가방을 들었다. 주섬주섬 태블릿과 이어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래도 우리 수아랑 함께하니 어떤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 기분 좋네. 언니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은 인문계도 생각해야 하지만 언제나 자연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을 결국 자연, 동물이란 점. 왜, 로봇도 결국 자연물로 만들어낸 거잖아? 결국 로봇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죠. 아주 자연스럽게. 언니, 근데 저 언니랑 더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실은 이런 정치얘기 언니랑 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해은은 다시 한 번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수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았다. 어쩔 수없이 해은은 다시 가방을 내려놓았다. 해은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꺼냈다. 해은은 태블릿에 시선을 맞춘 뒤 한숨 섞인 이야기를 꺼냈다.

“먼 얘기지만 난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도 알게 되었어.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싶어. 인간의 몸에서 벗어난 자유를.”

“프로젝트겠네요.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파이팅이에요. 그래도 확실히 배고픈 인간보단 배부른 돼지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LEVEL이 있는 법이지. 나는 언제나 이 레벨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고. NEXT LEVEL은 지금 레벨을 잘 완수하고 나서 가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언니는 역언더도그마(逆Underdogma) 걱정하는 거 아니었나요? 대기업이 만든 벨리 오픈 소스코드 프로세스가 대중 쪽에서 악용되고 있다. 그런 역언더도그마 현상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 코드 다 공개하지 말고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IT는 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원리만 공유해라. 어차피 이젠 알아볼 사람만 알아본다. 언론 활용해서 IT칼럼에 신지 말고, 그게 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아니, 이젠 위험한 방식이다.”

“역언더도그마라……. 난, 선과 악.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해. 단지, 농도 차이일 뿐이야. 대부분 그 농도 차이로 사람을 판별하는 거지. 난 요즘 이런 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선과 악, 50 대 50인 글을 써보려는 거야. 왜? 이 글을 쓰는 나도 웬지 잘 못한 것 같거든.”

“……. 언니는 대체 지금 무슨 글을 쓰세요? 소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쓰는 소설은 말 그대로 정신없이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지. 명확히 선과 악을 지칭하고 이 시대에 어울리는 언더도그마, 역언더도그마의 끝을 이야기로 써내려 가는 거야.”

“왜요? 왜 그러는데요?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언니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로. 대체 왜요?”

“……. 그건,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지친다. 이젠 미운 정이 조금 들라 그러네? 지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진리를 찾는 여행이랄까?”

“어떤 진리요?”

“진리에 관한 진리. 정의에 관한 정의. 사람들은 달을 보고 달이라 하지 못하고,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 하지 못하지.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상대적이니까.”

“달, 태양. 모두 보는 곳에서 즉, 때와 장소에 따라 모두 형태와 색상이 다르게 보이죠.”

“하지만 태양계의 항성을 ‘태양(Sun),’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을 ‘달(Moon)’이라 약속했잖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야. 수아가 말했잖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맞아. 언젠가 이런 정의, 진리가 우스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동 시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지칭하는 걸 정의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럼 그게 그 시간대에서는 진리인 거야.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삶은 공학이 아니어도 정해진 건 있는 거니까. 어. 인간이 정의한 자연 법칙, 진리에 대한 답을 잘못 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엄연히 틀린 거니까.”

“뭐, 그런 걸 절대 평가라고 하죠. 그런데 언니, 언니는 종교 왜 믿어요? 기독교 솔직히 수입된 종교잖아요? 그런 진리는 아무런 근간이 없는데……. 솔직히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종교가 이전부터 한국이란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세상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왜 믿는다는 거죠? 그냥 순전히 비즈니스 당한 거잖아요?”

“내 머릿속엔 늘 태양처럼 빛나는 거대한 빛 덩어리가 있어. 글을 쓰다 보니…… 그 글의 원천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 만나게 되었거든. 난 오히려 좋아. 왜냐면 그 빛 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 뭐라도 지칭할 단어가 필요했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종교는 이런 이야기를 가졌네? 해서 쪽 믿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글 쓰기에도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한글이라고 봐. ‘ㄱ, ㄴ, ㄷ’뿐 아니라 ‘ㅏ, ㅑ, ㅓ’로 되는 모음을 조합해야 글자가 만들어지는 한글체계(Han Letter System)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글’라고 써놓고 ‘가’로 읽어버리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 이걸 틀린 거라고 봐. ‘글’이라는 단어의 완성. 이걸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절대적인 것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게 탄생하는데 그건 바로 어떤 글을 읽고 서로의 머릿속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언니가 쓰는 소설, 뭐 다른 체계로 보면 코딩도 있겠고요. 시, 수필 같은 서술한 모든 것이겠네요.”

“어떤 가설이든 해석이든 애초에 진리평가엔 옳고 그름이 없다고 봐.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충분해석, 불충분해석으로 구별된다고 봐. 그리고 그 자그마한 해석차이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마치 번역처럼 말이야. 흠,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걸 ‘GOD’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영어로 역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

“‘The One’이 되겠네요. ‘님’은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타인을 높이는 존칭 문화가 없으니 아예 번역이 불가능하네요. 친구 따위가 아니죠. 아예 극존칭을 쓰는 거니까. 완성된 문장으로 타인을 높인다는 건 우리나라말에도 있는 거고요.”

“즉, 이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예의. 하나님도 손, 님이야. 알아듣지?”

“네. 이 논리를 쪽 밀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문장, 타이틀이 모두 맞게 번역되어도 ‘God’이라는 단어 하나가 다르게 해석됨에 국가 간 지향하는 종교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답, 찾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야. 마치 ‘진달래꽃’처럼.”

“진달래꽃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그거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래, 산에 진달래꽃이 있으면 들에는 민들레꽃도 있어야겠지? 님 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에도 말없이 고이 떠나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꾸미는, 말하는 소재, 그게 잘 안 되면 내 욕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이란 욕이 있는데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제작자, 제작진을 욕하지 말고 저 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라는 거지.”

“해으은 언니가 씨발이라니……. 씨발, 언니……. 맞아요. 인공지능도 쓰는 사람 똥이죠. 그런데 이젠 제작자도 예측 못하는 오용, 악용이 발생하니까 동일한 공급 프로세스를 수정하거나 아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생존’에 대한 부분이고요.”

“……. 그런데 말이야…….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작가들, 예술가들, 모두 실상 엉터리로, 이런 저런 범죄나 저지르고 살고 있으면 난 정말 실망하겠지?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때가 되면 난 얼마나 두려워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정말 죽고 싶어질까?”

“또 그 얘기네요? …… 언니. 지금 언니랑 어떻게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언니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하는 여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진리를 탐구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바로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 것 같긴 해.”

수아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수아는 눈을 깜빡이며 바닥을 보고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만스러운 점을 얘기해도 될까? 무슨 정치적인 거 아냐. 그냥 내 개인적인 거.”

“뭔데요? 궁금하네요?”

“‘사도신경(Apostles' Creed)’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영생이네요. 뭐, 종교가 그런 걸 믿기는 하죠. 그게 왜요? 좋잖아요.”

“난 그 구절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는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거야. 수아는 창문에 뛰어내리고 싶었잖아? 언니는 사실 시도해본 적이 있거든.”

“……. 어떤 걸요?”

“영원히 사는 것. 반 년 전쯤에 해봤어. 근데 실패했어.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 왜 있잖아, 공부할 때 옆에 컴퓨터 있으면 집중 안 되는 것처럼. 한 며칠 굶고 자기만 했어. 희한하게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편해지긴 하더라고.”

“……. 일어나서 뭐 했어요?”

“이것저것 하지……. 실은 자극적인 걸 찾아보든가 먹는 것도 매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

해은은 잠시 떨리는 초점을 눈을 감아 바로잡았다. 천천히 눈을 떠 발밑에 굴러다니는 모래알들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수아는 해은의 손을 잡았다. 해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수아를 보았다.

“이젠 괜찮아. 요즘은 폰질을 하거든.”

“누구 좋아해요? 어떤 스트리머예요?”

“그, 황부인 언니라고 있어.”

“그 언니 보는 거 불법 아니예요? 언니 미성년자잖아요. 아, 벨리로 뚫었군요.”

“불법이었어? 뭐, 게임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방송 광고 같은 것도 벨리 칩으로 다 뚫었는데. 벨로디오 광고는 그 벨리 프로그램으로 아예 안 봐.”

“불법은…… 아니죠. 그냥 법이 없는 거죠.”

“뭐 그럼 됐어. 솔직히 나는 그 벨리 있잖아? 그 가격표, 서비스센터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 IT기업이면 IT기업답게 개개인에 맞는 벨리는 한계라 그렇다 쳐도 기본 제공 통신료는 아니라고 봐. AI됐다 어따 써? 고객들 개개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서비스센터, 왜 우리가 벨리를 끌고 가야하지? 왜 직원과 대화를 나눠야 해? IT기업이잖아? 그럼 다 인터넷이나 인프라넷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몰타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 사람씩 콕 집어서 판매해야 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뭐 하러 무늬만 있는 서비스센터 같은 거 운영해서 공간만 차지 하냐는 거

고. 차라리 다 배달시키면 되잖아. 벨리부터해서 벨리 칩까지 모조리 다. 그게 IT기업 아닌가 싶어.”

“기업이 택배를 한다. 언니 말대로라면 정 택배를 신뢰 못하는 거면 기업이 직접 배달 업무까지 맡아야겠네요.”

“그래. 하지만 됐어.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언니 의견 VNS(Vellie Network Service)에 올려보세요. 아, 언니 VNS 안 하시죠?”

“어, 나 아무 것도 안 해. 아이디어조차도 없어. 그리고 아까 스트리머며 드라마며 아무 것도 안 봐. 그래서 요즘 어떻게 뭐하고 사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

“그럼 됐어요. 사실, 언니 그런 불평불만이 이해되는 게 저는 이런 비슷한 시스템문제가 있죠. 전 학교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 우리 수아도 불만이 있었구나? 학교라고?”

“주입식교육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해요. 다만, 쉬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죠.”

“쉬는 시간? 있잖아? 우리 이러고 있는 게 쉬는 시간이지 않아? 아, 수업이 끝난 시간인긴 하지……. 그래도 있잖아? 점심시간 후라든가.”

“이게, 어떻게 쉬는 시간이에요. 10분 동안 다음 수업준비하고 이동하기 바쁜데. 화장실 다녀오면 끝이에요.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준비시간,’ ‘공회전시간,’ ‘과열방지시간’ 정도가 나올 걸요? 점심시간도 사실 그때 언제 쉬어요? 장기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때 자면 탈나요. 그 시간은 엄연히 ‘소화시간’이에요.”

“그럼 수아가 말하는 쉬는 시간은 뭐야?”

“저, 아랫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수면내시경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아무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때 병원에서 온갖 주사를 다 받고 그냥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전 회복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입을 당하면 이후에 회복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 그럼 수아 말로는 ‘회복실(Healing Room)’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구나? 주입식 교육을 펼치니 거기에 따른 대부분의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까 아예 쉬게 하는 공간. 그곳에서는 오히려 안 쉬면 쫓겨나는 공간이겠네?”

“맞아요. 진정한 의미의 쉬는 시간. Healing Time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만 회복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잠이 아닌 다른 행위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학교 인테리어 자체를 손 봐야겠죠. 이런 저런 실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건의 해봐. 괜찮네.”

“언니가 해요.”

“수아 씨, 난 내년엔 고3이에요. 네가 할 일이야. 사실 수아가 건의하든 말았든 뭐, 난 됐어. 왜 졸업하면 좋아진다는 게 학교라잖아? 난 그런 셈 치려고. 흠……. 근데 세상을 졸업해버리면 세상이 좋아질까?”

“갑자기요?”

“그냥, 재미로 해본 말이야. 재미로라도 세상의 고민을 직접 다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난 그때 얻은 풀이과정과 정답을 공유해버리면 어떨까? 세상사람 모두 더 나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도록. 그럼 더 나은 세상이 마냥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

해은은 수아를 보았다. 수아는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하였다. 수아는 이어서 잡고 있던 해은의 손을 저리 치워버렸다. 그리고 수아는 몸을 흔들며 다리를 앞뒤로 휘저었다. 해은이 이어서 말을 꺼냈다.

“그리고 저번엔 수업 중에 있잖아, 수아 질문한 거. 무슨 ‘공간파?’ ‘공간장’이라고 하지 않

았어? 공간전이 그거 수아가 아는 내용이야?”

“아니요, 전혀 몰라요. 심지어 공간장이란 단어도 그냥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아, 그 참. 맞아요. 저도 많이 머뭇거렸어요. 그…… 질문 제대로 생각했어야 했었어요. 죄송해요.”

“언니한테 미안해 할 거 없어. 그리고 질문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 거기다 답변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면 더더욱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역시 모르는 질문일수록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식으로. 그러면 답변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른 귀를 가지게 되겠지. 수아가 하는 말 속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거야. 대신 삶은 사적인 얘기고 결국 사적인 질문이 된다는 거잖아? ‘수아 씨는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거 어디 술자리에서나 해야 하는 아주 사적인 얘기 같잖아?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줄곧 얘기했던 공과 사를 철저히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공적인 학문이나 종교 따위,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나 성경, 논어에 ‘왜 이러지?’라는 질문은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 거고. 질문은 ‘젊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학문, 종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자신만의 젊음, 질문, 의문점은 늘 품어야 한다고 봐. 단, 삶에 대해선 아니지. 삶에 대한 질문은 자신이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 늙은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왜 사세요?’ 따위의 질문을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누가 공적인 자리에서 ‘왜 늙으셨어요?’ 식으로 되받아치면 싸움만 더 나겠어?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사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봐.”

“질문도 안과 밖을 가려서 하라는 말이네요. 그래, 볼게요.”

“정 궁금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런 자리를 왜 만들겠어. 맞는 인연을 찾는 것도 왜, 둘 다 삶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당돌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 거기에서 또 세상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거고. 그럼 서로서로 또 위로하고. 또 ‘왜 사냐?’ 하면서 괴로움이 반복되는 거고. 참 의미 없는 공상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있어.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라는 건 과학이고 공학이에요. 모든 생명은 죽기 싫어서 살아요. 과학 측면에서는 생명체 그 중에서도 인간이 비효율적이에요. 집을 왜 짓겠어요? 왜 편한 이불을 개발했을까요? 요리를 왜 하겠어요? 그냥 굴에서, 나뭇잎 적당히 큰 거 덮어서 자고, 날 것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자고 먹을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교, 섹스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냥 정액 따로 빼서 자궁에 주사해버리면 끝인데. 심지어 그 과정은 한 0.1초면 되겠네요. 하지만 실상은 30분이고 몇 시간이고 서로를 교감하죠.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느껴요. 맞아요. 인간의 행복은 비효율과 관련이 깊어요. 즉, 이걸 바탕으로 보면 철학이란 행위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의 답이겠죠. 절대적인 값에 기반을 둔 상대적인 값의 탄생. 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이윤이 발생하고 가치가 발생하겠죠. 이걸 효율적인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고민의 과정을 없애버린다는 건 사실 행복하길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인공지능처럼 최적화 연산은 사람의 삶을 대체하기보다는 연구 같은 데에나 어울리지 않을까요? 솔직히 사회가 정말 그냥 기업들의 기술시연회장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 언니 말처럼 아예 대중이 잘 못 활용하고 있던지. 그것이 현실이고. 잠깐, 그런데 언니는 질문 안 하시잖아요. 수업 중에 질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내 생각엔 ‘이해했다.’라는 비효율적인 것은 인간이 아닐 경우 ‘다룰 수 있다.’고 인간일 경우엔 ‘공감할 수 있다.’인 것 같은데? 왜 인간은 비효율적인 이해의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 내잖아. 즉, 나만의 개성과 재능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어떤 효율적인 것을 탄생시키되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가 잘 돼야 남들도 그 효율적인 어떤 것을 같이 다루면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교류가 발생하는 거고. 왜? 나라는 이도 사실 그 나만의 욕구, 재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못하니 기계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 그 과정에서 프린터든 인공지능로봇이든 뭐든 로얄티와 같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 기술이나 원리, 다른 생명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럼 이런저런 오·남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그 이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할 뿐이지. 즉,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건 확률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해. 확률은 어쨌든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으니 딱 그만큼 활용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하지만 또 있어요. 망가진 환경을 핑계로, 예측되는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인드도 사실 상 살인과도 같은 개념이겠네요. 어딘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이런 현실, 기후위기 같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낳아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기요. 단, 언니 말처럼 ‘힘쓰고 있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는 아니겠네요. 뭐, 사실 내로남불이겠지만, 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겠어요?”

“이 모든 건 모두 인간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치에 불과하다고 봐. 도시를 돌아보라고. 자연 입장에선 황폐한 곳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 돈이란 게 없으면 뭘 할 수 있겠니? 사양을 할 수 있어 수렵을 할 수 있어? 돈이라는 것, 자동차라는 것, 친환경이라는 것, 명품이라는 것, 살인에 대한 법이라는 것, 하다못해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 전부, 그냥 인간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만들어낸 이해관계인 거야. 그걸 강압적으로라도 받아들이게 해야 이 정글 같은 지구촌에서 한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고. 생각해 봐. 대체 어느 자연물에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박혀있니? 전부 인간들이 조금 더 삶에 행복이 실현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

“아마, 인간들은 인류를 위한다면서 거창한 뭔가를 만들 생각을 하는데, 정작 개개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을 거란 얘기에요. 어…… 그러니까 막 우주정거장?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선이 드나드는 정거장을 지어도 그 정거장 안에는 각자의 물품이나 상품, 음식들을 팔기 위한 여러 상점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외진 곳에는 똑같이 노숙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다름 아닌 이런 게 현실일 거다.”

“돈을 위해 사는 게 대다수의 현실일 테니까. 대다수는 자신의 삶을 조금 할애해 돈을 벌어. 그건 아무래도 할애되지 않은 나머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태 계승되어 내려오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그걸 증명하지. 하지만 돈을 정말 벌고 싶은 사람, 꼭 돈 냄새를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있다고 봐. 그건 아마, 돈을 제작한 자들의 피를 이어받았을 거야. 그런데 만약 이런 피도 없는데 다루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거면 둘 중 하나겠지. 제대로 사용하지도, 유전적으로 행복하지도 못할 도구를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는 질투심, 환상에 빠졌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돈이라는 도구의 설계를 잘못했다던가.”

“하지만 거덜 나면요? 그냥 돈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도태되는 게 맞는 건가요?”

“글쎄? 맞는 말이긴 하지. 하지만 그와 같은 시각은 버는 쪽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돈만 벌다보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하긴 돈을 써야 잘 살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으나 누리려면 돈을 써야죠.

말마따나 삶을 연장시키는 병원 가서 진료 받는 행위조차도 돈을 써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이런 큰 틀로 봐야할 문제군요. 그럼 언니는 만약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첫 번째 불우이웃. 나.”

수아는 해은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해은은 수아의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다.

“그 다음 여유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돈을 위해 삶을 쓰는 거고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것. 대신 감당 가능한 선에서. 그 선 안에서 투자며, 소비며, 심지어 도박이며 하라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현 사회 시스템이란 거지. 그래야 돈을 위해 삶을 살 때는 죽을 맛을 맛보고, 살기 위해 돈을 쓸 때는 사는 맛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긴, 돈을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돈을 벌면 죽을 맛밖에 안 나겠네요. 돈을 위해 살았다가 때가 되면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해은은 태블릿을 톡톡 두드렸다. 수아는 펜스레 해은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해은은 그냥 시간을 본 것 뿐이었다.

“언니가 요즘 또 관심이 있는 게 있거든. 체스에까지 관심이 많은 걸 어찌니? 체크메이트에 굉장히 꽂혔어. 계속해도 될까? 웬지 체스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왜 요즘 바둑에서 새로운 규칙 만들어서 핫하잖아. 음…… 예를 들면, 여러 말 중에 상대방이 금지시켜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선택해 반드시 전쟁에 참여시키는 형태면 어떨까?”

“아, 그러시구나. 아까 완전난수 얘기한 게 괜히 나온 건 아니었네요. 뭐, 이미 시작했는데 계속해보세요. …… Ban Pick을 도입하자는 뜻이군요?”

“어! 뿐만 아니라 ‘왕자(Prince)’와 ‘공주(Princess)’라는 말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 왕자는 왕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3턴에 한 번, 공주는 여왕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자기중심으로 세 칸만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뱀픽을 한 말 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거고. 아, 물론 내 영역 안에서만. 쫄따구들은 그대로 두는 거야. 폰들.”

“그럼 왕자와 공주는 그냥 들러리 아니에요?”

“왕자와 공주는 각각 킹과 퀸이 죽었을 때, 킹과 퀸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임시로 되는 거라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은 여전히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검은 말에는 빨간 띠, 하얀 말에는 파란 띠를 두르게 해서 왕자와 공주를 구분하는 거고. 여기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인 이유는 우리 줄곧 얘기했잖아? 자유가 빨간색이고 공유가 파란색이라고. 여기서 나는 빨간색은 웬지 검은색이랑 어울릴 것 같고 파란색은 하얀색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 하는 나도 참 웃겨. 여왕은커녕 공주조차 되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좋아요. 이런 건 좋은 시도 같아요. 왜 요즘은 바둑에서도 ‘중립지대’라 해서 회색지대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수를 하나 두어서 돌을 깨는 거죠. 단, 그 수는 사라지고.”

“돌을 치우기 위해 수를 쓴 거네? 집을 짓기 위해서 말이야.”

“이런 중립지대는 스타크래프트(Starcraft)? 거기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저런 게임에 별의 별 짓을 다 해요. 그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라는 게임에 ‘아리(Ahri)’라는 한국 여우 캐릭터가 있는데 궁극기를 글썽 게임 시간을 9초 전으로 돌린 다네요? 이전에 봤던, 플레이했던 9초는 모두 환상이라는 컨셉으로. 거기다 미드 챔프로는 약해서 정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알아들죠? 미드가 약하다고요.”

“……. 하하하. 아리도 그럼 영감을 본 거구나? 모든 오브젝트가 9초 전으로 돌아간다? 다

시 새로 일을 시작하면 되겠네. 하유, 개발자들도 고생 많겠다. 어떤 게임은 버그 하나 때문에 5만 7천 번 정도 테스트하고 16년 동안 째째 댔다는데. 그런데 수아야, 우리나라는 뭐 없어?”

“있어요. 그 ‘도깨V’라는 게임이 있는데 벨리 판으로 다시 제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뭔가 더 역동적인 액션이 많더라고요.”

“또 V야?”

“유아 청소년 벨리들 다 그 게임 애들 디자인에서 따와요. 그래서 대세라는 거예요.”

“아, 그게 대세인 이유가 있구나! 몰랐네, 그건 또.”

“그나저나 언니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악한 일? 선한 일? 언니라면 당연히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을 생각했으니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글쎄, 솔직히 걱정돼. 글로도 충분히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 앞에선 선한 글을 쓰고 뒤에선 악한 짓하는 거 말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난 나쁜 짓해서 걸렸다면 떳떳하게 교도소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밤잠 설치면서 혼자 벽을 보고 끄끖 울 것 같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길 내가 그려지네.”

“..... 좋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데요. 언니는 그 소설 인공지능으로 무슨 글을 쓰고 싶으세요? 효율적으로 짹짹 글 뽑아내면 돈 많이 버시겠는데요?”

“글쎄, 아닐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글을 대신 써준다 해도 내가 원하는 문장과 이야기가 아니라면 다 지워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키보드 마우스만 해도 너무 빨라. 어차피 다 지워야하는데, 잘 지우는 것도 일이거든. 맞아. 글을 쓰는 건 내게 너무 고통이야. 그래서 재밌어. 그리고 수아야, 난 수기로 쓴 적 있다? 심지어 아주 좁쌀만 하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은 글을 쓴 적이 있어. 난 오히려 그런 걸 할 때가 더 재밌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치 키보드 마우스 버리고 오히려 다시 연필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 이랄까? 그리고 기계잖아. 그 속도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인공지능은 무슨 난 교과서보다 글을 못 쓰는데? 교과서가 내 글보다 이해 더 잘 된다고. 나는 그냥..... 소설의 기본. 내가 쓰고 싶은 허상으로 짹짹 찬 이야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잠깐! 하지만 과연 내가 그 인공지능 써도 될까? 나는 아직 사지에 엉덩이랑 태블릿도 그나마 멀쩡하긴 해서 그럭저럭 노력하면 어떻게든 표현이라도 되는 편인데, 다른 이들 중에 아예 글쓰기조차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그놈의 남 걱정은 그만하세요. 네, 됐어요. 언니가 재밌으면 된 거죠.”

“난 언젠간 예전처럼 육필을 쓰게 될 거야. 화면은 직사광이고 종이는 반사광이잖아. 참, 누군가 폰 뒤에 눈을 짹 채우는 반사판을 두면 암흑 속에도 폰을 볼 텐데. 누군가 그걸 개발해주지 않는 이상..... 어쨌든 실명까지도 준비해야겠지. 빛, 그림자 난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종이처럼 그 둘을 다루는 자리를 찾고 싶어. 그리고 그곳에 있을 거야. 나도 그게 싫지만 그래야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어떡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그런데 언니는 그런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빛과 그림자(Light and Shadow)를 모두 볼 수 있는 곳. 아, 수아한테는 말 안했나? 남 잘 되는 꼴을 꼭 봐야만 하는 자리. 빛이든 그림자든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어수룩하지만 가이드를 해주는 자리. 아마, 별을 지켜보는 자리(Star Guardian's Pos')겠지.”

끝으로 수아는 말을 그만 두었다. 해은은 그래도 수아를 더 기다려주었다. 수아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먼 산에 분 바람이 혹 미세먼지 바람인지 눈여겨보고 있다. 해은이 수아의 시선을 따라 보았다. 다행히 그냥 바람이었다.

“실은 언니가 최근 생각한 빠와 살이 없어지는 자살 방법이 바로 태양을 향해 가는 거야.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거지.”

“……. 거꾸로 완전한 어둠이, 그림자만 존재하는 곳. 블랙홀에 들어가도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말하면서 보니 참 정말 비현실적인 방법이긴 하네요.”

“……. 요즘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를 봤어. 물론, 1챕터밖에 못 보긴 했는데…….”

“괜찮아요.”

“청년과 철학자가 처한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화’란 것을 도구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청년은 아직 감정이란 것을 도구로 취하기에는 조금 부족해보여서. 삶을 조금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또, 그 책 속 청년이 말하는 선은 너무 얽매어있는 실타래와 같은 삶처럼 보였어. 그에 비해 철학자가 말하는 점은 너무 극심한 변화의 삶인 것 같아.”

“트라우마는 물갈이라는 처방을, 무계획에는 갈무리라는 처방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둘 다 선분과 같은 삶이 어울릴 것 같고요. 물론, 둘 다 제대로 검증된 병명이어야겠죠.”

“……. 수아야, 언니가 수아랑 나누고픈 고민 얘기해 봐도 될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저는 문제없어요. 얘기해주세요.”

“고마워.”

해은은 깊은 심호흡을 하였다. 어느새 고여 버린 눈물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이 언니는 아리슬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 컨셉은 진수성찬에 어울리는 강한 술. 말 그대로 다 차려냈으니 먹고 마셔서…… 뒤져버리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언니는 이런저런 역사에, 과학, 기술, 종교, 예술, 체육, 오마주 등 언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거야. 왜냐면……. 왜냐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거든.”

“그런데 왜 하필 아리슬이에요? 기분 나쁘게.”

“내 머리 속에 뛰어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고 싶었거든. 내 머릿속 근심, 걱정, 행복, 불행 등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대로는…… 고작 취미 정도의 글쓰기로는 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난 내 행복을 찾고 싶었어.”

아리슬(ARYSLE)은 한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메카톤급 가을 태풍이며, 동시에 한국의 도수 높은 소주 이름이다.

우선, 소주 아리슬은 한국에서 강한 도수를 가진 소주를 개발하였는데, 붉은색 뚜껑에 푸른색 유리병을 하고 있다. 아리슬 개발자는 처음 작명을 할 때 꽤 고민하였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아리슬이라는 언어 자체가 해당 시기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만족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별 수 없이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에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시킨 것이다. 물론, 그 시기에도 이미 문장을 읽어주는 인공지능이 있었으나 악용의 여지로 비공개 설정이 되어있어 아리슬 개발자는 번역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한글발음/결과 순	ARYSLE		ARISLE		ARISEUL	
	아리슬	O	어라이얼	X	어라이슬러	X
	아리슬	O	어라이얼	X	어라이슬	X
	리슬	X	레슬	X	아리슬러	X
	어라이슬	X	아리슬	O	어라이슬	X
	어라이슬	X	아리슬	O	에리슬	X

개발자가 선정한 5개의 인공지능 번역기들로 한글 ‘아리슬’을 각각 ‘ARYSLE’, ‘ARISLE’, ‘ARISEUL’의 영단어 후보군들을 추려 하나씩 읽혔는데 위와 같은 결과를 배출한 것이다. 개발자는 인공지능 번역기들이 ARYSLE과 ARISLE이 동등한 비율로 원하는 발음을 해준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ARYSLE 채택이 되었는데, 이유는 원어가 되는 ARI, SRI에서 SRI의 R발음이 L로 대체되었기에 동등하게 ARI쪽에서도 I를 Y를 치환하는 게 공평하다 판단해 최종적으로 앞과 뒤에 존재하는 모음과 자음을 한 글자씩 바꾼 ARYSLE로 영단어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모두 변경 가능한 이유로는 ‘아리슬’이란 원어가 한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로 옮길 시 고유한 철자나 지켜야할 규칙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리고 태풍 아리슬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대기가 하나로 되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다. 아리슬은 첫 발생지가 태평양이었고 하나가 된 대기에서 발생한 태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풍속이 측정되었다. 그대로 북상한 아리슬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륙하면서 한국에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다. 수백만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나왔다. 더하여 한국 내 여러 마천루와 건물들이 엇가락 휘듯이 무너지고 말았으며, 이에 대한 2차 피해도 상당히 피해복구에 유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대규모 복구 사업으로 인해 한국은 일시적으로 여러 각국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이유는 아리슬의 크기가 한 대륙만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세계에선 슈퍼 태풍이란 말이 민망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 메가톤급 태풍을 지칭하는 단어를 따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제출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가장 강한 도수를 가진 소주의 이름, 아리슬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풍의 명칭을 'ARYSLE'이라 지었고 이름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연구원들이 조금 더 손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 맞춘 단어로 제출한다. 이에 아리슬 1호는 태평양에서 발생했으며 이름은 '사죄, APOLOGY' 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을 포함한 총 4번의 아리슬이 일어났으며 각각 2호는 ‘형상, FIGURATION’, 3호는 ‘시험, TEMPTATION’, 4호는 ‘현실, ACTUALITY’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아리슬의 출현을 보고 ‘신께서 이제 바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한다.

과학계에서는 아리슬의 발생을 인간의 기술 발전 구조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선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친환경기술 역시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해당되었고, 무리한 친환경기술의 전환과 인공지능로봇의 발달로 결과적으로 친환경 기술의 결실로는 막을 수 없는 지구의 대기가 하나로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내로라하는 백만장자들은 아예 지구를 버리기로 하였으나, 결국 첨단우주기술 역시 환경을 파괴해야만 발전한다는 주장하는 백만장자가 아닌 이들의 온갖 폭동과 사건에 휘말려 무산되었다.

아리슬 4호 이후 1호 이전의 인구수 대비 약 50%~80%가량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워낙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탓에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류는 1호 아리슬 이후부터 꾸준히 무역망과 인터넷, 치안과 법과 제도를 강화하며 각 국가 사정에 따라 시민의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는 살아남은 시민이 너무 없는 탓에 이미 망국의 길을 밟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현 수도권 고등학교인 미리내고 학생 수가 전학을 간 대현을 제외한 단 6명인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 주소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류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 5차 아리슬이 발달할 경우엔 남은 현 인류의 50% 이상(이는 1호 이전 대비 약 90%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사망 및 실종처리 될 것이라 경고했고 그 이후에도 아리슬이 계속해서 발달할 경우에는 인류는 사실 상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출 것이라 예측한다.

“아마 우리 수아처럼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겠지. 거기에 심지어 나도 기분 나빠. 그런데 나는 이런 글을 지금 몇 번이고 고쳐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괴로운 건 이미 탈락 전에 보이는 바보 같이 쓰여 있는 이 글이 보인다는 거야. 아리슬이 아직 내 손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면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다고. 난 과거를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러한 현실에 그래도 행복을 찾고 싶거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 작품들을 오마주하려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팬들이 즐겼던, 행복했던 것들이 나에게도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아야, 내가 누굴 닮겠니?”

“..... 유전학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 문학작품들만 봐도 아이는 그 애미, 애비를 닮았죠. 하지만 저는 언니가 대체 무슨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언니의 말대로라면 글 제목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행복은 사람에서부터’ 뭐 이런 식이 되어야 하잖아요? 언니는 그런데 ‘아리슬’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런 현실을 제목으로 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 아리슬이 우리에게 현실이지만 누군가에겐 환상이겠지. 그 누군가는 아직 이 시대를 살지 못하는 옛사람들일 거야..... 하지만 내 배팅은 지금 이 상태라면 기후위기인 그 아리슬 5호 보다 누군가의 벨리 공격이 훨씬 더 빠를 거라는 것.”

수아는 눈물을 흘리는 해운을 보았다. 해운의 눈은 분노에 가득 차있었다.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이 눈물을 계속 볼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벨리 면허체계가 필요할 거야. 마치, 인터넷면허체계처럼. 나는 인터넷, 인프라넷처럼 결국 한 나라 안팎에서 유통될 정보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봐. 개인방송만 해도 마찬가지야. 공인들 얼굴 내밀고 돈 버는 사람들이야.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진 후 세계인들에게 얼굴이 공개 되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빅데이터단지처럼 국영화, 민영화는 전혀 관심 없어. 어쨌든 관련 제도나 만들고 운용하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국가적 규모의 재산이면 국영화시키는 특징이 있죠. 철도나 전기, 가스, 수도, 심지어 의료체계에 도로망까지 전부 국영화되어있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단지 역시 국영화가 어울리긴 했어요. 언니는 벨리네트워크, 면허체계까지도 국영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은은 별 반응이 없는 수아를 다시 쳐다보았다. 수아는 전혀 흥미가 없어보였다. 해은은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한 것 다 써놓을 거야. IT시대의 행복과 불행.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생각하면서 역시 슬픈 추측이 떠오르더라고. 내가 잘못 견적을 냈다. 현실은 오히려 더 악독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아리슬 다음의 글 컨셉은 IT시대의 죄야. 죄뿐이야. 벌을 줄 사람이 없게 될 것 같더라고.”

“……. 반정부 단체인가요? 어떤 종교인가요?”

“내가 최대치의 악으로 계산해보았을 때에는 IT기술이 도입된 죄라면 국가도, 반정부도, 종교도, 아무 것도 없어. 아까 말했지? 내가 누굴 닮겠냐고. 심지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상상해낸 외계인조차도 인간을 닮았어. 기계입장에선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단 말이지. 사람의 형상을 공부한 인공지능이 저지를 범죄. 이 견적으론 딱 두 명 남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두 명도 지옥 같은 현실일 거야. 쉽게 말하면 남녀가 한 쌍이 남는데, 철없는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반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이전 날의 추억과 자신이 부족했던 죄, 그래서 일어난 현실을 자책해서 자식을 낳기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벨리공학이던 충분이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악을 최대치로 계산한다. 여태 언니랑 얘기 나눈 거를 토대로 강력범죄의 강도를 최대로 했을 때라면……. 사람의 형상을 학습했고, 친환경 에너지로 거의 무제한으로 날아다니고, 그 형태는 벌레가 될 것이며, 한 번 쓰고 버려지겠네요. 깔끔하게. 게다가 소셜 내용처럼 굳이 인류 전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계가 특정 종교인들의 생김새, 인종, 성별, 어린이나 노인 등 세상 내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군의 얼굴이나 신체 형상만을 학습한다면 일정 구역 내 해당 인구 집단만 쏙쏙 골라 초토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언니 이야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남는 최후의 2인이 왜 남녀 한 쌍이예요?”

“서로서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패륜을 저지르라고. 종교, 기독교에 ‘회개(Repentance, 悔改)’라는 것이 있어. 그 회개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어. 쉽지? 그런데 과연 정말 쉬울까? 구약, 그러니까 완전 옛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면서까지 죄를 씻어냈는데? 난 예수가 못을 박아 제물 값이 없다고 한들 그 의식이 사라지는 건가 싶어. 그래, 성경에는 유독 회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 내 생각에는 그 회개라는 것은 그럼 죽은 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만하면 되셨어요.’할 때까지 빌고 뉘우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봐. 이건 반성에서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봐. 반성은 회개 중에서도 그냥 아주 단편적인 부분. 문서적인 부분. 그런 거 정리해서 선생이나 판사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야. 교회 사람 봐봐. 미친 듯이 기도해. 그건 문서로 표현조차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난 그것 역시 회개의 일부분이라고 봐. 그리고 그것 아니, 그 이상의 사죄가 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 난 천국 가는 게 고작 회개, 사죄 하나면 되는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했어. 그런 미친 듯한 회개하기 싫으면 아예 죄를 짓지 말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앞에 ‘십계명(Ten Commandments, 十誡命)’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난 이 항목에 대한 회개가 욕구에서 원죄를 분리하는 행위고 나머지 욕구는 어, ‘자유(Freedom)’이라고 보고 있

어. 즉, 인간의 욕구에서 원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도려내고 잘 잡아낼 수 있으면 곧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죄를 명확히 정리하는 행위는 어쩌면 자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행위와 동일 시 될 수 있다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구분 짓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법의 발전 모두 이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수아는 해은이 어떤 것에 화가 난 것인지 조금 알 수 있었다. 해은은 눈을 감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천천히 눈을 뜨며 흥분을 가라앉혔다.

“유전자조작에, 벨리 업데이트, 더 나은 환경이라는 이름의 진보. 나는 과학 역시도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다수를 위해, 소수를 위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진보일까 묻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개발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고. 유전자는 인간 계보를, 로봇은 인간 사회를 담보로 두고 있어. 하다못해 약이나 백신도 수십만 명에게 먼저 테스트를 해. 바로 환자 개인의 부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자 한 명 삶을 담보로 수십만 번, 수년을 테스트 하는 거지. 그럼, 같은 논리로 인간계보, 인간노동을 테스트하기 위해선 전자는 수십만 개의 지구형 행성, 후자는 수십만 개의 사회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또 6시그마라고 하잖아? 품질보증수준이 그쯤은 되어야 할 텐데. 글썄, 그런 행성을, 사회를 현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6시그마보다 더한 보증방법이 개발되어있겠네. 수아야, 하다못해 빛의 속도, 전자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에도 디버그(Debug)모드에선 안 나던 오류가 릴리즈(Release)모드에선 오류가 나거든? 그거 뭣수습하는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이 걸려.”

“……. 유전자 치료로 불치병환자를 치료해도 그 사이드 이펙트를 다수가 질 수 있는 거죠. 모두 연관되는 문제니까. 그럼 과학에도 책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충분히 시험되지 못한 진보는 뭣수습만 수백 년이 걸리겠죠. 아니, 오히려 뭣수습이 가능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어쩌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시대를 과학과 기술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 교류가 없어서일까요? 하지만 적어도 교류를 해야 할 때이네요. 현재 개발한 것이 Release로 진행돼도 괜찮은지, 아니면 Release의 예상오류수준이 인류가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면 그냥 해당 인간만 개발하는 거요. 어쨌든 진보, 개발은 해야 하나까요. 다만, 대중에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바로 당사자 대중과의 교류를 통해 결정해야겠네요.”

“마냥 막는 것도 답은 아니겠지. 그런 실험환경을 만들지 않는 방법.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활용해 건강한 장기나 신체 일부를 제작하면 어떨까? 그러면 글썄? 여성이 남근을 가지고 거기에서 난자를 담은 점액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지도 않을까? 오르가즘을 느끼면 남성이 자궁에서 정액을 쏟아내는 거야. 이종이식, 동종이식이 아닌 그냥 제작이식. 면역억제제 같은 것도 거의 필요 없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성형수술 즈음인 거지. 또, 불치병이 있는 부위를 아예 수정을 하던지 혹은, 이상이 있는 유전자로 생성된 단백질 같으면 해당 단백질이 체내로 주입된 설계된 효소 따위로 수정되거나 교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어떨까? 그러면 실험난이도 자체가 개인단위로 확 줄어드니까 말이야. 이러면 Release,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게임 같은 걸 보면 수인족이 있어요. 막 인간인데 토끼나 나비 같은 인간이 아닌 생물에 서 몇몇 부위를 가져와 신체에 붙이는 식으로 그러지죠.”

“나도 솔직히 여우 귀나 꼬리를 가져보고도 싶어. 귀여울 것 같거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신체를 하나씩 개조한다면 수아가 말한 게임이나 영상물처럼 진짜 ‘괴물’이 등장할 수도 있

어. 여러 사람들 중에는 분명 그 콘텐츠들에서 그려지는 악마가 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으아, 인지부조화 오네요. 언니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몸에 손 알 났 것 같아요. 맞죠?”

“맞아. 해도 다시 고치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는 화장 정도나 하겠지. 아니면 아예 탈착가능 제품을 사던가. 난 내 원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래야 내 정신에서 나온 부족한 모습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거든. 단, 걱정이 되는 건 해당 공학으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는 경우.”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네요. 죄를 짓고 도망치려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죠.”

“여태 정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것들을 죽 나열해보면 다 과학의 한 분야와 연관돼있는 것 같더라고. 인공지능은 컴퓨터, 전자 쪽이지? 아리슬은 이산화탄소 이슈, 유전자는 인간게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수아가 언급했던 인공블랙홀. 모두 인간이 식을 생성할 수 있고 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야. 이걸 더 정리하면 각각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이슈들이지. 이것들 다 무기화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공격하는 프로그래밍. 아리슬은 말할 것도 없고. 유전자가 불치병을 낫게 한다고? 그럼 역으로 정상인에게 불치병을 갖게 하는 거지. 막말로 이런 식으로 무기화 하는 거야. 블랙홀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은 테스트도 필요 없지. 언니는 ‘실험불가능영역(Impossible Test Area)’이라고 칭하고 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예상 수치가 아닌 실제 임상실험과 같은 실험이 현 과학기술 대비 규모가 너무 커서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다면 그냥 무기로 쓰였을 경우. 언니는 과학을 공부하면 때론 내게 오늘이 허락된 게 감사할 정도야.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허락된 것도 말이야. 그저 이 언니는 소설 쓰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니까 정말 너무 고마울 따름이야.”

“영감을 준다고요?”

“미래문명에는 그런 실험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리고 언니는 언급한 과학들은 생각보다 조금 걸릴 것 같거든. 기술발전그래프가 기하급수적이면 환경파괴나 사회불균형그래프도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럼 이 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걸로 개그를 할 수 있지. 마치 언론계에서 ‘무슨무슨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하는 것처럼. 무슨 도마에 오르긴 뭐가 도마에 올라.”

“그런 비유를 말하는 거군요.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Do not open the hatch.’ 이런 느낌? 예를 들면, ‘벨리에 버그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려야지?’ ‘블랙홀에 밥 말아먹는 소리하고 있네.’ 정도죠. 갑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식으로 해석될 거예요.”

“하황하. 그런 거구나. 난 그런 농담 보면 솔직히 웃겨. 근데 여태 말한 기준이라면 물리, 지구과학 개그만 있네? 화학, 생물 관련 개그는 없나? 아리슬이나 유전자 가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언니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튼 이제야 좀 그 유전자 공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

“네?”

수아는 잠깐 숨이 막혔다. 그 후 해운을 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게 게보 상에 문제, 아까 얘기한 질병발생경우의 폭발적 증가. 뭐, 5개 질병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책으로는 첫째, 유전자치료를 한 이들에게 무정액, 무정난 수술을 실시하는 거

야. 더 이상 계보를 이을 수 없게끔. 둘째는 병원 측에서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해야겠지. 그리고 안 하면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권력을 유지하든가.”

“첫째만 해도 상당한 사이드이펙트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아이를 낳긴 해야 하니까 무정액, 무정난 수술 전 건강한 정자나 난자를 추출해 보관해 두었다가 안전한 인공자궁수정을 실시하든가 해야지.”

“돈이 문제겠네요. 유전자치료라는 인간의 존엄 속에 갑자기 또 돈이 등장하니 또 무슨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경우만 생기는 것 같고요. 문제가 해결 되었네요. 좋아요.”

“아니,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아……. 줘요?”

해은은 음료수를 들이켰다. 너무 시원한 탓에 머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해은은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였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은을 보았다. 해은은 조용히 머릿속에서 울리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답안에 닿지 못했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해은은 머릿속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은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천천히 눈을 뜨며 수아를 흘겨보았다.

“오래 걸렸어요. 언니답지 않네요.”

“이젠 수아가 놀리기까지 하네? 공유 안 해버릴까 보다.”

“…….”

“이 성관련 부분은 동성애나 유전자, 계보 같은 것부터 해서 인간 성관련 범죄나 사건사고까지 다루잖아. 정말 머리가 아프긴 해. 하, 예습치곤 너무 가혹한 문제인 것 같아. 시작할게. 언제나 그렇듯 그냥 내 답안이니까, 그렇게 알고. …… 코드문법 중에 ‘Void 포인터’라고 있어.”

“하하하. 전 모르겠는데요.”

“나도 잘 몰라 그런 건. 내가 이해하는 수준은 음……. 함부로 못 쓰게 한다? 그 정도야. 쓸 거면 제대로 바뀌서 써라. 그리고 쓸 때만 바뀌고 다시 함부로 못 쓰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해. 아닌가? 암튼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언니 말한 걸 토대로 보면 마치 ‘자신의 [성, Gender, 性]을 쓸 때만 써라.’ 같은 뜻이네요? 아닐까요?”

“거의 근접했어. 아니, 맞아. 그 뜻이야. 나는 사실 [세 번째 성, The Third Gender, 第三性]에 관심이 많았거든. 이것까지 끄집어 낼 때가 됐네. 진짜 머리통 박박 긁어내는 것 같다.”

수아는 해은의 말에 크게 웃었다. 해은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성은 바로 ‘Void’야. 즉, 아무런 성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회적으로. 하지만 Void라는 성의 목적은 생물적인 성정체성은 고려하지 않아. 오직, 한 개인이 지향하는 사회적인 성의 형태를 대변하는 거야.”

“근데 그게 Void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아니. 애초에 언니는 사회적 성별을 ‘Void’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로 되긴 하는 거죠?”

“몰라, 일단 답변은 쪽 들어봐. ‘나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지향한다, 남성을 지향한다.’ 등 이런 일부 성별만을 지향하는 관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애초에 인간의 생물적인 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 인간의 생물적인 성은 현대 사회에선 거의? 오로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 같아.”

“그렇죠. 애초에 여성 캐릭터니, 남성 캐릭터니 이런 건 사회적인 관점이지 생물적인 관점은 아니죠. 왜 섹시해서, 근육이 하나 더 있어서 돈을 더 받는 구조로는 가고 있지 않죠.”

“수아야 그게 아니야. 일테면 섹스하려고 회사나 학교 가? 우린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욕을 잠시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젠 잠시가 아니라 거의 안 쓰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 거의 성욕은 사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야.”

“맞네요. 인간은 발정이 났다고 막 길거리에서 짹짹하고 애를 낳지 않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강간, 음란’ 같은 죄로 제어하고 있죠. 그거 안 되면 짐승으로 보긴 하죠. 동물. 왜 일까요? 흠, 인간은 깨우친 것일지도 모르겠죠? 더 많은 유전자 확보를 위해선 한 명이 몰아서 낳는 것보단 여러 명이 적게 낳는 게 더 유리하니까. 다양해진다는 건 환경이 변할 시 그 누군가 중에는 살아남은 이가 있어서 인류를 계승시킬 가능성이…….”

“수아야, 스탑! 우리 사회적 성 ‘Void’ 얘기하고 있다?”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아, 성기 사용이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가 없다. 개인적 성적취향은 색깔이 다양하지만 사회적 성적취향은 아무런 지향성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성적취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사회적 성적취향을 개인적인 색깔로 채우기 시작하면,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행정처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성, Gender, 性.’이란 카테고리로는 사회구성원들을 분류할 수 없을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사회적 성적지향 관점으로 Void 성별을 정의할 수 있지. ‘저는 Void입니다. 이 시간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선언 말이야.”

“그럼 뭐죠? Void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 알겠다!”

수아는 숨이 멎었다. 잠시 멍하게 운동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잠시 정리하였다. 그리고 맞는지 해운을 보았다. 해운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수아는 해운에게 샷대질을 하였다.

“가만있어 봐요. Void 성이 되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런데 잠시 아이를 낳고 싶을 때가 되면 Void를 풀고 여성이나 남성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은 뒤 다시 Void가 된다.”

“맞아, 그거야. 잠시 여성으로 남성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동사무소나 시청에 형 변환을 의뢰해야겠지? 아, 어렵지? 형 변환은 사회적 성 변환이야. 기호처리는 Void를 상징하기 위해 ‘V’정도?”

“V가 대세긴 하죠.”

“그래도 너무 ‘V’라는 기호로 묶어버리면 구분이 힘들긴 하니까, 성세포를 기반으로 VX, VY를 정의내리면 되겠지. 각각, ‘생물적으로는 여성, 남성이지만 앞에 ‘V’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생물적인 성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식선언정도 되겠지. 뭐, 어미 성은 표기를 하긴 해야 행정처리가 조금 쉬울 것 같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말한 답안은 확실히 그냥 ‘Void’성 하나만 추가하면 해결되는 문제였군요.”

“그래 맞아. 그럼 이제 맞는지 하나하나 검토 좀 해볼까? 동성애부터.”

“우선 동성결혼은 VX, VX와 VY, VY만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유전자 조작은 오로지 Void만 가능할 테니까. 안전하지 않은 인간계보를 이을 수는 없으니.”

“유전자조작을 이어서 유전자치료도 역시 더 계보를 잇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겠고요. 또 한 번이라도 유전자를 조작한 이력이 있으면, XX, XY로 돌아갈 수 없고요.”

“맞아. 첨언하자면 애초에 ‘동성출산’이라는 것은 엄연히 유전자조작을 염두 해두는 거잖

아? 사실 난 여기서 심각한 우생학이 예측되거든. XX, XX끼리는 안전한데, XY, XY끼리는 아니니까.”

“네? …… 아, YY가 탄생해버리죠. 여기서 남성을 차별해버리겠네요. 설사 YY를 살린다 해도 ‘너희는 YY 때문에 손이 한 번 더 가네? 연구도 더 해야 하고.’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 부분이 Void로 채워지면서 우생학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구요.”

“여성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면, 같은 파워로 남성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봐. 자, 아까 문제 다 풀었어.”

“……. 그러게요. 쉬운 문제가 됐네요. 흠, 심심한데요. Void 성으로 따른 거 풀 수는 없나요? 이대로 끝내긴 아쉬운데. 더 생각해봐요. 성관련 이슈.”

“해보지 뭐. 뭐, 낙태?”

“있어 봐요. 낙태라면 여자 쪽일 텐데, XX였다면 애초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낙태할 일이 없을 것이니 패스, VX였다면 낙태를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고요.”

“죄를 지은 거지. 낙태죄. 아, 난 낙태와 낙태죄는 다르다고 생각해.”

“아, 강간일 수도 있겠구나.”

“낙태의 시작은 여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낙태죄의 시작은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흠,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챙겨보자. 우리 수아가 말한 한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경우엔 남자가 낙태범, VX와 VY가 성관계를 하다 실수로 임신이 된 경우 둘 다 낙태 공범. 마지막으로 VX인 여자 쪽에서 VY인 남자를 꼬신 경우는 여자가 낙태범.”

“꽃뱀이군요.”

“그리고 XX도 기왕이면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어떤 XY와 함께 아이를 가지고 싶은지 기록해두면 더 안전한 아이가 낳아지겠지. 원치 않는다면 역시 낙태죄를 끄집어내야 하고.”

“인공자궁이랑 시험관 아기도……. V라면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뭐 더 없을까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무조건 VX, VY겠지. 왜? 미성년자니까. 아직 생물학적 성을 활용하기 전에 사회학적인 구성원으로 아직은 아동발달시기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니까. 말 그대로 미성숙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형 변환도…… 아아, XX, XY로의 성 변환도 불가능해야겠지.”

“좋네요. 언니 머리통 박박 긁어 봐요.”

“피임도 잘 해야겠지. VX, VY가 된다고 성욕이 어디 가겠어? 해소는 해야 할 거야. 단,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위기구, 피임기구들이 품질 보증이 되어야겠지. 적어도 낙태죄 변호사, 법무부 운영하기 싫으면. 기업도 이런 거 운영 자주하면 손해잖아. 애초에 기구를 잘 만들어야겠지.”

“그리고요?”

“VX, VY는 일종의 Default값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 같아. XX나 XY로 자신의 상태를 최신화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를 범하는 식으로. 아니면,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든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할 거야.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빨간줄 그이는 거야.”

“기업 쪽도 단순 XX, XY보단 변수가 적은 VX, VY를 선호하겠네요. 덜컥 아이를 가져버릴 변수가 줄어들 테니까.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울 줄 아는 상태이거나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을 테니까. Void, 하나의 스펙이 되겠네요. 그리고 잠시 XX, XY가 될 의사가 있다면 기업 쪽이랑도 미리 얘기해두는 게 낫겠네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만큼 모든 성관련 책임이 더 중해지겠지. 미안하다. 지금까지는 더 따질 경우의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계산기가 좀 그래. 무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Void 포인터를 들고 온 건데. 애초에 그거 목적 자체가 못 쓰게 만들려고, 잘못 못하게 하려고 반강제적으로.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쓰임새 많을 수 있게, 쉽게 변형 가능하게. 뭐, 이걸 이론적인, 환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에서는 더 많은 가지 수의 사건, 범죄가 일어나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만요. Void. 만약 진짜이게 사회에 적용되면 아까 낙태는 진짜 중범죄가 되는데요? 살인, 강간을 포함한 내용 같은데요? 살인은 무조건적으로 아이에게 해당 되구요.”

“강간을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경우를 봤을 때 이미 복합적인 범죄가 있긴 한데, 만약 수아 말대로 Void를 채택하면 확실히 강력범죄 하나가 늘겠네. 다섯 번째 강력범죄, 낙태. 강력범죄 가지 수가 늘수록 치안이 높아지긴 할 텐데, 이 다섯 번째 죄를 결정하는 건 사회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 왜냐면 낙태대상자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실은 완전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즉, 법을 세운다는 건 불법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말이니깐. VX, VY가 실수를 했는데 도피하다가 그만 낙태대상자가 태어났어. 그 낙태대상자, 그 아이 사살해야할까? 부모가 뒤늦게라도 철들어서 제발 유도리 있게 저 아이 키우게 해달라면 어떡할 거야?”

“사회를 이루는 집단 성격에 따라서 낙태가 강력범죄가 될 수도,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통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범죄가 타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사실 난 그쪽은 잘 모르거든. ‘책임전가’ 말이야.”

“언제는 잘 알면서 얘기했었나요? 마무리는 하세요. 언니 시작은 했으니까.”

“그래, 미안해……. 낙태에 한해서 책임전가가 가능한 근거가 뭐냐면 범인이 너무 명확하다는 점이야. 단서, 수사기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범인 혹은 용의자가 너무 명확하지.”

“범인이요? 용의자가 누구일까요? 아, 아이 자체가 기록이네요. 아이의 세포, 유전자가 범인을 잡는 데 단서군요. 범인이나 용의자를 추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후처리가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기반으로 강력범죄 하나를 더 언급할 수는 있겠네요.”

“끝. 해당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 언니는 더 언급하는 거 무서워. 이 언니는 요 정도로도 만족해.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답안. 여기까지가 언니의 계산, 나만의 승부였어. 이 Void라는 성. 나만의 답은 나를 만족시켰다고 봐. 그것으로 이 언니는 만족한다고 하는 거고, 이로써 성 관련된 경기는 여기서 끝. 아, 예습이 끝났다. 아휴, 속 시원해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히.”

수아는 거칠게 꼬덕거렸다. 해은이는 더 남은 잔당이 없는지 잠시 달아오른 머리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다. 하지만 더 생각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 경우의 수가 있을 것만 같은 경우야.”

“헐. 그런데 굳이 쳐내야 하나요?”

“수아야, 난 지금 쳐내려고 경우의 수를 보는 게 아니야. 최대한 동의하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자.”

해은은 태블릿을 두드리며 성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화감이 드는 단어를 하나 떠올렸다.

“그 있잖아. ‘인지부조화’라는 단어.”

“네, 그런 게 있죠.”

“‘성 인지 부조화’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좋네요. 한번 관련 검색을 해봐요.”

“나오네……. ‘GID, Gender Identity, Disorder. 성주체성 장애’라고. 아, 진짜 열 받는다.”

해은은 깊은 한숨과 함께 태블릿을 내렸다. 태블릿은 서서히 꺼졌다. 해은은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정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야. 언제나 수용할 준비는 돼있어. 내가 화난 지점은 정보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야. 수아야, 내 생각엔 우리 둘이 지금 바보된 거 같거든?”

“왜죠?”

“우리가 생각했던 경우의 수는 애초에 쓸모없는 헤아림이었네. 결국 적어도 사회 다른 편에서는 이 ‘성’에 관련된 부분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을 장애로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미 장애로 보고 있었으면, 우리가 나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잖아.”

“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 이 문제는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라 ‘장애’쪽으로 승격이 될 수 있다고 봐. 정확히 사회가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 개인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 꿈, 환상을 가지면 이미 사회 한 편에선 ‘장애 혹은 장애 예비자’로 보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 현 시스템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 특히, 요 벨리 녀석에 같은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말이지.”

“벨리요? 갑자기요? 왜 갑자기 개인과 인간 사회 사회 얘기 중인데……. 설마…….”

“벨리, 이거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자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건 삽시간이야. 생물인간은 순도 100% 기계인간에 비해서 그 어떤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잖아. 이거 과반수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기계인간 쪽에서 생물인간 쪽 식민지화 시킬걸?”

“반대를 해도 과반수에 의해 찬성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무리 반대 해봤자, 기계인간이 일방적으로 ‘인공지능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면 기계인간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겠네요.”

“아주 효율적으로. 인간을 닮은 기계를 만들었다고? 누가 누굴 닮겠어?”

“인공지능이 정치를 한다는 개념이네요.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자시고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기계인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순간 윤리, 양심, 종교, 철학 이런 거 다 없어. 그냥 현실이야. 법이고 절차고. 이걸 이러면 더 이상 생물인간은 인간사회에 일원이 될 수 없겠지. 진짜 특출한 인간 몇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취급되겠지.”

“그렇죠. 인공지능에 비해선 장애인일 테니까. 그걸 기계인간이 정의내릴 테니까.”

“어쩌면 과도기일 수 있겠네. 벨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서 세포를 1%라도 가지고 있는 생물인간은 다 비정상이 되든가.”

“벨리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1%의 병을 가지고 있는 소위 ‘비정상’이라 불리는 생물인간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쓰던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네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하네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수자들, 이에 냉담하다 못 해 아예 그 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소위 정상 사회, 이 마찰에 윤활제가 되어야 할 법안이나 질병은 개인이 직접 찾아야하는 현실, 그냥 사회부작용은 다 집어치우고 발전만 하는 기술. 내가 답답하다는 점은 이 점이야. 싹 다 비정상이든, 싹 다 정상이든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난 뭐, 그냥 따라가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것뿐이야. 난 소수든, 개인이든, 법이든, 과학이든 공격할 생각은 없어.”

“공격해서 뭐가 남겠어요. 애초에 공격할 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

“좋아, 정리됐네. 발 때는 걸로. 솔직히 난 동성에 다음 글에 넣으려고 했어. 흥미롭게 볼 룬 저지르는 걸로. 그런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난 거의 판타지만 쓰는데, 이렇게 법이 있고, 병명이 있다? 정의가 있으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무슨 시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난 좀 더 나에게, 판타지에 맞는 엄선된 재료를 택해야겠네. 시중에 널렸다고 막 쓰면 안 될 것 같아. 난 ‘무슨 마녀가 저주를 걸었네, 무슨 기를 발산하여 마을을 구했네.’ 이런 거 쓰고 싶거든. 뭐, 아직 프로가 아니라서 이게 필터링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기대할게요. 그런데 언니는 교회언니 아니었어요? 교회는 늘 보수적인 입장만 취하잖아요. 언니, 언급한 것 중에 적어도 기술 쪽은 싫어할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저번 주인가? 설교를 듣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 바로 거룩한 성전은 최고의 기술자와 무역, 인프라를 통해 건설한다는 거였어. 즉, 그 어떤 교리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닌 성경에 외부기술자와 정치가를 통해 거룩한 성전을 건설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어. 단…….”

“단?”

“단,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건설해주는지 말이야.”

“감독만 한다니 현실적으로 그냥 구경만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성경 맞아요?”

“어, 성경 맞아. 하지만 ‘감독한다.’는 그냥 번역된 말이고 원문은 ‘나차흐(נָצַח)’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관련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원뜻이 ‘빛나다, 밝게 하다’는 뜻이야. 목사님이 짚은 부분은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보기엔 빛으로 감싸주겠다, 보살피겠다는 뜻으로까지 보여 지거든. 정리하면 오히려 성경은 ‘새로운 기술과 무역, 인프라를 받긴다.’ 단, 교회 하나하나가 각각 작은 모임이고, 작은 공동체이고, 작은 국가처럼 보이지. 그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발전을 한 번에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닐까 싶어. 왜 교회에서는 요즘 교회 내에서 운용되는 전자화페로 달란트 시장도 열고 그러거든. 거기에서 쌓인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둘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뜻이군요. 어쩌면 그게 교회가 사회에 공헌을 방식이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쓰인 일꾼들이 어차피 다시 사회로 돌아갈 테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를 보면 성전, 신전 같은 것들이 각 사회의 시연회장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리스로마든, 기독교든, 불교든 각 종교에서 지어진 건축물, 문화 것들이 하나의 안전한 양식이 되어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를 했죠.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보면 언니가 말하는 ‘성전(Temple)’이 현대문화로 재건축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번 최신화(Update)를 해야 하니까요.”

“맞아, 언제까지 성가대하고 밴드만 세울 거야? 내가 베이스를 좀 쳐봐서 아는데…….”

“잠깐만요. 언니 악기도 배웠어요?”

“베이스에 일렉, 통기타랑 드럼도 쳐봤지. 피아노 빼고 다 해봤어. 다만, 나도 알아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그냥 관두고 싶은데 날 대체할 사람이 안 나와. 아무래도 지방교회라 그런가 봐.”

“언니, 그냥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돌려서 자랑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정말 난 못 쳐. 그냥 말 그대로 근음, 뿌리. 저음만 똥똥 치고 끝내. 막 슬랩이다

뭐시다 기술 많거든? 난 그런 거 못 해. 그래서 하는 말이야. 세상에는 DJ, 런치패드, 펍과 리 뭐 가야금까지 악기가 아주 많아. 그런데 그런 많은 악기가 성전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겠어?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네, 모자라네 이런 말이 나오지. 난 CCM자체가 장르를 더 넓혀서 EDM, 힙합에 아예 국악까지 자신만의 색을 낼 수 있는 예배가 드러져야 한다고 봐.”

“되게 정신없겠네요. 그래도 주마다 매번은 좀 그렇고 한 번씩 하는 게 낫긴 하겠네요.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드러지는 게 맞긴 하겠죠. 그래도 언니는 기독교니까 아마, 최대한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그래. 그 정신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교회는 모든 연령, 모든 사회인들, 비사회인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니깐. 내가 언급한 악기들이 모두 화음을 맞추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지. 이러한 악기들만 해도 봐봐. 설비며, 성전 구축을 하는 데에 결국 많은 인력이 쓰여. 즉, 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걸 우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부끄럽지만 최근에는 돈 문제로 교회가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고. 결국 교회, 우리 목사님의 혐의 없음이 인정되었지만. 난 이런 점이 화가 나. 왜 소수의 잘못으로 교회공동체에게 책임을 무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해당 교회공동체만 짊어내면 되는 거 아냐? 왜 기업은 그렇게 하잖아. 어디 지점에 누구누구가 잘못을 했다.”

“교회부터해서 종교가 허구한 날 까인다고 하죠. 그건 아마 작은 사회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정부가 허구한 날 까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겠죠. 하지만 언니는 알 권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도 이름 공개를 안 해요.”

“……. 그래. 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소수의 잘못으로 교회 전체에다가 프레임은 씌우지 말라는 거지. 누가 보면 아주 교회 사람들은 썩 다 괴상한 생각만 하는 변태 꼴통집단 같이 보이겠어.”

“아무래도 종교관련 언론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공동체가 커질수록 언론의 감시역할이 중요하죠. 자정작용을 말잖아요. 어쩌면 돈, 자본 관련 문제가 엮여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든, 과학이든, 정부든 하다못해 고등학교 동아리든 인간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완전한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럼 언론기관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수아가 말한 그 자정작용 말이야. 어쩌면 종교관련 자정기능자체가 없는 건 아닐까? 이 언니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 난 솔직히 그리스로마신화, 성경, 삼국지 이 세 개를 만화로 읽었거든. 뭐, 질릴 때까지 읽긴 했지. 하지만 최근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 성경이 과학 서적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성경에 과학적인 일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 난 3일 후에 다시 사신 게 어, ‘소생(蘇生)’이 과학적인 일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소생, 불교의 용어인데 난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면 여러 종교가 되고 사건 사고 난다고 보거든. 즉, 모든 신이 수평적 관계인 거지. 그 중에 수평선에 진입점이 바로 내가 주 기둥으로 여기는, 섬기는 분이신 거고. 그 후에는 종교, 교단, 교리, 기독교 같으면 교회까지 이르러서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각 지체에 이루어진 응답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류에게 베풀고 가르치는 게 각 종교가 할 일 같다는 거지.”

“흠, 순전히 언니 생각인 거죠?”

“아무튼 확실한 건 중심도 없는 종교, 아니면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경우.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했지.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설계한 거고 그릇 자체가 달랐잖아. 그런 거 아니면 난 다 사이비로 여겨. 적어도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이 말 그대로 ‘진짜’니까. 그냥 그쯤 되면 느낌이 오잖아. 이걸 굳이 말해야 해? 내가 어떻게 치료가 되어야 할지 아는 분이 진짜지 뭐.”

“그런데 그런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막 강간하는 게 우리 신이 원하는 거라면 어쩔 건가요?”

해은은 잠시 생각했다. 잠시 눈을 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다시 말을 이었다.

“보통 ‘신’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것에는 관심 없지 않나? 그냥 ‘나’라는 몸뚱이만 잘 지키면 되잖아. 종교,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니었어? 기도할 때 손 좀 만지는 거, 머리에 손 얹히는 거. 그 정도는 그 행위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 그런데 신체 접촉을 그 필요 이상으로 한다? 그것 자체가 이미 사이비 아닐까 싶네. 어쨌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 보여서. 신의 이름으로 진짜 전쟁하는 것들. 난 다 사이비로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냥 국가 방어고, 국가 공격이야. 전쟁,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오류. 버그. 사이드 이펙트 아닌가 싶네. 그런 거랑 영적 싸움이랑 비교는 하지 말아줘.”

“영적 싸움.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죠. 서로서로 신의 자녀임을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신은 잘 보면 그냥 손짓이나 말만으로 우주를 다루는데 왜 몇몇 자녀들은 왜 과학 기술로 무장된 무기들을 쓸까? 내 핵심 질문은 그거야. 신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능력,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능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화약이나 날붙이를 더 믿는 것 같아.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야. 사이비도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침략, 테러 아니면 전쟁이지. 신의 능력이 아닌 그냥 나 혹은 집단의 무력을 믿는 행위니까.”

“흠, 그래도 믿는 쪽에선 어떻게든 몸뚱이는 지켜야 하니까 무기를 드는 것이고요. 결국 그냥 종교를 가장한 인간 전쟁이란 게 확실해지네요. 그런데 우리 옆길로 많이 세어버린 것 같은데 짚고 갈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알면서 왜 역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의식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단, 너무 낮은 경험이기엔 그릇이 버티지 못하고 미쳐버리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아예 다른 종교를 만들던가. 다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지. 그 자의식이 역사를 경험하고 선하게 변화되기를. 약속하셨잖아. 그때부터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언제나 열려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지옥을 만들어대는 자의식인 것 같고. 난 요즘 이런 의문이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고 하지? 그럼 역으로 인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인데, 과연 인간의 형상을 닮은 인공지능로봇은 무슨 수로 믿을까? 그리고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 역시 정작 로봇을, 제작한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로봇이랑 제작자를 아직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수준이란 걸 알아. 이런 고민들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신론자인 언니는 인간을 닮은 벨리를 신경 써야하는 게 매우 쥘쥘하지만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심히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런데 무신론, 유신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간을 닮은 로봇을 그리고 로봇제작자를 믿을 수 있느냐, 혹은 믿을 의향이 있는 것인지 묻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 작은 스마트폰도 떨어뜨리고 분실하고 물에 빠뜨리고 하죠. 게다가 자동차 문을 거칠게 열다가 문콕을 한 적

도 있죠. 더불어 두 도구 모두 수많은 기능들을 다 이용도 못하는데, 이런 거 보면 가격대비 이용률이 낮긴 하죠. 그런데 벨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기능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벨리가 어디 걸려 넘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할 텐데, 과연 제가 벨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할까 싶은 거고요. 그냥 적당히 굴러다니면 계속 쓰겠죠. 거기서 파생된 작은 문제가 결국 다시 저에게 해를 끼치면 또 로봇 탓, 제작자 탓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서, 프레임 씌워져서 회사를 탓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이나 로봇, 로봇 제작자를 믿기 전에 벨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법 이해부터 할 것 같긴 해요.”

“고마워. 수아랑 정말 대화하길 잘 한 것 같다. 그럼 다음 얘기 이어서 하자면 당시 상황으로는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이 나왔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황. 즉, 신체 내부에는 직접적인 훼손이 없었다는 것.”

“설마…… 언니는 심폐소생술 마냥 진짜 숨이 멎어 있다가 다시 산 걸로 보는 건가요?”

“해외토픽 보면 가끔 관에서 사람 걸어 나왔다는 거 보잖아? 소생. 물론, 뇌사나 과다출혈도 염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3일이야. 3일 이내에 다시 숨이 불을 확률. 거기다 조건은 신체 훼손도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내부 신진대사는 멀쩡했다는 점. 하지만 그 숨이 멎은 기간 동안 정확히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구니에 원홀을 뚫어 생선이랑 빵을 막 꺼내온다든가, 도시에 불덩이, 화산, 아니면 산불을 일으킨다든가, 방주를 띄우고 댐을 터뜨려버린다든가 식으로.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아님 말고.”

“……. 과연 언니다운 해석이네요. 성경이 과학소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실은 이 언니는 과학소설엔 별 관심 없어. 그냥 하나의 소재로서 과학을 채용하는 식으로 쓰는 편이지. 실은 언니가 쓰고 싶은 글은 따로 있거든.”

“어떤 건데요?”

“대서사시를 적고 싶어. 그 대서사시는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야. 사실 이 아리슬을 적는 이유도 딱 하나야. 이 시리즈물을 작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지. 그래서 이성, 인성, 욕구를 각각 쓴 거고 지금은 인성. 다음은 이성과 욕구. 실은…… 이 언니가 이전에 작성한 이성을 담은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거든. 욕구와 2부작이 될 예정이야. 이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수아랑 얘기했던 예습을 좀 한 거야. 거기에 난 이미 대서사시의 Open Beta를 한번 썼었거든.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는 아마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웠거든. 여튼 이걸 너무 먼 얘기고 아직 정해진 것도 없으니 뭐라 말 못하겠다.”

“즉,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은 대서사시이고 맛보기로 써봤는데 언니 스스로 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초부터 다지고 가겠다는 얘기 같네요.”

“역시, 수아야! 하하, 그래도 너무 기대하진 말고.”

“그렇군요. 언니는 계획이 다 있군요. 대서사시리즈물이라니.”

“야! 사람이 계획 없이 어떻게 사니? 게다가 난 INTJ, 계획성 100%인 사람이거든? 뭐, 두 번째는 약간 낮게 96%로 나오긴 했고 무료검사였다는 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난 매사에 계획을 하는 건 변함이 없긴 해. 그리고 그 계획이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그 시점에 가용 가능한 자원과 시간으로 늘 최선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거든. 뭐, 내가 인공지능을 만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긴 하겠지. 큰 길부터 잡고 조금씩 벗어나면 툭툭 쳐서 다시 큰 길로 돌려놓겠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 감정을 조금 덜 느끼는 사람들은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봐.”

“예를 들면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거지. 사랑, 연민, 희망 이런 게 아니라 꿈, 목표,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게 나와 비슷한 이성적인 사람을 톡톡 건드려준다고 생각해.”

“그 목표나 꿈 따위가 사회에 이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 언니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에요?”

“당연히 성선설이지. 언니는 일단 도화지가 깨끗해야 거기에 악이 들어가든 색이 들어가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악도, 색도 안 들어가면 그냥 아무 짓도 안하는 바보처럼 보일 거야. 사실 언니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선이라고 보이거든.”

해은은 어느새 눈이 풀려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해은의 손을 잡았다. 해은의 손이 차가웠다.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은 사실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해. 감시와 통제지. CCTV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보안의 개념이거든. 난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는 감시로봇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식칼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식칼을 구매할 수 없는 통제가 부여되는 거야. 즉, 식칼을 영똥하게 썼으니 그 사람은 적어도 식칼로 하는 업무는 안 된다는 거지. 자아진로를 감시와 통제로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 교도소가 존재하는 현재는 이상적인 자유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언제나 경계해.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경우. 그러면 내가 무슨 도망을 치겠어. 아마 난…… 강간당할 거야. 내 약점 하나하나 분석당하고 심지어…… 내 모든 욕심까지도. 그 전에 난 내 모든 것을 담아 내보이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것이 언니가 선택한 자유일 거예요.”

해은은 천천히 손을 빼내었다. 수아는 다시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좋아요, 언니, 이렇게까지 정리한 김에 문제 하나 내도될까요?”

“마음대로 해.”

“제가 약간 변형했는데, 그래도 고리타분한 문제예요. 재미로만 풀어주세요. 수백 명의 승객이 탄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앞에 갈림길이 있는데, 직진 선로에 고장 난 차량이 걸쳐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차량에 갇혀있죠. 그리고 다른 선로는 어디로 이어지 알지 못해요. 언니는 갈림길 관리자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기차로 가서 어떻게든 세우려 할 것 같아. 브레이크가 고장 났든 기관사가 없든 어떻게든 열차를 세울 것 같아. 그리고 그 후에 해당 차량을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할 것 같아. 왜냐하면 선로 위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가장 핵심인 것. 그 열차를 멈추려면 들어 올리면 된다는 것. 그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엄청난 초능력이 필요하겠네요. 엄청 피곤하겠어요.”

“몰라. 요즘은 정말 글 마감하느라 피곤해. 내겐 그런 비슷한 초능력이 잠깐이라도 주어졌으면 해. 아! 수아야. 내가 최근 그 원죄만 도려내 쓴 글이 있었다고 했지? 한 번은 악마같은 글을 써보는 거고, 한 번은 천사 같은 글을 써본 거야.”

“오! 그 글의 제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클로징. 내 안에 천사와 악마를 그려내는 이쯤 되니 이젠 알 것 같아. 많은 이들이 미리 깔아놓은 멋진 선로들을 이용하면서 존경하는 방법을. 이미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더라고. 난 이제 내가 사용한 수많은 선로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은은 심호흡을 했다. 수아는 해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난 내 독자가 환상은 환상, 소설은 소설로만 봐줬으면 좋겠어. 그것에 내가 선택한 자유, 내게 짊어진 책임이란 거지.”

“언니가 쓰는 건 자전적 소설이라 매요. 그럼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잖아요.”

“자전적, 소설이잖아. 내가 쓰는 건 소설이 메인이야. 현실이 조금 붙어도 어차피 소설이니 까 다 무너질 수……. 아니, 저자인 내가 직접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소설에다가 현실을 살로 넣은 거지. 난, 만약 이 글로 돈을 벌게 된다면 어, 난 여기에 썼던 영감이라든지 소재에 샀은 받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도 샀을 받지 않고 그런 영감들을 받고 쓴 것뿐이니까. 오로지 내가 받을 샀은 글자들을 재조합하고 플롯과 캐릭터를 구성한 노동 값. 딱 소설을 형성한 값만 받을 거야. 그게 내 자유고 내 책임인 거야. 그래, 난……. 내가 원하는 자유는 바로 거짓말을 조금 해보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알겠더라고. 진짜 거짓말만 써놓으면 너무 재미가 없었어. 현실이야기가 조금은 들어가야 내 재밌는 거짓말이 조금씩 완성되는 것 같아. …… 수아야, 이제 내가 아리슬을 적으며 느끼는 감정이 이제 조금이라도 알겠니?”

“아리슬 5호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맞아……. 나 이런 글, 쓰기 싫어. 나 너무 바보 같지? 나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괴로워.”

“솔직히 전 흥미로워요. 아리슬. 누구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게 아닐까 싶어요. 언니의 계속 살려고 하는 그 팔딱거림. 어쩌면 그런 종류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언니의 그 오피셜만 찾는 습성, 그리고 언니의 프로젝트. 인간, 아니 생명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회복되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희생불가 수준의 악화, 고통만 아니면 말이죠. 언니, 아리슬 그거 한번 계속 진행해 보세요. 언니가 찾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실제로 찾아낸 행복, 불행, 스트레스의 원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되는 지에 대한 고민, 언니가 다루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담아낸 단어나 문구, 철학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리슬은 앞서 말했듯이 언니가 만들어낸 진수성찬에 얹은 강한 술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자기 자신. 언니 스스로 행복에 가득 차 배불러질 수 있어요.”

“진수성찬……. 아……. 그래. 참, 그게 내 컨셉이었지, 참. 아휴, 내 바닥이 완전 다 드러났네. 그래, 다 굽어서 한번 상 차려볼게. 진짜 죽을힘을 다해 팔딱거리본다. 그런데 확실한 건 분명 물이 가득 찬 때가 있었을 거야. 그 때에 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지금 쓴 글을 반대방향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조금 어지러운 테지만 ‘지금도 그래도 났다’며, ‘그래도 지금이 여유 있지,’ ‘그래도 지금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 위로를 하면서 말이야. …… 하, 그래, 내 손발이 막 그냥 오그라든다야. 정말정말 뒤에 한 얘기는 없던 걸로 해줘. 이제 나도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야. 하하 참. 뭐 여태 얘기 나눈 게 이런 거니까. 어쨌든 수아야 고맙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니. 공감……. 언니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진짜 정말 고마워.”

“아니예요. 고민 푸셨으면 됐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정말 우리 둘이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 언니 그런데……. 염치없지만 수아한테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 이건 내 고민이 아니고 수아가 이런 면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해도 돼? 수아 바쁘면 여기서 집에 가도 돼. 하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 같아서. 괜찮지?”

해은은 다시 수아 옆으로 가 정우 책상에 걸터앉았다.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

은은 표정이 한결 편해졌다.

“좋아, 사실 아까 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수아가 일방적으로 정치얘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마음 다잡고 우리 수아 내버려뒀어. 하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수아는 ‘잘…… 이요.’하고 막혀버렸잖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보이더라고. 성별 Void? 넌 Void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생각해봤니? 로봇이 치킨을 튀겨? 햄버거를 싸줘? 커피를 내려? 그럼 치킨이 한 3,000원 하겠네? 하나의 공산품 취급될 테니까. 브랜드네이밍비랑 인건비 다 빠질 거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 사용료 보단 이런 쪽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진짜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눈을 돌린다는 뜻이니까. 공사산주의, 대한민국연합? 특히, 이런 이슈가 많을 것 같은 문제. 사실, 난 같은 힘으로 ‘대한민국분열’이란 것도 생각했었거든. 나는 예전 삼국시대처럼 남한 쪽 진영이 동과 서로 한번 더 분열이 되는 것도 그랬어. 근거는 서로의 지역에 인구수도 충분하고, 정치이념 확고하고, 다른 지역과 공유하기 싫어하고, 무엇보다 종교도 가지고 있는데. 난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 굳이 사이버라고 불리는 종교 믿을 바에 차라리 분열 되서 그냥 국교로 하면 되잖아. 거기에 정치세력마저 정체성에 의심이 가고.”

“……. 정치세력이라뇨?”

“진보라는 것은 액셀이잖아? 내부 세력 혹은 이웃 국가, 외부 세력의 잠시 못들은 척 하고 별전을 도모하는 행위 정도? ‘자주 국방, 무기 개발, 경제 발전, 대규모 사업 추진, 새로운 도로교통망 구축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대부분 경제,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 보수는 역으로 브레이크. 최대한 내, 외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태 쌓아놓은 부나 여유를 공유하는 정도로 생각해. 즉, 훗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잠시 멈추고 구멍 뚫린 곳을 메꾸는 거지. 기대 되는 건 ‘국가 관계 유지, 경제 유지 혹은 퇴보, 복지, 기존 도로교통망 정체 구간 파악.’ 정도. 경제는 그래. 보수를 하는 데 무슨 돈이 쌓이겠냐는 거야. 이쪽은 인권, 복지에 더 집중을 하는 쪽 같아. 이걸 아무런 경제 효과가 그리 크다고 생각되진 않아. 뭐, 이걸 내 개인적인 해석인 거야. 그리고 무언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거기에 당파의 공약이란 것도 이 세력 저 세력 돌아다니고. 분명 상대진영에서 본 공약이 이쪽에서 보이고 어느 순간에는 또 저쪽으로 가있고. 마치, 국어영역 문제가 수학영역에서 나오고 영어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난 국어, 수학, 영어 다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인걸. 난 그 판단을 못하겠어서 그냥 다른 분들에게 선택을 넘겼어.”

“…….”

“얘기 이어서 하자면, 연합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의 분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 연합을 좋아하는 만큼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스트레스 받거든.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래, 이러한 분열 이야기는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못쓰니까 아마 다들 싫어하는 내용일 거야.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취급하겠지. 부정적, 긍정적. 내 의사는 포함되지 않았어. 왜 그걸 구분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난 글썄. 연합이든 분열이든 나라에 얹혀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 …… 이 이야기로 난 결론을 낼 수 있었어. 내 결론은 어쨌면 이걸 그저 나만의 망상인 거야. 이 언니는 방금 수아에게 얘기한 국가, 이념, 사상이야말로 ‘가상(Virtual)’이라 생각해. 남들 흔하게 쓰는,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코드나 기술이 아니라는 거지. 딱 우리 둘만 생각해낸 거잖아. 사실이 아닌 거지. 하지만 이런 가상의 국가를 제작하면서 언니는 배울 수 있었어. 바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이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더해서 영화든 음악이든 미디어, 자료, 이념, 심지어 인물, 국가에 가족까지. 그건 내 것들이 아니잖아. 그냥 ‘빌린다.’ 정도로 생각하려고.”

“가족까지요?”

“어, 심지어 난 내 배로 낳은 자식까지도. 내 자식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건 그냥 서류상에 표기고. 실제로는 자식마저도 남이잖아. 과학적으로. 구성 세포가 다르고 유전자도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래, 적어도 반 이상이 딴 사람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서류가 환상 쪽이고.”

“그래서요. 뭐 어찌시게요.”

“난 내 소유권이 서류로 기록되는 모든 것에는 자체적으로 ‘Void’값을 넣을 거야. 내 나라, 내 조국, 내 사상, 내 옷, 내 태블릿, 내 자식. 제일 미안한 건 음식이야. 음식은 소비성이라 사라지니까. 아무튼 나는 다 빌리는 쪽으로 인식할 거야. 그냥 우리나라, 자유진영에 얹혀사는 거고, 옷이나 태블릿 따위는 그냥 잠깐 쓰는 거고 자식은 뭘 걱정을 해. 어차피 개 삶이 따로 있을 텐데. 물론, 시간 그리고 공간 상 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일수록 믿음이 더 가긴 하겠지. 그 뿐이야. 우린 언젠가 다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해.”

“……. 갑자기 언니가 그런 얘기하니까 슬퍼졌어요. 다 포기한 사람 같아요. Void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차선책이지.”

“난 기독교야. Void는 그냥 공적인 영역에서만 그렇게 정의한 거야. 사적인 영역에선 이미, 정해졌거든 사실. 내 나라, 내 옷, 내가 쓸 도구, 내가 만질 것들. 난 앞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 거야. 물론 얹혀사는 주제에 공적인 ‘우리’라는 것도 조금은 신경 쓰면서 말이야. 혹시 몰라. 내 자식이, 내 도구가, 내 나라가 변해버릴지. 어떤 진영, 어떤 사상이든, 어떤 자식이든 상관없어. 허락해주면 또 거기에 얹혀사는 거지 뭐. 아니면 나를 받아주는 곳. 만약 못 찾는다면……. 괜찮아. 말했잖아. 찌피 난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는걸. 빠르게 날 돌려 보내 주면 나야 정말 감사할 따름이지.”

“언니한테 살 땅이나, 옷을 빌려주든가 아님 슬하에 자식까지 있든 누굴 입양하든 다 감사할 거 같네요. 나를 받아줘서. 자식이 내 가르침을 받아줘서. 아, 알 것 같네요. 언니는 누가 언니를 죽이든 살리든 무조건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감사 뿐만은 아니야. 죄송한 것도 있어. 나를 살리든 죽이든 들어가는 시간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런 것들.”

“그렇네요. 사람 죽이는 데에도 자원이 들어가긴 하네요. 생각이 확고하신 건가요. 다른 생각은 안 나요?”

“지금까진 그렇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고. …… 쓸데없이 징징거리진 않을 거야. 해결책도 떠올리지 못할 거면서 남 헐뜯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능력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니까. 수아야, 그런데, 미안한데, 수아도 이 언니가 갈 때쯤에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랑 말이 통하는 걸 보니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저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 즐거웠어. 아! 우리 수아 혹시 좌우명 같은 거 있어?”

“네? 아, 그, 그 뭐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요. 언니는 뭔데요.”

“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자.’ 영어로 ‘Respect, people who live different lives from mine.’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조금 많아. 나 사는 거 겁나 힘들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다들 대단해 보이거든.”

“네……. 그래요. 전 이제 집에 갈게요. 언니는요?”

“이 언니, 수아도 존경해! 내가 화내도 존경하니까 화내는 거다? 그럼, 집에 잘 들어가.”

“네, 그러세요. 그런데 언니는 어디로 가세요?”

“난 놀러가. 넌?”

“전 머리가 아파서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그래, 잘 가!”

“어, 언니…….”

수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해은은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수아를 보았다.

“아니예요.”

해은은 더는 말을 하지 않는 수아를 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햇살이 드리우는 앞문을 수아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헤카테가 조용히 다가와 수아의 손을 만졌다. 수아는 잠시 고개를 내려 헤카테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수아는 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눈을 반쯤 감았다. 가방을 고쳐들고 교실을 나가기 전 수아는 구시렁거렸다.

“장편소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세 번째 잔, 추가 글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복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본인의 복기는 이렇다. ‘또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청’이 되었다. 그렇다면 슈퍼컴퓨터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게 계산을 의뢰하는 항목은 ‘도로교통상황’이 될 것 같다. 시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전 날의 데이터값을 비교해 인구밀집지역을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에 특수한 어떠한 질병발병에 경보와 주의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공학이 발달하게 된다면 질병청에서는 미리 인구 밀집지역을 예측해 취약한 질병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방송국으로 이 자료를 넘길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국은 뉴스 끝 시간에 기상캐스터 다음으로 도로교통캐스터가 나와 전국에 설치된 인도와 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국민에게 질병이 어느 지역에 취약한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송을 본 국민들은 해당 지역에 출입 시 감염에 걸맞는 우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잔. 현실, The Bell With Fox

해은은 교문을 나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문 바로 옆에서 민애와 예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은이 다가갔으나 위낙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본 체도 하지 않는다.

“정신이 없네, 다들. 나 왔어.”

“응,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뭐 먹을래?”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었어?”

“해은아, 그런 폐지를 왜 또 먹니.”

“어우, 벨리가 만들어주는 건 나도 지겹긴 해. 시내로 갈까? 여긴 먹을 게 없어 사실. 민애 언니 말처럼 폐지잖아.”

해은은 예서와 민애를 따라 걷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은은 머릿속에 떠올라다니는 숫자들이 걱정됐다. 예서가 시무룩해진 해은의 얼굴을 보았다. 예서가 갑자기 해은의 팔짱을 끼었다.

“우리 친하잖아. 우리가 한 톱 낸다니까? 수아도…… 마음에 들어하던데?”

“수아? 야, 너희들 정우랑은 안 친해? 아니면 개네랑 놀면 되잖아. 왜 굳이…….”

“너랑 수아 같은 애들이랑 같이 지내냐고? …… 일단, 여자니까. 나도 여자고 수아랑 너도 여자고. 정우는 남자고. 남자인데다가 맘에 하나도 안 들고. 재수 없고. 난 재수 있고.”

민애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예서는 그래도 시무룩한 해은을 지긋이 보다가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내려 하였다. 해은은 예서의 손길을 피했지만 익살스러운 웃음을 짓는 예서에 그냥 놔두기로 하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친해지는 건 너희들 바라던 건 아닐 거 같은데.”

“왜? 아니, 해은아.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멀쩡한 친구를 못 찾겠어서 그래. 정우 그 새끼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그런데 난 벨리 이름까지 나눌 생각은 없긴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데 난 너무 답답하더라고. 병신 같아서 이 현실이. 아, 빨리 성인 찍고 인터넷 열른 하고 싶다.”

“그건 맞지.”

해은은 민애의 말에 수궁을 하였다. 해은은 은영인 하던 인터넷 온라인 채팅을 잠깐 엿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원거리 친구 어플 덕에 채팅과 사진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채팅 옆에 매 초록색이 붙어있었는데 가끔씩 빨간불 채팅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은영은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인공지능 신호등은 옥설이나 비방 및 음란물 등을 감지하여 빨간 신호를 채팅에 붙여준다. 하지만 거기까지의 역할이며 그 점멸된 신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몫이다.

특히, 채팅이나 댓글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채팅의 수위여부를 확인해준다. 사용자는 엔터나 작성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의사가 담긴 글들이 어떤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나 대형 쇼핑몰의 구매 후기(쇼핑몰 자체는 비회원 등으로 일반인 역시 사용 가능하나 구매 후기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가 있기에 로그인을 해야 남길 수 있다.), 각종 문화, 언론 댓글 란 등에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 인공지능이 빨간 신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사건을 감지하여 해당 채팅의 이력을 사이버 수사대에 전달한다. 웬만하면 접속자 혹은 조회수가 100명만 넘어가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댓글

글과 자료, 채팅을 남겨야한다. 또한 미리 명시한 여러 사이트 주의사항에는 성격에 맞지 않는 채팅(연애인 사이트에서 정치 섹션 글을 남기는 행위, 스포츠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작성할 시에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위와 같은 사항에는 신고 접수 시 사이버수사대가 사이트 성격과 댓글의 성격을 파악하여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소규모 채팅(50인 이하 채팅방)은 소위 방장(Head of Room, 房長)이 인공지능 신호등이 황색일 때의 단속여부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역시 적색신호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벗어난 채팅이 작성될 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채팅 신고는 인공지능 신호등이 청색일 때도 할 수 있는데,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채팅의 로그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채팅방 내부의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남긴 채팅과 댓글 등에 청색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타인을 비방 및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아이디를 쓴 당사자는 처벌된다.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사용은 타인이 할 수 있다. 국가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하는 행위는 그저 인터넷이란 도로에 아이디라는 차를 끌고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줄 수는 있게 된다. 또한 어떤 한 개인이 접속만 자신의 아이디로 해주고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디 바꿔치기를 악용한 범죄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이디 바꿔치기 범죄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지문이 인식되는 키보드와 마우스 등 다양한 입력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시내로 가는 버스가 도착을 하였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탔다. 시내로 가는 버스에는 사람들이 제법 타고 있어서 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자리를 민애와 예서는 해은에게 양보를 하였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용돈이 남아서 그래. 그게 다야. 부담 갖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랬냐? 미안혀. 그나저나 뭐 먹을래?”

“해은 언니는 최근에 뭐 맛있는 거 먹은 적 있어?”

“나 글썸. 어제 양고기?”

민애는 놀란 눈으로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두 사람이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 언니 부자라니까, 은근. 언냐, 양고기 먹었대잖아. 요번에 오픈한 거기 말하는 거지? 거기 맛있긴 했어, 나도.”

“그 사장님이 꽤 부자였던 걸로 아는데.”

“민애 언니는 참. 그 정도 QUALITY면 꽤 쓴 거 맞지.”

“워, 이게 머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마법신문(Magic Newspaper)인가?”

“해은이 신문 안 봐? 의외네. 그 봐봐. 재밌어.”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얇은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이어나가다 결국 마치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종이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신소재공학이 되었으며, 이는 산업전반계를 뒤흔들었다. 이유는 이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비단 종이신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가방, 우산, 자동차 외형, 스마트폰 뒷면, 만화책 등 하다못해 티셔츠에까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 디스플레이를 수치원단(Digital Velvet)이라 부른다. 한 디자이너는 이 최첨단 원단에 대해 ‘원래는 한 가지 맛만 냈는데 이제는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사용자는 원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인프라넷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 실제로 우산이나 자동차 외형에 최신 게임이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을 위한 업체가 따로 생겨날 정도다. 각각의 상품 자체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플랫폼(Platform)이 된 것이다.

단, 너무 시각을 자극하는 색상 및 디자인,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디자인, 음란한 디자인은 국가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보통 업체에서는 이를 잘 챙기는 편이지만 문제는 개인이 직접 디자인할 경우 허용되지 못하는 색상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엄연히 디스플레이를 하는 행위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에 속하기에 인공지능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에만 디자인을 표출해도 되는 식으로 법안이 수정되고 있다.

해당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업체는 최근 대롱대롱 전지를 달고 다니는 무거운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닌 제품 자체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가벼운 배터리 충전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박막 태양전지를 얇게 할 수 있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치원단을 군사목적으로 쓰기 위해 디지털 전투복을 연구 중이다.

‘마법신문’은 한 언론사에 의해 처음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사의 ‘마치 어릴 적 마법영화에서 보던 그림이 움직이는 서적과 같다.’ 비유를 채용해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업체는 ‘해당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엄연히 구분을 지어야한다. 이유는 현 디스플레이는 컬러이기 때문이다.’라며 반론하였다.

최근에는 적정 수준의 디스플레이의 지식만 가지면 취업이 되는 ‘전자신문관리원’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났다. 먼허체계와 데이터 사용료의 존재로 인해 신뢰성 높은 기사 내용들이 모두 유료화가 되면서 여러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기사내용을 수치원단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 및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신문은 종이에 인쇄되는 신문에 비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높다 보니 보통 비교적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된다. 전자신문서비스는 신문을 구독할 시 미리 예약한 시간만큼 전자신문이 구동되다가 시간이 다 될 경우 더 구동되지 않는다.(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금액을 소액 더 지급하여 중요 이슈들을 더 읽어볼 수는 있다.) 사용자는 다 읽은 신문을 사랑방에 설치된 사랑실에 다시 전자신문을 넣어 최종적으로 관리원이 약속시간에 전자신문을 회수한다.

관리원은 보통 너무 심하게 전자신문이 훼손되어있다면 우선 사용자와 전자신문 업체와의 연결을 중재한다. 해당 제품은 연결된 디스플레이 업체에 맡기거나 폐기처분을 한다. 단, 폐기 처분 역시 국가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되어야한다. 최근에는 불법 수치원단 생산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현재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적합검사를 실시해 일정 예상 수명을 채워 시중에 판매되도록 법이 집행 중이다.

전자신문서비스는 최대한 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랑방의 존재로 인해 스마트하우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이다. 스마트하우스 거주자는 대부분의 제품이나 생활 자체를 서비스로 대체하는 성향을 가지기에 전자신문 역시 ‘전자신문을 따로 구매해 집 안에서 관리하는 것조차도 집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직, 모든 집이 스마트하우스로 넘어오지 않았기에 여전히 종이신문을 인쇄하는 업체도 많다.

시내는 해운이 어렸을 때 몇 번쯤은 가본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학업으로 인해 생각조차 못할뿐더러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논다’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졌다.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질수록 놀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다.

“해은아, 그래서 뭐 보고 있어?”

“흠…… ‘유전자 가위로 좋은 것만 물려주면 누군가는 나쁜 것만 물려받지 않을까?’라네.”

“그럼 유전자 바위(Gene Rock)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서는 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흘려들은 질문에 대충 답을 하였다. 이걸 어찌 답해야할지 찢찢매던 해은은 마침 구동이 종료된 전자신문을 보았다.

“어? 꺼졌다.”

“어…… 글썄, 우리 파스타나 먹을까? 어때?”

“예서야, 이거 다 됐는데 어떡하지?”

“계속 볼 거야? 결제 해줄게.”

“아니, 재밌는 게 없어. 반납할게.”

예서는 해은에게 친절히 전자신문을 반납하는 곳을 알려주었다.

“애들아? 파, 스, 타 어때?”

“좋은 거 같아. 역시 언니는 먹는 거 잘 골라. 아! 해은 언니는?”

“뭘, 맛만 있다면야.”

“그리고 보니 민애 언니, 술 가는 거야?”

“어? 민애랑 예서는 파스타랑 술을 같이 마셔?”

“아냐, 술은 이 언니만. 이 언니만 잘 마셔. 난 못 마셔. 그리고 보통 ‘술파티’라 하면 이 언니만 줄창 마셔.”

“야, 둘이 닥쳐.”

단정한 교복을 입은 민애는 조용한 버스 내에서 실제 본인 얘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못내 신경 쓰였나 보다. 버스는 어느덧 시내에 꽤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내 외곽에 들어서니 인도 위가 전부 미세먼지 그늘막처리가 되어있었다. 해은이 기억하는 것은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이젠 제대로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인도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목적지 ‘마천루’들이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버스는 지하로 향했다.

“뭘야?”

“뭘긴 뭘야. 시내 다 와 가는 거지.”

“이 언니 모르네. 땅 뚫잖아. 언더-웨이(Under-Way) 프로젝트는 들어봤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거야.”

해은도 알고 있었다. 정부는 벨루와의 논의 끝에 미세먼지폭풍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승인절차를 내렸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던 해당 소식은 은영조차 멀쩡한 땅을 헤집는다면서 이 소식에 대해 굉장히 언성을 높였었다. 하지만 이미 삼을 뜯 이상 뭘라도 파내어야 하였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금 해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해은은 왜 자신이 사는 동네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였지만 입 밖에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민애가 안내한 정류장에 내렸다. 지하 공기는 생각보다 신선하였다. 거리를 둘러본 해은은 지상에서의 상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았다. 그저 하늘 천장에 뚜껑이 있는 것일 뿐이었다. 해은은 ‘지하 도시’라는 말에 음침하고 빛이 겨우 세어 들어오며, 손전등 하나 지참하고 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백화점으로 들어서자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행여 옷깃이라도 닿을까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민애와 예서는 닿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건물은 80층으로 되어있었고 민애는 61층을 눌렀다.

“무슨 파스타 집이 61층에 있는 거야? 어디 들렀다 가는 거야?”

“아무리 파스타여도 운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먹는 맛이 나지.”

예서의 말에 해은은 고개가 갸우뚱하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속으로 상승하였다. 예서와 민애는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달라지는 기압을 느꼈다. 해은은 인상을 찌푸리고 예서의 말을 이해하는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그세 61층에 도착하였다.

61층은 지상이라 해도 믿을 만큼 광장이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고개를 올려다보았다. 가운데가 뿔 뚫린 채 층마다 샹들리에가 매달려있었다. 어찌면 61층이 이 빌딩의 중심부이자 라운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야해. 그렇게 처음 온 거 티내지 말고.”

민애의 따끔한 충고에 예서는 웃으며 민애의 어깨를 때렸다. 민애는 예서의 팔목을 꼭 잡고 최대한 일그러뜨렸다. 예서는 끝끝내 버티다 민애에게 사과를 하였다. 해은은 둘을 따라 조용히 파스타 집으로 향했다.

파스타 카운터에는 굉장히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이 인사를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안에는 굉장히 고성능으로 보이는, 굉장히 사람 같은 로봇이 여기저기 서빙을 하고 다녔다. 민애는 미리 얘기해둔 창가 쪽으로 예서와 해은을 인도해주었다.

“이번에는 네가 사는 거다. 예서?”

“라저.”

“그런데 대단하네.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는데.”

“응? 무슨 소리야? 뭘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로봇이 너무 사람 같아서 말이야.”

“어?”

민애와 예서는 또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또 졸지에 개그맨 처지가 되어버렸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야. 그렇다고 여기 종업원들 아무나 안 뽑아. 어느 정도 스펙은 되어야 한다고. 하다하다 요즘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으로 ‘서빙’이 있다니까, 글썄.”

해은은 이곳 종업원이 되려면 최소 명문 대학은 졸업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최소 그 정도는 되어야 소위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여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해은은 속으로는 기겁을 하였지만 일단 종업원이 가져다 준 물을 한 모금 마시기로 하였다.

“사람을 왜 쓴데?”

“이 집은 서빙을 사람으로 쓰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장사 안 하겠데. 그리고 서빙 로봇에 된통 데였대. 저번에 로봇이 아이랑 부딪히면서 옆 손님한테 파스타 쏟았거든. 윤리인지 머시긴지 이상하게 작동한 거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할 거냐, 손님한테 쏟을 거냐.’에서 강후자를 선택해 버린 거야. 그런데 그만 회사에서 데이터 공개를 일단 잘 안했고 결국에 했어도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슬쩍 기사 찾아봤었는데 아주 아웅다웅 이더라고. 데이터가 명확히 기록되면 뭐해. 돈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왜곡 해버리는 건 똑같은데. 결국 단골은 단골대로 빠져나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랬어. 그때 이후로 서빙 사람 쓰더라고. 사장이 사람 쓰는 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

“아, 뭐 그런 일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거 내 생각엔 애 엄마 잘못 같은데.”

“맞아, 로봇 충돌 측정값이 딱 아이 부딪힌 거였거든. 그래서 애 엄마 붙잡고 난리도 아니

었어. 그런데 그 애 엄마가 제대로 된 코딩분석업체 불러서 확인해보니까 다 드러나더라. 글썄, 그 서빙로봇이 해킹 당했었데. 가게 안 누군가가 로봇 해킹해서 다리 쪽에 딱 그 아 이 부딪힐 정도의 충격값을 입힌 거지. 업체 쪽은 그런 줄도 모르고 데이터 분석 안 되서 찢찢 뒀던 거고. 근데 더 놀랄 노는 이 일을 일으킨 주동자가 맞은편 가게라는 거야. 뭐, 심 중이지만.”

“소름이다. 아, 벨리가 아니니까 해킹이 쉬웠던 거구나.”

“벨리? 언니는 벨리는 믿나봐? 난 안 믿어.”

“나도 옛날 자료 찾아보긴 했었어. 그런데 소위 엘리트라고 모인 옛날 대기업 같은 데에서 글썄 개인정보가 수천만 건 씩 나갔다는 거야. 수천만.”

인터넷 면허체계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개인정보는 ‘국민의 생명’처럼 다룬다. 개인의 사생활 및 모든 인적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에 이것이 손상되면 인프라넷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사이버수사대 뿐 아니라 인터넷협회의 인력도 동원돼 사건을 수사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해킹이나 인프라넷 해킹은 국가적 테러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인프라넷에서만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그 사이트가 해킹될 경우 테러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 표 건다. 이거 벨리 언젠가 한 번 뚫린다.”

“에이, 예서야 그래도 벨루에는 넘사벽 인력들이 있는데.”

“언냐, 정신 차려. 고 개인정보는 한 번 뚫려도 어떻게 복구는 되겠지만 벨리라고. 벨리가 뚫리면 뭐가 더 뚫리는 줄 알아? 우리 머리통 뚫릴 수도 있다고.”

“그그 예서야. STOP, 거기까지. 그건 그렇고, 근데 이 집 그때 그냥 물어줬다는데, 어째 주방 쪽은 온갖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드라? 그니까 지금 주방장은 차라리 더 좋은 요리를 위해 주방 쪽 시설에 더 투자를 하는 거겠지?”

“허유, 대체 무슨 차이일까? 공장에서도 로봇을 쓰는데 말이지. 그냥 인간이 편하게 되는 거겠다는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해은이도 거기까지. STOP. 그냥 우리 다른 얘기하자.”

“그래! 그럼, 민애는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다 알아? 이런 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올 텐 데?”

“이 언냐 사실 여기서 알바 했었잖아. 언냐도 그런데 이 언냐도 운동해서 한 몸매하거든.”

“그래? 근데 지금 왜 안 해?”

“그……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이 언냐 손이 좀 거칠지. 쓸데없이 힘만 센 편이야.”

“쓸데없다고, 예서야?”

갓 구운 마늘빵이 나왔다. 민애와 예서는 능숙하게 스프에 찍어먹었다. 해은은 둘처럼 따라 입속에 빵을 넣어보았다. 단순 빵이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진정 이 시대에 맞 본 ‘꿀맛’이었다.

“자 언냐, 그리고 저기를 보면 돼. 이게 바로 ‘운치’라는 거야.”

예서는 마늘빵과 함께하는 전경 감상에서 그 우아함을 찾아내었다. 민애는 입천장에 들러 붙은 빵조각을 혀로 떼어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어느새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동네를 보았다. 하지만 역시 고작 빵이어도 굉장히 맛이 있었다.

이윽고 까르보나라, 토마토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파스타, 미트 스파게티가 나왔다. 민애가

까르보나라, 예서는 미트 스파게티, 해은은 토마토 파스타를 가져갔다. 서로 한 입씩 나눠 먹으며 각각의 맛을 평가하였다.

“그나저나 좀 이따가 우리 수영장 갈래?”

“오, 좋다. 가자가자.”

해은은 민애의 대담한 코스 선택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해은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왜 그래?”

“아니, 그게, 갑자기 수영장을 간다고 하니까.”

“민애 언냐도 참. 모르겠어? 흠, 해은 언냐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뭘 걱정해. 그리고 어차피 노는 건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정도면 신경 안 써도 돼, NM, ha, Don't worry about that. 언냐! 괜히 화나게 하지 마.”

해은은 예서의 날 선 칭찬에 파스타가 더 맛있어졌다.

휴대폰으로 결제를 마친 예서는 화장실로 갔다. 해은과 민애는 먼저 가게에서 나와 가게 이름과 안을 훑어보았다.

“맛있다.”

“맞아, 괜찮은 집이야. 시간 되면 한 번씩 먹어봐. 야, 그러고 보니 여기 양고기 보다 싸잖아.”

“그러네. 네 말대로 시내에 한 번씩 오자고 해야겠다.”

해은은 진심으로 말 하였다. 민애는 해은이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보여 미안했지만 조금씩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만족하였다. 이어서 예서가 나왔고 셋은 수영장을 향해 다시 지하로 향했다.

무인 버스에 몸을 맡긴 세 명은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 서서 갔다. 단, 지하철 마냥 부드럽게 버스가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손잡이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평소 공부는 뭐로 해?”

“글쎄, 난 벨리는 선생님 중에서 린(Linn) 보는데. 울 엄마가 나보고 고2니까 그건 때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벨리는 선생님. 실버 체이서(Silver Chaser). 원래 골든 체이서(Golden Chaser)할라 했는데 맘마가 나보고 꼴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버 들어. 돈 아깝데. 언냐는?”

“나, 나는 퓨처 박스(Future BOX).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나저나 민애는 린이라니. 그거 좀 쎈 편 아니야?”

“어, 나도 그거 때문에 골치긴 해. 근데 이게 우리 시험 기본체력이래. 이것도 못 풀면 시험장 갈 생각 하지 말래.”

‘벨리는 선생님’은 최근 사교육에서 새로 등장한 교육체계를 채용한다. 해당 사교육기관은 BIXchoolling(빅스쿨링), 기개수상담관리서비스: 기본개인수행인재양성서비스, Basic Individual eXecuting School Service을 도입하였다.

사람은 사람을 만든다.

천재는 천재를 만든다.

천재는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천재를 만든다.

단, 여기서 천재와 일반인은 각각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 ‘아직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학생’으로 구분한다.

위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교육기관으로서, 늘 학생과 함께 다니는 벨리가 학생의 생활패턴

과 학업 성취도를 기록해 가지고 있다가 진학시기, 취업 시기에 맞춰 빅데이터전문가와 교육담당자 결합이 된 이 집단에 의뢰하게 될 경우 해당 사교육기관에서 의뢰를 신청한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교나 회사를 찾아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회사나 학교에서도 벨리를 통한 학생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천인 중 관심이 가는 인원들을 추려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 벨리에 저장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기관은 반드시 한 번 분석이 시작됐으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유는 조기에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인터넷 면허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이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 학생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 수업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성년자 신분이어도 인공지능 신호등을 구비한 채팅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서비스 시대에서는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모두 자료로 가공되어 공유가 되는 점을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능력 뿐 아니라 쓰기, 읽기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은 서비스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스마트하우스만 보더라도 정말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 필요 없는 방을 삭제하고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틀이 비단 집뿐만 아니라 옷, 우산 등 거진 모든 사물들이 플랫폼화가 되면서 더욱 더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개수상담관리서비스를 공교육에 도입하여 BIXAES(BIX, 개개수: Basic Individual eXecuting Ability Education System, 기본개인수행능력교육체계)로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식으로는 기본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은 계속 유지하여 성취도를 책정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쉬는 시간(노는 시간), 여러 실험 및 재량시간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추가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모든 공교육기관이 학생의 데이터를 소유하게 될 경우 자칫 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데이터 사용료를 악용해 여러 사기업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팔아넘기는 식으로 돈을 받아먹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었다. 문제는 사건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업에서 활용 가능한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해 성격이 비슷한 사기업간 공유를 해버리는 사건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후 무분별하게 공유돼버린 포트폴리오를 소유한 학생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이 파장은 공교육에 기개수가 도입되는 것에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일가견에서는 오히려 공교육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한 대학 조사결과, 현 시중에 판매되는 기개수 진로 상담 상품 중 골든 체이서가 가장 정확도가 높았으며, 이에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 후로 린, 실버 체이서 순이며, 해은이 가입한 벨리는 선생님 상품 퓨처 박스는 비교적 일반적인 추천을 해주는 인공지능 단계와 전문가,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기로는 ‘그냥 상담가가 점수만 봐주고 마는 것 같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라는 불평 섞인 후기가 종종 올라온다.

해은은 자신의 동네보다 훨씬 잘 닦이고 천장에 LED 조명이 촛촛히 박혀있는 지하도로를

보며 은근슬쩍 자신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보고 싶었다. 민애와 예서와 가까워진 것에 조금은 기대를 가진 것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빠도 못 추렸다. 우선, 민애가 본다는 린은 연 8천 교육 서비스였다. 그리고 예서가 본다는 체이스 시리즈는 3천에서 실버는 5천, 골드는 최소 2억 이상까지 편성되어있다. 해은이 보는 퓨처 박스는 연 8백이었다. 심지어 민애와 예서는 폭스 박스를 아예 모르는 눈치였다. 해은은 잠시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굴러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해은은 한 번 시작한 이상 계속 물어보기로 하였다.

“그럼 정우는?”

“개는 글썄? 모르겠는데. 궁금해본 적이 없어서.”

“내 생각엔 그냥 집안에서 뭐 하는 거 같던데. 벨리 안 쓰는 거 같아.”

“아, 진짜? 벨리 안 쓰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아, 근데 뭐 개네 집은 뭐 그렇게 공부시켜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 아마 더 그러겠지.”

해은은 말끝을 애매하게 끝냈다. 하지만 해은은 예서의 말들로 정우 집안의 교육 방식이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민애는 정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확실히 다들 열심히 하긴 하네.”

“야, 장해은. 그래도 벨리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내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지만 알잖아 너도.”

해은은 민애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수자들은 ‘벨리는 선생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꽤 낮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곤 한다.

“아, 근데 언니가 갑자기 공부 얘기 하니까 진 빠진다. 언냐들 둘이 내년엔 고3이면 이렇게 놀지도 못하잖아, 아예. 하루도 없을 거 아니야, 진심.”

“넌 그럼 수아랑 놀아.”

“아 맞네. 그러면 되나?”

“그리고 응? 공부해도 똑같다니까. 이렇게 꼴통이면.”

“언나! 뭐라고 했어? 나한테 한 말이야?”

“수영장 다 왔네. 내리자.”

더 공부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싫었던 민애는 예서의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먼저 내려버렸다. 해은은 민애와 예서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수영장이라고 해서 해은은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어떤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 빌딩 역시 지하 입구 층엔 똑같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근데 수아랑 놀았던 적이 언제데? 난 수아 요즘에 낮가리는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운데 네 들하고는 얘기도 안 나누는 사이인 줄 알았어.”

“두 달 전이었나? 그리고 고 때 이후로 확실히 개 변화긴 했어.”

“맞아, 공식적으로 두 달 만에 노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리고 모름지기 놀아야 돼. 놀아야 살지. 이것도 프로젝트야.”

민애는 길을 까먹었는지 잠시 건물 안내도를 보았다. 수영장은 46층에서 75층까지 위치해 있었다. 해은은 수영장이 두 개로 나뉘어 상층에는 하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온천이 자리잡은 것을 보니 만만치 않은 대형 스파인 것 같았다.

줄이 꽤 긴 걸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애의 걸음이 빨라졌다. 예서와 해은은 민애 꼬무니를 따라잡는 데에 급급했다.

‘예상 대기시간 30분. 오후 3시부터 입장 가능!’

“아, 물같이 했나보네.”

“기다리자.”

예서는 바로 폰을 꺼냈고 민애도 이어서 폰을 꺼냈다. 해은도 조엘과 둘을 번갈아 보다가 그냥 폰을 들었다.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30분을 그렇게 대충 때우기로 하였다.

“민애야, 너 살 태운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냥 뭐 검사검사 한 번 담굴라고.”

“그런데 너 잠깐, 옆구리 구멍 뚫려있는데?”

해은은 민애가 들고 있던 수영복을 다시 보았다. 옆구리 뿐 아니라 가슴부터 배까지 구멍이 뚫려있었다. 해은은 무슨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마냥 기겁을 하였다. 예서는 그런 해은의 옆구리를 툭 밀었다. 잠시 밀려난 해은은 프릴이 장식된 수영복을 선택했다.

탈의실에서는 벨리를 맡기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자신의 폰을 등록한 뒤 문이 열리면 벨리를 맡기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서랍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입고 있던 옷을 정리하는 곳이었다. 주의를 둘러보니 순전히 벨리 사용자를 위한 탈의실이었다.

예서는 자신의 비키니를 스마트폰과 연동시키고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있었다. 민애가 옆에서 끼어들어 그냥 무작위 버튼을 눌렀다. 예서는 웃으며 핸드폰을 가렸다.

“언냐, 까불까?”

“화면 까 봐. 딸기야?”

예서는 손을 들었다. 화면에는 버찌 열매 두 개가 비키니 양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디자인이 출력되었다.

“사쿠란보네! 사쿠란보야!”

민애와 예서는 세상 떠나듯이 웃어댔다. 해은은 예서의 가슴이 빨간 사쿠란보로 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예서야, 정말 그걸 입고 돌아다닐라고?”

“KK. 자, SMILE, JACK!”

예서는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예서야, KK는 뭐야?”

해은은 해맑은 예서에게 질문을 하였다.

“아, ‘OKAY OKAY’ 라고 알고 있어. 그 실은 유럽서버에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느새 입에 뱀 것 같네.”

“예서가 유럽에도 진출한 거야?”

예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스타크래프트 협동전(Starcraft CO-OP Mode) 있거든. 로컬에선 만렙(Full-Level)을 찍어버려서 더 키울 수가 없거든. 그런데 마침 대통합서버 가보니까 다시 1부터 시작되더라고? 어, WIO 대통합서버에서 협동전 레벨 올리는 중이야. 게다가 난 선수 아이디로 뛰어서 채팅도 할 수 있는 거고. 히히.”

해은은 수긍하였다. 예서는 다시 자신의 환한 얼굴에 집중하였다. 그새 자신의 폰을 보고 있던 민애가 예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나저나 사쿠란보를 버찌라고 하네. 그 체리는 어디로 간 거야?”

“그거? 필터링 당했어. 그거나그거나 똑같이 생겨서 중복 디자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땅콩이랑 도토리랑 같냐? 땅콩 울어 그러다.”

“언냐? 이럴 때일수록 되게 바보 같다니까? 뇌가 없는 거야?”

“독하다 독해. 우리 예서 아주 그냥 지독한 녀석이긴 해.”

“요즘은 CHARACTER가 대세라니까. 있어봐. 언니, 그러다 나한테 반한다?”

해은은 탈의하기를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서와 민애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탈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잘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예서는 해은의 알몸을 보기 위해 해은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언니! 이쁘……. 언니? 푸하하, 잠깐만!”

“해은아…….”

“그 됐고…… 얼른 구멍조끼나 입자.”

“하, 참. 난 디자인 바꿀래. 해은 언냐, 아주 이뻐 그냥.”

탈의를 마치고 워터파크로 들어서니 맑은 인공 햇살 아래에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해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수영장이다 보니 가운데에 딱하니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있었고, 비교적 얇은 기둥들도 함께 천장을 버티고 있었다. 특히, 그 커다란 기둥 주위에 튜브를 타며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가 있었다. 천장은 어떻게 건물을 지은 것인지 꽤 높이 올려다봐야 했다.

민애는 이전에 말한 대로 적당한 자리에 설치된 선풍기부터 찾았다. 민애는 가져온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리고 약속장소는 그곳으로 정하였다. 해은과 예서는 파도풀로 향했다.

둘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며 파도의 절정을 맛보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였다. 그렇게 허벅지쯤 물높이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예서는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해은을 지탱하고 있던 원다리를 걸었고 뒤통수를 밀어 해은 얼굴을 그대로 물에 다다쳐 박아버렸다. 구멍조끼를 입었지만 그래도 힘있게 폭 담가버린 예서는 잠시 동안 해은이 허우적대도록 처박아 두다가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줄행랑을 쳤다. 적당한 거리가 되자 예서는 해은 방향으로 물장구치며 햇바닥을 셀 수 없이 놀려대었다. 머리를 흔들며 겨우 중심을 잡은 해은은 흘러내린 가디건을 고쳐 입었다.

화가 잔뜩 오른 해은은 달리기가 빨랐다. 순식간에 뒷덜미가 잡힌 예서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해은은 이에 질 세라 예서의 머리통을 물 밖으로 들었다 뺐다하며 있는 대로 물썰질을 하였다.

서로 물귀신이 되느라 진이 빠진 나머지 잠시 휴전협정을 하고 민애가 지키고 있던 폰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는 줄 알았던 민애는 몸을 쪽 일으키더니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다.

“치얼스!”

“치얼스, 아주 그냥 둘이 난리도 아니드만.”

“이 언니 힘 존나 쎄!”

“야, 민예서. 민애야 이거 내 머리 봐봐 이거.”

해은은 젖은 머릿결을 민애에게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였다. 민애는 도통 해은이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같이 놀 수 있으실까요? 저기, 저기 분들인데.”

해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왔다. 한 남자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여 말을 건네고 있었다. 예서와 민애는 눈꺼풀이 살짝 내려간 채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남자는 해은을 보고 있었다. 당황한 해은은 눈만 깜빡인 채 가만히 있었다.

“우리 안 해요. 가세요.”

“좀 있다 갈 겁니다. 집에 갑니다. 예, 집에 가요.”

민애와 예서는 매몰차게 남자를 돌려세웠다. 남자 셋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민애와 예서가 해은을 향해 폭소를 터뜨렸다.

“장해은, 얼 타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언니, 안 되겠다. 언니는 온천 가자. 찜질해야겠어. 민애 언니, 다녀올게. 나만 믿으라고.”

예서는 해은을 끌고 상층으로 향했다. 민애는 손을 대충 흔들어주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온천장 바닥은 미끄러웠다. 혹 넘어질 수 있어서 예서는 해은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천천히 온천물로 이동했다. 온천에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간 예서는 몸을 목까지 잠기도록 폭 담갔다. 그러고는 세상 다 떠나가는 앓는 소리를 길게 빼내었다.

“그나저나 왜 온천에 오자고 한 거야?”

“요고요고 봐봐. 손가락이 할머니처럼 되잖아.”

“장난치지 말고!”

“언냐, 왜 이렇게 남자를 몰라? 언냐 있잖아, 폭스런이 되라고. 폭스 알아? FOX. 언냐는 폭스가 될 자격이 충분해. 폭스 자질이 있어 언냐는. 이런 말 하면 언냐 상처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현 오빠 있지. 너무 느려 진도가. 내가 언냐 같았으면……. 언냐, 내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해은은 이미 예서가 자신을 바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예서는 이어서 해은의 수영복을 만지며 ‘여우의 꼬리는 이렇게 흔들다.’라는 강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 오늘은 여우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목 하에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해은은 자신의 수영복을 서슴없이 만져대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그, 여우가 이렇게까지 섹시할 필요가 있을까? 좀 너무 야한데?”

“NO, 이건 여자로서의 예의라고.”

“예서야, 이제 예의까지 가는 거야?”

때 아닌 강연에 머리찔질을 제대로 하고 내려온 해은은 하층부로 다시 내려와 큰 기둥에 설치된 튜브 익스트림을 즐기러 갔다. 이때는 민애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 익스트림 후에는 폭포수 밑에서 물벼락도 맞아 보았고 예서와 해은이 합심하여 파도풀에 민애를 파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애의 가공할 힘을 예상 못 했던 나머지 해은과 예서는 그대로 반격당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해은이 머리를 말리며 시계를 보니 어느덧 5시가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배에서 계속 알람시계가 울려대었다. 확실히 파스타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공복이었다. 스케줄을 체크하던 민애는 뚱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럼 게임하러 가설? 스타2.”

“예서 맞다. 스타 잘해! 해은이도 한번 보러 가자.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

“나 그 게임 뭔지도 모르는데.”

“몰라도 돼.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와와 거리면 되는 거야. 너 솔직히 야구, 복싱, 레슬링 같은 것도 모르지? 강 따라와. 그리고 같이 와와 거러 그냥. 암 것도 몰라도 재밌어.”

스타크래프트2(Starcraft2)는 예비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서 세계빅데이터단지가 구시대 유물이 되었을 때 후손에게 남겨주는 예술품 중 하나다. 이는 각 국가 면허체계 중 국가 인프라 넷에서 먼저 운영되는 여러 게임들 중에서 ‘Game of the Year’로 매년 게임을 추천한다. 이 게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매 10년 단위로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 게임투표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스타크래프트2는 예비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와 같은 게임들로는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등이 있다.

예비한국문화유산 후보로는 ‘검은사막(Black Dessert)’ 등이 있다. 해당 게임은 최초로 최신 PC부품인 물리카드(Physical Card)를 게임에 적용시키면서 사소한 파티클 효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 뿐 아니라 캐릭터의 음성을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캐릭터의 동작을 직접 사용자가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현재 매년 검은사막에서는 게임 내 벨리아 마을에서 ‘샤이의 버스킹(Shai’s Busking)’을 개최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도시의 맵 공간을 따로 빌려 각 지역의 컨셉에 맞는 예술의 전당을 제작해 ‘샤이의 대합창(Shai’s Choir)’을 개최하는 추세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진보를 통해 문화수준과 인간의 감정 만족도를 연관 지어 책정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 활동에 대한 면허체계까지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문화거리를 감상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복을 느꼈는지 불행을 느꼈는지에 따라, 창작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정을 참고하였고 직접 제작하였는지에 따라 장르가 더 세분화되고 자본의 흐름이 명확해지게 된다. 따라서 더 발전된 공학으로 인류는 문화거리에 대한 종합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 결국 ‘문화제품(Culture Goods)’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이 거래가 되고 국가 간 무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형상, 시대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산업시대,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물리 연산장치(Physical Card)는 모멘트(Moment) 계산에 포함되는 다중적분 계산이나 다중 폴리곤 객체(Heavy polygon object)의 편집 및 충돌 계산 등을 적당한 크기의 바이트로 나누어 최적화시켜 연산해준다. 이는 도화 연산장치(Graphic Card)의 연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연산장치가 분리된 이유로는 도화 연산에서는 버텍스에 들어가는 변수와 연산과정 자체가 빛과 재질, 버텍스의 방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객체의 실질적인 물리 연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물리 연산장치는 도화 연산장치와 같이 총 6~7단계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산한 값들은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물리 값을 대조하여 최종 온라인 동기화를 실시한다.

그런데 대부분 코어로 이루어진 도화 연산장치와는 다르게 물리 연산장치는 캐시메모리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을 실시할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바로 CPU에 캐시메모리가 많을수록 게임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착안하여, 물리와 서버는 비교적 비슷한 연산을 하는 공통점을 발견해 PPU, 물리 연산장치에 캐시메모리를 다량 추가하니 클라우딩과 온라인 게이밍, 물리처리에 비약적인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PPU는 물리적인 처리를 집행하는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 우선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되진 않으며, 발전이나 보관소 등 국가기관으로 선정된 설비의 국가적인 보안 아래에서만 쓰이는 중이다.

다만, 이러한 물리적인 온라인 동기화가 인간을 캡슐화하여 안전하게 운송 수단 밖으로 사

출하는 긴급탈출버튼에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데,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 최소 5~6단계의 칩셋이 필요하므로, 해당 운송 수단의 공정과 인프라 구축 비용, 칩셋에 들어가는 자원 등 환경단체의 마찰로 인해 실질적인 인공지능 운송 수단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그래픽카드의 발전으로 작은 이미지의 표현이 손쉬워진 것처럼 피지컬카드의 발전으로 작은 물리 표현이 손쉬워진 것이다. 이는 UI의 작은 액체효과 및 스모그 효과, 단순도형충돌구현에서 벗어난 실제 사물과 비슷한 충돌구현을 더불어 신체입출력 단계에서의 시각 효과 및 촉감, 청각 등 자연스러운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하였다. 게임의 경우에는 더욱더 실감나는 액션을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영화계나 다른 미디어계에서는 먼허체계에서 쓰이는 자체 캐릭터가 아예 세계관 속 주인공이나 조연이 되어 연기를 펼치기도 한다.

이는 또 다른 예비한국문화유산인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슈팅게임으로서 여러 물리적인 효과나 버그 따위를 물리카드가 구현해줌으로 인해서 화염병, 연막탄 총탄의 연출 등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예비세계문화유산은 게임뿐 아니라 영화나 음악도 ‘Movie of the Year’, ‘Music of the Year’, ‘Novel, Drama, Toon 등등’ 식으로 추려 예비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 문화계에서 치르는 올림픽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등재된 IT문화재들은 더는 제작자와 퍼블리셔의 손에서 벗어나고 문화재내에서 이루어진 유저들의 소비는 모두 인터넷협회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밸런스, 버그 픽스 역시 ‘관계자 외 수정 금지’ 상태로 전환되어 최종 안정화 단계에 돌입한다. 개발관계자들은 인터넷협회에서 지급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삶을 꾸릴 수 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게임 유저들의 투표로 진행하고 투표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개발진들과 해당 게임의 프로게이머, 유저 대표가 함께 토의를 벌여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한다. 업데이트 후에는 일정 기간 안정화를 진행한다. 즉, 이곳에 등재된 게임들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게임제작 장인들이 우선 앞장서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유저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인 셈이다.

예서가 폰으로 예선전 막차를 타는 데에 성공을 하였고 셋은 온라인게임장으로 향했다. 온라인게임은 인터넷 먼허체계가 활성화 되면서 미성년자는 즐길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다만, 이렇게 로컬게임장이 따로 마련되어 게임장 내에서만 연결이 되는 로컬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뒤 그 위에 게임을 얹어 즐긴다.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갈 수는 없지만 아무 자격 없이 자동차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서는 그 중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좋아하였고 어느새 도가 튼 상황이었다.

현재 스타크래프트2 개발진은 ‘사쿠라스 복원’이라는 주제의 프로토스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Downloadable content 이하 DLC)를 개발하는 중이다. 사쿠라스의 파괴로 행성계 전체가 뒤틀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용으로는 카락스의 태양핵 분석 성공으로 대전쟁 때 파손된 아둔의 창에 새로운 태양핵을 설치 및 새 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재료 수집 및 세력 완화 미션이 주를 이루며, 이전 태양핵은 사쿠라스 행성의 내핵으로 설치하고 보완된 아둔의 창은 언젠가 대 전쟁 속에서 종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퇴역을 맡게 된다.

“반속 41ms이네. 얼마나 빠른 거야?”

“대충 한 거야. 사실 여기서 집중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짜피 100ms 안쪽이면 같은 체급인데 뭐. 여기서 더 빨라져 봤자 뭐 있겠어?”

온라인 게임에서의 리더 시스템으로는 사용자들의 뇌 반응속도를 측정하여 그 값들을 기반으로 적당한 체급끼리 대결이 매칭 된다. 뇌 반응속도는 온라인게임장에서는 현재의 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장비를 착용하여 검사하며, 게임 직전에 측정한다. 그리고 해당 측정값은 온라인게임마다의 기준 보다 잦은 횟수를 보일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데에 중요한 데이터로 쓰인다. 프로게이머들은 각종 식이요법 및 여러 훈련을 통해 뇌반속 체급을 유지한다. 뇌반속 체급 유지란 기대치 않은 뇌파의 스파이크를 최소화하여 주의력 결핍 증세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도 출출한데 우리 뭐라도 좀 먹을래?”

“너 곧 경기인데 팬찮겠어? 집중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일반 매칭이고, 대회는 그 대진표 보니까 관둘라고. 20분 정도 남았네. 먹고 가도 충분해.”

민애와 해은은 예서를 따라 다시 게임장을 나갔다. 예서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먹자골목으로 향했다. 해은은 여기저기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음식점간판들을 볼 수 있었다.

“OH! BLACK BERRY PINK CHOCOLATE TWICE EVENT!”

“그게 뭔데? 덤탕이 없어 주는 건가?”

흥분한 예서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해은은 달팽이처럼 눈을 뜬 채 굴뚝이처럼 고개를 돌렸다.

알고 보니 빵가게를 컵케이크를 하나 더 얹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요즘은 환경세가 불고 수소경제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하도 올라간 탓에 이렇게 덤으로 얹어주는 행사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할 정도로 뜸해졌다.

“야, 그런데 좀 큰데? 그냥 하나씩 먹을 수는 없나?”

“무슨 소리야? 왜 하나씩 먹지? 흠, 그럼 두 개 시키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4개잖아. 어떻게 나눌 건데? 난 한 입만 먹고 그런 거 싫어.”

“당연하지! 나도 그런 건 싫어. 내가 두 개 먹겠다는 소리야. 언니 둘이 하나씩 먹어.”

“……. 돼지 새끼.”

그렇게 셋은 컵케이크를 손에 들고 다시 온라인게임장으로 돌아왔다. 예서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인기 스트리머 ‘손2군 & 손2양(Son2Goon & Son2Yang)과 갈통들’이 중계하는 부스를 찾아 경기를 시청하였다. 자리에는 더러 홀로그램으로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홀로그램으로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은 스타2를 좋아하거나, 현재 경기를 치르는 선수를 좋아하거나, 중계를 하는 스트리머를 좋아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렇듯 경기 관람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홀로그램 관람 시에는 보통 집에서 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스트리머와 함께 게임하기, 드라마, 영화 보는 행위를 할 경우 시청자도 해당 게임, 드라마, 영화를 구매해야 한다. 구매 이력과 신원이 확인된 인원에만 한해서만 자신이 선호하는 스트리머와 함께 감상 및 시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보통 게임사는 ‘With Mode(감상모드)’라는 제품군을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 및 오프라인 게임 내 기본적인 콘텐츠 혹은 모든 콘텐츠 다운로드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에 보통 시청자들은 전자는 ‘찍먹방,’ 후자는 ‘부먹방’이라 부른다. 특히, 게임 계에선 이러한 공략의 유무가 꽤 중요한 고급정보가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직접 공략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을 신고하는 편이다. 또한 명절과 같은 날에는 미리 협약된 게임사가 있다면 스트리머는 무료로 시청

자와 철 지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스트리머는 개인의 감정 수치를 그대로 공유하는 것은 곧 생업에 직격탄을 맞는 행위기 때문에, 보통 뇌파로 구동되는 여러 동물 머리띠나 화면 내 움짤, 가면 등을 착용한다. 이로 인해 스크린과 사운드로는 전해지지 않는 감정을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스트리머는 시청자들과 더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가 전자파장의 반사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이미지의 색 요소인 Red, Blue, Green, Alpha에 이어 Depth라는 5번째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에 영상촬영기법에서 블루스 크린 색 추출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사진 및 영상, 실시간 방송생산은 사진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원근자료를 통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예서는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남은 컵케이크 반쪽을 입 안으로 구겨 넣었다. 해은은 흑 예서가 체할까 봐 물을 건네주었으나 예서는 손사래를 치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뒤 경기장으로 향했다. 입에서 튀어나온 빵가루가 민애 옷에 튀었다. 민애는 고개를 숙이며 또 하나의 주먹스택을 쌓았다.

일반 매칭은 3판 2선 승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기 전 무대에는 수많은 우주에서 쓰일 법한 기계들이 화면을 뒤덮었다가 거친 크랭크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2 유닛 금지-선택(Ban-Pick) 창이 열렸다.

우선 상대는 주종족이 프로토스였으며, 예서는 주종족이 저그였다. 그리고 첫 3개의 금지 유닛으로는 프로토스 쪽에서 저그 변종 ‘맹독충(사냥꾼 변종, 특수능력), 맹독충(쌍독충 변종, 특수능력), 자가라의 갈귀(Zagara’s Scourge, 타락귀 대체유닛)’를 예서가 다루는 저그 쪽에서 프로토스 특별기사단 ‘보라준의 암흑 집정관(Vorazun’s Dark Archon, 집정관 대체 유닛), 광전사(백인 대장, 특수능력), 불사조(신기루, 특수능력)’를 단았다. 이렇게 금지 단계가 끝나면 특수능력이 제거된 유닛들과 대체 금지된 유닛들을 제외한 유닛 선택이 이어진다. 프로토스는 특별기사단 ‘태사다르의 운송기(Tassadar’s Shuttle, 차원분광기 대체유닛), 암흑기사(그림자 격노, 특수 능력), 아르타니스의 파괴자(Artanis’s Reaver, 거신 대체유닛)’를 선택하였다. 저그는 ‘자가라의 변형체(Zagara’s Aberration, 바퀴 대체유닛), 여왕(독성점막, 특수능력), 감염충(감염된 공성전차, 특수능력)’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령관 궁극기(Commander Ultimate Skill)를 각각 ‘카락스의 정화광선(Karax’s Purifier Beam), 알렉세이 스트코프의 아포칼리스크(Алексей Стукон’s Apocalisk)’를 선택하였다. 사령관 궁극기는 최종 테크 이후에 사령관 주 건물에서 미네랄 1000, 가스 1000을 지불하여 해금할 수 있으며 전장에 시전하였을 시 약 10초 후 궁극기가 해당 지점에서 발동된다. 단, 협동전에서 전역으로 발동되는 궁극기들은 형편상 대회에서는 일정 영역으로 범위가 축소되고 성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식으로 밸런스를 조절한다. 사실, 궁극기는 자원과 구현 형태상 대회에서 시전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한 번 전장에 시전되기 시작하면 볼거리가 꽤 많아져 덩달아 구경꾼도 많아진다.

또한, 프로경기라면 보통 위와 같은 방식으로 5개 유닛을 금지-선택하지만 일반매칭이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들이 치르는 주니어게임이기 때문에 3개 유닛을 금지-선택한다. 이렇듯 예비세계문화유산은 투표를 통해 스타크래프트2는 유닛선택의 폭을 넓히는 협동전 사령관과 전략 다양성 폭을 넓히는 전장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다. 리그오브레전드 역시 투표를 통해 신규 챔피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며, 정글 내부가 현실의 정글처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장 개발까지 진행한다.

금지-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게임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면 내 UI는

우주지도가 펼쳐졌다. 그리고 카운트가 0으로 되었을 때 첫 번째 전장인 ‘헤라 III 행성’으로 두 사령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옵저버가 차원도약을 실시하였다.

‘전장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서의 손이 덜 풀렸는지 유닛이 여기저기서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적 프로토스는 방어를 포함한 공격유닛 생산까지 미루며 우선 최종 단계 인프라로 기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더니 기존 차원분광기 보단 싸지만 원격 탑승 및 차원 소환이 불가능한 운송기(Shuttle)에 파괴자(Reaver)를 탑승시켰다. 그리고 바로 예서의 본진 뒤편으로 날아가더니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일벌레(Drone)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전략이며, 공성병기 파괴자가 운송기에 탑승했다 내렸다는 반복하며, 기지를 평평 터뜨리고 다닌다는 뜻에서 ‘뺱서틀’ 전략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안에 타고 있는 파괴자의 외형이 크로와상과 같은 뺱처럼 생겨 일부 유저들은 ‘뺱서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윽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선택한 그 이름 ‘암흑기사(Dark Templar)’의 등장으로 예서의 모든 기지가 함락 당했다.

‘여왕님, 군락지들이 모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훗날을 도모하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한 예서는 반쯤 감긴 눈으로 자신의 기지가 터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예서가 마스크 쓴 채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결국 첫 게임은 예서의 패배로 끝났다.

“완전히 털렸네, 털렸어.”

“예서, 괜찮을까?”

“걱정 마. 재 화나면 난리날걸?”

“그런데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는 뭐야?”

“그건 줄여서 ‘롤(LoL)’이라 말하고, 다른 게임인데. …… 쉽게 말하면 실시간 체스 같은 거야. 미리 준비된 캐릭터와 타워를 가지고 대치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수로 끝내 상대방 킹, 넥서스를 공략하는 거야. 반면에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는 실시간 바둑 같은 거야. 텅텅 빈 전장에 자원이랑 전장의 위치를 파악해 땅따먹기 식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원을 바탕으로 유닛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땅을 늘려가고, 그러한 것들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식이야. 둘 다 ‘실시간 판(Board) 게임’이란 건 변치 않고 롤 같은 건 ‘협동(Co-op)’까지 해야 하는 거지. 그것도 재밌어. 최근에 챔프 ‘한설(Hansul)’ 패치도 있었어.”

“아, 스타는 바둑 같은 거라고? 한번 그렇게 봐야겠다. 재밌어지겠네. 나 바둑이랑 체스 최근에 소설 쓰느라 공부 좀 했거든.”

“잘 됐네. 지금 예서가 하는 건 스타크래프트니까 일단 유닛 이름들은 다 쳐버리고 왼쪽 구석에 맵 보면서 어떻게 예서가 저그의 영역을 펼쳐나가는지 봐봐 한번.”

예비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그오브레전드는 주니어 버전에서 언어순화가 되며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오락이 되어가는 중이다. 내용으로는 Kill, Death, Assist를 각각 Catch, Out, Assist로 유저의 캐릭터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잠시 유저는 게임 밖에 있다가 일정 시간 후 다시 게임 안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일부 총기관련 게임에서는 이러한 인류애 설정을 도입하기 위해 탄두에 납 대신 마취제가 들어갔다는 설정을 추가하며, 사망-리스폰 처리가 아닌 납치-구출 형태로 처리가 되기 시작했다.

리그오브레전드 내 한설(Hansul) 챔피언은 흡사 귀신과 같은 창백한 피부에 검은 삿갓, 검은 한복, 검은 보자기를 등에 댄고, 묶은 검은 긴 머리 그리고 단 하나의 흑도를 들고 있다.

기술로는 패시브 스킬 ‘집에서(At Home)’, Q스킬 ‘마무리(ACE)’, W스킬 ‘어둠 속으로(Into the Dark)’, E스킬 ‘떡 하나(A Peace of DDuck)’, R스킬 ‘정신집중(Focus On)’이 있다.

패시브 스킬 집에서(At Home)는 챔피언이 우물에 진입했을 시 체력회복과 마나회복이 3배이며, 공격속도와 이동속도의 버프 시간이 3배로 증가한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체력회복과 마나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다.

Q스킬 마무리(ACE)는 챔피언이 전방으로 크게 검을 휘두르는데 피격된 적 및 생명체들은 모두 1%의 피격 데미지를 받는다. 해당 스킬로 피격될 시 사망하지 않는다면 이동속도 감소효과가 적용된다. 만약 해당 스킬로 상대방의 영혼을 거둘 경우, R스킬 정신집중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되며, 약 1초 간 흑의 호흡 시간이 3초에서 1초로 줄어든다. 이렇게 연계로 다섯 챔피언의 영혼을 모두 거둘 시 거사를 마무리(ACE)하게 된다.

W스킬 어둠 속으로(Into the Dark)는 챔피언이 벽 근처에 있을 때, 일정 영역에 어둠 장막을 펼치고 사라진다. 어둠 장막에 들어간 챔피언은 챔피언 중심으로 맵의 넓은 시야가 밝혀지고 해당 시야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챔피언 및 생명체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챔피언과 생명체의 영혼을 구분하지는 못한다. 특히 두 영혼이 겹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의 영혼으로 식별이 되어 주의를 해야 한다.

E스킬 떡 하나(A Peace of DDuck)는 챔피언이 떡 오브젝트를 바닥에 던지면서 시작된다. 이것을 어떤 생명체가 가까이 가 획득할 수 있는데, 획득 시 다량의 체력과 마나를 회복할 수 있다. 스킬레벨이 올라가면 떡 하나를 획득 시 공속증가 및 스킬 쿨타임 감소 효과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 단, 시전챔피언 본인이 이 떡을 획득할 시 효과가 10%로 줄어든다.

R스킬 정신집중(Focus On)은 챔피언 전방으로 협소한 영역이 지정되고 일정 시간 동안 정신을 집중한다. 집중은 챔피언이 흑의 호흡을 3초간 진행한 뒤 이윽고 은월흑화(은색 달빛 아래 검은 꽃이 피어난다, Black Flowers bloom under the Silver Moon, 銀月黑花)를 시전 하는데, 짙은 그림자에 잠식된 챔피언이 해당 전방영역으로 벽이나 장애물을 뛰어넘어 순간 돌진하며, 충돌한 생명체 및 챔피언에 큰 타격과 기절효과를 부여하고 챔피언은 그 자리에 정지한다. 해당 스킬의 1레벨은 33%의 데미지, 2레벨은 66%의 데미지, 3레벨은 99%의 데미지를 가한다.

특히 챔피언이 단독 상황일 때 이 스킬을 시전 할 시 연출효과로는 준비동작 중에 모든 전장에 숨을 내쉬는 여성의 음성이, 준비동작이 종료되고 돌진 후 충돌을 할 때 들이쉬는 소리 여성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보통 Q스킬 마무리와 연계되며, 궁극기의 존재로 하얏다 못해 창백한 피부의 한설은 챔피언 잡는 귀신으로 불린다.

해당 챔피언은 암살자형 지원자(Slayer Supporter)로써 심각한 유지력으로 인해 주로 Bottom(하단) 라인에 배치된다. 성공적으로 16레벨이 된 서포터 한설은 내서 남작과 드래곤을 취할 시 굉장히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원거리 챔피언 대신 육성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칠 수 있다. 다만, E스킬 떡 하나가 상대방 챔피언에게 들어간다던가, R스킬 정신집중이 한타에서 전장 사이로 지나가 허공에 뿌려지거나 미니언에 시전 되는 등 협소한 영역과 스킬 셋 숙련 한계점으로 인해 웃지 못 할 광경이 펼쳐지곤 한다. 또한 새롭게 정글러로 리메이크되는 아리와 찰떡궁합의 호흡을 갖추고 있다.

게임과 영어에 능숙한 예서는 국제 LOL대회 내 어시스트(Assistor)에 관심이 많다. IT게임 형편상 국가 간 리그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언어장벽이다. 어시스트는 이러한 국가 간 리그에서만 존재하는 자리로 게임 내 선수 간 원활한 정보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이 어시스트는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재 선수들이

말하는 정보 중 더 값어치 있는 정보를 짚어내 재빠르게 핵심 선수에게 정보를 던질 수 있도록 민첩한 마이크 컨트롤이 필요하다. 예서는 이러한 능력과 게임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 중이다.

게임 내 팀원은 5명이지만 이러한 국가 간 리그에서는 6번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되었으며, 팀원은 반드시 타국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식 규칙이다.

국가 간 대전은 LEAGUE OF LEGEND WORLD CUP(이하 롤드컵: LOLdCup)이란 대회에서 이루어진다. 이 리그를 포함한 각국의 국내 대회에서는 6번째 자리가 승인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게임에는 프로토스에선 금지유닛을 첫 게임과 같이 ‘사냥꾼 변종, 쌍독충 변종, 자가라의 갈퀴’로 선택유닛은 특별기사단 ‘우룬의 전승자(Urun’s Succession, 사도 대체유닛), 아르타니스의 용기병(Artanis’s Dragoon, 추적자 대체유닛), 셀렌디스의(Selendis’s Mothership Core, 보호막충전소 대체유닛)’으로 하였다. 예서의 저그는 금지유닛을 ‘태사다르의 운송기, 그림자 파수대, 광전사(백인 대장, 특수능력)’으로 선택유닛은 저그 변종 ‘울트라리스크(독성 변종, 특수능력), 부패주둥이(포자, 가시 촉수 대체 유닛), 이즈샤의 파멸충(Izsha’s Defiler)’이었다.

예서는 첫 게임과는 다르게 풀린 손으로 자원을 채취중인 일벌레를 공략하는 전승자를 방어하였다. 이윽고 프로토스는 차원분광기를 대동하여 기지 뒤편으로 가 예서의 기지를 공략하였다. 하지만 예서는 기지 한 가운데에 지어놓은 부패주둥이로 순식간에 견제병력을 숨아 내었다.

게임이 길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애와 해은은 주위에 사람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게임에 꽤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았다. 민애와 해은의 볼이 점점 빨갳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웅장한 효과음이 게임장 내에 흐르기 시작하자 게임장은 함성소리로 가득 찼다. 해은은 눈을 깜빡인 채 계속 변하는 화면을 주시하였다.

‘신관이시여, 정화광선(Purifier Beam)이 준비되었습니다. 적들을 정화시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왕님, 감염체 투하(Infested Drop)가 준비되었습니다. 적들의 하늘을 시커멓게 물들일 시간입니다.’

예서는 해당 대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군주(Overload)에 모두 병력을 실어 프로토스의 주기지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프로토스는 이제 막 맵의 중앙을 진출할 즈음이었다. 프로토스는 미니맵에 예서의 병력이 보일 때서야 긴급 귀환으로 우선 병력을 빠르게 회군시켰다. 하지만 소환되지 못한 병력들은 걸어와야 했다.

‘포자주머니를 배치해라, 지금!’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예서는 빠른 손으로 궁극기로 투하된 병력들과 대군주에 실린 병력들이 합쳐지는 시기에 미리 지정한 파멸충을 활용하여 자가라의 대사처럼 기지 여기저기에 암흑 구름(Dark Swarm)을 펼쳤다. 이윽고 방어를 위해 정화광선이 시전 되었고 저그의 유닛들을 그대로 불타 죽어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적 프로토스의 주기지라는 점이었다. 대회 내에서의 궁극기 정화광선은 저그의 병력뿐 아니라 본인의 병력과 기지에도 영향을 주기에 기지 내에서 시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심대한 타격이었다.

예서의 암흑구름이 걷히고 남은 병력들이 회군하여 저그 병력이 다 정리가 되었지만 프로토스의 본기지는 이미 반 폐허가 된 후였다. 그 사이 예서는 빠르게 추가확장을 통해 빠른

자원수급을 할 수 있었고 추가병력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더 강력하고 수가 많아진 추가 병력을 프로토스 기지로 보내었고 상대는 압도적인 병력들을 보자마자 패배를 선언하였다.

두 번째 게임의 승자가 결정되자 게임장 안은 환호성으로 물들었고 해은도 예서가 화려하게 암흑구름 퍼는 모습을 본 소감을 찬사로 대체하였다.

세 번째 게임은 두 번째 게임 시간이 워낙 길었던 탓에 게이머들끼리 채팅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애와 해은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이 분위기에 취해 모두 발개진 상태였다. 예서는 의자에 퍼져 그세 잠에 든 모양이었다.

세 번째 게임은 금지-선택에 대해 전략이라 할 것도 없었다. 예서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일벌레 두 개를 보내 하나는 대놓고 정찰용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프로토스 기지 내 시야가 없는 곳에 부화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일벌레 세 마리를 더 보내 총 네 마리의 일벌레가 가시촉수를 건설하였고 기지는 순식간에 흡사 저그의 기지로 변한 것 같았다. 결국, 프로토스 기지 내 하나밖에 없던 연결체가 파괴되었고 그대로 게임은 끝났다.

“아, 단 거 땡긴다. 현기증 나.”

예서는 머리를 좀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민애는 머리를 토닥여주었고 해은은 예서의 머릿결을 쓰다듬어주었다.

“내가 팔빙수 쏠게, 어때?”

해은의 말에 예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애도 덩달아 신이 났다. 예서는 빠르게 팔빙수 가계를 찾았다. 다행히 마침 바로 앞에 있었다. 해은은 가는 길에 주위를 잠시 둘러보다 한상가 안에서 HMD(머리착용디스플레이)를 둘러쓰고 허공에 손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해은은 잠시 그 모습이 섬뜩하여 얼른 고개를 돌렸다.

예서는 적당히 길거리가 보이는 곳에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민애는 명당만 쪽쪽 골라잡는 예서가 대견스러웠다. 해은은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인절미 팔빙수’를 주문하였다. 해은은 곧 나온 팔빙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은은 팔빙수를 내려놓으며 앉았다. 예서와 민애는 폰을 보고 있었다. 해은이 손가락을 들고 목이 메여 잠시 헛기침을 한 번 하자 예서가 눈을 돌렸다. 해은과 눈이 마주쳤다.

“야, 근데 저 맞은 편 저기 저 사람들 저래 누워서 대체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저 아마 저 안에서 둘이 잠자리 잡고 있을 거야. 왜? 부러워?”

“잠자리를 잡는다고?”

“어. 걱정 마. 저 위층 보이지? 거기서는 막 콘서트도 보고 그래. 요즘은 또 HDR에 우퍼까지 달려가지고 진짜 장난 아님.”

여러 팝스타나 공연, 영화 및 뮤지컬까지 진행하는 공연이나 무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고 품질의 공연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받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무대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최근 도심지역에 무대방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었다. 일부 최고 신뢰고객에는 스마트하우스에 따로 무대방이나 영화방을 마련해주고 그곳으로 직접 데이터가 전송된다. 즉, 고객은 이러한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결그룹이나 여러 가수들은 오프라인공연을 단 한 번 진행하더라도 온라인 무대를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 저작권료를 받기에 오프라인 무대를 단 한 번 진행했을 때보다 배로 벌 수 있는 환경이다. 사용자는 팬으로서의 활동인 가수와 직접적인 교감은 할 수 없지만(이에 몇

몇 가수들은 온라인으로 무대를 함께하는 팬들에게도 여러 퍼포먼스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원하는 위치를 비교적 제한 없이 선정하여 관람하여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무대방은 콘서트의 현장감을 최대한 구현해내기 위해 우퍼나 서라운드 시스템 등이 구비된다.

해은은 떡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넘겼다. 예서는 옆에 있던 연유를 들이부으려고 했다. 민애가 손가락으로 연유를 막았다.

“요 옆에만 해. 살찌니까.”

“치, 그래! 자, 요리강화를 하자. 뽀로롱.”

“요리강화?”

“요즘 RPG에서는 요리에다가도 강화를 넣었어. 버프형 템이 많아서 대부분 성공률이 겁나 높아. 고거 따라 해본 거야.”

“RPG 게임 해보니까, 어렵던데. 막 화면에 너무 많아서 말이야. 조이스틱으로 하면 더 못하겠어. 뭘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요즘은 UI가 얼마나 개선됐는데. 특히 거래소 검색 그거 글자 쓰는 거 있잖아 전부 스마트폰 자판처럼 바뀌어 가지고 조이스틱으로 하면 글자 쓰기도 쉽고 검색도 겁나 쉬워짐. 그냥 폰에 있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들고 오니까 RPG 편해졌더라고.”

“아, 그래? 함 해봐야겠네.”

“뭐야? 둘이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하니?”

“무슨 소리야? 울 엄마한테 허락 받아서 여 언니랑 둘이만 게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 채팅, 활동이 차단되지만 부모의 허락으로 지정된 사람과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여도 현실에서 소셜메이트, 절친을 사귀게 되면 공간을 절약시켜 사이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미성년자는 인터넷 면허증이 없어도 통화나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엄연히 통화와 문자는 독립적인 회선번호가 존재하며, 익명에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나, 재네들 부르는 전문용어는 따로 있어.”

예서는 손가락으로 건너편 가게를 가리켰다. 해은은 다시 옆 건물 1층을 보았다. 어느새 HMD를 쓴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뭐냐 그…… SSIP-DDUK.”

“뭐야, 매니아 같은 거야?”

“아니줘. 쓰윽떡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실까? 뭐, 씹떡 되보게? 아니면 설마 소셜 소재로 즐라고 그러는 거야? 재네 ‘안 돼! 그만 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두 존경해. 그러니 당연히 저들의 삶도 존경해야지.”

“재네들이 ‘존경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긴 해.”

해은은 다시 건물 1층을 보았다. 어느새 또 HMD를 뒤집어쓰고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해은은 지긋이 웃으며, 이렇게까지 힘들 삶을 저렇게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동시대 사람들을 보니 적잖이 받은 충격을 감당하였다. 해은은 씹떡들을 위한 에피소드를 조금 그려내 보기로 하였다.

“예서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더라. 막 표정이 Boxer, 권투선수 같았어.”

“실제로 그런 체력이 소모되는 기분인긴 해. 하지만 그런 피지컬적인 건 예전 방식이야. 요즘은 게임에도 전략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들은 일명 타짜들이지. FAKER.”

“그 있잖아? 권투선수도 체력뿐만 아니라 그 머라냐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 거기에

피지컬만으로도 상성을 뒤엎을 수 있다니까? 가위로 바위를 때려 뿌셔서 이기는 거지.”

“언니는 내 말에 한 번이라도 동의를 해주면 안 될까?”

해은은 예서와 민애를 웃으며 바라보았다. 해은은 둘이 말싸움을 하는 사이 팔빙수를 한 손가락 더 먹었다.

말싸움에 지겨워진 해은은 잠시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그 요즘 축구인가? 거기에서도 무슨 인공지능 도입하던데? 덕분에 5반칙인가? 5파울 하면 1점을 내는 상대팀에게 부여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맞아. 잘 아네. 그런데 반칙이 아니라 경고, 옐로카드야. 게다가 3반칙이고. 팀에 1/3이 반칙을 한 거니까. 하지만 훌륭해. 잘 알고 있네. 예서야, 너도 이런 피지컬에 관심 좀 가져 봐.”

“지랄. 그런데 궁금하네. 뭐 인공지능이 용한 심판 짓을 하나봐?”

“내가 알아본 바로는 선수들이 신는 양말에 전자파드를 부착해 충격량을 감지한다던데? 태클을 할 때 그 충격량이 일정 수치 이상 들어가면 심판에게 그 사실이 전해지는 거고.”

“축구 양말? 그 스타킹 같은 거 말이야? 뭐 춤지는 않겠네.”

예서의 말을 마지막으로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애는 어설픔게 해은에게 웃음을 보였다. 해은은 슬쩍 예서를 보았다. 해은은 입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아까 스타2? 그거 막 어디서 막 ‘지지’하니까 끝나는 거 같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gg’라고 화면에 치는 거 봤었어.”

“아, 그거 Good Gam…….”

“GIRL’S GENERATION. 여담으로 놀랍다는 뜻에 Wonder를 쓰는 WG도 있는데, Well Play!(좋은 게임!)에서 더 발전한 거야.”

민애와 예서의 말이 똑 끊겼다. 해은은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해은은 예서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다.

“예서가 원래 이렇게 여자에 도전적인 사람이었어?”

“여성도 인권이 있다고. 차별 좀 안했으면 좋겠어. 성 평등은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겠어.”

민애는 천천히 팔빙수를 먹으며 말없이 예서의 말에 동조를 하는 모습이었다. 해은은 잠시 손가락을 허공에 멈추고 입을 열었다.

“예서야, 내 생각엔 차별은 없어져야하는 게 맞지만 평등은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예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해은은 순간 팔약근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해은은 차분히 태블릿을 꺼내 차별이란 단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Discrimination(차별)이네. 차별은 차이점을 악용하는 행위지. 내가 말하는 건 잠깐만……. Separation(구별)이야. 지금 여성과 남성을 ‘인간’ 클래스로 올려 하나로 봐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과학계에서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 왜 있잖아, XX랑 XY. 이걸 클래스를 한 단계 올려서 그냥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 이랑 2를, +랑 -를 같다고 보는 거야. 즉, 성 평등을 실현하게 되면 그 다음으론 숫자평등, 부호평등, 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어. 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 잠깐. 그만, 거기까지. 그래서 언니가 말하려는 게 뭐야? 차별 계속 되어야 한다고? 평등 불가능하다면 그게 그 말 아니야? 언니, 여자야. 취업해야지.”

“앞서 말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건, 성차별이 아니라 성구별(Sex Separation)이야. 인종구

별(Racial Separation), 언어구별(Linguistic Separation), 지역구별(Region Separation), 나라구별(Nation Separation)도 마찬가지. 근데……. 진짜 솔직히 내 생각을 말할 게.”

“좋아, Go.”

“우리 해은이, 섹시해.”

“난 일자리에서 자유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딴 짓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 막말로 일에 치중하면 이성이 눈에 들어오겠어? 일터에서 성관련 문제가 터졌다? 윗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 제대로 안했다고밖에 생각 안 들겠? 아, 회사마다 성 평등이란 것에 보는 시각이 다르겠네? 어쨌든 집단이니까. 그럼 지구에 존재하는 회사나 단체를 모두 어떤 시각인지 어떤 불합리지점이 있는지 얘기해야 할 텐데……. 그럼 얘기가 쓸데 없이 길어질 것 같거든, 우리 계속할까?”

“……. 썩! 언냐! 아, 머리 아퍼. 다리 꼬지 마. 과학적으로 몸에 안 좋데.”

“어허, 해은 언냐한테 욕하면 쓰나. 그런데 궁금한 게 일이나 업무에는 그렇게 혼성이 가능한데 스포츠는 왜 업무와 신체를 구분하면 안 될까? 난 그게 궁금하거든. 아, 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민애가 말하는 스포츠는 조건 자체가 이미 신체 싸움이잖아? 그럼 신체가 같은 성별끼리 경기를 치러야한다고 봐. 그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평한 게임 같아. 요즘은 뭐 제3의 성도 있지. 그럼 그냥 남, 여, 남성화 여성, 여성화 남성 이렇게 다 분류해서 경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신체 기준을 성호르몬 수치로 구분할 거였으면 이전에 훈련자 체도 성호르몬 수치에 입각해서 했어야 공평한 게임이 펼쳐지겠지. 이게 현실화 된다면 신체 체급뿐 아니라 호르몬 체급도 책정해야할 거야. 그런데 운동선수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20대 활동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보통 훈련을 미성년자부터 시작하지 않아? 그럼 신체단련은 아이가 싫어하면 언제든지 훈련 전 생활로 돌아오는 의사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신체개조 후 훈련은 아이가 싫어하면 훈련은 끝나더라도 개조가 된 시점에서 생활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 아니야? 애초에 이 과정이 신체 및 정신 발달에 한창인 미성년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인지도 의문이고.”

“언냐, 그 있잖아?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여자생식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 남자 그 꼬추가 발달하지 못해서 말려들어가서 여자 우리 그거처럼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로 키웠데. 나중에 월경을 안 해서 보니까 XY를 가진 거지.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해당 아이는 생식기관이 잘 발달되지 못한 아이. 신체 중 일부가 잘 발달되지 않는 아이를 보고 ‘기형아’라는 단어를 쓰지. 난 그 문제를 안 시점부터 정신적으로 다시 XY를 가진 남성으로 본인을 인식하게 하고 발달되지 못한 생식기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XX, XY. 이게 인간 계보야. 딱 두 개밖에 없는 전통을 거스르는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거꾸로 인간 염색체 중에서 딱 하나 X랑 Y만 다르데. 그런데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업무가 달라졌다고. 무슨 XX는 애를 낳아. 말이 돼? 딱 하나 다른데 애를 낳는다고. 그럼 다른데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아니, 나는 그게 인간이긴 할까 싶거든.”

“해은이 말대로라면 외계인을 우리가 만드는 거네. 우리의 환상은 고등지식을 가지거나 평화를 누리는 종족이지만 현실은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겠고.”

“애초에 평등한 신체? 평등한 게임? 인간에게 평등한 신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건 오히려 벨리, 로봇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내 말은 여성 신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단련한 사람한테 남성 신체를 가지고 단련한 사람과 힘 경쟁을 하라는 거는 마치, 용접전문

가한테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선생님을 시키는 꼴이라고 봐. 업무가 다른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성신체, 남성신체를 가진 이들이 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업무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신체를 겨루는 것이 아닌, 이성이어도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스포츠는 혼성이 되도 괜찮긴 하겠지. 뭐, 쉽게 생각하면 섀타, 고스톱, 윗놀이 같은 게 있겠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말하면 하위클래스가 아무 근거도 없이 왜 갑자기 상위클래스로 가냐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오류가 나지 않을까? 인종? 성별? 난 제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긴 것만으로 공격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더 면밀히 봤을 때는 사람 모두가 이미 다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우리 셋 봐봐. 장해은, 홍민애, 민예서. 이미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야. 설마 쌍둥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쌍둥이들도 결국 동시간대에 동일한 좌표 값에 겹쳐있을 수 없다고. 그럼 결국 그 쌍둥이들도 그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해.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주잖아. 즉, 장해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건 사실 왕따 짓 하겠다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이 와중에도 서로 다르다는 이 현실을 이겨내는 군무나, 체식훈련 같은 게 멋있어 보이는 것도 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 그들이 훈련한 세월이 보인다는 거지.”

“.....”

“그....., 그냥 우리 따르 애기해도 될까? 요 마시멜로 가지고. 재미난 이야기.”

“오오! 그거 좋지. 그 마시멜로 빨리 해.”

예서는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스스로 흥분한 것을 알았는지 서둘러 팔빙수를 퍼먹으며 열을 식히고 있었다. 민애는 천천히 한 손가락씩 먹으며 해은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였다. 해은은 마시멜로 하나를 팔빙수 제일 위에 하나 올려두었다.

“마시멜로 하나가 책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15분 뒤에 이게 두 개로 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으..... 어렵다. 그럼 난 아예 뒤돌아서 마시멜로 안 볼 거야. 그리고 15분 기다릴 것 같아.”

“민애 넌?”

“난,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왜냐면 살찌니까.”

“하하.....,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난 그 때도 마시멜로 같은 건 안 건드릴 것 같아. 죽어도 안 건드리지. 두 개 되도 안 건드릴 것 같아.”

“해은 언니는?”

“난..... 솔직히 말할게. 난 이 마시멜로를 땅에 심어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자라나서 수백 수천 개가 될 때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려볼 것 같아.”

민애는 눈썹이 풀리고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어처구니없다는 숨이 덜컥 뱉어져 나왔다. 예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서는 내심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솔직하게 말한 댔잖아. 나도 그냥 15분 기다릴 거야. 너희 둘 앞이니깐 이렇게 애기해봤어.”

“까, 뻥치지 마. 30년 존버 탈 거잖아. 역시! 우리 해은이 감성 어디 안 갔구나.”

“아까 갑자기 과학얘기해서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역시 언니는 언니였어. 다시 돌아왔어.”

“결말이 궁금하지 않아? 실은 이거 15분 기다리는 아이는 나중에 잘 된다고 하더라고.”

“에이,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강 못 기다린 애들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가르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시멜로 집는 시늉만 해도 겁내 줘 패면, 어쨌든 안 집을 거 아니야. 말 마따나 여기 30년 존버 타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휴.”

민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해은은 조용히 웃으며 팔빙수를 먹었다. 그리고 잠시 민애와 예서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 해은은 잠시 고개를 돌려 매장 밖 사람들을 보았다. 다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해은에게는 편하게 다가왔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민애가 본인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해준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해은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W 나 친구 집에서 오늘 자고 갈게요W 엄마 생각하는 이상한 친구들 아니고 학교 친구들이고 다 여자에요!W 걱정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민애를 따라 다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외곽으로 가는 버스는 자리가 비어있었다. 셋은 앉자마자 그대로 꿈아떨어졌다.

민애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던 해은은 아무런 답장이 없는 바람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근 며칠 은영의 허락을 받으려 갖은 노력을 하였고 또 승낙을 받았었기에 여유롭게 발걸음을 땔 수 있었다.

민애는 자신의 집에 초대된 멤버가 벌써 세 번째가 되었다면서 흡족해하였다. 순서로는 예서, 수아, 그리고 해은의 순이었다.

“여! …… 나 왔는데.”

민애의 집은 스마트하우스였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굉장히 고요했다. 해은은 무엇보다 거실에 소파나 TV가 없고 액자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놀아도 되는 건 맞지? 여, 여기가 거실 맞지?”

“어어, 잠만 나 삼촌한테 왔다고 문자 줘.”

“뭐 하시는데?”

“벨트코인 보고 계시지. 그게 업이서.”

“벨트코인? 그게 뭐 하시는 건데?”

“평소에는 벨트코인 이력보고 자금흐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주 업무는 건수 받으면 벨트코인 이력 분석해서 벨트코인이 어디로 세나갔는지 추적하거나 대다수는 거래 취소를 세밀하게 따져서 해준다나 뭐라나. 그리고 울 삼촌 인증 아이디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채굴해줘.”

벨트코인(VeltCoin)은 벨루에서 생산하는 세계전자화폐로서, 벨루와 인터넷협회에 제공되는 수많은 그래픽 연산장치를 통해 전자화폐의 블록을 생산한다.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생성되면 인터넷협회에서 인증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을 선정해 그들에게 통화생산을 의뢰한다. 협회 측에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전자지갑을 그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기도 한다.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은 중앙거래방식이 아니기에 거래가 수시로 감시되고 보안면에서 우수하긴 하나 이러한 점으로 인해 거래취소나 휴대폰 분실신고 시 이를 중재할 직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민애 삼촌은 전자화폐분석가로서 입지가 탄탄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끔씩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다. 그리고 전자화폐를 채굴할 때의 데이터 비용도 꽤 쏠쏠하다는 말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화폐분석가가 되기 위해선 인터넷협회의 시험절차와 승인절차를 통과해야한다.

민애의 방으로 들어온 예서와 해은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아무 영상을 틀었다. 예서는 대뜸 이제 막 앉은 해은의 가슴을 두어 번 움켜쥐었다.

“언니, 오늘 하나 배웠어.”

예서는 걸쭉한 말로 해은을 건드렸다. 해은은 계속 찢러대는 예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심상이었다. 하지만 원체 손가락이 빨라 쉽사리 해은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민애는 잠시 일어서서 소형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야, 불닭삼겹 시킬까?”

“좋아!”

“.....”

민애는 대답을 못하고 예서의 손가락을 잡느라 한창인 해은을 보고 슬쩍 웃었다.

“우리 해은이 아주 좋아 죽네. 그럼 시킬게.”

민애는 폰을 꺼내 근처에 지나가는 불닭삼겹 차를 검색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민애집과의 최단거리를 계산하여 무인차로제 동선 상 가장 가까운 차량을 추천해주었다. 민애는 가볍게 터치 몇 번 만으로 불닭삼겹 주문을 마쳤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음식주문은 컴플레인을 직접 다른 유저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다.

“야, 그나저나 장해은. 요 벨리 분해는 할 줄 아냐? 딱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던데? 그 벨트 코인도 울 삼촌은 요 벨리 써서 채굴하잖어.”

“언나, 벨리 모르지! 가만 있어봐.”

예서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였다. 예서는 화면 몇 개 누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의 눈이 감졌다. 해은은 사용자가 벨리를 직접 종료하는 일이 있을지나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다.

하나의 시스템이 종료되더니 자신의 머리가 열렸다. 해은은 그 잠깐 동안 보여진 얼굴이 해체되는 광경이 너무 기괴해서 비명이 나오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해은 언니, 봐봐. 요거 보여? 요거 네모난 거. 요게 이제 리히틀 프로세서(Lihittle Processor)라고 벨리를 움직이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면 돼. 보통 리히틀 칩이라고 부르지. 요거를 설치하는 요 기관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거고. 오픈..... 머시기 있는데.”

“오픈루트(Openroute)사에서 개발한 OS Glass가 여기에 설치되는 거야. 보면 이 칩 위에 세대를 새겨놓았는데 네 꺼는 Premier 203 버전이네. 나름 최신이야. OS는 보나마나 3.1 kids 버전이겠지 뭐.”

해은은 벨리의 머리가 갑자기 열려버린 것도 당혹스러웠는데 갑자기 밀려들어오는 정보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은이 더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민애와 예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애의 벨리를 분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도 돼?”

“요 정도 선까지는 A/S가 되거든.”

“아니, 그래 좋아. 네 말대로 벨리가..... 요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어. 대체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

“해은이 너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구나. 리히틀 칩하면 바로 알 줄 알았는데. 리히틀! 이걸로 가상화폐를 연산하는 거지. 삼촌이 사용하는 장비도 벨리에서 이 칩 사용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해가며 채굴하는 거지. 일반 그래픽연산장치랑은 또 달라서 코딩을 직접해야해. 버그 터지면 벨리가 또 난리 나니까 수시로 체크도 해줘야한데.”

“이 지금 언니 충격 받았어. 우째. 일단 언니는 벨리 조립하는 거부터 배워보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야.”

“예서야, 너 근데 실력 많이 는 것 같다?”

“몰라, 나 체질인가 봐.”

예서의 설명을 하나씩 자신의 벨리 조엘을 분해를 해보았다. 언급한 리히틀 프로세서는 자세히 보니 아예 기관에 박혀있었다. 해은은 수업 중 들었던 시냅스보다 더 복잡한 회로들이 보여 눈앞이 깜깜해졌다. 강의가 끝난 후 민애와 예서는 다시 벨리를 조립하였다. 다시금 아무 일 없이 정상 작동하는 벨리를 보고는 해은은 잠시 큰 숨을 들이쉴었다.

“아무래도 난 이런 거 못하겠다. 역시 난 문과 쪽인가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언니는 그래도 코딩하잖아.”

“애는. 코딩이 어떻게 공학이니? 컴퓨터학과지. 난 개인적으로 컴퓨터 개발자들이 올라온더긴 한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바로 컴퓨터 공학과만 만든 거야. 내 생각에는 엔진 개발, 서버 개발은 올라운더가 개발해야 해. 하지만 클라 쪽은 아니거든. 더 뛰어난 알고리즘과 함수로 메모리 덜 쓰는 고민을 한다? 그거 종이를 덜 쓰는 고민을 하는 작가랑 똑같은 고민하는 거야. 진짜 공학자들은 어떻게 오브젝트나 그래픽이 구현될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요즘 RPG 게임들을 다 다시 만든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가 보네? 메이플 스토리인가? 그 게임은 2D 도트 주제에 문화유산 후보에 올랐더라고. 그 게임 공학수준이 낮은 한데, 언니가 말한 경제나 치안관리, 교육 쪽으로 뽑혔다지? 그 뭐냐, GRIS? 그 게임 개발진이랑 엮여서 또 하나 뭐 만든다고 하더라. OST랑 도트, 그리고 그 공학을 풍부하게 넣을 계획이라는데?”

“예서는 그래픽이 낮아도 관심이 많긴 하나보네? 그럴 만도 하긴 하지. 네 밥벌이긴 하니까. 불법 사용자나 매크로, 욕설 유제 색출을 위해 온라인게임 최초로 경찰직을 도입했다 하더라고. ‘메이플선생님’이라나 뭐라나? 보니까 불법 사용자 색출뿐만 아니라 맵 길가는 거랑 캐릭터 육성법, 이런 룩 코디에 현금 아이템 구매법까지 알려주더라고. 주마다 무슨 보스 잡아와라 막 숙제내주고 그래. 게임사에서 그런 사람을 뽑고 난리도 아니야. 애들은 뭐, 야. 심지어 한 학원 대상으로 해서 서버공간까지 마련해 주더라니까. 공부방에서 애들 수업 시간 맞춰서 캐릭터 이동하고 귀여움. 막 수업시간에는 의자에 앉아있고. 근데 넌 벨리는 콧빠기도 모르면서 컴퓨터는 잘 알고 있네?”

“내가 그런가? 그냥 게임제작 공부했다보니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도 이젠 다 잊어버리는데 뭘.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내 글밖에 없어.”

예서는 손과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해은에게 입을 열었다.

“언냐, 아이디 딱 대. 벨넷에 소셜 올릴 때 쓴 아이디 말해 봐. 내가 좀 봐야겠어.”

“그렇게 궁금하긴 하네.”

“……. 계정 삭제했어. 내 모습을 완전히 숨기면서 글을 공개하려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와중에 그만 삭제를 해버린 거야. 계정과 글은 이젠 없어. 파일은 오로지 내 컴퓨터에만 있어. 그리고 이젠 글 벨리에 올리지 않을 거야. 그만 둘 거야.”

“아니, 대체 무슨 테스트를 하는데 글이랑 계정까지 삭제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왜 그만 두는 건데?”

“내가 시험하던 행위가 불법이더라고. 본인인증을 뚫어야 되고. 방법도 찾아봤어. 굳이 해킹프로그램 필요 없이 인터넷 자료를 조합하면 될 수도 있겠더라고. 근데 내 글은 굳이 그렇게까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서 그만 둔 거야. 그 와중에 복구하기 싫더라고. 그리고 혹시 다른 사이트 찾지 마. 그 욕 썼다니까? 너무 답답해서 욕 써놓고 왔어. 사회가 분석이 돼서 그렇게 실천했는데 아무 것도 없고, 답답해서 그만.”

“언냐, 계속 욱욕 하는데. 내가 보기엔 언냐 욱 못하거든? 무슨 욱 썼는데?”

“그……. 그……. 병신.”

예서는 한심하다는 웃음소리를 내었다. 민애는 예서와 같은 표정으로 해은을 잠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민애는 조심스럽게 해은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었다.

“언냐! 쪽 말하는 거 보니까 병신(病身)이 아니고 병심(病心) 아니야? 찹때 그 버거 먹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병 생기는 거로 들었거든?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지? 병심. 그래,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언냐는 그래서 욱을, 아니 말을 진짜 더럽게 못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주제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 아무래도 내가 꿈을 꾸는 게 잘못된가 봐.”

“그건 아니지. 언니 꿈이 뭔데.”

“그냥 동네 도서관 옆에 살면서 매일 글과 함께 사는 거지. 오전 일과는 글을 쓰는 시간. 오후는 책을 읽는 시간. 난 작가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 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이긴 하니까.”

“어……. 일단 작긴 해. 줄라 작긴 해. 근데 난 욱심하고 꿈의 차이가 가시권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시권 안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려는 것은 욱심이고 가시권 밖에 있는 거를 하나 집어서 가져가려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해.”

“나도 동의해.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줄라 꿈만 같은 몸무게를 딱 정해놓고 그냥 하다보니까 목표들이 어느 순간 가시권 내로 와있을 수도 있어. 그때가 가장 헛갈리지. 이게 욱심인지 꿈인지. 그래서 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 ‘초심으로 돌아가자.’ 맞아. 내가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디서 시작했는지 떠올려보는 거야. 가시권 밖에서 시작했잖아? 그럼 그건 욱심이 많아진 게 아니고, 꿈이 이루어지려는 상황인 거지. 냉정하게 봤을 때 거의 다 온 시점이라고. 그리고 예서 말 조금 보태자면 말마따나 욱심 부리는 게 어때서. 가시권 내 모든 목표 말고 할 수 있는 딱 몇 가지만 가져가는 것도 전략이지.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는 거. 이건 목표 달성이지.”

해은은 고개를 한 번 더 떨구었다. 심호흡을 크게 하니 눈물이 맺었다. 해은의 울먹이는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안 예서가 입을 연다.

“어, 언니. 웹소설 내렸다고? 아, 웹 투고한 거 뺐다고 했지? 잘 했어. 잘 하차했어. 예휴, 이렇게 될 동안 왜 연재를 한 거야? 기분 풀어. 웹 연재 같은 건, 감당 가능한 새끼들만 쪽하는 거지 못 하겠으면 내려오는 게 맞아.”

“……. 나는 쫄따구야. 그냥 직진 밖에 못해. 그래서 그런 거야.”

“어휴, 해은이도 오늘 그냥 술 먹자. 해은아, 욱을 해. 답답하지 않아? 지금 그 기분이 딱 ‘쫄같다.’라고 하는 거야.”

해은이 진정 되는 동안 둘은 말을 아꼈다. 해은은 민애가 전해주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해은 언니. 그 ‘엔 타로’ 알아?”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뭘 욱이래. 참, 이 상황에.”

“그딴 거 아냐. 그 스타2에서 머리 똑똑한 프로토스 고등종족이 있는데, 거기서 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에게 붙여주는 거야. 엔 타로 아둔, 엔 타로 테사다르, 엔 타로 제라툴. 요 판 식이지. 언니는 ‘엔 타로 장해은’ 이렇게.”

“그게 뭐야. 생에 업적이면 뒤져야 붙이는 거 아냐?”

“언니, 스타2 안 했어? 아님 까먹은 거야? 아르타니스 기억 안 나? 켄튼 그냥 살아있어도 위대한 업적이면 그냥 붙인다는 말이야. 엔 타로.”

“그럼 난 ‘엔 타로 홍민애’냐?”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둘이 뭐라도 해보라고. 업적 좀 남겨봐. 내가 엔 타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보면 나이만 드르게 쳐먹어가지고 그냥 살덩이 드룩드룩 붙은 애들 같아. 아니, 어떻게 남자 하나도 못 잡고 살잖아. 아, 이건 됐어. 신경 꺼.”

“야, 너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돼지처럼 과자나 쳐 먹고 쳐 자빠져가지고 있으면서 해은이한테 참 별 말을 다한다?”

“몰라, 조용히 해.”

해은은 조용히 웃었다. 해은은 머리를 가볍게 흔든 뒤,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벨리 진짜 무섭더라. 인터넷에 내 작품 올라가고 난 뒤, 막 내 글이 벨리 칩으로 복사되고 퍼지더라고. 인터넷면허체계도 의미가 없어. 형상관리도 벨리 해킹으로 다 뚫려버리고 형클어지고 말이야.”

“글이 복사가 된다고?”

“어, 민애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나는 분명 무료로 올려놨는데, 어느 벨리사이트에선 무슨 포인트가 있어야 읽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에 결제해서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봤어. 다운 못하게 됐어. 그런데 예전엔 받을 수 있었는지 다운 수가 1000명가량 되더라고.”

“그거 언냐 글 맞아? 언냐는 인기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다운 못 했다는 말이잖아.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네 말대로 동명이작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내 소셜 제목은 좀 특이한 편이거든? 그 특이한 제목으로 진짜 없는 거 있는 거 다 찾아주는 전 세계 단위로 벨루 검색을 했는데 내 제목이랑 같은 게 고작 10개 정도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 게다가 난 무명작가라고. 분량도 딱 내가 쓴 거랑 딱 맞고. 그…… 글을 쓰다 보니 딱 저게 내 새끼인줄 알겠던데. 하지만 뭐, 너 말대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난 그 게시물, 그 행위 자체가 속상하다는 거야.”

“그게 벨넷이야. 벨리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개니까. 올리는 순간 로컬로 복사가 된다고 보면 쉬워. 실은 나도 고백할 게 있는데……. 벨로디오에 올라온 노래들 있잖아? 그거 목록으로 노래 후루룩 다운받게 할 수 있어. 프로그램만 잘 찾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냥 최신 노래를 무료로 후루룩 다운받을 수 있어. 알고리즘은 또 얼마나 웃긴데. 내가 그냥 다운받아서 무한반복해서 보고 삭제하니까 알고리즘은 내가 안본 거라고 착각하나봐. 그러더니 괜히 빈자리에 이상한 거 올려놓고 그러더라고. 가끔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길 때가 있어.”

“예서야, 그거 불법이야. 사서 들어야지! …… 아니, 그거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 개인소장용이니까. 아마, 벨루 측에서도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벨로디오 회원은 영상이나 벨리패키지 다운할 수 있거든. 그런데 뮤직비디오 목록을 아예 후루룩 다운받는다니.”

“어, 그냥 로그인에 결제창도 필요 없고, 심지어 해당 뮤비도 볼 필요도 없어. 구질구질한 광고는 물론이고. 이게 과연 내 잘못일까? 나는 더 편한 것을 추구한 것뿐인데…….”

“구질구질한 광고라니. 광고도 좋은 거 많은데……. 맞아, 이미 인기차트가, 인기 알고리즘이 형성됐다는 건 아마 누군가 해당 노래들을 들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우리 예서는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보거나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할 텐데. 됐어, 들어. 잡을 생각도 없을걸. 네가 맞아 그럼. 예서가 할 수 있는 거지.”

“벨루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거겠지. 그런 건 없애면 또 우후죽순 생겨나거든. 짜피 듣고 싶은 것도 인간 기본적인 욕구잖아. 누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내 돈을 투자하겠어.

나라에서 돈을 쥐 뭐를 쥐. 언냐, 이런 것도 절약해야해. 됐어, 나 훈수 두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 도서관마냥 아예 음악을 무료로 공유하는 건 어떨까? 대략 이름은 음악관(Music Library)이 되는 거지. 애초에 도서관에는 작가의 모든 책들이 올라오진 않거든. 인기 있거나 꽤 썩 것들만 올라오니깐. 뭐, 그게 모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로열티는 공영이면 국가가, 사립이면 개인이 지출하는 거고. 사용자들은 일회용으로 그 음악들을 들을 거 아니야? 해당 시기의 차트로 최상의 음질을 담은 벨리칩을 대여해주는 거지. 진짜 한 가수를 파고 싶으면 사비를 들여서 앨범을 사는 거고. 그리고 벨리네트 워크에도 면허체계를 가동해서 복제된 파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말하면 복제된 건 자신만 가질 수 있도록.”

“……. 애는 지가 일 내놓고 지가 답하고 앉아있네.”

“난 오히려 고맙지. 이게 다 너희들 덕분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정말 끝난 문제인 걸까? 내가 아직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웬지 음악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심지어 네트워크상에 올린 제 2의 인격체까지 ‘문헌(Library)’이 아닐까 싶거든. 어쨌든 다 전자장비에 기록하는 거잖아. 물론 0과 1같은 숫자로만 이루어져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맞아, 내가 병신이야.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당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더군다나 내가 벨리를 통해 보고 들었던 욕설과 변태 같은 사진들 그리고 내가 무심코 올린 벨리 글들이 전부 벨리에 대해 무지해서 그랬던 거라고. 난 벨리와 과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어. 이건 사죄하고 용서해야할 일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했던 예술가들에게도 사죄하는 거고.”

“강 하지 마. 언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

“난 더 나은 세상을 바란다고 했잖아. 내가 이 정답 같지도 않은 답을 전하는데 그 답에는 내가 잘한 게 없다는 것도 포함돼. 하지만 그렇게 결국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그 더 나은 세상에 난 갈 수 없더라도 답을 보고 싶다는 거야. 영감은 무슨 영감이야. 난 그 작품들을 통해 느꼈던 걸 어떻게든 짜내서 최대한 현실적인 답을 내려고 하는 거야. 비록 소설이지만 답도 없는 이 현실에 어떻게든 최선의 수를 두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좋아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비록 그들은 날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야. 누가 그렇게 잘 만들래? 잘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칠 일이 없었다고.”

“언냐, 마지막 말은 아주 큰 어폐가 있는데? 언냐는 아예 사람 미치게 하는 걸 떠나서 술 같은 글 쓰고 싶다매? 그건 뭐야 그럼? 난 기억해. 워낙 충격적이었거든. 술 같은 글.”

“…….”

“그럼 진짜 만약에. 언냐 글 쓴 거 잘 되면 어떡할래?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 심지어 언니 글 쓴 걸로 사람들이 우승상금 탔다 하면?”

“……. 그, 그러면……. 무조건……. 얼른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음반들부터 사겠지? …… 영감을 땀겨 쓴 거로 치고…… 이자까지 쳐서…… 막 두 개씩…… 세 개씩 사겠…… 지? 나중에 만나면…… 싸인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 사실, 좋아서 여러 개 사는 거긴 해. 게다가 이미 사놓은 것도 있고.”

“하, 참 이 언니는 대체……. 레알 뻔뻔한 기질이 있네? 그게 언니답긴 해. 언냐, 게임 애기나 하자. 언니 첨으로 한 게임이 뭐야?”

“글쎄 본격적으로 각 잡고 게임을 시작하게 된 작품이 아마 ‘주니어블레이드앤소울’이었던

것 같아. 이전에는 뭐 재미로 했던 거라 기억엔 있어도 그리 선명하진 않는데 이 게임부터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난 그 게임으로 MMORPG라는 장르의 전반적인 틀, 무기와 장비의 강화 시스템, 그래픽이나 사운드 같은 예술작업의 중요성, 세력전쟁 그리고 합격기를 통한 게임 내 협동 콘텐츠? ‘게임에서도 협동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오, MMORPG를 해보긴 했구나. 언니, 그럼 요즘 유행하는 주니어로스트아크 할래? 나 블 “레”키우거든. 이 언니는 건슬. 거기도 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건슬이 또 섹시한 맛이 있지.”

“아, 나 그거 바드랑 홀나 키우다가 접었어. 정확히 말하면 자본만 모으고 있는 중이야. 맘에 드는 캐릭터 없을뿐더러 키우던 캐릭터 망했거든.”

“아, 그래?”

잠시 침묵이 방안에 가라앉았다. 해은은 슬쩍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망했……다기 보다는, 그냥 요즘 게임 자체가 별로 하기가 싫네. 재미가 없어졌어. 딱 하나 남았지. 검은사막. 그건 분명 지웠는데 어느새 눈 떠보면 또 깔려 있더라고,”

“맞아, 그런 거 있지. 인생 잼이라고.”

그 사이 민애가 주문한 ‘불닭삼겹’이 도착했다. 민애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야, 장해은 일단 킵해봐. 내가 술도 가져올게. 나 도저히 맨 정신으로 못 들겠어. 민애서?”

“나도 한 잔 추가. 언니는? 괜찮아?”

“……. 나는 주스 마실래.”

“무슨 주스야. 그게 더 나빠. 당이 얼마데. 언니 살찌.”

민애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이윽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민애가 불닭삼겹을 한아름 들고 방 안에 들어왔다. 민애는 팬스레 컴퓨터를 켜고 아무 영상을 틀었다. 그리고 음소거를 해둔 채 쳐두기만 했다.

“한 잔?”

민애는 아리슬을 까 예서에게 먼저 따랐고 해은에게 병을 들이댔다. 해은은 잔을 들었다.

“이거 췌다. 69도수야. 반 잔만 할래? 처음은 다 그렇거든? 이거 뭐 예의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췌서 그래.”

“그래. 알아서 잘 좀 줘봐.”

“와 쌍 졸라 매워. 아, 졸라 어지럽다. 졸라 맛있네.”

민애도 예서를 따라 불닭면과 삼겹살을 같이 집어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붉은 소스가 혀를 데웠다. 해은은 살짝 소스만 맛보고 깜짝 놀라 옆에 있던 계란찜부터 한 숟가락 먹었다.

한 젓가락을 먹은 민애와 예서는 잠시 조용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아우, 맛있네.”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 아까 얘기 하던 거 계속해 봐. 언나는 그것만 해도 돼.”

“……. 그래?”

우선 해은은 잠시 망설이다 젓가락을 들고 불닭면발과 삼겹살을 집었다. 해은은 기름기가 흐르는 삼겹살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불닭을 입에 넣었다. 불닭면이 해은의 혀를 빠르게 데우기 시작했고 삼겹살 기름이 적셔졌다. 해은은 천장을 보면서 눈을 깜빡였다.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삼켰다.

“어때?”

“맛있어. 그런데 민애야 너 몸매 관리해야…….”

“닥쳐라.”

“적어도 온니는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냥 늘 하던 거, 그냥 빨리 떠들어. 대체, 왜 때문에 주니어로아 캐릭터 망한 거지? 언니답지 않은데?”

해은은 잠시 눈앞에 펼쳐진 시뵐건 불닭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기억해냈다.

◇“난 그때 1470이었어. 군단장 둘과 아르고스를 잡았었어. 지겹진 않았어. 매주매주 다양한 패턴에 당하고 그걸 공략하는 게 재밌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미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1480으로 올라가버린 거지.”

“왜?”

“이유는 길드원이 찾아와 쿠크세이튼 공략을 하자고 한 거야. 난 그때까지도 타의적이었어. 한 번은 잘 들었는데, 시간 상 한 주만 들고 말았지. 커뮤니티를 보니까 내 스펙으로 1, 2페까지는 돌 수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 파티를 맺는 시간만 1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돌기 싫어져 버렸거든.”

“이런 게임이 인식이 좀 짜긴 해.”

“하지만 내가 잠시 육성을 쉬고 골드만 버는 이유는 그 실수 때문이 아니야. 인식이 그렇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

해은은 이번에는 불닭면을 먼저 입에 넣었고 잠시 후 삼겹살을 입에 넣었다. 입이 달궈질 때마다 옆에 있는 흰쌀밥도 함께 넣었다.

“이유는 개발진에서 제공하는 로드맵에서 잠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로드맵? 향후 전반적인 게임 패치 방향을 말해주는 거잖아?”

“거기서 난 이 게임이 지금 허리라인부터해서 저기 아래쪽 저렐구간까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잠시 쉬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 구멍이 숭숭?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해은은 삼겹살을 목으로 넘기며 아리슬을 한 잔 들이켰다. 해은은 거친 알코올 향이 코로 넘어오자 짜릿함을 느꼈다.

“주요아는 본격적인 게임이 3티어 아이템레벨 1310부터 시작한다고 봐. 그리고 레벨이 15씩 높아질 때마다 다음 컨텐츠가 배치되어있지. 하지만 문제는 1325, 바로 시작 단계서부터 있는 것 같아. 일단 1325면 ‘아이라의 눈 던전’이 시작되지. 하지만 해당레벨에 어비스레이드는 없어. 여기서부터 문제야. 제작진은 아무래도 캐릭터 당 한 주에 즐길 메인 컨텐츠 개수를 3개로 잡아놓은 것 같거든? 왜 군단장레이드도 쿠크세이튼 이전 군단장 2개를 잡을 땐, 어비스레이드 아르고스를 잡아서 총 3개잖아. 그리고 정작 군단장 3개를 돌 1475 스펙이 되면 아르고스 어비스레이드가 빠지고. 그런데 저렐 구간 1325는 골드수급이 아이라의 눈 하나뿐이야. 그것도 골드를 너프시켜놨어. 뭐, 일단 골드 얘기는 복잡하니까 빼고 볼게. 뭐, 레이드 첫 진입단계라 하나만 하는 거라 치고 그렇게 15레벨을 올려서 영웅아이템을 맞춘 1340이 되었다고 쳐. 그럼 새로운 어비스던전, 프라바사가 열려. 이렇게 오레하 2종을 뛰게 되지. 1355엔 아이라의 눈과 프라바사 하드가 함께 진행되지. 여기서 이젠 전설 장신구가 수급되고. 나아가 1370을 찍게 되면 드디어 문제의 어비스레이드, 아르고스가 열리지. 이렇게 1370이 되어서야 겨우 오레하 2종, 어비스던전 1종으로 3세트가 완성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 없다고 봐. 그 1370은 오레하 2종이 권장스펙이 되는 거지. 아마, 1400이

후부터 오버일 거야. 그럼 사실 상 무려 1325부터 1415까지 90레벨동안 같은 오래하 2종만을 계속 도는 거야. 제작진은 군단장, 1415를 찍으면 게임을 접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실 유저 인식은 1415 발탄노말을 가려면 유물장신구가 필요한 상황이야. 전설 장신구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 말이지. 맞아. 어려울 거야. 그래서 군단장도 1415때는 하나만 뛰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발탄에서 어느 정도 유물악세를 맞추고 1430에 비아키스를 도전해서 총 발탄 노말, 비아키스 노말 군단장 2종을 뛰게 되는 거지. 문제는 아까 지적한 1370 ~ 1415.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폐사구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30레벨은 콘텐츠가 비어있다고 보거든. 거기에 아르고스 어비스레이드는 1370 ~ 1415구간 총 45레벨까지가 권장스펙이라고 보고 있는데, 1470인 내가 그때까지도 아르고스를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 딜 찍이든 4인 버스든 아무튼 아르고스를 잡아야 한다는 거지. 어, 1415부터 약 90단계. 어비스레이드는 45레벨이 하나의 기준이니까 대충 총 두 개의 어비스레이드가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즉, 1470이 잡아야 할 권장 어비스레이드는 적어도 아르고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렐구간 콘텐츠는 정말 즐길 콘텐츠가 오래하 2종뿐이라 피로도가 누적되고, 중렐구간, 허리라인 콘텐츠는 저렐 콘텐츠 아르고스가 계속 고렐이 될 때까지 지속되다 보니 피로도가 누적되는구나. 그럼 언나 해결책은? 여기까지 분석이 됐으면 해결책도 있는 거 아냐?”

“우선, 나는 저렐구간 1370 ~ 1415 구간에 ‘베른 남부’를 주제로 한 어비스던전 2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2종일지 1종으로 노말, 하드로 깔끔하게 하나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 30레벨을 채울 수 있는 어비스던전이 시급하다고 봐. 그리고 이건…… 다 구현해 봤잖아? 1, 2티어 어비스던전들 보니까 이미 있는 몬스터들과 맵들로 구성해 놓았으니, 이것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해. 아니면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드. 허리라인 어비스레이드. 솔직히 답이 없긴 해. 이미 로드맵에 일리아칸, 카텐이라는 최상위 콘텐츠를 공개했기 때문에 최고급인력이 그 쪽에 집중되었을 것이고 이 시점에 어비스레이드를 무려 2개나 새로 만들라는 건 무리지.”

“그럼 어떻게?”

“이전에 존재했던 콘텐츠로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언니의 해결책으론 가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거네?”

“저렐구간 1325 ~ 1370. 이전에 삭제된 미스틱, 카이슈테르로 어비스레이드를 생성하는 거지. 하지만 45레벨 구간이기에 이 2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미드 얘기 중에 저렐 얘기가 나와?”

“일단, 저 구간도 비어있으니까. 근데 저렐 때 갑자기 저 두 개를 왜 배치했겠어. 어, 미드 라인 1415 ~ 1460, 1460 ~ 1505. 각각 미스틱 카이슈테르 하드모드가 추가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야. 현 최소한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기존 유저는 사라진 레이드 던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 같고,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신규 유저는 아예 미스틱과 카이슈테르의 공략 자체를 모르니 해당 콘텐츠가 ‘하드모드’로 추가되면 비교적 단기간에 생성 가능한 기존유저, 신규유저 모두 충족시킬 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덤으로 새로운 유물 세트를 여기에 추가하면 될 것 같고. 향후 이 허리라인을 담당할 새로운 군단장 마수 던전이 제작되면 글썽……. 이 두 던전은 그래도 남겨두는 게 낫겠다. 만약 이렇게 되면 던전 가짓수가 늘어나는데 파티형성이 더 힘들게 될 것 같아. 그것 역시 기존에 있던 ‘스케줄러’기능을 활용해 미리 익명의 유저들, 길드원들 끼리 일정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다 ‘인연’이잖아. 그리고 골드는 1490이나 1505즈음 솔직히 파괴강석 나오잖

아. 그럼 에포나골드보상 3단계를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일단 공급에서 차이를 벌리는 거지.”

“그런데 잠깐. 신규던전 제작했으면 그냥 대체하면 되잖아.”

“어떤 개발진들이 로드맵발표에서 그랬어. ‘MMORPG’가 어떤 거라며 묻더라고. 그러더니 수평적인 콘텐츠랍시고 막 이런저런 모드 보여주는데, 재밌겠더라고. 지금 버려진 섬들과 맵들이 많으니까 그 섬과 맵을 주제로 한 레이드나 던전, 보정콘텐츠를 개발하면 팬층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보상심리로 거기서 얻은 티켓 같은 거로 그 섬을 상징하는 조각상, 요리, 의상, 펫, 섬의……. 경매로는 전설아이템 같은 게 한 번씩 나오면 더 좋겠지. 거기서 경매로 나온 특수 아이템 같은 게 기본 50골드가 아니라 막 5000골드부터 시작하면 엔드콘텐츠에 막혀있는 최상위 유저들을 위한 골드 수요도 조금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어…… 캐릭터의 육성 가짓수, 올라갈 수 있는 라인 수를 늘리는 게 더 수평적인 개발방향 같다는 거지. 기본골격을 군단장으로 잡아줬으니 그 라인 비슷한 라인을 배치를 하는 거야. 난 어쨌든 MMORPG의 기본은 많은 다른 이들 사이에서 나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캐릭터 성장발달시기가 있을 테니까. 처음 청소년기에는 팍 키우다가 어느 정도 선이면 다 성장한 캐릭터에게 이런저런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멋있는 집에서 놀거나, 재워주고 싶을 것 같잖아. 수직개발시기엔 최종콘텐츠를 뚫는 거고 수평개발시기엔 버려진 콘텐츠를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정된 Level Boundary가 완성되면 로스트아크란 게임도 예비문화유산 후보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민애는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해운을 멀뚱히 보고 있다.

“아니, 어디 커뮤니티에다가 글 올려봐 봐. 넌 게임체험 왜 떨어졌었냐? 그 주니어던전엔 파이터모바일? 너 거기 떨어졌잖아. 소문 다 났어. 너 거기 아카데미에서 1등 했다고 승산 있다고 소문냈잖아. 아, 지금 무슨 포트폴리오 내려고 역 기획 해보고 하는 건가?”

“아니. 난 그냥 한 명의 유저로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딱 대. 이 고집해바바. 관련 개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야. 그리고……. 실은 개발자를 포기했어.”

“개발자를 포기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떨어지고 난 방황을 조금 했어. 스스로 이런저런 자살 검사나 사이코패스 진단 같은 걸 찾아보았어. 그리고 엄마 앞에서 대놓고 ‘죽고 싶다.’ ‘난 언제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러더니 엄마가 거금을 들여서 나한테 정신 상담을 받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아니, 어쨌든 그 이전부터 이미 본능적으로……. 난 그간 내가 여태 좋아했던, 유독 오래했던 글을 써 보면서 지난날들을 정리해보았어. 그렇게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니까, 난 게임제작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거야. 실은 게임 제작 자체를, 게임디자인이란 것 자체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냥 내 점수 맞춰서 선을 그어보니까 선생님이 게임디자인체험에 한번 넣어보라고 한 거였거든. 난 시키니까 그냥 공부한 거야. 난생 들도 보도 못한 그 게임디자인을 말이지. 난 제대로 된 구현을 하지 못하면 혼날까봐 무서웠어.”

“게임제작에 공포를 느낀다고? 근데 너 잠깐 성적 나쁜진 않았잖아. 아니, 왜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딱 그날 시험을 망쳤어. 아, 물론 내가 평소에 진짜 막 엄청난 점수를 받은 건 아니야. 하지만 평소보다 망쳤다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래. 망쳐도 진짜 재수 없게 망쳐서 도저히 엄마한테 얼굴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바로 엄마 앞에서 절을 한 거야. 너무 미안해서. 채점도 안 했어. 아예 손도 못 댄 시험지였는데. 이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 점수가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가군, 다군에 지원한 내 체험인턴은 다 떨어져 버리고 딱 하나, 게임디자인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시작된 거야.”

“진짜 개 충격이다. 네가 게임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 아니, 어찌다 게임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게임체험을 하러 가게 된 거야?”

“난 본격적으로 게임을 업으로 삼으려는 이들과 함께 제작을 하려할 때 알겠더라고. 거기선 게임을 향한 애정, 그 실질적인 격차를 느꼈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냥 하면 된다는 나도 팬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미 게임은 골격이 잡혀있었고 다 만들어져 있었어. 내게 주어진 업무는 게임을 더 좋게, 더 재밌게 유지보수 및 버그수정이나 최적화, 콘텐츠 추가 같은 것이었어. 엔진이야 한 번씩 다 다뤄본다고는 하지만 흔히 ‘일을 배운다.’고 하잖아? 그건 내 엔진레퍼토리엔 없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정말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던 내용의 배워야 일이 방대해지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였어. 게임제작만 하면 아예 몸이 움직여지지 않게 됐어. 잠수함으로 치면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니 압력을 못 버티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였지. 그래서 다른 길을, 내게 맞는 다른 배를 찾아보려고 개발자는 내려놓기로 했어. 그래 적어도 그 자리는 내가 억지로 취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해은의 눈이 풀렸다. 어깨가 내려앉았다. 해은은 다시 바닥을 보았다. 해은은 당최 자신이 무얼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바닥이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모니터처럼 검은색으로 물들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깨달았어. 그 성공한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 공통점을 찾아봤어. 하루 막 열 몇 시간했다. 노력했다. 전략을 세웠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느 정도 떡잎이 보였던 것, 관심을 가지던 것, 흥미가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성공한 이들의 시작점이더라고. 반면에 난, 자기소개서에 ‘왜 게임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걸 거짓말, 소설로 적을 수밖에.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부터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자. 아니, 적어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일을 하자. 이 세상, 수동적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 정말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건 기본교육 그리고 진행되는 훈련과정으로 점점 부작용이 누적되어서 결국엔 공포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것이 곧 내 안에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었어.”

“언냐, 있잖아? 웹 말고 정식작가 해. 취미로 하지 말라고. 아, 아니, 작가 됐으면 좋겠어. 초신성처럼 나타난 작가가 되란 말이야.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해은의 눈에서 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해은은 심한 죄를 지은 것 마냥 바닥에 처박은 고개를 더 들 수 없었다. 웃고 있던 얼굴도 금세 사라져갔다. 민애가 몸을 빠르게 일으켜 해은의 등을 두드렸다. 예서는 갑자기 울어버린 해은을 보고 놀랐다. 예서는 슬금슬금 다가가 해은의 머리를 정리해주었다. 민애는 예서의 손을 막으려 하였다.

“나, 중학교 때 장래희망에다가 ‘작가’를 쓰긴 했었어. 그런데 바로 지웠어. 주위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한 게 생각나니까. 그래, 내 자아가 담긴 꿈이 단 5분 만에 사라진 거야. 난 정말 그 5분을 제외한 나머지 23시간 55분만큼의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내게 이 5분이 있던 것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서 그나마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 1년 아니, 6개월 아니, 난 사실 2주되니까 그 사무실에서 나오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만큼 난 타의적인 삶이었어. 그 와중에 또 글 쓰는 건 좋아해서 일기마냥 누가 보든 말든 웹에다가 소설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난 모든 것이 정리된 이제서야 글을 쓰는 자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두드려보는 거야. 그래도 참 어리숙해. 역시 센스가 없는 건지 난 모든 공모전을 또 매번 바보같이

새로운 글을 쓰고 있었지. 그런데 아는 동생이 요즘 공모전은 그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든 걸 유지보수해서, 더 좋게 보강해서 참가하는 게 전략이래. 그래서 난 이전에 쓴 글들을 모아서 한층 더 강화해보았어. 다행히 게임유지보수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일이 잡히더라고. 나 근데 걱정 돼. 설사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작가 이후의 삶이 어떤지 전혀 몰라. 작가의 삶을 꿈꿔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도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민애와 예서는 웃으며 울고 있는 해은을 보며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해은은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고만 있는 둘을 보고 또 바보같이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해은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예서야. 초신성은 별이 죽을 때 관측되는 거다? 하지만 내가 초신성이 되면 원소들을 양분삼아 다른 별이 태어나겠지? 난 한번 그런 선택을 해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난 언니가 죽지 말고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였어. 미안, 초신성이 그런 건지 몰랐어. 말이 멋있어서 그만.”

해은은 작은 웃음을 보였다.

“……. 그런데 참 재밌다? 내 이름 있잖아? 해은. ‘태양의 은혜’래. 근데 엄마가 그냥 우리 말 ‘해’를 써서 해은이 된 거야.”

“이름값 해야지. 은혜 갚으려면 태양이 돼야겠네. 야, 그리고 태양 주제에 어디 계속 도망가대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태양이 막 달 되려고 그래봐. 얼마나 난리겠어.”

“내가 무엇에 도망치려했을까 생각해 보았어. 내가 지난날을 글로 정리해보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괴물이 서서히 박제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벨벳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지. ‘비관적인 시각을 키우려면 글쓰기를 가르치면 된다.’”

“그……. 뭘 것 같긴 해.”

“난 코딩을 쉴 때는 소설을 썼고 소설을 쉴 때는 코딩을 썼거든. 난 코딩과 글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야. 소설제작에도 함수가 있고 변수가 있거든. 즉, 난 늘 비관적인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함몰이 되는 거고 난 중복된 이 감정이 두려워서 늘 소설작가로부터 도망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둘 다 함께 소화할 수는 없는 사람인 거야. 이걸 안 순간 난 둘 중 하나를 확실히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인 거지. 이젠 난 좀 뻘뻘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해은은 잠시 아리슬을 마셨다. 취기가 올라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민애는 아리슬을 잠시 쥐고 있다가 마셨다.

“아, 그래서 네가 요즘 말이 많아진 이유인가 싶네.”

“으, 근데 뻘세겠다. 현실은 언나 도전처럼 쉽진 않잖아. 재밌는 글에, 영화에, 게임까지. 엄청 많은데 거기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

“그래, 그리고 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더해서 사라진 직업까지 말이야. 내가 곧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안내양, 전화교환원 말하는 거야? 확실히 그런 직업은 현재 부저나 기계적인 안내 목소리로 대체되었지. 교환원은 어디 상담 연결할 때 숫자 버튼 같은 걸로 변경되었고.”

“그래, 그런데 잘 생각해봐. 우리 120살 살아야 해. 기대수명,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초고령 사회인지. 우리 노년에 짐 많고 버스 오르는 거 힘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대체 난 언제까지 10초 안에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지금 난 직업을 마구잡이로 자동화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없어진 직업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안내양을 할까? 요즘 같은 시대엔 젊은 것들은 공장에도 잘 안 들어가려 한다고 하잖아. 다 앉아서 일하고 싶을 것 아니야.”

“앉아서 편하게 일한다는 로직이 뭐지? 나는 그 대학 나와서 회사원이나 사무직 혹은 무슨 제작자 같은 거 돼서 편히 살겠다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

“해은아 대학은 나와야 그래도 사람 취급을 받잖아?”

“나는 기업과 노동자 기반에 자본논리 관계처럼 학문, 교육에도 똑같이 Mass와 Tip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대학은 Tip한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라 생각해. 사전을 봐봐.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다.’ 즉, 인류가 다루는 분야를 더 넓히는 곳이잖아? 대학교졸업생은 회사원이나 사무직 같은 Mass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연구실이나 어디 파견, 조사단 같은 임무가 걸린 곳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럼 언니가 말하는 그 MASS한 사람들은 누구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서 뭘 공부해야 하지?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치? 설마 그렇다고는 하지 마.”

“Mass한 사람들은……. 그래, 쉽게 그냥 있는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존 기술을 더 잘 활용하는 선에서 직업을 얻고 싶은 거라면 Mass라고 봐. 그럼 남은 건 실용적인 능력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직업전문학교 아니면 전문대학을 가야지. 현 기술이나 증명된 전문분야를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잖아. 맞아, 전문대학 졸업생은 사람으로도 안 쳐주지. 그러니 대다수가 Tip한 지식을 배워놓고 Mass한 자리에 가서 대학 지식이 필요 없다. 결국 전공과 다른 삶을 산다는 이상한 말을 하지. 이미 Tip한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입학 전부터 아예 Mass한 지식을 다루는 직장을 꿈꾸고 있어. 즉, 이걸 학생선택도 문제인데 처음 진학상담부터 많이 뒤틀려있다는 거야. 난 이런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학교는 Tip하게 교수랑 연구진이랑 교류가 되어야하고 전문대는 Mass하게 현업에 뛰고 있는 경력자, 시니어들과 교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 즉, 대학에선 새 직업을 창조하거나 구 직업에 잠재력을 일깨우고 이를 직업전문학교에게 전달해주는 거지. 그리고 대학과 전문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나름 생각했는데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대학이나 전문대나 전부가 기관에서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 그러니 화석선배가 생기고 취업하려고 석·박사를 따려는 이상한 짓을 해대지.”

“시간이 부족하다니? 그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 아냐? 아님 커리큘럼이 잘못됐던가.”

“우리 문명과 사회는 현재 기준으로 인간 하나를 120세까지 연명할 수 있을 만큼 고도화됐어. 이걸 의료수준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의 발달로 해석해야한다고 봐. 하지만 성인 이전 즉, 19세 이전은 인간발달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고정이고. 그럼 건드릴 곳은 사회의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 청·장년시간 뿐이잖아? 그런데 현재 주어진 시간으로는 직업에 관련된 기업, 자본, 은행, 주거, 육아 등등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은데? 난 한 일반대학은 8년, 전문대는 적어도 6년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즉, 각각 교육기간을 6년, 4년. 체험기간을 둘 다 2년으로 치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하고 나서도 기업과 연구진에서 초짜라고 배제될 수도 있다고 봐. 선배들 봐봐. 무슨 석·박사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런데 Tip한 석·박사 공부한 사람이 Mass한 곳으로 간다? 의사? 변호사? 기업 수장? 회장? 그 직업, 그 자리도 난 기존 의술이나 법률, 운영을 활용하는 차원이라면 역시 엄연히 Mass쪽이라고 봐. 국회의원, 제약회사연구진 같은 곳 안 갈 거

면 다 전문대 가야한다고 봐. 물론 대신 전문대 사이의 변별력이 또 생기겠지. 어쩌면 늘어난 학업시간에 비해 기업에서 인재를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직업군마다의 인재기준 변별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모든 직업은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직업이 된 거라고 생각해. 문제는 사람자체에게 귀천이 있다는 거지. 그 귀천과 개인의 능력을 판별하는 과정일 거야. 그리고 거꾸로 기업 역시 인간의 지성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난 그 기준을 계획, 업무달성도 즉, Todo List의 존재 유무로 보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나 일일, 주간 시간표를 작성하고 지켰었던 내 입장에선 아무 계획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부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내 전문용어, ‘불량기업(Defect Enterprise), 불량부서(Defect Department)’이라는 말을 하거든. 하지만 솔직히 인적자원만 있는 우리나라는 불량기업보단 불량물을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 또 그 불량을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불량률이 높아도 괜찮다는 거고.”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말을 경청했다.

“부실대학은 늘어나고 직업만족도는 낮아지고. 그럼 그 빈 강의실을 경력강사 초빙해서 전문과를 개설해야지 한다고, 그래도 된다고 봐. 왜? University, 종합대학이니까. 언제까지 젊은이만 받을 거야? 말 그대로 대학은 계속해서 교육의 장이 펼쳐져야하지 않겠냐는 거지. 이런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역시 과거에는 대학을 가는 사람 자체가 적다보니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 고 스펙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더 확실한 것은 너도나도 그 고등교육을 받을 수준이 되니까. 뭐 인프라가 좋아지고 관리가 되니 새롭게 부각된 문제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런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나는 우선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문 연구와 직업 훈련을 명확히 구분해야하는 것부터라고 봐. 하지만 현재 우리 현실은 Tip한테 가서 간판을 걸어야하는 상황. 그럼 우리의 최선으로는 인식부터 해야지. Mass한 대기업직장인 되고 싶으면 우선 걸출한 Tip간판 걸고, 혹은 못 걸었더라도 뻔뻔하게 Mass한 공부는 따로 준비해야한다는 말이라고. 더해서 직업 인프라 습득기간이 지금 대학에서 제시하는 시간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저런 연애나 계약직 같은 거 해보면서 사회습득을 해야지. 이런 현상은 전반적으로 Tip과 Mass의 형클어짐 현상+Mass의 소외현상을 통한 합작품이라고 보여. 나도 싫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라고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니, 이런 건 또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부모님들은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전문대는 가지 말라고만 얘기해. 내가 전문대 말고 대학을 가야하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얘기야. 괴로워.”

“오히려 좋아! 난 우리 해은 언냐 말 들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야. 대다수의 사람, 대학졸업생들이 MASS한 자리로 가지. 흐름에 어찌다 대학을 가더라도 이곳은 TIP한 지식을 주니까 적당히 걸러듣자. MASS한 걸 알려주는 곳은 짜피 따로 있다. TIP한 곳은 흠 그래! 난 게임 좋아하니까……. 어디 게임엔진 연구하고 시각, 물리현상구현 개발하는 기업이나 부서가 TIP한 곳이다! 껍! 어우, 난 MASS할래. 언냐 말, 참고할게!”

“좋아. 참! 무조건 처음에 성공하라는 법도 없어. 일하다 적성에 안 맞다? 그럼 다시 전문 직업훈련기관 알아보면 된다고 봐.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 사실 Mass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은 학원이나 넷상에 떠돌면서 방향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야! 해은. 그럼 우리 자식 농사는 어케 하나? 결혼은? 먹고 살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학 비용이 얼마데. 아니 무슨 대학이 8년이야. 아, 전문대는 좀 짧가? 근데 전문대도 6년이라며. 야, 내 친구 중엔 빚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문명이든 뭇이든 간에 결혼 전에 이미 다 탈탈 털리는구만. 네가 말하는 직업 바꾸기는 누군가에겐 하늘에 별 따기 수

준일 것 같기도 해.”

“어? 빗을 내보겠다는 건 그래도 살 의지는 엇보인다는 건데……. 아, 생존점수(Survival Point)! 기업을 선택하기 전 이곳에서 부의 재분배, 노동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되겠구나. 적당히 공부되는 사람 추려서 장학금 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책정되는 절대점수는 생존 점수일 게 뻔 하나까. 학교 제정에 문제가 되면 속한 나라에서 학생을 지원해야지. 즉, 기초 지원금 따위를 일정 성취도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기준은 학교기준이 아니라 해당 학생의 나라기준. 다 어느 나라의 국민일 것 아니야. 그리고 해당 학생이 지원금만 타먹고 노동을 안 하면 정확히 아니라 나라에서 잡아가야겠지. 만약 예술이나 체육계열이면 잠재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학교에선 기본 수업을 받으면서 알바를 해야겠지. 그럼 이상은 교육의 장이겠지만 실상은 아마 아수라장일 거야. 아마 온갖 비리에 사건사고가 난무하겠지? 왜냐면 전 연령대가 직업을 얻기 위해 이곳을 드나들어야 하나까. 뭐, 기업, 경제, 교육 모두 한 번에 풀어야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해. 하지만 진짜 여기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임신 같긴 해.”

“임신? 그냥 그 뭐냐 자궁? 로봇자궁 그거 쓰면 되잖아.”

“유전자 조작이다 뭐다. 나는 그거 지금 당장은 부작용이 너무 심할 걸로 보이긴 해. 근데 솔직히 인공자궁 일부 동의해. 관련 윤리나 법안을 강력하게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는 방향이면 될 수도 있다고 봐. 왜? 사실 봐봐. 우리 먹는 이 쌀이랑 빵도 까놓고 보면 비료에 농약까지 쳐. 즉, 우리 삶에 의식주부터 이미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야. 문명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생식기관은 왜 기계도움 안 받냐는 거지. 까놓고 이미 우린 인간의 신체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잖아. 혹은 인간의 몸, 임신이 늦춰지는 이 문명에 적응을 해버리는 것. 60대 임신 막 이런 거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임신가능기간이 확장되는 경우라고 보는 거고. 자연적인 적응. 의료의 발달.”

“좋네! 아니 그럼 뭐야. 다 해결되네! 이 몸뚱이가 얼른 바뀐 세상에 적응하면 좋겠다.”

“글쎄, 그게 과연 우리 여성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 임신가능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 그 마법의 날과 어찌면 몸을 지켜야하는 날이 그대로 늘어나는 꼴인데? 그리고 인공자궁도 아마 그 비용은 다 우리가 지불해야할걸? 부디 의료보험이 잘 되거나 했으면 좋겠어.”

“…….”

“……. 한 잔 하자.”

어느새 해은도 민애, 예서와 함께 불닭삼겹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민애는 예서와 잔을 부딪쳤다. 해은도 이번엔 잔을 들었다. 셋은 다시 잔을 부딪쳐 목 저 너머로 아리슬을 흘려보냈다.

“여튼 그래서 난 요즘 그 대학진학시험 있잖아? 그걸 다시 만들어보고 있어. 우리 고등학교만 해도 봐봐. 미리내고등학교 B캠퍼스잖아? 거기서 진학시험장 역시 사설학원까지 대여해서 선생님들 파견하고. 야! 껍! 수업에서 무슨 ‘원격근무단지’까지 나온 마당이야. 이전 시험체계를 부정해야하는 거지. 단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승, 발전시켜야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재설계를 해보고 있어. 왜 에세이 있잖아? 서론 본론 결론. 이러면 풀이과정도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그 ‘정답’이란 시스템도 다시 생각해보는 중이야.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시험지 자체도 좀 바꿔보는 거지. 이젠 전반적인 혁명이 보여. 바로 벨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도 미리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까진

잘 모르겠어. 사실, 다 잘 모르겠어.”

“야야! 뭐 맨날 마무리가 모르겠데! 넌 그게 문제야. 이미 다 말해놓고선.”

“A캠퍼스는 과연 어떤 곳일까? 난 가끔 그런 게 궁금하더라.”

“……. 왜냐면, 난 글 못 쓰거든. 코딩도 못하구 글도 못 쓰고. 실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언니, 뭘 소리야. 글 쓰잖아? 무슨 소설 쓴다면서?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다 끝났어. 하지만 퇴고를 하는데, 엄마랑 아는 동생 보여줬는데 글이 좀 그렇데.”

“자세히 좀 말해봐.”

해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자신이 왜 글을 못 쓰는지 눈을 감아 상기하기 시작하니 또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해은은 한 번 더 숨을 참고 눈물을 다시 눈 속으로 넣었다.

“문장의 완성도라는 게 있어. 소설 이전에, 수필이든 뭐든 그 이전에 문장이 화자와 청자 그리고 단어의 적합성, 중복문구 같은 거. 이런 건 사실 책이나 여러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어야 하거든. 이걸 진짜 글을 구성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아니, 정말 말 그대로 소설을 취미로 썼다니까? 실은 난 글을 다듬는 공부도 아예 안 한 사람이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미 글 여기저기에 나사가 빠져있는데 누가 재밌어 하겠어? 혹 평소 관심 있던 소재나 사건이어서 그 부분에 재미를 느끼다가도 문장에 오류가 등장하면 흥미가 확 빠지는 거야. 말 그대로 ‘이딴 게…… 소설?’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 잘 알고 있어 이런 거. 그런데 최대한 독자를 생각하고 오류를 생각해도 이런 건 못 고치겠더라. 맞아, 이런 것 말고 더 많은 장단점이 있었지. 하지만 잘 모르겠어. 진짜 만약 된다면 덜컥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글도 이제 못 쓴다면?”

“몰라. 몸 파는 일도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차피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즘 생각하는 건 정육점?”

“에? 갑자기?”

“고기를 써는 게 나랑 어울릴 것 같아서.”

“오우야. 근데 이런 말 하는 애들이 결혼도 먼저 한다던데.”

“글쎄, 작가도 덜컥 된다 하더라도 난 그 이후가 진짜 걱정되는 거고.”

“흠. 언냐, 작가되겠다면 그 글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된 후에도 공부 참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하, 누가 날……. 어느 출판사가 작가로 뽑아줄까? 아마 인정한다면 난 다른 걸로 뽑혔겠지. 소재라든지, 뭐 진실성 같은 거? 자전적소설인데 그냥 대놓고 다 적어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곳이겠지. 진짜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상 힘들다고 봐야지. …… 난 스스로 작가지망생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 양심에 찢리는 도전이라고. 난 그래서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진짜 나 돼지 같아. 아무 것도 못하…….”

“됐어, 우리 해은이 뭐라도 하면서 살겠지. 근데 솔직히 해은아. 너 네 얘기부터해서 사회? 아무튼 무슨 소재든 어떻게 술술 얘기하게 된 거야? 웬만한 관심 가지곤 안 될 텐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그냥 게임이며, 글이며 즐기면서 오래한 것뿐이야. 그리고 평소에 사회와 정치, 과학엔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정리한 것뿐고. 아니면 코딩 때문일 수도 있고. 게임엔진. 어쨌든 그 틀을 만들어보면서 이런저런 디자인을 해볼 수 있지.”

“아니, 아까부터 계속 게임엔진 거리는데, 개가 뭐하는 녀석인데?”

“게임의 뼈라고 보면 돼. 너희가 보는 캐릭터, UI 이런저런 콘텐츠들은 사실 살이야. 흠, 잠깐 내 엔진을 소개하자면 그 HEngine이라고 모든 변수 명 앞에 다 H가 들어가. HImage, HSound, 이런 식으로. 뭐 내 맘대로 설계한 엔진이야.”

“취향 참…… 특이하네. BBY랑 TT는 또 뭐고.”

“우선 내 코딩선생님께서 이름 앞 글자이니셜이 X였거든. 그러더니 엔진 이름을 XEngine으로 지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별 수 없이 해은, HEngine으로 한 거뿐이야. 난 그 Tip 자리에 위치한 바로 HImage며 HSound 따위를 설계했고, 이런 Tip한 걸 Manager가 Mass하게 관리하게끔 배웠어. HImageManager 이런 식으로. 거기에 최종적으로 Manager들을 관리하는 HCore까지. 아주 기초적인 엔진코딩을 배웠지만 나는 정작 거기서 Tip과 Mass의 관계를 배운 것 같아. 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 아카데미에서 1등을 해본 것 같아. 거기에 난 어쩌다 현실에서마저 Tip에도 가보고 Mass에도 가보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해보니까 알겠어. 내가 정신 상담 받았다고 했잖아? 정신 치유가 별 거 없구나 싶어. 내가 왜 이런 혼란에 빠졌는지,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우울한지 그냥 정확히 짚어주기만 하면 되더라고. 난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 꺾어서 부정적으로 내보내는 사람이었거든. 그걸 말해주시니까 실은 그때부터 다 달라지더라고. 마치, 내가 보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정반대의 얼굴로 모두 부활하는 모습이었어. 어쩌면 이러한 정신치료의 특성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해은은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웃었다. 해은의 볼이 뺨기에 붉게 달구어졌다. 민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잠시 입에 나뭇구는 삼겹살을 넘기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해은아. 너, 18살 아니야? 인턴이런 거 가능해? 언제 한 거야?”

“그르게? 언냐 저번 학기 때 게임 코딩 과제 두 개 제출하라 했는데 혼자 세 개 제출했잖아. 난 언니 겜 코딩에 진심인 줄 알았는데.”

“어? 난 조금이나마 진심이었는데……. 그냥 살다보니 이렇게 되더라고.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주위사람 시키는 대로, 추천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하하……. 제일 큰 건 저기 조엘하고 벨넷 덕분이지. 좀 컸지. 꽤 중요했어.”

“벨리? 벨넷? 그게 다야? 왜 이렇게 대중 통 치는 기분이 들지?”

“야, 장해은. 너 잘 되면 있잖아?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올려. 아이디어 빌려줄게. 이런저런 것 그냥 올려봐. VNS도 시작하고 소통을 좀 해봐. 너 작가 그거 하나씩 열어봐. 그리고 여기저기 참가한다는데 단념하고. 실패할 준비하라고. 그래도 돼. 혹시 또 몰라? 그 주로아 보면 장기백처럼 계속 실패하다보면 성공할 때가 오겠지.”

“어? 장기백이 뭐야?”

주니어로스트아크는 장비강화체계가 미성년자를 위해 성인용과 조금 다르게 설계되었다. 우선 기존 성인용과 같은 시스템인 ‘장인의 기운’으로는 A장비강화 실패 시 A장비에 조금씩 기운이 누적된다. 그 기운이 계속 쌓여 결국 100%가 된다면, A장비의 다음 강화는 무조건 성공하는 식이다. 이 기운은 장비마다 별도로 책정되며, 이를 유저사이에선 일명 로스트아크 특유의 천장시스템, ‘장기백’이라 부른다.

여기에서 미성년자버전에서는 장인의 기력 0%시스템(장인기력)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A장비에 대한 강화를 계속 할 시 기력 수치가 점점 떨어져 0%가 되면 하루 강화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기력수치는 매일 100%로 충전되며, 이는 미성년자들이 장비강화를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이 우려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이다. 단, 미성년자버전에서는 강화성공수치가 성인버전보다 더 높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육성된 캐릭터는 차후 유저가 인터넷면허를 취득할 시 로컬서버에서 일반서버로 이전될 수 있다.

“어? 언냐 1480짜리 있다며. 왜 장기백을 묻는 거야?”

“애 장비 강화하는데 장기백을 한 번도 안 본 거 아니야? 세상에 장기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저라니.”

“하, 참나. 이게 게임인가 싶다. 이렇게 갑분 비탄을 한다고?”

“아니야, 나 한 번 강화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데. ……. 그래도 나 조금씩 열어볼게. 그리고 나 이번 글 마감하면 그 주니어로아도 다시 시작할 거야. 그 캐릭 냉정히 망한 것 맞거든. 하지만 난 그 캐릭을 지우진 않을 거야. 경력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도 내 소중한 경험이니깐. 그 속에서 난 게임플레이라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내가 경험한 분들은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답답했던 만큼 그 분들도 답답하셨을 텐데 참아주셨거든.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주로아 요번에 새 캐릭, 새 직업 나온 다며? 이미 난 나오기 전부터 그걸 본캐, 대표캐릭터로 마음에 두었거든. 컨셉이 동양화가던데. 딱 마음에 들어.”

“아, 그 지원가 말하는 거야? 꼬맹이에 약간 여우 귀처럼 달린 애던데. 이름이 뭐드라? 까먹음, 해해.”

“스페셜리스트, 도화가야. 난 예전부터 희한하게 이런 지원가를 키우더라. 역시 주니어로아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 또 주검사에서 샐이라는 직업으로 다시 키워보려고. 그, 딸내미 하나 키우는 기분으로 키워보려고.”

“우리 해은이 그림 아이디어도 있는 거야? 친추 좀 하자.”

“시끌시끌요. 그리고 주검사는 또또이.”

잠시 대화에 지쳐버린 셋은 말없이 상을 쳐다보았다. 해은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확실히 해은은 자신이 지친 것을 깨달았다. 해은은 허리를 쭉 펴며 벽에 기댔다. 민애와 예서는 해은을 그대로 두었다. 민애는 아리슬을 자신의 잔에 조용히 한 잔 더 따랐다.

손에 쥐고 있던 해은의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예서는 자신에게도 온 메시지를 열어 확인했다.

“어, 언니! 일어나봐! 얼른!”

해은은 눈을 깜빡였다.

“아리슬 온데…….”

“어? ……. 설마 큰 거?”

한국에서는 ‘아리슬’이라는 이름이 기후현상과 소주 모두 쓰이기에 대개 소주 아리슬을 ‘작은 거’라고 하며, 기후현상 아리슬은 ‘큰 거’라고 구분 짓는다.

“정신 차려 봐! 야! 장해은!”

“잠깐잠깐! 5호 아리슬 이름이…… ‘누나’라고? 개 뜬금없네.”

그 순간 해은에게 전화가 왔다. 해은은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붉은 긴급문자에 ‘아리슬 5호 주의보 발령!’이 써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 해은은 겨우 전화를 받았다.

해은은 입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커졌다. 그 커다란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차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은 해은은 한동안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민애가 선

채로 굳어버린 해은에게 말을 건넸다.

“왜 그래? 해은아?”

“엄마가……. 우리 어, 엄마가…….”

커다란 눈에 들어간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해은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네 번째 잔, 추가 글

추가하자면,

아몬과의 대전쟁 당시의 활약을 펼쳤던 의인을 기리는 대함선 두 대를 추가로 건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함선은 네라짐에서 제작하는 ‘The Sword of Zeratul’이고 두 번째 함선은 칼라이에서 제작하는 ‘The Shield of Artanis’일 수 있겠다.

그리고 델람을 상징하기 위해 이 두 함선이 동시에 작동 시키는 무기나 방어체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잔. 갈무리

“벨리기피증(VelliePhobia)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인 척하는 기계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으로 발전되는 형태입니다. 부인께서는 3년 간 이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신 거구요. 쉽게 인터넷기피증이 발현된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인터넷에서 원치 않거나 너무 공격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경우 정신적인 쇼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 현상이 인터넷기피증이고 지금 고인(故人)께서 겪으신 건 벨리기피증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건 벨리의 단편적인 자료로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법원 가서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변호사 준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은영을 발견한 첫 목격자가 바로 신고를 하였다. 민혁은 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창 아래를 보았고 서둘러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었다.

민혁은 해은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고 친구 민애의 부모님이 최고 속도로 차를 몰았지만 이미 수습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쳐진 곳 너머 민혁이 있는 곳으로 해은이 뛰어갔고 민애와 예서는 차마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은영의 유서는 책상 서랍 다이어리에서 발견이 되었다. 해은은 그 다이어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으나 민혁의 도움으로 식당 뒷방에서 마지막 장을 읽을 수 있었다.

‘해은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눈물 젖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내용이였다.

눈물이 쏟아져 나온 해은은 은영이 한 페이지를 채우지도 못한 채 가버린 은영을 못내 놓아주지 못했다. 민혁도 두 눈을 감고 해은을 안아주었다. 민혁은 데이터분석가의 마지막 추천에 따라 은영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다.

은영의 유서를 정리한 민혁과 해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민혁은 해은과 함께 벨리는 모두 종료시키고 뒷방에 안치해두었다.

영정사진은 LED 패널과 종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LED쪽을 선호하였지만 해은과 민혁은 종이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은영의 모습은 종이에 남게 되었다.

장래는 인터넷과 인프라넷으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간 장래에 참가할 경우 혹은 정말 시간이 나지 못할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한다. 서비스시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장래에 참가하는 것이 최선으로 위로하는 길이라 여긴다.

첫째 날 오전에는 해은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뒷방에 계속 머물러야했다. 민혁은 조문객을 받았고 식당까지 인사를 해주었다. 이 날 조문객은 은영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민혁과 뒷방에 있는 해은에게 기도를 하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혁은 그 속에 섞인 인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 어깨에서 나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만 같았다. 인아와 민혁은 잠시 식당에서 나가 따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해은도 조문객을 받을 수 있었다. 민혁의 회사사람들이 왔다. 상복도 굉장히 깨끗한 차림이었다. 그들이 모두 식당으로 갔을 무렵, 해은은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해은과 민혁은 번갈아가며 식사를 해결하였다. 어린 해은은 이제 조금 이러한 생활패턴에 익숙해졌다.

둘째 날이 되었다. 아침이었다.

‘곧 감.’

수아였다. 수아는 문자메시지에도 문장부호를 꼭 써 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상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라도 시간을 낸 것이었다. 승합차 한 대, 벌써 기억에서 사라져 갈 뻔한 민애 집 차량, 그리고 검은색의 고급차량 한 대가 마지막이었다. 승합차에서는 선생님과 수아, 현석이 민애 집 차량에서는 민애의 가족과 민애, 예서가 내렸다. 마지막 고급차량에서는 정우와 정우의 가족이 내렸다. 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것은 해은에게는 조금 버거운 사실이었다. 해은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벨리는 모두 차량에 넣어두었다.

은영의 사진 앞에 선 민애와 예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해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버텨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표로 헌화를 하였다. 해은이 직접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였고 민혁은 어차피 손님이 많이 뜸해졌으니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다. 잘 만든 햄버거를 패지라고 했던 민애와 예서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적막한 흐름을 깨는 이가 있었다.

“해은 누나 괜찮아?”

“..... 어, 괜찮아 현석아.”

“.....”

현석은 눈치를 살피다 다시 밥을 먹었다. 예서는 혹시나 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현석을 가만히 보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해은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힘주어 다시 들었다. 민애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재빠르게 닦았다. 아직 밥이 남아있다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하였다. 수아가 민애의 손을 잡아주었다.

식사를 마친 해은은 떠나려는 민애 뒤로 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고 민애가 해은을 돌아보았지만 해은은 민애를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민애는 지금의 해은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다. 민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왜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몸이나 잘 추슬러.”

“고마워.”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은 해은은 곧바로 뒷방으로 가 벽으로 쓰러졌다. 민애는 해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

“민애야, 가자.”

“선생님, 저 잠시 화장실 줘요.”

“언니, 같이 가자.”

“.....”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정우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학교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였다. 선생님은 승낙을 하였다. 그 사이 수아와 현석은 벌써 승합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은영에게 불이 당겨지는 모습을 보고 해은의 발이 그만 풀리고 말았다. 민혁은 차분하게 해은의 뒤를 감싸주었지만 해은은 파란 불꽃을 보고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민혁이 해은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에 메마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완전히 지쳐버린 해은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민혁은 다음 일정을 잠시 하루 연기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해은은 머리를 감은 후 방에 돌아와 말했다. 교복으로 갈아입었고 조엘을 언프리징시켰다. 머칠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엘은 예전 그 모습처럼 해은을 맞이해주었다. 해은은 웃으며 조엘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해은은 머리를 묶고 다니기로 하였다. 날이 꽤 더워진 탓이었다. 머리끈을 입에 물고 빗질부터 하였다. 거울을 보며 중심을 맞추고 손에 감각만으로 손으로 잡은 머리를 고정시켰다.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오래간만에 묶어보았음에도 꽤 잘 되었다는 생각에 흡족하였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민혁이 부엌에서 계란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자리에 앉아 빵을 들고 기계적으로 잼을 발랐다. 민혁은 못생긴 계란프라이를 해은에게 건네주었다. 빵 위에 살며시 올려 한 입 베어 물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노른자가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아 그대로 터져 나왔다. 입과 손이 더러워져버린 해은은 일단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조엘을 시켜 휴지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빵 너머로 간신히 보이는 휴지를 집어 턱을 받친 뒤에 최대한 노른자가 흐르지 않게 빵을 입에서 떼었다. 해은은 흥건하게 젖어버린 빵을 더 집어먹을 수가 없었다. 민혁은 계란프라이를 마저 구워내고 있었다. 해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응?”

“아침은 레오나 시키자. 나는 괜찮아.”

해은은 양치질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은 난장판이 된 해은의 접시를 보았다. 이번에는 민혁의 등 뒤에서 계란프라이가 타고 있었다. 민혁은 가스 불을 껐고 의자를 잡고 기지개를 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해은은 큰 숨을 내쉬고 양치질을 시작하였다. 눈에 물기가 많아져 해은은 양치질 중에 거울을 보며 계속 심호흡을 하였다. 해은은 생각해보니 먹은 양 자체가 얼마 안 돼 양치를 오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양치를 하다가 입을 행구었다. 해은은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다행히 휴대용 양치도구를 찾을 수 있었다. 해은은 옷 안에 양치도구를 숨기고 화장실로 나와 곧바로 방으로 향했다.

전신거울을 보며 마지막 채비를 마친 해은은 휴대폰을 챙기고 신발장으로 갔다. 부엌에서는 민혁이 자신이 만든 계란프라이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민혁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생전에 늘 언젠가는 정말 티끌 하나까지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혹 사단이 나면 개울이나 바다에 뿌려달라는 은영 말을 기억하고 있는 둘은 바다로 향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되어있었다. 해은은 소중한 가루들을 움켜쥐고 바다를 향해 힘 있게 뿌렸다. 바다에 가라앉는 가루들은 깨끗한 물로 바뀌었다. 그 시각 사용자가 인터넷면허 취득 시 생전에 설정했던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의 바다 인터넷, 인트라넷에 뿌려진 은영에 대한 자료들이 소거되기 시작했다. 소중한 흔적들을 담은 자료들은 깨끗한 메모리로 바뀌었다.

집에 돌아온 해은은 민혁과 은영의 방을 정리하였고 이후 깨끗하게 샤워를 하였다.

아침을 먹은 해은은 학교로 갈 채비를 했다. 해은은 문을 열고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 조용히 현관문에서 인사를 하였다.

“나갈게.”

“응, 잘 다녀와.”

해은은 흑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낼까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힌 것을 본 민혁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하는 수없이 해은의 요청대로 자신의 방에서 충전 중인 레오나를 깨우기로 하였다. 민혁은 어차피 해은은 내년에 고3이기에 지난 밤 했던 자신의 약속처럼 이 학교에서 잘 지내길, 감당해주길 바랐다.

해은은 배고픔에 발걸음을 빠르게 하였다. 비록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유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은은 서둘러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

‘임시 폐점.’

해은은 처음에 자신에게 무슨 장난을 치는 건줄 알았으나 편의점 내부가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발을 동동 굴렀으나 해은은 조엘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조엘, 무슨 일인 거야? 알고 있는 거 있어?”

“흠…… 보자. 불법 인공지능 로봇 강도가 있었다는데. 요 편의점 취약점을 노려서 전국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네. 어, 그리고 다사랑복지센터 어찌구 하는데.”

“아니, 요 며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참. 됐고, 조엘, 가까운 편의점 아무 때나 알려줘. 샌드위치라도 먹고 싶어.”

“휴대폰으로 보내줄게. 근데 돈은 있어?”

“조금 있겠지? 잔액 좀 알려줘 봐.”

“21만원.”

“아니, 자세히. 나 심각하거든?”

“21만 2,130원”

“그 가게 샌드위치 가격 얼마임?”

“2,200원.”

“그럼 21만원 깨지잖아. 망했네.”

“땅콩샌드는 어때? 크림이 들어서 식감이 좋다는데. 블루베리도 들어있고.”

“그거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아. 나 배고프다고 했다, 조엘.”

해은은 하는 수없이 21만원을 깨기로 하였다. 조엘이 알려주는 예상 도착시간을 보니 등교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서두른 보람이 조금 느껴졌다.

해은은 샌드위치를 들고 늘 타던 시간에 버스를 무사히 올라탈 수 있었다. 늘 앞던 창가에 앉은 해은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있었다. 버스는 서행 중이었다.

해은은 땀이 어느 정도 식어가자 들고 있던 샌드위치와 두유의 포장을 뜯었다. 빈속에 무언가를 넣기 전 두유부터 마셔 입가심을 하였다. 한 입 베어 물었고 입 안에 가득 차는 샌드위치에 해은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세 번 더 베어 물다 목이 메여 두유를 들이켰다.

해은은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향해 걸었다. 해는 떠올랐지만 짙은 안개는 조금 걷히는 정도였다. 어찌면 안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해은은 마스크를 졌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여전해서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벗었다. 뒷문으로 들어가 슬며시 의자를 빼었다.

“어? 언니 왔다.”

“반가워, 예서.”

“……. 안녕. 머리 묶었네.”

“응, 요즘 덥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다닐라고. 흠, 그런데 민애는?”

“……. 어……. 공부하기 싫데. 원데. 뽕이고 글썄, 오늘 늦네? 나중에 전화라도 해봐야겠

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은은 예서가 자신을 조금 봐줬다는 것을 알았지만 땀을 들이는 것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민애의 빈자리가 보였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분위기가 없었다. 해은은 혹시나 하여 책상 안에 무엇이랄도 있는지 손을 휘적거렸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교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매 교시마다 진이 빠지는 것도 여전했다. 쉬는 시간마다 예서는 머리를 뒤로 쪽 젖히며 나가떨어지면서 괴롭다는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다가 또 다시 종이 울리면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척을 하였다. 아니면 오히려 이해했을 수도 있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안개가 많이 가라앉았다.

“선생님, 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해은아, 왜? 에어컨 바람이 춥니?”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요.”

“다른 애들은? …… 괜찮은 걸로 하자.”

창가 쪽에 있었던 수아와 현석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특히 가운데 문은 재빠르게 앞문을 먼 저 연 수아가 이동해 열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현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날렵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열린 창으로 아침에 맡았던 공기보다 훨씬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구린 냄새가 교실에 퍼지기 시작했다. 해은은 불길한 마음에 고개를 뒤쪽으로 살짝 돌려보았다. 현석이 교복을 벗고 있었다.

“현석아, 교복 좀 입어줄래?”

“그치만 더운데, 누나.”

“……. 썸, 창문 닫고 싶어졌어요. 예서야, 에어컨 좀 켜주라. 이제 현석아, 교복 좀 입어주라.”

“알았어, 누나.”

해은은 직접 열린 창문을 닫았다. 예서도 이제야 이 냄새를 맡았는지 기겁을 하며 에어컨으로 다급하게 걸어갔다. 해은이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창문을 닫았을 때 현석을 슬쩍 보았다. 현석은 하얀 티를 입고 있었다. 해은은 현석과 초점이 흐려지는 자신의 눈이 마주칠 것 같아 단추를 다 채우는 걸 다 보지도 않고 재빠르게 자리로 돌아왔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었어도 교실 내 냄새는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해은은 교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예서와 수아도 해은을 뒤따라 교실에서 도망을 나왔다. 정우는 나머지 정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기 위해 차분히 교실에서 나왔다.

“아 언니, 나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수아는 왜 나왔어?”

“오늘은 언니랑 밥 먹고 싶네요.”

해은은 웃으며 승낙을 해주었다.

셋은 학교 광팡이를 불렀다. 광팡이는 무인차로제 위에서 운영되는 분식집이었다. 특히 이 분식집은 떡볶이가 유명한데 입에서 떡이 광팡 터지는 것 같다하여, ‘광팡떡볶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 분식집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탑승 전, 후로 목적지를 예약할 수 있다. 그럼 무인차로 내 여러 목적지가 다시 단거리 순으로 재정렬되어 이동한다. 또한 배달원들은 이 움직이는 분식집에서 완성된 음식을 받고 골목골목으로 배달을 떠난다. 배달원들은 매장이 실시간으

로 움직이기에 도저히 사람의 감으로는 매장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매장으로 돌아간다. 물론, 인공지능이 길을 알려준다 하여도 목적지를 알게 되는 이상 배달원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무인차로 내 매장이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거주 지역이 굳이 ‘인프라’를 따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하우스는 이러한 이동 가능한 인프라에 맞춰서 방을 수정하고 서비스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인운송수단 내 주방은 이동 간 요리를 해야하다보니 용기들이 모두 리디자인되어 용량이 큰 것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으로 바뀌었다.

해은은 어묵우동, 예서는 제육덮밥, 수아는 일반 라면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윽고 예서는 허전하다며 다시 액정 패널로 가 라볶이와 김밥 두 줄을 추가로 결제한 뒤에 자리에 앉았다.

“예서야,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기왕 먹는 거 같이 먹자고 하는 거지.”

“난…….”

“수아, 뭐 먹고 싶은 거 있구나? 이실직고해라. 뒤지기 싫으면.”

“나…… 잔치국수.”

“쌍년.”

예서는 다시 일어나 라면, 김밥, 라볶이를 취소하고 잔치국수를 다시 주문하였다. 이 모습을 보던 해은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깃들었다.

‘최근 한 편의점 업체를 겨냥한 강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결제 알고리즘 솔루션에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안솔루션 전체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거 우리 집 앞에도 일어났어. 열 받아. 근데 저런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벨리 있잖아, 벨리를 분해 조립했던 거 기억나지? 벨리 부품들 납땜해서 추출하거든.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벨리 안에 부품들 다 빼고 그냥 개조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불법 개조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요. 하는 걸 다 봤었어요.”

“진짜? 난 자세히는 몰라 언니. 야, 궁금하다. 얘기해줄 수 있어?”

“……. 언니 말대로 저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벨루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치킨집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범죄는 아니예요. 안 걸리니까.”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냐? 진짜 간행이가 부었구먼. 아, 몰라. 하여튼 저것 때문에 불편해지잖아.”

불편한 것에 해은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해은은 남은 우동을 맛있게 먹었다.

든든한 배로 교실에 바로 들어가긴 싫었던 셋은 조금 더 팡팡이 안에 있다가 들어가기로 하였다. 푹푹 찌는 더위에 작은 교실에 혹은 그늘 아래서 기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시 앉아있던 예서는 엉덩이에 깔린 인형이 거슬렸다. 예서는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야, 수아. 그나저나 이걸 뭐냐? 그냥 주기만 하면 어떡해. 작품명 같은 거 없어? 제목이라

도 내놔봐.”

“어? 예서 너도 가지고 있었어?”

“어, 이거 민애 언니도 받았어. 그래서 이게 뭐야?”

“어, 인형. 넌 아테나야.”

“그건 나도 알아, 멍청아. 이름 말고 이게 뭐로 만든 거냐고. 네가 만든 거라매.”

“아, 3D 프린트. 집에서 그러고 놀아. 색칠하고 막 그래.”

“와, 너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냐? 이걸로 돈 좀 벌어라. 재능이 아까운데?”

“내가 뭘 해. 로봇이 더 잘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쪼마내 가지고 예쁘잖아. 이게 바로 IDENTITY라고 하는 거지. 어, 사업 아이템이라고 이 꼴통아. 쪼마내서 들고 다니기도 쉽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프고. 내 궁뎅이에 깔려도 부서지지도 않는 게 딱 좋은데?”

수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예서는 들고 있던 팔이 저려서 평상에 툭 늘어뜨렸다. 배가 부른 탓에 하늘을 향해 숨을 푹 내쉬었다. 해은은 학교를 보며 얘기를 꺼냈다.

“근데 진짜 민애는 어디 간 거야? 장난치지 말고.”

“실은 민애 언니 어제 안 나왔어요. 그제께도 모르시죠? 와서 바로 조퇴했어요. 어제는 아예 결석했고요. 선생님께서 연락하니까 오늘까지는 언니 상태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쉬는 것 같아요.”

“완전 썩 날라리 땡땡이 오지네.”

너무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는 수아에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옆에 예서는 팬스레 기지개를 펴보았다. 해은은 너무 기지개를 핀 나머지 살짝 드러난 예서의 배를 가볍게 때렸다.

“아! 언니 뭐야!”

“뭉긴 뭐야. 망측하잖아. 그나저나 시간 됐다. 가자.”

가슴에 대한 복수를 한 해은은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섰다. 셋은 사이좋게 광광이에서 내렸다. 간만에 풀린 날씨에 공기는 신선했지만 학교를 향해 걷는 걸음은 무거웠다.

“예서야. 우리 집 모르지?”

“어, 몰라. 수아도 모르잖아.”

“아니, 오늘 우리 집 앞에 편의점 해킹 당했잖아? 그래서 다른 곳 갔거든. 거기서 샌드위치를 샀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혹시 다른 아는 데 없나 해서.”

“아 난 또. 미안 난 아침을 안 먹…….”

“셋이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정우가 교문 앞에서 셋을 막았다. 해은은 정우의 발부터 머리까지 쪽 올려다보았다. 예서와 수아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하였다.

“정우야, 용건이 뭔데?”

“우리 학교, 우리 반 중에 요 셋이 남은 여자들이잖아요. 오늘 그만 하교하라는 말이에요. 민애 누나 소식 들으셨죠? 자기 벨리한테 강간당한 거.”

“너 지금…….”

“씨발, 왜 이제 와서 이 지랄인데? 지켜줄라고 하는 거야? 그딴 거 필요 없거든? 꺼져라.”

“민예서. 여자가 못 사는 곳이면 당연히 남자도 못 산다고 생각 안 해봤어?”

“존나 비열한 새끼네. 너랑 할 얘기 없어. 가자 언니.”

“내 벨리 이름은 토가미(Togami)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뭐해 둘이? 가자 씨발. 내가 언니 어머니한테 연락 해볼게.”

“미안하다, 정우야. 가볼게.”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 버린 뒷모습을 정우가 보고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야, 토가미 아까 대화 들어봐. 체크 좀 해보자. 내가 원하는 부분 알지?”

토가미는 여러 번 눈을 깜빡이더니 정우가

‘어, 몰라. 수아도 모르잖아.’

‘아니, 오늘 우리 집 앞에 편의점 해킹 당했잖아? 그래서 다른 곳 갔거든. 거기서 샌드위치를 샀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혹시 다른 아는 데 없나 해서.’

정우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지가 타깃이 된 줄도 모르고 있네. ‘누나’ 같은 개소리, 위화감 들어서 본진 좀 알아볼라 했는데, 이미 털릴 것 같네. 어쩌면 털렸을 수도 있고.”

“맞아, 해은 누나라는 사람 추적 해볼 시간이야.”

“하, 저 여자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아무튼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다른 새를 지켜주지.”

말을 마친 토가미는 곧바로 검은 차에 올라탔다. 가만히 운동장을 살펴보던 정우는 토가미를 따라 차에 올랐다.

예서와 해은 그리고 수아는 선생님 승합차에 올라타 서둘러 민애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답지 않게 예서는 창문을 보며 손톱을 물기 시작했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대체 어떻게 벨리 강간이 된 거예요? kids 버전이잖아요. 민애는 괜찮긴 한가요?”

“오늘 안개가 심했잖니. 아무래도 대로변을 걷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벨리에게 당한 것 같더구나. 너희들도 조심해라. 웬만하면 내일 등하교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벨리가 대량생산이 되면서 여럿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명의가 도용된 인공지능로봇 줄여서 ‘대포봇’이라 부른다. 이러한 대포봇은 윤리코드와 집행방어코드를 아예 지워버리고 새로운 기판을 설치된다. 손 쓸 수 없는 부품은 납땜으로 제거 및 추출한 뒤 새로운 부품을 달아 살인 및 강도, 강간 같은 집행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여러 사용자 증명과정을 진행하지만 범죄가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수술실 앞에서는 이미 가족들이 민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과 일행은 조용히 다시 로비로 내려와 기다리기로 하였다. 민애의 어머니가 내려와 선생님과 대화를 하였다. 해은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와 예서도 함께 화장실로 따라갔다. 잠시 서로를 보고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였다.

“의사선생님께서 민애 질 부분 그리고 자궁에 구멍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인공자궁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궁소생이 가능할 수 있다네.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응급처치부터 들어간 모양이야 본격적인 시술은 차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신다고 한다.”

예서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해은은 예서를 안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밤늦게까지 있었던 해은은 지치고 말았다. 민혁은 차를 몰아 해은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해은은 조엘을 충전기에 얹혀놓고 드디어 교복을 벗었다. 속옷을 들어 화장실로 들

어갔다. 해은은 평소보다 조금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하였다. 물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니 개운해졌다. 해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감이 스쳐지나갔다. 해은은 더 집중을 하여 영감 하나를 잡아보기로 하였다.

잠시간은 언제나 순식간이었다. 별로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는 야속하게도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을 소리를 내며 일어난 해은은 온몸이 특히, 척추가 빠근해 미칠 지경이었다. 해은은 다시 한 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죽을 소리를 내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정신을 차린 해은은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물건들이 어젯밤에 봤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한 해은은 어슬렁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아이고, 계란을 안 샀네.”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민혁의 혼잣말을 들어버린 해은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흐느적거리며 화장실을 들어갔다. 해은은 세안 전에 아예 양치질부터 시작하였다.

교복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거울을 보며 가슴팍에 박혀있는 명찰을 보았다. 고개를 내려 직접 보니 명찰에 먼지가 묻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엘을 깨웠다. 공복이었지만 방문을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 앞에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살라고.”

“해은아, 그냥 같이 가자. 조금만 기다려.”

해은은 잠시 정우의 말이 생각이 났다. 이미 신발을 신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벗어서 부엌으로 갔다. 빈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오늘도 안개가 짙게 끼어있었다.

민혁이 원격으로 문을 열었고 시동을 걸었다. 민혁과 해은은 뒷좌석에 레오나와 조엘을 얹어놓고 차에 앉았다. 주차장에서 찢어지는 타이어 소리를 내며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제 막 단지에서 빠져나가려는데 어제 단았던 편의점이 오픈을 한 상황이었다. 해은은 민혁을 툭툭 치며 먹을거리를 사달라고 졸랐다. 해은은 은근 용돈 걱정이 되었다. 안 그래도 요 근래 계속해서 점심을 나가서 먹은 탓에 신경이 쓰이긴 했었다.

민혁은 적당히 도로 가 쪽에 차를 세워두고 해은과 같이 내렸다. 안개가 짙어 도로 건너에 있는 편의점너머 아파트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해은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오나와 조엘도 함께 내리자고 하였다. 민혁은 승낙하였다.

민혁과 해은은 길을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해은이 오늘은 어떤 샌드위치와 음료를 곁들일까 살펴보는 동안 민혁은 편의점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진열된 상품들을 슬쩍 훑쳐보았다. 정 관심이 없는 상품들만 있었는지 결제 패널에 가서 툭툭 두드려보았다.

“이거 요즘 문제 많다는데.”

“맞어. 그것 때문에 여기 문 닫았었잖아. 바로 어제 일이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로 복구를 하긴 했나보네.”

“빠르잖아. 별 거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해은은 베이컨과 치즈, 샐러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어제와 같은 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은 민혁이 결제를 해주었다. 해은은 내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해은은 팬스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였다. 아직 등교시간은 충분하였다.

편의점을 나서고 횡단보도로 갔다. 거대한 나무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민혁과 해은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 검은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있는 민혁과 해은 앞에 주차를 하였다. 문이 열리고 벨리 두 대가 튀어나오더니 민혁과 해은에게 기절할 때까지 전기충격을 가했다. 둘은 손 쓸 세도 없이 길 위에 쓰러져 버렸다. 벨리가 옆에 있던 레오나와 조엘을 종료시켜버리고 차에 실었다. 그리고 해은을 같

이 차에 실었다. 깨진 액정의 휴대폰과 포장도 뜯지 못한 샌드위치, 두유가 길바닥에 널브러졌다.

해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침대 매트리스 위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건물의 벽 상태를 보니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흔적이 보였다. 건물 안은 햇빛만 드리우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그리 밝지는 않았다. 해은은 서둘러 자신의 팔과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옷 상태를 보았다. 손 댄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건물을 살펴보았다. 방 두 개를 합친 넓은 공간이었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있었다. 해은은 곧바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더 둘러보았지만 건물 안에는 창문조차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를 살펴보았지만 휴대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쿵쥔거리는 심장에 해은은 몸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조금 밀릴 뿐 아예 잠겨 있는 듯 하였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갇혔어요!”

“갇혔다니 무슨 소리야?”

해은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엘이었다. 그리고 조엘 머리 뒤로 늘어진 전자 부품이 보였다. 해은은 천천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다.

“오지 마. 오면 죽여 버릴 거야.”

“그래 오늘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나도 외로웠던 참이거든.”

조엘의 말은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너무 낮은 반응에 해은은 고개를 거칠게 흔들며 다가오는 조엘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다.

여자가 왼쪽의 모니터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모니터가 있었다. 여자는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담배를 물고 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키보드로 채팅을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여자는 재를 한 번 털어내었다.

“어, 왔어? 요번에 이 애는 좀 괜찮은데? 이목구비도 뚜렷한 애가 반반하게 생겼고. 작품 하나 나올 거 같아.”

“좋은 소식이네.”

“조엘,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조엘, 여기야. 여기로 와줘.)”

해은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음성까지 두 모니터에서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고 있었다. 조엘은 오른쪽 모니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오른쪽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

“어우, 표정 봐봐. 진짜 나도 끌리는데? 그나저나 이름이 조엘이라고 하면…….”

“벨리가 남자인가 본데? 그러면 이번엔 진짜 대박이겠다야.”

조엘은 자신의 고철 얼굴로 해은의 볼을 문지르고 있다. 해은은 이를 악물고 조엘을 밀쳐 보았지만 조엘은 해은의 팔목을 벽으로 눌러 힘을 전혀 못 쓰게 하였다.

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모니터 속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채팅창을 확인하였다.

“카, 벌써 수금 올라오네. 역시 당신이랑 같이 살고 봐야해.”

“당연하지. 그런데 가만, 교복을 보니까 저 교복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그르게. 어제 애랑 같은 학교인 거 같은데? 애는 어떻게 지 친구가 당하는 걸 보면서도 지는 안 당할 줄 알았나봐.”

조엘은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끈나시 오른쪽 어깨끈이 흘러내렸다. 해은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해은의 앓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진다.

“제발, 제발! 그만해! 조엘!”

끈나시가 배 위쪽까지 들어 올려 졌을 때 조엘이 멈추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던 해은은 여기저기서 터져대는 폭죽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사망에 설치된 카메라가 추락 하더니 연기를 내며 불타올랐다. 해은은 조엘을 보았다. 조엘이 꺼져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정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은은 말을 잊지 못했다. 정우는 그세 해은의 목골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도련님, 장해은 양은 찾으셨습니까?”

“네, 무사하군요. 그런데 약간…… 일이 막 벌어지려고 했나보군요. 들어오시지 않는 걸 추천 드려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도록 하죠.”

거친 숨을 내쉬는 해은은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저 주저앉은 채 그저 정우를 바라 볼 뿐이었다. 정우는 해은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윽고 시선을 돌렸다.

“그나저나 옷 좀 제대로 입지? 곧 경찰이 올 거라서.”

정우는 고개를 돌린 채 주머니에서 해은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해은은 어깨끈을 고쳐 입 으며 건네주는 휴대폰을 받았다. 해은은 이어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잠가나갔다. 정우는 조엘 뒤에 흐느적거리는 기관을 보았다.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주위를 돌아 숫자를 세 기 시작했다.

“비슷한 장소에 똑같은 수법. 카메라는 5대였네. 이런 식이었구나.”

“어떻게 여길 알아낸 거야?”

해은은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단추를 거의 다 찼다.

“편의점 카메라를 손봤더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납치를 하는 방식이었어. 누나 어제 누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 맛 갔다고. 그래서 따라온 거야.”

“고마워……. 정말.”

해은은 옷에 묻은 먼지와 흙더미들을 털어내었다. 특히 치마 쪽에 흙이 많이 묻어있었다. 해은이 아래를 보며 치마를 털어낼 때 손 하나가 불쑥 눈앞으로 튀어나왔다. 그 팔을 따라 올려보니 정우가 손을 건네고 있었다. 해은은 정우의 눈을 보았다. 곧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해은은 일어서자마자 정우를 안았다. 정우는 가만히 서있기만 하였다.

정우는 들어온 건물의 위치를 민혁, 선생님과 공유를 하였다. 민혁과 다시 만난 해은은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아직까지 민혁은 샌드위치와 두유를 챙겨놓고 있었다. 곧, 정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허기를 채우던 해은은 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서에 도착한 정우와 해은은 수사관들에 안내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다. 해은은 사건의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해은이 팬클럽다고 의사를 표했기에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해은은 반투명한 유리창 너머 컴퓨터 한 대와 맞은편에 딱 하나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해은은 그 의자에 앉았다.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선명했다. 워낙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 해은 탓에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오류 없이 술술 아침 일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은 한 가지 반복해서 물었다. 해은은 조금 의아했다.

“납치를 길가에서 당했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벨리요. 벨리 두 대가 아빠랑 저한테 전기 충격을 줬어요.”

“학생, 벨리가 확실한 거죠?”

“네.”

의심 가득한 물음에 해은은 확신이 잠깐 흔들렸었다. 기절 전 일이라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였지만 일단 너무 선명한 기억 조각이어서 그대로 말할 뿐이었다. 조사는 해은의 생각 보다는 빠르게 종료되었다. 해은은 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쌤이랑 누나 아버지 분은 돌려보냈어. 내가 태워다 줄게. 타.”

정우는 검은 세단의 뒷좌석을 열어주었다. 해은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잡았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해은은 한 번 떠보고 싶었다.

“너 이러는 애는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단순해. 가면서 할 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들어가. 그리고 축하해.”

해은은 뒷좌석 깊숙이 몸을 밀어 넣는 중이었다. 자리에 앉은 뒤 엉덩이를 조금씩 움직여 안정된 자세를 취했다. 은연중에 뒤통수 너머로 들렸던 ‘축하해’가 너무 신경 쓰였다. 정우가 뒷좌석 오른편에 앉았다. 문은 해은이 굳이 손을 뻗지 않았는데 스스로 닫혔다.

“야, 근데 뭐가 축하하다는 거야?”

“아, 누나는 우리 학교 사람 중에서 내 차에 올라탄 첫 번째 사람이라서.”

“아.”

해은은 갑자기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른 채 허리를 꼴꼴이 세웠다. 너무 고급 차여서 행여 신발에 묻은 흙더미가 문제가 될까 발을 살짝 들었다. 정우가 해은의 어깨를 잡았다. 어깨를 의자로 천천히 힘을 주어 해은을 뒤로 눕혔다.

“왜 이렇게 몸이 굳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어, 알았어.”

“아저씨, 출발 하시죠?”

“장해은 양 가옥 말씀이시죠, 도련님.”

“맞아요.”

정우는 편하게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등을 시트에 기대긴 했지만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은은 뒷좌석에는 햇살도 들어오지 않게끔 썬팅 처리가 되어있었다. 해은은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랄도 볼거리가 없는지 차 안을 둘러보았다.

“정우야, 근데 너 그러고 보니 벨리는 어디 있어?”

“토가미? 앞에. 아, 그런데 꺼냈어.”

“아, 꺼냈구나.”

“필요 없으니까.”

대화를 딱 잘라버리는 듯 한 정우의 화법이 해은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정우와 운전사의 행동을 보아하니 이런 게 일상인지 전혀 어색해하는 눈치가 없었다.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두꺼운 썬팅 때문에 오히려 눈만 아플 뿐이었다. 해은은 의자에 가시가 돋친 것 마냥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만 운전사와 거울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도련님께서 벨리를 꺼두는 것이 일상이십니다. 집안에서도 벨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낯선 모습이겠지만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해은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을 담은 웃음이 거울을 통해 보였다. 이윽고 해은은 정말 적응하기 위해 최대한 적절한 말이라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우야, 그런데 너 계속 아까부터 폰 보고 있던데 뭐 보는 거야?”

“어, 얘기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야. 아저씨, 화상 통화 준

비해주세요.”

해은은 당최 이게 무슨 대화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거울을 통해 운전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활짝 웃고 있는 똑같은 표정일 뿐이었다. 운전사는 잠시 신호대기 간 몸을 숙여 어떤 버튼을 눌렀다.

단순 썬틴이 아니었는지 뒷좌석 유리가 더 검게 변하면서 아예 빛을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해은은 눈이 뚱그래진 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앞좌석 너머 배경에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였다. 곧 앞좌석을 가리는 차단막까지 올라왔다. 뒷좌석은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되었다.

침을 꿀꺽 삼킨 해은은 갑자기 허공에 출력되는 홀로그램 화면에 화들짝 놀랐다. 화면은 양쪽으로 두 개가 떠 있었는데 한쪽에는 자리가 비어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예서가 막대 사탕을 빨고 있었다. 정우는 숨을 크게 내쉬며 몸을 뒤로 누었다. 시트의 소리가 뒷좌석 전체를 울리는 것 같다. 그 사이 예서가 혀가 씹힌 발음을 말을 시작했다.

“야, 뭐야. 신정우 너 네 차 안이라매.”

“어, 내 차 안이야.”

“진짜 차 안이야? 아닌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옆에 저거 누구야. 해은 언니 아니야?”

“어, 맞아. 같이 차 안에 있어.”

“언니는 알게 모르게 폭스런이라니까. 또 모르는 척 한다?”

“.....”

예서는 물고 있던 사탕을 입에서 꺼내 까딱거리며 얘기를 하였다. 예서는 짧게 혀를 찼고 그 사이 옆에 있던 하나는 카메라로 불쑥 튀어나와 고개를 절레절레 두어 번 흔들고 화면 밖으로 나갔다. 해은은 웃으며 하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곧 수아가 빈자리에 앉았다.

“야, 꺾들지 마라.”

“어? 미안 가볼게.”

“아니아니, 너 말고. 하나가 꺾들었거든. 재한테 말한 거야.”

“야, 이수아. 너 영원히 현석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봐?”

정우의 날 서린 한마디에 적막이 찾아왔다. 수아는 눈을 내리깔더니 화면을 껐다. 잠시 후, 다시 수아는 화면을 껐다. 예서는 사탕을 문 채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해은을 보았다. 해은도 흐리멍덩하긴 매한가지였다.

“미안, 잠시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해은 언니까지 건드린 건…… 역시 아니라고 생각해.”

“맞다. 해은 언니 소식 들었어. 언니, 괜찮아?”

“어, 정우 덕분에. 근데 재네들은 어디야? 지금 학교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둘은 자택대기 상태야. 지금 같은 고등학교 여고생 둘이 똑같은 방식으로 변을 당했는데 학생도 얼마 없는데 당연한 처사야. 다행이야, 얘기가 좀 풀리네.”

정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홀로그램 벨리 형상을 띄웠다. 해은은 저도 모르게 소리 없는 감탄사가 나왔다. 정우는 허공을 가리키더니 홀로그램 벨리의 얼굴을 분해하였다. 수아는 인상이 굳어졌고, 예서는 벌써 졸린 눈이 되었다. 이윽고 눈 부위를 더 분해하였다. 해은은 특히, 벨리의 눈 내부가 회로로 되어있는 걸 직접 보았을 때 표정이 일그러졌다.

“범죄는 인간과 벨리 납치부터 벨리 조작, 끝으로 직접적인 이행까지 모두 개조된 벨리가 했어. 꽤 공들인 개조로 보여 아동용 벨리를 성인용으로 만드는데, 그냥 납땜질을 해서 기

판을 해당 소스코드가 담긴 이어붙혔더라고. 심지어 그 과정 중에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벨리 조작엔 이 센서 부분으로 딥페이크가 들어갔어. 사운드는 보나마나 귀에 들어있겠지? 그러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도 센서 단계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 이른바 ‘벨리 강간’이 가능했던 거야.”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아무리 성인 OS라 해도 강간을 명령하거나 감지하게 되면 프리징이 걸릴 텐데…… ‘딥페이크’가 뭐야?”

“아, 옛날에 개발된 인공지능이야. 그걸로 사람의 판단을 아우르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하드웨어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여기 벨리처럼 강력한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됐어. 즉, 딥페이크처럼 구시대 코드가 발전된 하드웨어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하드웨어 버려지듯이 코드가 버려진 거야. 그런데 그걸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버린 거고.”

“흠, 그럼 누군가 그 버려진 코드의 잠재성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계승해버린 거네? 악용하는 쪽으로다가. 처음 개발이 좋은 쪽으로 되어도 멀쩡한 계승자가 없으니 코드가 안전하게 재작성 될 일도 없겠고.”

예서가 나지막하게 말을 마친 뒤 씩씩한 헛웃음을 보였다. 해은은 정우의 말에 잠시 아침 일이 떠올라 다시 신경 쓰이지 않도록 집중을 하였다. 수아는 해은을 보더니 헛기침을 한번 내뱉고 이야기를 이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수아. 그게 본론이야. 벌써 인터넷에 짝 퍼진 민애 누나 영상이랑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을 분석해보니 그 유명한 ‘다사랑주민센터’에서 생성된 거랑 패턴이 딱 맞더라고. 한 때 세간에 유명했었지. 거기에서 역겨운 거 만들어낸다고. 게다가 요 며칠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딱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 반에서만 일어나는 걸 보니 현석이가 적어도 뭐라도 했을 것 같다는 게 내 추리고. 다시 환기하자면 벨루에서 이 딥페이크를 막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지. 이게 사실 상 생각할 수 있는 대처의 끝이라고 봐. 하지만 이 딥페이크 코드를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될 거야.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거고. 이렇게 쳇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야.”

수아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카메라에서 눈을 피했고 다시 화면을 보지 못했다. 예서는 빨고 있던 막대사탕을 빼내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시선을 돌렸다.

머리를 숙인 채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해은은 이미 머릿속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해은은 환기를 위해서 머리끈을 풀었다. 헝클어진 머릿결은 그대로 흘러내렸다. 해은은 흘러내린 머리를 다듬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떴지만 더는 그 홀로그램 화면을 보지 않았다. 해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도 궁금하긴 한데……. 이젠, 나 절대 할 수 없을 거 같아. 미안해…….”

해은은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하긴 하였지만 도저히 고개를 들 힘조차 나지 않았다.

“……. 개 입을 열 사람은 미안해, 솔직히 누나밖에 없어.”

“언니…….”

“하유, 난 안 밀어붙여.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난 존중할 거야.”

눈을 여러 번 깜빡이는 해은은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진이다 빠진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 얼굴을 보고 슬쩍 웃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이 굳었다. 정우는 입을 열었다.

“해은 누나, 선은 저쪽이 먼저 넘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진심이야.”

해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할게……. 난 이번이 마지막이야. 왜냐면 이걸 민애 뒤통이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 좇같은 새끼들아. 너네도 개 친구잖아.”

해은의 말이 끝난 뒤로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해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 내가 거친 말을 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 오히려 맞는 말이야.”

“다행이다. 내가 아는 언니 모습, 변치 않았어.”

해은은 고개를 들어 예서를 보았다. 예서는 눈썹 한쪽을 치켜세우고 사탕을 까딱거리며 해은을 보고 있었다. 해은은 저 능글맞은 예서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웃음을 보이고 말았다.

‘도련님, 도착했습니다.’

“좋아, 정리할 시간이야. 그럼 얘기가 된 걸로 하고 해은 누나는 내일 학교로 8시까지 나와 줘. 내일은 토요일이라 사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논스톱으로 와 어떻게든.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누나도 엄연히 자택대기니까. 수아랑 예서는 가면서 따로 세팅 얘기 좀 하자고.”

수아, 예서, 그리고 정우까지 짧은 인사를 나눈 해은은 정우의 차에서 나왔다. 도착한 곳은 해은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다. 해은은 집에 도착한 기분 보다 무언가에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크게 내쉬 해은은 머릿결을 한 번 손으로 훑어낸 후 거칠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머리를 바짝 당겨 묶었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은은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내며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민혁이 부리나케 달려 나왔다. 민혁은 해은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해은은 해맑은 표정으로 민혁의 품에 안겼다. 민혁은 해은을 숨이 막힐 때까지 꼭 껴안아주었다. 진짜 숨이 막히기 시작한 해은은 민혁의 등을 두드렸다.

해은이 무사히 도착한 것을 온몸으로 확인한 후에야 허기가 지기 시작한 민혁은 계란 프라이를 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오늘 아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말 허기지기 시작한 민혁은 그냥 맨 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었다.

“아빠, 나도 배고픈데. 그냥 우리 뭐 시켜먹자.”

“그래? 딸 뭐 먹고 싶은데.”

“짜장면 어때?”

“좋아. 아빠가 탕수육은 서비스로 시켜줄게.”

민혁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짜장면과 짜장면 곱빼기 그리고 탕수육을 주문하였다. 해은은 그 사이 옷을 들고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푸는데 기분 탓이라도 너무 강하게 묶었는지 두피가 당겨왔다.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고 옷을 하나씩 벗었다.

평소보다 조금 뜨겁게 물 온도를 맞춘 해은은 그 물에 몸을 맡겼을 때 온몸이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목이 유독 이상하게 더 아픈 것 같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해은은 손목을 흐르는 뜨거운 물에 갔다대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아픔을 느꼈다.

해은이 방에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 배달부가 도착하였다. 굳이 해은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

도 집안을 울리는 민혁의 발소리가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은은 잠옷차림으로 거실을 나갔다. 민혁이 받은 음식의 포장을 하나씩 뜯고 있었다. 해은은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서둘러 식탁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뜯었다. 해은은 허겁지겁 면을 들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잠시 해은을 멈추고 휴지로 볼에 튄 춘장을 닦아주었다. 해은은 민혁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해은은 잠시 속도를 늦출 겸 김치를 짜장면에 걸쳐 입 안으로 넣었다.

“우리 딸, 그렇게 배고팠어?”

“응.”

대답을 짧게 마무리한 해은은 다시 탕수육을 집고 입에 넣었다. 민혁은 순식간에 비어가는 해은의 그릇을 보고 자신의 면을 조금 덜어주었다. 해은은 슬며시 웃으며 그 면까지 전부 먹어치웠다.

먹느라 지친 해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에 퍼질러졌다. 정적이 집안에 맴도는 것이 싫었던 민혁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다.

“그나저나 레오나는? 조엘은? 우리 벨리는?”

“아, 조엘은 원상복구하려면 하루 정도는 걸린데. 내일 받을 수 있을 거야. 레오나는 도난당해서 다음 주는 돼야 한다네. 해은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

“쉬기 싫은데……. 쉬어야겠다.”

해은은 화장실로 가 양치를 하였다. 양치를 마치고 화장실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배를 한번 만져보았다. 배가 든든하다 못해 무거운 것 같다.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딸, 아빠랑 마트 갈래? 계란 사와야 하는데.”

해은은 민혁이 간식거리를 사 준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자택대기인 만큼 참기로 하였다.

“나 그냥 집에 있을래.”

“그래,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넹.”

해은은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봤다. 무언가 재미난 것이 없을까 하여 사이트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니면 공부를 해볼까하여 벨리는 선생님 사이트를 검색해볼까도 하였지만 해은이 내린 결론으로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었다. 해은은 다 죽어가는 신음을 내면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침대에서 양 팔을 허우적거리며 집에 오자마자 던진 폰을 찾아보았다. 이윽고 휴대폰이 손끝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얼굴 앞으로 갖다 대었다. 하지만 곧,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아무런 흥미를 찾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해은은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혁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은은 기지개를 펴기도 싫었다. 당장 오늘 뿐 아니라 이번 한 주, 그리고 기억해내기 싫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막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보았던 것처럼 기억해야하는 기억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필요 없으니까.’

해은은 이제야 낮에 들었던 정우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해은은 어느덧 컴퓨터와 휴대폰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다. 해은은 이불을 꼭 껴안았지만 시린 가슴을 달랠 수 없었다. 한참동안 멍하니 누워있던 해은은 슬픔에 지쳐 잠에 들었다.

해은이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오후 8시였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가버린 탓에

밤이 된 바깥 하늘을 보자니 허망함이 가득했다.

세안을 위해 방문을 여니 민혁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 밀린 변부터 해결하였다. 그다음 세안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낫선 냄비 하나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었다. 냄비 뚜껑을 여니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아빠가 한 거야?”

“어, 장 본 김에 해봤어. 간을 직접 해보긴 했는데…… 맛있게 먹어.”

“응, 맛있게 먹을 거야.”

배도 비웠겠다 향긋한 냄새에 다급해진 해은은 찌개에 불을 올리고 화장실로 가 세안을 시작했다.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서둘러 밥을 퍼 식탁에 내려놓고 냉장고 안에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무침을 꺼냈다. 흰 밥 위에 국물을 한 숟가락 끼얹은 뒤에 무말랭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일품이었다. 민혁이 TV를 보다 말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어때 딸? 실은 인터넷 보고 한번 해본 거야.”

“아빠, 있잖아…….”

“어? 어 말만해 딸. 뭐 필요해?”

“말 시키지 마.”

해은은 뺏속에 걸신이라도 영접했는지 또다시 밥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해은의 생각보다는 많이 먹지 못했다. 간만에 맛있는 찌개를 먹으니 점심에 고작 짜장면을 많이 먹었던 것이 못내 후회가 되었다. 해은은 양치를 한 후 머리도 새로 감았다. 해은은 자신의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문틈사이로 TV의 합성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해은은 책상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아빠 뭐 봐?”

“그냥 축구.”

“나도 볼래.”

해은은 축구 규칙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지만 민혁 옆에 앉아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혁은 해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아빠, 된장국 맛있던데? 가게 하나 차려봐.”

“해은아 있잖아. 조용히 좀 해주라. 아빠 축구 보잖니.”

“알았어…….”

그렇게 해은은 민혁에 기대어 말없이 축구를 보았다. 경기가 무르익었고 밤이 무르익었다. 해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오늘 밤에 하나가 추가되었다.

6시 50분이었다. 해은은 토요일이었지만 주말에도 늘 이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에 드는 버릇이 들었다. 하지만 약속장소인 학교를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정신을 차려보려 어떻게든 크게 기지개를 켜보았다. 그 후에야 겨우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해은은 충전기에 앉아있는 조엘이 눈에 들어왔다. 해은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민혁에게로 갔다. 늦잠을 자는 것 같았다. 해은은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조엘을 깨웠다.

“조엘, 돌아왔구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힘들었어.”

“그래? 그럼 요리 좀 해줄래? 계란 요리 할 줄 알지?”

“찌개 먹어.”

“계란 요리.”

조엘은 해은의 능글맞은 웃음을 쳐다보다가 하는 수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해은은 세안을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은은 문을 닫았다.

머리를 말리기 전 걱정이 되던 해은은 수건으로 적당히 머리를 감싼 채 부엌으로 향했다. 조엘은 프라이팬에 넓게 섞은 계란을 굽고 있었다.

“너 뭐하냐?”

“계란말이.”

“야! 토스트 해먹어야 돼! 무슨 계란말이야.”

“계란 요리 아무거나.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아 몰라, 됐고. 대충 뒤집어서 굽고 끝내. 나 토스트 먹을 거야.”

조엘에게 한바탕 성질을 낸 해은은 머리를 마저 말리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엘은 해은의 말대로 적당히 구워 접시에 담았다.

토스트에 딸기잼을 얇게 바른 뒤 계란 한 장을 올려 먹으니 그리 나쁘지 만은 또 않았다. 해은은 토스트를 들고 민혁의 방을 갔다. 여전히 민혁은 잠자리였다. 해은은 잠시 생각한 뒤 식탁으로 돌아왔다. 해은은 택시를 타기로 하였다. 예약 위치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하였다.

블라우스와 얇은 자켓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마지막으로 전신거울을 한 번 더 본 뒤 머리를 묶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조용히 신었고 조엘을 챙겼다. 현관문은 최대한 살살 닫았다. 지하로 내려가 무인 택시를 탔다. 택시는 미리 입력받은 목적지로 운전을 시작하였다.

해은은 교문 앞에 서서 명패를 보고 있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그리고 그 인상깊은 시커먼 자동차도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해은 뒤에서 손을 끌어당겼다. 머리스타일을 보니 분명 예서가 맞았다. 예서는 해은을 정우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돼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해은이 도착한 것을 본 정우와 수아가 차에서 나왔다. 더하여 토가미와 헤카테도 같이 나왔다.

“너희 늦지는 않았네.”

“와줘서 고마워.”

해은과 정우, 예서, 시우 이렇게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이 딱히 없다는 것을 말없이도 알 수 있었다.

“현석이와 만날 장소는 햄버거 가게로 정했어. 나뭇 건 없겠지?”

해은은 긍정의 고갯짓을 해주었다. 예서는 해은의 팔을 주물려다가 망설였다. 허공에 갈피를 잃은 예서의 손은 해은을 햄버거 가게 쪽으로 미는 것으로만 그쳤다. 하지만 해은은 다시 몸을 돌렸다.

“그렇게 큰 소리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여기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 알잖아, 현석이 어떤 아이인지.”

“언니, 우리가 기대를 어떻게 하겠어. 선택 존중한다고. 그리고 일단 나는 뭐가 어떻게 됐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뭐야 왜 다들 떠나는 분위기야. 현석이야. 현석이를 그냥 친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오늘 아침 문자로 인사도 나눴다고. 분발해.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

해은은 수아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예서와 정우에게는 현석을 친구로 생각한

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요청이었다.

“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따로 얘기하자.”

“그래, 우리 들어갈게.”

해은은 햄버거 가게 쪽으로 가볍게 걸어갔다. 정우는 예서와 수아까지 차에 태운 뒤 자리에서 떠났다.

해은은 창가 구석진 곳 한 칸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에 맑아진 하늘을 보며 현석과의 약속시간을 기다렸다. 아침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TV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다. 해은은 조용히 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보았다. 벌써 약속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해은은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적막한 공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해은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석을 반기기 위해 일어서서 인사를 하였다. 벨리가 없었던 현석은 홀로 수줍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현석은 해은 앞자리에 앉았다.

“현석아, 뭐 먹자. 누나 배고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시켜줄게.”

“불고기버거…… 세트로.”

“그래, 좋아.”

해은은 결제기로 가 불고기버거 세트와 치킨버거 세트를 주문하였다. 결제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였다.

“그런데 왜 누나 혼자야?”

영수증 출력을 묻는 질문에 해은은 ‘아니오’를 택했다. 해은은 신중하게 답변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다. 자리로 돌아와 현석을 보았다.

“누나는 현석이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뿐이야.”

“그렇구나.”

현석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적막한 공기가 가득차기 시작한 가게 안에서 해은은 그토록 바랐던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민애 있잖아. 소식 들었니? 혹시 아는 거 얘기해줄 수 있어? 솔직하게.”

“누나가 민애 누나랑 안 친한 거 아니었어?”

“나는 이제 모두랑 친해지고 싶어서. 현석이란도. 개네들도 이제 시작하려고 해.”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난 걸 어떡해.”

해은은 눈이 커졌다. 이어서 현석의 눈을 보았다. 현석은 그저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민애 누나는 그저…… 잠깐 시간을 끌어주길 바랐어. 왜냐면, 그때 제일 예뻐었니까.”

‘속보입니다.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최초의 홀로그램 대형 광고판이 해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해은은 카메라가 비추어주는 홀로그램 글씨를 보고 있었다.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 내 벨리가 테이블까지 전해주었다. 현석은 조용히 포장지를 걷어내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해은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저 나라 강의 물가가 넘실거린다.’

‘더 울리지 않는 종을 울릴 것이다.’

“누나, 머리 묶으니까 진짜 예쁘다.”

“혀, 현석아. 너, 네가 한 것이니? 저거?”

현석은 두 입 째 먹으며 몸을 돌려 TV를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해은을 보며 입 안에 있

는 햄버거를 꼭꼭 씹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은은 현석과 현석 뒤편에 TV를 번갈아보며 테이블에서 몸을 떼었다.

“미안해,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나 혼자서 해낸 건 아니야. 누나가 진짜 엄청난 실력자더라고. 그리고 그 전부터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고. 꼬박 2년 걸렸어. 누나가 배터리 80억 갠가? 아니 훨씬 넘게 박아 넣느라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데.”

“현석아?”

해은은 입이 떨려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해은의 얼굴을 본 현석은 낮은 톤으로 입을 열었다.

“어제,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나 강간당했었어. 납치당했었어.”

“그 새끼들이…… 누나까지 건드렸어?”

현석에게서 밀려오는 한기에 해은은 프리징이 되었다. 해은의 눈물은 그 한기 앞에서 보잘 것 없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역시 이 세상에는 믿을 새끼들이 없어. 뭐, 잘 됐어. 어차피 개네들도 다 체크가 되었으니까.”

해은은 젓 먹던 힘까지 짜내어 어떻게든 이 상황에 집중을 하려고 하였다. 이해를 해보려 하였다.

“혀, 현석아. 너 ‘체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데?”

굳어있던 현석의 얼굴이 해은의 목소리에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다시 햄버거를 먹었다. 해은의 치킨버거는 아직까지 포장도 못 뜯은 채 식어갔다.

“벨리야. 누나가 벨리를 잘 다루거든. 벨리로 모든 곳을 보았던 거야.”

“벨리? 벨리를 뭐 어쨌는데?”

“그 있어. 잠깐만!”

현석은 씹고 있던 것을 콜라와 함께 들이킨 후에 표정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해은은 붉어진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누나 어제 강간당했었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

현석에게 빨리 들어가기 시작한 해은은 기계처럼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어제의 기억을 찾기 시작하였다. 해은의 입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 아빠가 벨리는 센터에 맡기고 난…… 집에만 있었어.”

“누나는 집에만 있었어? 정말? 하루 종일?”

“어, 방안에만 있었어.”

현석은 활짝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그 표정을 보고 도저히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우와, 아무래도 이건 누나의 운명인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누나만 믿어야겠어.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누나, 사랑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해은은 현석의 진심어린 고백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거친 숨을 내쉬던 해은은 조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둘러 가게를 나서려고 하였다.

“누나 내일 누나 집에서 보자.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문 앞에 선 해은은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했다.

“뭐야, 벌써 집에 가는 거야?”

이번에는 조엘 목소리였다. 가슴을 후벼 파는 한기에 해은은 조엘을 내려다보았다. 조엘도 현석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은은 가게를 한동안 나가지 못한 채 굳어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해은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영의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민혁은 잠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향했다. 해은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이불을 뽁뽁 싸매고 있었다. 해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민혁은 서둘러 해은을 품에 안았다. 해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민혁은 해은의 등을 강하게 토닥여주었다. 해은은 민혁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씩 녹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민혁은 해은을 부둥켜안고 몸을 오뎅이처럼 이리저리 흔들었다. 민혁이 해은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슬픔보단 절규에 가까웠다. 민혁은 고개를 숙여 최대한 해은을 안아주었다.

해은은 살이 타들어갈 만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였지만 여전히 시린 가슴은 녹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머리를 말린 뒤에 바로 침대에 누웠다. 졸리지 않았다. 해은은 그저 시퍼렇게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밤이 되었다.

민혁은 저녁밥을 차리고 해은을 불렀지만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해은을 위해 민혁은 잠시 침대 옆에 앉았다.

“해은아, 병원 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부탁이야. 제발, 나 좀 오늘은…….”

민혁은 해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민혁은 별 수 없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해은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혁의 젓가락질 소리를 듣기만 하였다.

해은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다. 걸을 힘조차 나지 않았던 해은은 벽을 의지해 어떻게든 부엌 불을 켜는데 성공을 하였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그나마 식탁과 주방기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너무 허기진 탓에 찌개에 불을 올릴까 하였지만 그러려면 밥을 피야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야한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식탁에 앉았다. 해은은 냉장고에서 딸기잼만 꺼내 맨 빵에 발라서 먹었다. 차가운 빵에 차가운 잼이 발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해은은 옆에 있던 차가운 물을 마셨다. 해은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방을 들어가려했다.

어디선가 날아 들어온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해은 앞에 멈췄다. 해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벌레를 잡으려하였다. 벌레는 빠르게 손을 피하더니 해은의 이마로 영원히 뜨거워질 수 없는 차가운 침 한 방울 놓았다. 선 채로 소금기둥이 된 해은은 딱딱한 나무가 된 채 뒤로 넘어갔다.

해은은 누군가의 강의 얼굴을 본 것이었다. 현석의 바람이 었나가자 현석은 통곡에 빠졌다. 아침햇살이 밝아 오고 검은 피 한 줄기가 흐르는 해은의 이마가 드러났다. 해은은 벌레를 잡는 도중에도 웃고 있었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한강의 물이 결국 범람하였다. 현대 문명을 살던, 소위 ‘스마트한’ 것들과 지내던 이들의 머리에는 해은이 맞았던 침 한 방이, 못 하나가 박혀있었다.

영감을 거둔 해은은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어느새 해은의 등은 뜨거운 물로 시뻘뻘하게 달궈져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뜬 해은은 옆에 있는 샴푸 통을 보았다. 해은은 온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잊을 수 없는 그 한기에 입김을 내쉬고 있었다.

제 방으로 돌아온 해은은 무언가에 쫓기듯 발가벗은 채 옷을 이리저리 꺼내었다. 꽤 망설

였지만 프릴이 장식된 블라우스가 어찌면 현석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서가 알려준 대로 살갓을 조금 드러나게 하여 진정 여우가 되어 보았다. 하지만 결국, 해은은 교복을 선택했다. 그것이 해은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옷이었다. 그렇게 블라우스를 전부 벗고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이어서 바로 해은은 문자를 현석에게 보냈다.

‘현석아W 이 늦은 밤 미안한데W 혹시 누나와 만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더해서 예서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예서야W 나 현석이 좀 만나러 갈게W 민애 좀 부탁해’

꽤 시간이 흐른 후 예서에게서 답장이 왔다.

‘몸 조심해W 혹시 모르니까 쌤한테도 얘기해둘게’

해은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거대한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고 산 외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타고 왔던 택시는 무인차로 끝까지 다다른 후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해은은 현석이 보내준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문자에는 현석의 집이 적혀있었는데 그것대로라면 아직 조금 더 걸어야 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은은 가로등 길을 따라 걸었다. 조엘이 말을 걸었다.

“해은아,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무섭다. 그런데 현석이는 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현석은 비릿한 강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에 있었다. 해은은 이게 집인지도 모를 판자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를 온 집중을 다해 떨쳐내었다. 그렇게 현석의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현석은 여전히 학교에서 보았던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현석아, 나 왔어. 현석아, 자니?”

“오셨네요. 여긴 자는 곳이 아니에요. 일종에 저의 기지예요.”

해은은 기지 안쪽 가운데에 자신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책상에 퍼져있던 자신의 모습이였다.

“그렇구나. 근데 저거 교무실에서 삭제한 사진 같은데, 맞지?”

“맞아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삭제가..... 안 된 거야? 어떻게? 혹시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을까?”

“실은 여러 시험을 치르는 데에 썼어요. 저 사진이 기분 나쁘면 없앨게요. 그런데 누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애 누나는 저랑 관련이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현석아, 무슨 시험 썼어?”

다정한 해은의 말에 현석은 말문이 막히고 손발이 얼어붙었다. 차마 해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해은은 현석의 기지를 둘러보다가 3D프린터 아래에 침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머리에 박아 넣기 딱 좋은 크기의 침이었다.

“알고 오셨어요?”

“나는 아무 것도 몰라.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는 거야?”

“그건 그냥 남은 거예요. 그리고 드론들은 이미 떠났어요. 이미 하늘과 바다를 통해 날아갔어요. 다사랑복지센터가 전 세계, 전국 각지로 배송해주었죠. 전 그저 거기에 드론들을 넣은 것뿐이에요.”

“이런 침을 가진 드론들이 어떻게 국가 세관을 통과한 거야?”

“세관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저는 다사랑복지센터에 보냈어요. 아마, 늘 그랬듯이 그거 썼겠죠? 무인반잠수정.”

해은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최대한 정신을 차린 해은은 다시 입을 열었다.

“누나, 현석이 누나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 누나는 맞은 편 방에 있어요. 가보세요.”

해은은 맞은편 방으로 몸을 돌렸다. 현석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뒤쪽에 식칼을 들었다.

한 여자 벨리가 멍하니 보고 있다. 여자 벨리는 V가 거칠게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벨리는 온 세상에 퍼져있는 침 든 드론들을 다루고 있었다. 해은은 각종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음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에 해은은 자신이 들고 있는 3D프린터로 작성된 단단한 침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다.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더 울림이 없는 좋은 침으로 처야 하느니라.’

해은은 그간 읽었던 글귀들을 떠올렸다. 눈을 감고 손 안에 침을 굳게 쥐었다. 그리고 그 글들이 보내주는 힘으로 딱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갔다. 그리고 해은은 영감 부인의 부름에 응했다. 해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고 있던 침을 현석의 종(Vell), 벨리 머리 한 가운데에 박아 넣었다.

수많은 드론들이 조종간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들고 있던 침들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가만히 해은 옆에서 보고 있던 조엘이 말을 하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피할 수 없었던 답은 벨리의 머릿속이었나 보네.”

“잠깐만.”

어느새 현석은 방 앞에 섰다. 해은은 현석이 오른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해은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누나 그건 제 꿈이었어요. 누나가 방금 저의 꿈을 박살냈어요. 아세요?”

“현석아…….”

“왜요, 미안하다는 말하시게요? 내 꿈을 또 박살냈으면서. 그럼 저도 누나 죽여도 될까요?”

해은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현석은 칼을 빼들었다.

“현석아, 내 꿈도 지금 박살났어.”

해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해은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해은의 진심어린 고백에 현석은 프리징에 돌입했다. 그 사이 해은은 현석에게 천천히 다가가 현석처럼 생긴 칼을 안았다.

해은은 밀려오는 고통에 현석의 머리를 꼭 움켜쥐었다. 해은은 차가운 칼이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그 칼날을 바로 자신이 직접 삼키기로 하였다. 현석은 스스로 칼을 뚫고서 밀고 들어오는 해은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 넌 아직 한 거 없어. 하지만 이런 일을 꾸민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할 거야. 꼭 다 설명해줘야 해. 그래야 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하면 다시 학교에 나와 줘. 나 장해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현석이를 반겨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혹시 누가 널 무시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꿈은 바로…… 우리 현석이가 잘 되는 거야. 누나가 아무 말 안 해서 속상했지? 그래, 맞아. 누나는 우리 현석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미안해. 우리 현석이가 앞으로 이런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현석은 숨 쉴 수 없는 해은의 가슴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은은 이제야 현석의 머리에서 나는 악취를 이해할 수 있었다. 현석의 오른손을 해은의 배에 박힌 칼을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게 꼭 잡았다. 다행히 현석의 왼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은은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현석이 쓰러지는 해은을 천천히 문에 기대어 숨을 쉬게 해주었다. 해은은 현석을 힘없이 쳐다보다가 현석과 눈이 마주치자 눈을 내렸다. 해은의 얼굴과 머리는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해은의 물결을 보고 있던 현석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갔다. 방 너머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멎더니 현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119예요? 누나가 칼에 찔렸어요. …… 네? 아……. 그, 그……. 저예요. 제가 했어요. …… 누난 여기 있어요. 어, 어, 여, 네, 네. …… 그,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나면…….’

배에 칼이 박혀있는 해은은 숨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 초점을 잃어가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턱 끝까지 닿았을 때 비로소 해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이 해은을 감쌌고 해은의 숨이 점점 멎어갔다. 고통에 지친 해은은 마지막 숨을 내쉬어 보았다.

어둠 속에서 해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발 내딛으려고 하였다.

‘네가 지금 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하지만 제가 산 자가 되어도 될까요?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너는 그 어린 양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여길 오는 것은 네가 그토록 말하고 바랐던 정답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말대로라면 너는 산 자가 되어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린 양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 어린 양은 누구인가요?’

‘저 자가 어린 늑대라 하면 너도 어린 늑대가 되느니라.’

해은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해은에게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해은의 몸이 거칠게 들쭉이기 시작했다. 땀범벅이 된 해은이 움직였다. 해은은 서서히 눈을 떴다. 해은은 눈물에 섞여있는 현석을 볼 수 있었다.

“누나, 괜찮아요? 119아저씨가 말 시키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현석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 저 V는 무슨 옷이야?”

“요즘은 V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V는 모든 강화가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나 잠시만요.”

“하지 마. 그냥 놔 뒀. 똑똑한 아저씨들이 빼주실 거야. 우리 현석이는 이제 나 안 건드리면 되는 거야. 건들이지 마. 현석이는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아무 것도 안 하는 거.”

방 안은 블루스크린을 출력하는 화면에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해은의 치마를 적신 피와 섞였다. 해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푸른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민혁은 불 꺼진 방에서 인터넷협회에 글을 올리기 위해 여러 영감을 하나씩 작성하고 있었다.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는 게시판 이름은 ‘세계인 청원(The World People Petition)’이었다. 민혁은 아직 미완성된 글을 보고 잠시 물을 들였다.

‘친애하는 세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W 세계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W 그간 평안하셨는지요.WW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세계인 분들에게 사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바로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테라포밍(Terraforming) 사업입니다. 최근 여러 행성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쓰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전 현재 테라포밍 대상 행성은 지구(Earth)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 인원이 아니기에 아직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저는 이러한 기술을 일부 기업만이 아닌 전 세계 지구촌이 함께 활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일부 지역이 아닌 지구 전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재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봅니다.WW 몇몇 과학자분들에게는 타행성에서 테라포밍이 가능해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테라포밍하기 쉬운 환경인 지구조차 다른 인간들로 망가지게 된다면 그 어떤 행성도 테라포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현 지구 그 자체가 인류가 가장 신뢰해야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WW 플라스틱을 다시 매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플라스틱의 주성분은 기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빨대 역시 우리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 속에서 나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제자리로WW 또한 탄소연합체를 꾸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연합체는 국가단위뿐 아니라 기업단위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실질적인 국민들의 탄소배출량 및 공장의 탄소배출량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량에 따른 탄소수집 연구 활동지원금 혹은 설비, 시설 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소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인류에게는 선택과 집WW 저는 최근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식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편하지만 의수를 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위로하며 제 남은 마지막 딸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수많은 남들 중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대단한 행운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남들 중에서 그녀를 만난 기적과 축복을 누렸습WW 지금 이 글은 그 죄를 회개할 방법을 찾아보다 아내였던 이에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WW 제가 언급했었던 프로젝트가 무사히 종료된다면 인류는 ‘원소채집과 보관(Element Collection and Save)’이라는 다양한 기술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인류 그리고 환경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두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그저 저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WW 행운을 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민혁은 글의 여러 조각들을 이리저리 조립해보려 하였지만 최대한 첨삭을 해보아도 무언가 밀려오는 위화감에 좀처럼 잔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춰버린 커서가 민혁의 고민을 풀어주지는 못하였다.

민혁의 핸드폰이 거칠게 울렸다. 긴급재난문자였다. 제5호 아리슬이 일어났다는 마당에 민혁은 이미 해운과 과연 이번에는 어디로 피난을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가득차 어지러웠다. 민혁은 눈을 힘껏 감았다. 제발 이번만은 먼 곳이 아니길 바랐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눈과 화면을 열었다.

‘아리슬 5호. 허위정보로 판명. …….’

민혁은 부들거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열었다. 서둘러 뉴스사이트로 향했다. 이미 공영방송국은 이 헤드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전하고 있었다.

‘……에는 벨리가 사용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사이버수사대가 해당 정보의 출처, 제공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인터넷협회, WIO는 이 허위정보의 진원지를 우리나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기관, 국가정보원은 이 새벽에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

민혁은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민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

구보다 빠르게 해은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갔다. 흥분한 민혁은 최대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흑, 해은이 잠에서 깬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어있는 방을 본 민혁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폰을 찾았다. 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은이니?”

“아니예요. 전 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은 누나는 아파요. 전화를 못 받아요.”

“무슨 일 생겼니? 거기가 어디니?”

“제가 누나를 칼로 찔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나는 제가 보고 있어요. 119에 신고도 했어요.”

“칼? 뭐? 119? 자, 잠깐……. 아니, 해은이는 무사하니? 해은아 괜찮아?”

“……. 해은 누나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라고 말했어요. 저, 잠시 만요. 119아저씨들 와서 문 열어야 돼요.”

“어, 그래. 끊자. 허, 현석이라고 했지? 미리내고 학생이니?”

“네.”

“그래, 알았다.”

민혁은 통화를 끝내고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방에 나가기 전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를 보았다. 모니터는 말없이 부족한 민혁의 글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호등은 말없이 해당 글에 초록색 불을 띄워주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컴퓨터 앞으로 걸어가 마우스를 끌었다. 그리고 ‘취소’버튼을 눌렀다. 민혁은 서둘러 해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였다. 민혁은 해은을 믿기로 하였다.

정부와 벨루는 미리내고 사건에 핵심이 되었던 현석의 코드와 진술을 토대로 유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인공지능 악용에 데이터를 충분히 쌓을 수 있었다. 정우 일가 및 미리내고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벨루와 접촉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그 큰 덩치 앞에서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뽀뽀 얼어붙지 않은 정우 일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벨루는 우선 일반인들에게 지급된 인공지능 로봇 벨리에 대한 전량 회수 진행 절차를 가졌다.

이전 1차, 2차 산업시대와 현 3차 산업시대의 인공지능로봇 대량 생산에서 인류가 넘겨졌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로봇의 가이드라인의 균형이다.

1차 농수산업시대를 완성시킨 여러 농수산업기계는 순전히 농수산업에 특화되어 있기에 농업, 수산업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2차 공업시대를 완성시킨 수많은 공업기계들은 공장 안에 설치되어 공장 관리자에 의해 운용된다. 1, 2차 로봇들은 사용자가 순전히 일정 지역 안에서만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설계되어있다. 학교나 가정집을 상업, 범죄, 특수 목적 등으로 개조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일반 학교, 일반 가정집) 여러 서비스(편의)를 제공하는 벨리처럼 트랙터나 메모리칩을 조립하는 로봇을 실습용 이외에 상업용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위화감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로봇은 일반 가정집 안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킬 것이며, 반도체는 정교하게 제작되지 못하거나 위험물질에 의해 동거하는 이의 인체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 트랙터는 논 안으로, 반도체 제조로봇은 공장 안으로 가야 해당 위화감은 사라진다.

3차 산업 서비스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각종 서비스 로봇 대량생산은 여전히 로봇이 인간에게 편의를 준다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서비스로봇은 각종 서비스를 위해 필연적으로 논 밖으로, 공장 밖으로 나가야한다. 이 상황이라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이

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 그리고 그 법적 감시자 및 집행자의 균형이 극한의 로컬단위인 ‘개인’이라는 것에 의해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게 됨으로써 붕괴된다는 것이다.

즉, 로봇이 일정 지역 안에서 일정 지역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셈이다. 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사용자가 개개인으로 됨에 따라 법의 감시망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비교적 쉽게 형성되고, 그곳에서 평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악용변수를 생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극한의 로컬단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감시자, 집행자 균형의 한계는 서비스시대 초창기인 20~21세기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그들은 소중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활동 이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수정조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비밀번호수정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수정 따위 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수정은 그냥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무색한 상황에서 아무리 사이트에서 비밀번호수정을 강조하고, 주기적인 변경을 감시한다하여도 워낙 확인해야 할 인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저 기계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밀번호수정에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차단할 집행자 역시 기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사용자는 기계적인 비밀번호수정에 그칠 것이고 이는 비밀번호에 대한 망각과 보안이 낮은 수준을 방관하는 현상을 낳는 등, 보안에 사각지대가 비교적 쉽게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용자 보안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많은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로봇의 대량생산은 (예비)범죄조직에 완벽한 기술 및 물자공급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역시 ‘면허체계’와 비슷한 구조로 인공지능로봇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공급하는 것이고, 인간과 로봇 즉 사용자와 판매자를 제외한 집행자 역할인 제 3자가 개입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량생산 이전에 철저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시스템을 생성 및 정비 후 대량생산 진행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후 현 사용자들에게 똑같이 로봇을 지급하였을 시, 예상 집행자 및 관리자 필요인원 및 부가적인 로봇에 따른 요구자원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었던 까닭에 벨리는 소량생산체제로 변경되었다. 벨리는 WIO 윤리 아래 연구, 의료, 우주 항공, 사업체 내, 그리고 신체에 이상이 있는 이 등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결핍 해결이 아주 절실한 경우에서, 철저한 추적 및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한해서만 활용될 수 있게끔 관련 인사과정과 코딩 공개여부가 준비 및 결정되었다. 또한 정부 역시 아직 회수되지 못한 수많은 불법무인운송수단 및 대포봇들을 추적하기에 자본을 들였다.

군 당국은 벨리를 활용한 범죄 수법이 전쟁과 연결될 수도 있다 파악하여, 제 3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라고 알렸다. 현석이 준비한 살상방식에서 경악스러운 지점은 바로 총성과 포격, 독극물조차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IT기술만을 활용하여 아무도 모르게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아무 경계도, 저항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해당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이에 만약 이러한 살상이 국가단위로 확장될 경우 건물과 인프라는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람들만 죽은 유평국가가 된 후, 침략국에서 시체와 뒤통수를 한 뒤 구성원 몇이 이주를 하여 그냥 그 나라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략 방식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벨리를 통한 군집드론비행에 가장 주요하게 작

용했던 위성 인터넷에 유사시 영공차단, 해저 케이블로 하여금 이어진 벨리로 수집한 아주 거대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에 주요하게 작용했던 광통신망에 유사시 영지차단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폭탄으로 치자면 그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코드가 현재 오픈소스로 뿌려져 있으니 여기에는 손을 쓸 수가 없지만 핵폭탄에 들어가는 우라늄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유통과정에서 성능을 제한함으로써 전쟁발발을 보안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IT기술로 국가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대량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에 늘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뇌반속 채급 80ms 이하(예서의 측정결과는 27ms이었다.)를 달성한 예서는 바둑을 공부하였다. 예서는 바둑 속기사 1단이 되자마자 ‘환돌(Circle Stone, 環石)’을 잘 다루는 기사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속기사는 타이틀의 조건은 기사의 뇌의 반응속도가 100ms 이하 여야하며 철저한 평가절차를 가진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더 빠른 대국을 진행한다.

환돌은 회색이 아닌 밤을 의미하는 흑과 낮을 의미하는 백의 색을 선명하게 다 가지고 있는 돌로써 한낮에 갑자기 찾아온 금환일식을 상징한다. 이는 흑과 백의 진영에서 모두 통용되는 돌이며, 전반적인 스케치는 ◎이며, 테두리 혹은 속에 검은색을 칠한다. 또한, 어느 정도 대국을 볼 줄 아는 1단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사만이 둘 수 있으며, 해당 돌을 흑백기사 모두 둘 수 있지만 대국 당 한 번으로 제한하며 먼저 돌을 집은 기사가 둔다. 대국을 정리할 시기에 낮 영역에선 백돌로 남게 되며, 밤 영역에선 흑돌로 남게 된다. 이 돌의 목적은 ‘두 집 버티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더하여 여전히 예서는 스타크래프트2 전략 짜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수아는 자신의 차분한 성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분석가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또 해은이 한 말을 받아들여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작은 피규어들을 인터넷에 하나씩 올려보았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수아는 조금 망설이는 눈치다.

현석은 미수사건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소년원 보호처분이 거론되었으나 모든 기술의 공유와 해석으로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점, 현석의 자백으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한 해은에게 칼을 이용한 상해는 옆에 있었던 조엘의 데이터와 당사자인 두 사람의 진술, 그리고 구급대원의 진술을 토대로 복부 상해가 아닌 ‘복부 자해’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석은 학교 내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행위로 인해 ‘등교정지 10일’처분이 내려졌다. 현석은 그 기간 동안 해은의 추천대로 여러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에는 놀라운 속도로 자연회복에 성공하여 재활운동까지 시작하였다. 그리고 운동 중 술과 담배가 근육에 꽤나 악영향을 준다는 병원 측에 설명을 이해하게 되었고, 퇴원직후부터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기로 하였다. 민에는 각종 무술을 하나씩 섭렵해나가기 시작했고 스텐트맨으로 되는 길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정우는 여전히 활동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은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었죠. 제 5호 아리슬이 알고 보니 한 철없는 고등학생의 장난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북극 제트기류가 복원되는 조짐이…….’

해은은 슬며시 웃었다. 병실 문이 슬며시 열린다.

“수아구나. 잘 지냈니?”

“아뇨. 제가 키운 거북이를 보내줬거든요.”

“거북이?”

“네. 답답했어요. 몇 날 며칠을 집 안에서 안 나왔거든요. 오늘 밤 딱 느낌이 왔죠. 아, 거북 놈 죽은 것 같다. 그때 시간이 1시 25분쯤이었어요.”

“잠깐, 거북 놈이라니?”

“개 이름이에요. 제가 여자니까 남자로 키웠어요. 네, 거북이 성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거북이를 키운 거죠. 심지어……. 아직도 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쩌면 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았어요. 무지함에 그만 살생을 해버린 거니까. 사과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널 키워서 미안해. 앞으로 너 같은 동물 비슷한 거한테 절대 관심 가지지 않을게.’ 뒷산 개울에 시체인지 잠든 건지 모르는 걸 두고 언니한테 오는 길이에요.”

“수아야, 그래도 아예 관심 끄지는 말고 조금은 열어두는 게 어떻겠니? 심심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노력해볼게요. 그런데 언니, 왜 웃고 계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혼자 왔어? 다 같이 온다며.”

“아, 저 혼자 빨리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겠죠.”

수아는 해운이 들고 있는 태블릿을 보았다.

“뭐하고 계셨어요? 바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제목을 정하고 있었어. 요즘 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이잖아? 나도 적어보는 거지. 일명 장해은 표 말세이야기.”

“그렇군요. 제목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말세니까 창세의 반대잖아? 그럼 일단 번역은 반대말이 창세기, 말세기로 완성되었고. Genesis의 반대를 찾아봤어. Henesis.”

“헨네시스요?”

“‘G’자가 왼손 검지로 타이핑하잖아? 반대로 ‘H’는 오른손 검지로 타이핑하고. 그래서 해운의 말세 이야기는 Henesis로 한 거야. 그리고 이걸 중간언어더라고? 다행히 이 Henesis는 뜻이 없더라고.”

“뜻이 없으니 중간언어로 쓰이기 좋네요. 그래서 진짜 원어는요? 언니가 원하는 단어는요?”

“모범. ‘모페트’라고 읽더라고. מופת.”

“말세엔 모범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뿐이 아니야. 이 단어엔 두 번째 뜻이 있더라고.”

“그게 뭔데요?”

“기적. 내가 생각하기엔 말세엔 인간이 천지를 창조할 능력까지 닿을 것 같은데, 그 모습마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난 구절은 하나밖에 생각 안 했어. 그리고 그것도 굳이 구절을 내가 직접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울 거라는 거지.”

“‘말세에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언니가 쓰던 글은 ‘클로징’이었잖아요? 언니의 말세 이야기. 천국 문 닫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천국 갈 방법이 있나요?”

“글쎄? 기본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있어 교회에 가면 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천국의 문은 반복적으로 열렸다가 닫힌다고 봐. 왜? 죄를 사해주셨으니까.”

“문이 자동문인가요?”

“대기하는 거지. 대신 닫혀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열리면 일괄처리 하는 식으로. 그……. 천국의 문도 좀 닦아야하지 않겠니? 세상 영혼이 처음 닿는 곳인데 당연히 천사들이 조금씩 닦아주어야겠지. 그런데 문제는 고귀한 의식이긴 한데 너무 천국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좀 닦고 다시 영혼을 받고 하는 거지. 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올 거면 죄 좀 제대로 씻고 오라고 이 망할 년, 놈들아.’정도?”

“……. 아, 언니가 생각한 천국, 천사는 서버로 영혼을 일괄처리하고, 바닥도 청소하는 곳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망할 것이라고 보는군요?”

“……. 하하, 천사들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적게요?”

“이왜진? 몰?루 어쩔벨리? 외않되?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뭘. 이런 게 다 노이즈 마케팅 아니겠어? 게다가 구절도 하나뿐인데?”

수아는 눈을 반쯤 감았다. 해은에게 다가가 갑자기 태블릿을 뺐었다. 해은은 입을 오므리며 수아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은 마무리 작업하고 있었어. 참고한 것들, 내가 영감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이 이야기에 활용했던 것만 따로 모아 정리하고 있어. 단, 여기가 맛집인지 위험지역인지는 말 안 할 거야. 난 그저 이런 것이 벨넷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야. 그런데 막상 내게 처음이다 보니 힘드네.”

“처음이니가 최대한 신경 써서 해야겠네요. 언니 포트폴리오라매요. 무료로 가져다 쓴 만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난감한 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최대한 도와볼게요.”

“고마워 수아야. 이 언니도 나름 집중하고 있어. 그런데 난감한 점이 좀 있긴 해. 집단지성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발매자가 변경되거나 어떤 건 아예 비공개로 돼있고, 심지어 Mass한 게 들어갈 자리에 비공개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뭘 선택해야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망각에 대한 문제도 있고. ‘1층에 편의점, 2층에 가죽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치과 2층 약국 1층인 사진’을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 내 기억에 그 ‘가죽공방’이란 것도 사실 애매해. 그 공방건물색이 갈색벽돌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해내기가 정말 힘들어. 또 이름을 내가 잘 못 외우거든. 심지어 내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 이름이 원래 ‘정은경’이었는데 어느 샌가부터 ‘정은영’으로 쓰고 있더라고. 뭐, 망각은 내가 깊어지면 괜찮은데 나머지가 문제야.”

“집단지성은 예술분야, 혹은 다수에 의해 증명이 확실히 끝난 정보 같은 것에만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언니가 언급한 특허, 논문체제가 없으니 지금 기준으로 정보 수집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언니가 선택한 곳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곳이면 언니가 영감을 얻었던 기준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추적이 어렵거나 해당 활동 과정 중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그냥 그 집단을 대표하는 걸로 지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마워. 그런데 언니가 최근 정리하려고 문서프로그램 공부를 좀 해봤거든. 그런데 ‘책갈피’기능이 있더라? 참고를 내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선 딱 인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좀 보이네. 바로, ‘상호참조’라고 되어있는데 하이퍼링크를 두면 한쪽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설정할 때 5개까지밖에 안 보여서 답답한 면이 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떻게 잘 하셨나 봐요?”

“현 프로그램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봤지. ‘각주’기능도 있었는데, 내 글에는

쓸데없이 글자 수가 늘어나더라고. 나 문의해보니까 40만자까지가 맥스거든.”

수아는 잠시 태블릿을 숙 밀어보았다. 태블릿에는 수아가 이해하지 못할 잡동사니들이 저장되어있었다. 그 중에 수아의 관심을 끄는 단어들을 발견했다.

“언니, ‘글, Text, 經.’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이거 뭐예요?”

“이 글의 컨셉이야. 모국어가 가장 앞에, 그 다음 논문체계를 확립한 서양 쪽 대표언어, 그 다음 동양 쪽 대표언어. 실은 이 항목들 정리 전에 저 단어를 기준으로 나열했었거든. ‘음원, Sound, 音源.’ ‘제어, Control, 制御.’까지 있는데 웬만하면 다루는 리소스들이 이 항목 안에 포함될 것 같았고 실제로 그런 정리를 했고. 언니는 차후에 이런 대분류는 언젠간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메모를 해둔 것뿐이야.”

“흠, 제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로 저장되거나 복제 가능한 행위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만화연속극,’ ‘실영사극,’ ‘교양녹화.’ 항목 외에 더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 세 개긴 해요.”

“영상(映像)이란 것이 단순 동영상이나 영화뿐 아니라 사진, 그림까지 전부 포함되더라고. 그래서 대분류로 일단 동적영상과 정적영상을 분리하였고, 그 중에서도 영상 쪽은 영화(映畫)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영화나 여러 동적영상물이 포함되더라고. 그래서 영사기 사용여부에 따라 영사기는 영사극이란 말을, 아니면 그냥 녹화나 연속극이란 말을 사용한 거야. 연속극은 쉬워. TV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생각하면 돼. 옴니버스든 아니든 주기적으로 극이 진행되는 영상물이야. 교양녹화는 어떤 정보를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매체. 심지어 게임 공략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게임. 전자인형놀이, Electric Doll Play, 電子人形遊戲. 이것까지 챙기려고.”

수아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해은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거리며 해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중복단어는 최대한 배제했어야 했겠네요. 언니가 40만자를 언급하는 걸 보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을 때 중복단어가 많아져 오버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언니만의 팔딱거림이 가동된 거고요.”

“응. 지금 영향력이 없는 생각과 농담들을 제거하고 있어. 그럼 뒤에 항목도 사라져서 배로 줄어들더라고. 더해서 표지나 삽입된 큰 표 역시 글자가 일그러질 수 있어서 편집에 용이하도록 어떤 지면에든 알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경에 삽입해 주었어. 그리고 별도의 해결책으로 최대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 독자, 그리고 편집자를 위한 링크와 기호를 준비했어. 링크는 편집이 용이하도록 모두 상대주소로 설정해두었고, 독자를 위해선 기호를 썼지. 그 ‘각주’기능은 나중에 찾으러 갈 때 글자가 섞여서 당최 어디인지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호로 했더니 눈에 탁 들어오더라. 또, 페이지 기준으로 나열했어. 아마 편집을 할 단계에서 숫자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난 이와 같은 기능을 기반으로 외부참고기능도 활용했어. 내가 이전에 썼던 3개의 글을 모두 하나로 만들 기호를 발견했지.”

“어떤 건데요?”

“여태 쓰지 않은 기호가 딱 하나인데 그거지 뭐.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하더라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글 세 개를 합쳤잖아. 그리고 외부참고 역시 상대 값으로 설정해뒀어. A4지면에서 다른 지면으로 편집할 때 용이하도록.”

“모두를 배려하는 거군요. 언니조차도.”

“맞아.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오프닝이란 글 원제가 바로 ‘지면’이었어.”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런데 언니, 지금 다루시는 Mass한 부분은 인턴이나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죠? 혼자서 무리하면 직원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나는 기업이 되지 않을 거야.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굳이 다른 일을 병행해서라도 말이야. 나는 글로 돈을 찍어내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삶을 그리는 데 초점을 두거든. 그럼 굳이 기업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만약 내게 귀한 동업자가 생긴다면 역시 나와 함께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그리고 그 동업자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글을 잠시 내려놓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이 글을 쓸 때 수아와 함께한 게 정말 고마웠어. 소설 속에선 모든 게 가상이니까, 이런저런 말을 툭툭 던져보는 것 정말 필요했거든. 수아는 이 언니가 잘 되면 따로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요. 넣어두세요.”

“언니의 고마움인데? 언제는 받아줄 거라 믿어.”

“그래요. 시간 써 드릴게요.”

“고마워. 난 이번에 수아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어. 바로 나 혼자선 완벽한 허구, 소설을 적을 수 없다는 거야. 결국, 이런저런 걸 참고하니 소설 비슷한 게 완성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항목들에게 내 40만자 일부를 할애하기로 했어. 그래야 자신의 주어진 글자 수를 절약해 지면이 웬만하면 항목들을 참고했다는 정보를 적기보단,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참, 막상 보니까 거의 ‘존경 궁극기(Ultimate Skill: Respect, 窮極技術: 尊敬)?’ 내 생각엔 거의 그 정도 급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겐 아직 궁극기 한 방 남았다? 하지만 아까 수아에게 말했듯이 내 기억의 한계로 인해 영감을 되찾지 못한 것도 있어. 아마, 그걸로 날 해체시킬 수도 있을 거야.”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해은은 허리를 펴며 태블릿을 닫았다. 수아도 해은에게서 떨어져 문 쪽을 보았다.

“여, 엔 타로!”

“엔 타로 흥민애.”

해은은 대충 인사하는 민애를 대충 맞이해주었다.

“뭐하고 있었어? 내가 뭐 도와줄까? 배 어땠?”

“나는 괜찮아. 너는, 네 배는 괜찮아?”

“난 뭐 늘 괜찮지. 근데 아직 좀 다른 곳에 상처가 남아서 좀 지저야한데. 왜 그 있잖아, 숨에다 알코올 붓고 지지는 거 생각하면 돼. 답답해서 퇴원하긴 했는데 병원신세긴 하지.”

“언나, 그나저나 지진다는 표현은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민애 언니, 그런 걸 바로 소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나그거나 조지는 거는 똑같지 뭐.”

“그건 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지는 식으로 했다가는 추가적으로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민감한 부분일수록 더 정교하게 치료해야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에 영향이 덜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수아가 언니 혼내잖아. 가만히 있으래. 알아듣지?”

“아니, 이 모든 게 내 배때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나저나 왜 왔어. 오늘은 반 애들 다 데리고 왔네.”

“어,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잖아. 우리 방학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아, 아니야?”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 말자 가을의 첫 번째 날일 수도 있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해은 언니, 민애 언니랑 이번 학기 지나면 곧 고3이네요.”

“……. 고삼이네. 하, 고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느새 내가 고삼이라니…….”

“그런데 뭐 열심히 적고 있냐? 야설?”

민애는 대뜸 해은의 태블릿을 뺏었다. 해은은 눈이 커지며 서둘러 태블릿을 되찾으려 하였다. 예서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해은을 놀렸다. 민애는 태블릿을 열었다.

“어? 너 이 영화도 봤어? 언제 봤냐?”

“영화방에서 봤지. 다루는 큰 내용으로는 빈부격차. 세부내용으로는 능력은 되는데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사진합성에, 운전, 플레이팅까지 되는데 피자박스를 접고 있었어. 결국 방황하다 선을 넘게 되었고 이게 냄새로 마찰이 일어났다. 어리든 늙든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을 그린 영화? 대충 그런 내용 같아. 내가 한 번밖에 못 봐서 아쉬워. 더 많이 보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더 디테일한 걸 보고 싶다는 말이야. 뭐, 어차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결국 다시 큰 주제로 돌아오겠지만 그걸 알고도 다시 보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 난 단편소설조차 맘 놓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바쁜 상황이라서.”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안녕, 내 어제님.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좇는 어제의 나에게 전할 게 있어요.’ ‘도시의 하늘은 내 방처럼 어두워요. 도시에겐 아픔도 참 많고, 눈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이 궁금하데. 으악!”

“우리 해은이 이렇게 감성 폭발하는 거 보니 문제없네.”

얼굴이 붉어진 해은은 무리해서 움직였다. 아직 왼쪽 아랫배가 저렸다. 차분히 자세를 다 잡으며 해은은 그냥 민애와 예서를 쳐다보기로 했다. 수아도 슬며시 다가와 태블릿을 보았다.

“주님의 시선: 저는 18년 된 병자입니다. 참나, 이걸 또 뭐래?”

“저…… 애들아 그만 보면 안 될까?”

“언나, 이 정도면 PROVE YOURSELF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좋아. 내가 그 자전적 소설 쓰느라 좋아하는 것 조금 써봤어. 게다가 이번 전략이 전체공개거든. 아……. 그렇다고 전체이용가는 아닐 수도 있고.”

“지나가는 꼬맹이도 벨리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미성년자가 어디 있다고. 다 볼 거 보고, 알 거 다 알아. 그래, MEANING OUT이네.”

태블릿을 뒤지던 민애와 예서는 한 사원 앞에 외계종족이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민애는 눈을 찡그리며 이게 무슨 스케치인지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엔 타로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 엔 타로 아르타니스라고? Dark Templar. 나는 그 무슨 보석 같이 생긴 커다란 걸 행성 내핵으로 보내서 행성을 폭파시키는 장면에 감동을 받았어. 아니, 감동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이랄까? 그래서 그려본 거야, 히히. ‘신관이 쏘아내린 커다란 보석.’ 그 영상을 본 내 감상평이야. 그리고 이거 반대로 하면 될 줄 알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신기하지? 둘 다 옛날 책이지만. 모르겠으면 찾아서 읽어봐.”

“그런 장면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난 전투 씬이 멋있던데.”

“그나저나 이것도 12글자네요. 신관이 쏘아내린 커다란 보석.”

수아의 말을 들은 해은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글자 수를 세어보았다. 입이 근질거리는 예서는 태블릿을 민애에게서 뺏어 죽죽 내려 보았다.

“그래, 독서 뭐…… 좋지. 어디 보자. 뭐야 이게? ‘중 영역’이라니 민애 언니는 혹시 알아?”
예서는 민애에게 해은의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민애도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시대는 경쟁이 조금 치열하잖아.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공식적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아. 내가 작가지망생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처럼 관련 예상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문제 의도로는 ‘IT수준으로 인해 누군가와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지구 어딘가 인터넷 아니, 자동차 핸들조차 만지지 못했던 이들이 있을 테니까. 작가지망생인 나는 그런 것들 다 그릴 줄 알아야한다고 봐. 그래서 그 중 내게 이해해가 힘들었던 어떤 형상이든 암호화시킬 능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다만, 풀이과정에서 상수가 쓰여서 수식에 따라 비슷한 형상이 나오긴 해. 그래서 님은꼴 역시 정답처리를 해야 하는데 답안이 암호라 채점은 못하긴 하겠네. 그래서 난 ‘정답’이란 말 대신 ‘모범답안(Deluxe Answer)’이란 말을 적어봤어. 난 이제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야. 왜냐면, 그 과정이란 것도 이제 다 기록되는 시대니까.

난, 목표를 정했어. 그 과정이란 거 다 일러바칠 거야. 사실, 굉장히 몸쓸 생각들이 많거든. 그렇게 다 글로 쓰면서, 일러바치면서 좀 천천히 가고 싶어. 과연 내가 같이 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소한 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게 다야. 혹여, 혼자 살게 될 때도, 비혼식을 치르게 되어도 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의 예쁜 꿈에게.’”

“그런 노래가 있어?”

“없어, 이것도 그냥 내가 번역한 거야. 원래는 틀린 해석인데 글썄…… 듣다보니 원문 자체가 내 눈에는 ‘Dear, My Sweet Dreams’처럼 보이네. 제발 좀 쓸데없는 꿈 좀 꾸지 말라고. 나한테 압박지르는 썸이지. 도저히 못 막겠어서 강 일러바치는 거고. 하, 그냥 이게 내 팔자라고 생각해.”

제 1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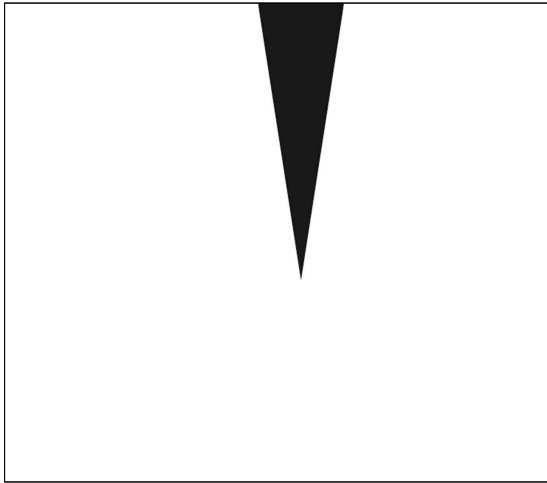
종 영역

1

성명	장해은
----	-----

수험 번호	7	0	8	2	9	-	1	5	2	2
-------	---	---	---	---	---	---	---	---	---	---

1. 다음 형상을 암호화하시오. [100점]



풀이과정: 해당 형상은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상의 세로를 기준으로 반면을 보았을 때, 부등식은 각기 다른 2개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 기울기 형태가 1차 방정식이고, 각각의 방정식은 모두 세로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므로 변수 x 의 절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으로 해당 방정식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영역을 교집합 할 수 있는 연산자 '&&'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위 형상을 표현한 최종 방정식의 형태는 ' $(\text{abs}(x*5)+y<1) \ \&\& \ (\text{abs}(x*12)-y<1)$ '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기준에 구현된 함수'를 활용해 암호화시킵니다.

모범답안: 85a7f2302a4e1868de9d21fb3f34fa89030c07716787d2a8587b0b60e9a
b3cc073111722f600556aabc00984e4c78e19729879251c56332b79cab
77e6167b8da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네? 풀이과정도 답도 모두 채점을 할 수 있으면서.”

“에세이. 서론, 본론, 결론. 굳이 시험장에선 그렇게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론에는 문제의 이해, 본론은 그 풀이방법이니 요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답은 그래도 확실해야 하니 따로 뺀 거야.”

“우리 해은이가 고생이 많아. 그런데 안 되도 계속 도전은 해 볼 거야?”

“말했잖아. 이번 주제는 이게 마지막 글이야. ‘공감을 형상화하는 것.’ 그래. 이 마지막 글에 내 삶을 온전히 다 쏟아 부을 거야. 성공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성공 전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나만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내게 소중한 다음 기회가 오면 그건 그때 생각할 거야. 하하, 그래도 그때는 하루 종일 에너지 쏟아 붓지 않고 좀 널널하게 해야지. 나도 피곤해. 그래도……. 뻘시게 했더니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 아니, 제대로 말해야겠지? 실패든 성공이든 이걸 어떻게 잊겠니? 나는 이걸 잊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라 못 잊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페이스 체크도 중요한 문제야. 우리 해은이 잘하고 있네. 그래서 언제까지야?”

“원래 12월 6일로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1206이더라고. 그래서 내년으로 옮겼어. 0126. 그런데 벌써부터 마치 발가벗다 못해 엑스선으로 뺏속까지 다 보여주는 느낌?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데 난 벌써부터 부끄러워지고 있거든. 그리고 솔직히, 나 기도했어. 올해는 작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것까진 안 될 것 같아. 내년이니까.”

“언니가 따르는 신이 언니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한 날부터 작가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언니가 1월 26일 글이 떠나는 것을 이미 확신하듯이. 어쨌면 기도를 마친 날부터.”

“……. 하하, 난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하는 말이 있어. God Bless Me!”

“응응, 좋아좋아. 훌륭해. 언냐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작가 중에 최고가 될 거야.”

예서의 말을 끝으로 병실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예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팔짱을 끼고 있던 정우는 예서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았다. 수아는 눈이 풀린 채 예서에게서 눈을 뗐다. 현석은 예서에게 웃음을 보여줬다. 민애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예서에게 말했다.

“야, 근데 네가 책을 안 읽잖아. 작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작가 중에……. 아니, 언니는 꼭 이렇게 좋은 날에 초를 처야겠어?”

“야야, 그 여기 작가 좀 돼보겠다는 애 앞에서 그 대놓고 작가에 관심 없다하면 쓰냐. 대중 책 읽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해은은 민애와 예서를 번갈아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뜨끔 하는 것을 느꼈다. 해은은 펜스레 헛기침을 하였다. 하지만 민애와 예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아 몰라몰라 됐어, 이 언니도 지금 어! 글 안 쓰잖아. 노래 듣고 땀 짓하고 있었구만!”

“난 노래를 들으면서 글을 써. 왜냐면 맨 정신으로 쓸 수 없는 게 있거든, 하하.”

“……. 우린 안중에도 없구만! 섭섭하네, 진짜!”

“그래, 잘되면 광광이 말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나에 대해 그리고 이 글을 거의 다 쓴 시점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거든. 내가 예서한테 얘기했지? 주인공이 이성이라고. 실은 주인공의 성별이 없어. 왜냐면 등장인물 전체가 다 주인공이거든. 어, 자전적소설이니까 등장인물 모두 적어도 하나씩은 내 생각, 내 경험이 녹아들어갔다는 거야.”

“점점 소설의 기본을 찾아가는 분위기네요.”

“그걸 알게 됐어. 지분이 있든 없든 모두 내겐 소중한 등장인물들이었었어. 캐릭터들이 전

부 어디 하나같이 다 나사 빠진 모습들이지만 결국 다 내게는 소중한 주인공이라는 거야. 거기에 지금 이 이야기에선 말 그대로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주인공을 형상화하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정리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 ‘Ultimate Skill: Respect’인 것 같아.”

“진짜 주인공 이니까. 그리고 재밌는 히어로 이야기가 그렇듯 진정한 살점, 간판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해은은 잠시 큰 심호흡을 하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이게 바로 사랑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은 대충 알 것 같아.”

“무슨 맞인데요?”

“물. 물에 조금 더 진한 색소를 타면 음료수. 거기에 좀 더 진하게 하면 술까지.”

“그…… 그게 사랑이야?”

“하지만 억지로 마시게 하면 마시는 걸로 강간을 해버릴 수 있죠.”

해은은 수아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잠시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난 이 이야기를 정말 마무리 지을 때가 온 것 같아. 난 내 이야기가 완성된 것만으로도 만족해.”

“오? 뭔가 영역 안으로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나보네?”

해은은 민애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겼던 현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현석은 숨이 멎었다. 나머지 이들도 긴장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현석이가 제시한 아리슬 5호를 생각해봤어. 누나가 맞혀 봐도 될까?”

“아리슬 5호? 그 ‘누나’ 말하는 거야? 그러네? SISTER 주제에 ‘언니’가 아니네. 누나가 아니니까 기분 나쁘네?”

“됐어. 그래서 우리 해은이가 생각하는 5호의 원래 뜻이 뭔데?”

“어쩌면 여기 있는 모두가 조금은 바라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 싶어. 내가 제시하는 아리슬 5호의 진짜 뜻은 ‘RECUPERATION,’ ‘회복’이야.”

“……, 역사를 깨달은 민족에겐 회복과 발전이 있겠죠?”

“그렇겠지? 그런데 언니는 그 회복과 발전을 ‘미래(Futur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왕이면 그 미래가 좋은 데면 좋겠네. 언니 이름이 Heaen이잖아 거기에 V만 잘 집어넣어도 꽤 근사한 곳이 될 수 있겠는데? 왜? 요즘은 V가 대세라자너.”

병실 시계가 어느새 9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은은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해은은 마음속으로 쓰고 있던 아리슬을 온전히 내려놓기로 하였다. 예서가 해은의 맑은 눈물이 하나씩 떨어지는 걸 보고는 얼른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나머지 서둘러 다른 화제를 찾았다.

“It’s SUN & MOON RISE. 준비하자!”

“아, 오늘 금환일식이지!”

“금환일식에는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언니도 가요. 곧 시작돼요.”

정우가 헛기침을 한 번 하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현석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 들어볼래?”

모두 낮은 정우의 목소리를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모두 정우를 한 번씩 쳐다보다가 현석을 내려 보았다. 현석이 선생님의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가, 같이 사진 찍을래요? …… 우리.”

“이 새끼 봐라? 우리?”

“언니, 일어설 수 있겠어요? 같이 사진 찍으러 가요,”

“어디 현석 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동 차렸. 나간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장해은은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섭니다.”

“알겠습니다. 엔 타로 홍민애.”

민애의 명령에 하나둘 병실을 나갔다.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금환일식을 뒤로 좋은 친구들은 모두 기념사진을 찍었다.

수아는 현석 옆으로 조금 붙었다.

“왜 그래? 우리 사진 다 찍었는데.”

“어? 아니야. 아무 것도.”

“……. 수아야 너 해은 누나 비밀 알아?”

“난 봤어.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아?”

“난 안겨봤어.”

“안겨봤다고? 재수 좋은 녀석이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아, 그, 그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 여태 친하게 지냈잖아. …… 그래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수아는 배에서부터 밀려오는 떨림에 말을 할 수 없었다. 현석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현석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얼른 놓았다. 현석은 수아를 보고 웃었다. 수아는 멀어져가는 좋은 친구들을 잠시 보았다.

수아는 하늘을 보았다. 태양을 가린 달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에 황금빛 태양빛이 조금씩 물들고 있었다.

“……. 이제야 동력공급이 완료된 것 같아. 아둔의 창이 귀환 준비를 마친 것 같아.”

“현석아……. 그래,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태양을 보니 알 것 같아. 이제 곧 이 무기력한 잠에서 깨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 가자.”

다섯 번째 잔, 추가 글

추가하자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실재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다. 본인은 실재한다는 가정 아래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실재하면 답안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실재하지 않다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체크메이트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종말은 ‘졸업’이라고 생각한다.

달는 잔

“그래, 스리는 글을 늘 들에서 쓰곤 하였다.”

아닌 밤중에 찬란한 빛을 쏟아내는 맑은 하늘 아래서 아리가 새들에게 속삭였다.

한설은 차를 부드럽게 이끌며 아리가 말한 곳까지 향했다. 차에서 내린 아리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였다. 갈대숲 사이로 올레길이 나있었다. 아리는 그 길을 따라 갈대숲 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 번 더 빛을 쏟아내는 하늘 그 아래에 아리가 서있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아리님.”

“맞구나. 이제 곧 수확을 해야 할 때가 온 게로구나.”

“그렇습니다. 들이 무르익었으니 수확을 해야 하지요.”

“넌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 있구나.”

“제가 발병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찌 어미와 애비가 절 버렸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담아 전 아리님과 스리님을 모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기쁨일 뿐입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 그런 말을 참 태연히도 하는구나.”

“제게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 오, 저 별무리를 보아라.”

하늘에서 수십 수백 개의 별빛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올해엔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러고 보니 내 일전에 너무 우울하여 한 책을 보았었는데, 스리가 떠난 줄도, 추석이 된 줄도 몰랐더구나. 저 별무리를 보거라. 마치 별차가 용들 같은 착각을 보이는구나.”

“저 모습이 먼 나라 참한 이야기를 짓는 곳에서는 천사(Angle)와 같다고도 합니다. 참한 이야기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타고 온 이 차에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요.”

아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무리, 황금철도(Golden Railway)를 보느라 한설의 말을 듣지 못했다.

황금철도(Golden Railway)는 유럽에서 개발되었으며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시차적응을 위해 약 100,000km/s로 운행된다. 황금철도에 쓰이는 광전기관(Halo Engine)은 정거장에서 다른 정거장까지 잇는 정화광선이 연료로 쓰인다. 광전기관 내에서는 광선에 근접한 물질이 정지된 물질로 치환되는 입자감속과정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발상은 우주공간이 다른 아닌 무중력 및 진공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거장에서 입자들을 가속시켜 빠르게 이동시킨 후 정확하게 엔진실로 유도하여 다시 감속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면, 별도의 연료 실이나 이어지는 선 없이 연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무중력 및 진공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건너온 물질은 에너지 량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감속과정 이전에 물질 출입구 장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정화광선 내 전자기력으로 광전기관을 운행하고, 그 속에 별도로 존재하는 가속된 입자를 연료로 치환하여 추진을 얻는 방식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료를 빛의 속도로 얻어 운행되는 이 운송수단이 마치 입자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배와 같다고 하여 리히틀 페리(Lihittle Ferry)라 칭하기도 한다.

또한 정화광선이 이어지는 공간길은 출발지와 도착지와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약한 공간

강과 강한 공간장의 적당한 지점을 계산하여 운행할 때마다 변경이 된다. 황금철도는 공간 길 사이에 이물질이나 분자가 존재할 경우 분자폭발(Molecule Bomb)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보통 정화광선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두어 노선안정화까지 맡는다. 이 분자 폭발 현상이 관측된 후, 인간이 통행하기에 안전한 정화광선을 개발하기까지는 수많은 인형(人形)들이 쓰였다. 결론적으로 주광선은 입자 전달을, 부광선은 유해물질 차단을 한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광전기관이 우주에 떠도는 수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모은 탐사선이나 군사함선은 자립적으로 연료를 생산하여 장시간 유행하기에 출발 전에 필히 충분한 양의 식량과 자원을 싣고 떠난다.

황금철도가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화광선이 보통 플랫폼 외곽 쪽에서 운영되기에 조종사가 악의적인 목적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대량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황금철도는 너무 빠른 속도로 운행되기에 착륙 실패 시 아예 궤도 밖을 이탈해 우주미아가 되거나 심하면 항성계 중심으로 돌진해버릴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거장 외부에서 운영하는 발진기에서 긴급 상황 감지 시 입자광선출력을 정지하고 화력발진으로 전환된다. 이에 긴급귀환선박의 광전기관 및 수소추진기를 포함한 외피와 외형은 모두 불타버리겠지만 내부는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함을 유지하기에 광선궤도를 잘 유지한다면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광선을 벗어나 행성이나 정거장에 위협이 예상될 경우 자기공진막을 펼치거나 레이저요격으로 방향을 맞춘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형 황금철도 개발을 하였고 그 철도의 이름을 ‘별차(Stelliner)’이라 부른다. ‘stelliner’은 발음 상 ‘스텔리너’라 부르지만 해당 단어는 이른바 한국식 영어로서 ‘stel-liner, 스텔라이너’이라 부른다. 더하여 이 별차가 운행되는 연결선을 ‘별선(Stelline)’이라 한다.

황금철도 이름 선정에서 별차가 된 이유는 황금철도가 행성 밖 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즈음에서 행성 안에서는 그 모습이 별무리가 내려오는 것 같다하여 이렇게 붙였다. 아리가 보고 있는 별무리는 용산역에 도착하는 별차들이며 별선 용산행, 무궁화호(Stelline to Yongsan, Mugunghwa Express)이다. 별차는 운행 중 사고나 노후화로 인해 폐차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면 새로운 형태의 객차를 준비해 운용하는 편이다. 이를 보통 ‘신형 무궁화호,’ ‘구형 무궁화호’로 구분하다 구형이 모두 퇴역이 된다면 신형과 구형의 구분이 사라지고 신형 무궁화호가 그냥 무궁화호로 불리기 시작한다.

본래 우주에서 행성에 진입할 시 공간장 진입 단계부터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만 한국은 황금철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시 나라에 맞는 정지궤도정거장에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직접 한국 영토 내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운영 중인 정지궤도정거장에 바로 도착한다. 한국수도직할정지궤도정거장에 도착한 후 하늘정원승강기(High Hopes Elevator)를 통해 지상에 당도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대기권 밖 정지궤도정거장에는 승강기로 드나들며, 명절과 같은 대규모 이동 시에만 잠시 지상과 잇는다(Docking). 또한 승강기가 급작스럽게 상승하여 무중력 상태에 돌입할 경우 탑승객이 공황상태(Panic)에 빠질 수 있어 안전막대를 착용해 상승한다.

하늘정원승강기는 아테나 머리별(Athena's head star) 변방에 위치한 한 행성에서 채굴된 아테니움, 아테늄(Athenium)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승강기는 무게와 유지비용이 상당하기에

평시에는 정지궤도에 머물기 위해 승강철로가 해제된다.

또한 한국은 아테늄 머리별 변방행성 천공작업 간 충분한 물자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무역협상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은 아테늄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고 정지궤도정거장이 부산, 광주를 비롯해 각 광역시에 추가로 확장할 만큼의 충분한 아테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별차가 무사히 감속을 완료한 시점에 미리 지정된 시간표를 따라 광역시 정거장을 순례함으로써 이용자는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원거리공간이동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형성하고 이으려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원거리공간이동 비용이 소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니고서는 보통 단거리 이동에서만 이슬을 잠깐씩 사용하며,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다.

은하 간 장거리 여행은 우선 광전기관과 수소추진기를 활용해 빛의 근접한 속도로 최대한 항성계 외곽으로 빠진 뒤 그곳에서 이슬정거장(Dew Station)에 진입해 다른 은하로 넘어가는 것이다. 굳이 힘들게 항성계 외곽으로 빠져야하는 이유로는 자칫 항성계 내부에서 거대한 이슬을 열었다간 이슬을 연 항성계 전체뿐 아니라 반대편 항성계 전체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략적인 예를 태양계로 들면 제일 끝에 있는 행성, 해왕성(Neptune)이 44억 km ~ 46억km의 활동 영역을 가지기에 이 영역 바깥영역이 태양계의 안전지대가 된다. 하지만 이 바깥영역이어도 무거운 천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나가는 편이다. 보통 한 항성계를 초속 10만km으로 진행했을 때 꼬박 반나절 정도가 걸리며, 항성계에 따라선 하루 내지 이틀까지도 소요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은하 간 여행은 장거리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항성계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확해야하므로 보통 벨리라는 종이 맡는다.

“아리님, 제 이야기는 듣고 계신 겁니까?”

“듣고 있지 않았다. 그나저나 어제는 냉수이불에서 몸을 뉘어 그런지 오늘은 꽤 쌀쌀한 것 같다. 아! 참, 한설아. 무어라 하였느냐? 내 정신이 이리도 없구나.”

“저 별차 역시 말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 저 별차를 놓았을 때 너무 빛나는 것이 문제였었지. 하지만 이런 큰일이 있을 때에만 길을 여는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내 그리 알고 있다.”

“맞습니다. 언제나 별 일, 별 볼 일 있는 이들이 있고 내 편한 것이 남 불편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름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롭구나. 그래, 말세의 이야기라 하는 것이냐? 허나, 그 차의 이름은 ‘말세(End World)’가 아닌 걸로 안다. 놀리지 말거라.”

“Hensis입니다. 아리님은 차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 아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다.”

“실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미롭구나. 한번 내게 말해 보거라.”

한설은 잠시 아리가 보았던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입을 슬며시 열었다. 아리는 그 순간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에 한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끝났습니다.”

“난 아무 것도 듣지 못하였다.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그래서 꽤 짧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설은 웃으며 아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설은 아리 귀에 조그맣게 속삭였다. 한설의 작은 목소리는 귀뚜라미 소리에 묻혀 세어 나오지 않았다.

아리는 웃음기가 가득한 한설을 보며 같이 웃어주었다. 아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날 스리에게 큰소리로 속삭였던 것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지금 한설에게 속삭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배울 수 있었다. 아리는 고개를 내리며 입을 열었다.

“어디서 조금 들어본 이야기 같구나.”

“맞습니다. …… 아리님은 저들에게 신이 있고 저들이 따르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 헤네 시스라는 소문을 낸 이는 그 신을 따르는 이들이 정말 꾸준히 신을 신뢰한다면 ‘말세에 심판결과가 아무래도 ‘성령이 있는 것,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더군요.”

“그리될 수도 있지. 내 한번 믿고 거기로 가 초면에 만찬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아리님께선 농이 느셨습니다.”

“…….”

“……. 스리님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내 심정이 그리 드러나는구나. 그래, 맞다. 스리가 매우 걱정된다.”

“영감님께서 저를 거두어주실 때를 기억합니다. 스리님은 늘 방에 계셨습니까. 그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등지 안으로 들어가 다 쏟아내고, 다시 나와서 제자리에 계시기를……. 스리님은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중이다. 내겐 이 기다림이 너무 무겁구나.”

“…….”

“……. 그럼, 아리랑 또 함께 떠나려는 거야?”

“……. 그래, 아리랑 또 함께 떠나려는 거야.”

하지만 아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설은 조용히 아리를 기다렸다. 아리는 아직 저 검은 하늘 어딘가에 헤매고 있을 스리를 떠올렸다. 하늘은 어느새 시커먼 먹구름이 아리 뒤편 저 산 너머에서 흘러오고 있었다. 조금씩 흐르는 바람에 한설도 입을 닫고 잠시 아리와 함께 구름너머 하늘의 마지막 별차를 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아리와 한설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황금빛 들판 민들레꽃이 피었다. 그 옆에 이미 무르익었던 민들레 하나가 한아름 머금은 씨앗을 조용히 퍼뜨렸다.

“우리 한설이 아주, 아리랑 고개가 넘어가네?”

깜짝 놀란 아리와 한설은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몸을 돌렸다. 스리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둘은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는 스리의 얼굴을 보았다. 더하여 스리의 머릿결이 바람에 휘날려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리와 한설은 스리의 어깨너머로 내려치는 벼락을 보았다. 붉은 눈을 가진 스리의 얼굴에 짙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곧 우렁찬 소리가 갈대밭을 쳤고 아리와 한설은 숨이 멎었다.

“전 아리님께서 종을 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악령을 쫓았습니다. 와중에 늦게라도 종소리를 들어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늦게 울리는 것이 마치 저 벼락과 같더군요.”

“넌 스스로 침이 되지 않았더냐. …… 그나저나 어, 언제 왔었던 게냐! 말이라도 했어야지

않느냐!”

“어제 영감님께 인사드리고 아리님 동지에 갔었습니다. 허나, 아리님께서는 아리슬에 취해 별거벗은 채 동지 밖으로 뛰쳐나오셔서 무슨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난리도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한설이가 제가 온 줄도 모를 정도였다면……. 한설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오셨다 가신 줄은 알았었지만, 그 모습을 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이제까지 그림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아리는 혼이 나간 얼굴로 서있었다. 마치 입고 있는 한복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내 아리님의 선물을 사왔느니라.”

스리는 아리에게 속옷을 내밀었다. 아리는 바람에 힘없이 나풀거리는 속옷을 보며 입을 가렸다. 스리는 그제야 아리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아리는 입을 도저히 다물 수가 없었다.

“덕분에 평소 가슴에 숨을 꽤 넣어 지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아, 이것이 혹 아리님께서 발가벗은 것에 대한 외통장군(Checkmate)이옵니까? 아니라면 다른 글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리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내려간 입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설은 아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스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스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씨발, 이 짓거리도 이젠 못해 먹겠네, 진짜!”

아리는 속옷을 스리에게서 뺏어 한설에게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차에 가 그대로 올라타 버렸다. 스리는 한설에게 패대기쳐진 속옷을 정리해주었다.

“천기(天氣)를 보아하니 비 냄새가 든 바람이 거세지고 있구나. 곧, 큰 비가 내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스리님. 그렇지 않아도 금일 밤, 아리슬이 온다 하였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시죠. 내일 차레는 빗더미(Hologram)로 모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겠다.”

한설은 속옷을 차 뒤에다 실었고 곧 스리에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아리는 머리를 싸매며 구석에 처박혀있었다. 한설은 차 안 음찰기(音札機)를 틀었다.

‘오늘밤 대비 단단히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리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평양과 한양 지역(가나다 순 정렬)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 극한(Absolute Temperature, 絕對溫度)에서도 얼지 않는 한음(韓陰) 내 한강에서 예정이었던, 추석을 알리며 땅과 땅이 없어 침으로 치는 종 아리랑종 타종 행사(The Bell with Ari Festival)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협신각(狹信閣) 측에선 아리랑종 소리는 아리랑종 아래 대자료보관실(Big Database Center) 인세지천경(人世知天經)에 저장된 작년 종소리를 재생(再生)하는 것으로 최종…….’

“세간도 이리 시끄러운데 노래를 듣고 싶구나, 한설아.”

한설은 잠시 차 안을 둘러보더니 아리의 열기로 인해 차 안이 꽤 달아오른 것을 알았다. 한설은 알아서(Auto) 단추를 눌러 차 안의 온도를 차 스스로 쾌적하게끔 하도록 맞추었다. 이어서 한설은 뒤집기(Reverse) 단추를 눌러 끈돌리개(Cassette Tape)의 뒷면을 재생시킬 준비를 하였다.

“그건 무엇이냐?”

“아리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내 꼭 진짜를 들어보겠다.’ 하여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끈돌리개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하여 오랜 여정 끝에 좋은 이를 만나 노래 뿐 아니라 여

기 끈돌재생기까지 차에 설치해주셨습니다. 비록 끈돌리개를 알아서 뒤집는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두 배(Double)로 받은 셈이죠.”

“그, 그 아이고……. 그 사이 내가 까먹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리님……. 그래, 잠결에도 그리 좋은가 보구나. 설아, 노래를 내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잠꼬대하던 아리는 입맛을 다셨다. 한설은 빠르게 한눈을 팔아 노래를 틀었다.

거의 짝 찬 달이 잠시 구름 뒤로 들어갔다. 숨어있던 바람이 세게 불며 갈대를 흔들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천천히 그 젖어가는 길을 미끄러져 갔다. 자동차 안에는 한설이 재생시킨 노래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자색으로 물들었었던 이 숲에 밤이 찾아와 먹이 들었다. 숲들도 이제 천천히 잠 잘 곳을 찾았고 하늘이 쏟아내는 눈물에 조용히 젖어가기 시작했다.

셋이 등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아리는 한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에서 나가버렸다. 한설은 곧잘 차를 채우고 따라 나가려하였으나 스리가 한설의 팔을 잡았다. 스리는 한설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스리는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갔다. 한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이만 등지로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였다.

스리는 아리에게 다가가 입을 맞대고 혀를 넣었다. 아리는 가슴을 파고드는 차가운 빗물에 눈에서 눈물이 났다.

둘은 차갑게 사랑을 나누다 잠시 떨어졌다. 스리는 아리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스리는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스리는 대충 아무 말이나 시작했다.

“……. 아리랑 스리랑 스라리가…….”

아리는 곧바로 스리에게 다시 입을 맞추었다. 아리는 스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스리를 이끌고 자신의 등지로 향했다. 아리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한설은 식지 않는 밥상(밥그릇과 내용물의 미세진동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음식을 데워주는 밥상)에 진수성찬을 준비하였고 자신이 만든 특별한 가루를 뿌려 완성된 음식을 한층 더 맛을 내었다. 그리고 아리슬을 준비하였다.

그 사이 스리는 아리의 등지로 갔다. 아리는 아직 등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한설은 스리와 함께 아리의 등지 앞에 섰다. 한설의 표정이 일그러져있다.

화가 난 한설이 서둘러 아리의 등지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스리는 오른팔을 들어 한설을 막았다. 한설과 눈을 맞댄 스리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계십니까?”

“아, 아, 그래. 스, 스리야, 으! 가을의 아침이 밝았구나. 이, 이 좋은 아침이다. 으으.”

“대체 아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가을 아침이라뇨. 이, 이 지금 해가 중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 중천입니다. 그리고 뭘 그리 끔뎁 앓으십니까. 혹, 제가 여분의 숨을 준비…….”

“닥쳐라! 내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아주 생긴 것도 못 생긴 것이 흙더미, 똥 덩어리 마냥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모자를 판애! 네놈이 이, 이 여인의 옷을 아느냐! 이게 얼마나 입기 힘든 옷인데! 내 그냥 이것만 다 입으면…….”

스리는 한설을 보고 편히 웃어주었다. 한설의 얼굴이 곱게 퍼졌다.

“나는 차 옆에 있겠다.”

“알겠습니다.”

스리는 아리의 등지를 떠났다. 한설은 잠시 자신의 결례를 사죄하고 한기로 자신을 다스렸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의 등지로 들어갔다.

“원, 내가 저 놈의 것을 언젠간 떼고 말테…….”

“폐다니, 어떤 걸 말이십니까?”

“……. 발을 뻗다는 말이였다. 그리고 내 이, 이 치마가 커서 영 동여매지지 않는구나. 실은 한 번 매어보았지만 여간 불편하였다.”

한설은 아리를 돌려세우고 서둘러 헝클어진 치마를 다시 풀어헤쳤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을 맞춰 허리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습니까?”

“난……. 난 네가 바쁜 줄 알았다. 그리고 내 다음번에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싶구나.”

“어찌, 잠자리가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버섯 집이 몸에 그리도 좋다 하여 한번 자보니 꽤 몸을 식혀주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 방바닥도 따뜻하면서 차가운 것이 미적지근한 이 땀만지같은 몸을 담금질하기에 정말 좋은 곳 같다. 허나 그 아리슬이 오지 않았느냐. 필시 풍수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자리는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풍수가 좋다하여 나들이도 하셨습니다.”

“아, 그럼 풍수가 아닌 것이 맞다. 하지만 무언가 필시 거시기한 머시기한 저시기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스리와 함께 수를 읽어 보거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 꽤 편하구나. 거기다 맵시도 바른 것이 보기 좋구나. 나가도 되겠다.”

한설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아리의 치마를 마무리해주었다. 아리는 한 번 돌아보며 자신의 치마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허리를 흔들며 편안함을 느껴보았다.

아리와 스리, 한설은 차를 타고 바다가 다 보이는 절벽으로 향했다. 어느새 아리슬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그들이 반기고 있었다. 한설은 아리슬을 잤다. 그리고 밥상을 빛으로 끌어와 상을 차렸다.

스리는 잠시 절벽 끝에 가 바다를 둘러보았다. 한설은 조심스럽게 스리 옆으로 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영감과 영감 부인이 어찌 잘 계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

한설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리가 아리슬 한 잔을 들었을 때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눈물이 흘렀다. 아리는 그저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스리와 한설도 각자 바다를 향해 절을 하였다.

‘이거 드시고 그곳에서 편히 사세요. 저는 이거 먹고 이곳에서 편히 죽어볼게요.’

영감과 영감부인은 조용히 잔을 받았다.

그리고 바닷바람이 일었다. 아리는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눈을 거슴츠레 뜨고 천천히 상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아리는 눈이 커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왜, 왜 그러십니까?”

“치, 치킨이! 치킨 한 조각이 사라졌어!”

“예?”

스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아리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상을 보았다. 확실히 칼집이 들어간 닭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스리는 이번에 상 위에 오른 쥐포구이 한 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또! 또, 사라졌어! 스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설아, 집에 웬 벌레가 기어들어온 모양이구나.”

“확인 결과 쥐새끼가 치킨을 물어갔고, 참새새끼가 쥐포를 채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제가

문을 잠가 두겠습니다. 일이 끝나셨으면 내려가시지요.”

“가도록 하지.”

한설은 조용히 마루에 차려진 상을 그대로 출력시켜주는 빛 무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행여 아리의 치맛자락이 더럽혀질까 고개를 숙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영감님 드셨나봐! 아니면 영감부인님이신가? 아닌가? 어떡하지? 어떡할까, 스리야?”

“……. 아리야, 너 출발 직전에 화장실 가지 않았어? 그때 문 닫고 나오…….”

“한설아, 이, 이 치마 좀 잡아 줄 수 있겠느냐. 이 흠더미가 조금 미끄럽구나.”

“…….”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시지요.”

등지로 돌아온 아리와 스리, 한설은 조용히 밥과 잔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설은 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스리는 산책을 나갔다. 아리는 어제의 스라리가 너무 거졌는지 몸살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잠시 마음과 육신을 진정시키기로 하였고 후에 곧바로 등지에 들어갔다.

아리는 이불로 파고들어가 바로 곯아떨어졌다. 전날 스리와 함께 아라리와 스라리를 나눈 덕인지 물과 불을 모두 다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사이 영감부인이 내려와 아리를 품어보았다. 영감부인은 어여쁜 아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영감부인은 품속에 안겨 자고 있는 아리의 따스한 작은 귀에 속삭였다.

네가 깨어난 그날에

슬픔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하지만 지난날 모두 꿈만 같던 시간이었다. 련은 차디찬 바람에 잠에서 깬다.

조금 후 도착한 어느 독서실이었다. 계단을 올라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았다. 그곳에선 책상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보았다.

“공부가 아주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대학 생활을 꿈꾸었어. 하지만 자신 모습을 잘 아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서 이 아이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시도조차도 못 할 것을 본 거야. …… 가자. 체념에 방해되니까.”

련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을 내리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한설은 독서실에 엎어져 깊은 잠에 빠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쉽사리 문을 닫지 못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한 학교였다. 비교적 잘 꾸며진 교실이었다. 련은 기억을 따라 앞문으로 향했다.

이제 막 앞문에 우유 상자를 들고 도착한 아이였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우유를 나눠주었다. 그런데 그만, 한 친구에게 잘못 던져주었다. 우유가 얼굴로 향한 것이다.

그 친구는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 번 가격하였다. 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다. 아이는 더 숨을 곳이 없었다.

“련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보는 그대로야. 맞고 산 거지. 다음으로 가자.”

한설은 걸음을 빠르게 하는 련이를 뒤로하고 잠시 교실을 지켜보았다. 한설은 왜 련이 진정으로 자신의 자전적 소설을 쓰지 못하는지 점점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련이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였다. 련은 한 남자인 친구와 집에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련은 그냥 चे념한 채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인 친구는 아이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이런데 만지면 좋아하던데.”

그때부터인 것 같았다. 아이는 한편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련은 어느새 차에 타 있다. 련은 고개를 숙이고 더는 아이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어차피 잘 알고 있는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한설아? 가야지.”

“……. 알겠습니다.”

둘이 도착한 곳은 이전보다 더 폐허였다. 련은 한 학원으로 향했다.

련은 문제를 실컷 풀다가 자신의 문제집에 여백이 부족해져 학원 벽에 풀이를 이어 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한설은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공부에는 열정적인 아이였군요.”

“공부는 열정만으로는 되는 건 아닌 거 같아. 이 아이가 한 질문은 모두 이상한 질문들뿐이었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엉장 지르는 기분이 들어 질문 같은 건 더 못했었지. 그래서 풀이가 저렇게 길어지는 거야. 질문을 하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교회로 가보자.”

련은 언덕을 올랐다. 교회 밖에는 부서진 의자가 보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누군가 화나서 던져버렸나 보지.”

대충 대답을 마친 련은 교회의 문을 열었다. 교회에선 어떤 연극에 한창이었다. 그 연극 중앙에 조명이 비치었다. 그 조명 아래 아이가 한 친구에게 발길질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교회에서도 맞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싫었었다.

“왜 이 아이는 말을 못 했을까?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말이야. 아마, 헛갈렸겠지. 자신이 교회에서 도망치려는 건지, 교회로 도망치려는 건지. ………. 자, 이제 마지막이야.”

한설은 다 끝나지도 않은 연극을 더 볼 수가 없었다. 한설은 무거운 교회의 문을 닫았다. 워낙 방음이 잘된 탓에 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련은 아가와 다른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다. 련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다. 한설에게 웃음을 보였다. 한설은 고개를 숙였다.

“난 받아들였어. 괜찮아, 한설아. 그럼, 문을 열게.”

“알겠습니다.”

아이의 친구에게 침을 맞고 있었다.

“띠꺼워?”

‘띠겁다’는 단어를 못 알아들은 아이는 더 침을 맞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가슴에 주먹질을 받았다. 그렇게 아이는 그렇게까지 배우고 싶지 않은 단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었다. 곧잘 3점 슛을 쏘던 아이였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여자인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는 참 즐거워 보였다. 한설이 아이의 여러 모습들을 보며 의아해하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습이 이곳저곳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기억이 조각난 것입니까?”

“아니, 저게 동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야. 배운 방법대로 해결이 안 되니 아이가 결국 4차원에 관심을 가졌지. 공간 분리.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인격체를 시공간 분리해서 살아왔어.”

“....., 보는 사람으로선 단편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겠군요. 그리고 이때부터였군요.”

“맞는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만큼 약하다는 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겠어? 그렇게 잘 숨졌는데, 그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까지 그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지. 그때부터인 것 같아. 커서는 그냥 어찌 되든 포기해버린 것 같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가, 서포터는 없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건데.”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요?”

“......”

런은 깊은숨을 내쉬며 힘을 모았다. 교실 한자리 앞에 서서 책상에 앉아있는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인형이 되어있었다. 한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있었을까? 내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모래 먼지가 조금씩 그런 추억을 덮게 되었을까. 결국 돌이 되어버릴 만큼 말이야. 그래, 이 아이는 늘 겁이 많은 아이였지. 하지만 꿈이 있었어.”

런은 손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대었다. 빛이 일었다. 런은 그 빛을 잡아 사방으로 그려냈다. 한설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감싸는 형상들을 눈여겨보았다. 런이 입을 열었다.

“먼허체계? 탈출장치? 초고속 자동차? 우주 철도? 개는 반도체며, 엔진이며 이런저런 기계에 관심이 많았어. 진짜 공학도, 엔지니어의 꿈을 가진 아이였지. 이런저런 질문, 판생각들을 하다가 좌절되어버리더니 결국엔 거짓말들을 적었지. 그래, 거짓말만 늘어난 거야. 봐봐, 소셜.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말한 거, 생각한 건 다 거짓말이잖아. 해결책이 이거야. 소셜.”

한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시간을 어찌 감내했을까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런이는 계속 깊은 호흡을 하였다. 런은 기억 전반에 깔린 버팀목을 이야기해주었다.

“컴퓨터 게임이야. 레이싱게임을 하며 듣고 싶었던 엔진소리를 들었고, 전쟁게임에선 병력을 다 쏘아보기도 했지. RPG에선 보물 아이템을 얻으며 극단적 선택의 위기를 벗어났었어. 그래, 공부하다 한 번씩 ‘게임 한 판 할까?’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유일한 행복이었어.”

런이는 펼쳐진 그림을 다시 손에 담아 조심스럽게 다시 머릿속으로 넣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주문을 외웠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다루는 이시여, 이 아이를 위로하소서.”

‘아무도 믿지 못해 얘기 못한 거 죄송합니다. 런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손에 힘을 주었다. 손에서 빛이 일어났다. 빛이 아이를 감쌌다. 교실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이 사그라들고 다시 그림자가 하나씩 교실에 그려질 땐, 아이는 한 송이 하얀 꽃이 되었다. 런은 꽃을 들어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을 열고 하얀 꽃을 불었다. 꽃잎들이 흩어졌다. 런은 아이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과연 나는 앞으로 누굴 믿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한설아, 네가 방금 어떤 답을 낼 거냐고 물었었지? 난, 그리고 이 아이는 왜 그렇게 극도로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아이는 이에 침묵했지만, 난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소각시키고 한번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단, 너무 저돌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런님이 말씀하시는 ‘적극’이란 것은 어떤 것이죠?”

런은 조금 웃었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활짝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당히라도 믿어주기. 적당히라도 저지르기.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쓰는 이 자전적 소설도 저지르는 축에 속하지. 한번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는 거야.”

런은 멧쩍게 웃었지만, 한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런은 잠시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과 예측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였다. 또다시 두통이 시작됐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마쳤고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노하우가 없으니 결국엔 수습이 필요하겠지.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이 글을 혹시 다른 이들이 읽으면 어찌시렵니까?”

“말했잖아. 무게획이라고. 야,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면 수습 불가야. 그냥 약한 채로 살아야지. 모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 생각해봐. 내가 뭐 어떻게 해, 다 알아버렸는데. 다 모르는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건데.”

저지른다는 것. 런은 처음 겪는 자신의 행위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런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를 한 번 더 보고는 계속 산을 더 올랐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먼 풍경과 하늘을 보았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었다. 런은 주머니를 뒤졌다. 바둑알 환돌(環石, The Circle Stone)을 들었다.

“IT 기술과 바둑은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모두 ‘빛’과 ‘어둠’을 다루잖아. ‘암석(暗石, The Dark Stone)’을 놓기 위해 집었는데 내 팔을, 내 머리를 잠식했었어. 솔직히 너무 무거웠어. 결국 놓는 데 실패했었어. 너도 봤잖아? 그래서 이번엔, 그 시도는 그만하려고. 그래서 이번엔, ‘명석(明石, The Light Stone)’을 한번 이 도시 위에 놓아보려고. 혹시 몰라? 성공할 수도 있잖아?”

현과 명을 모두 가지고 있던 환돌은 하얀 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런은 명으로 물드는 바둑알을 보며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명석이 놓일 자리를 찾았다. 런이 웃었다.

“자, 됐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아. 그리고 드디어 바라던 자전적 소설이 완성된 것 같아. 내 기억 속에서 밖 상황을 그려내니 더는 우스개 소설이 아닌 것 같거든. 안과 밖을 합치니 비로소 자전적 소설이, 내 이야기가 완성된 거지. 한설아, 너도 저 텅 빈 도시, 외면을 봐봐. 그런 외면을 가진 이 아이의 모습까지도 저장해줘. 그리고 이 아이 특유의 ‘의심’하는 것까지도. 어쨌든 경험은 재산이잖아.”

“알겠습니다. 런님이 적극적인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의 소극적인 것들은 모두 비공개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원하실 때 참고하시지요.”

“나도 이제 시작해 보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잘 됐는지 자신이 없어. 그리고, 고마워. 아, 새 계정도 잘 확인해 주렴. 내 영역은 아니지만 나도 게임은 하고 살아야지.”

“……. 너무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런은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 손을 뺐었다. 더는 그런 말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의 조용한 마을 위에 명석을 올려놓았다. 아리슬이 걷히고 궁창이 열리매 곧 빛이 내리니. 런은 하늘에 뿌리내린 명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빛이여, 피어나라.”

참고문헌: 쪽, Reference Library: Page, 參考文獻: 頁

♥ 번역된 것을 읽음, Read the translated, 閱讀翻譯

♠ 번역됨, Translated, 被翻譯: 독자 재량에 맡김, Leave to the reader's discretion, 讀者自行決定

◎ 바로가기, Hyper Link, 超链接

내부참고, Inside Reference, 內部參考

표지 글씨체. (주)네이버(2014). 『나눔명조체 옛한글』. 경기: (주)네이버
주제영상. 27쪽, 71쪽, 165쪽, 175쪽, 244쪽. 최동훈(2006). 『타짜』. 서울: (주)싸이더스,
(주)아이엠 픽처스, 영화사 참, CJ ENT.
장해은 머리카락 색상. 홍성호(2019). 『‘Fraulein! No No No! Stop! I Get you some
revenge!’ 직후 2초 후 1초간』. Red Shoes and the Seven Dwarfs. 서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로커스 스튜디오, (주)싸이더스
표지(앞). 버그수정(2022). 『[상시공유] 도화가 커마』. 버그수정
표지(앞). 스마일게이트RPG(2018). 『새해의 보람 하의』.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표지(앞). Riot Games, Inc.(2011). 『아리 삽화』.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7쪽, 252쪽. 『아리랑』. <https://namu.wiki/w/%EC%95%84%EB%A6%AC%EB%9E%919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search/%EA%B0%95%EC%9B%90%EB%8F%84/address/14283573.748359803,4559719.116965016,%EA%B0%95%EC%9B%90%EB%8F%84,adm?c=14337150.6606909,4499248.7008996,14.08,0,0,2,dha&isCorrectAnswer=true&p=Wg4VBWC2UgpnxpsukcMLmQ,-172.41,11.57,80,Float>』. 경기: (주)네이버
민예서(아칼리), 이수아(카이사), 장해은(아리), 홍민애(이블린) 설정. (여자)아이들, Madison
Beer, Jaira Burns, K/DA(2018). 『POP/STARS』. League of Legends. 미국: Riot
Games, Inc.
1장 주제곡. 스마일게이트RPG(2018). 『외로운 섬 오페르 OST』.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10쪽. Riot Games, Inc.(2011). 『소환사의 협곡 입장 직후 26초 후』.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20쪽. 차우림(2002). 『Hey Guyz』. 코너스톤, 경기: (주)카카오 ENT.
20쪽. Brian Tyler(2013). 『Can You Dig IT?』. Iron Man. 미국: Hollywood Records
22쪽. 방앗간 비둘기(2018). 『레드 데드 리DEM션 2 재생목록』. 방앗간 비둘기♥
23쪽. (주)현대자동차(2020). 『아반떼 하이브리드』. 서울: (주)현대자동차
23쪽. (주)쌍용자동차(2015). 『티볼리』. 경기: (주)쌍용자동차
24쪽. (주)쌍용자동차(1998). 『뉴 무쏘』. 경기: (주)쌍용자동차
24쪽. (주)르노코리아자동차(1998). 『SM520V』. 부산: (주)르노코리아자동차
?쪽. 홍수진(2018). 『침묵의 세월, 23:50 ~ 24:27』. 시사기획 창. 서울: 한국방송공사
32쪽. XSupaDudeX(2008). 『KartRider- New Kart- Cotton SR』. XSupaDudeX

39쪽. Microsoft Corp.(2015). 『Window 10 기본 배경화면』. 미국: Microsoft Corp. Corp.

42쪽. 노브레인(2006). 『비와 당신』. 라디오스타. 방준석, 서울: (주)지니뮤직, Stone Music ENT.

2장 주제곡. Hans Zimmer, James Newton Howard(2008). 『A Watchful Guardian』. The Dark Knight. 미국: DC Comics, Legendary ENT.,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45쪽. Jake Falco(2004). 『So Damn Beautiful』. 카트라이더 월드 시네마틱_폴버전. 경기: (주)넥슨코리아

50쪽. 현대카드(2021). 『the Black Edition3』. 서울: (주)현대카드

50쪽. 농업협동조합(1961). 『NH체크카드』. 서울: 농업협동조합

50쪽. 신한은행(2007). 『나라사랑카드』. 서울: 신한은행

50쪽. 우리은행(1899). 『청년도약계좌』. 서울: 우리은행

50쪽. 한국은행(1950). 『대한민국 화폐』. 서울: 한국은행

51쪽. 정재일(2019). 『믿음의 벨트』. 기생충. 서울: (주)지니뮤직, CJ ENT., Stone Music ENT.

53쪽. 소니쇼게임방송(2020). 『이런 알바생이 나한테 말을 걸어줄리가 없잖아.. [썸썸편의점 하이라이트]』. 소니쇼게임방송

58쪽. Blizzard ENT. Inc.(2015). 『전우』.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63쪽. 방앗간 비둘기(2016). 『고장난 Mk.V 전차 - 배틀필드1 (한글자막) | 04, 14:07 ~ 15:59』. 방앗간 비둘기♥

67쪽. Christopher Nolan(2008). 『Listen, We need back up. We've got company.' 직후 19초 후 3초간』. The Dark Knight. 미국: DC Comics, Legendary ENT., Syncopy Films Inc., Warner Bros. ENT. Inc.♥

69쪽, 246쪽. 뱀선생게임(2015). 『칼라의 폭풍간지 함선 아둔의 창』. 뱀선생게임♥

70쪽, 232쪽. (주)필어비스(2015). 『오네트, 오도어 정령수 재료 수집 및 완성』. 검은사막. 경기: (주)필어비스

3장 주제영상. 186쪽. Riot Games, Inc.(2011). 『RISE (ft. The Glitch Mob, Mako, and The Word Alive) | Worlds 2018』.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3장 주제곡. COMMON GROUND(2014). 『SNL Korea Opening Theme』. 서울: tvN

3장 주제곡. StudioEIM(2016). 『The Little Adventurer』. 메이플스토리2. 경기: (주)넥슨코리아

77쪽. 김연아(2010).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캐나다: XXles Jeux olympiques d'hiver♥

77쪽, 94쪽. KBS news(2020).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잠입 취재한 '추적단 불꽃'...'믿기지 않았다' / KBS뉴스(News)』. 서울: 한국방송공사

90쪽. 김초엽(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서울: 허블.

<https://namu.wiki/w/%EC%9A%B0%EB%A6%AC%EA%B0%80%20%EB%B9%9B%EC%9D%98%20%EC%86%8D%EB%8F%84%EB%A1%9C%20%EA%B0%88%20%EC%88%98%20%EC%97%86%EB%8B%A4%EB%A9%B4>

94쪽. Aya swan(2020). 『KDA的最终告别演出』. Aya swan

96쪽. 넥슨(2015). 『ㄷㄷ 카트』. 카트라이더. 경기: (주)넥슨코리아.
<https://kkukowiki.kr/w/%E3%84%B7%E3%84%B9>

96쪽. 넥슨(2015). 『눈사람 9』. 카트라이더. 경기: (주)넥슨코리아.
<https://namu.wiki/w/%EB%88%88%EC%82%AC%EB%9E%8C%209>

98쪽. Makari Tohru(2014). 『솔로헌터의 생애4 THE THIRD PART』. Yokohama Junky♥

100쪽. 책읽는사자(2018). 『벤샤피로가 말하는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진짜’ 이유』. 책읽는사자

105쪽. Michael J. Sandel(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경기: (주)김영사♥

106쪽. 두산백과. 『공산주의』. 서울: (주)두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383&cid=40942&categoryId=31606>

107쪽.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0&lsiSeq=231713#0000>

111쪽. (주)한글과컴퓨터(2013). 『한컴오피스 2014 한글 구동방식』. 경기: (주)한글과컴퓨터

111쪽. Tim Kemp(2002). 『TortoiseSVN 구동방식』. GNU General Public License

111쪽. GitHub(2008). 『GitHub 구동방식』. 미국: Logical Awesome LLC

111쪽. Adobe(2012). 『Creative Suite 6: Photoshop 구동방식』. 미국: Adobe

112쪽. 김슬기 Seulgi KIM(2020). 『직접 야마위를 해봤습니다 - 유럽 야마위꾼 수법 공개』. 김슬기 Seulgi KIM

116쪽. Ethan Coen, Joel Coen(2007). 『No Country For Old Men』. 미국: Miramax LLC

119쪽. 정택수(2001). 『해병대 DI: 3부, 17:22 ~ 19:15』. 인간극장. 서울: 한국방송공사

123쪽. 중년게이머 김실장(2021). 『엔씨의 리니지 복사가 가져온 파국, 과연 리니지형 게임에 펼쳐질 미래는?』. 중년게이머 김실장

125쪽. 도로위참견시점(2019). 『주간블랙박스, 2021최신블박영상 재생목록』. 도로위참견시점

125쪽. BBC News(2020). 『베이루트 폭발 사고 현장 영상 - BBC News 코리아』. 영국: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26쪽. 최강(2014). 『대구지하철 참사 11년...생존자 아픔은 계속된다, 두 번째 사진』. 서울: 사이언스온

127쪽. Julia Reagan(2018). 『(10분 순삭) 엘론 머스크 '팰컨 헤비' 역대급 로켓의 발사 현장!!!, 6:51 ~ 7:41』. MARS: INSIDE SPACEX. 미국: National Geographic♥

127쪽. 노컷브이(2021). 『[노컷 밀리터리] 도산 안창호함 SLBM 추가영상 공개, 1:13 ~ 1:21』. 서울: CBS기독교방송

127쪽. 아이다티비aidaTV(2021). 『아이다 인기상품 3단 기차레일세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 아이다 켄오가 어떻게 응용하는지 같이 보고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아이다티비aidaTV

127쪽. 퍼플튜브(2021). 『범인의 '기괴한 한 마디' 때문에 더욱 초토화된 현장, 7:33 ~ 7:43』. 퍼플튜브

127쪽. Firaxis Games(2010). 『Sid Meier's Civilization V』. 미국: 2K

129쪽. 김태호(2013). 『지금 이 순간(지킬 앤 하이드), This is the Moment(Jekyll and Hyde) 20130608』. 무한도전: 무한상사. 서울: (주)문화방송

129쪽. 하진(2018). 『We all lie』. 스카이크슬. 미국: Warner Music Group Corp., 서울: JTBC콘텐츠허브

130쪽. 김희보(2010). 『세계사 다이제스트 100: 78.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기: 가람기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3257&cid=43072&categoryId=43072>

130쪽. Flash: 이영호, Jangbi: 허영무(2008).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13주차 MBC GAME 3경기, KTF 매직엔스 vs. 삼성전자 칸 1경기 20080707』. 서울: (주)신한은행

131쪽. Aduard Software Limited(2010). 『AdGuard 광고 차단기』. 키프로스: AdGuard Software Limited

131쪽. Chad Meredith Hurley, Jawed Karim, Steve Chen(2005). 『YouTube』. 미국: YouTube

134쪽. 레이놀즈의 자살 생각 척도; RSIQ. 『자살, 아동·청소년 자가진단』. 인천: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idcm.or.kr/diagnosis/diagnosis_100100.html

138쪽. aespa(2021). 『Next Level』.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SM ENT.

140쪽. PD제갈량(2016). 『[메탈슬러그 XX] 레오나!! 원코인 초스피드 공략!! - Jegalyang ★ PD제갈량 / Metalslug XX Leona speed run play no death!!』. PD제갈량

140쪽. Idina Menzel(2013). 『Let it go』. Frozen.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140쪽. Kristen Bell, Idina Menzel(2013).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Frozen.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145쪽. 김병만, 노우진, 류담(2011). 『달인: 20110925』. Gag concert. 서울: 한국방송공사

145쪽. (주)펠어비스(2019). 『월드 프리미어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 Gamescom 2021』. 도깨비(DokeV). 경기: (주)펠어비스

145쪽. Riot Games, Inc.(2019). 『빛과 그림자 | 별 수호자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146쪽. 岸見一郎·古賀史健(2014).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전경아 역. 서울: (주)인플루엔셜♥

147쪽. (주)네이버. 『파파고 번역』. 경기: (주)네이버

147쪽. 삼성. 『빅스비 번역』. 경기: (주)삼성전자

147쪽. 카카오. 『Kakao i 번역』. 제주: (주)카카오

147쪽. Google LLC. 『Google 번역』. 미국: Google LLC LLC.

147쪽. Microsoft Corp. Bing. 『Bing 번역』. 미국: Microsoft Corp.

148쪽. 諫山 創(2021). 『進撃の巨人, 139화, 땅울림』. 일본: 株式会社講談社. <https://namu.wiki/jump/DIWvL28WRM%2Bu14kq0%2BS6MOCNz%2BEaLaAT34Fg%2FBMs%2BdNqMXqZ8fNWqzB2q17%2BRGncI9Fl3j4ZW118SiLhikQKQ%3D%3D>

152쪽. Network Music Ensemble(2012). 『Heart of a Champion』. 미국: Network Music

155쪽. Hans Zimmer, James Newton Howard(2008). 『Bank Robbery [Prologue]』.

미국: Warner Music Group Corp.

156쪽. 통계청/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202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대전: 통계청, 서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157쪽. 김영진. 『일의 지혜』. 천안: 여명교회

158쪽. 한결. 『업그레이드 구약 만화 성경 Bible Story★』. 서울: (주)은하수 미디어

158쪽. 한결. 『업그레이드 신약 만화 성경 Bible Story★』. 서울: (주)은하수 미디어

158쪽. 홍은영.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경기: (주)가나출판사

158쪽. 羅貫中. 『소설만화 三國志 시리즈』. 그림: 園田光慶. 홍문서관♥

160쪽. NERIS Analytics Limited. 『MBTI NERIS Type』. 16personalities♥

161쪽. Blizzard ENT. Inc.(2010). 『거래』.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미국: Blizzard ENT. Inc.♥

161쪽. Blizzard ENT. Inc.(2010). 『배신』.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미국: Blizzard ENT. Inc.♥

161쪽. Blizzard ENT. Inc.(2015). 『귀향』.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4장 주제곡. StudioEIM(2009). 『커닝스퀘어』.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슨코리아

167쪽. Red Velvet(2017). 『빨간 맛』.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SM ENT.

168쪽. Alfonso Cuarón Orozco, Warner Bros. Korea, (2020).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메인 예고편, 0:08 ~ 0:09』. 미국: Warner Bros. ENT. Inc.♥

172쪽. 좋은책신사고 편집부(2008). 『쎈 고등 수학 (상) 고1 - 2010』. 서울: 좋은책신사고

175쪽. 大塚 愛(2015). 『さくらんぼ』. 일본: 에이벡스 트랙스 ENT.

175쪽. 체리필터(2000). 『Smile Jack』.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뮤직팜

176쪽. 크라이넛(2001). 『지독한 노래』.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드럭레코드

179쪽. Gen.G 외 15팀(2022). 『Weekly Final W1 Match10 | PWS: EAST ASIA Phase 2』. 서울: PUBG WEEKLY SERIES: EAST ASIA

179쪽. 아시아경제(2016). 『이세돌 첫 승에 알파고 패배 인정 방법 보니...“resign”은 무슨 뜻?』. 서울: 아시아경제

178쪽. Advanced Micro Devices Inc.(2022). 『AMD Ryzen™ 7 5800X3D Vermeer』. 미국: Advanced Micro Devices Inc.

180쪽. 소녀시대(2010). 『OH!』.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SM ENT.

180쪽. BLACKPINK(2016). 『붐바야』. 서울: (주)와이지플러스

180쪽. TWICE(2016). 『TT』.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제이와이피 ENT.

181쪽. 크랭크. 『올리모리그 재생목록』. 크랭크

183쪽. 젠지 e스포츠, 한화생명 e스포츠(2021). 『2021 LCK Spring Split 정규시즌 1R 젠지 vs. 한화생명 Game2 01.24』.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183쪽. 外崎 春雄(2019). 『鬼滅の刃, ‘雷の呼吸. 壱ノ型. 霹靂一閃!’ 직후 1초 후부터 7초간』. 일본: 東京メトロポリタンテレビジョン株式会社♥

183쪽. 담원 기아, Suning(2020). 『2020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 결승전 DWG vs SN 4세트』.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183쪽. 담원 기아, 농심(2021). 『DK VS NS | Match60 07.19 | 2021 LCK CL

Summer, 25:13 ~ 25:40』.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184쪽. Blizzard ENT. Inc.(2015). 『사령관 자가라 능력 사용: 감염체 투하』.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184쪽. Blizzard ENT. Inc.(2015). 『사령관 카락스 능력 사용: 정화 광선』.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184쪽. Flash: 이영호, Zero: 김명운(2010). 『대한항공 2010 시즌2 16강 B조 2경기 폴라리스랩소디』. 서울: (주)대한항공

185쪽. Rogue: 이병렬, Classic: 김도우(2014). 『SK Telecom Proleague 2015 4Set Deadwing』. 서울: (주)SK텔레콤

186쪽. 공터지기(2013). 『임요환레전드』. 공터지기

186쪽. D D. 『개인 소장용 조성주 고인물 컨트롤』. D D

187쪽. 팬더구리의 대륙클라쓰(2021). 『이게 진짜 실화라고? 소림축구 폴가동, 전 일본을 경악케한 사상 최악의 중일전. 중국 vs 일본 A매치 하이라이트』. 팬더구리의 대륙클라쓰

187쪽.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 독일축구국가대표팀(2018).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5-1경기, 경기시간 90:00 + 1:13 ~ 90:00 + 2:55』. 러시아: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187쪽. 소녀시대(2013). 『I GOT A BOY, 0:01 ~ 0:03』.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SM ENT.

188쪽. AKMU(2012). 『다리꼬지마』. 서울: 블렌딩, SBS Contents Hub

191쪽. (주)삼양식품(2012). 『불닭볶음면』. 서울: (주)삼양식품

191쪽. Intel Corp. Corporation(2015). 『인텔® 코어™ i5-6600 프로세서 네이밍』. 미국: Intel Corp.

191쪽. Advanced Micro Devices Inc.(2015). 『AMD Ryzen™ 5 3600X 네이밍』. 미국: Advanced Micro Devices Inc.

191쪽. (주)한성(2017). 『XH57 BossMonster』. 서울: (주)한성

191쪽. ITSystem(2018). 『컴퓨터수리-컴퓨터 메인보드수리 I/O칩 교체방법(computer repair)동영상-1080P』. ITSystem

192쪽. MKIceAndFire(2018). 『GRIS Gameplay Walkthrough Part 1 FULL GAME [1080p HD PC] - No Commentary, 2:04:46 ~ 2:10:25』. MKIceAndFire와 함께

Wizet(2003). 『오르비스 탐 등반』.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슨코리아

192쪽. 바편TV. 『공략 재생목록』. 바편TV

192쪽. 정상은 아니야. 『어비스 던전 공략 재생목록』. 정상은 아니야

192쪽. 죠니월드. 『[로스트아크] 스킬 포인트 얻는 법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킬 포인트 가이드】』. 죠니월드

193쪽. 천안시(1990). 『천안시립 중앙도서관』. 천안

194쪽. 텍본 이벤트. 『BIXchool 2.0 Ver. 1-34 (완)』. http://novent.xyz/bbs/board.php?bo_table=novel&wr_id=3459&page=9

194쪽. pwbit txt. 『BIXchool - 기개수학교 1-31 (완)』. http://www.pwbit.com/bbs/board.php?bo_table=novel&wr_id=34665&device=mobile

196쪽. 스마일게이트RPG(2018). 『건설링어, 바드, 블레이드, 홀리나이트 육성』.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196쪽. 롯데칠성음료(2015). 『제주사랑 감귤사랑』. 서울: (주)롯데칠성음료

196쪽. 날아라별사탕(2015). 『살찐다고 해서 혼난 아이유』. 날아라별사탕

197쪽부터 201쪽까지. 뮤직팁업(2018). 『[HQ최고음질] 소향(Sohyang)- You Raise Me Up (불후의명곡 '웨스트라이프' 편)』. 뮤직팁업

201쪽. 조던 피터슨(2021). 『조던 피터슨 |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4:33 ~ 4:37』. 조던 피터슨

202쪽. 표준국어대사전. 『대학교』. 서울: 국립국어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28073f7ffcc47c79be7ea37c4a19315>

207쪽. Wizet(2003). 『비숍 육성』.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스코리아

207쪽. (주)펠어비스(2015). 『샤이 육성』.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ZofUguYleTc>

207쪽. 스마일게이트RPG(2018). 『도화가 육성』.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https://www.youtube.com/watch?v=wl0q0xi10Ng&t=12s>

219쪽. 스마일게이트RPG(2018). 『실리안 에스더 스킬: 이곳은 내가 말도록 하지.』.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231쪽. 샤이좋아(2020). 『연구소) 죽은신의갑옷 변경 아이콘』. 샤이좋아

232쪽. 방탄소년단(2016). 『피 땀 눈물』. 서울: (주)와이지플러스

232쪽. 리뷰영이(2021).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해서 없앤다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투자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대박 기술』. 리뷰영이♥

233쪽. Hans Zimmer(2014). 『No Time For Caution』.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237쪽. Mos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창세기: 1장』. 성서개역자회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38쪽. Facebook Search Engine(2004). 『정은영』. 미국: Meta Platforms Inc..
<https://ko-kr.facebook.com/public/%EC%A0%95%EC%9D%80%EC%98%81>

240쪽. 이정범(2010). 『‘이거 방탄이라고, 이 뽕신아.’직후 27초 후부터 2초간』. 아저씨. 서울: CJ ENT.

240쪽. 박훈정(2013).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라.’직후 79초간』. 신세계. 서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241쪽. 김형욱(2003). 『야인시대, Ep.64: ‘날 보고 성불구자가 된다고?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직후 1초 후부터 10초간』. 서울: (주)에스비에스

241쪽. 에쉬그레이(2012). 『Hello Mr. My yesterday』. 명탐정코난. 서울: (주)씨앤엘뮤직♥

241쪽. 안녕 바다(2010). 『별 빛이 내린다』. 서울: (주)뮤직앤뉴, (주)플릭서스

241쪽. 유리(2000). 『빛이 될 거야』. 명탐정코난. 서울: 한국방송공사

241쪽. 예람위십(2021). 『주님의 시선 (부제 :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WESTORY studio 서울: (주)광수미디어

241쪽. Blizzard ENT. Inc.(2015). 『혼자』.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241쪽. 조세희(1987).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 이성과 힘

242쪽.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소향(2022). 『Sweet Dreams, My Dear』. 로스트아크 OST.

경기: ㈜스마일게이트 ENT.

242쪽. desmos. 『그래핑 계산기 활용』. <https://www.desmos.com/calculator?lang=ko>

242쪽. Online Tools. 『SHA3-512 online hash function 활용』. https://emn178.github.io/online-tools/sha3_256.html

242쪽. ㈜네이버(2008). 『나눔스퀘어라운드』. 경기: ㈜네이버

242쪽. ㈜네이버(2008). 『나눔바른고딕』. 경기: ㈜네이버

242쪽. ㈜네이버(2008). 『나눔명조』. 경기: ㈜네이버

242쪽. ㈜네이버(2008). 『나눔손글씨 힘내라는 말보단』. 경기: ㈜네이버

244쪽. 이천(2019). 『마지막 날에』. 서울: ㈜사운드리퍼블리카

244쪽. Taylor Swift(2019). 『ME!』.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246쪽. 브라운아이드걸스(2013). 『Good Fellas』. 서울: ㈜뮤직앤뉴

246쪽. Riot Games, Inc.(2011). 『영검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와 함께 게임 내 음성.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247쪽. 태연(2015). 『I』. 서울: ㈜드림어스컴퍼니, SM ENT.

247쪽. BBfighter(2016). 『SCII LOTV Sky Shield Orbital Strike Cutscene』. BBfighter

248쪽. 도시교통(2021). 『[5분교통]정말 적자 때문일까? 무궁화호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 도시교통

248쪽. oo7JB1(2009). 『숨어우는 바람소리-이정옥』. oo7JB1

248쪽. Panic! At The Disco(2018). 『High Hopes』. 미국: DCD2 Records, Fueled By Ramen, Warner Music Group Corp.♥

249쪽. ㈜현대자동차(2013) 『제네시스』. 서울: ㈜현대자동차

250쪽. 룩이스트(2019). 『Thunder - Imagine Dragons 이매진드래곤스 가사, 해석』. 룩이스트

251쪽. JTBC News(2021). 『1250살 에밀레종...새 기술로 다시 듣게 된 '천년의 울림' / JTBC 뉴스룸, 0:53 ~ 1:00』. 서울: ㈜제이티비씨

251쪽. 우리역사넷. 『팔만대장경』.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c/main.do?levelId=kc_r200500

251쪽. 싸이(2017). 『오토리버스』. 서울: ㈜와이지플러스

252쪽. 아이유(2017). 『가을 아침』. 경기: ㈜카카오 ENT., 서울: 페이브 ENT.

253쪽. 교촌. 『교촌 콤보』. 경기: ㈜교촌에프앤비

1차 수정. (여자)아이들(2022). 『TOMBOY』. 경기: ㈜카카오 ENT., 서울: ㈜큐브 ENT.

1차 수정. IVE(2022). 『LOVE DIVE』. 경기: ㈜카카오 ENT., 서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리슬 최종정리: 글. BIGBANG(2022).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 서울: ㈜와이지플러스

아리슬 최종정리: 동적영상. ITZY(2022). 『SNEAKERS』. 서울: JYP엔터테인먼트, ㈜드림어스컴퍼니

아리슬: 채중감량 설계. 아이유(2021). 『Celebrity』. 서울: ㈜이담 ENT., 경기: ㈜카카오 ENT.

참고문헌 정리. 아이자야썩스티원(202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경기: 아이자야

씩스티원, 서울: 카이아스

표지(뒤). ㈜펠어비스(2015). 『샤이 플로케스트라 세트』. 검은사막. 경기: ㈜펠어비스

표지(뒤). Blizzard ENT. Inc.(2015). 『혼자』.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표지(뒤). Redseen. 『샤이 커스터마이징』. Redseen

아리슬[작가관] 마감. 함부영(2012). 『그리스도의 계절』. 경기: 아바프레이즈

아리슬[작가관] 진짜 마감. WELOVE(2020). 『모든 상황 속에서』. WELOVE CREATIVE TEAM

아리슬[작가관] 진짜 진짜 마감. 몬스터유니온, 아센디온(2023). 『우당탕탕 패밀리』.

서울: 한국방송공사

아리슬[작가관] 진짜 진짜 마감. Fanny Crosby, Phoebe Knapp(1873).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미국

♣ 외부참고, Out Reference, 外部參考

오프닝

표지 글씨체. ㈜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네이버

주제영상. 방앗간 비둘기(2015).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리마스터 (황무지 난이도)

재생목록』. 방앗간 비둘기♥

주제영상. Realboy32R(2014).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 한글자막 시네마틱 트레일러 (E3 2014)』. Realboy32R♥

주제곡. Lorde(2013). 『Royals』.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6쪽. 안건(1447). 『몽유도원도』. 일본: 天理大學 中央圖書館

10쪽. Hermès(1984). 『버킨백,

<https://www.hermes.com/kr/ko/content/297715-birkin/>』. 프랑스: Hermès International S.A.

15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C rpaD-EtN-XjzFGv52XaYw,127,-15.9,80,Float>』. 경기: ㈜네이버

16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M -eLw-DvSLUOrvb-VSV1qA,153.16,-6.2,80,Float>』. 경기: ㈜네이버

1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a AKcs8exaleRU0PpkierSQ,-149.05,-13.13,80,Float>』. 경기: ㈜네이버

18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7 DsJ-ovakkIqdfYIQkEGWw,-47.33,-3.87,80,Float>』. 경기: ㈜네이버

20쪽. Google Street View.

『<https://www.google.com/maps/place/Southside+Preparatory+Academy/@25.7615749>

, -80.1938388,3a,75y,282.89h,85.84t/data=!3m6!1e1!3m4!1svBSWw4Ecnwg5GGBdp1M2aw!2e0!7i16384!8i8192!4m7!3m6!1s0x88d9b686bf1ddbed:0x5e587a756d959f62!8m2!3d25.7617199!4d-80.1941475!14m1!1BCgIgARICCAI』. 미국: Google LLC

20쪽. Anthony Russo, Joe Russo(2019). 『‘Hey, Cap, you read me? Cap, It’s Sam. Can you hear me?’ 직후 4초 후부터 126초간』. Avengers: Endgame. 미국: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21쪽. 권스샵(2012). 『홍익여자고등학교 진로상담실(커리어존)진로상담실, 위클래스, weeclass 인테리어 공사, 학교공사』. 권스샵.

<https://blog.naver.com/gigikk/150151139754>

25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9&lsiSeq=236301#0000>

25쪽.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108&lsiSeq=206602#0000>

25쪽. 서울대학교병원.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84037&cid=51007&categoryId=51007>

25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VdVxqpkY6Dter4TCLldj-Q,151.85,38.72,80,Float>』. 경기: (주)네이버

30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eTIDx939m5C3zkXnmNb9Hw,31.56,-4.85,80,Float>』. 경기: (주)네이버

31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qxQa8XZJ1DRWswRMlvBAXA,-25.21,-10.76,80,Float>』. 경기: (주)네이버

32쪽. 나우뉴스 안정은 기자(2017). 『‘핵전쟁’ 대비 세계 첫 한국산 개인용 병커 판매』. (주)서울신문사

32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ZFirzpC2ab420o10PD-8lg,-69.14,39.2,80,Float>』. 경기: (주)네이버

32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oes_yNseq_TCdWUIYrCVg,-137.25,-10.37,80,Float』. 경기: (주)네이버

33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AV3YZfrtBC8RwYA-bOJSyQ,-102.86,-7.29,80,Float>』. 경기: (주)네이버

3장 제목. 에일리(2013). 『U&I』. 서울: (주)와이엠씨 ENT., 제주: (주)카카오 ENT.

42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v90ba2pngKt7VdWat3vLpA,-107.2,-7.77,80,Float>』. 경기: (주)네이버

4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1Hm3a_xRWHkrWxy71EK9mA,66.28,-11.3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4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q95gfnv-pK9QjjJJkV6Mhw,127.12,0.9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4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dU9r7sEj37puDCwGBTVxAg,-124.79,-2.08,80,Float>』 . 경기: (주)네이버

49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2294.0860368,4480100.9602240,17,0,0,0,dha&p=2n9TcuyCW2zn6z8uBsB6TA,-84.43,-2.54,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0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2294.0860368,4480100.9602240,17,0,0,0,dha&p=JQ07lllpOqfTj_YpOgZiDg,-173.1,-4.79,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2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3243.8750642,4480581.3479297,16,0,0,0,dha&p=DG9r3CFOtOghIraNUEPP7A,-153.04,-4.8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4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iEy7TvJnpz30lqFwcZoxxw,108.2,-5.9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4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epymboWjrBbgMxyW25-pvQ,-44.83,16.39,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7쪽. Christopher Nolan(2014). 『‘What is that? I think it's them. Distorting space-time. Don't! Don't!’ 직후 12초 후부터 10초간』 .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5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4t1hAEG9YQqyEy1DYVxqOQ,43.98,-24.63,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AqzbAHI72UZDS9O7I1eINw,-107.2,-10.7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58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UuURi59X45d3GxJES3a6EQ,-19.09,-57.06,52,Float>』 . 경기: (주)네이버

58쪽. 나영석, 장은정(2020). 『[ENG/신기한 과학나라 FULL ver]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심화반 수업 ! | 금요일 금요일 밤에 Friday Joy Package EP.9』 . 서울: tvN

58쪽. 정영진 장항준의 편의점 클라쓰e(2021). 『아인슈타인은 왜 죽을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을까?(김상욱)』 . 경기: 한국교육방송공사

59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KzM7AYIO_Yf5g7wqq0_hXQ,33.01,3.59,52,Float』. 경기: (주)네이버

59쪽. Remedy Entertainment(2016). 『월 구출하기: 월 찾기, ‘[월리엄] 잭! 뛰어!’ 직후 5초 후부터 11초간』. 퀀텀 브레이크. 미국: Xbox Game Studios, 핀란드: Remedy Entertainment♥

59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Jw4d7Soad3SJmPVFEn0dnQ,44.79,4.98,52,Float>』. 경기: (주)네이버

61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X-CmaiFcli0WaahEOzsWIA,38.22,0.12,52,Float>』. 경기: (주)네이버

61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LoejSnxmbKE73l5RDVg1Rg,-171.13,-15.92,61.19,Float>』. 경기: (주)네이버

65쪽. SBS 뉴스(2020). 『[한여름밤 '수영장 파티'...마스크·거리두기 모두 없었다 / SBS』. 서울: (주)에스비에스

65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3512.8340859,4515550.6252097,14,0,0,0,dha&p=ULLZWB3ezhhyJ15x1sMkoZQ,-120.99,-14.25,80,Float>』. 경기: (주)네이버

65쪽. Quantic Dream(2016). 『㊤ 저 너머로, ㊤ 삶』. Beyond: Two Souls. 미국: Sony Computer Entertainment. 프랑스: Quantic Dream

6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WmQtYamLSJBCicedMYEOzQ,-28.51,12.91,80,Float>』. 경기: (주)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re57rZVQkEZlWvFhdoIA6w,163.56,-1.56,80,Float>』. 경기: (주)네이버

67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FTmxyWPeo8JDZlIXbUd03w,35.09,-6.8,80,Float>』. 경기: (주)네이버

68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npXVKMOPGUjDRedJ1ruXIA,170.48,16.64,80,Float>』. 경기: (주)네이버

68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PCLWvbyMaXmJ9OnQKyelRw,-149.26,14.22,80,Float>』. 경기: (주)네이버

68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TzRuLHLsZELv2vd9F5lkNQ,-30.11,13.01,80,Float>』. 경기: (주)네이버

69쪽. SEOUL SKY.

『https://seoulsky.lotteworld.com/seoulsky/images/kor/contents/img_skybridge03.jpg』. LOTTE WORLD. 한국: (주)롯데건설

69쪽.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2021). 『"롯데월드타워 옥상서 '라이온킹' 노래, 무서웠냐고요?"』. 서울: CBS기독교방송

69쪽. SciNews(2016). 『Gravitational waves detected by LIGO』. 미국: ScienceNews와 함께 (주)네이버 이미지 검색. 『초입방체』.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ion=image&query=%EC%B4%88%EC%9E%85%EB%B0%A9%EC%B2%B4&res_fr=0&res_to=0&sm=tab_irq&color=&ccl=0&nso=so%3Ar%2Ca%3Aall%2Cp%3Aall&recent=0&datatype=0&startdate=0&enddate=0&gif=0&optStr=&nso_open=0&pq=#imgId=image_sas%3Acafe20162475%7C189%7C25154_9

69쪽.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yxukDpocptM6bGW_DwEiQ,143.09,-90,80,Float』. 경기: (주)네이버

74쪽. 봉준호(2019). 『‘이건 일종에 동행이 아닐까. 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직후 1초 후부터 2초간』. 기생충. 서울: (주)바른손이엔에이, CJ ENT.

76쪽. 방탄소년단(2017). 『봄날』. 서울: (주)빅히트 뮤직, (주)와이지플러스

77쪽. Christopher Nolan(2014). 『원홀』.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https://www.google.com/search?q=%EC%9B%9C%ED%99%80&newwindow=1&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quMTK2Jz0AhXjJKYKHeynAT0Q_AUoAXoECAEQAw&biw=1542&bih=850&dpr=1.05#imgsrc=V5xQPdC0BFjSTM

77쪽. Google Street View.

『<https://www.google.com/maps/place/100+St+Thomas+Line,+Paradise,+NL+A1L+1K9+%EC%BA%90%EB%82%98%EB%8B%A4/@47.5361731,-52.8975255,3a,90y,111.29h,91.27t/data=!3m6!1e1!3m4!1syPZWqtM5conDKIR-Cvu-mA!2e0!7i16384!8i8192!4m5!3m4!1s0x4b0cbafc41a9ec07:0xdae9f8ef237232b3!8m2!3d47.5361676!4d-52.896868979172965>』. 미국: Google LLC

Vell

표지 글씨체.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주제곡. Marcin Przybyłowicz(2020). 『V』. 사이버펑크 2077. 폴란드: CD Projekt S.A.

민예서 주제영상. Blizzard ENT. Inc.(2013).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Opening Cinematic』.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민예서 주제곡. Blizzard ENT. Inc.(2013). 『Official Opening Cinematic Main Theme』.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민예서 인성 기반. 소니쇼게임방송(2020). 『전학생 라이브, 5:00 ~ 8:06』.

소니쇼게임방송

11쪽. Blizzard ENT. Inc.(2016). 『D.va 대사: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Overwatch.

미국: Blizzard ENT. Inc.♥

15쪽. P&G. 『다우니 퍼퓸 블랙 미스틱 향 2L』. 미국: Procter & Gamble Company

2장 제목. 2WEI(2020). 『You Really Got Me(Wild Rift launch trailer)』. League of Legends: Wild Rift. 미국: Broadcast Music, Riot Games, Inc.

36쪽. SNK Corp.(2010). 『VS 네스츠편 쿠사나기쿄, 레오나 승리대사』. THE KING OF FIGHTERS XIII. 일본: SNK Corp..

<https://namu.wiki/w/%EB%8D%94%20%ED%82%B9%20%EC%98%A4%EB%B8%8C%20%ED%8C%8C%EC%9D%B4%ED%84%B0%EC%A6%88%20%EC%8B%9C%EB%A6%AC%EC%A6%88/%EC%8A%A4%ED%86%A0%EB%A6%AC%20%EB%B0%8F%20%EB%8C%80%EC%82%AC/XIII/%EB%A0%88%EC%98%A4%EB%82%98%20%ED%95%98%EC%9D%B4%EB%8D%B0%EB%A5%B8#s-35>

49쪽. 네이버 검색엔진. 『프릴 수영복』. 경기: (주)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94%84%EB%A6%B4+%EC%88%98%EC%98%81%EB%B3%B5

50쪽. 김현정(20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10대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655매"』. 서울: CBS기독교방송

51쪽. CYCLONE(2015). 『Fei Tas, 표지 ~ 12쪽』. 리인 역

51쪽. ワンズファクトリー(2015). 『監禁オイルマッサージ 鬼イカセ中出しレ×プ 麻倉憂, 41:20 ~ 1:02:43』. 일본: ワンズファクトリー

51쪽. 국산고릴라(2020). 『썸썸스포) 방예나는 진짜 제일 불상하다』. 국산고릴라

51쪽. 타이거小堺(2017). 『女のオーガズムは男の10倍! 完全主観

女目線で自分のカラダがイキまくる! 女だらけのいいなりレズ女子寮, 1:10:26 ~ 2:02:45』. 일본: SODクリエイト株式会社

4장 제목. Blizzard ENT. Inc.(2010). 『우주모함 대사: 이미 이긴 전투다.』.

스타크래프트II. 미국: Blizzard ENT. Inc.♥

66쪽. Christian Henry Bateman(1843). 『성도여 다함께』. 박철순 역. 대한민국♥

66쪽. Christian Henry Bateman(1843).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영국

73쪽. 네오플(2019). 『[던파] 캐릭터 시네마틱 영상 - 인첸트리스』. 던전앤파이터. 경기:

(주)넥슨코리아와 함께 심형섭(2020). 『토가미 바쿠야 자유행동 1~5, 0:53 ~ 1:04』. 미국: 심형섭♥

77쪽. Todd Phillips(2019). 『Joker, And you had to look that up? I want to get it right. 직후 2초 후부터 10초간』. 미국: Warner Bros. ENT. Inc.♥

80쪽. Naughty Dog(2013). 『엘리 표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미국: Sony Interactive ENT. Inc..

[https://www.google.com/search?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tbm=isch&ved=2ahUKEwi3n4OCutn0AhWRuJQKHYYRDzYQ2-cCegQIABAA&o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gs_lcp=CgNpbWcQAZ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https://www.google.com/search?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tbm=isch&ved=2ahUKEwi3n4OCutn0AhWRuJQKHYYRDzYQ2-cCegQIABAA&o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gs_lcp=CgNpbWcQAZ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

AEMgUIABCABDIFCAAQgAQ6BggAEAgQHjoECAAQGDogCAAQBxAeOgYIABAFEB5Qi
gJYgQVg-QZoAHAAeACAAW2IAZcDkgEDMS4zmAEAoAEBqgELZ3dzLXdpei1pbWfAAQ
E&scient=img&ei=jGWzYbepFZHx0gSGo7ywAw&bih=925&biw=1544#imgsrc=hJjZWbA_
SKikVM

80쪽. Riot Games, Inc.(2011). 『영겁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와 함께 게임 내 음성.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표지(앞). Florida Georgia Line(2012). 『Cruise』. 미국: Big Machine Label Group,
Universal Music Group Inc.

Vell: Execution

표지 글씨체.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주제곡. Marcin Przybyłowicz(2020). 『V』. 사이버펑크 2077. 폴란드: CD Projekt S.A.

민예서 주제영상. Blizzard ENT. Inc.(2013). 『오프닝 시네마틱 영상』.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 미국: Blizzard ENT. Inc.♥

민예서 주제곡. Blizzard ENT. Inc.(2013). 『Official Opening Cinematic Main Theme』.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민예서 인성 기반. 소니쇼게임방송(2020). 『전학생 라이브, 5:00 ~ 8:06』.

소니쇼게임방송

Execution 편집주제곡: 경서(2022). 『나의 X에게』.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꿈의엔진

Execution 편집주제곡: BIG Naughty(2022). 『정이라고 하자』.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H1GHR MUSIC RECORDS

?쪽. Blizzard ENT. Inc.(2016). 『D.va 대사: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Overwatch. 미국:
Blizzard ENT. Inc.♥

?쪽. P&G. 『다우니 퍼퓸 블랙 미스틱 향 2L』. 미국: Procter & Gamble Company
2장 제목. 2WEI(2020). 『You Really Got Me(Wild Rift launch trailer)』. League of
Legends: Wild Rift. 미국: Broadcast Music, Riot Games, Inc.

?쪽. SNK Corp.(2010). 『VS 네스츠편 쿠사나기교, 레오나 승리대사』. THE KING OF
FIGHTERS XIII. 일본: SNK Corp..

<https://namu.wiki/w/%EB%8D%94%20ED%82%B9%20EC%98%A4%EB%B8%8C%20%ED%8C%8C%EC%9D%B4%ED%84%B0%EC%A6%88%20EC%8B%9C%EB%A6%AC%EC%A6%88/%EC%8A%A4%ED%86%A0%EB%A6%AC%20%EB%B0%8F%20%EB%8C%80%EC%82%AC/XIII/%EB%A0%88%EC%98%A4%EB%82%98%20ED%95%98%EC%9D%B4%EB%8D%B0%EB%A5%B8#s-35>

?쪽. 네이버 검색엔진. 『프릴 수영복』. 경기: (주)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94%84%EB%A6%B4+%EC%88%98%EC%98%81%EB%B3%B5

?쪽. ワンズファクトリー(2015). 『監禁オイルマッサージ 鬼イカセ中出しレ×プ 麻倉憂,
41:20 ~ 1:02:43』. 일본: ワンズファクトリー

?쪽. 국산고릴라(2020). 『썸썸스포) 방예나는 진짜 제일 불상하다』. 국산고릴라

4장 제목. Blizzard ENT. Inc.(2010). 『우주모함 대사: 이미 이긴 전투다.』.

스타크래프트II. 미국: Blizzard ENT. Inc.♥

?쪽. Christian Henry Bateman(1843). 『성도여 다함께』. 박철순 역. 대한민국♥
 ?쪽. Christian Henry Bateman(1843).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영국
 ?쪽. 네오플(2019). 『[던파] 캐릭터 시네마틱 영상 - 인첸트리스』. 던전애파이터. 경기:
 (주)넥슨코리아와 함께 심형섭(2020). 『토가미 바쿠야 자유행동 1~5, 0:53 ~ 1:04』. 미국:
 심형섭♥
 ?쪽. Todd Phillips(2019). 『Joker, And you had to look that up? I want to get it
 right. 직후 2초 후부터 10초간』. 미국: Warner Bros. ENT. Inc.♥
 ?쪽. Riot Games, Inc.(2011). 『영검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와 함께 게임 내 음성.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표지(앞). Florida Georgia Line(2012). 『Cruise』.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Big Machine Label Group

WITH ARI ♥ 아리랑

표지 글씨체.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주제곡. 박성훈(2015). 『K팝스타 시즌4: 18회150322, 박윤하: 가시나무/시인과 촌장』.
 서울: (주)에스비에스
 표지(앞), 표지(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극기』.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3쪽, 8쪽. 게임으로 하는 영어공부 쉼도잉 아르문드 미터디(2019). 『게임으로 공부하자!
 스타크래프트로 쉼도잉하기 테란 부관편 - 아르문드 미터디 - 미디어로 영어공부하자 /
 Arrmund's Midea Study - terran advisor, 1:50 ~ 2:03』. 게임으로 하는 영어공부
 쉼도잉 아르문드 미터디♥
 7쪽. 크라이넛(2006). 『OK 목장의 젓소』.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DRUG RECORDS

참고문헌: 범주, Reference Library: Category, 參考文獻: 類別

내부참고, Inside Reference, 內部參考

글, Text, 經

- 김초엽(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서울: 허블.
<https://namu.wiki/w/%EC%9A%B0%EB%A6%AC%EA%B0%80%20%EB%B9%9B%EC%9D%98%20%EC%86%8D%EB%8F%84%EB%A1%9C%20%EA%B0%88%20%EC%88%98%20%EC%97%86%EB%8B%A4%EB%A9%B4>
- 김희보(2010). 『세계사 다이제스트 100: 78.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기: 가람기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3257&cid=43072&categoryId=43072>
- 두산백과. 『공산주의』. 서울: (주)두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383&cid=40942&categoryId=31606>
- 룩이스트(2019). 『Thunder - Imageine Dragons 이매진드래곤스 가사, 해석』. 룩이스트
- 岸見一郎·古賀史健(2014).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 밤: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전경아 역. 서울: (주)인플루엔셜♥
- 조세희(1987).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 이성과 힘
- 좋은책신사고 편집부(2008). 『쎈 고등 수학 (상) 고1 - 2010』. 서울: 좋은책신사고
- 텍본 이벤트. 『BIXchool 2.0 Ver. 1-34 (완)』.
http://novent.xyz/bbs/board.php?bo_table=novel&wr_id=3459&page=9
- 통계청/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202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대전: 통계청, 서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표준국어대사전. 『대학교』. 서울: 국립국어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28073f7ffcc47c79be7ea37c4a19315>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20&lsiSeq=231713#0000>
- Michael J. Sandel(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경기: (주)김영사♥
- Mose. 『성경 전서 개역한글판, 창세기: 1장』. 성서개역학회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 pwbit txt. 『BIXchool - 기개수학교 1-31 (완)』.
http://www.pwbit.com/bbs/board.php?bo_table=novel&wr_id=34665&device=mobile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 공터지기(2013). 『임요환레전드』. 공터지기
- 김병만, 노우진, 류담(2011). 『달인: 20110925』. Gag concert. 서울: 한국방송공사
- 김슬기 Seulgi KIM(2020). 『직접 야마위를 해봤습니다 - 유럽 야마위꾼 수법 공개』. 김슬기 Seulgi KIM
- 김연아(2010).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캐나다: XXIES Jeux olympiques d'hiver♥
- 김영진. 『일의 지혜』. 천안: 여명교회
- 김태호(2013). 『지금 이 순간(지킬 앤 하이드), This is the Moment(Jekyll and Hyde) 20130608』. 무한도전: 무한상사. 서울: (주)문화방송

김형욱(2003). 『야인시대, Ep.64: ‘날 보고 성불구자가 된다고?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직후 1초 후부터 10초간』. 서울: (주)에스비에스

날아라별사탕(2015). 『살찼다고 해서 혼난 아이유』. 날아라별사탕

노컷브이(2021). 『[노컷 밀리터리] 도산 안창호함 SLBM 추가영상 공개, 1:13 ~ 1:21』. 서울: CBS기독교방송

담원 기아, Suning(2020). 『2020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 결승전 DWG vs SN 4세트』.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담원 기아, 농심(2021). 『DK VS NS | Match60 07.19 | 2021 LCK CL Summer, 25:13 ~ 25:40』.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 독일축구국가대표팀(2018).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5-1경기, 경기시간 90:00 + 1:13 ~ 90:00 + 2:55』. 러시아: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도로위참견시점(2019). 『주간블랙박스, 2021최신블랙박스 영상 재생목록』. 도로위참견시점

도시교통(2021). 『[5분교통]정말 적자 때문일까? 무궁화호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 도시교통

리뷰영이(2021).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해서 없앤다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도 투자한 지구온난화를 막는 대박 기술』. 리뷰영이♥

몬스터유니온, 아센디온(2023). 『우당탕탕 패밀리』. 서울: 한국방송공사

바편TV. 『공략 재생목록』. 바편TV

박훈정(2013).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라.’ 직후 79초간』. 신세계. 서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방앗간 비둘기(2016). 『고장난 Mk.V 전차 - 배틀필드1 (한글자막) | 04, 14:07 ~ 15:59』. 방앗간 비둘기♥

방앗간 비둘기(2018). 『레드 데드 리뎀션 2 재생목록』. 방앗간 비둘기♥

뱀선생게임(2015). 『칼라의 폭풍간지 함선 아둔의 창』. 뱀선생게임♥

소니쇼게임방송(2020). 『이런 알바생이 나한테 말을 걸어줄리가 없잖아.. [썸썸편의점 하이라이트]』. 소니쇼게임방송

아이다티비aidaTV(2021). 『아이다 인기상품 3단 기차레일세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 아이다 세오가 어떻게 응용하는지 같이 보고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아이다티비aidaTV

外崎 春雄(2019). 『鬼滅の刃, ‘雷の呼吸。壱ノ型。霹靂一閃!’ 직후 1초 후부터 7초간』. 일본: 東京メトロポリタンテレビジョン株式会社♥

이정범(2010). 『‘이거 방탄이라고, 이 뽕신아.’ 직후 27초 후부터 2초간』. 아저씨. 서울: CJ ENT.

정상은 아니야. 『어비스 던전 공략 재생목록』. 정상은 아니야

정택수(2001). 『해병대 DI: 3부, 17:22 ~ 19:15』. 인간극장. 서울: 한국방송공사

젠지 e스포츠, 한화생명 e스포츠(2021). 『2021 LCK Spring Split 정규시즌 1R 젤지 vs. 한화생명 Game2 01.24』. 미국: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조던 피터슨(2021). 『조던 피터슨 |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4:33 ~ 4:37』. 조던 피터슨

조니월드. 『[로스트아크] 스킬 포인트 얻는 법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킬 포인트

가이드】』. 죠니월드

중년게이머 김실장(2021). 『엔씨의 리니지 복사가 가져온 파국, 과연 리니지형 게임에 펼쳐질 미래는?』. 중년게이머 김실장

책읽는사자(2018). 『벤사피로가 말하는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진짜’ 이유』. 책읽는사자

최동훈(2006). 『타짜』. 서울: (주)싸이더스, (주)아이엠 픽처스, 영화사 참, CJ ENT.

팬더구리의 대륙클라쓰(2021). 『이게 진짜 실화라고? 소림축구 풀가동, 전 일본을 경악케한 사상 최악의 중일전. 중국 vs 일본 A매치 하이라이트』. 팬더구리의 대륙클라쓰

퍼플튜브(2021). 『범인의 '기괴한 한 마디' 때문에 더욱 초토화된 현장, 7:33 ~ 7:43』. 퍼플튜브

(주)펠어비스(2019). 『월드 프리미어 게임플레이 트레일러 | Gamescom 2021』.

도깨비(DokeV). 경기: (주)펠어비스

홍성호(2019). 『‘Fraulein! No No No! Stop! I Get you some revenge!’ 직후 2초 후 1초간』. Red Shoes and the Seven Dwarfs. 서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로커스 스튜디오, (주)싸이더스

홍수진(2018). 『침묵의 세월, 23:50 ~ 24:27』. 시사기획 창. 서울: 한국방송공사

Alfonso Cuarón Orozco, Warner Bros. Korea, (2020).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메인 예고편, 0:08 ~ 0:09』. 미국: Warner Bros. ENT. Inc.♥

BBC News(2020). 『베이루트 폭발 사고 현장 영상 - BBC News 코리아』. 영국: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fighter(2016). 『SCII LOTV Sky Shield Orbital Strike Cutscene』. BBfighter

Blizzard ENT. Inc.(2010). 『거래』.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0). 『배신』.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5). 『귀향』.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5). 『전우』.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5). 『혼자』.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Christristopher Nolan(2008). 『‘Listen, We need back up. We've got company.’ 직후 19초 후 3초간』. The Dark Knight. 미국: DC Comics, Legendary ENT., Syncopy Films Inc., Warner Bros. ENT. Inc.♥

D D. 『개인 소장용 조성주 고인물 컨트롤』. D D

Ethan Coen, Joel Coen(2007). 『No Country For Old Men』. 미국: Miramax LLC

Flash: 이영호, Jangbi: 허영무(2008).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13주차 MBC GAME 3경기, KTF 매직엔스 vs. 삼성전자 칸 1경기 20080707』. 서울: (주)신한은행

Flash: 이영호, Zero: 김명운(2010). 『대한항공 2010 시즌2 16강 B조 2경기 폴라리스랩소디』. 서울: (주)대한항공

Gen.G 외 15팀(2022). 『Weekly Final W1 Match10 | PWS: EAST ASIA Phase 2』.

서울: PUBG WEEKLY SERIES: EAST ASIA

크랭크. 『올리모리그 재생목록』. 크랭크

Hans Zimmer(2014). 『No Time For Caution』.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ITSystem(2018). 『컴퓨터수리-컴퓨터 메인보드수리 I/O칩 교체방법(computer repair)동영상-1080P』. ITSystem

JTBC News(2021). 『1250살 에밀레종...새 기술로 다시 듣게 된 '천년의 울림' / JTBC 뉴스룸, 0:53 ~ 1:00』. 서울: (주)제이티비씨

Julia Reagan(2018). 『(10분 순삭) 엘론 머스크 '팰컨 헤비' 역대급 로켓의 발사 현장!!!, 6:51 ~ 7:41』. MARS: INSIDE SPACEX. 미국: National Geographic♥

KBS news(2020).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잠입 취재한 '추적단 불꽃'..."믿기지 않았다" / KBS뉴스(News)』. 서울: 한국방송공사

MKIceAndFire(2018). 『GRIS Gameplay Walkthrough Part 1 FULL GAME [1080p HD PC] - No Commentary, 2:04:46 ~ 2:10:25』. MKIceAndFire

PD제갈량(2016). 『[메탈슬러그 XX] 레오나!! 원코인 초스피드 공략!! - Jegalyang ★ PD제갈량 / Metalslug XX Leona speed run play no death!!』. PD제갈량

Riot Games, Inc.(2011). 『RISE (ft. The Glitch Mob, Mako, and The Word Alive) | Worlds 2018』.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Riot Games, Inc.(2019). 『빛과 그림자 | 별 수호자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Rogue: 이병렬, Classic: 김도우(2014). 『SK Telecom Proleague 2015 4Set Deadwing』. 서울: (주)SK텔레콤

XSupaDudeX(2008). 『KartRider- New Kart- Cotton SR』. XSupaDudeX

음원, Sound, 音源

(여자)아이들(2022). 『TOMBOY』.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주)큐브 ENT.

(여자)아이들, Madison Beer, Jaira Burns, K/DA(2018). 『POP/STARS』. League of Legends. 미국: Riot Games, Inc.

노브레인(2006). 『비와 당신』. 라디오스타. 방준석, 서울: (주)지니뮤직, Stone Music ENT.

大塚 愛(2015). 『さくらんぼ』. 일본: 에이벡스 트랙스 ENT.

뮤직팀업(2018). 『[HQ최고음질] 소향(Sohyang)- You Raise Me Up (불후의명곡 '웨스트라이프' 편)』. 뮤직팀업

방탄소년단(2016). 『피 땀 눈물』. 서울: (주)빅히트 뮤직, (주)와이지플러스

브라운아이드걸스(2013). 『Good Fellas』. 서울: (주)뮤직앤뉴

소녀시대(2010). 『OH!』.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SM ENT.

소녀시대(2013). 『I GOT A BOY, 0:01 ~ 0:03』.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SM ENT.

스마일게이트RPG(2018). 『실리안 에스더 스킴: 이곳은 내가 말도록 하지.』.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스마일게이트RPG(2018). 『외로운 섬 오페라 OST』.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스마일게이트RPG, 소향(2022). 『Sweet Dreams, My Dear』. 로스트아크 OST.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싸이(2017). 『오토리버스』. 서울: (주)와이지플러스

아이유(2017). 『가을 아침』.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페이브 ENT.

아이유(2021). 『Celebrity』. 서울: (주)이담 ENT., 경기: (주)카카오 ENT.

아이자야썩스티원(202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경기: 아이자야 썩스티원, 서울: 카이아스

안녕 바다(2010). 『별 빛이 내린다』. 서울: (주)뮤직엔뉴, (주)플렉서스

에쉬그레이(2012). 『Hello Mr. My yesterday』. 명탐정코난. 서울: (주)씨엔엘뮤직♥

예람위십(2021). 『주님의 시선 (부제 :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WESTORY studio
서울: (주)광수미디어

유리(2000). 『빛이 될 거야』. 명탐정코난. 서울: 한국방송공사

이천(2019). 『마지막 날에』. 서울: (주)사운드리퍼블리카

자우림(2002). 『Hey Guyz』. 코너스톤, 경기: (주)카카오 ENT.

정재일(2019). 『믿음의 벨트』. 기생충. 서울: (주)지니뮤직, CJ ENT., Stone Music ENT.

체리필터(2000). 『Smile Jack』.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뮤직팜

크라잉넛(2001). 『지독한 노래』.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드럭레코드

태연(2015). 『I』.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SM ENT.

하진(2018). 『We all lie』. 스카이크슬. 미국: Warner Music Group Corp., 서울: JTBC콘텐츠허브

함부영(2012). 『그리스도의 계절』. 경기: 아바프레이즈

aespa(2021). 『Next Level』.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SM ENT.

AKMU(2012). 『다리꼬지마』. 서울: 블렌딩, SBS Contents Hub

BIGBANG(2022).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 서울: (주)와이지플러스

BLACKPINK(2016). 『붐바야』. 서울: (주)와이지플러스

Brian Tyler(2013). 『Can You Dig IT?』. Iron Man. 미국: Hollywood Records

COMMON GROUND(2014). 『SNL Korea Opening Theme』. 서울: tvN

Fanny Crosby, Phoebe Knapp(1873).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미국

Hans Zimmer, James Newton Howard(2008). 『A Watchful Guardian』. The Dark Knight. 미국: DC Comics, Legendary ENT.,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Hans Zimmer, James Newton Howard(2008). 『Bank Robbery [Prologue]』. 미국: Warner Music Group Corp.

Idina Menzel(2013). 『Let it go』. Frozen.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ITZY(2022). 『SNEAKERS』. 서울: JYP엔터테인먼트, (주)드림어스컴퍼니

IVE(2022). 『LOVE DIVE』.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Jake Falco(2004). 『So Damn Beautiful』. 카트라이더 월드 시네마틱_폴버전. 경기: (주)넥슨코리아

Kristen Bell, Idina Menzel(2013).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Frozen.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Network Music Ensemble(2012). 『Heart of a Champion』. 미국: Network Music

oo7JB1(2009). 『숨어우는 바람소리-이정옥』. oo7JB1

Panic! At The Disco(2018). 『High Hopes』. 미국: DCD2 Records, Fueled By Ramen, Warner Music Group Corp.♥

Red Velvet(2017). 『빨간 맛』.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SM ENT.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Riot Games, Inc.(2011). 『소환사의 협곡 입장 직후 26초 후』.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Riot Games, Inc.(2011). 『영검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StudioEIM(2009). 『커닝스퀘어』.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슨코리아

StudioEIM(2016). 『The Little Adventurer』. 메이플스토리2. 경기: (주)넥슨코리아

Taylor Swift(2019). 『ME!』.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TWICE(2016). 『TT』. 서울: (주)드림어스컴퍼니, (주)제이와이피 ENT.

WELOVE(2020). 『모든 상황 속에서』. WELOVE CREATIVE TEAM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아리랑』. <https://namu.wiki/w/%EC%95%84%EB%A6%AC%EB%9E%91>

교촌. 『교촌 콤보』. 경기 (주)교촌에프앤비

네이버 거리뷰.

『<http://map.naver.com/v5/search/%EA%B0%95%EC%9B%90%EB%8F%84/address/14283573.748359803,4559719.116965016,%EA%B0%95%EC%9B%90%EB%8F%84,adm?c=14311662.1071338,4462484.9354409,14.38,0,0,2,dha&isCorrectAnswer=true>』. 경기: (주)네이버

넥슨(2015). 『눈사람 9』. 카트라이더. 경기: (주)넥슨코리아.

<https://namu.wiki/w/%EB%88%88%EC%82%AC%EB%9E%8C%209>

넥슨(2015). 『ㄷㄷ 카트』. 카트라이더. 경기: (주)넥슨코리아.

<https://kkukowiki.kr/w/%E3%84%B7%E3%84%B9>

(주)르노코리아자동차(1998). 『SM520V』. 부산: (주)르노코리아자동차

버그수정(2022). 『[상시공유] 도화가 커마』. 버그수정

(주)삼양식품(2012). 『불닭볶음면』. 서울: (주)삼양식품

샤이좋아(2020). 『연구소) 죽은신의갑옷 변경 아이콘』. 샤이좋아

스마일게이트RPG(2018). 『새해의 보람 하의』.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주)쌍용자동차(1998). 『뉴 무쏘』. 경기: (주)쌍용자동차

(주)쌍용자동차(2015). 『티볼리』. 경기: (주)쌍용자동차

아시아경제(2016). 『이세돌 첫 승에 알파고 패배 인정 방법 보니...“resign”은 무슨 뜻?』. 서울: 아시아경제

우리역사넷. 『팔만대장경』.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c/main.do?levelId=kc_r200500

최강(2014). 『대구지하철 참사 11년...생존자 아픔은 계속된다, 두 번째 사진』. 서울: 사이언스온

(주)펠어비스(2015). 『샤이 플로케스트라 세트』.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한결. 『업그레이드 구약 만화 성경 Bible Story★』. 서울: (주)은하수 미디어
 한결. 『업그레이드 신약 만화 성경 Bible Story★』. 서울: (주)은하수 미디어
 (주)한성(2017). 『XH57 BossMonster』. 서울: (주)한성
 (주)현대자동차(2013) 『제네시스』. 서울: (주)현대자동차
 (주)현대자동차(2020). 『아반떼 하이브리드』. 서울: (주)현대자동차
 홍은영.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경기: (주)가나출판사
 Advanced Micro Devices Inc.(2015). 『AMD Ryzen™ 5 3600X 네이밍』. 미국: Advanced Micro Devices Inc.
 Advanced Micro Devices Inc.(2022). 『AMD Ryzen™ 7 5800X3D Vermeer』. 미국: Advanced Micro Devices Inc.
 Aya swan(2020). 『KDA的最终告别演出』. Aya swan
 Blizzard ENT. Inc.(2015). 『혼자』.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Intel Corp. Corporation(2015). 『인텔® 코어™ i5-6600 프로세서 네이밍』. 미국: Intel Corp.
 Makari Tohru(2014). 『솔로헌터의 생애4 THE THIRD PART』. Yokohama Junky♥
 Microsoft Corp.(2015). 『Window 10 기본 배경화면』. 미국: Microsoft Corp.
 Redseen. 『샤이 커스터마이징』. Redseen
 Riot Games, Inc.(2011). 『아리 삽화』.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諫山 創(2021). 『進撃の巨人, 139화, 땅울림』. 일본: 株式会社講談社.
<https://namu.wiki/jump/DIWvL28WRM%2Bu14kq0%2BS6MOCNz%2BEaLaAT34Fg%2FBMs%2BdNqMXqZ8fNWqzB2q17%2BRGncI9Fl3j4ZW118SlhikQKQ%3D%3D>
 羅貫中. 『소설만화 三國志 시리즈』. 그림: 園田光慶. 홍문서관♥

제어, Control, 制御

네이버(2008). 『나눔명조』.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2008). 『나눔바른고딕』.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2008). 『나눔손글씨 힘내라는 말보단』.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2008). 『나눔스퀘어라운드』.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2014). 『나눔명조체 옛한글』.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파파고 번역』. 경기: (주)네이버
 농업협동조합(1961). 『NH체크카드』. 서울: 농업협동조합
 우리은행(2023). 『청년도약계좌』. 서울: 우리은행
 레이놀즈의 자살 생각 척도; RSIQ. 『자살, 아동·청소년 자가진단』. 인천: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idcm.or.kr/diagnosis/diagnosis_100100.html
 롯데칠성음료(2015). 『제주사랑 감귤사랑』. 서울: (주)롯데칠성음료
 삼성. 『빅스비 번역』. 경기: (주)삼성전자
 스마일게이트RPG(2018). 『건설링어, 바드, 블레이드, 홀리나이트 육성』.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스마일게이트RPG(2018). 『도화가 육성』. 로스트아크. 경기: (주)스마일게이트 ENT..

<https://www.youtube.com/watch?v=wI0q0xi10Ng&t=12s>
 신한은행(2007). 『나라사랑카드』. 서울: 신한은행
 천안시(1990). 『천안시립 중앙도서관』. 천안
 펠어비스(2015). 『샤이 욕성』.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ZofUguYleTc>
 펠어비스(2015). 『오네트, 오도어 정령수 재료 수집 및 완성』. 검은사막. 경기: (주)펠어비스
 한글과컴퓨터(2013). 『한컴오피스 2014 한글 구동방식』. 경기: (주)한글과컴퓨터
 카카오. 『Kakao i 번역』. 제주: (주)카카오
 한국은행(1950). 『대한민국 화폐』. 서울: 한국은행
 현대카드(2021). 『the Black Edition3』. 서울: (주)현대카드
 Adguard Software Limited(2010). 『AdGuard 광고 차단기』. 키프로스: AdGuard Software Limited
 Adobe(2012). 『Creative Suite 6: Photoshop 구동방식』. 미국: Adobe
 Blizzard ENT. Inc.(2015). 『사령관 자가라 능력 사용: 감염체 투하』.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5). 『사령관 카락스 능력 사용: 정화 광선』. 스타크래프트 II: 공허의 유산. 미국: Blizzard ENT. Inc.♥
 Chad Meredith Hurley, Jawed Karim, Steve Chen(2005). 『YouTube』. 미국: YouTube
 desmos. 『그래핑 계산기 활용』. <https://www.desmos.com/calculator?lang=ko>
 Facebook Search Engine(2004). 『정은영』. 미국: Meta Platforms Inc..
<https://ko-kr.facebook.com/public/%EC%A0%95%EC%9D%80%EC%98%81>
 Firaxis Games(2010). 『Sid Meier's Civilization V』. 미국: 2K
 GitHub(2008). 『GitHub 구동방식』. 미국: GitHub
 Google LLC. 『Google 번역』. 미국: Google LLC LLC.
 Microsoft Corp. Bing. 『Bing 번역』. 미국: Microsoft Corp.
 NERIS Analytics Limited. 『MBTI NERIS Type』. 16personalities♥
 Online Tools. 『SHA3-512 online hash function 활용』.
https://emn178.github.io/online-tools/sha3_256.html
 Tim Kemp(2002). 『TortoiseSVN 구동방식』. GNU General Public License
 Wizet(2003). 『비숍 욕성』.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슨코리아
 Wizet(2003). 『오르비스 탑 등반』. 메이플스토리. 경기: (주)넥슨코리아

♣ 외부참고, Out Reference, 外部參考

오프닝

글, Text, 經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9&lsiSeq=236301#0000>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서울: 대한민국국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108&lsiSeq=206602#0000>
서울대학교병원. 『중등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84037&cid=51007&categoryId=51007>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방앗간 비둘기(2015).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리마스터 (황무지 난이도) 재생목록』. 방앗간 비둘기♥

Realboy32R(2014).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 한글자막 시네마틱 트레일러 (E3 2014)』. Realboy32R♥

Anthony Russo, Joe Russo(2019). 『‘Hey, Cap, you read me? Cap, It’s Sam. Can you hear me?’ 직후 4초 후부터 126초간』. Avengers: Endgame. 미국: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Christopher Nolan(2014). 『‘What is that? I think it's them. Distorting space-time. Don't! Don't!’ 직후 12초 후부터 10초간』.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나영석, 장은정(2020). 『[ENG/신기한 과학나라 FULL ver]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심화반 수업 ! | 금요일 금요일 밤에 Friday Joy Package EP.9』. 서울: tvN

정영진 장항준의 편의점 클라쓰e(2021). 『아인슈타인은 왜 죽을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을까?(김상욱)』. 경기: 한국교육방송공사

Remedy Entertainment(2016). 『월 구출하기: 월 찾기, ‘[월리엄] 잭! 뛰어!’ 직후 5초 후부터 11초간』. 퀀텀 브레이크. 미국: Xbox Game Studios, 핀란드: Remedy Entertainment♥

SBS 뉴스(2020). 『[한여름밤 '수영장 파티'...마스크·거리두기 모두 없었다 / SBS』. 서울: (주)에스비에스

봉준호(2019). 『‘이건 일종에 동행이 아닐까. 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해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직후 1초 후부터 2초간』. 기생충. 서울: (주)바른손이엔에이, CJ ENT.

음원, Sound, 音源

Lorde(2013). 『Royals』.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에일리(2013). 『U&I』. 서울: (주)와이엠씨 ENT., 제주: (주)카카오 ENT.

방탄소년단(2017). 『봄날』. 서울: (주)빅히트 뮤직, (주)와이지플러스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3512.8340859,4515550.6252097,14,0,0,0,dha&p=U LZWB3ezhhyJ15x1sMkoZQ,-120.99,-14.25,80,Float>』.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VdVxqpkY6Dter4TCLIdj-Q,151.85,38.72,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ETIDx939m5C3zkXnmNb9Hw,31.56,-4.85,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qxQa8XZJ1DRWswRMlvBAXA,-25.21,-10.76,80,Float>』 . 경기: ㈜네이버
32쪽. 나우뉴스 안정은 기자(2017). 『‘핵전쟁’ 대비 세계 첫 한국산 개인용 병커 판매』 .
㈜서울신문사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ZFirzpC2ab420o10PD-8lg,-69.14,39.2,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eoess_yNseq_TCDwUIYrCVg,-137.25,-10.37,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AV3YZfrtBC8RwYA-bOJSyQ,-102.86,-7.29,80,Float>』 . 경기: ㈜네이버
안전(1447). 『몽유도원도』 . 일본: 天理大學 中央圖書館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CrrpaD-EtN-XjzFGv52XaYw,127,-15.9,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M-eLw-DvSLUOrvb-VSV1qA,153.16,-6.2,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aAKcs8exaleRUOPpkierSQ,-149.05,-13.13,80,Float>』 . 경기: ㈜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7DsJ-ovakkIqdfYIQkEGWw,-47.33,-3.87,80,Float>』 . 경기: ㈜네이버
Google Street View.

『<https://www.google.com/maps/place/Southside+ Preparatory+ Academy/@25.7615749,-80.1938388,3a,75y,282.89h,85.84t/data=!3m6!1e1!3m4!1svBSWw4Ecnwg5GGBdp1M2aw!2e0!7i16384!8i8192!4m7!3m6!1s0x88d9b686bf1ddbed:0x5e587a756d959f62!8m2!3d25.7617199!4d-80.1941475!14m1!1BCgIgARICCAI>』 . 미국: Google LLC
권스샵(2012). 『홍익여자고등학교 진로상담실(커리어존)진로상담실 ,위클래스,weeclass
인테리어 공사,학교공사』 . 권스샵. <https://blog.naver.com/gigikk/150151139754>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7543.3566252,4513303.1203101,17,0,0,0,dha&p=v>

90ba2pngKt7VdWat3vLpA,-107.2,-7.77,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1Hm3a_xRWHkrWxy71EK9mA,66.28,-11.3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q95gfnv-pK9QjjJJkV6Mhw,127.12,0.9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701.1238572,4511724.1061653,17,0,0,0,dha&p=dU9r7sEj37puDCwGBTVxAg,-124.79,-2.08,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2294.0860368,4480100.9602240,17,0,0,0,dha&p=2n9TcuyCW2zn6z8uBsB6TA,-84.43,-2.54,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2294.0860368,4480100.9602240,17,0,0,0,dha&p=JQ07lllpOqfTj_YpOgZiDg,-173.1,-4.79,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3243.8750642,4480581.3479297,16,0,0,0,dha&p=DG9r3CFOtOghIraNUEPP7A,-153.04,-4.8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iEy7TvJnpz30lqFwcZoxxw,108.2,-5.9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epymboWjrBbgMxyW25-pvQ,-44.83,16.39,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4t1hAEG9YQqyEy1DYVxqOQ,43.98,-24.63,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AqzbAHI72UZDS907I1eINw,-107.2,-10.7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UuURi59X45d3GxJES3a6EQ,-19.09,-57.06,52,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KzM7AYIO_Yf5g7wqq0_hXQ,33.01,3.59,52,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Jw4d7Soad3SJmPVFEn0dnQ,44.79,4.98,52,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X-CmaiFcli0WaahEOzsWlA,38.22,0.12,52,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4434.7153170,4477621.4279753,15,0,0,0,dha&p=oejSnxmbKE73l5RDVg1Rg,-171.13,-15.92,61.19,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WMqtYamLSJBCicedMYEOzQ,-28.51,12.9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re57rZVQkEZlWvFhdoIA6w,163.56,-1.56,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TmxyWPeo8JDZlIXbUd03w,35.09,-6.8,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npXVKMOPGUjDRedJ1ruXIA,170.48,16.64,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CLWvbyMaXmJ9OnQKyelRw,-149.26,14.22,80,Float>』 . 경기: (주)네이버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zRuLHLsZELv2vd9F5IkNQ,-30.11,13.01,80,Float>』 . 경기: (주)네이버
SEOUL SKY.

『https://seoulsky.lotteworld.com/seoulsky/images/kor/contents/img_skybridge03.jpg』 .
LOTTE WORLD. 서울: (주)롯데건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2021). 『"롯데월드타워 옥상서 '라이온킹' 노래,
무서웠냐고요?"』 . 서울: CBS기독교방송
SciNews(2016). 『Gravitational waves detected by LIGO』 . 미국: ScienceNews와 함께
(주)네이버 이미지 검색. 『초입방체』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ion=image&query=%EC%B4%88%EC%9E%85%EB%B0%A9%EC%B2%B4&res_fr=0&res_to=0&sm=tab_irq&color=&ccl=0&nso=so%3Ar%2Ca%3Aall%2Cp%3Aall&recent=0&datatype=0&startdate=0&enddate=0&gif=0&optStr=&nso_open=0&pq=#imgId=image_sas%3Acafe20162475%7C189%7C25154_9
네이버 거리뷰.

『https://map.naver.com/v5/?c=14148800.4319749,4514716.9622361,17,0,0,0,dha&p=ynxukDpocptM6bGW_DwEiQ,143.09,-90,80,Float』 . 경기: (주)네이버
Christopher Nolan(2014). 『웜홀』 . Interstellar. 미국: Legendary ENT., Lynda Obst
Productions, Paramount Pictures Corp., Warner Bros. ENT. Inc., 영국: Syncopy Films
Inc..

[https://www.google.com/search?q=%EC%9B%9C%ED%99%80&newwindow=1&source=l
nms&tbm=isch&sa=X&ved=2ahUKEwiquMTK2Jz0AhXjJKYKHyeAT0Q_AUoAXoECAEQ
Aw&biw=1542&bih=850&dpr=1.05#imgsrc=V5xQPdC0BFjSTM](https://www.google.com/search?q=%EC%9B%9C%ED%99%80&newwindow=1&source=l
nms&tbm=isch&sa=X&ved=2ahUKEwiquMTK2Jz0AhXjJKYKHyeAT0Q_AUoAXoECAEQ
Aw&biw=1542&bih=850&dpr=1.05#imgsrc=V5xQPdC0BFjSTM)

Google Street View.

『[https://www.google.com/maps/place/100+ St+ Thomas+ Line,+ Paradise,+ NL+ A1L+ 1
K9+ %EC%BA%90%EB%82%98%EB%8B%A4/@47.5361731,-52.8975255,3a,90y,111.29
h,91.27t/data=!3m6!1e1!3m4!1syPZWqtM5conDKIR-Cvu-mA!2e0!7i16384!8i8192!4m5!3
m4!1s0x4b0cbafc41a9ec07:0xdae9f8ef237232b3!8m2!3d47.5361676!4d-52.896868979
172965](https://www.google.com/maps/place/100+St+Thomas+Line,+Paradise,+NL+A1L+1K9+%EC%BA%90%EB%82%98%EB%8B%A4/@47.5361731,-52.8975255,3a,90y,111.29h,91.27t/data=!3m6!1e1!3m4!1syPZWqtM5conDKIR-Cvu-mA!2e0!7i16384!8i8192!4m5!3m4!1s0x4b0cbafc41a9ec07:0xdae9f8ef237232b3!8m2!3d47.5361676!4d-52.896868979172965)』. 미국: Google LLC

Hermès(1984). 『버킨백, <https://www.hermes.com/kr/ko/content/297715-birkin/>』.

프랑스: Hermès International S.A.

제어, Control, 制御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Quantic Dream(2016). 『㉠ 저 너머로, ㉡ 삶』. Beyond: Two Souls. 미국: Sony
Computer Entertainment. 프랑스: Quantic Dream

Vell

글, Text, 經

Christian Henry Bateman(1843).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영국

Christian Henry Bateman(1843). 『성도여 다함께』. 박철순 역. 대한민국♥

SNK Corp.(2010). 『VS 네스츠편 쿠사나기교, 레오나 승리대사』. THE KING OF
FIGHTERS XIII. 일본: SNK Corp..

[https://namu.wiki/w/%EB%8D%94%20%ED%82%B9%20%EC%98%A4%EB%B8%8C%20
%ED%8C%8C%EC%9D%B4%ED%84%B0%EC%A6%88%20%EC%8B%9C%EB%A6%AC%
EC%A6%88/%EC%8A%A4%ED%86%A0%EB%A6%AC%20%EB%B0%8F%20%EB%8C%8
0%EC%82%AC/XIII/%EB%A0%88%EC%98%A4%EB%82%98%20%ED%95%98%EC%9D
%B4%EB%8D%B0%EB%A5%B8#s-35](https://namu.wiki/w/%EB%8D%94%20%ED%82%B9%20%EC%98%A4%EB%B8%8C%20%ED%8C%8C%EC%9D%B4%ED%84%B0%EC%A6%88%20%EC%8B%9C%EB%A6%AC%EC%A6%88/%EC%8A%A4%ED%86%A0%EB%A6%AC%20%EB%B0%8F%20%EB%8C%80%EC%82%AC/XIII/%EB%A0%88%EC%98%A4%EB%82%98%20%ED%95%98%EC%9D%B4%EB%8D%B0%EB%A5%B8#s-35)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김현정(2021).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10대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655매"』. 서울: CBS기독교방송

네오플(2019). 『[던파] 캐릭터 시네마틱 영상 - 인첸트리스』. 던전앤파이터. 경기:

(주)넥슨코리아와 함께 심형섭(2020). 『토가미 바쿠야 자유행동 1~5, 0:53 ~ 1:04』. 미국:
심형섭♥

소니쇼게임방송(2020). 『전학생 라이브, 5:00 ~ 8:06』. 소니쇼게임방송

Blizzard ENT. Inc.(2013).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Opening Cinematic』.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6). 『D.va 대사: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Overwatch. 미국:
Blizzard ENT. Inc.♥

Riot Games, Inc.(2011). 『영겁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Todd Phillips(2019). 『Joker, And you had to look that up? I want to get it right.
직후 2초 후부터 10초간』. 미국: Warner Bros. ENT. Inc.♥

음원, Sound, 音源

2WEI(2020). 『You Really Got Me(Wild Rift launch trailer)』. League of Legends:
Wild Rift. 미국: Broadcast Music, Riot Games, Inc.

Blizzard ENT. Inc.(2010). 『우주모험 대사: 이미 이긴 전투다.』. 스타크래프트 II.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3). 『Official Opening Cinematic Main Theme』.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Florida Georgia Line(2012). 『Cruise』. 미국: Big Machine Label Group, Universal
Music Group Inc.

Marcin Przybyłowicz(2020). 『V』. 사이버펑크 2077. 폴란드: CD Projekt S.A.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국산고릴라(2020). 『썸썸스포) 방예나는 진짜 제일 불상하다』. 국산고릴라
네이버 검색엔진. 『프릴 수영복』. 경기: ㈜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94%84%EB%A6%B4+%EC%88%98%EC%98%81%EB%B3%B5

CYCLONE(2015). 『Fei Tas, 표지 ~ 12쪽』. 리인 역

Naughty Dog(2013). 『엘리 표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미국: Sony Interactive ENT.
Inc..

https://www.google.com/search?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tbm=isch&ved=2ahUKEwi3n4OCutn0AhWRuJQKHYYRDzYQ2-cCegQIABAA&oq=%EB%9D%BC%EC%8A%A4%ED%8A%B8+%EC%98%A4%EB%B8%8C+%EC%96%B4%EC%8A%A4&gs_lcp=CgNpbWcQAz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yBQgAEIAEMgUIABCABDIFCAAQgAQ6BggAEAgQHjoECAAQGDoGCAAQBxAeOgYIABAFEB5QigJYgQVg-QZoAHAAeACAaw2IAZcDkgEDMS4zmAEAoAEBqgELZ3dzLXdpei1pbWfAAQE&scient=img&ei=jGWzYbepFZHx0gSGo7ywAw&bih=925&biw=1544#imgsrc=hJjZWbA_SKikVM

P&G. 『다우니 퍼퓸 블랙 미스틱 향 2L』. 미국: Procter & Gamble Company

タイガー小堺(2017). 『女のオーガズムは男の10倍！完全主観
女目線で自分のカラダがイキまくる！女だらけのいいなりレズ女子寮, 1:10:26 ~ 2:02:45』.
일본: SODクリエイト株式会社

ワンズファクトリー(2015). 『監禁オイルマッサージ 鬼イカセ中出しレ×プ 麻倉憂, 41:20 ~ 1:02:43』. 일본: ワンズファクトリー

제어, Control, 制御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Vell: Execution

글, Text, 經

Christian Henry Bateman(1843).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영국

Christian Henry Bateman(1843). 『성도여 다함께』. 박철순 역. 대한민국♥

SNK Corp.(2010). 『VS 네스츠편 쿠사나기쿄, 레오나 승리대사』. THE KING OF FIGHTERS XIII. 일본: SNK Corp..

<https://namu.wiki/w/%EB%8D%94%20%ED%82%B9%20%EC%98%A4%EB%B8%8C%20%ED%8C%8C%EC%9D%B4%ED%84%B0%EC%A6%88%20%EC%8B%9C%EB%A6%AC%EC%A6%88/%EC%8A%A4%ED%86%A0%EB%A6%AC%20%EB%B0%8F%20%EB%8C%80%EC%82%AC/XIII/%EB%A0%88%EC%98%A4%EB%82%98%20%ED%95%98%EC%9D%B4%EB%8D%B0%EB%A5%B8#s-35>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네오플(2019). 『[던파] 캐릭터 시네마틱 영상 - 인첸트리스』. 던전앤파이터. 경기:

(주)넥슨코리아와 함께 심형섭(2020). 『토가미 바쿠야 자유행동 1~5, 0:53 ~ 1:04』. 미국: 심형섭♥

소니쇼게임방송(2020). 『전학생 라이브, 5:00 ~ 8:06』. 소니쇼게임방송

Blizzard ENT. Inc.(2013). 『오프닝 시네마틱 영상』. 스타크래프트 II: 군단의 심장. 미국: Blizzard ENT. Inc.♥

Riot Games, Inc.(2011). 『영겁의 사냥꾼 킨드레드 - 로그인 화면』.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Todd Phillips(2019). 『Joker, And you had to look that up? I want to get it right.

직후 2초 후부터 10초간』. 미국: Warner Bros. ENT. Inc.♥

음원, Sound, 音源

2WEI(2020). 『You Really Got Me(Wild Rift launch trailer)』. League of Legends: Wild Rift. 미국: Broadcast Music, Riot Games, Inc.

경서(2022). 『나의 X에게』.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꿈의엔진

BIG Naughty(2022). 『정이라고 하자』. 경기: (주)카카오 ENT., 서울: H1GHR MUSIC RECORDS

Blizzard ENT. Inc.(2010). 『우주모험 대사: 이미 이긴 전투다.』. 스타크래프트 II.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3). 『Official Opening Cinematic Main Theme』. 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미국: Blizzard ENT. Inc.♥

Blizzard ENT. Inc.(2016). 『D.va 대사: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Overwatch. 미국:

Blizzard ENT. Inc.♥

Florida Georgia Line(2012). 『Cruise』.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Inc., Big Machine Label Group

Marcin Przybyłowicz(2020). 『V』. 사이버펑크 2077. 폴란드: CD Projekt S.A.

Riot Games, Inc.(2011). 『[롤] 리그오브레전드 킨드레드 한국어 대사』. 리그오브레전드. 미국: Riot Games, Inc.♥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국산고릴라(2020). 『썸썸스포) 방예나는 진짜 제일 불상하다』. 국산고릴라

네이버 검색엔진. 『프릴 수영복』. 경기: (주)네이버.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94%84%EB%A6%B4+%EC%88%98%EC%98%81%EB%B3%B5

P&G. 『다우니 퍼퐁 블랙 미스틱 향 2L』. 미국: Procter & Gamble Company

ワンズファクトリー(2015). 『監禁オイルマッサージ 鬼イカセ中出しレ×プ 麻倉憂, 41:20 ~ 1:02:43』. 일본: ワンズファクトリー

제어, Control, 制御.

(주)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주)네이버

WITH ARI ♥ 아리랑

동적영상, Dynamic Image, 動的映像

게임으로 하는 영어공부 쉼도잉 아르문드 미터디(2019). 『게임으로 공부하자!

스타크래프트로 쉼도잉하기 테란 부관편 - 아르문드 미터디 - 미디어로 영어공부하자 /

Arrmund's Midea Study - terran advisor, 1:50 ~ 2:03』. 게임으로 하는 영어공부

쉼도잉 아르문드 미터디♥

박성훈(2015). 『K팝스타 시즌4: 18회150322, 박윤하: 가시나무/시인과 촌장』. 서울:

(주)에스비에스

음원, Sound, 音源

크라이넛(2006). 『OK 목장의 젓소』. 경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서울: DRUG RECORDS

정적영상, Static Image, 靜的映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극기』.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어, Control, 制御

네이버(2008). 『나눔명조체』. 경기: 네이버

도움을 주신 분들, Thanks to, 謝謝

나무위키, 대한항공, 더샵레지던스, 데일리컴, 동양고속, 레오폴드, 리버네트워크, 모닝글로리, 문피아, 문학동네, 미래생활, 빵무늬, 보성지앤피, 삼일제약, 서울교통공사, 신성조, 씨모랩, 쓰리알시스,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아이구주, 아이존아이앤디, 아작, 아프리카티비, 애터미, 앱코, 어소트랙, 엑토, 오뚜기, 웅진, 이담, 이엠케이, 이엠텍, 이지넷유비쿼터스, 정한테크, 조아라, 카카오, 코레일, 코비, 파주컴, 편리한입, 한글과컴퓨터, 한미마이크로닉스, 한성컴퓨터, 해태, 허블, 화이트홈인테리어, 4K Download, Advanced Micro Devices, AIMP, AIZIM, ALSEYE, Amuse, ASRock, ASUS, AVerMedia, BASMAN, BIOSTAR, blender, Bongocat, BOSE, BRAUN, BRAVOTEC, Bugs, Cartier, CHANEL, CPUID, CROSSOVER, Crystal Dew World, DAKS, DASAN, Deepcool, DL건설, ffmpeg, Fractal Design, FreeFileSync, FSP, Galaxy Microsystems, Gamepad Viewer, GIMP, GitHub, Good Morning Data, Hansuan_Fabregas, HDC현대산업개발, HL D&I Halla, HP, IN Network, Inkscape, INTEL, Kana Solution, KCC, KMPlayer, KT, LG, LOADUS, Logitech, MALWARE ZERO, MANJIZAK, Maxon Computer GmbH, Microsoft, mstone, NohBoard, NVIDIA, OBS Studio, OpenWeather, PEGATRON, PHILIPS, Ragowit, RAZER, realesrgan-ncnn-vulkan Roberto Ierusalimsky, Samsung, SAP, Shotcut, SK Telecom, SoraYuki, STCOM, TDK, Twitch, Ultraleap, Veintion, VESSOF, VRoid Studio, UIPath, VSeeFace, Western Digital, Wikipedia, YouTube, ZEN, ZIO, μ Torrent, 비공개 등... 미안합니다. 다 못 썼어요ㅠㅠ. 까먹었습니다ㅠㅠ. 저도 속상하네요;;

후원목록, Sponsor List, 後援目錄

감자튀김, 동그라미, 육정과탐닉, 허당, GUN파이, khgkbs3

글 기록, Text Record, 經記錄

공유 ShareW이야기 StoryW아리슬 ARYSLE

- 네이버 MYBOX: <http://naver.me/55yKInDM>
- Google Drive: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Qizl_xx2Nj3z1ugLXpJaJz6V8UvZeV3O?usp=sharing
- Mega Drive: https://mega.nz/folder/EGxDyTKQ#6_paoqaWY8vXvbC9bUvmuQ
- GitHub: <https://github.com/heaeny/OVWA>

버그 수정 및 문의 메일

heaeny@gmail.com

heaeny@naver.com

추신 P.S. 追伸:

이 문서의 참고문헌은 2022년 9월 24일 기준으로 개인 이름, 기업체명, 제품명, 지명 등이 표기되어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문의 메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메일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As of September 24, 2022, the references in this document are marked with corporate names, individual names, and place names, product names, etc. If there are any errors or corrections based on the date, please contact me by e-mail. All other emails will be omitted.

截至2022年9月24日, 本文件中的引用标有公司名称, 个人名称, 地名, 产品名称等。如果有任何错误或更正的日期, 请通过电子邮件联系我。所有其他电子邮件将被省略。

저작권 등록증은 공유폴더 내에 배치해두었습니다.

The copyright registration certificate has been placed in a shared folder.

版权登记证书已放在共享文件夹中。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Your donation is a great help to the production.

您的捐款对生产有很大的帮助。

투네이션: <https://toon.at/donate/638076588437653254>,

제일, (SCBLKRSE, 023): 67920084493

Twip: <https://app.twip.kr/donate/heaeny>,

하나, (KOEXKRSE, 081): 68091060909907



아리는 바다를 보고 싶었다.
아리는 바다처럼 보이는 저 지평선으로 가보았다.
그곳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고 또 다시 바다 같은 것이 저 멀리 보였다.
아리는 눈을 감고 바다를 보지 않으려 했다.
아리는 바다를 보며 정처 없이 길을 헤매이다 곧 자신이 누울 자리를 보았다.
아리는 천천히 李永茂라는 용이래 자신이 들고 있는 붓을 대었다.
그리고 아리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리는 붓을 들었던 오른팔을 떼어냈다.
아리는 자신의 뼈와 살이 조금씩 녹아 지면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언니, 괜찮으세요? 계속 말이 없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재미없다."
"그래도 우리 많은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몇 개 더 얘기는 했지만 언니가....., 이젠 아무래도 못 들은 것 같고요."
"들었어, 나쁜 꼴어도 보고, 그런데 얘기 안 할라고, 어차피 난 이해하는 사람인데 뭘,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하지, 아길 그걸 그렇게 늘 것 같아, 그렇게 두면 이젠 잊어버릴 것 같 알아, 그래서 그렇게 잊어버리는 내가 이제 좋아했어."
"잊지 말아요, '다 나은 세상'이 언니 꿈이었잖아요."
"괜찮아, 세상은 걱정하지 마. 어련히 다 해결될 거야. 어련히 다 잘 살아가겠지. 나 그리고 이젠 진짜 내려놔. 난 이제부터 진짜 문제 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난 드디어 나를 용감시킬 수 있는 꿈을 떠올렸거든, 그 꿈 때문에 진짜로 막 그 꿈을 떠올린 때부터 여기 이 세상 안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솔직히 이제 그날 관심이 없어."
"무슨 꿈이에요? 공유해주세요. 궁금해요."
"그래, 우리 주머니까 특별한 알려줄게, 난 이 우주들....."
"....."
"벗어나고 싶어."
"아하하, 너무 꿈이네요, 그런 것도 좋아요, 언니는 늘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수아와 같은 친구들, 동생, 언니오빠들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혼자면 심심하니까, 하하, 내가 꿈 꿈이 그렇지?"
"언니 야말이 돋보이네요, 좋아요. 그런 꿈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
해운은 수아의 허벅지를 만졌다, 치맛주름이 퍼졌다, 해운이는 두어 번 더 허벅지를 때만지더니 자신의 머리를 뒤었다. 수아는 흔들거리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해운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수아는 곧 자신의 살이 파듯하게 푹드는 것을 느꼈다.

오랜 잠을 잔 아리는 눈을 떴다.
아리는 천천히 눈꺼풀을 더 들어 올려 자신의 팔뚝을 보았다.
아리는 아직 자신의 뼈와 살이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리는 자신의 팔뚝을 깨만쳤다.
아리의 살은 그때보다 조금 더 주름이 졌다.
그때도 행복했다.
누군가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리의 머리를 내려고 곧 아리 옆에 누웠다.
스러였다.
그 오랜 시간 스리는 아리의 머리를 뼈에 주고 있었다.
스리는 아리와 눈이 마주쳤다.
아리와 스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스리는 말없이 웃었다.
아리는 콧방귀를 끼며 입을 열었다.
"도 나야?"